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07-14



THE HISTORY OF ANYANG CITY

02

역사와 지역사회

안양^{安養}은 불교에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극락정토를 의미한다. 안양의 지형은 다양한 교통로를 형성하기에 유리했으며, 한강 유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를 이루면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계승하며 현재의 안양으로 발전시켜 왔다.



제02권
역사와 지역사회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紇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고대사회와 안양의 형성

제1장 매장유산으로 보는 선사문화 / 08

1. 고고학과 매장유산 / 009
2.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고고학 / 013
3. 안양의 선사시대 문화 / 015

제2장 고대인의 세력 진출 / 038

1. 고대의 교통로와 안양의 특성 / 039
2. 안양지역의 마한 사회와 백제화 과정 / 042
3. 고구려의 남하와 신라의 진출 / 046
4. 신라 중·하대 안양지역의 변화 / 049

2 고려의 성립과 안양 세계

제1장 니발여초 지역 동향과 고려의 후삼국통일 / 060

1. 고을 간 경계 지대로서의 입지 / 061
2. 공예 정권의 남방 경략 / 065
3. 태조 왕건의 남방 경략과 안양사 / 067
4. 고려의 후삼국통일과 주변 호족 세력의 협력 / 070

제2장 지방행정과 사회·경제 / 074

1. 주현(州縣制)과 10도제(十道制)의 실시 / 075
2. 주현(主縣)-속현(屬縣) 제도의 성립과 운영 / 078
3. 고려 중·후기의 지방제도 개편 / 080
4. 지방사회의 하부구조와 사회경제적 동향 / 083

제3장 불교의 극락정토 세계 '안양' / 088

1. 불교의 이상세계 극락정토 / 089
2. 고려 사회에서의 불교 / 092
3. 극락정토의 구현 안양사 / 096

3 조선시대 통치체제와 지역사회

제1장 지방통치제도와 군제 개편 / 104

1. 지방통치와 행정구역 / 105
2. 지방 군제의 성립과 변천 / 115

제2장 안양지역의 사회와 경제 / 120

1. 안양지역의 생활 공간 / 121
2. 안양지역의 경제 생활 / 127

제3장 정조의 원행과 만안교 / 132

1. 정조의 원행 / 133
2. 만안교와 안양발사의 설치 / 144

제4장 기독교의 전래와 확산 / 150

1. 천주교 전래와 확산 / 151
2. 개신교의 전래와 확산 / 158





4 한말 및 일제강점기 안양의 사회경제적 변화

제1장 지방제도와 지방행정의 변화 /170

1. 한말 안양지역의 행정구역 범위와 변화 /171
2. 일제강점기 서이면의 성립과 지역사회 변화 /176

제2장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본 토지 소유구조 /186

1. 한말 일제초의 토지소유구조 / 187
2. 안양지역 광무양전의 실시 과정과 결과 /188
3. 안양지역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과정과 결과 /192
4.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198

제3장 안양지역의 민족운동 /210

1.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211
2.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220
3.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233

제4장 일제강점기 전시체제하 사회경제적 수탈 /242

1. 전시 지방행정 업무 확대와 읍면직원 증원 /243
2. 전시체제하 총동원 기구의 조직과 확대 /246
3. 전시 총력동원과 수탈 /255
4. 서이면장의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1937.7.7~1940.4.28)'를 통해 본 동원과 수탈 /262

제5장 일제 말기 시흥군민이 경험한 강제동원 /266

1.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강제동원 /267
2.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시흥군 출신자 /270
3. 굴종하지 않는다 /281
4. 마무리글 /282

5 해방 후 현대 안양의 지역사회

제1장 안양사람들의 해방과 한국전쟁 /290

1. 해방과 미군정 시기 안양 /291
2. 정부수립 전후 안양 지역사회의 변화 /302
3. 한국전쟁과 안양 /305

제2장 농지개혁과 농촌사회의 변화 /320

1. 해방 후 안양의 농촌 상황 /321
2. 농지개혁의 실시와 농촌사회 변화 /325
3.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농업·농촌의 위상 변화 /333

제3장 안양시의 성립과 사회변동 /338

1. 안양읍 승격과 공업화의 전개 /339
2. 안양시 승격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 /344
3. 신도시 개발과 새로운 발전의 모색 /356

6 안양의 인물과 민속

제1장 역사시대 인물 /362

제2장 근현대 인물 /388

제3장 세시풍속과 마을신앙 /418

1. 안양시의 지리적 환경과 민속 /419
2. 세시풍속 /420
3. 마을신앙 /427
4. 오늘날의 마을신앙 /430
5. 글을 마치며 /449

제4장 두레와 구비전승 /452

1. 안양시의 민속 /453
2. 안양시의 구비전승 /466



01 고대사회와 안양의 형성

제1장 매장유산으로 보는 선사문화

제2장 고대인의 세력진출



안양지역은 한강 하류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을 중심으로, 학의천·삼막천·삼성천 등의 작은 지류가 합류하는 지역이었으며, 관악산·청계산·수리산 등의 비교적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 하천과 높은 산은 자연스럽게 하천 수계와 고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로를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안양의 지리적 특징은 선사와 고대 한강 유역의 역사적 변천과 맞물려 다채롭게 활용되었다.

1장

매장유산으로 보는 선사문화



강병학 재단법인 한양문화재연구원 이사장/원장



1. 고고학과 매장유산

1) 고고학의 정의와 목적

고고학이란 과거 인류들이 남긴 잔존물을 통해 과거 문화를 복원하고 그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과거 인간들의 활동은 반드시 그 잔존물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유물(遺物, artifact), 유구(遺構, feature), 유적(遺蹟, site)¹ 등의 고고학적 자료이고, 이 물질적 잔존물을 통해 고고학의 연구가 이루어진다.

고고학(考古學)이라는 단어는 서양에서는 그리스어의 Archaios(고대·고전)와 Logos(학문)가 합쳐진 Archaialogia의 영어인 Archaeology의 번역이다. 동양에서는 한자로 고고(考古)라 함은 옛(古)것을 생각한다(考)는 두 문자의 결합이다. 따라서 고고학이란 말의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과거와 관련된, 옛날의 사건을 다루는 학문을 뜻하는 어원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²

고고학의 분야는 연구대상의 시간적인 범위에 따라 크게 선사고고학(先史考古學)과 역사고고학(歷史考古學)으로 구분된다. 선사고고학이란 인류가 등장한 이후 문자에 의해 기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역사고고학이란 문자에 의해 기록이 등장한 이후의 고고학을 말한다. 한국고고학의 경우 전자는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초기철기 및 원삼국]까지이고, 후자는 삼국시대 이후의 고고학에 해당한다.



안양2동 15-16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유적(위), 유구(1호 우물),
유물(자기류와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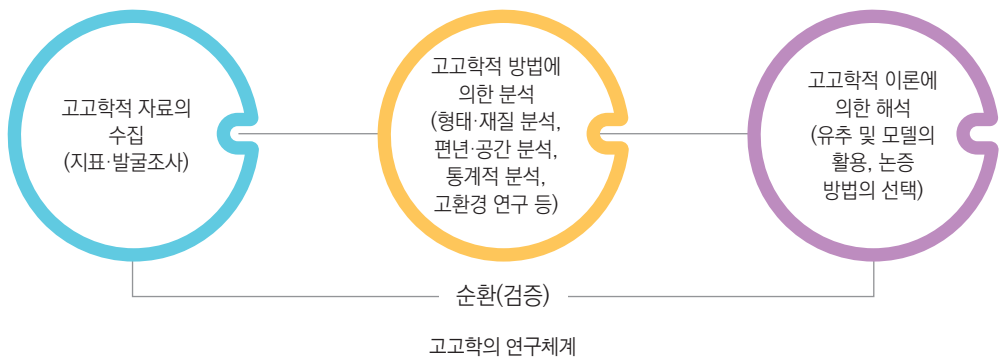
2) 고고학의 연구체계

고고학의 연구체계³는 자료의 수집·분석·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석 결과는 다시 새로운 자료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는 등 이들 각 단계는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다.

자료의 수집단계는 크게 지표조사^{地表面調査}와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있다. 지표조사는 유적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발굴에 앞선 예비조사의 성격이며, 발굴조사는 유물과 유구의 상태, 공반^{共伴}관계, 층서^{層序}관계 등을 찾아내어 당시 사람들의 행위나 생활방식 등을 구명하는 단계이다.

분석단계는 유물의 형식 분류나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자료의 시간성과 공간성 및 인간행위를 추론하게 된다. 고고학에서 시간에 대한 연구법으로 연대측정법^{年代測定法}이 있는데 이는 상대연대^{相對年代}와 절대연대^{絕對年代}로 나누어진다.⁴ 특히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이 개발된 이후 자연과학적인 측정법이 발달되면서 고고학의 연대가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활동과 함께 사회의 복원을 시도할 수 있으며, 당시 환경이나 기능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다.

해석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추론을 거쳐 과거문화를 해석하는데, 추론에서는 민족지자료, 문헌자료, 실험고고학 등이 이용된다. 문화의 해석에는 진화론, 전파론, 문화유물론, 문화생태학 등 문화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과 이론이 요구된다.



3) 매장유산의 개념과 조사방법

‘매장유산’이라는 용어는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개칭되면서 ‘매장문화재’라는 용어의 대응어로 탄생하게 되었다. 즉, 재화[文化財]에서 유산[國家遺産]으로의 가치체제가 변화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국가유산의 분류 및 체계도 아래의 표와 같이 재정립되었다.

국가유산 분류 체계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 신앙의식 등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등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시도 등록(문화)유산	-			
포괄적 관리	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매장유산埋藏遺産이란 ①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②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③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⁵ 즉 매장유산은 문화유산 중 유형별 유형문화유산 내에 속해 있다.

매장유산 조사란 고고학적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 즉, 유물의 출토위치·상태, 유물과 유구의 출토 상태, 유구간 조합 상태, 층서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여 과거의 생활환경과 문화양상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매장유산 조사에는 크게 지표조사와 참관조사, 발굴조사로 구분되는데, 지표조사는 다시 육상지표조사와 수중지표조사로 분류된다. 매장유산 발굴조사는 조사의 면적 및 방법에 따라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세분되어 있다.

지표조사는 지표에 드러난 문화유산 혹은 매장유산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하지 않은 채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해당지역의 문화[매장]유산 존재 여부 및 분포범위, 그리고 수습된 유물을 통해 그 시대, 성격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참관조사는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표본조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시굴조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하는 방법으로 표본조사와는 달리 허가를 득하여야만 조사가 가능하다. 정밀발굴조사는 표본조사나 시굴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확인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최종단계의 매장유산 조사법을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매장유산의 복원·정비·활용·보호 등이 이루어진다.

2.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고고학

고고학은 인류의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역사학 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헌사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과거를 복원하는 문헌사학과는 다루는 자료나 연구방법이 다르다. 또한 문헌사학은 문자에 의해 기록된 시대[歷史時代]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자가 출현하기 이전 시대[先史時代]의 연구는 물질적 자료를 다루는 고고학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문자가 출현한 시대라 하더라도 문헌은 인류의 과거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아니며, 기록되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고학은 문헌사학과 함께 역사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두 다리로 직립 보행하는 인류의 출현은 화석 인골에 의하면 약 700만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무렵의 석기石器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가장 오래된 석기는 깨뜨려 만든 타제打製석기로 약 260만~250만 년 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말하는 인류의 과거는 여기가 출발점이 된다. 그 이전의 인류에 대해서는 화석 인골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류학人類學⁶의 분야이다.

1) 선사고고학

선사고고학은 문자기록이 없는 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이다. 선사고고학은 국가마다 다르게 구분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철기시대^{鐵器時代}로 나누고 있다.⁷

선사고고학은 문자기록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를 고고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연구할 수밖에 없다. 즉 고고학적 자료를 발굴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시간과 공간의 축을 설정하고, 자연유물을 통한 당시 환경을 복원한 후에 고고학적 이론에 의거하여 당시의 문화를 복원하게 된다.

구석기시대는 지질학적으로 신생대^{新生代} 제4기 홍적세^{洪積世}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인류의 진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체질인류학과의 공동연구가 있어야 하고 동·식물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생물학의 협업도 필요하다. 신석기시대는 신생대 제4기 충적세^{沖積世}에 해당하는데 후빙기^{後氷期}⁸로 기후가 온난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편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는 금속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금속제품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당시의 기술수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의 경우 철기시대에 이르면 자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중국문헌에 일부 나타나기 때문에 선사와 역사의 중간단계인 원사시대^{原史時代}에 해당한다.

2) 역사고고학

역사고고학은 문자기록이 나타난 이후 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이다. 역사고고학은 한국의 경우 그 시작을 고대사^{古代史}의 시작과 같이 고조선^{古朝鮮}과 삼한시대^{三韓時代}로 보는 견해와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체적인 기록이 나타나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보는 견해가 있다.

유럽에서는 역사고고학을 그리스·로마시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고전고고학과 중세교회·묘지·농경지·성채 등을 연구하는 중세고고학, 그리고 산업혁명 당시의 공장·철교 등 건축물과 사용도구 및 기계장치의 배치복원을 행하는 산업고고학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 밖의 서양의 성서고고학, 동양의 불교고고학과 같은 종교고고학도 있다.

역사고고학은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문화를 복원하여야 한다. 역사고고학의 연구목적은 과거 생활상의 복원, 문화변동의 연구,

유형화된 인간행위와 고고학적 자료 사이의 관계규명, 그리고 이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고고학적 원칙의 검증에 있다. 역사고고학이 단순히 역사학의 보조학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뚜렷한 연구목적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3. 안양의 선사시대 문화⁹

안양지역은 한반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듯이,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고유한 전통문화, 그리고 뛰어난 인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리적으로는 사방^{四方}에 관악산[北], 청계산과 백운산[東], 수리산[西], 모락산과 오봉산[南]이 위치하며, 그 중앙을 학의천과 안양천이 가로지른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승려 능정^{能正}과 함께 세운 거대 사찰인 안양사^{安養寺}가 삼성산에 위치한다. 조선 시대에는 정조^{正祖}의 효심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 만안교^{萬安橋}가 안양을 대표하며, 근대 이후 경부선 철도의 건설로 인하여 산업 및 공업 도시로 발달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안양지역에서 보고된 선사시대 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신도시 개발 이전에 매장유산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이후 관양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선사시대 안양의 문화양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안양지역 일대 수계도

1) 구석기시대 문화

(1) 구석기시대의 개념과 시기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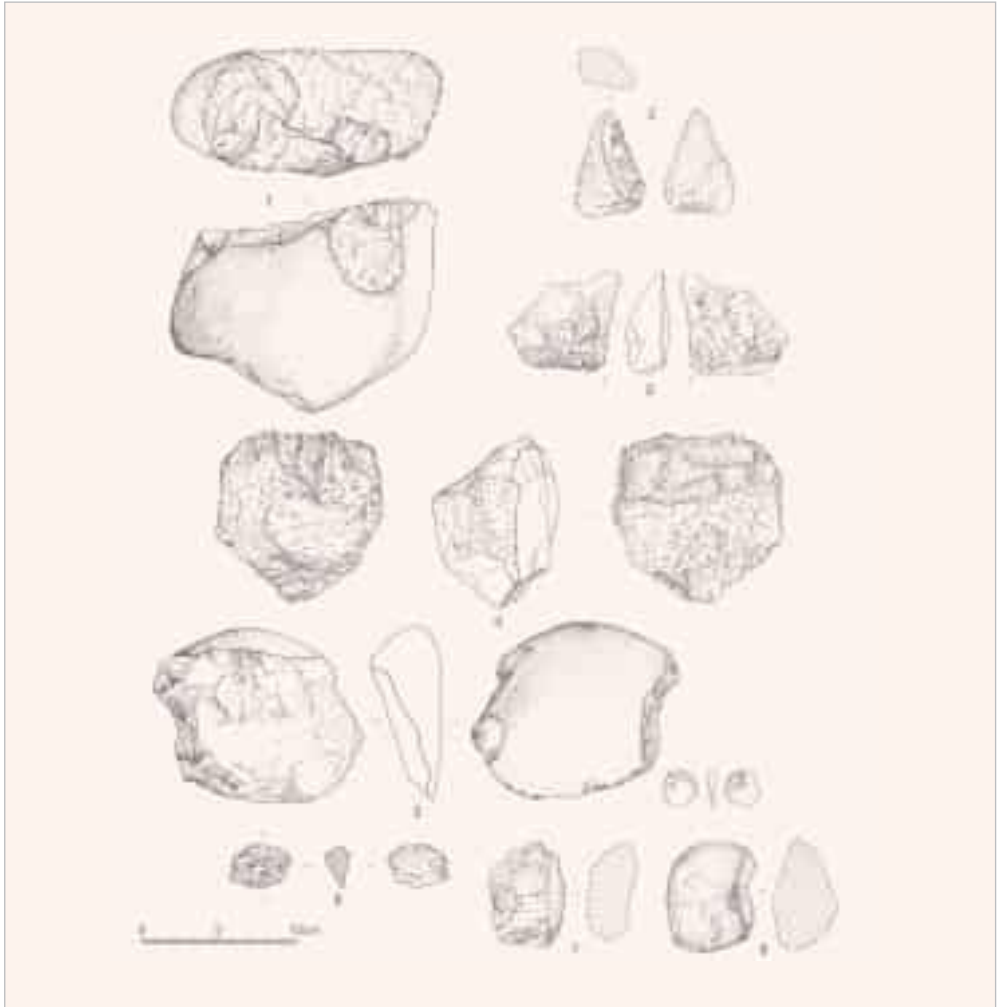
구석기시대는 대략 700만 년 전 인류문화의 시원부터 시작해 1만 년 전 무렵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에 이르는 인류문화의 원초단계 시기를 가리킨다.¹⁰ 이 용어는 원래 톰슨이 삼시대법에서 정의한 석기시대를 러복이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나눈 것에서 유래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두 시대의 중간단계로서 중석기시대가 정의되었으나,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중석기시대의 문화상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구석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인류의 형질적 진화와 더불어 크고 거친 형태의 석기에서 작고 정교하며 규격화되는 석기 제작 기술과 석기 형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25만 년과 4만 년 전후를 경계로 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한다.¹¹ 전기 구석기시대는 약 250만~25만 년 전 사이에 해당하며, 아프리카 탄자니아 올두바이(Olduvai Gorge) 유적 최하층에서 출토된 몸돌(core), 격지(flake), 찍개(chopper) 등의 석기 중심인 올도완 석기 전통(Oldowan industry)이다. 중기 구석기시대는 약 25만~4만 년 전까지이며, 석기 제작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는데, 르발루아(Levallois)기법과 무스테리안 석기 공작(Mousterian industry)이 대표적이다. 후기 구석기시대는 약 4만~1만 2천 년 전까지이며, 돌날 또는 줍돌날을 이용한 석인(石刃, blade)석기 제작 기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형태의 밀개(endscraper), 새기개(burin), 푸르개(awl)와 함께 뼈와 뿔, 상아와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구와 치레걸이를 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예술 품이나 신앙의 흔적이 발견된다.

(2) 안양의 구석기시대 유적과 문화

안양시는 지형적으로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대체로 준평원의 잔구성 지형을 갖추고 있다. 관악산과 수리산 등의 산지형 지형이 주위를 감싸고 있으나, 시의 중앙부에는 학의천과 안양천이 흐르고 있다. 안양천 일대에는 하천퇴적 지형이 발달하여 구석기시대를 포함한 선사시대 유적이 입지하기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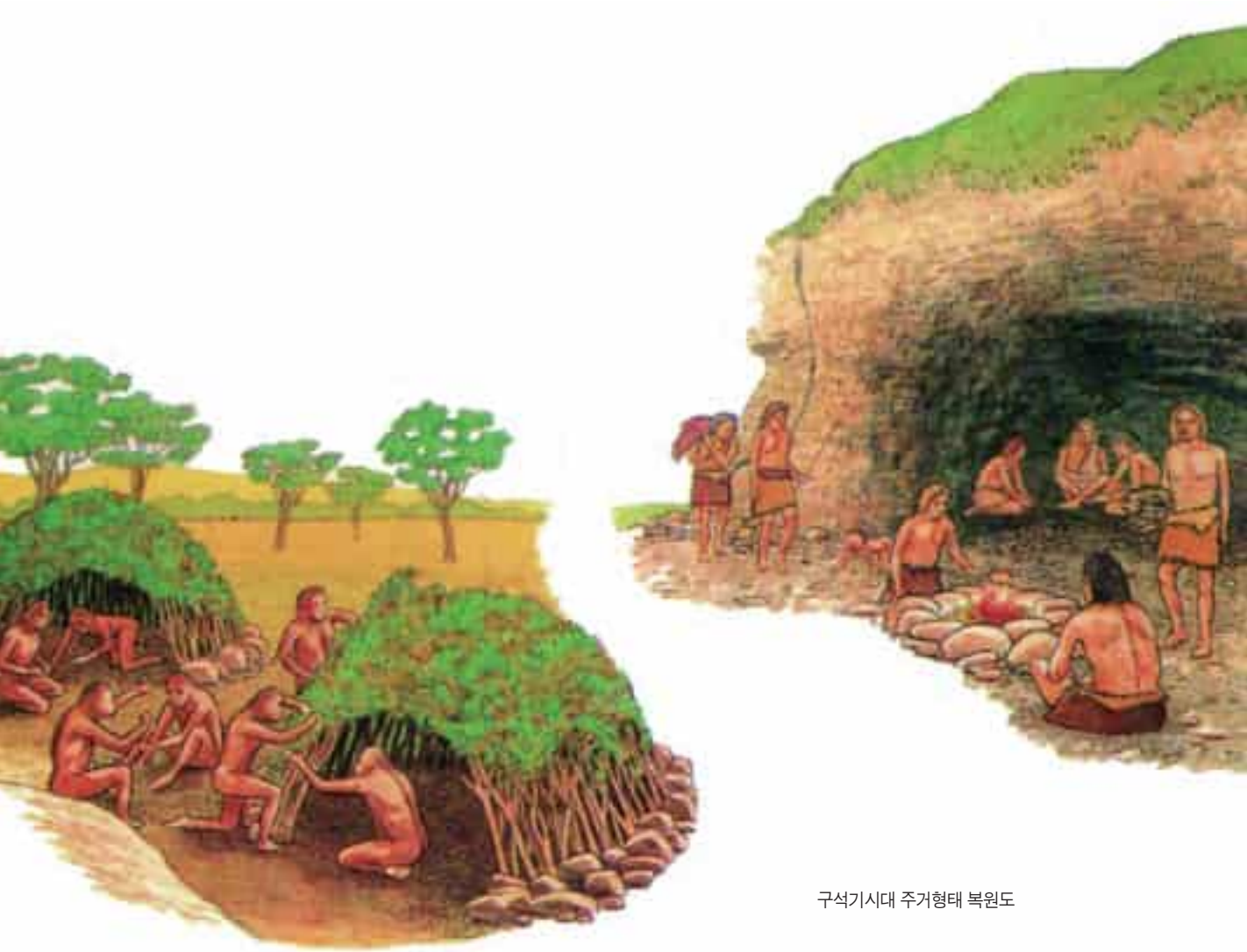
안양에서 확인·조사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평촌동 250번지 유적, 관양동 선사유적, 비산동 유적이 있다. 평촌동 250번지 유적¹²은 귀인마을 안쪽 해발 60m 구릉 정상과 남



관양동 선사유적 구석기 출토유물(1.몸돌, 2.찍개, 3~4. 긁개, 5~6.격지, 7.흠날, 8.망치들)

서쪽 능선의 경작지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C군지석묘가 위치한다.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갈돌[礮石棒], 숫돌[砥石], 철기시대 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 등이 수습되었다. 구석기시대 유물은 타제석기 산포지에서 몸돌 2점, 찌르개(point) 2점, 긁개(scraper) 2점, 새기개(burin) 1점, 찍개 1점, 기타 10점 등 총 18점이 수습되었다. 이들 석기의 돌감은 모두 석영[石英]으로 격지[剝片]을 크게 떼어내거나 3~4차례의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조성하였다.

관양동 선사유적¹³은 관양동 산15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인덕원 사거리의 북서쪽 나



구석기시대 주거형태 복원도

지막한 해발 69m 구릉의 남사면부로 관악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끝자락에 해당한다. 구석기시대 유물은 지표에서 수습되었으며, 몸돌 1점, 찌개 1점, 굽개 2점, 격지 2점, 흠날(notch) 1점, 망치돌 1점으로 총 8점이다. 돌감은 석영과 규암(硅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흠날은 석기의 우측날에 한 차례의 깊은 떼기를 하여 날을 세웠다.

비산동 유적¹⁴은 비산동 509-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해발 295m의 비봉산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남동쪽과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곡부지형에 해당하며,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550m 떨어진 곳에 안양천이 북서류한다.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은 해발 45m 내외에서 확인되었다. 층위는 모두 13개 층으로 구분되지만 유물은 최상층인 1층의 갈색 점토층에서 밀개 1점, 석재 1점, 몸돌 1점, 격지 2점, 조각 12점으로 총 17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석기 제작과정에서 나온 산물류(몸돌·격지·조각)와 도구류(밀개), 원석류(석재)로 구분된다. 도구류는 밀개 1점뿐이며, 원석류에 해당하는 석재와 제작과정에 발생하

는 산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석기의 사용보다는 석기 제작 행위가 두드러진 유적이다. 돌감은 격지 1점만 규암이고 모두 석영맥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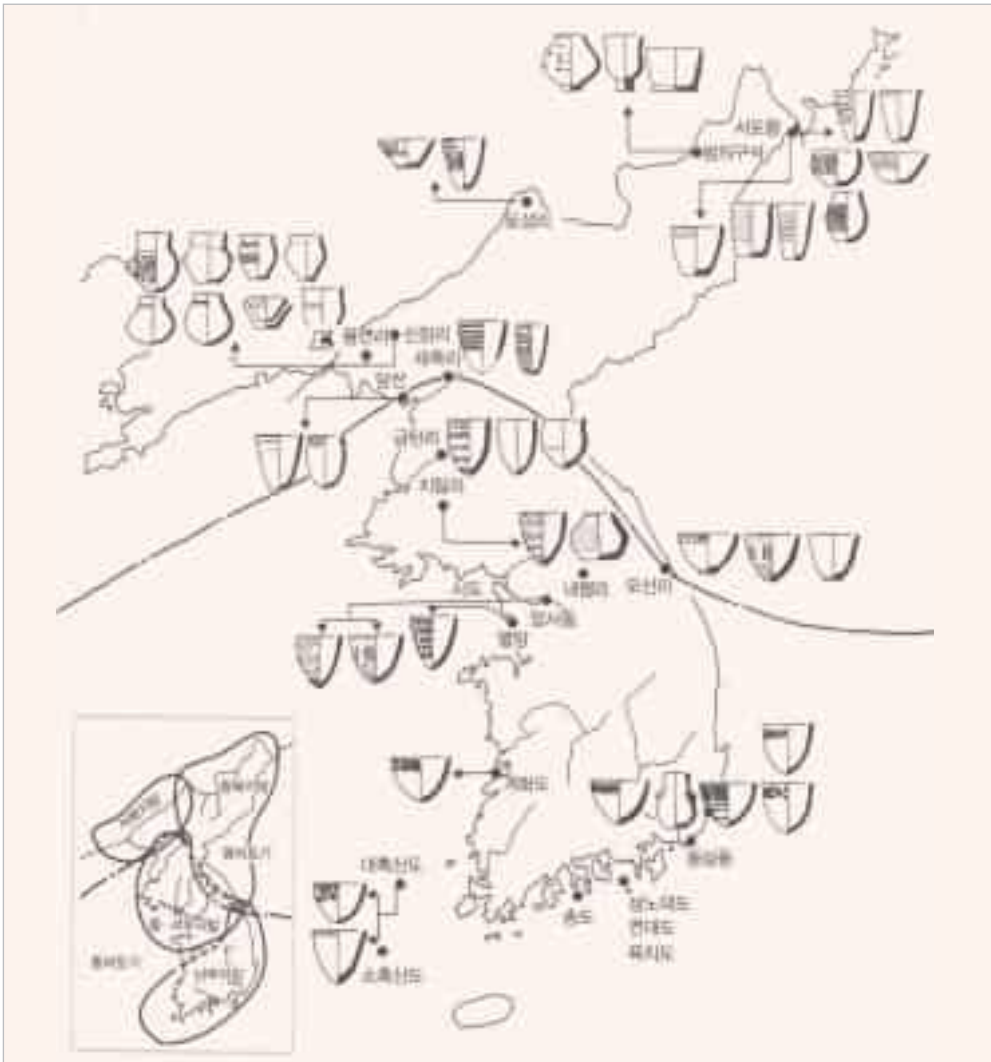
안양시 일대는 구석기시대 유적이 입지하기에 양호한 지질학적 환경을 갖추고 있고, 구석기시대 타제석기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정주^{定住}의 흔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구석기시대 문화층인 고토양층의 존재와 석기제작의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불분명하였던 안양지역에서의 구석기문화의 존재가 명확해졌다. 아울러 주변 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 유적의 조사 예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¹⁵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생계경제^{生計經濟}와 관련된 증거는 많지 않으나, 단양 구남굴에서 출토된 사슴뼈는 후기 구석기시대 사냥의 증거로 해석된다. 이 시대의 생활은 끊임없는 이동을 필요로 하였던 만큼, 당시의 주거 형태는 돌이나 나무를 이용한 임시 야영지 같은 형태이거나 동굴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구석기시대 동굴유적이 많은 이유는 그러한 결과이다. 한편, 집터와 예술품, 상징행위와 관련된 유물 등이 발견된 사례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¹⁶ 상기와 같은 연구 성과와 연천 전곡리 유적 등 경기도 일원 구석기 유적의 조사 사례로 볼 때 안양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는 동굴유적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주변 하천에 인접한 구릉 말단부나 잔구성 지형의 한테유적¹⁷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필요한 식량은 배후의 산지와 하천 일대에서 수렵과 채집을 중심으로 활발한 이동생활을 하며 살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신석기시대 문화

(1) 신석기시대의 개념과 시기구분

신석기시대에 대한 개념은 정착생활과 간석기^[磨製石器]를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 주된 기준이었으나 오늘날 널리 쓰이는 개념은 약 1만 2천 년 전 후빙기로 접어들면서 농경, 목축에 의한 식량생산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된 문화를 말한다. 이 시기 농경의 시작은 인류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차일드(Vere Gordon Childe, 1892~1957)는 농경을 하나의 혁명적 사건으로 보고 ‘신석기혁명’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농경을 토기, 간석기와 더불어 신석기 문화의 3대 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몇 요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동시에 등장하지 않았으며, 신석기시대의 정의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석기시대를 설정하는 주된 기준은 토기의 출현 여부



한반도 신석기시대 문화권과 토기 분포도

에 두고 있다. 토기 출현에서 청동기의 등장까지 주로 채집·수렵에 의한 생계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된 토기문화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토기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표준 유물인 동시에 연대 설정의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토기의 출현을 기준으로 한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제주도를 포함하면 기원전 8000년 전후로 소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는 토기의 형태와 문양을 기준으로 크게 동북부, 서북부, 중서부, 남부 지



고산리식토기

역의 4개 문화권으로 구분된다. 한반도 신석기시대는 상기 문화권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초창기(BC 8000~6000년)-조기(BC 6000~4500년)-전기(BC 4500~3600년)-중기(BC 3600~2500년)-후·말기(BC 2500~1500년)의 5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⁸

초창기는 제주도 고산리 유적으로 대표되며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기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물은 기원전 6300년 무렵 일본에서 분출한 화산재 아래 최하층에서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토기[고산리식토기]와 석기¹⁹가 출토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형태적 특징에서 그 연대가 기원전 1만 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제주도에에서만 발견되었고, 구석기시대의 종식 이후 기원전 6000년 무렵에 이르는 긴 시간에 해당하는 확실한 자료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자료의 결핍으로 구석기에서 신석기시대로의 전이 과정, 신석기시대의 시작 시기와 문화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는 기원전 약 6000년 전부터 시작되며, 주로 동북 및 남부지방의 해안가와 섬 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된다. 이 시기의 토기는 점토띠를 토기 표면에 붙여서 만든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로 대표된다.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는 해안가에서 도토리알과 배가 출토되어 견과류와 함께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교역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전기는 기원전 4500년 무렵부터 시작되며, 중서부지역에서는 이 단계부터 신석기시대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 뎨석기의 비중은 줄어들고 간석기가 늘어나며 그 종류도 다양해진다. 특히 남부지역에서는 낚시·작살 등 뼈를 갈아서 만든 어로도구가 크게 늘어나 물고기 잡이가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조·기장 등의 탄화곡물이 발견되어 초보적인 단계의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마을유적이 다수 발견되어 본격적인 정착생활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중기는 기원전 3600년 무렵부터 시작되며, 중서부지방의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문화가 남부와 강원도 일대의 동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지역별로 다양한 토기문화가 발전하는 시기이다. 생업활동의 중심은 여전히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지만, 전기부터 확인되는 조, 기장 등의 작물 출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부터 시작된 초보적인 농경이 한층 더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암사동 주거유적 전경(좌)과 빗살무늬토기(우)

후·말기는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시작된다. 토기의 무늬가 새겨지는 면적은 크게 줄어들어 주로 입술 주변 부분에만 새겨지며, 거칠고 엉성하게 그려져 정형성이 많이 떨어진다. 해안지역에서 마을유적은 크게 줄어들고 조개무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바다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륙지역에도 마을유적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야외화덕 유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자원 불균형 때문에 집단의 규모가 줄어들고 이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1500년 전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종말을 고하고 청동기시대로 전환된다.

(2) 안양 주변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문화

안양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리적으로 안양에 가까운 한강유역을 포함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은 현재까지 약 100여 개소 유적이 알려져 있는데, 집자리[住居址], 구덩이[竪穴], 조개무지[貝塚], 야외화덕자리[野外爐址] 등이 있으며, 집자리와 조개무지²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대표적인 조개무지 유적은 안산시 초지동의 별망 패총과 시흥시 정왕동에 속한 오이도 패총을 들 수 있다.²¹ 이 외에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다수의 패총 유적이 보고된 바 있다.²² 이들 패총 유적과 인접한 해안지역에서는 주거유적의 발견사례가 많지 않고 계절성 채집 행위와 관련된 한시적인 유적이 많다. 반면 상시적인 거주지는 서울 암사동 유적을 비롯하여, 2000년대 이후 조사된 안산 신길동,²³ 용인 농서리,²⁴ 시흥 능곡동,²⁵ 화성 석교리,²⁶ 파주 대능리,²⁷ 김포 신안리 유적²⁸ 등 좀 더



화성 석고리 유적 전경(좌), 시흥 능곡동 유적 주거지(우상) 및 출토유물(우하)

내륙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적게는 20여 기에서 많게는 40여 기의 주거지가 열을 짓거나 군집양상으로 구릉부에서 확인된다. 또한 토기는 물론이거니와 화살촉[石鏃] 등의 수렵구나, 갈돌·갈판[礮石] 등의 식량처리구, 그리고 돌도끼[石斧] 등의 별채구 등 매우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마을유적 내에서는 주거지와 관련된 다양한 저장시설이나 광장 등의 공간도 확인되고 있다. 상기의 유적은 암사동 유적을 제외하고는 신석기시대 중기(기원전 3600~2500년)에 해당한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다양한 입지조건에서 발견되고 있다. 당시사회는 기본적으로 수렵·채집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지역과 시간에 따른 생업경제 양식은 변화하는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듯 상이相異한 양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신석기시대 전기 한반도 동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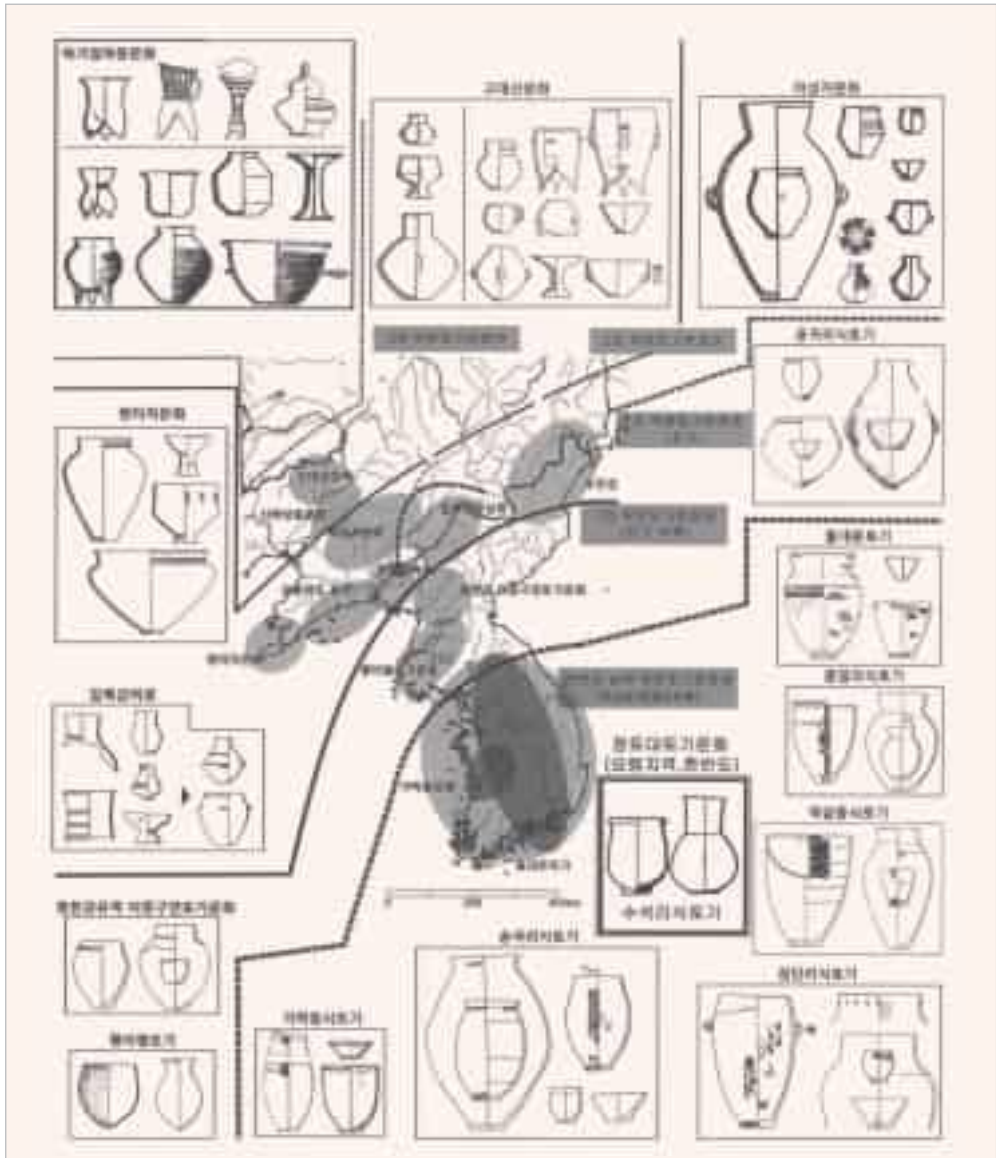
역이나 남해안에서는 어패류와 바다포유류 등의 해산물이 식량자원으로 중요했지만, 경기도지역에서는 전기 말에서 중기 초(기원전 약 3800~3400년)에 조와 기장을 재배하는 초기농경의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 신석기시대가 되면서 서해안지역의 해수면은 현재와 같이 안정화됨에 따라 갯벌이 형성되고 강 하류지역에는 비옥토가 형성되었다. 신석기시대 전기에는 이전의 수렵·채집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경제에 어로(漁撈)가 병행되며, 자연제방과 구릉 일대에 대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정주성이 높은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중기가 되면서 내륙 및 자연제방의 마을규모는 축소 및 해체되는 반면,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대규모 마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²⁹ 해안 및 도서지역은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정주성이 높은 대규모 마을이 유지되며, 초기농경을 통한 식물성 식량자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후기가 되면서 유적의 수와 규모는 급감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랭·건조화가 지속되어 식량자원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계 전략의 중심이 조달 이동에서 거주 이동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⁰ 이상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볼 때, 경기도 일원 신석기시대 생활상은 구석기시대 이동생활에서 초보적인 농경생활(조·수수·기장·팥 등)을 기반으로 한 한시적인 정주생활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수렵·채집활동과 함께 어로가 주 생계경제를 이루었을 것이다.

3) 청동기시대 문화

(1) 청동기시대의 개념과 시기구분

청동기시대는 인류가 청동기를 제작·사용하면서 문화적 진화를 이룬 시기이다. 세계사적으로는 청동 도구의 사용 외에도 도시의 등장, 문명으로의 진입, 초보적 문자의 사용 등을 이 시대의 주요 특징으로 인식한다. 청동기 주조 기술은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석기만을 사용하던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직업의 전문화, 교역의 발달, 계층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대이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소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중에서 민무늬토기(無文土器)의 출현, 간석기의 보편적인 사용, 농경의 보편화, 새로운 묘제의 출현, 청동기의 제작 등 이전 시기와 다른 문화적 특징이 나타난 시기를 청동기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전역과 랴오닝(遼寧)지역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일대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는 문헌 기록의 내용과 비파형동검,



한반도 및 중국 동북지역 무문토기 문화권(이형원 2023, 천선행 2018)

미송리형토기, 고인돌 등을 근거로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古朝鮮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해당한다.³¹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상한 연대는 기원전 1500년, 하한 연대는 기원전 300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세부적인 시기구분은 2분기설(전기-후기), 3분기설(전기-중기-후기),

신3분기설(조기-전기-후기), 4분기설(조기-전기-중기-후기) 등 다양하나, 최근에는 4분기설이 주로 수용되고 있다.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 문화인 조기(BC 1500~BC 1300년)는 대체로 민무늬 토기의 일종인 덧띠(새김)무늬토기[突帶(刻目)文土器]를 생활용기로 사용하던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발굴조사 결과 강변의 충적지대에 마을을 조성하고 밭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서 전기(BC 1300~BC 900년)가 되면, 곁아 가리짧은빗금무늬토기[二重口緣短斜線文土器]와 구멍무늬토기[孔列文土器]가 성행하고,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청동기와 간돌검[磨製石劍]이 제작·사용되며 고인돌[支石墓]·돌널무덤[石棺墓] 등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집자리의 형태는 긴네모꼴[長方形]과 네모꼴[方形]을 띠는 대형大形이며, 생계경제는 화전火田을 포함한 밭농사가 중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 중기(BC 900~BC 500년)에는 외반구연外反口緣토기·삼각형돌칼[三角形石刀]·일단병식석검一段柄式石劍·흙자귀[有溝石斧] 등이 유행하는 단계이다. 비파형동검·청동창·청동도끼와 같은 청동기 또는 거푸집이 출토되면서 청동기 제작이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시기부터 나타난 고인돌·돌널무덤을 비롯하여 움무덤[土壙墓]·독무덤[甕棺墓] 등 다양한 종류의 무덤이 만들어지며, 네모꼴 또는 원형의 소형 가옥으로 구성된 마을이 형성된다. 이와 함께 논농사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의 집중과 사회복합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수반하여 주위를 도랑으로 둘러싼 환호環濠나 목책木柵과 같은 방어시설을 갖춘 대형 마을이 나타나면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사회적 위계 관계가 심화된다. 한편, 암각화나 선돌[立石]이 있는 곳, 물가 또는 마을 안과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의례행위가 행해졌다. 청동기시대 후기(BC 500~BC 300년)에는 점토띠를 아가리에 붙인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흑색마연토기黑色磨研土器를 비롯하여 세형동검細形銅劍으로 대표되는 각종 청동기와 돌무지널무덤[積石木棺墓] 등과 같은 일련의 물질문화가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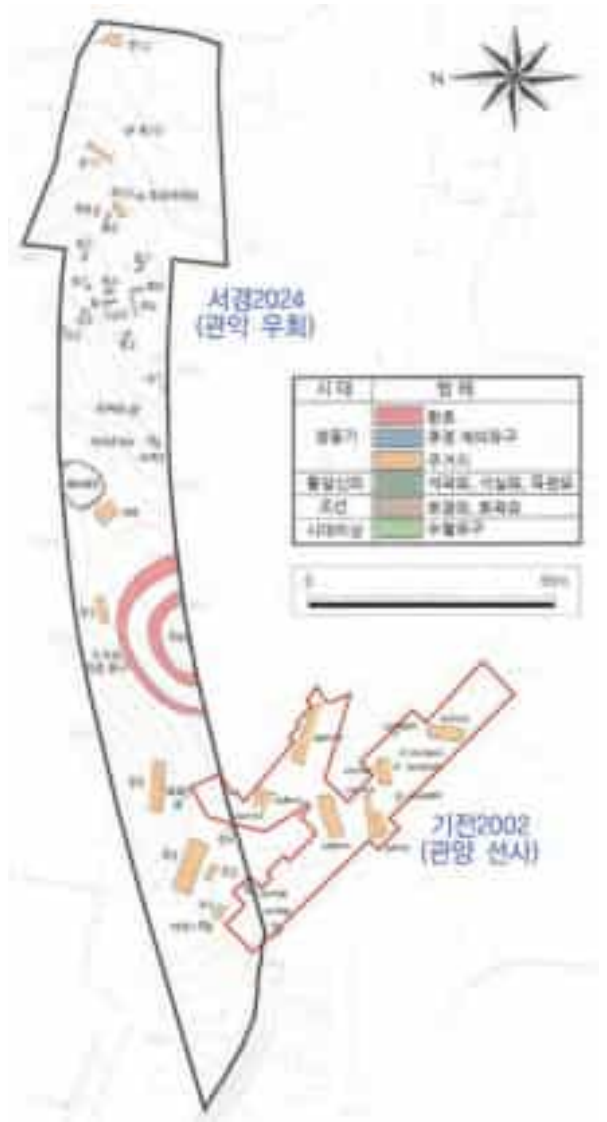
(2) 안양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문화

현재까지 밝혀진 명확한 근거 자료로 볼 때 안양시에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0세기 이전의 청동기시대부터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집자리 및 의례유구가 조사된 마을[聚落]유적과 고인돌이 조사된 무덤[埋葬]유적이다. 관양동 유적³²은 해발 50~70m 내외의 능선부에서 청동기시대 집자리 8기·수혈유구 4기, 시대 미상 돌덧널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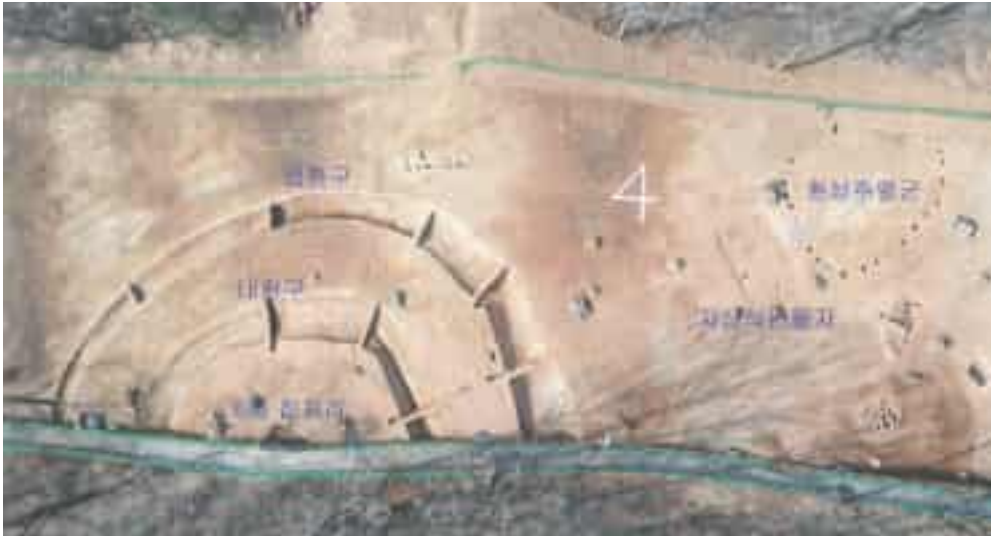
[石槨墓] 5기 등 17기(기전)와 청동기시대 집자리 2기를 비롯하여 삼국~조선시대의 생산·생활유구, 무덤 등 217기(고려)가 조사되었다. 아울러, 2021~2022년에는 안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청동기시대 환구環溝 1기·집자리 12기·지상식건물지 1기·환상주열군環狀柱列群 1기·수혈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돌덧널무덤 5기·돌뚜껑흙무덤[石蓋土墳墓] 1기, 조선시대 움무덤 등 총 36기(서경)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 관련 유구는 환구, 집자리, 지상식건물지, 환상주열군, 수혈유구 등 총 30기의 의례 및 마을 관련 유구가 해당된다.

환구³³는 해발 66~7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이중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환구 중심부에는 6호 집자리가 위치하는데 조사지역 경계에 접하고 있어 온전한 형태가 파악되지는 못하였으나 일상 거주용이 아닌 의례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내환구가 지름 23m, 외환구는 38m이며, 구의 잔존 폭은 1.3~4.0m, 잔존 깊이는 약 1m 내외이다. 유물은 구의 내부 퇴적토에서 골아가리구멍무늬토기[口脣刻目孔列土器]편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환구로부터 동쪽으로 약 20m 떨어져서 환상주열군이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24개의 주열이 환상環狀으로 배치된 형태로 조사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북쪽 일부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잔존하는 양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다. 규모는 지름 12m 정도이며, 내부 공간 중앙부에서 노두露頭가 확인



관양동 유적 유구배치도(기전, 서경)



관양동 유적 환구 및 주변유구 배치 양상

되어 거석신앙과 관련된 의례 관련 유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환상주혈군 남쪽으로 인접하여 청동기시대 8호 집자리 내부에서 집자리보다 앞선 시기의 4개의 주혈로 구성된 방형의 지상식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지상식건물지와 환상주혈군의 축 방향이 나란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보인다.

환구는 경기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구리 토평동 유적을 비롯하여 화성 쌍송리 유적,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평택 사리 유적 등이 있으며, 청동기시대 중·후기 유적으로는 인천 원당동·당하동 유적, 부천 고강동 유적, 화성 정문리·동학산 유적, 오산 청학동 유적, 안성 반제리 유적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 유적 중 안양 관양동 유적과 같이 이중환구로 확인된 유적은 화성 정문리와 동학산 유적으로 모두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³⁴ 상기 유적의 환구 내부에는 대체로 아무것도 없거나 돌이나 암괴가 있는 경우와 구멍이나 기둥구멍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안양 관양동 유적에서는 집자리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집자리는 총 22기가 조사되었는데 (반)움집으로 평면 형태는 긴네모꼴과 네모꼴 계열이다. 규모는 온전한 형태의 것을 기준으로 길이가 짧은 것은 3.72m에서 긴 것은 15.46m까지 다양하며, 폭은 좁은 것은 2.77m에서 넓은 것은 4.48m이다. 면적은 22.4㎡(기전-4호)에서 52.37㎡(서경-3호)에 이른다. 내부시설은 불땀 자리[爐址], 저장구덩



관양동 유적 집자리 출토유물(토기류, 석기류)



평촌마을 3호 고인돌(좌)과 신촌마을 3호 고인돌(우)

이, 기둥구멍[柱穴]이 확인된다. 불뎀 자리는 무시설식[無施設式]으로 집자리 긴축 중앙선상에 1~4개까지 일직선으로 위치하며, 저장구멍이는 집자리 벽가 쪽이나 모서리에, 기둥구멍은 중앙축선상과 벽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구멍무늬[孔列文]의 깊은바리모양[深鉢形]토기와 병모양[壺形]토기, 그리고 붉은간[赤色磨研]토기 등이 있으며, 석기류는 간돌칼, 반달모양돌칼[半月形石刀], 간돌창[磨製石槍], 간돌화살촉[磨製石鏃], 간돌도끼[磨製石斧], 숫돌, 갈판 및 갈돌 등이 있다.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마을유적으로는 김포 양촌, 성남 동판교, 수원 호매실동, 화성 수영리·쌍송리, 양평 양수리, 여주 흔암리, 용인 영문리, 평택 소사동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관양동 유적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의례 관련 유구인 환구는 BC 1260~BC 1010년으로 측정되었다. 집자리는 총 11점의 목탄시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BC 1200~BC 900년, BC 1100~BC 800년, BC 800~BC 500년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관양동 유적은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몇몇 집자리와 환구유구가 자리한 후 수백 년에 걸쳐 유적이 연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청동기시대 논 복원도(위)
청동기시대 마을 복원도(청원 대울리유적, 아래)



무덤유적인 고인돌³⁵은 안양시 평촌동·귀인동·신촌동·갈산마을 일대에서 13기가 조사되어,³⁶ 일부가 명지대학교박물관과 평촌자유공원 내에 이전·복원되어 있다. 안양에서 조사된 지석묘는 모두 개석식[南方式] 고인돌로 매장주체부인 하부구조가 모두 덮개돌 아래의 땅속에 조성되어 있다. 연대는 매장주체부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석묘들은 안양시 인근의 안산시 월피동·양상동³⁷과 수원시 호매실동·교동,³⁸ 광명시 가학동,³⁹ 시흥시 조남동·계수동,⁴⁰ 의왕시 내손동·청계동 일대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의례유구인 환구와 집자리 등의 마을유적, 그리고 고인돌 등의 무덤유적 이외에 청동기시대 관련 유적으로는 방어나 경계시설인 환호와 더불어 밭, 무논[水田] 등 생산 및 경작[耕作]유적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적이 한곳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예는 드물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안양에서는 마을유적과 무덤유적이 확인되었다. 마을유적은 안양 관양동 유적이 대표적이며, 벌채구·사냥도구·수확구·식량처리구 등이 출토되고 있어 당시의 생계경제를 복원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무덤유적은 고인돌로서 모두 평촌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조사된 것들이다. 이들 마을 및 무덤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중기에 걸친 자료들로서 적어도 기원전 1000년 이전부터 안양에서 청동기인들의 정주[定居]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논·밭 등의 경작 및 생산유구는 논산 마전리나 진주 대평리 등 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강원 및 남부지역에서 수렵과 관련된 함정유구 등이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농경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안양지역은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접어든다. 이 농경기술은 더욱 발달하면서 경작지를 확대하는 등 자연적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화시켜 나갔으며, 이에 따라 사회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민무늬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하던 청동기인들은 고인돌로 대표되는 무덤을 축조하는 전통을 정착시켰고, 청동기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기술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갖춘 마을이 생겨나며, 마을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웃한 마을을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하였다.⁴¹

당시 한반도 중부지역의 식생은 비교적 온난한 상태에서 현재보다 높은 해수면에 오리나무 속[屬]과 참나무 속, 그리고 농경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초본류와 소나무 속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이와 같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볼 때 안양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 청동기인들의 삶은 오리나무·참나무·소나무가 무성한 구릉의 정상부 및 사면부에 (반)수혈식 집자리를 짓고 정주생활을 하였으며, 수렵 및

채집과 동시에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생계경제를 영위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사후 세계라는 개념이 발생하여 무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풍요 및 장례활동과 관련된 의례행위가 행해졌을 것이다. 농경과 관련된 경작행위는 자연제방 후사면부의 배후습지(背後濕地)에서 행해졌을 것이며, 마을과 그 농경지 일대에는 짐승들로 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함정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4) 철기시대의 개념과 문화

한국고고학에서 초기 철기시대라 부르는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300년 무렵부터 기원전 100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중국 연(燕)의 영향으로 주조 철기가 보급되면서 철기시대가 시작되지만 아직은 철 소재와 철기의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초보적인 단계이다. 초기 철기시대 이후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후 250년 전후까지의 시기는 원삼국시대⁴³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통합하여 철기시대라고 하거나, 그 전반을 철기시대 전기, 후반을 철기시대 후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⁴

안양지역에서 현재까지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유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된 사례는 없다. 경기도 일대의 초기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크게 마을유적·무덤유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물은 대부분 원형 및 삼각형점토대토기, 그리고 한국식동검(細形銅劍) 등이 출토된다. 이 시기의 집자리는 청동기시대에 비하여 소형(한 변 길이 5m 내외)에 속하며, 그 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⁴⁵ 그러나 유적의 입지는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높은 산 정상부로 올라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민인 초기 철기시대 원형점토대토기 집단과 토착 청동기시대 공렬토기 집단과의 마찰이나 경쟁으로 인한 입지선택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안성 반제리 유적⁴⁶과 광주 역동 유적⁴⁷ 등이 있다. 무덤유적 또한 이전의 고인돌이나 돌널무덤(石棺墓) 형식과는 다른 (돌두름)옴무덤(圓石式土壙墓)이나 (돌무지)나무널무덤((積石)木棺墓), 돌널무덤(甕棺墓)으로 대체된다. 입지는 구릉 정상부나 사면부에 위치하며, 출토유물은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검파두식(劍把頭飾) 등이 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주로 서해안과 한강유역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마을유적과 무덤유적·생산유적 등이 있다. 마을유적으로는 서울 풍납동, 하남 미사리, 남양주 장현리, 연천 강내리 유적⁴⁸ 등이 대표적이다. 집자리는 대부분 충적지에 입지하며, 보통 30여 기 이상의 대형취락으로 확인된다. 평면 형태는 방형(方形), 여자형(呂字形), 철자형



점토대토기(좌하·전 회덕·출토지 미상, 흑색마연장경호(좌상·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 청동기 및 석기류(우·세형동검, 동경, 석촉, 곡옥, 동령)

凸字形인데, 내부시설 중 이전 시기에는 없던 부뚜막 및 구들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무덤 유적은 주로 경기 남부 및 서해안 일대에서 확인되며, 용인 상갈동, 김포 운양동⁴⁹과 오산 수청동 유적이 대표적이다. 형태는 매장주체부 주변에 도랑(周溝)을 두른 분묘가 대부분으로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나 분구묘(墳丘墓)라고 한다.⁵⁰ 이와는 달리 임진강과 경안천 유역에서는 적석분구묘(積石墳丘墓)가 축조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中島式無文土器]와 타날 문토기(打捺文土器)로 대표되는데,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옥류와 철기류가 출토된다. 이 외에 하남 미사리 유적에서는 충적지에서 대규모의 발 유구⁵¹가 조사되었으며, 홍성 석택리 유적에서는 2층의 다중환호와 집자리, 그리고 분구묘 등의 분묘유적이 확인되었다.⁵²

이와 같은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해볼 때 초기 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인들은 재지의 공렬토기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비교적 고지(高地)의 산 정상부에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초기 철기시대가 되면 이전 시기와는 다른 구조와 형태의 가옥과 무덤이 축조되는데, 이는 이주민의 도래와 관련된 결과로 해석되며, 사후세계의 관념이나



철자형 집자리(강내리 34호-상) 및 분구묘(운양동 1-11지점 12호-하)

지배구조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원삼국시대에는 청동기시대나 초기 철기시대보다 농경의 활성화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농경지 확보를 위한 주변의 충적지 일대에 마을을 조성하였고, 마을 외곽에는 2~3중의 다중환호 및 목책을 시설하여 소국 간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초기 철기시대에는 철기의 생산과 사용이 이루어졌으나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청동기의 사용이 최성기^{最盛期}를 이룬 반면, 원삼국시대가 되면서 철기의 제작과 보급이 경기도지역 마한^{馬韓} 소국^{小國}들에 의해 무기류뿐만 아니라 농공구류에 널리 사용되면서 고대국가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사료가 부족한 안양의 선사~고대문화상을 고고학적 매장유산인 유적·유물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양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안양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가 될 것이다.



출토유물(강내리 34호)

- 1 유물은 토기[土器·석기石器 등]와 같이 유구에 고착되지 않은 동산적 動産的인 개념의 고고학적 자료이고, 유구는 무덤[古墳]·집자리[住居址]·가마터[窯址] 등과 같이 대지 위에 고착된 부동산적不動産的인 개념의 고고학적 자료이다. 유적은 유물과 유구를 포함하는 공간적인 개념이다.
- 2 이선복, 『고고학개론』,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2001; 김승욱,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고고학연구 입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매장문화재 전문교육 고고학연구과정, 2013.
- 3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1.
- 4 상대연대는 자료의 상호 간 신구新舊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대이다. 예를 들어 유물A가 유물B보다 더 이전 것임을 확인하고, A→B라는 순서를 정한 다음 그 유물들이 속한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절대연대는 '몇 년에 만들어진 것이다'처럼 수치로 나타내는 연대이다. 절대연대는 이 단어의 어감처럼 절대로 맞는 연대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수치로 나타내어지는 연대일 뿐이지 상대연대가 절대연대보다 부정확하거나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오토메 마사히로·시타라 히로미 편저, 이창희 역, 『고고학 첫걸음』, 주류성, 2024.
-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 6 인류학(Anthropology)은 인간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학문이다. 다시 말해 인류학은 동물로서의 인간의 체질적 특징과 인간의 비생물적인 특징, 즉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인류학에서는 전자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 후자를 주로 연구하는 분야를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혹은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이라 부른다. 김승욱, 앞의 책, 2013.
- 7 이 시대구분법은 톨센(Christian Jürgensen Thomsen, 1788-1865, 덴마크 자연사박물관)이 1836년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전시하면서 유물의 재질을 편의상 돌, 청동, 철의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톨센의 분류법을 흔히 '삼시대구분법'이라고 한다. 그 후 톨센의 제자였던 워새(Jens Jacob Asmussen Worsaae, 1821-1885)가 이러한 분류를 발굴조사를 통해 층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삼시대구분법이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석기시대는 이후 라르테(Édouard A.I.H. Lartet, 1801-1871)와 러복(John Lubbock, 1834-1913)에 의해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구분되었다. 이선복, 앞의 책, 1999; 사오토메 마사히로·시타라 히로미 편저, 이창희 역, 앞의 책, 2024.
- 8 지질시대 제4기 홍적세의 빙하 시대 이후의 시대를 말한다.
- 9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역사시대를 삼국시대부터 보는 입장에서 선사시대를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10 1990년대부터 사헬란트로푸스(Sahelanthropus tchadensis), 오로린(Orrorin tugenensis), 아르디피테쿠스(Ardipithecus ramidus)같이 700만 년 전 무렵에서 약 450만 년 전 무렵 초보적 단계의 두발 걸기를 하며 살던 고인류가 발견되었으며, 약 400만 년 전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 ramidus)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과 구조를 완성시켜 나갔다. 최초의 사람(Homo)속屬으로 분류되는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는 약 250만 년 전 무렵 출현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최초의 석기도 이 무렵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석기시대는 대략 250만 년 전부터 농경이 시작되고 토기를 제작하기 이전의 1만 2천 년 전까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 고고학 강의』, (주)사회평론, 2010.
- 11 한국고고학회, 앞의 책, 2010.
- 12 유적은 1989년 평촌신도시 개발에 앞서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고인돌[支石墓] 13기와 타제석기打製石器 산포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명지대학교, 『안양 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박물관총서 제3집, 1989.
- 13 유적은 2001~2002년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하여 청동기시대 집자리 8기, 수혈유구 4기, 시대 미상 돌덧널무덤[石槨墓] 5기 등 1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지표에서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었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 관양동 선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조사보고서 제23책, 2002.
- 14 유적은 2019~2020년까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되어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1개소와 통일신라시대와 시대 미상의 유구 등 총 13기와 61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중부고고학연구소, 『안양 비산동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62책, 2021.
- 15 경기도 내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파주시 가월리·주월리, 양평 병산리, 남양주 호평동, 광주시 공평리·삼리, 하남시 교산동, 수원시 파장동, 군포시 대야미동, 시흥시 계수동·도창동·매화동·거모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다량의 구석기시대 석기와 제4기 홍적세층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화성, 오산지역 일대에서도 다종다양한 구석기시대 유적 및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 16 한국고고학회, 앞의 책, 2010.
- 17 한대유적이란 동굴이나 바위 아래 같은 곳이 아닌, 강가나 못가에서 일시적으로 막집 따위를 짓고 살았거나 그대로 지낸 자리를 말한다.
- 18 소상영, 「신석기시대의 문화」, 『한국 고고학 이해』, 진인진,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7, 2023. 안양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은 초창기와 초기가 없는 전기(BC 4500-BC 3600년)~중기(BC 3600-BC 2500년)~후·말기(BC 2500-BC 1500년)로 구분한다.
- 19 고산리식토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토기로 바탕흙[胎土]에 섞여 있던 식물 줄기 등의 유기물이 토기를 굽는 과정에서 타버리고 그 흔적이 표면 안쪽에 남아 있는 토기를 말한다. 석기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전통이 남아 있는 잔돌러떼기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간석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 20 조개무지는 선사인들의 음식을 채취와 폐기 행위로 인해 생긴 생활유적이다. 따라서 토기, 석기, 골각기骨角器, 장신구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기 때문에 당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 21 김원용, 『조지리(별랑) 패총 발굴 보고』, 『한국고고학보』제7호, 한국고고학회, 1979; 서울대학교 박물관, 『오이도패총』, 1988.
- 22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안산시사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재연구소총서 제4집, 2002.
- 23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안산 신길동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41집, 2009.
- 24 재단법인 기호문화재연구원, 『용인 농서리 유적』, 발굴조사보고 제7집, 2009.
- 25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시흥 능곡동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122책, 2010.
- 26 중부고고학연구소, 『화성 청원리-석교리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12책, 2013.
- 27 (재)국립문화재연구원, 『파주 대능리 유적 I』, 학술조사보고 제88책, 2022.
- 28 경기문화재연구원, 『김포 신안리 유적』, 학술보고 제3책, 2020; 경기문화재연구원, 『김포 신안리 유적 II』, 학술보고 제17책, 2023.
- 29 이러한 현상은 홍수 피해를 인한 마을의 해체와 기원의 한랭화로 인한 육상 자원 환경의 악화와 관련된다.
- 30 소상영, 『신석기시대 한강유역의 마을과 생업경제』, 『한강유역의 마을과 생업경제』,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한성백제박물관 문화재채, 2017.
- 31 이형원, 『청동기시대의 문화』, 『한국 고고학 이해』, 진인진,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7, 2023; 천선행, 「한국 무문토기문화의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한국청동기학보』 제22호, 2018.
- 32 관양동에서는 총 세 번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대표 지반상으로는 보고서 간행년도를 기준으로 2002년(기전)에는 관양동 산15번지, 2012년(고려)에는 관양동 1789-2번지, 2024년(서경)에는 관양동 1791-8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 관양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23책, 200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안양 관양동 유적』, 학술조사보고서 제60집, 2012; 서경문화유산연구원, 『안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안양 관양동 유적』, 유적조사보고 제75책, 2024.
- 33 환구란 원형이나 타원형 또는 방형으로 도랑을 파서 만든 유구를 말하는 것으로 방어 혹은 구획시설로서 취락을 감싸는 형태인 환호環壕와는 다르게 주거 공간을 에워싸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그 내부 공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의례를 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시대편』,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 34 이형원, 「구리 토평동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몇가지 고찰」, 『구리 토평동 유적』, 서울문화유산연구원, 학술총서 제23책, 2017; 이형원, 『한강유역의 청동기-원삼국시대 의례공간』, 『마한의 소도와 의례공간』, 제28회 백제학회 정기학술회의 발표자료집, 백제학회, 2017; 서경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24.
- 35 고인돌은 형식적으로 볼 때 크게 탁자식[卓子式-北方式]과 개석식[蓋石式-南方式]으로 대별되는데, 그 외에 기반식[基盤式]과 위석식[圍石式]도 있다.
- 36 명지대학교, 『안양 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박물관총서 제5집, 1990. 이들 고인돌은 모두 평촌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 37 반월지구 유적발굴조사단, 『반월지구 문화유적 조사보고』, 1978.
- 38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제3집, 2000.
- 39 한양대학교박물관, 『광명 가학동 지석묘』, 한양대학교박물관총서 제27집, 1997.
- 40 한양대학교박물관, 『시흥 조남동 지석묘』, 한양대학교박물관총서 제38집, 1999; 한양대학교박물관, 『시흥 계수동 지석묘』, 한양대학교박물관총서 제41집, 1999.
- 41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기시대-마을풍경』, 2010년 특별전, 2010.
- 42 문영룡, 「고기후와 고석생」, 『청동기시대의 고고학1-인간과 환경』, 한국고고학연구소 학술총서 12, 2014.
- 43 원삼국시대라는 시대구분 용어는 김원용이 1973년판 『한국고고학개설』을 통해 역사학에서의 삼한三韓시대를 원(proto)삼국시대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시대는 고고학적으로는 청동기의 소멸, 철 생산의 성행, 도작의 발전, 지석묘의 소멸, 타날문토기의 출현을 특징으로 한다.
- 44 한국고고학회, 앞의 책, 2010.
- 45 안양지역 주변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한 변의 길이가 평균 8~15m이며, 화성 천천리 7호 집자리의 경우 29m가 넘는 대형도 있다. 또한 한 취락 내의 집자리 수량은 보통 20~30여기가 보통이며, 많은 경우는 평택 소사동 유적의 경우 80여기, 화성 수영리 유적은 200여기 이상이 조사된 경우도 있다.
- 46 중원문화재연구소, 『안성 반제리 유적』, 조사보고총서 제45책, 2007.
- 47 한얼문화유산연구원, 『광주 역동 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8책, 2012.
- 48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천 강내리 유적』, 학술조사보고서 제59집, 2012.
- 49 재단법인 한강문화재연구원, 『김포 운양동 유적』, 유적조사보고 제42책, 2013.
- 50 주구도광묘와 분구묘의 차이는 전자는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고 주변 도랑에서 파 올린 흙으로 봉분을 만든 형태이고, 후자는 주변 도랑에서 파 올린 흙으로 중앙에 분구를 조성한 후 그 분구상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 51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미사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4. 보고서상에는 한성백제기의 발 유구로 보고되어 있으나, 주변에서 원삼국시대 집자리 등의 마을 관련 유구들이 조사되는 점으로 보아 원삼국시대부터 지속적인 경작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52 재단법인 한얼문화유산연구원, 『홍성 석택리 유적』, 제31책, 2015.

2장

고대인의 세력 진출



임동민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1. 고대의 교통로와 안양의 특성

1) 한강 하류~경기만 일대의 지리적 특징과 고대 교통로

안양지역 고대사의 변천은 안양의 지리적 특징과 교통로의 변천과 무관하지 않았다. 안양지역은 한강 하류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을 중심으로, 학의천·삼막천·삼성천 등의 작은 지류가 합류하는 지역이었으며, 관악산·청계산·수리산 등의 비교적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양의 지리적 특징을 서술할 때, 경기만의 해양 요소는 거의 고려되지 않지만, 안양지역은 서남쪽의 안산을 통해 경기만 연안으로 연결되기 쉽고, 망해암(望海庵) 마에여래입상에서 서쪽으로 멀리 경기만이 조망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경기만 해안선은 여러 간척사업으로 확장된 선이고, 고대의 해안선은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라 내륙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안양지역은 수리산 남쪽과 북쪽의 교통로를 통해 경기만 연안까지 연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안산 또는 수원을 거쳐서 화성 남양만과도 연결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고대 안양지역을 설명할 때, 한강 하류의 안양천 유역이라는 점 외에 경기만 연안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안양지역의 여러 하천과 높은 산은 자연스럽게 하천 수계와 고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로를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교통로는 고대 한강 유역의 역사적 변천과 맞물려 다채롭게 활용되었다. 먼저, 남북 방향의 교통로는 한강 하류의 큰 지천인 안양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안양천의 상류는 황구지천 유역의 수원과 연결되었다. 황구지천은 안성천에 합류하는 경기 중남부 지역의 중요한 하천이므로, 안양지역은 안성천 유역에서 한



안양지역 일대 교통로(동여도, 19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강 하류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하였다. 안양천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서울 금천 일대를 지나 한강 하류에 직접 연결되었다. 이러한 남북 방향의 교통로는 한강 본류, 탄천과 더불어 한반도 중남부에서 한강 유역을 거쳐 북쪽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루트 중 하나였다.

안양지역의 북쪽에는 험준한 관악산이 위치하므로, 남북 방향의 교통로는 관악산 서쪽의 안양천을 따라 형성되는 동시에, 관악산 동북쪽의 남태령과 양재천을 따라 만들어졌다. 남태령은 관악산과 우면산 사이의 고갯길이며, 반포·용산을 거쳐 조선시대 한양으로 접근하는 교통로 중 하나였다. 양재천을 따라 형성된 길은 한강 하류의 중요한 지천인 탄천 유역으로 연결되었으며, 백제 한성기의 도성이나 신라 한주의 치소로 접근하는 주요 교통로 중 하나였을 것이다. 안양지역의 동쪽으로는 청계산과 바라산·백운산 사이의 고갯길을 따라 탄천 유역의 성남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안양지역은 안산 일대를 통해 경기만 연안으로 연결되었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안성천 유역과 한강 하류로 이어졌으며, 동쪽으로는 한강 하류의 지천인 탄천 유역으로 나아

갈 수 있었다. 남태령은 상대적으로 험한 편이었으나, 조선시대 한양에 도달하는 여러 교통로 가운데 하나로 기능하였다.

2) 교통로의 관점에서 본 고대 안양의 특성

동서남북으로 발달한 안양지역의 교통로는 고대 안양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깊게 연결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안양의 특성을 백제·고구려·신라의 순서로 간단히 살펴보고 하겠다.

백제는 지금의 경기·충청·전라 일대에 있던 마한을 통합하면서,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 지금의 서울 송파·강동 일대에 중심을 두었던 한성기의 백제는 서남쪽으로 양재천을 따라 안양지역을 거쳐 수원·화성 등의 안성천 유역에 도달할 수 있었으므로, 본래 마한 지역이었던 안양 일대는 점차 백제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물론 백제 한성기 고고자료는 안양천 유역보다 탄천 유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백제 한성과 화성 사이의 교통로 중에 하나로 안양지역을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475년 백제 한성 함락을 전후하여, 안양지역에는 고구려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변화가 밀려왔다. 고구려는 한강 하구와 인천지역을 거쳐 한강 유역의 백제 도성까지 장악하였고, 계속 남하하여 안성천 유역을 지나 남한강과 금강 유역까지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양지역은 남북 방향 교통로의 요충지로 일정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지역에서 고구려 계통의 고고자료가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향후 고구려 유적의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세기 중반 이후, 안양지역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속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였다. 안양천의 교통로는 북쪽의 한강 하류와 남쪽의 화성 남양만 및 안성천 유역으로 연결되므로, 안양지역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지배체제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공간이었다. 물론,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에서 중요한 거점은 한강 본류 혹은 남양만 일대였지만, 안양 일대에서도 신라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삼성천 유역에 창건된 신라 하대 중초사는 한주에서도 드문 사례로서, 신라시대 안양의 역사적 의미를 잘 보여주며, 고려시대 안양사로 개창되면서 안양 지명의 유래로 연결된다는 지역사적 의미도 가진다.

이상의 서술에서는 고대 안양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로의 변화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안양지역 고대사의 변천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마한·백제·고구려·신라의 순서로 안양지역의 고대사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안양지역의 고대사에 관한 일

반적인 서술은 2008년의 기존 『안양시사』 제1권에서 일부 이루어졌으므로, 아래에서는 2008년 이후 추가된 고고자료를 보완하고, 교통로와 세력 진출의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2. 안양지역의 마한 사회와 백제화 과정

1) 안양지역의 마한 사회

경기지역에서 한국 고대사의 변천 과정은 대체로 마한 소국의 성장과 백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된다. 지난 2008년 발간된 『안양시사』에서도 고대의 안양을 마한의 소국과 백제의 통합 과정, 그리고 백제의 지방이라는 차원에서 서술하였다.¹

역사시대 이후 안양의 모습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마한 관계 기록, 『진서』 동이전의 마한 관계 기록,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을 통해 먼저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기원후 3세기 무렵의 한반도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 측의 기록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50여 개의 마한 소국이 존재한 것으로 나오는데,² 이러한 소국은 원양국 爰襄國을 시작으로, 8번째에 백제국 伯濟國이 나오며, 이후 건마국 乾馬國 등이 이어진다.

학계에서는 마한 소국의 위치를 대체로 임진강 일대에서 남쪽으로 전남 해안까지 이르는 방향성 속에서 추정하였다. 하지만 마한 소국 가운데 8번째로 나오는 백제국을 서울 일대로 판단한 것 외에, 경기지역의 마한 소국은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쉽지 않다. 경기 가평·김포·양평·여주·이천 등지에 마한 소국을 비정한 연구도 있지만,³ 최근에는 『삼국지』·『후한서』의 마한 소국이 대방군과 해로를 통해 연결된 연안의 정치체였을 것으로 보는 연구도 제기되었으므로,⁴ 중국 군현과의 교통로를 따라 마한 소국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도의 추정만 가능하다. 물론, 문헌에 남은 마한 소국들 가운데 일부는 안양 일대를 포함한 경기지역에 존재하였겠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서술은 어렵다.

이러한 소국들은 각각 낙랑군·대방군을 통해 중국 왕조와 교섭하면서, 문물을 교류하였다. 그런데 3세기 말의 모습을 담은 『진서』 동이전에는 마한의 주_主가 여러 차례 서진과 교섭하였다는 기록을 추가하였다.⁵ 이와 동시에 서진 관리였던 장화 張華의 일대기를 기록한 『진서』 장화전에는 마한의 신미제국(新彌諸國: 현재의 영산강 유역 일대)이 따로 교섭하였다는 언급도 남아 있다.⁶ 『진서』 단계의 기록은 마한 소국의 대외교섭권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안양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서부 일대에 대한 백제화 과정과도 연결된다.

이와 달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마한 통합 과정을 철저히 백제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백제 온조왕은 기원후 1세기에 이미 마한을 기습하여 국읍을 병합하고, 멸망시켰다.⁷ 하지만 『삼국지』와 『진서』에는 3세기 말까지 중국과 교섭한 주체로 마한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두 기록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마한 병합 기사를 포함한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부정론, 수정론, 긍정론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학계에서는 『삼국사기』는 백제의 내부자적 입장, 『삼국지』와 『진서』는 외부자적 입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면서, 백제가 점진적으로 마한의 소국들을 통합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지역의 백제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절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안양지역의 마한 사회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으나, 관련 고고자료가 부족하다. 게다가 한강, 안성천 유역에서 마한 문화의 변천 과정은 백제 한성기 문화의 확산 과정과 상당 부분 겹치며,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 등지에 분포하는 이른바 예계 문화의 변천 과정과도 연결되므로, 안양을 포함한 한반도 중부지역의 문화는 다원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한강 하류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경기 권역에서 마한계 문화는 주로 사주식(四柱式) 주거지로 대표되는 주거지를 통해 분석된다. 이러한 마한계 주거지는 파주 일부와 인천·김포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과 안성천 유역의 화성·오산·평택 일대에 집중되었고, 탄천 유역인 용인, 성남과 남한강 유역인 여주·이천 등지에서 확인되며, 일부 안양에서도 확인된다. 사주식 주거지의 전체적인 분포양상은 파주-양평-이천의 서쪽에 집중된다. 이와 달리, 육각형 모양의 주거공간에 출입 시설을 부가한 여묘, 철(鐵)자형 주거지는 서울 송파·강동과 북한강·남한강 유역을 따라 집중되었는데, 일부 광주·성남·안양 등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다.⁸ 이렇듯 서로 다른 유형의 주거지 분포는 문헌 기록에 보이는 한(韓)과 예(濊), 그리고 후대의 백제 문화가 공존, 중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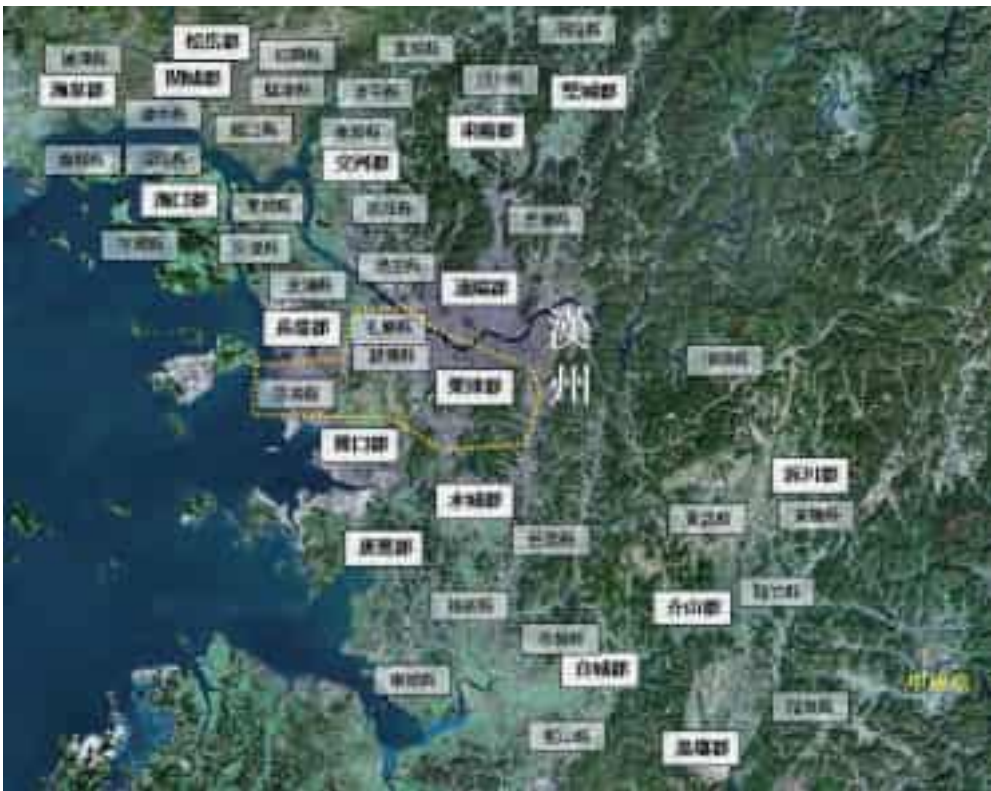
마한의 정치적 실체는 백제·신라와 같은 통합된 고대국가로 보기보다, 다양한 종족집단이 공존하였던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한의 여러 소국이 현재의 경기와 충청·전라 지역에 분포했던 것은 분명하나, 주변의 다른 종족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⁹ 따라서 안양지역은 마한으로 표기된 세력 범위 내에 있었지만, 한·예 그리고 나중의 백제 계통 문화가 다원적으로 존재했던 공간으로 추정된다.

2) 안양지역의 백제화 과정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안양 주변에는 과천의 울목군[粟木郡: 나중에 신라 울진군(栗津郡)], 금천의 잉별노현[仍伐奴縣: 나중에 신라 곡양현(穀壤縣)] 등이 있었다. 이 지역은 475년 백제 한성 함락 전후로 고구려가 차지하였다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가 차지한 곳이다. 자연스럽게 475년 이전의 울목군, 잉별노현 지역은 백제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가 안양지역의 마한 세력을 편입하여 영역으로 삼은 과정, 즉 백제화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삼국지』·『진서』·『삼국사기』에 남은 마한과 백제 관련 기록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일정한 단계를 설정된다.

『삼국사기』에는 이미 1세기에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것으로 나오지만, 『삼국지』에는 3세기에 여러 마한 소국이 산재하면서 중국과 교섭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3세기 말 단계의 『진서』 동이전 기록에는 신미제국을 제외하고, 마한의 주_主가 주변 소국의



신라 한주의 주요 군현 위치¹⁰

대외교섭권을 통제한 정황이 확인된다. 이어서 『진서』 제기에는 372년 동진과 백제의 교섭 기록이 확인되는데, 4세기 후반부터 백제의 왕이 중국 왕조와의 교섭 주체로 홀로 등장한다. 이 무렵부터 마한의 실체는 중국 측의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구체적인 백제의 마한 통합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지만, 대략적인 통합 과정은 3세기 말부터 4세기 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3세기 후반까지 한강 유역의 백제국은 안양지역을 포함한 마한 전역의 다른 소국과 같은 위계에서 『삼국지』에 기록되었다. 3세기 말에는 ‘마한주’가 등장하여 서진과의 교섭을 주도하는 양상이 『진서』에 기록되었다. ‘마한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백제왕이 주변 마한 소국의 대외교섭권을 통제한 것으로 보는 편이 일반적이다.¹¹ 다음 단계는 4세기 후반 『진서』에 남은 백제와 동진 사이의 조공-책봉 기록으로, 더 이상 마한은 다른 사료에 독자적인 외교권을 가진 실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즉, 4세기 후반에는 백제가 최소한 마한 전체의 외교권을 통제한 단계에 도달하였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백제 수도 한성에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이 나타나고, 중앙 문화가 한강 유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므로, 이 무렵 안양지역이 백제 영역으로 편입되었던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안양의 마한 토착 세력이 백제로 편입된 이후, 안양은 백제 한성기 교통의 요충지로서 기능했을 것이다. 서울 풍납토성 일대에서 한반도 남부 및 황해로 나아가는 동서남북의 주요 교통로상에 안양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고고학적으로 안양에서 확인된 백제 유적은 평촌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굴된 귀인동 백제 주거지 유적을 비롯하여,¹² 지표조사에서 언급된 관양동·인덕원 일대의 백제 유물 산포지 등이 있고,¹³ 관양동 유적(관양지구 국민입대주택단지 내 유적)에서 백제 한성기 주거지와 수혈 유구 등이 확인된 적이 있다.¹⁴ 최근, 안양에 인접한 의왕 내손 라구역 주택재개발부지 내 유적에서는 4~5세기 백제 한성기 주거지, 고상식高床式 건물지와 고배·삼족기 등이 출토되었다.¹⁵ 역시 안양과 인접한 의왕 모락산성慕洛山城은 백제 한성기 산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¹⁶

현재까지 확인된 안양지역의 백제 한성기 고고자료를 살펴보면, 적어도 4세기 이후 안양지역은 백제화 과정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지역은 한성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인천·안산·화성이나 남쪽으로 오산·천안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속에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 고분이나 산성 등의 분포를 고려하면, 한강 본류, 탄천, 또는 화성 일대가 상대적으로 백제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안양지역도 백

제의 영역 내에서 남서쪽, 남쪽 방향의 교통로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유지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안양지역의 백제 고고자료는 생활유적 중심으로 확인되는 수준이지만, 향후 위세품을 갖춘 고분이나 산성 등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덕원을 비롯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백제 한성기 유적이 확인된다면, 안양지역의 백제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고구려의 남하와 신라의 진출

1) 고구려의 남하와 안양지역

백제와 고구려는 대략 4세기 후반부터 예성강~임진강 유역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근구수왕은 일시적이거나 평양까지 공격하였지만, 4세기 말 고구려 광개토왕의 등장 이후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고구려는 황해도 전역과 임진강 유역은 물론이고, 점차 남하하여 한강 하류 일대를 통제하였다.

일반적으로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한성 함락을 상징적 사건으로 떠올리지만, 안양지역의 향방은 4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고구려의 남하와 연동되었다. 고구려가 한강 하류까지 통제하면서, 백제는 황해를 건너 동진과 교섭하기 위한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였다.

4세기 후반 이후 경기지역에서 백제 중앙의 위세품이나 무덤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화성 일대이다. 백제는 경색된 한강 루트를 대신하여, 새롭게 황해로 나가는 곳으로 화성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수도 한성이 있던 지금의 서울 강남, 송파 일대에서 화성까지의 경로는 대략 3가지 정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한강 하류에서 안양천을 남하하여 수원을 거쳐 화성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이 길은 고구려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경로인 동시에, 멀리 돌아가는 경로에 해당한다. 다음은 양재천 유역을 따라 서남쪽으로 이동하여, 안양천·수원을 경유하는 경로이다. 마지막은 탄천을 따라 내려가 화성으로 들어가는 경로이다.

문헌과 고고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백제 한성에서 화성지역에 이르는 경로는 명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양재천-안양천을 거치는 경로와 탄천-오산천을 거치는 경로의 가능성이 크다. 백제계 고고자료의 빈도를 고려하면, 탄천-오산천의

경로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덕원, 관양동, 평촌, 의왕 내손동 등지에서 확인된 백제 유적과 의왕 모락산성의 사례를 종합하면, 4세기 말 이후 안양 지역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교통로도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남하 과정에서도 안양지역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475년 백제가 수도 한성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웅진(공주)으로 천도하면서, 안양지역은 고구려의 통제에 들어갔다. 물론 웅진기 백제가 일시적이거나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학계의 논쟁이 남아 있고,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지배는 중요한 군사 거점 위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구려의 안양 지배가 475년부터 6세기 중반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을지 의문이 남는다. 큰 틀에서 475년 이후 안양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었겠으나, 다소 유동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는 예성강·임진강·한강을 건너, 안성 도기동 산성을 지나 세종·충주 일대까지 남하하였으므로, 남북 교통로의 요충지였던 안양지역은 고구려의 남하 과정에서도 중요한 공간이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지금의 과천 일대에 고구려 울목군, 금천 일대에 고구려 잉별노현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고구려가 안양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지방제도를 성과 촌을 중심으로 다원적 체제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¹⁷ 군사적으로도 임진강 이남에 대규모 거점을 만들기보다 소규모의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고구려는 안양지역 세력을 온존하면서, 안양과 주변지역에 대해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양에서 현재까지 본격적인 고구려 계통의 고고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에 보고된 비산동 석실분이나 관악산 자락에 산재하는 여러 석실분 가운데 일부가 고구려 계통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대부분 도굴되어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분석은 어렵다.

그런데 고구려 계통의 석실분은 서울 가락동·세곡동, 성남 판교동을 거쳐 용인 등에 확산하였고, 고구려의 방어거점은 아차산성을 비롯한 한강 이북의 보루군과 안성 도기동 산성 등으로 퍼져나갔다. 성남 판교 등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고구려 석실분이 발견되었으므로, 안양에서도 고구려 유적이 발견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2)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안양지역

신라는 5세기 후반 무렵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소백산맥과 동해안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신라는 6세기 전반에 김해 가락국(금관가야)을 멸망시키고 남해안 방면으로도 진출하였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서, 신라 진흥왕은 551년에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치고 10군을 확보하였다.¹⁸ 이때 10군은 죽령(竹嶺) 바깥 고현(高峴) 안쪽으로 기록되었는데,¹⁹ 일반적으로 소백산맥 북쪽의 영서지역, 한강 상류지역으로 비정된다.

이어서 진흥왕은 553년에 백제 동북쪽 변경을 빼앗고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는데,²⁰ 신주의 범위에는 한강 하류 일대가 포함되었다.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은 백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고구려를 상대로 싸워서 한강 상류를 확보하고,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일대를 빼앗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은 소백산맥을 넘어서 남한강 유역을 거쳐, 한강 본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북서-남동 방향의 교통로 축을 중심으로, 남한강과 한강 본류를 통제할 수 있는 곳들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6세기 중반 이후 신라는 충주를 시작으로 안성 비봉산성, 용인 할미산성,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양천고성, 고양 행주산성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다.

신라가 경기지역에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곳은 화성 당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양만 일대였다. 이곳은 황해를 건너 중국과 해양 교섭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유용하였다. 앞서 4세기 후반 백제가 화성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에, 안양은 한강 본류와 화성을 잇는 교통로상에 위치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신라 수도 경주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는 안양을 경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양지역은 한강 유역에서 신라의 중심이었던 하남 이성산성 등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교통로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안양 관내에서 6~7세기 신라 고분이나 성곽이 본격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으나, 안양 주변의 금천·광명·의왕·군포 등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일부 유적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광명 소하동 고분군에서는 황혈식석실분이 확인되었는데,²¹ 6세기 후반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²² 그 외에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에는 6~7세기 신라 유적이 분포한다. 군포 산본동 유적에서도 석실분이 확인되었는데,²³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⁴ 의왕 이동 유적에서도 황구식석실묘·석곽묘가 확인되었는데,²⁵ 7세기대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신라는 과천을 중심으로 양재천과 안양천 상류 일대에 울진군을 설치하여 지방 지배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이러한 방식은 6세기 중반 이후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고, 한 주의 범위 아래에서 이루어진 지배체제 정비 과정의 일환이었다. 다만, 울진군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서울 몽촌토성과 가락동·방이동 고분군, 하남 이성산성, 용인 보정동고분군 등의 유적을 중심으로 한주 일대의 지배체제 정비에 주목하였다. 안양지역에서는 이러한 주변지역의 위계 높은 유적에 비견되는 흔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안양지역 외에 울진군의 범위에 포함되는 서울 금천, 군포, 의왕 등의 신라 유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양지역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지방 지배체제 정비 과정에서 양재천·안양천의 교통로를 통제하는 지역이자, 하나의 군 단위에 포함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로는 남부 지방에서 안양천을 따라 한강 본류에 합류하여 서울 양천고성, 고양 행주산성 등과 연계될 수 있었고, 양재천을 따라서 서울 몽촌토성과 연결되는 이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교통로상의 이점은 신라 중대와 하대까지 이어졌다.

4. 신라 중 · 하대 안양지역의 변화

1) 신라 중 · 하대 지방행정 재편과 안양지역

신라는 6세기 중반부터 안양지역을 포함한 한강 유역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보하였고, 고구려·백제·당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주(漢州)라는 지방행정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의 관심은 한강, 임진강 유역을 지나 예성강과 대동강으로 북상하였다. 한주에서 지방행정 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은 신라의 세력 진출 및 전쟁과 깊게 연동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라의 진출 방향을 대체로 충주, 이천,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과 한강~임진강 일대의 다양한 신라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⁶ 고구려·백제·당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한강 유역의 거점들은 경주에서부터 서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변경이었다. 이들 지역과 경주를 잇는 교통로는 자연스럽게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 본류를 따라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주의 치소나 주요 행정, 군사 거점들도 이러한 교통로와의

연관성 속에서 유지되었다.

안양지역은 한강 본류를 따라 형성된 동남-서북 방향의 교통로에서 약간 치우친 위치에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양지역에는 신라 중·하대에 군 또는 현의 중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행정적으로 울진군(과천 일대)에 속해 있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신라의 성곽들도 하남 이성산성, 용인 할미산성·석성산성, 이천 설봉산성·설성산성, 오산 독산성, 서울 호암산성 등 안양 일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되었고,²⁷ 현재의 안양시 관내에 신라성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 금천구의 호암산성이 현재 안양시와의 경계에 위치한다.

서울 금천 호암산성은 관악산과 삼성산의 서쪽 능선, 금천구 호암산(393m)에 위치한 신라 산성이다. 1989~1990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호암산성은 6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까지 운영된 신라 산성으로, 내부에서 우물지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곳에서 발굴된 ‘인벌내(仍伐內)’ 명문 청동술가락은 이곳이 인벌노현(仍伐奴縣)이었음을 보여준다.²⁸ 호암산성은 서쪽의 안양천과 북쪽의 한강까지 모두 조망하는 요충지에 있으며, 남쪽으로 삼막천·삼성천 등 안양천 지류를 통제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호암산성 아래쪽에서 발견된 서울 독산동 유적에서는 6세기 후반 이후의 신라 도로유구, 수혈 및 굴립주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²⁹

현재 안양 관내에서는 신라 군현의 치소성이나 대규모 취락, 고분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양동·비산동 등 관악산 남쪽에서 6~7세기 이후 신라 유구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안양 관양동 선사유적에서는 신라 석곽묘 5기도 확인되었고,³⁰ 바로 인접한 안양 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에서도 청동기시대 유적과 함께 통일신라 석실묘·석곽묘 등이 확인되었다.³¹ 안양 비산동 평화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에서도 통일신라 기와가마 1기, 석곽묘 2기 등이 발견되었다.³² 안양 비산동 유적에서는 신라 주거지가 발견되었고,³³ 비산동 510번지 유적에서는 통일신라 기와가마,³⁴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에서는 통일신라 수혈주거지와 인화문 도기편 등이 확인되었다.³⁵ 안양 관내는 아니지만, 주변지역인 군포의 산본동 유적에서도 7~8세기 신라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묘가 확인되었다.³⁶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이후, 안양지역은 신라의 군현 치소로 활용되지 않았지만, 울진군에 속해 있으면서, 바로 북쪽으로 곡양현(인벌노현)과 인접한 공간이었다. 이 시기 신라의 주요 관심은 전쟁과 지배체제 정비를 위한 경주와의 교통로 확보였으며, 안양지역



관양동 통일신라 석각묘

은 이러한 주된 경로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다만, 신라 한주 내에서, 안양은 한강 하류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교통로의 요충지에 해당하였다. 안양 바로 북쪽의 호암산성과 독산동 유적이 그러한 교통로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 경로는 신라와 중국의 해양 교섭 거점이었던 화성 당성에서 북상하여 장구진·패강진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고, 남쪽으로 웅주·무주로 연결되거나, 혹은 이천·안성으로 빠져서 소백산맥 이남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교통로의 이점과 신라시대 안양지역의 역할은 사찰 유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2) 신라 하대 중초사지의 창건 배경과 지역사적 의미³⁷⁾

중초사中初寺는 지금의 안양시 석수동 일원, 삼성천 유역에 위치하며, 늦어도 9세기 무렵에 창건되어, 신라 한주의 중요한 사찰로 번성하였다. 중초사와 관련한 정보는 다른 사료에 전하지 않지만,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서쪽 지주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826년에 돌을 중초사 동쪽에서 구

하여 827년에 완성하였으며, 당간지주 조성에는 황룡사 향창화상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

최근에는 중초中初를 ‘~에 처음’이라는 의미로 풀어보면서, 중초사라는 사찰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제출되었다.³⁸ 이 견해는 중초사 명칭의 불교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지만, 중초中初를 풀어서 본다면 오히려 생략하는 편이 효과적이고, 신라 금석문에 사찰 이름을 명기한 사례도 많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와 발굴조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9세기 안양지역에 경주 황룡사 승려의 주도로 대대적인 당간지주 공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큰 사찰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신라 하대 중초사의 규모는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인접한 안양사지 발굴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안양사는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으로 이어진 구조였는데, 강당지, 전탑지, 서회랑지 아래에서 일부 통일신라 문화층과 초석,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 중초사가 고려시대 이후 안양사로 개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⁹

2020년에는 『중초사지 당간지주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⁴⁰ 이때 마련된 연차별 발굴조사 계획에 따라 2022년 남회랑 남쪽의 1구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시굴조사에서는 현대 교란층이 확인되어 안양사지 관련 흔적을 직접적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안양사지 중문 계단 지대석(해발 33.5m), 안양사지 통일신라 문화층(해발 34m 내외), 중초사지 당간지주 지대석 상면(해발 34.8m)의 해발 고도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⁴¹ 이를 통해,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명문의 내용처럼 통일신라 시기 중초사와 공존하며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당간지주 주변까지 조사가 이어지면, 중초사지 당간지주 조성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에는 구 (주)유유산업 안양공장 건물로 발굴하지 못했던 금당 동쪽의 2구역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고려시대 안양사지는 물론이고 신라 중초사지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사지와 주변 발굴조사

	위치	구분	연도	조사내용
1		시굴	2008~2009	- 구 유유산업 부지(건축면적 제외)
2		1차 발굴	2009	- 강당지, 동회랑지 및 안양사 명문 기와
3		2차 발굴	2010	- 금당지, 전탑지, 중문지
4	안양사지	추가발굴	2011	- 서회랑지, 통일신라 문화층
5		시굴	2022	- 남회랑지 남측 1구역(종합정비계획)
6		시굴	2024	- 금당지 동쪽 2구역(종합정비계획)
7		발굴	2024~	- 금당지 동쪽 2구역(종합정비계획)
8	석수동 221-56	시굴	2014	- 사역 북쪽, 유구 없음, 기존 건물로 훼손
9	석수동 218-9	표본	2019	- 사역 서쪽, 유구 없음, 기존 건물로 훼손
10	석수동 218-6	발굴	2021	- 사역 서쪽, 약 100m, 원지형 구릉 남단 - 건물지 7동, 통일신라~고려 유물
11	석수동 824-2	표본	2021	- 사역 동쪽, 현대 안양사 남쪽, 유구 없음 - 조사지역 북쪽으로 추정 건물지 확인
12	안양동 15-16	표본 발굴	2019 2019~2020	- 사역 남쪽, 삼성천 대안, 예술공원 초입 - 통일신라~고려 건물지 11기, 석축유구 4기 등 - 통일신라~고려 유물 및 '안양사'명 기와
13	석수동 산24-6번지 일원	시굴	2023	- 야외전시작품 설치부지 내 유적

안양사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에서는 북쪽의 폐기된 장식광 인근과 동북쪽의 현재 안양사 인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안양사지와 인접한 조사 성과 중에는 통일신라~고려시대 다수의 건물지가 확인된 유적도 있었다. 안양사지에서 서쪽으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석수동 218-6번지에서는 경사면에 총 7동의 건물지와 돌을 깔아서 만든 통일신라 보도가 확인되었으며, 안양사지 출토품과 동일한 기와를 비롯하여 다양한 통일신라~고려 유물도 출토되었다.⁴² 남쪽으로 삼성천을 건너 바로 인접한 예술공원 입구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안양동 15-16번지) 유적에서는 안양사지에서 출토된 '안양사' 명문 기와를 비롯하여, 통일신라~고려시대 건물지가 다수 확인되었다.⁴³ 이 유적은 안양사지에서 삼성천을 건너 남쪽으로 안양천 유역에 곧장 도달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안양사 외곽에 마련된 일종의 역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의 편년을 고려하면, 일부 유적은 통일신라 중초사와 관련하여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안양사지 유구 배치도



주변 발굴유적 및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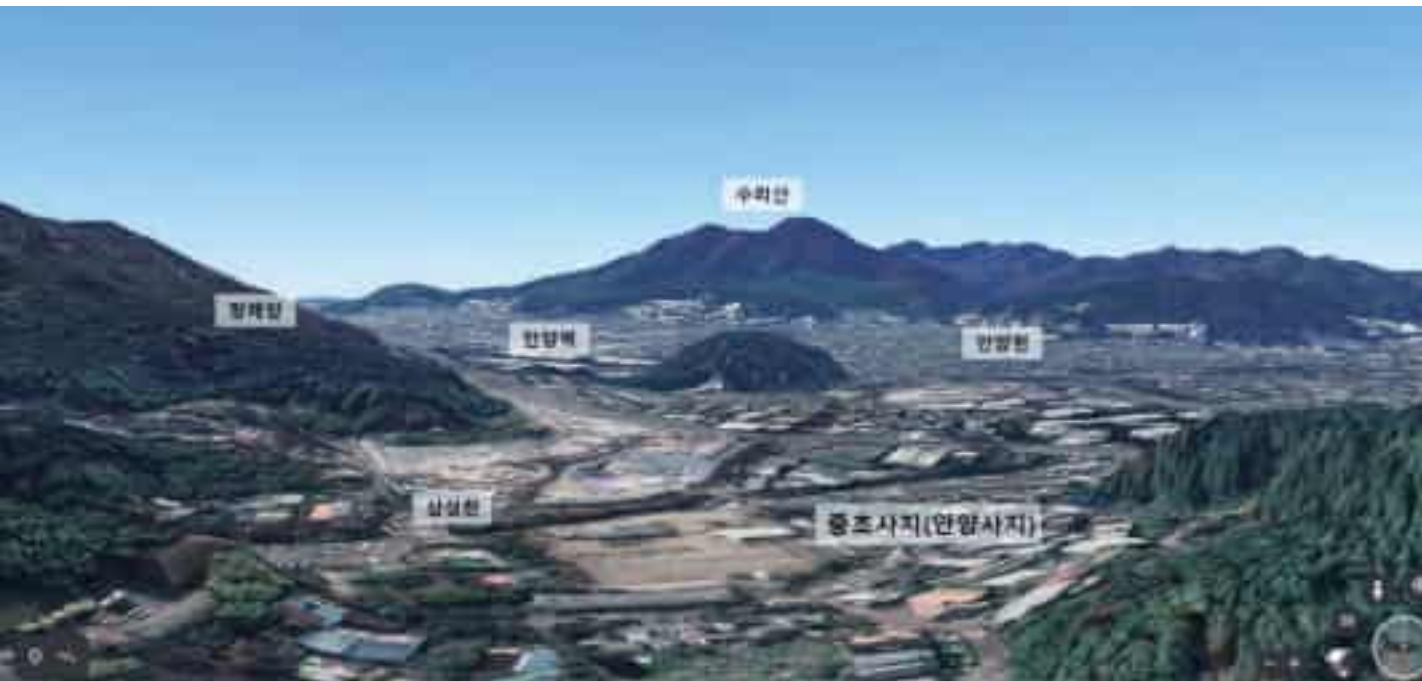
이상의 조사 성과를 통해, 고려시대 안양사 가람배치와 넓은 사찰 권역이 확인되었으며, 신라 하대 중초사의 흔적도 확인되었다. 특히 주변지역의 발굴조사에서 신라 하대의 유적,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신라 중초사도 고려 안양사만큼이나 다양한 부속시설을 주변에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안양사는 이러한 중초사를 중창하고, 전탑을 새로 쌓아 중문-전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는 가람 배치를 완성하였다. 또한 주변에 석수동 마애종, 안양사 귀부·부도, 망해암 석조여래입상 등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명문, 안양사지 일대의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중초사가 신라 하대에 안양지역에서 번성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 권역에서 신라 사찰로 생각되는 곳은 서울 장의사藏義寺,⁴⁴ 안성 화차사(華次寺: 고려 때 봉업사로 중창)⁴⁵ 등 소수에 불과하므로, 중초사의 조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중초사의 창건 배경을 검토하여, 신라시대 안양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유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양은 신라 균현의 치소로 기능하지 않았고, 울진군 내에 속한 하나의 지역에 불과하였다. 다만, 바로 북쪽의 서울 금천 호암산성과 독산동 유적 등이 곡양현(영별노현)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초사는 곡양현의



중초사지(안양사지)의 경관축 (남→북) (구글어스 재편집)



중초사지(안양사지)의 경관축 (북→남) (구글어스 재편집)

호암산성과 연계하여, 바로 남쪽에 대대적으로 조성된 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신라가 9세기 전반에 김헌창, 김범문의 난을 잇달아 겪으면서, 변경인 한주지역에 중초사를 세우고, 민심을 규합하여 변방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황룡사 승려가 파견되어 당간지주 공사를 주도한 것은, 선종 계열 사찰이 없는 한주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고 파악하였다.⁴⁶

이러한 연구의 맥락을 이어서, 교통로의 측면에서도 중초사의 창건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중초사는 안양천을 따라 형성된 남북 방향의 교통로에 인접하며, 동쪽으로 관악산과 삼성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삼성천 유역 북쪽 및 삼성산 능선의 남쪽 대지에 위치하여 남서쪽으로 안양천 유역의 교통로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중초사 북쪽으로 야트막한 구릉만 넘어가면, 삼막천 유역 북쪽으로 호암산성과 바로 연결된다. 신라의 북서쪽 변방인 한주, 그 안에서도 안양지역에, 황룡사 승려가 참여할 정도의 불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 지역이 가진 교통로상의 특성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 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1권, 2008, 147~151쪽.
- 2 『삼국지』 권30. 위서동이전 한; 『후한서』 권85.동이열전 한.
- 3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 시론」, 『동양학』 9,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1979.
- 4 윤용구, 「마한제국의 위치 재론」,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2019.
- 5 『진서』 권97. 열전 마한.
- 6 『진서』 권36. 열전 장화.
- 7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27년(9).
- 8 박경신, 「경기지역 마한문화의 전개양상」,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문』, 46, 한국고고학회, 2022.
- 9 권오영, 「마한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 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2010.
- 10 임동민, 「안양지역 고대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안양문화』 23, 안양문화원, 2018, 32쪽.
- 11 이와 관련한 연구동향은 다음이 참고된다. 임동민, 「『진서』 마한 교섭기사의 주제와 경로」, 『한국고대사연구』 89, 한국고대사학회, 2018.
- 12 명지대학교박물관, 『안양 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0.
- 13 중부고고학연구소, 『안양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2013.
- 14 고려문화재연구원, 『안양 관양동 유적-안양 관양지구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2012.
- 15 거례문화재연구원,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부지(A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기호문화재연구원,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부지(B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한울문화재연구원,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부지(C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 16 하문식·백종오·김병희, 「백제 한성기 모락산성에 관한 연구」, 『선사와 고대』 18, 한국고대회, 2003.
- 17 정호섭, 「고구려의 주·군·현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2019.
- 1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551).
- 19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 2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553).
- 21 기호문화재연구원, 『광명 소하동 고분군』, 2011.
- 22 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경문화사, 2021, 63-65쪽.
- 23 명지대학교박물관·호암미술관,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0.
- 24 김진영, 앞의 책, 2021, 102쪽.
- 2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의왕 이동 청동기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 26 정요근,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2011; 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27 윤성호, 앞의 논문, 2018, 270-272쪽.
- 28 서울대학교박물관, 『한우물-호암산성 및 언지 발굴조사보고서』, 1990.
- 29 거례문화유산연구원, 『서울 독산동 유적-서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2016.
- 30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 관양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2.
- 31 서경문화재연구원, 『안양 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 32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안양 비산동 510번지 유적: 안양 비산동 평화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1.
- 33 중부고고학연구소, 『안양 비산동 유적』, 2021.
- 34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21.
- 35 중부고고학연구소, 『안양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 36 명지대학교박물관·호암미술관, 앞의 책, 1990.
- 37 중초사지, 안양사지 관련 서술은 임동민의 「석수동 214번지의 역사,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사학연구』 149, 한국사학회, 2023)을 수정·요약한 것이다.
- 38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 39 안양시·한울문화재연구원, 『안양사지 - 안양 구 유유부지 발굴조사 -』, 2013; 엄기표, 『안양 중초사지와 안양사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2019.
- 40 안양시·한강문화재연구원,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종합정비계획』, 2020.
- 41 안양시·(재)한강문화재연구원,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유적(1구역) 문화재시굴 조사 약식보고서』, 2022.
- 42 국토문화재연구원, 『안양 석수동 218-6번지 외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1.
- 43 한양문화재연구원, 『안양 안양2동 15-16번지 유적』, 2022.
- 4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조 무열왕 6년(659) 10월.
- 45 경기도박물관, 『봉암사奉業寺』, 2002; 경기도박물관, 『고려 왕실 사찰, 봉암사』, 2005.
- 46 엄기표, 앞의 논문, 2019.

02 고려의 성립과 안양 세계

제1장 나말여초 지역 동향과 고려의 후삼국통일

제2장 지방행정과 사회·경제

제3장 불교의 극락정토 세계 '안양'



안양지역은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고을 행정 단위의 편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관악산 능선과 삼성천 물줄기, 그리고 수리산 수암봉 능선으로 이어지는 자연 지리적 경계를 통해 통일신라의 울진군과 곡양현, 고려의 과주와 금주를 구분하였다. 오늘날 안양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안양사’는 현실에서의 극락정토 세계 구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안양지역에 안양사라는 사찰이 건립된 것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정치 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1장

나말여초 지역 동향과 고려의 후삼국통일



정요근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1. 고을 간 경계 지대로서의 입지

‘오늘날 안양시 지역’(이하 ‘안양시 지역’)은 2개 구 7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법정동 중에서 조선시대에는 안양동과 관양동·비산동·평촌동·호계동 등 5개 동이 과천현 果川縣에 속해 있었고, 나머지 석수동과 박달동 등 2개 동은 금천현 衿川縣에 속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양동과 비산동은 과천현 상서면 上西面에, 안양동과 호계동은 과천현 하서면 下西面에 소속되었고, 평촌동은 대체로 과천현 하서면에 속하면서 상서면에 약간 걸쳐 있었다. 그리고 석수동은 금천현 현내면 縣內面에, 박달동은 금천현 서면 西面에 소속되어 있었다.¹

안양시 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안양동 일대로부터 옛 과천현 중심지(현 과천시 중앙동·관문동)와의 거리나, 옛 금천현 중심지(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와의 거리는 모두 10km(직선거리 기준)에도 훨씬 못 미쳐 상당히 가까웠다. 그러므로 과천현과 금천현의 중심지가 가까이 위치한 상황에서 안양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고을이 설치되기는 어려웠다.

안양시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1000년 넘게 고을 행정 단위의 편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조선시대 과천현은 통일신라 때의 울진군 栗津郡과 고려 때의 과주 果州를 계승하였고, 조선시대 금천현은 통일신라 때의 곡양현 穀壤縣과 고려 때의 금주 衿州를 계승하였다. 즉 통일신라의 울진군은 고려 때 과주, 조선 때는 과천현이 되었으며, 곡양현은 고려 때 금주, 조선 때 금천현으로 이어졌다. 다만 금천현은 조선 후기인 1795년에 시흥현 始興縣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 초기 한때 금천은 과천현과 통합되어 금과현 衿果縣으로, 그리고 양천현 陽川縣과 통합되어 금양현 衿陽縣으



안양시 일대의 현대와 조선시대 행정구역 중첩 지도 현대의 행정 경계(분홍색: 시·도, 연두색:시·군, 노란색: 읍·면·동) 조선시대 행정 경계(굵은 점선: 고을 간 경계, 실선: 면 경계)

로 편성된 적이 있었으나, 두 고을이 존속한 기간은 금과현이 불과 몇 개월, 금양현 역시 1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² 전반적으로 읍격邑格에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고을의 편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안양시 지역을 포괄하는 고을인 과천현과 금천현은 사실상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온 지방행정 단위였다. 통일신라의 울진군과 곡양현이 그 이전의 울목군栗木郡과 잉벌노현仍伐奴縣에서 기원하였다는 기록³을 신뢰하면, 그 기간은 더 연장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안양시 일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일제에 의한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때 시흥군에 기존의 시흥과 과천, 그리고 안산安山이 통합되었으나, 그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폭증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크게 변동하였다. 과천현은 시흥에 통합되었다가 현재는 경기도 과천시로 계승되고 있고, 시흥현은 시흥군이 되어 과천과 안산을 통합하였다가 현재는 서울에 편입되어 서울시 금천구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재의 시흥시는 조선시대 안산과 인천仁川의

석수동과 박달동은 금천의 전신인 통일신라 때의 곡양현과 고려 때의 금주에 속했을 것이다. 방위 기준에 따르면, 오늘날 안양시의 영역은 ‘울진(통일신라)-과주(고려)-과천(조선)’의 서쪽 영역, ‘곡양(통일신라)-금주(고려)-금천(조선)’의 남쪽 영역에 해당한다.

통일신라 때 울진군은 곡양현을 포함하여 공암현(孔巖縣)과 소성현(邵城縣) 등 3개 현을 거느렸다.⁵ 공암현은 오늘날 서울시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서부 지역, 소성현은 오늘날 인천시 연수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시 남부지역과 시흥시 북부지역 등에 편성되었다. 3개 현을 포함하는 울진군의 관할 범위는 동쪽으로 오늘날 과천시에서 서쪽으로 오늘날 인천시 서해안까지 동서 방향으로 길게 펼쳐져 있었다. 곡양과 공암, 소성 등 3개 현은 비록 울진군의 관할 아래 있었으나, 울진군의 직속 영역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직접 통치 구역을 가진 별개의 고을이었다.

안양시 지역에서 조선시대 과천과 금천 사이의 경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고증하면, 안양시 동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관악산 정상에서 서쪽의 삼성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동서 방향의 능선이 경계선으로 설정되었다. 두 고을의 경계는 능선 중간 지점의 오늘날 무너미고개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삼성천의 물줄기를 따라 서남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안양천을 건너 남쪽의 수리산 수암봉 방면으로 뻗어 있는 능선을 따라 연결되었다. 그와 같은 경계 설정의 기원은 통일신라의 울진군과 곡양현, 고려의 과주와 금주를 구분하는 경계에서 기원하였을 것이다. 즉 관악산 능선과 삼성천 물줄기, 그리고 수리산 수암봉 능선으로 이어지는 자연 지리적 경계는 통일신라 때부터 오랫동안 두 고을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안양시 지역은 울진군과 곡양현 두 고을의 경계 지대에 위치하였다. 오늘날 안양시의 2개 구 7개 법정동 중에서 동안구 관할 4개 법정동(관양동, 비산동, 평촌동, 호계동) 모두와 만안구의 안양동은 울진군에 속했고, 만안구의 석수동과 박달동은 곡양현에 속했다.⁶

오늘날에도 이 경계선은 안양시의 영역을 동북 방면에서 서남 방면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계승되어, 안양동과 석수동, 안양동과 박달동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관악산과 수리산의 산줄기와 삼성천의 물줄기로 대표되는 자연 지리적 경계는 행정 단위의 경계선으로 통일신라 때부터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셈이다.

2. 궁예 정권의 남방 경략

신라 말기에 이르면 중앙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지방 각지에서는 이른바 ‘호족豪族’이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지방 세력이 대두하면서, 신라의 국가 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후삼국시대로 이어졌다. 후삼국시대 안양시 지역을 포함한 한강 하류 일대의 패권은 궁예弓裔가 장악했다. 궁예는 신라 진성여왕 5년(891년) 죽주竹州의 세력가인 기훤箕萱의 부하가 되었다가 이듬해 북원(北原, 현 강원도 원주시)의 양길梁吉에게 귀부하였으며, 진성여왕 8년(894년)에는 명주溟州에서 자립하여 독자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궁예는 다시 서북쪽의 영서 지방으로 진출하여 철원 일대를 장악하였다. 진성여왕 10년(896년)에는 송악(松岳, 현 북한 개성시)의 호족이었던 왕릉王隆이 궁예에게 귀부하였다.⁷

신라 효공왕 2년(898년) 궁예는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남방 경략을 추진하였다. 먼저 공암(孔巖, 양천현의 전신으로 현 서울시 강서구와 그 주변 일대)과 검포(黔浦, 현 경기도 김포시 일대), 혈구진(穴口鎭, 현 인천시 강화군 일대) 등을 장악하여 한강 하류 남쪽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왕릉의 아들이자 훗날 고려를 건국하는 왕건王建은 궁예의 장수로서 궁예의 세력 확장에 큰 공을 세웠다. 효공왕 2년 왕건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양주(楊州, 현 서울시 광진구와 그 주변)와 견주(見州, 현 경기도 양주시)를 공격하여 한강 중·상류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하였다. 효공왕 3년(899년)에는 북원 지역의 강력한 호족이었던 양길의 군대를 비뇌성(非惱城, 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소재 죽주산성 추정)에서 패퇴시켰다. 그리고 효공왕 4년(900년)에는 광주(廣州, 현 경기도 하남시와 그 주변)와 충주(忠州, 현 충북 충주시), 청주(靑州 또는淸州, 현 충북 청주시), 당성(唐城, 현 경기 화성시), 괴양(槐壤, 현 충북 괴산군) 등을 토벌하여 오늘날 경기도 남부지역과 충청북도 중·북부지역까지 장악하였다. 궁예는 그러한 세력 확장을 바탕으로 효공왕 5년(901년)에 드디어 왕을 칭하였다.⁸

효공왕 재위 연간에 진행되었던 궁예의 남방 경략 과정에서 안양시 지역은 궁예 정권, 즉 태봉泰封⁹의 판도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통일신라 때 안양시 지역을 관할하던 울진군이나 곡양현 지역은 궁예의 근거지가 있던 한강 이북의 송악으로부터 한강을 건너 오늘날 경기도 남부나 충청도 방면으로 남진하기 위한 후방의 중간 경유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울진군은 효공왕 4년에 왕건에 의해 장악되었던 광주와 이웃한 곳인 까닭에, 늦어도 이때는 궁예의 판도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곡양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 울진과 곡양 두 지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태봉의 판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육상교통로를 통한 태봉의 남방 경략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신라 왕경이 있던 한반도 동남 방면이고, 다른 하나는 후백제의 중심부가 있던 한반도 서남 방면이다. 안양시 지역은 한반도 서남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한반도 서남 방면에서 태봉과 후백제 사이의 접경지역에 있던 주요 요충지로는 청주와 공주(公州, 현 충남 공주시)를 들 수 있다. 청주는 효공왕 4년에 왕건의 활약으로 궁예의 판도 안에 들어왔고,¹⁰ 통일신라 때 웅주(熊州)라고 불렸던 공주는 효공왕 8년(904년)에 장군 홍기(弘奇)의 귀순으로 태봉의 영토가 되었다.¹¹

태봉의 입장에서 청주는 한반도 서남지역과 동남지역 모두 향할 수 있는 중간 거점이었고, 금강을 끼고 있는 공주는 남쪽으로 후백제의 도읍인 완산주(完山州, 현 전북 전주시)와 직접 연결되는 요충지였다. 궁예는 904년 철원을 도읍으로 삼을 때 청주의 주민을 철원으로 대거 이주시키는 등¹² 청주를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그런 까닭에 궁예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동요하던 청주의 사람들을 위무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¹³ 한편 공주는 태봉과 후백제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던 곳이었다. 홍기의 항복으로 공주는 태봉의 영토가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백제의 판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궁예 말년에 태봉이 수복하였지만,¹⁴ 왕건이 즉위한 후에는 다시 후백제의 영토가 되었다.¹⁵

후삼국 시기 송악에서 공주나 청주 방면을 왕래하기 위해 한강을 건널 때 양화나루(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사이에 있던 나루)나 노량나루(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본동 사이에 있던 나루), 동작나루(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동작동 사이에 있던 나루) 등을 이용하면 안양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상류 쪽의 사평나루(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신사동 사이에 있던 나루)나 광나루(현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 사이에 있던 나루)를 통해 한강을 건넌다면, 방향상 안양시 지역을 경유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효공왕 9년(905년) 궁예가 증부 내륙의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는 철원과의 접근성이 좋은 한강 상류 방면의 광나루가 더욱 중요해졌을 것이다. 광나루를 통해서 한반도 남방으로 향할 때는 방향상 안양시 지역과의 연결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태봉의 철원 도읍 시기에는 남방 경략의 중간 경유지로서 안양시 지역의 중요성은 약해졌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신라 경명왕 2년(918년)에 왕건은 궁예를 제거하고 고려를 세웠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도읍을 송악으로 옮겼다. 안양시 지역은 송악과의 접근성이 좋은 까닭에 고려 건국 후에는 그 중요성이 다시 높아졌다.

3. 태조 왕건의 남방 경략과 안양사

관악산은 한강 하류의 남쪽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이다. 비록 통일신라 때 관악산은 국가 제사가 시행되었던 부아악(負兒岳, 현 북한산)이나 검악(鉗岳, 현 감악산), 화악(花岳, 현 화악산)만큼의 중요도를 지니지는 못했으나,¹⁶ 해발 고도나 산세는 서쪽의 삼성산을 포괄할 정도로 크고 길게 펼쳐져 있다. 조선 전기의 문헌에도 관악산은 과천의 진산(鎭山), 삼성산은 금천의 진산으로 인식되었다.¹⁷ 관악산과 삼성산의 산줄기는 서남쪽의 오늘날 안양시 방면으로 길게 뻗어 내려왔으며, 통일신라 때는 울진과 곡양의 경계를 이루었다.

통일신라 때는 인구 부족이나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고을이 두어질 만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 명산의 기슭에 불교사찰이 여러 곳 건립되었다. 이 사찰들의 위치는 대체로 지방 요충지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지나는 곳이었으며, 고을 간의 경계 권역에 해당하는 곳이 많았다. 이 사찰들은 본연의 종교적 기능 이외에 고을 외곽지역의 개발, 여행자와 주민을 위한 치안 유지, 각종 행사 개최와 지원 등의 기능을 지녔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태백산 기슭에 건립되었던 정선 정암사나 삼척 흥전리사지의 사찰 등을 들 수 있으며,¹⁸ 북한산 기슭에 있던 장의사도 그에 해당하였다.

안양시 지역의 중초사(中初寺) 역시 같은 범주의 성격을 지닌 사찰로 이해할 수 있다. 중초사는 삼성천 북쪽 연변에 건립되어 영역적으로는 곡양현에 속했다. 그러나 삼성천의 물줄기를 기준으로 북쪽은 곡양현, 남쪽은 울진군의 영역으로 나뉘는 까닭에, 중초사의 위치는 사실상 두 고을의 경계 지대에 해당하였다.

현존하는 중초사의 흔적으로는 신라 흥덕왕 2년(827년)에 세워진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를 들 수 있다.¹⁹ 중초사가 있던 자리는 현재 안양박물관 경내와 그 주변 일대이다. 고려 건국 후에는 중초사의 자리에 안양사(安養寺)가 들어섰다. 안양사는 군사 원정을 떠나는 태조 왕건과 이곳에 기거하던 고승인 능정(能正)의 뜻이 서로 맞았던 까닭에 건립되었던 사찰로 알려져 있다. 태조 왕건은 불교가 나라의 다스림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탑과 사찰을 여러 곳에 세우도록 하였다. 안양사의 7층 전탑(轉塔)도 그중 하나이다.²⁰

2008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중초사와 안양사의 옛터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사찰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7층 전탑의 터도 조사되었다. 또한, 흥덕왕 2년(827년) 당간지주의 건립 이전부터 사찰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물들도 출토되었다. 사찰의 규모는 통일신라 당시에도 상당히 컸으며, 고려시대에 대대적인 증창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근래에는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에 새겨진 명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통일신라 때 조성되었던 사찰의 명칭 역시 중초사가 아니라 안양사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²¹

한편,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태조 2년(919년) 도읍을 송악, 즉 개경(開京)으로 옮기고, 후백제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남방 경략을 이어 나갔다. 육상교통로를 통한 고려의 주된 남방 경략 방면은 태봉과 마찬가지로 동남쪽의 신라 왕경 방면과 서남쪽의 후백제 방면이었다. 그중에서 후백제로 직접 이어지는 서남 방면에서는 청주와 공주 일대에서 전선이 교착되어 국경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 동남쪽 신라 왕경 방면의 경우에는 건국 이후 한동안 고려의 영향력이 후백제에 비해 상당히 뒤쳐졌다. 그런 까닭에 고려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라 왕경 방면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였고,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큰 전투는 신라 왕경 방면에 해당하는 오늘날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펼쳐졌다.²²

태조 왕건이 관악산 또는 삼성산의 고승인 능정을 만나 자문을 얻은 일은 각 지역의 호족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면서 고려로의 귀부를 유도했던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안양사 일대는 고려의 도읍인 개경에서 남방 경략을 위해 나아가는 이동 경로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그러한 점에서 태조 왕건은 불교계의 지도자인 능정을 지방 호족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의천(義天, 1055~1101)의 저작인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는 능정이 신라로부터 고려 태조에게 귀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²³ 그러나 능정이 실제 신라 지역에서 왕건에게 옮겨가 귀순했다기보다는, 원래 신라의 고승으로서 안양사(또는 중초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왕건에게 귀부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안양사의 건립에 관한 이상의 내용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안양사 지역이 가진 입지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역의 명산인 관악산을 배경으로 건립된 안양사(중초사)가 그 지도자급 승려인 능정을 중심으로 지방 호족에 버금가는 권위와 세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안양사 지역이 후삼국 시기 고려 남방 원정군의 주요 이동 경로상에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안양사 지역은 한강 하류 남쪽 지역의 주요 거점인 수성군(水城郡)²⁴으로 연결되는 입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능정의 협력은 태조 왕건의 남방 경략에, 나아가 태조 19년(936년)에 달성되는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큰 도움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안양사 앞을 지나는 교통로는 오늘날에도 경부선 철도와 1번 국도가 지나는 간선 교통로로 중시되고 있다. 통일신라 때 신라 왕경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교통로는 남쪽의 수성군에서 서북쪽으로 장제군(長堤郡)²⁵과 해구군(海口郡)²⁶ 방면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지녔



안양시 일대의 통일신라시대 행정구역도

으며, 북쪽으로는 한강의 양화나루나 노량나루를 건너 임진강 유역으로 북상하는 교통로와도 연결되었다. 후삼국 시기에는 고려의 도읍이 있던 개경 방면에서 남쪽으로 한강을 건너 후백제의 중심부가 위치한 한반도 서남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의 중간 구간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안양시 지역은 궁예나 왕건의 남방 경략에 있어서 중요한 경유지가 되었고, 궁예나 왕건의 입장에서는 능정과 같은 이 일대의 지역 세력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어서 남방 경략을 위한 지지와 후원을 받아내는 일이 중요하였다.

4. 고려의 후삼국통일과 주변 호족 세력의 협력

고려와 후백제의 경쟁이 격화되자, 고려의 판도 내에 있던 고을들은 태조 왕건의 남방 경략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후삼국통일 이후 고려의 중앙정부는 통일전쟁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방 호족과 그들의 근거지에 포상과 혜택을 주었다. 울진군과 곡양현의 경계 지대에 해당하는 안양시 지역에서는 안양사의 능정으로 대표되는 불교 세력 이외에, 호족이라 불릴 만한 강력한 토착 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안양시 지역의 일부를 관할하던 곡양현에서 토착 호족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는 강감찬(姜邯贊)의 아버지인 궁진(弓珍)이다. 궁진은 고려 태조 왕건을 섬겨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의 칭호를 받았다.²⁷

궁진이 곡양지역에 기반을 가지게 된 계기는 강감찬의 5대조, 즉 궁진의 4대조인 여청(餘淸)의 정착으로 알려져 있다.²⁸ 여청은 신라 출신으로서 곡양²⁹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신라 왕경(王京)의 지배층에 속해 있다가 곡양으로 이주해와 토착 기반을 다진 인물로 파악된다. 여청의 후손인 궁진이 왕건을 섬겨 삼한벽상공신의 칭호를 얻었다는 사실은 궁진이 곡양을 대표하는 호족으로서 왕건의 남방 경략 때 직접 종군했거나 군사나 물자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문헌 기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곡양의 궁진과 비슷한 사례로, 주변 가까운 곳에서 수주(水州)와 이천(利川)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수주는 통일신라 때 수성군이라 하였다. 후삼국 시기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원정을 떠날 때, 수성군 사람인 김칠(金七)과 최승규(崔承珪) 등 200여 명은 왕건에게 귀순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런 까닭에 고려에서는 그 공훈을 인정하여 수성군을 수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³⁰ 김칠과 최승규는 함께 귀순한 200여 명을 대표하는 수주지역의 유력 호족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천은 원래 황무현(黃武縣)으로서, 한주(漢州) 주치(州治)의 직접 관할 아래에 있던 현이었다.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원정을 떠날 때 이천 사람인 서목(徐穆)이 왕건의 군대가 하천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므로, 왕건은 황무현을 이천군(利川郡)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³¹ 왕건의 군대가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줄 정도라면, 서목 역시 이천을 대표하는 호족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주는 후백제 방면, 이천은 신라 왕경 방면으로 향하는 중간 지점에 있었던 만큼, 두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는 태조 왕건의 남방 경략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건은 읍격의 상승을 통하여 후삼국통일에 공을 세운 두 지역을 표창하였다. 한편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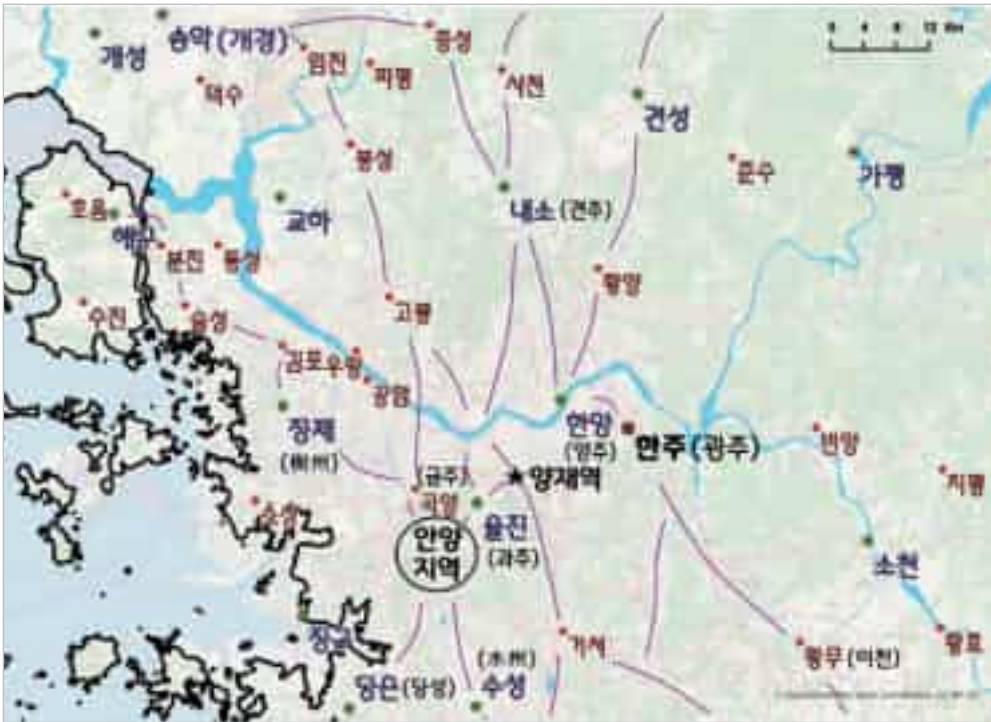
양은 한강 북쪽의 개경 방면에서 양화나루나 노량나루를 통해 한강을 건넌 다음, 남쪽의 수주 방면으로 이어지는 중간 지점에 있었다. 고려의 남방 경략 과정에 있어서 곡양의 입지적 성격은 수주나 이천과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곡양의 궁진이 삼한벽상공신의 칭호를 얻게 된 이유는 태조의 남방 원정에 공을 세운 수주나 이천 호족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곡양현은 고려 초기에 금주로 명칭이 높아졌다. 기존의 ‘현縣’ 대신 ‘주州’로 승격한 것이다. 이는 수주나 이천의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즉 후삼국통일의 과정에서 궁진을 대표로 하는 곡양지역의 공현이 반영되어, 곡양현에서 금주로 승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식으로 명칭이 개정된 시기는 후삼국통일 4년 후인 태조 23년(940년)으로 여겨지나, 실질적인 개정의 시점은 ‘고려 초’라고 지칭되는 후삼국통일 이전으로 파악된다.³² 수성군이 수주로, 황무현이 이천군으로 승격한 시점도 같은 때로 여겨진다. 다만, 금주의 고을 규모는 수주나 이천에 비하여 크지 않았던 관계로, 비록 명칭상 ‘현’에서 ‘주’로 승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대읍大邑인 광주나 수주樹州, 수주水州, 양주楊州 등과 동등한 ‘주’의 위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편 울진군에서는 뚜렷한 호족 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문헌 기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울진군 사람들이 태조 왕건의 남방 원정에 어느 정도 협력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고려 초기에 울진군 역시 과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주’는 ‘군’보다 상위의 읍격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울진군을 과주로 개명한 것 역시 승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승격의 혜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뚜렷한 호족 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울진군이 과주로 명칭이 높아진 데에도 태조의 남방 경략이 깊게 연관되었다고 여겨진다. 한강의 북쪽에서 한강의 사평나루나 동작나루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면, 과주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사평나루에서는 남쪽으로 천천현穿川峴 고개, 즉 오늘날의 달래내 고개를 넘어 거서현巨黍縣³³으로 연결되는데, 거서현에서는 한반도 동남쪽의 신라 왕경 방면 교통로와, 한반도 서남쪽의 후백제 방면 교통로가 갈라졌다.

사평나루에서 거서현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고려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이 늘어나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잦은 군사 원정이 이루어지던 후삼국 시기에도 요긴하게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 교통로는 울진군의 중심지(현 과천시 중앙동·관문동)를 지나지는 않았으나, 사평나루에서 천천현 고개에 이르는 중간 구간이 울진군의 영역에 해



안양시 일대 나말여초 남북 방면 주요 교통로 (신라 지명 기준, 괄호 안은 고려 때 지명)

당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 이 교통로상에 있었던 역참인 양재역(良梓驛 또는 良才驛, 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 울진군의 후신인 과주(조선시대 과천현)의 영역 내에 있었다.³⁴ 양재역에서는 양재천 물줄기를 따라 울진군 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울진군 중심지에서는 서남쪽으로 안양시 지역을 거쳐 남쪽의 수성군과 당은군(唐恩郡)³⁵ 방면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동작나루를 통해서는 남태령을 넘어 곧바로 울진군 중심지와 이어졌으며, 이 교통로 역시 안양시 지역을 거쳐 수성군과 당은군 방면으로 향했다.

대체로 울진군 지역은 고려의 남방 경략을 위한 이동로의 경유지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곡양현의 금주 승격과 마찬가지로, 울진군의 과주 승격 역시 후삼국 시기 지역 사람들이 고려의 남방 경략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데에 주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 1 '안양시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의 안양 소개 항목', 『호구총수』 제2책 경기도 금천·과천, '조선총독부 편, 『구한국지 행정구역명칭일람』, 경성본천 대화학회, 1912, 73~75쪽', '오치 다다시치[越智唯七],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중앙시장, 1917, 64~65쪽' 등을 참조하여 고증하였다.
 - 2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금천현.
 - 3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울진군.
 - 4 조선시대 지방 행정구역의 영역과 경계 복원을 통하여 그 이전 시기 지방 행정구역의 영역과 경계를 고증하여 복원하는 방법론은 정요근의 『GIS 기반 고려시대 역사지도의 제작』(『한국중세사연구』 37, 2013) 325~337쪽에서 소개하였다.
 - 5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울진군.
 - 6 조선 후기의 문헌인 『호구총수』에 따르면, 『호구총수』 제2책의 경기도 금천과 과천의 항목에 금천 현내면 소속의 안양리安養里와 과천 하서면 소속의 안양리安陽里 등 한자가 다른 2개의 안양리가 기재되어 있다. 앞의 안양리는 시흥군 동면 안양리와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를 거쳐 현재의 석수동이 되었고, 뒤의 안양리는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를 거쳐 현재의 안양동이 되었다.
 - 7 이상의 내용은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재위 연간의 기록,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공예의 기록, 『고려사』 권1, 세기1 태조1' 앞부분 총서의 기록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 8 이상의 내용은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재위 연간의 기록,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공예의 기록, 『고려사』 권1, 세기1 태조1' 앞부분 총서의 기록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 9 『삼국유사』 권1, 왕력'의 내용에 따르면, 공예가 처음 왕을 칭하였을 때의 국호는 고려 또는 후고려로 알려져 있다. 공예는 이후 마진, 태봉 등으로 국호를 고쳤는데, 편이상 이 글에서는 공예가 세운 나라의 이름을 '태봉'으로 통일한다.
 - 10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공예의 기록 및 『고려사』 권1, 세기1 태조1' 앞부분 총서의 기록에서 인용하였다.
 - 11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공예.
 - 12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공예.
 - 13 『고려사』 권1 세기1 태조 2년 8월 계묘; 『고려사』 권92, 열전5 왕순식 부 견군.
 - 14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이흥암'에 따르면, 공예 말년에 이흥암(伊昕巖)이 웅주, 즉 공주를 습격하여 차지했다고 하였으므로, 흥기의 귀순 이후 어느 때 공주는 다시 후백제의 영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5 『고려사』 권1, 세기1 태조 1년 8월 계해.
 - 16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소사'에 따르면, 한강 유역 일대에서 신라 때 국가 제사를 지냈던 산으로는 부아악과 겸악, 화악 등이 있었고, 관악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 과천현 산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경기 금천현 산천.
 - 18 이상의 내용은 정요근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태백산 권역의 지방 통치와 불교 사찰』(『사학연구』 153, 2024) 80~97쪽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 19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명문銘文에 따르면, 당간지주는 보력寶曆 2년 병오년 8월 6일에 건립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해인 정미년 2월 30일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보력 2년 병오년은 서기
- 로 환산하면 826년이고 정미년은 827년이다. 자료의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 사료 DB(<https://db.history.go.kr/ancient/>)를 참조하였다.
 - 20 이상의 내용은 『동문선』 권76, 기 금주안양사탑중신기'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 21 이상의 내용은 '엄기표, 『안양 중초사지와 안양사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양미술사학』 26, 2019, 35~57쪽'과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2021, 65~71쪽', '임동민, 『석수동 214번지의 역사,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중초사지 당간지주, 안양사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49, 2023, 13~28쪽' 등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 22 이상의 내용은 정요근의 『후삼국시기 고려의 남방진출로 분석』(『한국문화』 44, 2008) 11~24쪽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 23 『대각국사문집』 권17 시 안양사에능정승통원. 한편 위의 『동문선』에서는 능정의 이름을 '능정能正'으로 표기했으나, 『대각국사문집』에서는 '능정能淨'으로 표기하였다.
 - 24 통일신라의 수성군은 고려 수주水州와 조선 수원水原의 전신으로, 오늘날 경기도 수원시로 연결된다.
 - 25 통일신라의 장제군은 고려 수주樹州와 조선 부평富平의 전신으로, 그 중심지는 오늘날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일대에 있었다.
 - 26 통일신라의 해구군은 고려 강화현江華縣, 조선 강화부江華府의 전신으로, 그 중심지와 영역은 현재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 있었다. 신라 문성왕 6년(844년)에 설치된 혈구진穴口鎭은 해구군과 같은 곳으로 여겨진다.
 - 27 『고려사』 권94, 열전7 강감찬.
 - 28 『고려사』 권94, 열전7 강감찬.
 - 29 『고려사』 권94, 열전7 강감찬'에는 곡양이 시흥군始興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흥군은 곡양현穀壤縣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흥은 고려 성종 때(981~997년) 정해진 금주의 별호別號이며, 곡양현은 고려 초에 금주로 명칭이 바뀐다. 강감찬 일화가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곡양현이 시흥군으로 높여져 전해졌다고 여겨진다.
 - 30 이상의 내용은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수주'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 31 이상의 내용은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광주목 이천군'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 32 박종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108~129쪽.
 - 33 통일신라의 거서현은 고려 용구현龍駒縣, 조선 용인현龍仁縣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를 관할 영역으로 두었다.
 - 34 『고려사』 권82, 지36 병2 침역'에 따르면 광주도[廣州道: 『고려사』 원문에는 광주도가 경주도慶州道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소속 15개 역 중에서 양재역良才驛이 과주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 과천현 역원'에는 양재역良才驛이 과천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35 통일신라의 당은군은 고려의 당성군唐城郡, 조선의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로 이어지며, 그 중심지는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에 있었다.

2장

지방행정과 사회·경제



정요근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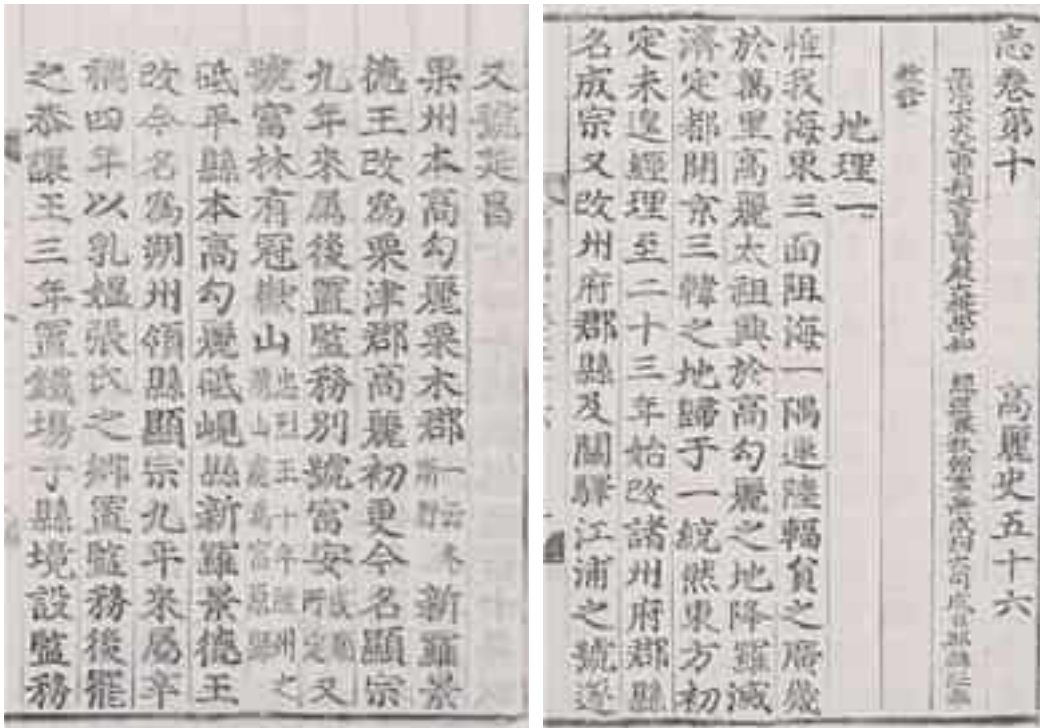


1. 주현제州縣制와 10도제十道制의 실시

고려는 후삼국통일을 완수한 지 4년 만인 태조 23년(940년)에 지방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때의 개편은 원래의 고려 영역뿐만 아니라 신라와 후백제의 옛 지역까지 대상으로 하는 개편이었다. 그러나 태조 23년의 지방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까닭에, 개편의 실상을 상세히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태조 23년의 개편에서는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고을에 대해서는 그 읍격邑格을 높여주었으며, 고려에 비협조적이거나 적대적이었던 고을에 대해서는 읍격을 낮추는 조치가 단행되기도 하였다.¹ 다만 그러한 고을 읍격의 승격과 강등은 태조 23년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후삼국통일 전쟁의 수행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 ‘고려 초初’에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된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²

통일신라 때 ‘오늘날 안양시 지역’(이하 ‘안양시 지역’)을 관할했던 두 고을인 울진군栗津郡과 곡양현穀壤縣도 ‘고려 초’의 시기에 각각 과주果州와 금주衿州로 승격하여 명칭이 바뀌었다.³ ‘주州’는 ‘군郡’이나 ‘현縣’보다 높은 읍격으로 인식되었으므로, 두 고을의 호구戶口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두 고을에 주어진 ‘주’의 명칭은 실제 고을 규모에 비해 높게 설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두 고을과 가까운 주변 지대에서 ‘고려 초’에 새롭게 주州가 된 고을로는 전주見州와 양주楊州, 행주幸州, 수주樹州, 수주水州, 죽주竹州 등 여러 곳이 찾아진다. 고려 초기 한반도 중서부 지역(오늘날 경기도 일대)에서는 전체 고을 숫자에 비하여 ‘주’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⁴ 이는 후삼국통일의 명운이 걸린 고려의 남방 경략 시기에, 후방에 있었던 이 고을들이 적극적인 협력의



『고려사』 지리지 '과주' 기록(국사편찬위원회)

공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후 10세기 후반 성종 연간(981~997년)이 되면 다시 대대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우선 성종 2년(983년) 전국의 주요 고을에 12목牧을 설치하고 지방관地方官을 파견하여, 지방 통치의 거점으로 삼았다. 성종 14년(995년)에는 주현제州縣制와 10도제十道制를 실시하였다. 주현제와 10도제의 시행은 당唐의 제도를 참조하고 통일신라 이래 지방제도 운영의 역사적 경험을 흡수하여 진행된 전국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었다.⁵

주현제는 '현縣'을 기본적인 지방행정 단위로 하고, 그 위에 '주州'를 두어 하나의 주가 여러 곳의 현을 거느리는 방식의 행정 편제이다. 1개 주가 대략 3~4곳의 현을 거느렸다고 알려져 있다.⁶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현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당시 10도 128주 449현⁷ 7진鎭이 편제되었다는 사실 정도가 파악되고 있다.⁸ 128개 주 중에서는 비중이 높았던 곳을 중심으로 절도사節度使가 12곳, 도호부사都護府使가 4곳 또는 5곳, 도단련사都團練使가 7곳, 단련사團練使가 11곳, 방어사防禦使가 7곳 또는 21곳, 자사刺史가 15곳 파견되었으며, 그 밖에도 관찰사觀察使나 현령縣令, 진장鎭將

등의 지방관이 임명되었다.⁹

주현제와 10도제 실시 당시 안양시 지역을 관할하던 과주와 금주는 10도 중에서 관내도(關內道)에 소속되었다. 도읍인 개경(開京)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된 관내도는 29주 82현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시 광주(廣州)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의 관내동도(關內東道)와 해주(海州)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부의 관내서도(關內西道)로 나뉘었다. 안양시 지역이 속한 과주와 금주는 관내동도에 속했다.

다만 과주와 금주가 어떤 읍격의 행정단위로 편제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만일 128개 주 중 1곳으로 편제되었다면, 거느렸던 현이 3~4곳씩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고을 중에는 광주, 수주(樹州), 수주(水州), 양주 등 '주'의 명칭을 갖는 곳이 많았지만, 그에 비해 현은 소성(邵城), 안산(安山), 공암(孔巖), 용구(龍駒) 등 몇 군데에 지나지 않아 주의 숫자에 비해 3~4배씩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성종 연간 주현제 시행 당시에 과주와 금주가 실제 '주'의 읍격으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이웃한 큰 고을인 광주나 수주(樹州) 등의 관할 아래 '현'의 읍격으로 존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일 '주'의 읍격으로 존재했다하더라도, 절도사나 도단련사, 단련사, 방어사, 자사 중 어느 하나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고을이었는지, 아니면 그 밖의 일반적인 '주'에 해당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주현제와 10도제는 고려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관찰사와 도단련사, 단련사, 자사 등은 설치된 지 불과 10년 후인 목종 8년(1005년)에 폐지되었다.¹⁰ 현종 3년(1012년)에는 절도사도 폐지되었고, 12주 절도사를 대신하여 5도호(都護)와 75도(道) 안무사(安撫使)가 신설되었다.¹¹ 75도 안무사는 7주 안무사가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¹² 주현제의 토대가 흔들리는 가운데, 현종 9년(1018년)에는 대대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단행되었다.¹³ 주현제가 고려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방 세력의 강고한 토착 기반, 고려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당제(唐制)의 무리한 적용, 거란의 침입에 대한 지방 사회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지방관의 파견 인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지방관 인원의 급격한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 연구도 있다.¹⁴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주현제 폐지에 이어서 10도제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2. 주현主縣-속현屬縣 제도의 성립과 운영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서는, 고려가 전국에 4경京 8목牧 15부府 129군郡 335현縣 29진鎭의 고을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을의 숫자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고려사』 지리지에 수록된 지방행정 단위의 편제는 현종 9년(1018년)에 개편된 지방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때 개편된 지방제도에서는 주현主縣-속현屬縣 체제의 수립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현-속현 체제는 고려 지방제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¹⁵ 주현-속현 체제에서 주현主縣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직접 다스리는 고을을 말한다. 한편, 속현屬縣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의 관할 아래 도착 지방 세력인 향리鄉吏가 다스리는 고을을 말한다.

고려시대의 ‘속현’이라고 하면, 편의상 ‘광의의 속현’과 ‘협의의 속현’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속현’은 ‘군의 읍격을 지닌 속현’인 ‘속군屬郡’과 ‘부의 읍격을 지닌 속현’인 ‘속부屬府’, 그리고 ‘현의 읍격을 지닌 속현’인 ‘속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현의 읍격을 지닌 속현’을 따로 분리하여 ‘협의의 속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 읍격을 지닌 속현’도 ‘속주屬州’로 칭할 수 있으나,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주의 읍격을 지닌 속현’은 속주로 분류하지 않고 속군이나 속현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고을을 ‘속현’이라고 부를 때는 ‘광의의 속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현-속현 체제’라고 할 때 사용하는 속현 용어는 ‘광의의 속현’ 개념에 해당한다.

주현은 대체로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 중요도가 높은 고을이었다. 일반적으로 주현은 몇 개의 속현, 즉 ‘광의의 속현’을 관할하였다. 『고려사』 지리지 내용을 기준으로, 도읍인 개경을 제외한 주현의 숫자는 모두 130곳이고 속현은 373곳이어서, 평균적으로 주현 1곳이 속현 2.87곳을 거느렸다. 하지만 주현의 숫자가 많은 변경 지역을 제외하면, 주현이 56곳, 속현이 340곳으로 주현 1곳당 평균 6.07곳의 속현을 거느렸다.¹⁶ 주 1곳이 3~4곳의 현을 거느렸다고 알려진 주현제에 비하면, 주현보다 속현의 숫자가 확실히 많았다. 하지만 주현에 따라 거느리는 속현의 숫자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불과 2~3곳의 속현을 거느렸던 주현도 있었던 반면, 10곳이 넘는 속현을 거느렸던 주현도 여러 곳 존재하였다.

한편, 주현-속현 체제의 정착과 함께 10도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주현의 상위 행정 단위로서 변방의 양계兩界 지역에는 병마사兵馬使 고을이, 그 이외의 남도南道 지역에서는



안양시 일대 고려시대 행정구역도

계수관(界首官) 고을이 설정되었다. 군사적 성격이 강한 외관(外官)인 양계의 병마사는 일찍부터 광역 행정단위의 지방 장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반면 남도의 계수관 고을은 지역 대표 기능과 감찰 기능 등의 한정적인 상위 행정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계수관 고을은 주현 중에 규모가 크고 각 방면의 중심지가 되는 대읍(大邑)에 해당하였으나, 광역 행정단위의 중심지로서 강력한 기능을 가지지는 않았다. 양계의 병마사 고을은 계수관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의 계수관 고을로는 도읍인 개경을 제외하고 서경(西京)·동경(東京)·남경(南京)의 3경, 안서(安西)·안변(安邊)·안북(安北)의 3도호부,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진주(晉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황주(黃州) 등의 8목을 들 수 있다.

주현-속현 체제 아래에서 안양시 지역에 있던 과주와 금주는 주현이 되지 못하고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과주는 광주의 속현, 금주는 수주(樹州)의 속현이 되었다. 따라서 주현의 관할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안양시 지역은 광주의 관할 영역인 과주 지역과 수주(樹州)의 관할 영역인 금주 지역 양쪽에 걸쳐 있었다. 광주는 과주를 포함하여 7곳의 속현을 거느렸고, 수주(樹州)는 금주를 포함하여 6곳의 속현을 거느렸다.¹⁷ 광주의 속현으로는 천녕군(川寧郡)과 이천군(利川郡), 죽주, 과주, 지평현(砥平縣), 용구현(龍駒縣), 양근현(楊根縣) 등 7곳이

있었다. 그중에 천녕과 이천, 죽주 등 3곳은 속군이었고, 과주를 포함한 나머지 4개 고을은 ‘협의의 속현’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수주樹州의 속현으로는 금주와 동성현童城縣, 통진현通津縣, 공암현孔巖縣, 김포현金浦縣, 수안현守安縣 등 6개의 고을이 있었는데, 모두 ‘협의의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즉 과주와 금주는 비록 명칭은 ‘주’였지만, 실제 읍격은 ‘현’과 동등한 등급으로 설정되었다.

고려의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울진군은 과주, 곡양현은 금주로 읍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려시대 과주와 금주는 모두 ‘현’의 읍격을 지닌 속현, 즉 ‘협의의 속현’이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과주와 금주는 그 위상이 높지 않았다. 고을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광주나 수주樹州, 수주水州, 양주 등과 같은 큰 고을이 가까이 있었던 까닭에, 낮은 위상을 지닌 고을로 편제되었다고 여겨진다.

3. 고려 중~후기의 지방제도 개편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수립된 주현-속현 체제는 오랜 기간 유지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변화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방관 파견 고을이 늘어나면서, 점차 속현이 줄어들게 되었다. 본격적인 변화의 시발점은 고려 중기인 예종 원년(1106년)의 감무監務 신설 조치이다. 감무는 작은 규모의 고을 1곳을 단독으로 다스리거나, 이웃한 고을 1곳을 추가로 겸임하여 다스리는 지방관이었다. 감무는 기존에 속현이었던 고을에 파견되는 지방관이었으므로, 감무의 파견 증가는 속현의 감소를 의미하였다.

대체로 감무는 관품이 8품 정도에 지나지 않은 하급 관리였고, 감무가 파견된 고을은 지방관이 임명된 고을 중에 읍격이 가장 낮은 ‘현’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광의의 속현’ 중 ‘속군’에 감무의 설치가 결정되면, 그 고을은 읍격이 ‘현’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표면적인 측면에서 읍격의 강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해당 고을을 전담하는 지방관이 임명된 까닭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승격으로 보아야 한다.

당초 예종 원년의 감무 신설은 거처를 잃고 유망流亡하는 서해도西海道의 주민들을 정착시키려고 나온 대책이었다.¹⁸ 이때 감무가 처음 파견되기 시작한 고을은 20곳이 넘었으며, 예종 3년(1108년)과 예종 4년(1109년)에는 40곳이 넘는 속현에 추가로 감무가 신설되었다. 예종 연간(1105~1122년)에는 대략 70곳의 고을에 감무와 같은 지방관이 신설되었다.¹⁹

또한 12세기 전반 예종 연간은 광역 지방행정 단위로서 도道의 기능이 명확해지는 시기였다. 성종 14년(995년)부터 시행되었던 10도제는 현종 9년(1018년) 주현-속현 체제의 수립 이후 유명무실해지고, 그 대신 느슨한 상위 지방행정 단위로서 계수관 고을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예종 연간에는 남도 지역에 5도 체제가 갖추어지고 각 도에는 안찰사按察使가 지방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예종 다음의 인종 연간(1122~1146년)에는 변경의 양계 체제와 더불어 이른바 ‘5도 양계’의 지방제도가 정착하였다.²⁰

그러나 5도에 파견되는 안찰사는 임기가 6개월로 상당히 짧았으며, 관품 역시 4~6품에 지나지 않아 보통 3품의 외관이 임명되는 계수관급 고을의 지방관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안찰사의 주된 임무는 감찰이나 조세 징수의 역할 등으로 제한되었다. 다만 무신 집권기 이후 고려 후기에는 안찰사의 권한과 기능이 점차 강해졌다.²¹

인종 연간에도 20곳이 넘는 속현 고을에 지방관이 신설되었고, 무신 집권기인 명종 2년(1172년)에서 명종 6년(1176년) 사이에도 70곳에 가까운 속현 고을에 지방관이 신설되었다. 신설 지방관은 대부분 감무였다. 예종 원년(1106년)의 최초 감무 신설 이후 12세기 전 시기에 걸쳐서 지방관이 신설된 고을은 150곳이 넘었다. 이는 전국 373곳의 속현 중 40%가 넘는 비율이다. 비록 절반 이상의 속현은 12세기 이후에도 속현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전체 속현의 절반 가까이에 새로이 지방관이 신설되었던 사실은 고려 지방제도 운영의 큰 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²

이와 관련하여 과주와 금주도 12세기부터 감무가 파견되면서 ‘현’ 읍격을 지닌 고을로 고착되었다. 과주의 감무 신설 시점은 『고려사』 지리지에 ‘후치감무後置監務’로 표기되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후치감무’로 표기된 고을의 감무 파견 시점은 보통 예종 3년(1108년)으로 이해되고 있다.²³ 한편 금주의 감무 신설 시점은 무신정변 직후인 명종 2년(1172년)으로,²⁴ 과주의 감무 신설 시점보다 약간 늦다. 고려 중기에 살았던 김유신金有臣의 부인 이씨李氏의 묘지명墓誌銘에는 김유신과 이씨 사이의 아들인 김광조金光祖가 명종 14년(1184년)에 금주의 감무로 재직 중이라는 기록이 실려 있다.²⁵ 명종 14년은 금주에 감무가 신설된 지 불과 1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다.

12세기에 지방관이 신설된 고을 중에는 고려 말기와 조선 건국 후에 변동이 생기는 곳도 있으나, 과주와 금주는 별다른 변화 없이 조선으로 이어졌다. 즉 안양시 지역을 관할했던 조선시대 두 고을, 과천栗川과 금천裨川의 독립적인 지방관 파견은 고려 중기인 12세기에 성립되어 장기간 지속되었다. 조선 건국 후인 태종 13년(1413년), 감무는 현감縣監으로 명칭이 바뀌고 과주와 금주는 각각 과천과 금천으로 고을 명칭이 변경되었다.²⁶

그러나 이는 작은 변동일 뿐이다. 감무를 현감으로 고친 것은 단순한 관직 명칭의 변경일 뿐이며, 고을 명칭의 변경 또한 형식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에 '주'의 명칭을 가진 많은 고을 중에, 중요도가 낮은 고을의 지명을 '천(川)'이나 '산(山)'이 들어가는 명칭으로 고쳤다. 그 결과 과주가 과천현으로, 금주가 금천현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두 고을은 이미 그 이전 과주나 금주일 때도 현의 읍격을 지녔으며, 그 읍격에 걸맞은 지방관인 감무는 12세기부터 파견되었다. 즉, 고려시대 안양시 지역을 관할했던 과주와 금주 두 고을의 위상은 고려 중기인 12세기에 지방관의 파견으로 정착되어 조선 말기까지 700~800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김유신 처 이씨 묘지명(국립중앙박물관)

4. 지방사회의 하부구조와 사회경제적 동향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늘날 안양시 지역을 포괄하는 고려시대 과주와 금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고려시대 일반 고을의 아래에는 자연 촌락이 존재했는데, 보통 ‘촌村’이나 ‘리里’의 명칭을 지녔다. 그중에서도 ‘촌’의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되며, ‘리’는 주로 도읍인 개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촌’이나 ‘리’와 아울러 ‘동洞’의 명칭도 문헌자료에서 다수 확인되지만, ‘동’은 ‘촌’과 ‘리’를 우아하게 꾸민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²⁷

고려시대에는 자연 촌락을 행정촌으로 편제하여 개별 고을의 기초 하부 단위로 삼았다. 이는 주민들로부터 조세와 역역力役을 효율적으로 수취하고, 지방사회의 말단 행정 및 치안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자연 촌락 1곳을 행정촌 1곳으로 구성하기도 했겠지만, 복수의 자연 촌락을 합쳐 하나의 행정촌으로 편성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성종 6년(987년)에는 촌락의 지배층인 대감大監과 제감弟監을 촌장村長과 촌정村正으로 바꾸었다.²⁸ 촌장과 촌정은 고려시대 행정촌의 지배층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 고려시대의 행정촌은 조선 전기를 거쳐 조선 후기가 되면 면리제面里制로 발전하였다.

한편 고을 하부에는 일반 행정촌 이외에 향鄉이나 부곡部曲, 소所, 장莊, 처處, 역驛 등으로 설정된 특수 행정구역도 있었다. 특수 행정구역은 고을 하부에 편제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가진 행정단위였다. 향과 부곡은 경작지의 개간이나 주민 이주 등을 통하여 새로이 개발된 지역에 설정되었으며,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당하기도 하였다.²⁹ 소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고, 장과 처는 소속 토지의 생산물이 왕실이나 사원寺院에 귀속되는 곳이었다. 역은 국내·외를 왕래하는 사신에게 숙식 시설을 제공하고 공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단위이다. 특수 행정구역 중에는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에 일반 고을로 승격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에 고을 하부의 행정촌 내지는 일반 촌락이 되었다. 다만 역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존속하였다.

고려시대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향과 부곡, 소, 장, 처 등의 개수는 900곳이 넘고,³⁰ 역의 개수는 525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과주와 금주의 관할 아래에서는, 향이나 부곡, 소, 장, 처 등이 단 1곳도 확인되지 않는다. 역으로는 과주에 양재역良粹驛이 있었는데, 그 위치는 오늘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해당하여 안양시 지역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안양시 지역은 자연 촌락으로 구성된 복수의 행정촌으로

편제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문헌 기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안양시 지역에 있었던 고려시대 행정촌이나 자연 촌락은 그 명칭이 알려진 사례가 없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안양시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다만 『고려사』에는 안양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4건의 기록이 확인된다. 그중 3건은 13세기 전반 최씨 무신정권 시기, 나머지 1건은 고려 말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는 고종 4년(1217년)의 기록이다. 당시 거란군의 침입으로 인하여 개경의 방비가 엄중한 상황에 있었는데, 거란군을 막기 위해 중군한 승려들이 최고 무신 권력자인 최충헌(崔忠獻)의 제거를 계획하였다. 그들은 거란군에게 패한 척하고 최충헌을 공격하여 최충헌의 군사들과 전투를 벌였으나 크게 패하였다. 이때 무려 800여 명의 승려가 죽임을 당했다. 당시 최충헌을 공격한 승려들은 흥왕사(興王寺)와 흥원사(弘圓寺), 경복사(景福寺), 왕륜사(王輪寺), 안양사(安養寺), 수리사(修理寺) 등의 사찰에서 동원되었다.³¹ 흥왕사와 흥원사, 경복사, 왕륜사 등은 개경 내부 또는 근방에 있던 사찰이었던 반면, 오늘날 군포시 지역에 있던 수리사와 함께 안양시 지역에 있던 안양사는 개경에서 떨어진 곳의 사찰이었다.

고려시대 안양사는 법상종(法相宗) 계열의 사찰로 알려져 있고,³² 안양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수리산의 수리사 역시 법상종 계열의 사찰로 여겨진다.³³ 거란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승군(僧軍)으로 흥왕사와 같은 대사찰의 승려들과 함께 안양사의 승려들이 동원되었음을 고려하면, 당시 안양사의 규모와 비중은 상당히 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물이 왕실이나 사찰에 속했던 장이나 처가 안양시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그러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장이나 처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안양시 지역의 촌락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상당수 안양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고 여겨진다.

두 번째로는 고종 18년(1231년)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광주 관악산(冠岳山) 초적(草賊)에 관한 내용이다. 몽골의 제1차 침입 때에 최충헌의 아들이자 당시 최고 무신 집정자였던 최우(崔瑀), 즉 최이(崔怡)는 광주 관악산 초적의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을 정규 군대에 배치하고 전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³⁴ 다만 관악산은 광주의 직접 관할 영역이 아니라 과주와 금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산이었다. 관악산 정상은 과주 중심지(현 과천시 중앙동·관문동) 바로 북쪽에 있었던 만큼, 관악산과 직접 연관된 고을은 과주였다. 비록 과주에는 이미 예종 3년(1108년)에 별도의 감무가 신설되었지만, 과주가 원래 광주의 속현이었던 까닭

에 『고려사』에서는 관악산을 광주에 있는 산으로 표기하였다고 여겨진다. 옛 과주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안양시 지역의 일부 영역이 관악산의 서남쪽 기슭에 있었던 만큼, 안양시 지역 중 일부 영역은 당시 관악산 초적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최이의 집권 시기인 고종 21년(1234년)의 기록을 들 수 있다. 당시 최이는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후, 자신의 저택을 크게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최이는 새로 짓는 저택에 정원을 만들고자 자신의 문객門客인 장군 박승분朴承賁을 시켜서 안양산安養山의 잣나무를 자기 집으로 옮겨 심도록 하였다. 하지만 안양산은 강화도와 거리가 먼 데다가 당시 겨울이라 작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얼어 죽기도 하였으며, 연로沿路에 있는 고을의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런 까닭에 강화 궁궐의 승평문昇平門 앞에는 “사람과 잣나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귀중한가?”라는 방榜이 붙을 정도였다.³⁵

안양산은 안양사가 있는 산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삼성산이나 관악산을 지칭한다고 여겨진다. 앞서 3년 전 기록에 관악산이라는 명칭이 나오므로, 안양산은 관악산보다 삼성산일 가능성이 더 크다. 고려시대 당시에는 무신 최고 집권자가 자기 집의 정원에 옮겨 심을 정도로 삼성산 일대에 잣나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잣나무의 운반으로 인해 연로의 고을에 사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안양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이때 잣나무 운송에 동원되어 고통을 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려 말기 왜적倭賊의 침입으로 당시 안양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던 점을 들 수 있다. 고려 말기에는 왜적의 침입이 극심해지면서 한반도 남부지역은 물론 중부지역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왜적은 서해안을 통해서 고려의 도읍인 개경 인근까지 침범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특히 우왕 재위 연간(1374~1388년), 그중에서도 우왕의 재위 초년에 왜적의 침입이 극심하였다. 안양시 지역 일대에 대한 왜적의 침입 기록도 바로 우왕의 재위 초년인 우왕 4년(1378년) 2월과 8월 두 차례 확인된다.

2월에는 왜적이 안산과 인주仁州, 부평富平, 금주 등을 침략했고,³⁶ 8월에는 금주와 양천陽川을 침략했다.³⁷ 금주의 침략 때에 안양시 지역의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침략당한 고을들의 위치를 통해서 볼 때, 2월에는 서해안, 8월에는 한강을 통해서 왜적이 침략했다고 여겨진다. 안양사의 7층 전탑塔塔은 당대의 실력자 최영崔瑩의 후원으로 우왕 7년(1381년)에 크게 중수重修되었다.³⁸ 비록 문헌에는 안양사 7층 전탑이 오랜 세월과 비바람에 의해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최영이 젊었을 때 이 탑 아래에서 유

속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탑이 무너진 시기는 중수한 때로부터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안양사 7층 전탑의 중수 3년 전인 우왕 4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금주가 왜적의 침략을 받았으므로, 당시 왜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안양사가 큰 피해를 입고 7층 전탑이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 1 Yokeun Jeong, 『The Management of Koryō: Local Administration(Kunhyōn) and Its Operation』, 『Korean Studies』41,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pp.106~107; 한국중세사학회 편,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시대의 역사』, 해안, 2018, 157쪽.
- 2 박종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118~123쪽; 박종진,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3~40쪽; 윤경진, 『고려 지방제도 성립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112~122쪽.
- 3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안남도호부수주 금주;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광주목 과주.
- 4 정요근, 「후삼국시기 고려의 ‘주州’·‘부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2009, 167~183쪽.
- 5 박종진, 앞의 책, 2017, 44~58쪽.
- 6 윤경진, 앞의 책, 2022, 204~205쪽.
- 7 개경 근방의 적현赤縣 6곳과 기현畿縣 7현을 포함하면 462현이 된다.
- 8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4년 7월; 박종진, 앞의 책, 2017, 44~46쪽.
- 9 ‘변태섭, 『고려전기의 외관제』,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124~126쪽』에서는 절도사가 12곳, 도호부사가 5곳, 도단련사가 7곳, 단련사가 11곳, 방어사가 21곳, 자사가 15곳에 각각 파견되었다고 보았으나, ‘박종진, 앞의 책, 2017, 51~54쪽』에서는 절도사와 도단련사, 단련사, 자사 등의 인원수는 같으나 도호부사는 4곳, 방어사는 7곳에 파견되었다고 보았다.
- 10 『고려사절요』 권2, 목종 8년 3월.
- 11 『고려사절요』 권3, 현종 3년 1월.
- 12 변태섭, 앞의 논문, 1971, 128~129쪽.
- 13 『고려사절요』 권3, 현종 9년 2월.
- 14 주현제의 정착 실패와 관련해서는, ‘구산우,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 연구』, 해안, 2003, 163~165쪽’, ‘박종진, 앞의 책, 2017, 56~58쪽’, ‘윤경진, 앞의 책, 2022, 162~165쪽’ 등을 참조할 것.
- 15 주현-속현 체제와 관련해서는, ‘변태섭, 앞의 논문, 1971, 133~136쪽’, ‘박종진, 앞의 책, 2017, 58~65쪽’, ‘윤경진, 앞의 책, 2022, 215~235쪽’ 등을 참조할 것.
- 16 변태섭,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구조』, 『국사관논총』 1, 1989, 63~65쪽.
- 17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안남도호부수주;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광주목.
- 18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1년 4월 경인.
- 19 ‘정요근, 『고려 후기-조선 전기 수령 중심 군현 편제의 전개와 연속성』, 『역사비평』 120, 2017, 45쪽의 〈표 1〉을 참조할 것.
- 20 변태섭, 『고려안찰사고』,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158~163쪽.
- 21 고려시대 안찰사와 관련된 이상의 내용은 ‘변태섭, 『고려안찰사고』,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163~176쪽 및 ‘박종진, 앞의 책, 2017, 123~143쪽’ 등을 참조할 것.
- 22 이상의 내용은 ‘정요근, 앞의 논문, 2017, 44~48쪽’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 23 김동수, 『고려 중·후기의 감무 파견』, 『전남사학』 8, 1989, 6~13쪽; 윤경진, 『고려 군현제의 구조와 운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260~267쪽; 이수건, 『제7장 조선초기 군현제정비와 지방통치체제』,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 일조각, 1984, 367~371쪽.
- 24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안남도호부수주 금주.
- 25 『김유신처이씨묘지명金有臣妻李氏墓誌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DB(<https://db.history.go.kr>).
- 26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0월 15일.
- 27 박종기, 앞의 책, 2002, 186~188쪽 및 305~321쪽.
- 28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6년 9월 무진.
- 29 정요근, 『고려시대 鄕·部曲의 성격 재검토 - 下三道의 향부곡 주요 밀집 분포 지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124, 2016, 36~45쪽.
- 30 900곳 이상의 수치는 ‘박종기,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 푸른역사, 2012, 36쪽의 〈표 1〉에서 인용하였다.
- 31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1월.
- 32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2021, 78~87쪽.
- 33 『중지수좌관오묘지명證智首座觀奧墓誌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DB(<https://db.history.go.kr>)에 따르면, 고려 전기 고관이었던 최사위(崔士威, 961~1041)의 현손인 관오(觀奧, 1096~1158)가 수리사의 주지를 역임했음을 알 수 있다. 관오는 법상종의 대표 사찰인 현화사에서 출가하고 법천사의 주지를 역임했으므로, 관오가 주지를 맡았던 수리사 역시 법상종 계열의 사찰이었을 것이다.
- 34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부 최이;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8년 9월.
- 35 이상의 내용은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부 최이;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30년 12월』에서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 36 『고려사』 권133, 열전46 반역 신우 4년 2월.
- 37 『고려사』 권133, 열전46 반역 신우 4년 8월.
- 38 『동문선』 권76, 기 금주안양사탑중신기.

3장

불교의 극락정토 세계 '안양'



엄기표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1. 불교의 이상세계 극락정토

한반도에서 불교가 공인된 시기는 삼국이 조금씩 다른데, 고구려는 372년, 백제는 384년, 신라는 527년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신앙체계를 가진 불교가 이 시기보다는 먼저 한반도에 전래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일찍부터 신앙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불교는 기존 토속 신앙과는 달리 교주와 경전이 있었으며, 관련 경전에 신앙체계와 우주론적 세계관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불교도 관련 경전에 우주론적 세계관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세계관에 바탕을 둔 불가의 세계가 여러 경전에 기술되거나 묘사되어 있다. 경전에 기술된 불가의 세계가 현실 속의 가람이나 불화 등으로 조형화되거나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것은 사바세계의 인간들이 그러한 세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거나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가의 세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극락정토極樂淨土이다. 극락은 아미타불이 상주하고 있으며,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에 의하여 성취된 깨달음에 의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아미타불은 고대 인도어인 ‘아미타바(Amitabha)’, ‘아미타유스(Amitayus)’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이다. 이 중에 ‘Amita’는 ‘끝없는’, ‘abha’는 ‘광명’, ‘ayus’는 ‘삶’ 또는 ‘수명(생명)’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미타바’는 ‘끝없는 광명’, ‘아미타유스’는 ‘끝없는 삶(수명)’이란 의미가 된다. 여기서 ‘아미타바’를 한자로 음역하면 ‘아미타불 阿彌陀佛’이 되며, 의역하면 ‘무량광불 無量光佛’, ‘아미타유스’를 의역한 것이 ‘무량수불 無量壽佛’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미타불 관련 경전으로 『무량수경 無量壽經』, 『관무량수경 觀無量壽經』, 『아미타경 阿彌陀經』이 있는데, 이를 합하여 정토삼부경 淨土三部經

이라고 한다.

불경에는 극락정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주 먼 옛날 한 나라의 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구도심을 일으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48대원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법장스님이었다고 한다. 법장스님은 48가지 큰 서원과 함께 10번의 염불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서원하였고, 임종 때에 아미타불이 나타나기를 서원하였고, 염불하는 모든 중생이 극락에 왕생하기를 서원하였고,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들은 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하였고,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들은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기를 서원하였고,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광명이 한량없기를 서원하였다. 이처럼 법장스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에 이르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결국 법장스님은 수도에 전념하여 마침내 무량수명(無量壽命), 무량광명(無量光明)의 덕으로 48대원을 성취하고 서방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아미타불이 되었다. 그래서 서방정토인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부처를 무량수불, 무량광불, 감로왕(甘露王) 등으로도 부른다. 이와 같이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구제하겠다는 큰 염원을 품고 있는 부처이며, 모든 중생은 아미타불의 서원력에 의지해서 그 도움으로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이상세계인 극락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염송하면, 죽은 이후에 극락인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미타경』에 의하면, 극락세계는 서방으로 수십만 국토를 지나서 있는 곳으로 아미타불이 설법하고 있으며,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고 한다. 극락세계는 ‘보석으로 장식된 7층 누각이 있으며, 칠보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는 8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하고, 바닥에는 순금 모래가 깔려 있으며, 연못 가운데에는 연꽃이 수없이 피어 장엄되어 있고, 항상 음악이 저절로 울려 퍼지며,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덮여 있고, 온갖 종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새들이 살며 아름다운 소리가 울린다.’고 묘사되어 있다. 또한 『무량수경』에도 극락세계는 화려하고 보배스러운 나무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경전에 의하면, 아미타불은 서방 10만 억 국토 후에 있다는 극락정토를 주재하면서 설법하고 계시는 부처이며, 극락은 중생들이 죽은 이후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불교의 이상세계로 더 이상의 윤회전생이 없는 사후의 세계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극락은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불교의 이상세계인데, 다른 말로 ‘안양(安養)’, ‘무량수불토’, ‘무량광불토’, ‘무량청정토’라고도 한다. 즉, 안양이 극락이며, 안양 세계가 극락정토이다.



서울 흥전사 극락도(1885년)

이러한 극락정도에 대한 동경과 염원은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한 직후부터 형성되었다. 특히,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고대 사회에서 불교의 극락정토로의 왕생은 일반 백성들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불교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통일신라시대 이후로는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정도 신앙이 크게 성행하였다. 그러면서 출가한 승려뿐만 아니라 불심이 깊은 재가불자도 성불할 수 있고, 누구나



서울 호국지장사 극락도(1893년)

불교적인 생활을 실천한다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특히, 신라의 대표적인 정토 승려였던 원효는 출신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행과 염불을 병행한

다면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신앙 운동을 펼쳤다. 당시 원효는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아미타불에 의지하여 깨달음에 이르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신앙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10번만 외워도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정토왕생 사상을 널리 보급하였다. 그리고 대승 경전인 『유마경』을 보면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원한다면 우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마음이 깨끗하면 정토도 깨끗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승불교에 기반한 정토 사상에 통일신라시대의 많은 불교 신자가 호응하였다. 또한 불경에 의하면, 극락왕생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서 염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들어와 극락왕생을 위한 방법이 교학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신라 말기 선종이 유입된 이후에도 내세에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신앙이 널리 유행하였다. 이처럼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정토 세계에 대한 동경심과 극락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염원은 극락정토 세계와 관련한 다양한 신앙과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2. 고려 사회에서의 불교

삼국시대 공인된 불교는 통일신라시대 들어와 이해가 심화하면서 한국 사상과 지성의 발달에 밑바탕이 되었다. 불교 신앙이 삼국시대에는 왕실이나 지배층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보급되었다면,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의 호족이나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산하였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대승불교 사상이 발전하면서 불교 신앙도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실천 신앙으로 다양하게 보급되어 일상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불교식 세계관이나 관념이 널리 퍼지면서, 죽은 이후에 더 이상의 윤회가 없는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아미타 정토 신앙이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대승불교 이론이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이를 실천하려는 다양한 신앙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개인적인 수행과 명상을 중시하는 선종이 새롭게 전래하면서 기존의 교학 불교와는 다른 새로운 불교 사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동시에 기존 불교 신앙체계와 조금 다른 밀교를 수학하거나 이를 실천하려는 승려들도 많았다. 밀교 신앙은 주문이나 기도와 같은 주술을 통하여 소원을 성취하고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

복적 신앙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심화하고, 다양한 불교 신앙과 활동이 지속하여 전개되었으며, 불교가 일상생활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918~943년 재위)은 불교를 국시國是로 삼도록 하였다. 즉, 불교 신앙을 나라의 근본이념이자 틀로 삼도록 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태조 왕건은 부처가 도움을 주어 고려 건국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불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권장 보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개경에 법왕사·자운사·사나사 등 10개의 사찰을 새롭게 건립하였으며, 승려를 왕사와 국사에 책봉하여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표하였다. 특히, 태조 왕건은 후대 왕들에게 ‘훈요 10조’를 남겼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조항이 직접적으로 불교와 관련한 것이다. 첫 번째는 ‘고려의 왕업은 부처의 보호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사찰을 창건하여 주지를 뽑아 보내서 불법을 닦게 하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모든 사찰은 도선이 터를 잡은 것 이외에 함부로 짓는다면 지덕이 손상되어 왕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후세에 후비와 신하들이 각각 원당이라 하여 더 사찰을 짓는다면 근심되는 일이다. 신라 말기에 다투어 사찰을 지어 지덕을 손상하여 망하기에 이르렀으니 경계하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로 ‘짐이 지극히 원하는 바로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가 있다.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회는 하늘과 오악, 명산과 대천,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후대에 간사한 신하가 더하고 빼기를 권하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금지하라. 나는 그날에 신하와 함께 즐거워하였으니, 마땅히 이에 의하여 행하라.’라고 하였다. 연등은 부처님께 올리는 향 공양과 함께 등을 공양하는 것으로 등불을 비추어 번뇌와 무지로 가득한 사바세계를 밝히며, 마음을 맑고 바르게 하여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팔관회는 삼국시대부터 거행되었던 호국적인 행사를 계승한 것으로, 국가 운영이나 안위와 관련한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다. 행사가 거행되는 동안 춤과 노래가 곁들여졌으며, 신하들은 왕에게 하례하고 무병장수를 염원하였으며, 왕은 신하들에게 선물을 내려 복을 기원해주었다. 그리고 외국 사신들도 맞아 들여 함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불교 행사였지만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팔관회는 군신을 비롯한 모든 백성의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등회와 팔관회는 국왕과 신하, 외국 사신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고려의 사회 구성원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거국적이고 국제적인 행사였다. 고려시대의 연등회와 팔관회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서 불교 신앙과 불교적인 생활 양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고려가 불교를 신봉하여 삼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서, 사찰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은 경계하였지만 국가적인 행사로서 연등회와 팔관회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는 최고 통치자인 국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불교 신앙을 신봉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새로운 사찰을 창건하거나 지원하였다. 그리고 왕실이나 귀족들도 불교를 신봉하여 개경뿐만 아니라 지방에 원찰을 지어 가족이나 개인의 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또한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국가적인 불교 행사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고려시대 내내 지속하였으며, 수도였던 개경뿐만 아니라 멀리 지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고려 사회는 불교 신앙과 문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한마디로 불교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모든 왕조는 불교를 숭상하였으며, 불교 신앙을 널리 보급하였다. 특히, 고려 왕조는 불교를 국가 통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을 만큼 적극적인 불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어느 왕조이든 모든 불도는 우주론적 세계관에 의하여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세계인 극락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었다. 불경에 의하면, 극락정토는 윤회가 없으며,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차 있으며, 보석으로 깔린 대지와 칠보로 장엄되어 있으며, 각종 화려한 수목이 번성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음을 발하여 신비스러운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 위에는 아름다운 강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극락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 등으로 장엄되어 있고, 항상 편하고 신비로운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불도들은 불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극락정토 세계를 현실 속에서 표현하거나 구현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찰 가람에 극락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등을 주요 법당으로 건립하거나, 사찰 경내로 들어갈 때 안양교나 안양문을 지어 극락정토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극락정토를 현실 세계에 그대로 재현하기는 힘들지만, 극락정토 세계를 구현하거나 묘사하기 위한 미술 문화는 꾸준히 전개되었다.



경주 불국사 연화교·칠보교와 안양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3. 극락정토의 구현 안양사

오늘날 안양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안양사(安養寺)’는 현실에서의 극락정토 세계의 구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안양지역에 안양사라는 사찰이 건립된 것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정치 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의 한강 유역은 삼국시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고구려·백제·신라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장이었다. 당시 한강 유역에서 가까웠던 안양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였다. 삼국시대 한성에서 가까웠던 안양지역은 처음에는 백제 영역이었다가,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이 번갈아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지역은 삼국 중에서 백제가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수도가 한성이었기 때문에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384년 불교를 공인하면서 한성에 여러 사찰을 창건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 100여 년 동안 수도를 중심으로 불교 신앙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유적이나 유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 안양지역에서도 백제 관련 사찰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 사람들이 한강 유역을 끼고 있는 안양지역에 거주하였지만, 오늘날 안양지역에서 삼국시대에 사용한 지명이나 불교의 이상세계인 극락정토와 연결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한강 유역을 중심한 지역은 9주 중에서 한주(漢州)로 편입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안양지역에 소경(小京)이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한강 유역을 끼고 있어 변방의 중요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들어와 불교 신앙이 널리 전파되면서 당시 수도가 있었던 경주로부터 먼 지방에도 여러 사찰이 창건되었다. 특히, 신라 말기에 새로운 불교 사상인 선종이 유입되어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지방 곳곳에 여러 선문(禪門)이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변방지역이었던 오늘날 서울·경기지역에도 여러 사찰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나 유적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사찰 관련 흔적이 확인되었다 해도 절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나마 절 이름을 알 수 있는 사찰로 지금도 당간지주가 남아있는 서울의 장의사지(莊義寺址)와 안양의 중초사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 안양 중초사지는 당간지주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여 ‘중초사(中初寺)’라는 절 이름이 그동안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당간지주 건립 당시에 사찰이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



안양 증초사지 당간지주 명문



안양 증초사지 출토 '안양사'명 기와

정되었다. 그런데, 여러 번에 걸친 사지의 발굴 조사에서 여러 시기에 걸친 유적과 함께 다량의 기와 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일부 기와 편들은 당간지주가 세워지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도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당간지주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사찰이 창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확증 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쨌든 당시 안양지역이 수도로부터 먼 변방지역이었지만 왕실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사찰을 건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신라 정부는 9세기 초반에 새롭게 당간지주를 건립하고 사찰을 크게 확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간지주 표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당시 절주통(節州統) 황룡사 향창화상(恒昌和上)이라는 상당히 높은 지위의 승려가 후원하여 당을 걸기 위한 당간지주를 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증초사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지역에 있었지만, 중앙에 있었던 황룡사 출신 승려가 관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찰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당을 걸기 위한 당간지주를 만들기 위하여 826년 8월 6일 원석을 채석하였고, 827년 2월 30일 완공하였다고 한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건립된 사찰들은 종교 시설의 기능과 함께 정치·군사·행정

등 정부 차원의 여러 중요한 역할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안양지역이 신라시대에는 변방이었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는 신라 말기에 이르러 왕권과 중앙집권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지방의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군웅이 할거하게 된다. 이 중에 신라의 비장(裨將) 견훤(甄萱)이 무진주를 점령한 후 892년 후백제를 건국하고, 서라벌 서남쪽에 있는 주현(州縣)을 공격하는 등 백제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자 여러 세력이 호응하였다. 그리고 궁예(弓裔)가 891년 죽주를 근거지로 하는 기훤(箕萱)의 부하가 되었다가 멸시를 받자 빠져나와 892년 북원을 근거지로 하는 양길(梁吉)의 부하가 되었다. 당시 궁예는 양길의 신임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지역을 공략하기에 이르는데, 894년 10월에는 명주지역을 차지하면서 강릉 지역까지 점령한다. 이처럼 궁예의 세력이 급성장하자 많은 호족이 궁예에게 자진 투항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궁예는 양길과 결별하고 911년 태봉(泰封)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당시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릉(王隆)의 투항을 받아들인다. 궁예는 왕릉의 아들 왕건(王建)을 철원군 태수로 임명하고, 왕건에게 군사를 주어 여러 지역을 점령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궁예는 세력을 크게 확장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견훤과 궁예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신라와 함께 한반도에서 패권을 다투게 되는데, 이를 후삼국시대라고 한다. 후삼국 시대는 군웅이 할거하고 전쟁이 지속되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결국 왕건이 918년 역성혁명을 일으켜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한 이후, 다시 여러 세력을 통합해 나간다. 결국 당시 명목만 유지하던 신라의 경순왕이 935년 나라를 고려에 바치고, 936년에는 왕건이 일리천에서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황산에 이르러 항복을 받아내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명실상부한 고려를 세우게 된다.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수도를 개경에 설치한 다음 민심을 규합하고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순행을 자주 나갔는데, 그때 교통로를 따라 지나가거나 들리는 정치·행정·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지역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태조 왕건은 불교를 나라의 근본이념으로 하여 통치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불교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요한 거점지역을 비롯한 각지에 많은 사찰을 새롭게 창건하거나 기존 사찰을 증창하였다. 그러한 사찰들은 신앙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와 행정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관리나 여행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원(驛院)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겸비하면서 정부 기관의 일부로도 인식되었다. 그만큼 고려시대에는 사찰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였고, 왕실이나 정부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

지하였다. 이처럼 고려가 건국되면서 전국 각지에 상당수의 사찰이 새롭게 창건되거나 중창되었으며, 왕실을 비롯하여 정부와 연계된 사찰이 많았다. 이러한 사찰들은 새롭게 건설한 고려의 근본이념이나 추구하는 바를 현창하는 의미도 있었다. 고려시대의 안양사도 그러한 사찰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양사의 내력이나 전탑 관련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 먼저 이승인(李崇仁, 1347~1392)이 지은 「금주안양사탑중신기(衿州安養寺塔重新記)」에는 태조 왕건이 반발하는 세력들을 정벌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행차하던 중 안양지역을 지나다가, 산꼭대기에 구름이 오색찬란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곳에 가서 살펴보게 하니, 구름 아래 능정(能正)이라는 노스님이 있었고, 그 스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뜻이 맞아 절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찰의 남쪽에는 벽돌을 쌓아서 만든 칠층탑이 있었는데, 기와로 덮어 만들었고, 가장 아래의 한 층은 12칸의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의 벽마다 불보살과 천인상의 형상을 표현하였으며, 그 외부에는 난간을 세워 출입을 제한하였다. 탑이 거대하고 화려하여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이 전국을 순례할 때 남행하면서 안양사 능정 승통의 진영에 참배하고 글을 남겼는데, 당시 안양사에는 능정 스님이 쓴 글들도 많이 전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만큼 능정 스님이 안양사와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능정 스님은 신라 출신 승려로 태조 왕건에게 내조하여 불교 관련 일들을 맡아보았고, 사후에 상당히 높은 법계인 도승통(都僧統)에 추증되었는데, 고려 경종은 977년 학사 최량(崔亮)과 광평시랑 송금(宋兢) 등을 안양사에 보내어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러한 기록과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신라시대 창건한 중초사는 고려가 건국된 직후에 태조 왕건의 발원과 능정 스님의 주도로 대대적인 중창 불사가 진행되었으며, 당시 새롭게 창건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중창한 후, 절 이름을 중초사에서 안양사로 바꾼 것으로 보이며, 능정 스님이 입적하자 그의 진영을 안양사에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려가 936년 9월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명실상부한 통일왕조가 되었으며, 그 이후 안정화되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안양사의 중창은 오랜 세월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에서도 중초사가 고려 초기에 대대적으로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는 유구와 유물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확인되었다. 고려 초기에 기존의 사찰 관련 시설물을 대부분 폐기하고 사역을 크게 확대하였던 것으로 보아, 당시 개창(開創)에 가까운 중창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양사지의 한가운데에서는 붕괴한 전탑과 함께 넓은 범위에 걸쳐



안양 안양사지 전경



안양 석수동 마애증



안양 안양사지 전탑지 발굴



안양 안양사지 전탑 복원안

서 여러 건물지가 발견되어 큰 사찰로 번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안양사지에서 막 새기와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기와 편, 도기 편, 흙으로 구운 불상 편 등이 출토되어 당시 상당히 번성한 사찰로서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일상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나아가 중국산 청자 편도 발견되어 국제적인 교류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안양사(安養寺)'라고 새겨진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이곳에 있었던 절 이름이 안양사였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안양사는 고려시대 내내 중수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폐사되지 않고 법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안양사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유력한 사찰로 왕실이나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연계

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의 중심적인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안양지역이 신라시대에는 변방지역이었지만 중요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중초사라는 사찰이 창건되었으며, 고려가 건국된 직후에는 대대적인 중창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절 이름도 현실 속 극락정토의 구현 사찰이라는 의미의 안양사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안양지역에 중초사가 창건된 이후 많은 지역민이 예불과 함께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하여 사찰을 방문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사역을 크게 넓혀 대대적으로 중창한 후 안양사로 절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당시 안양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하고, 깨달아 성불하기를 염원하고, 극락왕생하여 더 이상의 윤회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드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양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모든 일상의 중심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이 이상세계인 극락정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사찰 입구에 높은 당간을 세워 그 꼭대기에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 바람에 펄럭이도록 하고, 경내에는 웅장한 법당과 함께 거대하고 화려한 전탑을 세워 예불과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했다. 또한 이곳이 청정한 극락정토처럼 천상의 음악인 묘음이 연주되고 있다는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고 중생들의 성불을 기원하기 위하여 사찰 주변의 거대한 암벽에 종을 새겨 승려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안양사가 현실 속에 구현한 불가의 극락정토 그 자체이며, 안양지역이 이상세계 극락임을 널리 현창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안양사와 그 주변에 전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불가의 극락정토 세계를 무한한 상상력에 의하여 장엄의 세계로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불가의 이상세계라 할 수 있는 극락정토의 또 다른 이름인 안양의 의미와 상징을 가진 안양사를 건립함으로써 이곳이 현실 속에 와 있는 극락정토 안양임을 나타내 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한 세계를 추구한 역사적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양이라는 지명을 가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안양이라는 지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며, 안양이라는 지명은 영원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안양사지에는 불경에서 말하는 극락정토 세계처럼 삼성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능선에 각종 화려한 수목이 즐비하고, 대지에는 안양천 지류가 굽이굽이 돌아 흐르고, 주변에는 계절마다 향기 나는 꽃이 정겹게 피는 곳이다.

03 **조선시대** 통치체제와 **지역사회**

제1장 지방통치제도와 군제 개편

제2장 안양지역의 사회와 경제

제3장 정조의 원행과 만안교

제4장 기독교의 전래와 확산



조선 건국 후 지방통치는 8도제(八道制)와 군현제(郡縣制)의 정비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변화되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여러 군현은 토지와 인구의 규모에 따라 주·부·군·현으로 구분되어 그에 상응하는 품계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안양지역은 조선시대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는 과천현(果川縣)과 금천현(衿川縣)에 속해 있었다. 과천에는 7개 면에 40개 리가 있었고, 금천에는 6개 면에 41개 리가 면의 하부 단위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과천 상서면(上西面)·하서면(下西面), 금천 현내면(縣內面)·서면(西面)의 일부 행정구역들이 지금의 안양지역에 해당한다.

1장

지방통치제도와 군제 개편



김창현 전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의교수



1. 지방통치와 행정구역

1) 군현제의 정비와 안양

조선 건국 후 지방통치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변화되었다. 단적인 예가 8도제(八道制)와 군현제(郡縣制)의 정비였다. 고려의 5도양계체제(五道兩界體制)와 지방을 간접 지배하던 방식은 조선의 8도체제와 중앙에서 파견되는 수령(守令)이 지방을 직접 지배하도록 변화되었다. 조선은 전국을 8도(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평안·함경)로 나누어 관찰사(宗2품)를 파견하였고, 여러 군현은 토지와 인구의 규모에 따라 주·부·군·현으로 구분되어 그에 상응하는 품계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군현의 수령은 종2품인 부윤으로부터 대도호부사·목사(宗3품)·도호부사(宗3품)·군수(宗4품)·현령(宗5품)·현감(宗6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¹ 이들 수령은 품계에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을 다스리며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또한 조선은 고려의 속현(屬縣)을 주현(主縣)으로 승격하여 모든 군현에 중앙에서 수령을 직접 파견하였다. 주현에만 수령을 파견하여 속현을 간접 지배하던 고려와는 다른 구조였다. 군현 아래에는 하부 행정단위로 면(面)·리(里)·통(統)을 두고 향촌 주민 가운데 면임(面任)·이임(里任)을 임명하여 수령의 정무를 돕도록 하였다.²

현재의 안양지역의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였다. 안양지역은 조선시대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는 과천현(果川縣)과 금천현(衿川縣)에 속해 있었다. 과천에는 7개 면에 40개 리가 있었고, 금천에는 6개 면에 41개 리가 면의 하부 단위로 편제되어 있었다.³ 이 가운데 과천의 상서면(上西面)·하서면(下西面), 금천의 현내면(縣內面)·서면(西面)이 지금의 안양지역에 해당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 금천현 · 과천현 부분(18세기 후반,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한다. 면 이하의 하부 행정단위로는 과천의 상서면에는 비산리飛山里를 비롯한 3개 리, 하서면에는 호계리虎溪里를 비롯한 6개 리가 있었다. 그리고 금천의 현내면에는 안양리安養里를 비롯한 3개 리, 서면에는 박달리博達里를 포함한 9개 리가 있었다. 이처럼 조선 시대 지방행정체제는 중앙의 왕권을 정점으로 관찰사-수령-면임·이임을 통해 지방민을 직접 통치하는 군현제와 면리제를 통해 일원화되었다.

2) 행정구역 개편과 안양

지금의 안양이 속해 있던 과천과 금천지역은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상으로 변화가 많았다. 조선시대에 두 지역은 독립적인 과천현과 금천현으로 오래 존속하였다. 하지만 군현 이름이 바뀌거나, 두 군현의 병합과 분리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과천과 금천의 행정구역 변화 과정을 통해 안양지역의 역사를 알아보자.

과천과 금천은 고려시대의 과주果州와 금주衿州가 개칭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지명 변경이 아니라 지방행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중앙집권화하려는 일환이었다. 조선은 효율적인 지방 지배를 위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 아래 토지와 인구의 다소에 따라 격이 다른 주·부·군·현을 두었다.

하지만 고려의 군현 등급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었다. 즉 같은 ‘~주州’의 군현 명칭이지만 경주慶州·전주全州는 부윤(종2품), 광주廣州·여주驪州는 목사(정3품), 과주果州·금주衿州는 현감(종6품)이 각각 파견되고 있었다. 군현의 명칭 개정은 조선 건국 직후부터 거론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413년(태종 13) 10월에 들어서였다.

각도의 단부單府 고을은 도호부都護府로 고치고, 감무監務는 현감縣監으로 바꾼다. 무릇 군郡과 현縣의 명칭 가운데 주州로 쓴 것은 모두 산山이나 천川으로 고친다. 영주寧州는 영산寧山으로, 금주衿州는 금천衿川으로 바꾼 것이 그 예이다.⁴

예컨대 전국의 군현 가운데 도호부사(종3품) 이상만 그대로 ‘~주州’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군수 이하의 수령이 파견되는 군현은 모두 ‘~산山’이나 ‘~천川’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무의 직함도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그에 따라 지금의 안양지역이 속해 있었던 과주와 금주는 과천과 금천으로 지명이 바뀌게 되었다. 바야흐로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는 과천현과 금천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1414년 8월 과천과 금천은 하나로 통합되어 금과현衿果縣이 되었다. ‘금천’의 ‘금’자와 ‘과천’의 ‘과’자를 합하여 ‘금과현’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전국의 작은 군현을 통폐합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전국 34곳의 작은 고을이 17곳으로 병합되었다. 한 고을이 다른 지역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두 고을을 하나로 합치면서 군현 이름도 바뀌었다. 경기도의 경우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을 합하여 용인현龍仁縣, 김포현金浦縣과 양천현陽川縣을 합하여 김양현金陽縣, 금천현과 과천현을 합하

여 금과현이 되었던 것이다.⁵

군현의 병합 시 어느 고을을 주읍主邑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용인현처럼 용구현과 처인현의 읍세 차이가 두드러진 경우 용구현이 주읍이 되는 것은 간단했다. 하지만 금과현이나 김양현처럼 서로 비등하거나 장단점이 있을 때는 주읍 결정이 난감했다. 1418년(태종 18) 9월 경기도 관찰사가 올린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금과稔果의 경우 금천은 인리人吏와 노비와 토착민이 번성하고, 과천은 비록 땅이 좁고 인구가 적더라도 교통 요지입니다. 김양金陽은 김포나 양천의 인물에 비슷합니다. 경계와 땅의 형세는 양천을 김포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나, 양천이 서울의 도성京城에 가깝습니다. 위의 현읍縣邑을 옮겨 배속할 곳을 의논하여 정해주소서.⁶

예컨대 금과현의 경우 금천은 토지와 인구가 많고, 과천은 서울과 가까운 교통의 요지라는 서로 다른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김양현은 김포의 토지가 넓은 데 비해 양천은 서울과 가까운 교통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 관찰사의 요청에 대해 호조에서 논의한 결과 금천과 김포가 주읍으로 결정되었다.⁷

금천이 주읍이 되자 과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과천은 현사縣司가 폐지되고 많은 향리와 관노비들이 주읍인 금천의 치소治所로 옮겨졌다. 주읍 선정 당시에도 그랬지만, 금천이 주읍이 된 후에도 과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금과현으로 병합된 지 두 달도 안 되어 다시 과천현으로 독립하였다. 1414년(태종 14) 윤9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과천현이 다시 존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과천 현감果川縣監을 설치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지난번에 과천을 금천에 병합하였으나, 서울 도성에서 수원水原에 이르기까지 사객使客을 영송迎送하는 데 길이 멀고 험하니, 과천을 다시 두도록 청합니다. 금천은 양천陽川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는 부평富平에 붙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우군도총제부사 김한로金漢老의 농장農莊이 과천에 있었는데, 김한로가 근신近臣에게 부탁하여 계달啓達하도록 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조계朝啓에 참여하였다가 마침내 스스로 진달陳達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허락하였다.⁸

과천은 서울 도성에서 수원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과천현 존립

이 편하다는 이유였다. 이것은 명분이었다.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과천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김한로의 영향력이었다. 양녕대군의 장인이었던 김한로의 부탁을 태종이 마지못해 허락하고 있는 것을 자료는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과천은 금과현에서 분리되어 과천현으로 다시 존속되었다. 그에 따라 금천과 양천이 금양현衿陽縣으로 합쳐지고, 김포는 부평富平에 속하게 되었다.⁹

과천과 금천의 병합과 치소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456년(세조 2) 5월에 “과천과 금천을 병합하여 금천을 치소로 삼는 것이 좋겠다”¹⁰는 승정원의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두 달 후 다시 과천과 금천을 합하여 금과현으로 만들고 금천을 주읍의 치소로 삼았다.¹¹ 하지만 과천을 치소로 삼자는 의견과 독자적인 고을로 존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비등하였다.¹²

치소 문제는 오래도록 두 고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었다. 병합되는 전국의 군현 모두 그러했겠지만, 특히 과천과 금천 같은 경우는 군현을 병합할 때 후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례였다.



과천, 금천 분리 기사(1460년)

과천을 금천에 예속시키려 하자 과천 백성들이 원치 않았고, 금천을 과천에 예속시키려 하자 금천 백성들이 원망하여 끝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의 시詩에 “과천에 예속시키자니 금천 백성이 원망하고, 금천에 예속시키자니 과천 관리가 걱정하네”라고 하였습니다.¹³

결국 1460년(세조 6) 5월 금과현은 다시 과천현과 금천현으로 분리되어 두 군현 모두 존치되었다.¹⁴ 이후로 과천과 금천의 병합은 더이상 없었다. 과천은 조선 말기까지 과천현으로 존속하였던 반면, 금천은 1795년(정조 19) 고을 이름이 시흥始興으로 바뀌었다.

금천은 오래전 고려 때부터 시흥으로 불리기도 했었다.¹⁵ 당시 시흥으로 지명이 변경되면서 종5품의 현령이 파견되는 고을로 승격되었다.¹⁶ 실제로 며칠 후 시흥 현령으로 홍경후(洪景厚)가 임명되었다.¹⁷

과천현과 시흥현은 1895년(고종 32) 5월 조선의 8도제가 23부제로 개편되면서 군으로 승격하였다. 과천군과 시흥군이 된 것이다. 기존의 8도체제는 도 아래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 여러 등급의 행정단위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었다. 당시의 개혁은 복잡한 행정단위를 부와 군으로 이원화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군현은 23부 아래에 편제되었다. 경기도에 속했던 과천군·시흥군은 인천군·김포군·부평군·양천군·안산군·수원군·남양군·강화군·교동군·통진군과 함께 23부의 하나인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¹⁸

하지만 급하게 시행된 23부제는 이듬해인 1896년 8월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되었다. 13도제는 8도제를 기반으로 충청·전라·경상·평안·함경도를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현재 지방 행정체계와 같은 것이다. 그에 따라 과천군과 시흥군은 8도제 당시와 마찬가지로 다시 경기도에 소속되었다.¹⁹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과천군은 안산군과 함께 시흥군에 통합되었다. 지금까지 과천과 금천의 행정구역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안양지역의 행정구역 변천

시기	과천	금천
1392년	과주	금주
1413년 10월	과천현	금천현
1414년 8월		금과현
1414년 윤9월	과천현	금양현
1416년 7월	과천현	금천현
1456년 7월		금과현
1460년 5월	과천현	금천현
1795년 윤2월	과천현	시흥현
1895년 5월	과천군	시흥군
1914년 4월		시흥군

다음에는 과천과 금천의 수령을 도와 정사를 돕는 하부 행정 인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760년대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과천과 금천현 관아에 소속된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과천을 보면 현감 1인 이외에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1명, 군관軍官 15명, 아전衙前 19명, 지인知印 14명, 사령使令 10명, 관노官奴 15명, 관비官婢 19명이 있었다.²⁰ 금천도 이와 비슷했다. 금천에는 현감 1인 이외에 좌수 1명, 별감 2명, 군관 15명, 아전 22명, 지인 17명, 사령 8명, 관노 4명, 관비 5명이 있었다.²¹ 금천현의 경우에는 별감이 2명으로 과천보다 많은 반면 관노비의 인원은 모두 9명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군현의 하부 행정단위로 면·리가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중앙과 지방은 5호를 1통, 5통을 1리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쳐 1면을 만든다. 통에는 통주統主, 리에는 리정里正,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²² 과천현과 금천현의 면·리가 어떻게 편제되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과천의 경우이다. 1650년대 편찬된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志』에는 5개 면이 있었지만,²³ 1699년의 『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誌』를 보면 7개 면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7개 면은 동면東面·남면南面·상서면上西面·하서면下西面·상북면上北面·하북면下北面·현내면縣內面으로,²⁴ 상서면·하서면²⁵이 지금의 안양지역에 해당한다. 면의 하부 행정단위인 리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과천의 7개 면에 편제되었던 40개 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1789년 과천현의 면·리

면	리
현내면	읍내리, 문원리, 막계리, 갈현리, 가일리
동 면	준암리, 우면리, 신원리, 양재리, 명달리, 반초리
남 면	금정리, 당리, 봉성리, 당정리, 장간리, 산저리, 부곡리
상북면	방배리, 포촌리, 동작리, 반포리, 사평리, 사당리
하북면	흑석리, 노량리, 상가차산리, 하가차산리, 웅막리, 고사리, 웅점리
상서면	삼현일리, 삼현이리, 비산리
하서면	귀인일동, 귀인이동, 호계리, 안양리, 후두미리, 도양리

현재의 안양은 상서면과 하서면 지역에 속해 있었다. 상서면에는 삼현일리三峴一里·삼현이리三峴二里·비산리飛山里, 하서면에는 귀인일동貴人一洞·귀인이동貴人二洞·호계리虎溪里·



〈광여도廣輿圖〉 과천현(19세기 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시흥始興〉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안양리(安陽里)·후두미리(後頭尾里)·도양리(道陽里)가 있었다.²⁶ 상서면의 삼현일리·삼현이리는 현재의 동안구 관양동 일대, 비산리는 동안구 비산동 일대에 해당한다. 또한 하서면의 귀인일동·귀인이동은 동안구 평촌동 일대, 호계리·도양리는 동안구 호계동 일대, 안양리와 후두미리는 만안구 안양동 지역을 말한다.²⁷

이제 금천현을 살펴보자. 당시 금천현에는 6개 면에 41개 리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금천의 현내면·동면·서면·남면·상북면·하북면의 6개 면 가운데 현재의 안양지역은 현내면 안양리(安養里)와 서면 박달리(博達里)가 해당한다. 현내면 안양리는 지금의 만안구 석수동, 서면 박달리는 만안구 박달동 지역이다.

<표 3> 1789년 금천현의 면·리

면	리
현내면	읍내리, 박산리, 안양리
동 면	독산리, 가리산리, 문교리, 난곡리, 장내리, 신림리, 봉천리, 상도리, 성도화리, 서원리
남 면	광화대리, 광명리, 노은사리, 아방리, 유등리
서 면	안현리, 가리대리, 울일리, 자경리, 일직리, 철산리, 사성리, 박달리, 소하리
상북면	원지목리, 구로리, 사촌리, 도야미리, 양평리, 당산리, 선유리, 간포리
하북면	우와피리, 반대방리, 방하곶리, 영등포리, 신길리, 신고사리



『호구총수』 금천현(우)·과천현(좌)

2. 지방 군제의 성립과 변천

1) 지방 군제의 성립과 안양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는 중앙의 5위(五衛)와 지방의 진관체제(鎭管體制)로 정립된다. 고려의 오랜 병폐였던 사병(私兵)을 혁파하며 국초부터 진행된 군제 개편이 세조 때 이르러 일단락된 것이다. 5위는 의흥위·용양위·호분위·충좌위·충무위를 말한다. 5위 아래에 각각 5부(중·좌·우·전·후부)가 있어 전국의 군사가 이에 분속되었다. 과천·금천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군사들은 의흥위 중부에 속해 있었다.²⁸

조선 전기 지방 군제의 변천 과정에서 과천과 금천 지역의 군사제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주지하듯이 건국 초기부터 진행된 지방의 군제 개편은 세조 때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455년(세조 1) 전국을 여러 군익도(軍翼道)로 나누고, 각 군익도에 중·좌·우익으로 편성하는 익군체제(翼軍體制)가 시행되었다. 당시 경기도의 군제는 광주도(廣州道)·양주도(楊州道)·부평도(富平道)와 여러 독진(獨鎭)으로 편성되었다. 당시 과천은 부평도 좌익에, 금천은 중익에 속해 있었다. 좌익에 속한 과천 현감은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 중익에 속한 금천 현감은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겸임하며 군사를 지휘하게 되었다.²⁹

중익 : 부평·인천·양천·**금천**·고양

부평도 - 좌익 : 수원·남양·안산·**과천**

우익 : 김포·교하·통진

이러한 익군체제는 1457년(세조 3) 진관체제로 개편되었다. 진관체제는 전국 8도에 중요 거점인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그 주변의 제진(諸鎭)을 지휘하는 방식이었다. 경기도에는 5개의 거진이 있었다. 수원진(水原鎭)·광주진(廣州鎭)·양주진(楊州鎭)·강화진(江華鎭)·개성진(開城鎭)이었다. 이 당시 금과현으로 병합된 과천·금천 지역은 수원진에 소속되어 있었다.³⁰ 각 현감은 병마단련판관(兵馬團練判官)을 겸임하여 군대를 지휘하였는데, 병마단련판관은 1466년(세조 12)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되었다.³¹

그러면 조선 전기 과천과 금천의 군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1454년(단종 2)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 군현의 군정(軍丁)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과천에는 시위군(侍衛軍) 21명·선군(船軍) 70명, 금천에는 시위군 5명·선군 73명이 있었다. 과천·

금천지역의 군정은 다른 군현과 비교해서 많은 수가 아니었다. 이 당시 경기도 광주목(廣州牧)에 속해 있었던 군현의 군정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³²

<표 4>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경기도 광주목 군현의 군정수

지역	시위군	선군	계
광주목	122	263	385
이천현	80	119	199
여흥도호부	75	121	196
음죽현	81	58	139
천녕현	69	42	111
양근군	25	79	104
과천현	21	70	91
금천현	5	73	78
지평현	13	58	71

과천과 금천현의 군정수는 지평현보다 조금 많을 뿐, 다른 군현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군정수의 추세는 성종 때도 비슷했다. 1470년(성종 1) 경기도 전체 군정수는 6373명이었는데, 이천이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45명, 여주 231명, 음죽 147명, 양근 59명, 과천·금천 55명, 지평 25명의 순이었다.³³ 이처럼 조선 전기의 과천과 금천의 군정수는 경기도 내에서 적은 인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 군제의 변천과 안양

조선 전기의 5위제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5군영(五軍營) 체제로 바뀌었다. 5군영은 수도를 방어하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과 수도 외곽을 지키는 총융청·수어청을 말한다. 총융청에는 경기도도의 남양·수원·장단 3명이, 수어청에는 경기좌도의 광주·양주·죽산 3명이 있었다. 과천과 금천은 남양·안산·양천과 함께 총융청의 좌영인 남양에 속해 있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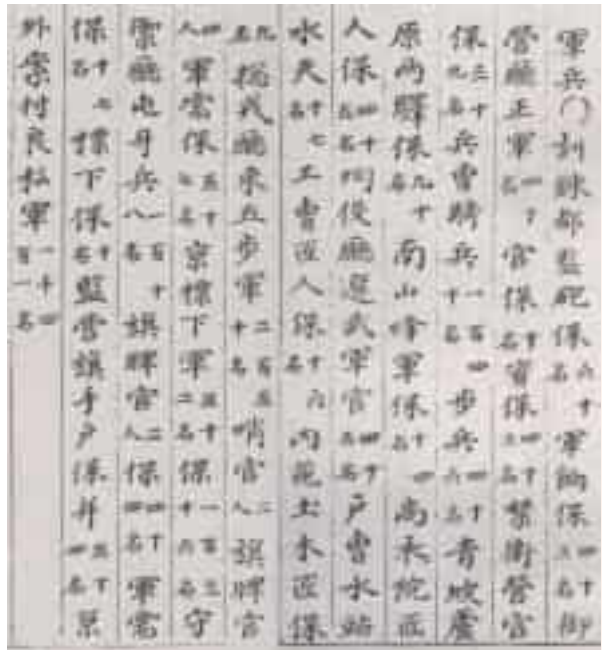
5군영 체제하의 과천·금천의 군정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전국의 군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조선 전기와 달리 군정의 소속처와 군종이 다양화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과천현의 군정 총수는 1401명이었다. 이들은 여러 군영과 관서에 소속되어 있

었는데 그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에 포보砲保 60명·군향보軍餉保 43명이 있었다. 어영청에 정군正軍 40명·관보官保 10명·자보資保 43명이 있었다. 금위영에 관보 39명이, 병조에 기병騎兵 140명·보병步兵 46명이 있었다. 청파靑坡·노원역蘆原驛 역보驛保 90명, 남산南山 봉군보烽軍保 14명, 상의원 장인보匠人保 45명, 균역청 선무군관選武軍官 43명, 호조 수참수부水站水夫 17명, 공조 장인보 16명, 내원內苑 토목장보土木匠保 9명이 있었다. 총융청에 속오보군束五步軍 250명·초관哨官 2명·기패관旗牌官 4명·군수보軍需保 57명·경표하군京標下軍 52명·보보 136명이 있었다. 수어청에 둔아병屯牙兵 118명·기패관旗牌官 2명·보보 44명·군수보軍需保 17명·표하보標下保 10명, 감영監營에 기수旗手·호보戶保 모두 54명이 있었다.³⁵

금천현의 군정 총수는 과천현보다 조금 적은 1172명이었다. 훈련도감에 포수보 51명·군향보 18명, 어영청에 정군 40명 내 북마군卜馬軍 3명·정군자보正軍資保 43명 내 북마보卜馬保 3명·관납보官納保 24명이 있었다. 금위영에 정군 22명 내 북마군 1명·정군자보 23명 내 북마보 1명·관납보 17명·별파진보別破陣保 1명이 있었다. 수어청에 군수보 7명의 천인賤人·둔아병 10명의 천인·둔아병보 3명의 천인·경표하보京標下保 13명의 천인이 있었다. 총융청 초관哨官 3인·지구관知穀官 1명·기패관 6명·속오군 375명의 천인·장하將下 28명의 천인·군수보 130명의

천인·경표하군 74명(양인 5명·천인 69명)·경표하보 90명의 천인이 있었다. 경리청에 수첩군관守楨軍官 5명·아병牙兵 2명이 있었다. 병조에 기병 56명 내 발군撥軍 16명·보병 21명·금군보 3명·복직褙直 7명이 있었다. 청파·노원역에 역보 38명 내 취보吹保 3명이 있었다. 장악원에 악생보樂生保 4명, 사복시에 제원諸員 21명, 호조에 수참수부 5명, 내원內苑에 토목장 7명, 감영에 기수·호보 모두 21명이 있었다.³⁶ 이처럼 두 군현 모두 여



과천현 군병(『여지도서』)

『리 소속처에 다양한 군종이 있었지만 실제로 군역을 수행하는 정군 등은 소수에 불과하고, 면포를 바치는 납포군(納布軍)이 대부분이었다.

5군영 체제는 정조 때 장용영(壯勇營) 체제로 변화된다. 1785년(정조 9) 왕을 호위하는 소규모 금위부대인 장용위(壯勇衛)가 창설된 것이 시초였다. 장용위 규모가 점차 커지더니 1788년 장용영으로 개칭되고, 1793년(정조 17) 장용 내영(內營)과 장용 외영(外營)으로 확대되었다. 장용영은 1802년(순조 2) 혁파될 때까지 정조 때 핵심적인 군사 기구로서 기능하였다.

장용 내영은 수도인 한성부, 장용 외영은 수원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793년 수원에 화성(華城)이 축조되고 우수부로 승격하면서 수원 유수가 장용외사를 겸임하였다. 정조가 현릉원을 방문하면서 자주 행궁에 머물자 장용 외영이 증시되었다.

장용 외영 이전의 5군영 체제에서 과천과 시흥(금천이 개칭)은 총융청의 좌영인 남양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수원의 장용 외영이 증시되면서 1797년 과천과 시흥은 안산·용인·진위와 함께 수원부에 예속되었다. 과천 현감은 통구유병장(通衢遊兵將), 시흥 현감은 북성협수장(北城協守將)의 직함으로 예하의 군사를 지휘하였다.³⁷ 장용 외영은 장락위(長樂衛) 아래 전위(पाल위)·좌위(창룡위)·중위(신평위)·우위(화서위)·후위(장안위)의 5위로 운영되었다.³⁸

당시 장용 외영에 속해 있던 다섯 군현의 군액 실제 총수는 7940명이었다. 즉 용인 2500명, 진위 1790명, 안산 1136명, 시흥 1086명, 과천 1428명의 군정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과천현과 시흥현의 군정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과천현의 전제 군액은 무포양군(無布良軍) 139명·납포양군(納布良軍) 537명·무포사군(無布私軍) 465명·납포사군(納布私軍) 493명으로 모두 1634명이었다. 이 가운데 납포양군 146명과 무포사군 60명을 감액하여, 실제 총수는 1428명이었다. 이들은 장용향군(壯勇鄉軍) 132명·장락대(長樂隊) 200명·신평대(新豐隊) 108명·장안대(長安隊) 723명·난후아병(欄後牙兵) 50명·노량아병(鷺梁牙兵) 215명으로 구분된다.

시흥의 전제 군액은 무포양군 121명·납포양군 439명·무포사군 477명·납포사군 279명으로 1316명이었다. 이 가운데 납포양군 140명과 무포사군 90명을 감액하여 실제 총수는 1086명이다. 이들은 장용향군 132명·장락대 169명·신평대 213명·협수대 472명·난후아병 100명으로 구분된다.³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과천과 금천(시흥)의 군정은 조선 초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과천에는 시위군 21명·선군 70명, 금천에는 시위군 5명·선군 73명으로 인원도 적었고 군사의 종류도 단순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중앙의 5군영과 여러 관서에 소속하며 많은 인원이 다양한 군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 1 관찰사와 수령의 품계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경국대전』 권1, 이전 외관직에 의거하였다.
- 2 『경국대전』 권2, 호전 호적.
- 3 과천과 금천의 면·리 수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 『호구총수』에 따랐다.
- 4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0월 15일(신유).
- 5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21일(신유).
- 6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8일(무인).
- 7 위와 같음.
- 8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윤9월 24일(갑자).
- 9 위와 같음.
- 10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5월 23일(신묘).
- 11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7월 4일(신미).
- 12 이듬해인 1457년 9월 과천을 치소로 삼자는 경기도 관찰사의 의견이 있었지만, 종전대로 금천을 치소로 두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9월 19일(경진).
- 13 『선조실록』 권47, 선조 27년 1월 7일(병술).
- 14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5월 3일(무인).
- 15 금주로 불리던 고려 성종 때부터 시흥이라는 별호가 있었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도 광주목 금천현.
- 16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1일(계미).
- 17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9일(신묘).
- 18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5월 26일.
- 19 『고종실록』 권34, 고종 33년 8월 4일.
- 20 『여지도서』 상, 경기도 과천현.
- 21 『여지도서』 상, 경기도 금천현.
- 22 『경국대전』 권2, 호전 호적.
- 23 『동국여지지』 권2, 과천현. 이 책은 실학자 유형원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였다. 1656년에 편찬하여 1660년대 후반까지 추가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 24 『과천현신수읍지』, 『여지도서』 경기도 과천현 및 『호구총수』 제2책, 과천현에도 거의 동일하다.
- 25 상서면·하서면은 1914년 서이면西二面으로 개편되었다.
- 26 서울대학교 규장각, 『호구총수』 1996, 44쪽.
- 2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211~212쪽.
- 28 『경국대전』 권4, 병전 경관직 오위.
- 29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계미).
- 30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10월 20일(경술).
- 31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15일(무오).
- 32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도 광주목.
- 33 『성종실록』 권3, 성종 1년 2월 30일(기묘).
-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0, 1998, 264쪽 및 267쪽.
- 35 『여지도서』 상, 경기도 과천현 군병.
- 36 『여지도서』 상, 경기도 금천현 군병.
- 37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9월 24일(경인).
- 38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기유).
- 39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기유).

2장

안양지역의 사회와 경제



김창현 전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의교수



1. 안양지역의 생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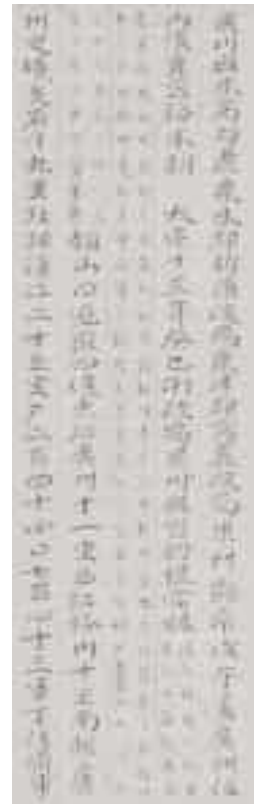
1) 강역

현재의 안양지역이 속해 있던 조선시대 과천현과 금천현의 사회경제적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단편적이거나 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국 단위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여지도서』(1759년), 『호구총수』(1789년)와 개별 군현의 『읍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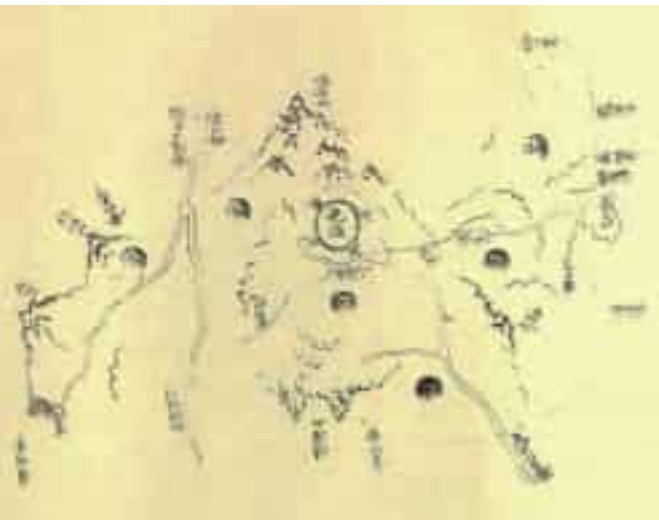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과천과 금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한다. 먼저 과천과 금천의 강역疆域을 알아본다. 강역이란 해당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를 말한다. 말하자면 지금의 영역과 같은 의미로, 과천과 금천 백성들의 공동생활공간인 셈이다.

전국은 토지와 인구의 규모에 따라 주·부·군·현처럼 격이 다른 군현으로 구분되었다. 조선 초기 경기도에는 목牧 1곳, 도호부都護府 8곳, 군郡 1곳, 현縣 26곳이 있었다.¹ 과천과 금천은 중 6품의 현감이 파견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고을이었다. 그에 따라 생활공간도 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군현의 강역은 해당 군현의 중심지인 읍치邑治에서 다른 군현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와의 거리로 표시되었다. 조선시대 전국



『세종실록지리지』 과천현



『여지도서』 금천현과 과천현 지도

의 강역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자료는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이다. 먼저 과천현 강역을 살펴보면 동쪽으로 광주廣州까지 11리, 서쪽으로 금천衿川까지 10리, 남쪽으로 광주의 지경 지석支石까지 19리, 북쪽으로 한강漢江까지 25리였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동쪽으로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일대, 서쪽으로 안양시 박달동 일대, 남쪽으로 군포시 부곡동과 화성시 반월동 일대, 북쪽으로 서울의 노량진과 흑석동의 한강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² 그리고 금천현은 동쪽으로 과천果川까지 14리, 서쪽으로 부평富平까지 11리, 남쪽으로 안산安山까지 15리, 북쪽으로 노도露渡까지 18리였다.³

조선 중기에는 두 군현의 강역이 조금 확장되었다.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전국의 강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과천현은 동쪽으로 광주까지 13리, 남쪽으로 수원까지 34리, 서쪽으로 금천까지 20리·안산까지 28리, 북쪽으로 노량까지 20리였다.⁴ 또한 금천현은 동쪽으로 과천까지 11리, 남쪽으로 안산까지

16리, 서쪽으로 부평까지 17리, 북쪽으로 양천까지 27리·노량까지 23리였다고 한다.⁵

조선 후기 『여지도서』에도 전국의 강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과천현은 동쪽으로 광주까지 13리, 서쪽으로 안산까지 25리, 남쪽으로 광주까지 30리, 북쪽으로 금천까지 25리였다.⁶ 금천현은 동쪽으로 과천까지 30리, 서쪽으로 인천까지 40리, 남쪽으로 안산까지 30리, 북쪽으로 양천까지 30리였다고 한다.⁷ 이처럼 과천과 금천의 강역은 조선 초기보다 후대로 갈수록 조금씩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안양지역은 과천현의 상서면·하서면과 금천현의 현내면·서면 지역에 속해 있었다.

2) 방리와 호구

조선시대 지방통치의 특징은 군현제郡縣制와 면리제面里制라고 할 수 있다. 고려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군현에 중앙에서 수령을 파견하여 지방을 직접 지배하고, 각 군현의 하부 단위로 면과 리(동)를 설치하였다. 과천과 금천에는 어떠한 마을이 있었고,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조선시대 ‘방리坊里’와 ‘호구戶口’를 통해 마을과 인구 규모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리’는 마을을 뜻하는 방坊과 리里를 합친 말로, 군현의 하부 행정 단위인 면面과 리里와 같은 개념이다. 또한 ‘호구’는 가호家戶와 인구人口를 합해 부르는 말이다.

전국의 방리와 호구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와 『호구총수』가 대표적이다. 조선 초기 자료로 『세종실록지리지』가 있지만, 여기에는 군현의 하부 단위인 방리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단지 호구수만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재된 경기도와 과천현·금천현의 호구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⁸

<표 1> 조선 초기 경기도·과천현·금천현의 호구수

(단위: 호·명)

지역 \ 호구	가호	인구
경기도	20,882	50,352
과천현	244	743
금천현	327	937

경기도 총 호구수는 2만 882호에 5만 352명이었다. 과천현은 244호에 743명, 금천현은 327호에 937명이었다.⁹ 경기도의 호당 평균 인구수는 2.41명 정도였고, 과천은 3.05명, 금천은 2.87명 정도가 된다. 당시 경기도의 군현이 41개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과천이나 금천 모두 호구가 많은 고을은 아니었다. 같은 현감이 파견되던 인근의 이천현·천녕현 등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이천현은 1026호에 3898명, 천녕현은 413호에 1234명이었다.¹⁰

과천현과 금천현의 호구수를 비교해보면 금천이 과천보다 조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과천보다 금천의 읍세가 크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1414년(태종 14) 금천과 과천을 금과현으로 병합할 당시 “금천은 인리와 노비와 토착민이 번성하나, 과천은 땅이 비좁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금천이 주읍이 된 적이 있었다.¹¹

전국의 방리와 호구수가 보다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이다. 『여지도서』에는 전국 군현의 호구수를 ‘방리’라는 항목에서 면별로 기재하고 있다. 먼저 과천현의 방리와 호구수를 살펴보자. 『여지도서』 편찬 당시 과천현에는 7개 면이 있었다. 현내면·동면·상서면·하서면·남면·상북면·하북면이다. 이들 7개 면의 호구수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된다.

<표 2> 1759년 과천현의 면별 호구수

(단위: 호·명)

면 이름 \ 호구	가호	인구		
		남	여	계
현내면	551	1,018	1,313	2,331
동면	407	678	1,304	1,982
상서면	283	300	680	980
하서면	283	568	947	1,515
남면	378	652	1,095	1,747
상북면	812	1,679	1,941	3,620
하북면	436	805	832	1,637
합계	3,150	5,700	8,112	13,812

과천현 7개 면의 전체 호수는 3150호, 인구수는 1만 3812명으로 호당 평균 4.38명이었다. 남녀별 인구수를 보면 남자가 5700명, 여자가 8112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7개 면 모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과천현의 여러 면 가운데 상북면의 호구수가 812호에 3620명으로 가장 많고, 현재의 안양지역이 속해 있던 상서면·하서면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상서면은 283호에 980명, 하서면은 283호에 1515명이었다. 상서면과 하서면이 모두 283호로 호수는 같았지만, 인구수는 상서면 980명·하서면 1515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서면이 호당 3.46명인데 반해 하서면은 호당 5.35명이 된다. 당시에 호 구성이 세금 부과 등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편제된 호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서면보다 상서면에 살던 자연호의 경제력이 우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금천현의 경우를 살펴보자. 금천현에는 현내면·동면·서면·남면·상북면·하북면의 6개 면이 있었다. 그런데 과천현과 달리 금천현에는 호구 총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면별 기록은 없다. 금천현의 총 호수는 1873호, 인구수는 남자 3322명에 여자 4441명으로 도합 7763명이었다. 호당 평균 4.14명으로 나타난다. 남녀별 인구수는 과

천현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 여자가 많았던 이유는 군역 등 세금 부과 대상인 남정(男丁)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당시 두 군현의 호구수를 비교하면 조선 초기와 달리 과천의 읍세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과천현의 총 호수가 3150호에 인구수 1만 3812명인데 반해, 금천현은 1873호에 7763명에 지나지 않았다. 1414년(태종 14) 금천과 과천을 금과현으로 병합할 때 주읍이 된 것은 호구수가 많은 금천이었던 것을¹² 생각한다면 조선 초기와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호구총수(1789)

다음에는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를 통해 과천과 금천의 마을과 인구 규모를 알아보자. 『호구총수』에는 전국 군현의 하부 단위인 면·리의 이름과 면별 호구수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과천현의 경우이다. 과천에는 7개 면과 40개 리가 있었다. 즉 7개 면은 현내면·동면·남면·상북면·하북면·상서면·하서면이다. 그리고 현내면에 5개 리를 비롯하여 동면 6개 리·남면 7개 리·상북면 6개 리·하북면 7개 리·상서면 3개 리·하서면 6개 리가 각각 편제되어 있었다. 이 당시 과천의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과천의 호구수를 면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된다.

<표 3> 1789년 과천현 면별 호구수

(단위: 호·명)

면 이름 \ 호구	가호	인구		
		남	여	계
현내면	620	1,235	1,543	2,778
동면	488	927	1,409	2,336
남면	460	807	1,122	1,929
상북면	574	912	1,617	2,529
하북면	583	993	1,149	2,142
상서면	244	502	551	1,053
하서면	304	543	869	1,412
합계	3,273	5,919	8,260	14,179

과천현 7개 면의 전체 호수는 3273호, 인구수는 1만 4179명으로 호당 평균 4.33명이었다. 남녀별 인구수는 남자가 5919명, 여자가 8260명으로 나타난다. 7개 면 가운데 현내면의 호구수가 가장 많고, 현재의 안양지역에 해당하는 상서면·하서면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30년 전 『여지도서』와 비교하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마을이 상북면에서 현내면으로 바뀌었고, 7개 면의 총 호수가 3150호에서 3273호, 인구수가 1만 3812명에서 1만 4179명으로 조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안양지역에 해당하는 상서면과 하서면의 호구수는 『여지도서』 편찬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천현이 제일 작은 규모였다. 즉 상서면은 244호에 1053명, 하서면은 304호에 1412명에 지나지 않았다. 『여지도서』에는 상서면은 283호에 980명, 하서면은 283호에 151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어 금천현의 방리와 호구수를 살펴보자. 금천현에는 6개 면에 걸쳐 41개 리가 있었다. 『여지도서』 당시에는 6개 면에 39리가 있었는데 2개의 리가 늘어났다.¹³ 금천현 41개 리는 현내면 3개 리, 동면 10개 리, 남면 5개 리, 서면 9개 리, 상북면 8개 리, 하북면 6개 리 등이다. 이 가운데 안양지역은 현내면 안양리, 서면 박달리 지역이다.

금천의 마을별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마을별로 호구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금천현 6개 면의 전체 호수는 1934호, 인구수는 7245명으로 호당 평균 3.75명이었다. 남녀별 인구수는 남자가 3360명, 여자가 3885명으로 나타난다. 6개 마을 가운데 안양지역인 박달리가 속해 있던 서면의 호구수가 486호에 1958명으로 가장 많고, 하북면이 209호에 731명으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천현 전체의 호구수는 30년 전 『여지도서』와 비교하면 호수가 1873호에서 1934호로 다소 늘어난 반면, 인구수는 7763명에서 7245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1789년 금천현 면별 호구수

(단위: 호·명)

면 이름 \ 호구	가호	인구		
		남	여	계
현내면	326	502	530	1,032
동면	322	580	688	1,268
남면	271	485	566	1,051
서면	486	913	1,045	1,958
상북면	320	554	651	1,205
하북면	209	326	405	731
합계	1,934	3,360	3,885	7,24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에는 과천의 인구 규모는 244호에 743명, 금천은 327호에 937명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인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 당시에는 과천은 3273호에 1만 4179명, 금천은 1934호에 724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초기의 호구 파악이 조선 후기와 달리 소략하게 파악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조선 후기 과천과 금천의 인구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과천의 호수는 244호에서 3273호로 13배, 인구수는 743명에서 1만 4178명으로 19배나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금천의 호수는 327호에서 1934호로 6배, 인구수는 937명에서 7245명으로 8배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과천현 인구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과천은 종6품 현감이 파견되는 지역임에도 종4품의 군수가 파견되는 군 단위와 비슷할 정도로 인구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호구총수』 당시의 경기도 38개 군현 가운데 호수가 가장 많은 수원군 1만 5121호·양주군 1만 2465호에 이어 과천현은 3273호로 17번째였다. 인구수도 양주군 6만 4025명·수원군 5만 7660명에 이어 과천현이 1만 4179명으로 경기도에서 14번째에 해당한다. 과천현은 군 단위의 고양군 1만 3063명, 파주군 1만 154명보다 인구가 오히려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천현의 호수는 경기도에서 29번째, 인구수는 31번째에 해당한다.¹⁴

이처럼 조선 후기에 과천의 인구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당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과천은 남쪽에서 수도로 들어가는 물산의 통로였기 때문이었다. 수도 서울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과천지역은 외지 사람들도 찾아드는 새로운 보금자리였던 것이다.

2. 안양지역의 경제 생활

1) 토지 규모

조선시대 과천과 금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나 지금이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다양한 생업 수단이 없었던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다. 조선시대 산업의 근간은 농업이었다. 당시에는 ‘사·농·공·상 士·農·工·商’의 관념이 강해, 농업이 중시된 반면 수공업과 상업은 상대적으로 천시되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과천과 금천 사람들의 주된 생업은 농업이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토지였다.

조선시대 과천과 금천의 토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알아보자.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 군현의 토지 규모가 기재되어 있다. ‘전결田結’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과천현과 금천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천현] 땅이 메마르다. 간전墾田이 3128결인데 논이 1/3을 넘는다.¹⁵

[금천현]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다. …… 간전이 2762결인데 논이 2/5 정도 된다.¹⁶

두 군현 모두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 즉 간전墾田의 결수結數가 기록되어 있다. 과천의 간전은 3128결, 금천은 2762결로 과천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천과 금천의 토지는 다른 고을과 비교해 넓은 편이 아니었다.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경기도는 41개 군현에 걸쳐 전체 토지가 20만 347결이었다. 당시 과천현·금천현은 경기도 광주목廣州牧에 편성되어 있었다. 광주목에는 과천현·금천현과 함께 여흥도호부·양근군·음죽현·이천현·천녕현·지평현 등의 토지 결수가 기록되어 있다.

광주목이 1만 6269결로 가장 많고 이천현 7532결, 여흥도호부 6145결, 천녕현 4573결, 양근군 4343결, 지평현 3335결, 음죽현 3163결, 과천현 3128결, 금천현 2762결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러 군현 가운데 과천현과 금천현의 토지 규모가 가장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¹⁷

과천과 금천의 토지를 전田·답畓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과천의 토지는 총 3128결인데, 이 가운데 논이 1/3이 넘었다고 한다. 과천은 경작하는 토지도 넓지 않았지만, 그나마도 땅이 메말라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1699년에 편찬된 『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誌』에도 “땅이 비옥하지 않은데, 가물거나 홍수가 나면 재해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1639년(인조 17) 경기도에 장마가 들었을 때 과천과 금천의 벼농사 피해가 심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¹⁸ 한편 금천의 토지는 총 2762결로 밭 1657결, 논 1105결 정도가 된다. 전체 면적은 과천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천과 달리 비옥한 땅이 전체의 반 정도 된다고 하니 소출량은 더 많았을 것이다.

조선 후기인 1759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도 전국의 토지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의 ‘전안田案’ 항목이다. 이를 보면 토지의 원결元結과 함께 실결實結이 기록되어 있다. 실결이란 여러 사유로 경작되지 못한 토지와 세금이 면제된 토지 등을 원결에서 제외

한 실제 경작되는 토지를 말한다. 과천현은 밭인 한전_{旱田}의 원결이 984결 54부 3속인데, 실결은 잡탈된 453결 53부 4속을 뺀 531결 9속이었다. 논인 수전_{水田}의 원결은 580결 51부 8속인데, 실결은 잡탈된 186결 86부 4속을 제외한 393결 65부 4속이었다.¹⁹

금천의 토지 규모는 어떠했을까. 금천현은 한전의 원결이 765결 30부 6속인데, 실결은 잡탈된 237결 69부 9속과 세금이 면제된 115결 93부 1속을 제외한 411결 67부 6속이었다. 수전의 원결은 510결 47부 7속인데, 실결은 잡탈된 163결 33부 6속과 세금이 면제된 129결 85부 2속을 제외한 217결 28부 9속이었다.²⁰

조선 초기와 비교하면 과천과 금천 모두 토지 규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과천과 금천의 전·답이 각각 3000결 내외이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과천은 925결, 금천은 629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두 군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였다.²¹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와 조선 후기 『여지도서』에 기록된 경기지역 토지 결수의 변화를 정리한 다음의 <표 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같이 토지 결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세금을 거두는 수세전_{收稅田}의 기준이 달라진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조선시대 경기지역 토지 결수의 변화

(단위: 결)

지역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여지도서(1789년)
광주	16,269	6,076
이천	7,532	1,550
여흥	6,145	1,733
양근	4,343	936
지평	3,335	467
음죽	3,163	1,293
과천	3,128	925
금천	2,762	629

2) 토산물

다음에는 과천과 금천에서 생산되던 토산물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전국의 토지 전결수와 마찬가지로 토산물이 기재되어 있다. 바로 ‘토의_{土宜}’에 대한 기록이다. 과천과 금천현의 토산물은 다음과 같다.

[과천현] 토의는 오곡과 조·팥·메밀·참깨·뽕나무·삼이다. 토공土貢은 느타리[眞蓴]·지초芝草이다.

[금천현] 토의는 오곡과 조·팥·녹두·메밀·수수·참깨·뽕나무·삼이다. 토공은 지초, 약재는 백편두白扁豆이다.²²



『과천현읍지』 토산

과천과 금천의 토산물은 오곡과 조·팥·메밀·참깨·뽕나무·삼 등으로 서로 비슷하였다. 특산물은 과천이 느타리버섯과 지초, 금천이 지초를 공물로 바치고 있었다. 당시에는 두 군현의 토산물과 공물이 모두 농산물이었다.

조선 후기인 1759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도 전국의 토산물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기재된 당시의 토산물은 조선 초기의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들이었다. 과천은 복어[河豚]·뱅어[白魚]·붉은 게[紫蟹]가 있었고, 생게[生蟹]를 진상하였다. 금천의 토산물도 붕어[鯽魚]·게[蟹]가 있었고, 참게[生雌蟹]를 진상하였다고 한다.²³

『세종실록지리지』와 『여지도서』 사이인 조선 중기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과천의 토산물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금천의 토산물이 기재되어 있다. 금천의 토산물로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붕어·게가 있었다고 한다.²⁴ 또한 1860년대 편찬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과천의 토산물의 종류가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시 과천의 토산물로는 뱀어·게·밤·백토白土·잉어가 있었다고 한다.²⁵ 하지만 『대동지지』에는 금천(당시 지명은 시흥)의 토산물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과천지역의 토산물 종류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1899년에 간행된 『과천군읍지』였다. 여타 읍지와 마찬가지로 ‘토산土產’ 항목에서 먼저 과천의 지역적 특성을 언급한 다음, 여러 토산물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다른 고을에 없고 이 지역에 있는 것이 토산이다. …… 동서남북의 땅에 생산하는 것이 다르니, 이 고을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어찌 없으랴. 두 개의 큰 산 사이에 처하여 지역이 험소하고 토질도 메말라서 시내에서 척박한 고을이니, 이 땅에 산물이 적은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여러 곡식과 과일·채소·가축·물고기·게 등을 대략 기록한다. 벼·팥·콩·기장·조·피·보리·밀·메밀·수수·들깨·녹두, 대추·밤·복숭아·앵두·머

루·산사·으름덩굴 줄기, 순무·무·상추·가지·오이·참외·수박·동아·순채·고사리·삼주·도라지·더덕·거여목, 소·말·돼지·닭·개·고양이, 은어·복어·붉은 게.²⁶

자료에서 보듯이 곡식, 과일, 채소, 가축, 수산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지만, 다른 고을과 대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사실 여러 열거된 품목 가운데 과천의 토산물은 ‘밤’이었다. 과천의 옛 지명인 ‘율목栗木’과 ‘율진栗津’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후기까지 과천에는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 과천 주민 가운데 일부는 가을이 되면 밤을 따서 생업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²⁷

註

- 1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175쪽.
- 3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과천현 및 금천현.
- 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과천현.
-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금천현.
- 6 『여지도서』 상, 경기도 과천현.
- 7 『여지도서』 상, 경기도 금천현.
- 8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과천현 및 금천현.
- 9 이 당시의 호와 구는 구역이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편제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가호와 인구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 10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이천현 및 천령현.
- 11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8일(무인).
- 12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8일(무인).
- 13 『여지도서』와 『호구총서』의 금천현의 마을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다. 당시 마을이 증가된 곳은 주로 하북면 지역이었다.
-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호구총서』, 1996, 〈표 5〉 경기도의 호구 및 면리수.
- 15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과천현.
- 16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금천현.
- 17 인구 규모를 알 수 있는 호구수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 18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7월 23일(무인).
- 19 『여지도서』 상, 경기도 과천현.
- 20 『여지도서』 상, 경기도 금천현.
- 21 경기도 부평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간전이 5296결로 논밭이 반반이었다. 그런데 『여지도서』에는 밭의 원결 1557결·실결 725결, 논·원결 1472결·실결 578결로 줄어들었다.
- 22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과천현 및 금천현.
- 23 『여지도서』 상, 경기도 과천현 및 금천현.
-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금천현.
- 25 『대동지지』 권4, 경기도 과천현.
- 26 『과천군읍지』, 규장각소장본(奎10708); 과천문화원, 『과천읍지집람』, 2007에서 재인용.
- 27 과천시지편찬위원회, 『과천시지』 1, 2007, 298쪽.

3장

정조의 원행과 만안교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1. 정조의 원행

1) 영우원 · 현릉원 행차

조선 후기에 능원 행차를 가장 많이 한 국왕은 정조였고, 가장 많은 행선지는 사도세자를 모신 영우원永祐園과 현릉원顯隆園이었다.¹ 정조는 즉위 직후에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을 경모궁景慕宮과 영우원으로 각각 승격하고 의절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지위를 종묘의 '지차'로 규정하였으며 그 위상에 맞춰 『궁원의宮園儀』가 만들어졌다. 정조는 영우원 천봉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16회의 원행을 하면서 행차의 의절은 물론 도성의 수위와 행차의 호위문제 등을 왕릉 행차의 격식에 버금가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국왕의 능원 행차가 친제親祭를 올리기 위한 것인 데 비해 정조의 행차는 친제 외에도 사도세자의 위상을 격상하려는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그래서 의례적인 부분과 함께 행차의 규모와 절차도 그에 걸맞게 정비한 것이다. 문효세자가 탄생한 이후에 정조는 사도세자의 국왕 추숭追崇 문제를 염두에 두었던 듯 영우원 행차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배봉산拜峯山 주봉에 직접 올라가서 산세를 살피고, 영우원 주변에 거주하던 백성을 만나 민원을 묻기도 하였으며, 사도세자 가례嘉禮에 참여하였던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貞陵을 거쳐 영우원에 행차한 것은 장차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숭하여 봉릉封陵할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주목된다.

그런데 문효세자가 1786년 6월 갑자기 서거하자 정조는 다시 왕자를 낳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세자의 죽음은 정조의 계획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사라진 것이기 때

문이다. 정조는 수빈박씨를 새로운 후궁으로 들였으나 태기胎氣가 없자 영우원의 천봉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혈식구원血食久遠’하기 위해 친족의 무덤을 더 좋은 길지로 옮기고 그 기운을 받아 자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었다. 그 구상은 정조의 고모부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상소를 올려 공론을 조성함으로써 실행에 옮겨졌다.

자신의 후사를 얻기 위해 부친의 묘를 옮기는 행위는 왕실의 종통宗統을 이어가는 문제이고, 영조 때 인조의 장릉長陵을 옮긴 전례가 있었으며 주자朱子도 거론한 방법이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반대의견을 낼 수 없었다. 영우원 천봉이 결정된 이후 정조는 10차례나 행차하여 예를 표하였고, 공역에서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영우원이 있던 양주 배봉산에서 현릉원으로 결정된 수원 화산까지 사도세자의 재궁梓宮을 운구하는 노정은 영우원에서 독섬까지 15리, 한강을 건너 광주 초경에서 과천 관문까지 35리, 과천 관문에서 수원 신읍新邑까지 40리, 수원 신읍에서 현릉원 원소동구까지 30리로 총거리는 120리였다. 사도세자의 재궁은 1789년 10월 5일 출발하여 독섬에서 한강을 건넜다. 배다리를 이용하여 한강을 건너는 데는 불과 반 각(半刻: 약 7~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² 과천행궁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6일 수원 신읍의 막차에 잠시 주정하였다가 신시(申時: 15~17시)에 현릉원에 도착하여 정자각에 모셔졌고, 정조가 지켜보는 가운데 10월 7일 사도세자의 재궁이 안치되었다. 이때 정조는 매년 1차례 이상 행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1790년 1월 1일에는 사도세자의 생일에 맞춰 현릉원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19일 행차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조의 수원 행차가 대부분 연초에 있었던 것은 1월에 있는 사도세자의 생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렇게 성사된 영우원 천봉과 현릉원 조성이 끝난 뒤에 수빈박씨가 마침내 회임懷妊하였고, 1790년 6월 왕자[후일의 순조]가 태어나는 경사가 있게 되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음덕으로 인해 다시 후계자를 보게 된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음덕은 조종祖宗의 성군들에 버금가는 공덕이라고 선포하였다.

정조는 세자가 성인이 되면 양위하여 사도세자의 국왕 추승을 진행한다는 구상을 더 구체화시켰고, 현릉원 행차 때마다 현릉원 화소火巢 안을 직접 답사하며 세심하게 살펴 보았다. 정조가 현릉원의 풍수적 보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자신의 능침을 현릉원 주변에 마련할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조는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일일이 지시하였고, 각종 공역이 끝난 후에는 서계와 별단을 통해 보고받은 후 다음번 원행 때 직접 확인하였다. 정조는 현릉원 화소 주변의 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채와 달력, 모자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1789년 현릉원을 조성한 이래 총 13차례에 걸쳐 현릉원에 행차하였다. 현릉



웅릉(국가유산청)

원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왕의 행차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경기도 각 군현의 폐해를 점검하여 『원행정례』를 제정하고 과천과 수원에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원행에 대비하였다. 정조는 현릉원 원행에서 배다리 설치를 정례화하기 위해 1790년 7월 『주교지남(舟橋指南)』을 작성하였다. 1793년에는 『주교절목』이 제정되어 선릉(宣陵)·정릉(靖陵)·장릉(章陵)·현릉원 및 온양온천에 행행할 때는 노량(露梁)에 주교를 설치하고, 현릉(獻陵)·영릉(英陵)·영릉(寧陵)에 행행할 때는 광진(廣津)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정조의 현릉원 행차 노선은 노량진을 건넌 후 사당을 거쳐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인덕원으로 이어지는 길로 정해졌다. 이 길은 1791년부터 1794년까지 이용되었으며, 대개 하루 일정으로 수원까지 행차하였다.

2) 1795년 을묘년 원행과 시흥로 개설

1795년 사도세자와 혜경궁의 회갑을 맞아 7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한 을묘년 원행은 역대 국왕의 능원 행차 가운데 그 규모와 동원된 인원, 행차 기간 등에서 전무후무한



화성능행도(국립중앙박물관)

일로 꼽힌다. 을묘년 원행은 국가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작성되어 행사의 전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³

을묘년 원행은 2년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1793년(정조 17) 1월 19일 정조는 신하들에게 2년 뒤에 초유의 큰 경사가 모두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하였다. 1794년 1월 1일 정조는 정순왕후가 오순^{五旬}, 어머니 혜경궁이 육순^{六旬}을 맞이한다며 두 개의 경사를 합동으로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대사면령을 내려 죄수들을 풀어주고, 곧이어 전문^{箋文}과 폐백을 드리는 하례^{賀禮} 행사를 거행하였다. 존호^{尊號}를 옥책^{玉冊}에 써서 올리는 호례^{號禮}와 잔치를 열어 술잔을 올리는 연례^{宴禮}는 을묘년에 거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왕후의 오순보다는 회갑을 맞게 될 혜경궁에게 더 큰 비중을 둔 발언이었다. 정조는 이 무렵부터 을묘년 원행에 혜경궁을 모시고 행차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1794년 7월 20일 을묘년 원행 준비를 본격화하여 장용영 제조 정민시(鄭民始)에게 10만 냥의 비용을 사리에 맞게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정조는 왕실의 경사를 사서인(士庶人)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70세 이상 된 조정의 관직자, 80세 이상의 일반 사서인, 80세가 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회갑을 넘긴 자들에게 차등 있게 작위를 하사하거나 품계를 올려주었다. 이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7만 5145명으로 『인서록(人瑞錄)』에 명단이 기록되었다.

정조는 1795년이 자신의 즉위 20주년 하례연, 자전 정순왕후의 망륙(望六) 가상존호, 사도세자의 추상존호, 혜경궁의 가상존호 등 3인의 호연, 혜경궁의 회갑 진찬연 등을 묶어 ‘다섯 가지 경사(五慶)’가 든 해라고 다시 천명하였다. 정조는 1795년 1월 15일 종묘와 경모궁에서 이 경사들의 고유제를 망제(望祭)와 함께 겸행하고, 영녕전과 사직단에서

도 고유제를 거행하였다. 다음 날인 1월 16일에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아 국왕에게만 올리던 ‘팔자八字 존호’와 ‘금인金印’을 사도세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위상을 ‘국왕급’으로 높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이하는 생일[1월 21일]에王大비전[정순왕후], 혜경궁을 모시고, 중궁전[효의왕후]과 함께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서 전배展拜하며 추모하였다. 이때 정순왕후는 전작례奠爵禮를 행하였고, 혜경궁은 알묘례謁廟禮, 효의왕후는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한 정조는 사도세자와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어머니 혜경궁과 누이들까지 동행시켜 수원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기로 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환갑을 맞은 혜경궁은 난생처음으로 한양에서 수원까지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다. 정조는 혜경궁의 이동을 위해 새로운 가교駕橋를 제작하였고, 가교가 완성되자 정조가 직접 살펴보았다. 가교는 사람이 들고 가거나 말에 연결하여 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 모두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거려서 심한 멀미가 날 수도 있다. 게다가 높은 고개가 있는 기존의 과천로를 이용하게 되면 가교가 심하게 기운 상태로 남태령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정조는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에게 과천로보다 편안한 길을 개설하게 하였다.

서용보는 역대 경기감사들과 논의한 결과 금천(衿川, 시흥)으로 가는 것이 평탄하고 거리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정조는 그 계획을 윤허하고 금천현을 ‘시흥현始興縣’으로 개명하였다. 서용보는 1794년 4월 2일 금천 관아의 수리와 시흥로를 개설하는 공사에 착수하면서 신작로新作路라 호칭하였다. 시흥로 개설 과정에서 노선路線 주변의 소나무를 남작濫斫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보면 기존의 소로를 어가御駕 행차 규모에 맞게 대로大路로 확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편평한 시흥로를 개설하였음에도 가교를 탄 혜경궁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5리里마다 주정소晝停所를 마련해서 휴식을 취하는 노정路程을 마련하였다. 주정소마다 표지물을 설치하였고 휴식하면서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중간에 있는 여러 하천에도 다리를 놓아 혜경궁홍씨가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창경궁에서 수원 화성행궁華城行宮까지 하루에 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중간 지점의 시흥현에서 숙박하기 위해 관아에 행궁을 마련하였다. 1박 2일 여정으로 충분한 유식을 취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노모에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흥로는 곧 혜경궁을 모시기 위한 ‘효심의 길’이었다.

3) 을묘년 원행의 반차도와 노정

정조는 1795년 원행을 앞두고 춘당대春塘臺에서 혜경궁을 가교에 태우고 예행연습을 진행하였다. 행차 습의習儀가 끝나고 정조는 “교태문이 좁아서 가교가 지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문을 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만팔문 안쪽의 문에 ‘천오문千五門’이라는 편액을 달았고, 연생문 북쪽에도 문 하나를 세워 ‘보정문保定門’이라 하였다. 이렇게 행차 동선에 위치한 문을 더 세우거나 정비한 것은 행차의 의미를 더욱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천오문’은 을묘년의 경사 5개가 천년에 한 번 있는 것이라는 의미였고, ‘보정문’은 그러한 경사의 의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영원하기를 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뒤 정조는 문의 증수增修와 신건新建으로 인해 현판의 위치가 맞지 않게 되자 그 위치를 조정하여 문 이름의 순서와 상징성을 분명하게 하였다.

국왕의 행차에는 누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반차班次가 미리 정해지게 된다. 그래야 행차의 질서가 정연整然해지고 임금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을묘년 원행 <반차도班次圖>를 보면 경기감사-총리대신-훈련대장-금군별장-수어사-정정가교-총융사[정리사]-자궁慈宮가교-정조 좌마-청선·청연군주 쌍교雙轎-선기대善騎隊-장용대장-도승지-내국제조-장용영제조-병조판서로 이어지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 경기감사와 우의정 체제공을 배치한 것은 대가大駕 노부鹵簿에서 한성판윤과 호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가 도가導駕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기감사에 정리사, 우의정에 총리대신이란 직함을 곁한 것은 이 행차가 원행만을 위한 반차가 아니라 화성성역의 현장을 순시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정조가 탈 정가교가 앞에 있으나 실제 정조는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지 않고 혜경궁의 뒤에서 말을 타고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혜경궁의 가교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원행에 앞서 있었던 습의에서도 정조는 혜경궁의 뒤에서 말을 타고 갔으므로 이 순서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반차도>에는 정가교와 자궁가교, 쌍교 2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원행을 위해 가교 1좌, 유옥교有屋轎 1좌, 육인교六人轎 2좌를 새로 만들고, 가교 1좌와 유옥교 1좌를 보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반차도보다 많은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새로 만든 가교 1좌는 혜경궁이 탄 자궁가교이고, 유옥교 1좌는 혜경궁이 화성행궁에서 현릉원으로 행차할 때 탈 것이었다. 육인교 2좌는 청연군주와 청선군주가 타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⁴



화성원행반차도 내 경기감사와 총리대신(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95년 윤2월 9일 묘시(卯時) 정각에 혜경궁을 모신 정조의 행차가 출발하였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창경궁 영춘헌(迎春軒)에서 말을 탄 정조와 가교에 탄 혜경궁이 영춘문, 천오문, 만팔문, 보정문, 송지문(崇智門), 집례문(執禮門), 경화문(景化門), 동룡문(銅龍門), 건양문(建陽門), 숙장문(肅章門), 진선문(進善門)을 거쳐 창덕궁 돈화문(敦化門)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원행정례』에 기록된 노선을 따라 낙원동 돈녕부(敦寧府) 앞길을 지나 파자전 다리와 통운교를 건넜다. 종루(보신각) 앞길을 지나 대광통교와 소광통교를 건너 구리개 고개(銅峴, 현재 을지로 입구, 롯데백화점 맞은편)를 넘어 병문(屏門) 앞길로 해서 송현(松峴)과 수각교(水閣橋)를 지나 승례문으로 나왔다.

승례문을 나와 도저동(桃楮洞) 앞길을 지나가면 동쪽 편 남산 기슭에 있었던 남관왕묘(南關王廟)를 지나게 된다. 남관왕묘에는 2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숙종과 영조, 사도세자와 정조가 무안왕 관우를 찬양한 글을 두 개의 비석에 앞뒤로 새겨서 나란히 세운 것이다. 숙종과 영조, 사도세자와 정조까지 동일한 주제의 글을 썼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동묘와 남묘에 각각 비석을 세운 것은 숙종으로부터 정조까지 이어지는 혈통에 사



용양봉저정(국기유산청)

도세자가 들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사업이었다.

남관왕묘를 지난 정조의 행차는 청파교[용산구 갈월동에 있던 다리를 건너 석우石隅를 돌아 울원현栗園峴을 넘었다. 정조는 승례문부터 울원현까지 행차를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을 제지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업산羅業山 앞길로 들어선 행차는 만천蔓川을 건너 한강 노랑에 놓인 주교舟橋를 건너게 된다.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건너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으나 여러 척에 나누어 타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배를 이어 다리를 놓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었다.

정조의 행차는 신호에 따라 주교를 건너 용양봉저정龍驤鳳鸞亭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면서 점심 수라를 들었다. 이곳은 선조 때 우의정을 지낸 이양원李陽元 때부터 전주이씨 가문이 대대로 세거하였으며 이승묵李承默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정자였다. 정조는 1790년 12월 7일 이 집을 사들여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였으며, 1791년 원행 때 정자의 이름을 ‘망해정望海亭’이라 하였었다. 그런데 1793년 7월 망해정 남변南邊 행각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정면 6칸, 측면 2칸의 큰 건물로 증축한 후 ‘용양봉저정’으로 변경하였다.

용양봉저정에서 출발한 정조의 행차는 장안현과 장생현(長生峴)을 지나 시흥현 경내로 들어서 현재의 노량진동과 상도2동의 경계 지점의 고개를 넘어간다. 이곳을 기점으로 과천로와 시흥로가 나뉘는데 이곳에서부터 시흥로가 개설된 것이다. 시흥로로 들어선 혜경궁과 정조의 행차는 도화참발소 앞을 지나 반대방천교를 건넌 뒤 반대방 들판을 가로질러 마장천교에 다다른다. 곧이어 문성동(文星洞) 앞길을 지나게 되는데, 문성동에는 고려 태사(太師) 강감찬(姜邯贊)을 모신 서원이 있었다고 한다.

정조의 행차는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시흥행궁'에 도착하였다. 을묘년 원행에 앞서 1794년 4월 시흥관사의 내아(內衙)를 미리 수리해 두었는데, 새로 건축한 방사(房舍)에서 숙박한 정조는 조용하고 편안하다며 마음에 들어 하였다. 정조는 지방관의 노고가 크다며 시흥 현령 홍경후(洪景厚)를 삼품직(三品職)에 제수하고 수고한 관리들도 포상하게 하여 치하하였다.

시흥행궁에서 숙박한 혜경궁과 정조의 행차는 대박산 앞들을 지나 시흥로에서 가장 큰 난관인 안양천에 놓인 '안양교(安養橋)'를 건너게 된다.⁵ 안양교는 원래 나무로 만든 목교(木橋)였는데, 시흥로를 개설하면서 석교(石橋)로 조성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촉박한 시일과 비용 문제로 인해 제외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혜경궁을 모신 행차는 전례에 따라 목교를 설치하여 통과하였다. 정조는 환궁할 때 안양교 앞길에 이르러 잠시 휴식하면서 혜경궁에게 미음과 다반(茶盤)을 올리기도 하였다.⁶

만안교를 건넌 정조의 행차는 안양참(安養站)을 거쳐 사근참(沙斤站)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1760년 사도세자가 온양온천 행차 때 쉬어 간 곳인데, 1789년 10월 사도세자 재궁을 현릉원으로 운구할 때 창사(倉舍)를 세워 주정하던 곳이기도 하다. 을묘년 원행 때 정조는 이곳에 주정소를 설치하고 혜경궁과 함께 점심 수라를 들며 휴식을 취하였다.

휴식을 마친 정조의 행차는 행로에서 가장 큰 고개인 지지현(遲遲峴)을 넘어 수원 경내로 들어가게 된다. 지지현은 원래 사근현이었는데, 정조에 의해 지지현이 되었고, 을묘년 원행 뒤에 정조가 주필(駐蹕)한 곳에 축대가 만들어졌다. 정조는 축대에 돌을 쌓아 정비하게 하였고, 각종 문서에 이곳의 지명을 '지지현'으로 쓰게 하였다.

지지대를 넘어온 정조의 행차는 괴목정교(槐木亭橋)를 건너간다. 1789년 사도세자 운구행렬을 뒤따라오던 정조는 지지대와 괴목정교 사이에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주필지를 찾아보게 하였다. 주변을 살펴보다 3칸 남짓 되는 건물지를 발견한 정조는 넓은 터에 표석을 세우게 하였다. 사도세자의 흔적을 찾은 모습에서 정조가 수원 화산에 현릉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정조의 행차는 양쪽으로 노송(老松)이 늘어선 숲길



화성행궁(국가유산청)

을 지나며 낮은 구릉지대를 통과하여 대유평, 만석거, 영화역을 지나 수원 화성의 북쪽 대문인 장안문으로 들어선다. 장안문을 통과한 정조의 행차는 화성의 중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화성행궁으로 들어갔다. 1789년(정조 13) 수원부 관아 부근에 현릉원을 조성하게 되자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긴 신읍에 관아 건물이 건설되었고, 정조의 행차 때마다 숙소로 이용되었다. 을묘년 원행 때 혜경궁의 숙박을 위해 증축이 진행되었다.

당초 혜경궁을 모신 원행을 계획하면서 만든 일정표에는 화성행궁에서 숙박을 한 다음 날 현릉원에 행차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혜경궁이 이틀간의 여정(旅程)을 견디기 힘들어하여 도저히 현릉원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정조는 일정을 변경하여 하루를 화성행궁에서 휴식을 취한 뒤 현릉원으로 행차하였다. 정조와 혜경궁의 행차는 화성의 팔달문(八達門)을 통과하여 구봉(龜峰), 매교(梅橋)를 건너 수원천변 양쪽으로 늘어선 버드나무길을 따라 남행하게 된다. 수원공군비행장 정문이 위치한 부근을 하유천(下柳川)이라 하였는데, 하유천을 지나 황교(皇橋)를 건너고 다시 서호천과 합류하는 곳에 놓였던 대황교(大皇橋)를 건너야 한다. 정조는 작현제(鵲峴堤)를 지나 야트막한 유침현(道瞻峴)을 넘어 현릉원 동구(洞口)로 접어들어 현릉원 재실(齋室)로 들어갔다.

정조는 현릉원 재실에 ‘어진봉안각(御眞奉安閣)’을 마련해서 자신의 초상화를 걸어 두게 하였다. 사도세자에게 다하지 못한 혼정신성(昏定晨省)의 효도를 무덤의 체백(體魄)에게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혜경궁을 모신 정조의 행차가 윤2월 12일에 있었으니 진달래가 한껏 피었을 때였다. 정조는 혜경궁을 위해 봉분 주위에 휘장(揮帳)을 두르고 애모(哀慕)

의 정을 표하게 하였는데, 한참을 흐느끼는 혜경궁의 음성이 밖으로 새어 나와 배종한 원역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현릉원 참배를 마친 정조와 혜경궁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화성행궁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 성대한 진찬연이 베풀어졌다. 그런데 혜경궁의 탄신일인 6월 18일에도 의식 일부가 생략된 진찬연이 다시 거행되었다. 한 사람에게 회갑연을 두 번 베풀지는 않기 때문에 화성에서 올린 봉수당 진찬의 성격은 사도세자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볼 수도 있다. 즉, 을묘년 원행은 정조가 모친을 수원까지 모시고 와서 부모의 회갑진찬을 설행함으로써 사도세자와 혜경궁의 위상이 왕에 버금가는 지위라는 사실을 신료와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였던 것이다.

2. 만안교와 안양발사의 설치

시흥로를 개설한 경기감사 서용보는 안양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석교를 놓으려는 계획을 진행하다가 교체되었고, 후임으로 경기감사가 된 서유방徐有防이 1795년 7월에 만안교 공사를 착수하였다. 이때 총용사로 있던 서용보가 8월 7일에 “어가御駕가 지나가는 길로 시흥을 새로 정하고 난 뒤에 안양교安陽橋로 유입되는 수량水量이 많고 교량의 칸수가 넓어서 행행幸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공사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배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이 경기감사로 있었을 때 물력을 마련하여 석교를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을 보면, 서용보에 의해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이때 서용보는 석교가 곧 완공될 것이라고 하니 경기도에서 감동한 사람과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구별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해서 즉시 논상論賞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청하여 정조가 윤허하였다.

경기감사 서유방은 만안교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인 1795년 10월 4일 “석교의 홍예수문虹霓水門은 5칸으로, 길이가 100자이고 너비가 22자이고 높이가 15자이며, 좌우 선창船艙의 석축石築은 총 160자이다. 연보捐補와 감동監董을 한 사람은 가선대부嘉善大夫 김천보金天寶·장정張挺·김대연金大衍, 출신出身 김원섭金元燮이고, 간역看役한 사람은 영비營裨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서협수徐浹修, 영교營校인 절충장군 서의린徐毅麟이다.”라고 열거하여 보고하였다.⁸ 정조는 “시흥현의 만안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길이와 너비가 길고 넓어서 송계교松溪橋, 만세교萬歲橋와 나란히 일컬을 만하다고 한다. 공사를 감독한



만안교비



만안교(1970년대)



만안교(1998)



만안교(2024)

사람들에게 특별로 논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니,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인 가선대부 김천 보는 도내의 임기가 찬 첨사僉使 자리를 비워서 병조에서 차출하여 보내게 하고, 그 나머지 3인은 모두 오위장의 자리를 비워서 조용하며, 영비 1인은 상으로 자급을 올려주고, 영교 1인은 첨가를 작성해주라고 회유回諭하라.”고 지시하였다.

서유방은 만안교 옆에 ‘만안교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에서 “무릇 행행지에 하천이 있기 마련이고 하천마다 다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 다리는 나무로 놓았다가 왕의 행행이 지난 뒤에 바로 철거하였다.”면서 “이제 석교를 놓아 영구히 이용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채제공은 「안양교행安養橋行」이라는 시詩를 지어 만안교 공역을 찬탄讚歎하였다. 다섯 칸 수문을 가진 다리를 놓아 정조의 어로가 편안케 되었고, ‘만안교萬安橋’라는 좋은 이름을 내려받아 큰 글자로 비에 새기고 홍색으로 채웠다는 사실을 시로 표현하였다.⁹

그런데 만안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쳐 쌓게 된다. 서유방 후임으로 경기감사가 된 김문순金文淳은 1795년 12월 22일 공사가 끝난 지 두 달 만에 만안교에 문제가 생겼다는 장계를 올렸는데, 만안교의 제도와 모양이 협소하여 수문에 사토沙土가 딱 막혀서 심각한 상태이고 동쪽 판석까지 약간 무너져 내려서 개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즉 만안교에 설치한 5개 수문의 규모가 수량水量에 비해 작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문을 더 크게 고쳐 쌓아야 하는데, 해동解凍되기를 기다려 시작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조는 “안양교를 처음 설치할 때 나[정조]는 이미 견고하게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뒷받침이 깊지 못하고 물길이 순조롭지 않으며 둥근 형태의 몸체가 너무 높아 한갓 외면의 미관만을 화려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일을 할 때는 항상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힘을 다하였기 때문에 근본이 공고하여 일의 효과가 심원하였으니, 어찌 하나의 다리뿐이겠는가!”¹⁰라며 만안교의 공사계획과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후 1796년 6월 9일 정조는 경기감사 김문순에게 “안양교를 세우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 비록 전임 감사 때에 있었기는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다. 만약 제대로 감독하고 살피며 사전에 예기치 못한 우환을 생각하였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라며 질책한 일이 있다.¹¹ 정조의 질책을 보면 1796년 봄에 만안교를 수축하였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정황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6월에 큰비가 내려 안양천에 홍수가 나서 만안교가 무너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에서 음력 5월 25일, 26일 이틀간 9치 6푼(약 291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고,¹² 6월 5~7일 사이에 다시 4치(약 121mm)의 비가 한양 일대에 내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 한양과 가까운 관악산 일대에도 5월 25~26일에 많은 비가 내렸을 것이 분명하고, 주변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만안교에 쌓인 토사를 다 걷어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10일 뒤에 다시 많은 비가 내렸고, 그 수량을 견디지 못한 만안교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조는 김문순에게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은 데 이어 1795년에 교량을 세울 때 감독한 비장(裨將)에게 준 가자첨지(加資帖紙)를 회수하여 불사르게 하고, 그 비장을 시흥에서 가장 힘든 역(役)에 차정(差定)하여 속히 개수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만안교의 붕괴는 1796년 10월 화성성역의 ‘낙성연(落成宴)’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만안교를 다시 개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목교를 놓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화성성역의 마무리 공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인력 수급에 여유가 없었던 듯 미루어졌던 것 같다. 정조는 낙성연이 끝난 뒤 이면응(李冕膺)에게 “날이 추워지기 전에 안양교 공사를 끝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면응은 “다음 달 안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공사비용은 강원도에 더 분급한 환곡의 모조耗條를 가지고 떼어 썼는데 부족할 듯 싶습니다.”라고 하였다.¹⁴

이 대화로 볼 때 만안교의 개축은 화성성역이 끝난 후 공사에 속도가 붙어 1796년 11월 중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축한 만안교는 홍예 수문 7개를 나란히 연결하고 상판에 장대석을 촘촘하게 이어서 바닥을 만들었다. 석난간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간격으로 흙이 패여 있어 실용적인 형태이다. 정조는 1797년 1월 29일 현릉원에 행차하는 길에 새로 완성된 만안교에 이르러 다리 건설 책임자인 신형(申澗·서의린·서협수)들에게 새로 만든 다리의 모양이 잘된 것 같으며 치하하고 시상하였다.¹⁵

공사 실무를 담당한 신형은 평안도 안주(安州)에서 차출된 장교로 화성성역에 참여하여 장안문 주변 성 700보와 동장대 건립을 감독한 공으로 오위장, 실직 동지(同知)가 되었는데, 아직 변장을 지내지 못한 상태였다. 정조는 화성에서 환궁하기 전에 신형을 평안도 지역의 첨사로 제수하였다. 서의린과 서협수의 경우 성역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속전(贖錢)에 처해졌던 것을 사면하여 주고, 만안교 초축 때 받았다가 환수되어 불살랐던 첨가(帖加)를 다시 지급하게 하였다.

만안교를 건넌 정조의 행차는 안양참에서 멈춰 휴식을 취하게 된다. 경영(京營)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75리로 계산되었는데, 15~20리 간격으로 5개의 발참(撥站)을 설치하여 정조의 현릉원 행차 기간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천지도 내 행궁터(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조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파발참마다 발장撥將 1인과 병졸 셋을 두었고, 각각 2필의 마필馬匹을 배치해 두었다.¹⁶

안양참은 곧 발참이 설치된 곳으로 규모가 작은 관사가 있었던 듯한데, 경기감사 김문순이 안양참 주정소에 병풍屏風 및 포진鋪陳 등을 사근참의 예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올렸다.¹⁷ 이에 정조는 병풍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옮겨가며 쓰고, 나머지만 배설하라고 지시한 것을 통해 발참을 주정소로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상적인 왕의 의장儀仗 기물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⁸

정조는 안양참에서 휴식하며 각신과 승지와 사관과 병조판서 등에게 “안양참에 나무 심는 일을 하교하였는데, 지금 심은 것을 보니 엉성하다. 말이 되는가? 올봄부터 시작하여 각별히 나무를 심으라는 뜻으로 발장에게 특별히 신칙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¹⁹

당시 안양참 주변에는 10호가 살고 있었다가 을묘년 원행 이후에 점차 늘어나서 30여 호의 마을로 성장하였다. 1800년 정조의 마지막 원행 때에도 안양참 축대처로 밭장을 불러 주변의 식목과 파식播植 상태가 불량하니 신경을 쓰라고 지적하였다.

안양참 축대를 지난 뒤에 동막이를 쌓아 안양천 물길을 막은 곳에 이르렀다. 동막이를 설치한 뒤에 백성의 농업 이익이 커지자 11호였던 민호民戶가 31호가 되었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민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듯 원행로 주변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정조는 연로의 교량을 행차 시에 조성하였다가 곧 철거하지 말고 손상될 때마다 보수하는 것이 좋다는 화성유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장마 때와 같은 큰물이 없으면 다리를 철거하지 않는 것도 백성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정조가 현릉원 행차를 위해 시흥로를 개설하고 하천에 주교와 석교, 목교를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이익으로 되돌아갔다.

정조는 1798년 원행에서 청천평 대를 쌓은 곳에서 근처 백성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을묘년에 혜경궁의 가마가 잠시 머물렀던 곳인데 주민들이 대를 쌓았으니 민정이 볼 만하다며 약과와 술을 나눠주며 치하하였다. 정조는 원행로 주정소마다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자 그 일대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마을의 형성은 주정소와 함께 앞으로 계속될 행차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시흥로는 조선에서 가장 변화한 노선이 되었으며, 최신의 지식을 도입하여 연구한 결과를 시험하는 무대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註

- 1 정해득, 「정조의 영유원 현릉원 원행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75, 2015.
- 2 『영유원천봉도감의궤永祐園邊奉都監儀軌』 권1, 일기 기유 10월 5일. “同日卯時 大輦登浮橋 浮橋船隻合爲七十六隻 廣可二十五步 長可三百二十把 約半刻許 大輦徒涉 到越邊紅箭門…”
- 3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호형출판, 1998; 조병로, 『조선 후기 현릉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 2, 수원문화원, 2005.
- 4 정해득, 「1795년 을묘년 원행의 성격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5 『여지도서』 「금천현도」에는 ‘安養里’와 ‘安養橋’가 표기되어 있다.
- 6 『관암전서』 책13, 기, 화성행행도기華城幸行圖記. “出還宮圖…至安養橋前路 奉慈駕少駐 進米飲茶盤…”
- 7 『일성록』 정조 19년 8월 7일(을유).
- 8 『일성록』 정조 19년 10월 4일(신사).
- 9 『번암집』 권18, 시, 희년록 중, 안양교행.
- 10 『홍재전서』 권169, 일득록9, 정사4.
- 11 『일성록』 정조 20년 6월 9일(계미).
- 12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5월 25일(기사). “自申時至人定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三寸一分.” / 26일 경오. “自開東至人定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一寸.”
- 13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5일(기묘). “自辰時至午時 測雨器水深五分.” / 6일 경진. “自五更至七日開東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九分.” / 7일 신사. “夜自五更至初七日開東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九分 自開東至酉時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二寸六分.” 창덕궁 측우기 기준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14 『일성록』 정조 20년 10월 24일(병신).
- 15 『일성록』 정조 21년 1월 29일(경오).
- 16 『일성록』 정조 19년 4월 16일(병신).
- 17 『일성록』 정조 19년 12월 28일(을사).
- 18 『일성록』 정조 20년 2월 4일(경진).
- 19 『일성록』 정조 21년 2월 1일(임신).

4장

기독교의 전래와 확산



이은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안양대학교 명예교수)



안양에 기독교가 전래된 과정을 보면 19세기 전반기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수리산 공소를 형성하였다. 이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를 경작했기 때문에 담배촌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안양에 개신교가 전래된 것은 국내에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한 이후이다. 장로교에서 1884년 9월에 알렌이 입국하였고 감리교에서 1885년 5~6월에 스크랜턴과 아펜젤러가 입국하였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지역분할정책을 써서 전도를 하였는데, 인천과 시흥 지역은 감리교가 전도를 하였고, 과천지역은 장로교가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안양의 기독교 전래와 확산은 수리산 공소를 통한 천주교 전래와 확산을 먼저 서술하고 개신교 전래와 확산은 덕고개에서의 감리교 전래와 확산과 과천면 방면에서의 장로교 전래와 확산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천주교 전래와 확산

1) 수리산 교우촌의 형성

1801년 일어난 신유박해를 피해 수리산에 들어온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면서부터 천주교가 안양에 전래되었다. 신유박해로 주문모 신부와 이승훈·정약종 등 대부분의 천주교 지도자들이 순교하였다. 남은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충청도의 천주교의 거점이었던 내포를 비롯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안전한 다른 산골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천주교 신자들이 산골지역으로 숨어들어가서 '산골 교우촌'이란 천주교 신앙에 맞추어 사는 촌락을 형성했다. 이들은 경기도·충청도·강원도 등의 산골지역으로 피신하였다. 이들은 관리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골에 들어가 화전을 하며 용기쟁이나 솟쟁이가



옛 수리산 성지(안양중앙성당 제공)



수리산 담배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 산골에서 거처를 찾던 천주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안양의 수리산에 들어와 교우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언제쯤 수리산에 천주교인들이 들어왔을까? 현재 모방 신부의 기록으로 보면 1830년대에 수리산에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문모 신부 순교 후에 1836년 1월에 조선에 처음 입국한 모방 신부는 입국 직후 당시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현황을 4월 4일 편지에 기록하여 프랑스에 보고했다. 이 서신에는 경기도·충청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의 31개 지역 이상에 천주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수리산(Sourizan)에 50~60명의 구신자들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다.¹ 이 서신에는 신유박해 이후에 재편된 당시의 전국 신자 분포 지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서신에 따르면 수리산에 50~60명이 모여 사는 교우촌이 구신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에 양근(현재 양평군), 서쪽에 부천, 남쪽에 수원, 굴업(용인), 양지, 죽산, 북쪽의 고양 등 동서남북 각지에 교우촌이 형성되었다.² 특히 용인과 수원 등 남부지역이나 서울 인근지역에 교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것은 이주가 활발했던 내포지역에서 신자들이 북상해올 때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 경기 남부였고, 재건된 천주교회의 중심지인 서울과 가까우므로 이 지역들에 교우촌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³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1820~30년대에는 충청도 내포에서 이주해온 신자들이 경기지역 토착 신자들과 함께 서울 인근 산골에 교우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렇게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 천주교인들의 교우촌이 생겨나는 가운데 1830년대 수리산 성소가 생겨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재건된 천주교회의 중심지인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요인이 있었다. 서울의 신자들과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수리산이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비신자들과 떨어진 산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신앙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1830년대에 이름이 확인되는 서울 남쪽 인근지역 교우촌 중 수리산(담배촌), 굴암, 배마실, 은이, 갯등이는 산골짜기에 새로 자리 잡은 신앙공동체였다.⁵ 이 무렵 선교사들이 이러한 지역들을 방문하여 공소를 세웠다.⁶ 이들 산골 교우촌들은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는 ‘박해시기’는 물론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고립된 촌락을 이루면서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발전과 신앙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수리산 교우촌 역시 이러한 서울 인근 산골 교우촌 중 하나로서 수리산 산자락에 터전을 마련하고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인근지역에 신앙을 전파하는 신앙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수리산 교우촌이 자리 잡았던 위치는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후두미동(뒤뜸이) 담배촌이다. 후두미동은 조선시대에 과천현 하서면에 속한 마을로, 1789년에 나온 『호구총수』부터 문헌자료에서 확인된다.⁷ 따라서 후두미동은 이미 18세기 후반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1830년대 어느 시점에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교우촌을 세웠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안양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삼성산과 관악산의 남쪽 지역, 모락산 서쪽 지역, 그리고 수리산 북쪽 지역의 완만한 경사면에 당시 대부분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자료인 『호구총수』에 나오는 동리들 역시 현재 동안구의 관양동·비산동·호계동, 만안구의 석수동·안양동 등 관악산·삼성산·모락산·수리산 밑의 경사면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다.⁸

이렇게 기존의 마을들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새로 이주하여 비신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이 후두미동의 담배촌이었다. 이 지역은 병목안 입구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수리산 교우촌은 훨씬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병목안을 따라 하천이 흐르고 있어 식수를 해결하고 동시에 작물을 재배하는 데 유리하였

다. 후두미동이 속한 하서면은 남면(현재 군포시)과 함께 과천현에서도 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서 시흥현, 안산군, 광주부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와 함께 수리산이 군포와 용인과 수원, 인천과 부평 등지로 연결되어 피신하기에도 유리하였다. 이러한 후두미동의 입지조건에 따라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들어 늦어도 1830년대 중반에는 교우촌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수리산 교우촌의 담배촌 형성

당시 대부분의 교우촌 신자들의 경제생활은 매우 열악하였다. 관원들에게 쫓기고 비신자들의 밀고 위협에 시달리며 주로 산속으로 숨어들어 가장 손쉽게 화전을 일구어 밭농사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주민들의 생필품을 만들어 팔았다. 산에서 가장 생산하기 쉬우면서도 쉽게 판매할 수 있던 생필품이 숯이나 옹기였기 때문에 교우촌들은 그러한 물품들을 만드는 촌락인 경우가 많았다. 수리산 교우촌 근처에 있었던 화성의 갖등이 교우촌은 옹기촌이었다. 그와 함께 산골 교우촌에서 많이 재배된 것이 담배였다. 임진왜란 직후에 담배잎이 전해졌고, 17세기 전반기에 담배의 공급과 수요 모두 엄청나게 증가하였다.⁹ 18세기에 담배는 상품화되어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산되었고, 각 지역마다 자신의 지역에 맞는 담배 재배법을 개발하기에 열을 올렸다.¹⁰ 담배의 상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천주교의 교우촌 중에서 담배를 재배하는 곳이 많아졌고, 그 결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¹¹

이러한 가운데 비신자들의 마을이 들어선 ‘병목안’ 입구에서 신자들이 좀 더 산속 깊이 들어가 산등성이 비탈을 개간하여 ‘담배’를 많이 심어서 ‘담배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¹² 최경환 공소 소장도 다른 지역에서 담배를 경작했던 경험을 살려 수리산에서 담배를 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이들은 담배를 경작하여 수입을 얻으면 공소에서 필요한 공동경비로 사용했다.¹⁴ 수리산 공소는 화전을 일구어 담배를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며, 그래서 수리산 교우촌을 담배촌이라 불렀다.

3) 수리산 성소의 설정과 신앙 활동

수리산 교우촌은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이 입국하면서 모방, 앵베르, 베르뇌 신부가 방문한 중요한 장소였다.¹⁵ 신부들이 교우촌을 방문하여 그곳에 예배장소를 마련하고 공

동체의 지도자인 회장을 세운 곳을 공소라고 부른다. 수리산은 1836년 이후 파리외방 전교회 신부들이 입국하여 이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공소 설정이 이루어졌다. 모방 신부는 1836년에 입국하여 부활절 이후에 경기도와 충청도에 산재해 있는 10여 개의 교우촌을 방문했는데, 이때 수리산 교우촌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수리산 공소의 초대 회장은 이 안드레아이며, 1839년에는 최경환이 2대 공소 회장으로 임명되었다.¹⁶

4) 2대 공소회장 최경환 성인의 활동



최경환 프란치스코

현재 기록으로 수리산 공소의 활동이 확인되는 사람이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인 최경환 성인이다. 최경환은 청양에서 살다가 1827년경에 서울로 이주하였다. 서울로 이주할 때 최경환은 신앙생활을 위해 재산을 포기하고자 했으나, 가족들이 반대하여 실천하지 못했다. 그는 신부들을 만나 교회 소식을 잘 듣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3년 정도 생활한 후에 천주교 신자인 것이 밝혀지자 체포의 위험을 피해 강원도 김성에서 6년 동안 생활하였다. 그는 1836년 2월에 부평에 왔는데, 여기서 모방 신부를 만나게 되고, 첫째 아들인 최양업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최양업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난 뒤인 1838년 10월경에 외부인을 피하여 다시 수리산으로 이주하였다.¹⁷ 이때 인천에서 박해가 발생하여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고 피

신하자 최경환도 수리산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최경환은 수리산 공소에 도착하여 사목 방문한 모방 신부에 의해 1839년에 공소 회

장으로 선출되었다. 자료로 확인되는 최경환 수리산 공소 회장의 활약상을 통해 1830년대 이후 서울 인근 산골 교우촌(공소)과 공소 회장의 실상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공소 회장은 신부가 방문할 때에 공소(강당)와 신부의 숙소 및 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성사 준비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맡아서 처리해야 했다. 신부가 없을 때에는 주일과 축일에 신자들을 모아 공소 예절을 거행해야 하고 평상시에도 교우촌 내의 신자단체를 운영하고 신자들에 관한 크고 작은 일을 교회 규정에 맞게 해나가야 했다. 또한 비신자들에게 전교하는 사명까지 회장에게 주어져 있었다.¹⁹

그는 이전에도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신앙심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교리를 잘 가르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하여 공소 회장이 된 후에 수리산 공소를 잘 이끌었으며, 주변지역인 용인과 서울의 공소들과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²⁰ 수리산 공소는 최경환 회장과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좋은 영향력을 미쳐 규모가 확장되어 갔다. 1839년 7월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교우들을 체포할 때 교우촌은 3개로 늘어나 있었고, 공소의 회원은 60~100명 정도가 되었다.²¹ 또한 당시에 군포내라고 불렸던 안양천 지역에도 신자들이 있었다.²²

5) 수리산 공소의 기해박해

모방 신부는 1839년 9월에 홍주 피신지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 주임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리산 박해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한다.²³ 첫째는 1838년 12월 말, ‘서울 변두리 마을’이 포교들의 습격을 받아 그곳 신자들이 체포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웃에 살던 비신자의 도움으로 돈을 주고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압수된 교회서적은 불태워졌다. 여기서 모방 신부는 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앵베르 주교는 습격을 받은 마을이 수리산에 있었다고 기록하여 수리산 공소라는 것을 밝혀준다.²⁴

모방 신부는 1839년 7월 31일 아침 7시쯤에 수리산에 있는 3개 교우촌 중 두 곳에 포졸들의 습격을 받았고, 마카오 신학생[최양업]의 부모[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성례 마리아]와 신자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기록했다.²⁵ 그가 수리산에서 체포될 때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수리산의 교우들 60명 중 약 40명이 포졸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성인과 함께 50리 길을 걸어 서울 포도청으로 함께 동행하여 끌려갔다. 최경환은 옥중에서 순교하였고, 부인은 12월에 서소문에서 9명의 신자와 함께 참수당했으며, 같이 잡혀간 자녀 스테파노(3살)도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최경환과 함께 39세의 이 에메렌시아



수리산 성지



옛 수리산 공소(안양중앙성당 제공)



최경환 성인 순교자 현양대회

도 감옥에서 순교하였다.²⁶ 다른 사람들은 배교를 하여 풀려났고 공소는 어려움 속에서 유지되었다. 1866년부터 시작된 병인박해 때에는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였다가 1884년 이후에 다시 회복되었다. 이 지역은 일제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하면서 담배 농사가 위축되면서 공소의 규모도 축소되었다. 그 결과 1937년에 안양시내의 신자들의 숫자가 수리산 공소보다 많아지게 되었으며 6657평의 교회 부지를 매입하였고, 1954년 9월에 초대 주임 신부인 구천우 신부가 24평의 목조 건물 성당을 건축하였다.

이곳은 지금 최경환 공소 회장의 순교를 기념하는 수리산 성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경환이 순교한 후에 그의 시신을 수리산으로 옮겨 묘지를 만들었으나 그 후에 관리가 소홀하여 위치를 알 수 없었는데, 1928년에 그의 막내며느리 송 아가타에 의해 확인되었다.

2. 개신교의 전래와 확산

안양에 개신교가 전래된 것은 1895년이였다. 감리교가 먼저 1895년에 전래되어 덕고개의 허대진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1897년에 덕고개교회가 세워졌다. 한해 전인 1896년에는 범고개교회가, 1901년에는 삼막골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들은 얼마동안 있다가 없어졌다. 장로교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 선교사가 안양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감리교회이던 덕고개교회는 1909년에 장로교의 삼성리교회로 바뀌었고, 1910년에 부림리교회가 세워졌다. 삼성리교회는 군포장교회를 거쳐 1930년에 안양리교회를 세웠다. 그 뒤를 이어 안양감리교회, 안양성결교회가 1930년대 말에 세워졌다. 이러한 안양지역의 개신교 전래와 확산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감리교의 전래와 확산

(1) 덕고개교회

개신교가 현재 행정구역상 안양지역에 최초로 전래된 곳은 당시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 덕현에 설립된 덕고개교회였다. 이 교회의 위치는 현재 안양시 호계1동이다. 안양에서 1895년에 첫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은 덕고개에 사는 허대진이었다. 1900년 4월 4일자 『대한그리스도인회보』에 실린 ‘과천편지’에 따르면 덕고개 사람 허대진이 1895년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가 바로 안양에 개신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점이 되는 것이다.²⁷ 그는 1896년에 입교를 하였고 천국복락을 위하여 소작하던 남의 논 수십 석을 버렸다. 이 기사가 감리교 잡지에 게재된 것을 볼 때, 감리교 선교사들이 전도했다. 1897년 3월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덕고개에 교회를 설립하였다.²⁸ 이때 교회가 설립된 안양·수원·용인의 네 지역에서 “일흠 붓치고 공부하는 사람이 남자가 근 이백 명 되고 녀인이 오십칠 명”²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한 교회에 평균 남자 50명, 여자 16명이나 된다. 이 공부하는 모습이 당시 교회에서 열었던 주간학교의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 한글과 산수 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는데, 이는 당시로서 대단한 열기라 볼 수 있다. 안양지역에서 처음으로 덕고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과천과 군포 사이 공로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했고, 또 인덕원, 고천, 당말, 금정 및 호계동의 지리적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5일장인 군포장이 서서 물자와 인마의 왕래가 빈번했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설립된 지 2달 후에 33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감독이 수원에서 전도하고 돌아오다 덕고개교회에서 저녁에 쉬는데, 교우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를 구경하러 오자 시장 네거리에 서서 성경으로 권면하였다. 이튿날 서울로 출발할 때 100여 명이 나와 작별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³⁰ 이때 감리교 선교사가 서울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과천·수원·용인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들이 세워졌다.

덕교회교회가 세워진 후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경기 남부지역을 순회 전도할 때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전도활동을 하였다. 메리 스크랜턴(Mary Scranton)이 1898년 여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회의 순회교육반을 창설하여 장지내, 덕고개, 여주, 이천, 광주 지역을 다니며 성경을 가르쳤다. 1899년에 스크랜턴과 스웨어러 선교사와 한국인 문경호 권사가 함께 참여하여 다른 지역과 함께 덕고개에서도 순회전도를 하였는데 교인은 60명이었다.³¹ 1901년 5월 덕고개교회의 신도수는 입교인 23명, 학습인 43명을 합쳐 도합 66명이었다.³² 1902년에 이 교회의 지도자는 권사인 박학신이였다.³³

덕고개교회는 사료상의 증거로 볼 때 1901년부터 1904년까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거부감을 갖는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예배당을 완성하지 못해서 개인집에서 예배를 보고 있으며,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마땅한 공간이 없어 추운 겨울에도 반밖에 실내에서 예배를 볼 수가 없었다.³⁴ 교회 건축에 대한 핍박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리들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 1901년에 교회당을 지었는데, 강상기 과천 군수가 주민들에게 교회당을 헐어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교인들의 인애함이 자신에게 미치므로 자신들은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상관없다 하였다. 그렇지만 군수는 교인 3명을 수감했다가 재판도 없이 5~6일 후에 방면하였고, 또한 관찰사에게 2명을 무고(誣告)하여 수감했는데, 관찰사가 그 군수의 허망함을 알고 풀어주라 훈시하였다.³⁵

1902년 5월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회당을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 교회당을 가을까지를 완성하기를 기대했다.³⁶ 1902년 10월에 시흥계삭회가 덕고개교회에서 열려 이 교회 건축을 위해 무지내교회와 서울에서 연보하기로 하였다.³⁷ 덕고개교회는 1904년 2월 선교 연회 때에 최근에 건축되었지만 비를 맞아 건물이 뒤틀려 있었다고 보고되었다.³⁸ 1905년 6월에 덕고개교회는 정지 상태였으며,³⁹ 1906년에 이르러 새로운 건물을 준공했는데, 옛 건물의 자재를 사용하였다.⁴⁰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1904년에 1차 건물을 완공했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1906년에 재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덕고개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성인들에게 복음전파를 하면서 동시에 근대교육에도 힘을 써서 이미 1897년에도 남녀 매일학교가 있었다. 1902년에는 주일학교에서 힘을 써서 주일학교에 4명의 선생과 26명의 학생이 있었고, 남녀 매일학교가 있어 남학생은

8~10명이고 또한 여자는 약 7명이 출석하고 있었다.⁴¹ 1905년에는 교회가 어려워져 정지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매일학교에 7~8명의 등록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었다.⁴² 1906년 6월에 무지내와 덕고개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으며 남녀학교가 있어 교육을 하고 있었다.⁴³ 무지내와 덕고개에서 시행한 군사훈련은 을사늑약 이후 전국 도처에서 일어난 국권회복운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08년에 무지내에는 남녀학교가 있는 반면에 덕고개에는 여학교만 있었다.⁴⁴ 이와같이 덕고개교회는 설립된 후에 교회를 통한 근대교육을 실시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1897년부터 남녀 매일학교가 있었지만, 1908년에는 여학교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다.

(2) 범고개교회

범고개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달성교회당(현 상동교회)을 담임하고 있던 스크랜턴 선교사였으며, 교회를 세운 시기는 1897년을 기준으로 “년전에 시목사가 가서 주의 도오심으로 교회를 설립하고”라고 하였으므로 1896년이다. 스크랜턴은 교회를 세운 후에 백동현과 이은승을 번갈아 보내 남녀를 교훈하고 미국 부인 해리와 조선의 이 부인을 보내 여인들을 교훈하였다. 이들의 지속적인 양육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범고개교회는 1896년 11월에 9칸짜리 신축한 집을 사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달성교회당 정태인이 이 교회당 설립을 주선하였으며 50명이 모여 예배하였다.⁴⁵ 이 교회당을 구입하고 나서 다음 해 음력 1~2월 사이에 상동교회의 스크랜턴 선교사가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함께 수원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흥 범고개에서 8명에게 세례를 주었다.⁴⁶ 시흥 범고개는 지금의 안양 박달동이다.

(3) 삼막골교회와 하영홍의 항일운동

삼막골교회는 1900년 12월부터 예수를 믿은 이곳 주민인 하영홍이 자신의 토지를 팔아 186원을 현금하여 6간의 교회당을 1901년 8월에 지으면서 세워졌다. 교회 건립에 7집이 함께 하였다. 헌당예배에 스웨어러(Wilbur C. Swearer) 선교사와 존스(Jones) 장로사가 참석하여 예식을 진행했으며, 무지내교회 김동현 권사가 개회기도를 하였다. 당시 하영홍이 속장이었고 리지홍과 하진정이 유사였다.⁴⁷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하영홍은 교회 헌당예배에서 개회기도를 한 무지내교회의 김동현을 통해 전도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1901년 5월 보고에 따르면 학습인이 24명이었고 4월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 하영홍은 1901년 1월에 서울의 지도자 훈련교육반에서 훈련을 받고 권사가 되었던 전망 있는 지도자였다. 이 교회는 무지내교회에서 북쪽으로 7마일 떨어져 있었다.⁴⁹ 1902년 5월 스웨어리의 보고에 따르면 입교인 4인 학습인은 25명 총 29명이었고 5명이 세례를 받았다. 주일학교에는 선생이 5명, 학생이 35명이 있었으며, 여성 교육을 위한 매일학교에는 5명의 여학생이 있었다. 하영홍은 30~50리씩 여행을 하여 6개의 다른 부락에서 전도를 시작하였다.⁵⁰ 1902년 봄에 시흥 무지내교회에서 계삭회가 열렸는데, 무지내교회, 덕고개교회, 삼막골교회가 참여하였다.⁵¹ 이 시기에 범고개교회는 이미 없어졌고, 이 세 교회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채 감리교 선교사들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삼막골은 현재의 석수동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삼막골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1905년에 이르러 하영홍이 일본인과의 부역 문제로 재판에서 10년 형을 받아 교회 지도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하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던 이곳의 지도급 가정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교회는 거의 해산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독실한 신자 몇 사람들이 남아 예배드리는 상황이었다.⁵²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한국인들을 병참기지와 철도건설에 필요한 노동자들로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일본군에 협조하던 부패한 관리들이 인부들의 노임마저 착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격분한 농민 수천 명이 시흥관아로 몰려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군수와 그의 아들 및 일본인 2명이 살해되는 제2차 시흥농민봉기운동이 일어났다. 이 농민봉기운동을 주도했던 중심인물 중의 한 명이 바로 삼막골교회의 지도자였던 하영홍이었다. 하영홍은 이 봉기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15년 형을 받았다가 10년으로 감형되었다.⁵³ 교회 지도자인 하영홍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 일제의 조선침략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봉기하였다가 수감당했고, 그 여파로 하씨 집안의 지도적인 가정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교회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장로교회의 전파와 확산

(1) 삼성리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곳곳한 모습으로 뿌리를 내려가던 감리교의 덕고개교회는 1909년에 맺어진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의 선교지 분할 정책의 결과 안양이 장로교 선교지



1944년 안양리교회 주일학교(안양중앙교회)

역이 되면서 1909년에 장로교로 바뀌었다. 삼성교회 당회록에 따르면 삼성교회를 세운 곽내옥, 곽규석, 조덕구 3인이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쓰 마사야스[乘松雅休]한테 성경을 사서 보다가 1907년에 덕현교당에 출석하게 되었다. 1908년에 감리교 선교사 버딕(George M. Burdick)이 이들을 학습교인으로 세웠다.⁵⁴ 그런데 1909년에 덕고개에 출석했던 3인에게 장로교의 피터스(A. Peters) 선교사가 세례를 주었으며 그 결과 덕고개교회도 장로교에 속하게 되었으며,⁵⁵ 같은 해에 삼성리 장로교회는 8간의 예배당을 지었다.⁵⁶ 이렇게 해서 1909년에 삼성리 장로교회가 생겨났다.

이 교회는 1910년에 위의 3인을 서리집사로 세웠고, 1915년 12월에 덕고개, 당말,⁵⁷ 삼성리 3곳의 사람들이 곽안련(郭安連, Charles A. Clark) 선교사와 상의하여 덕고개교회당을 삼성리로 이전하여 두 교회를 통합하였다.⁵⁸ 1925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삼성리교회 지교회로 군포장교회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영수는 이상오·정덕환 등이었고 군포역전 군포의원 집을 대여하여 첫 예배를 드렸다.⁵⁹ 김현봉 조사가 시무하다가 1929년 12월에 사임하고 양동의 전도사가 사역자로 부임하였다. 당시 양동의 전도사는 경기노회 서편 시찰 구역에 속한 일곱 교회의 순회전도사였다. 그 일곱 교회인 시흥 삼성리교회, 군

포장교회, 부림리교회, 학현리교회, 하안리교회, 광명리교회, 시흥리교회를 담당하면서 1930년에 새롭게 설립된 안양리교회까지 담당하게 되었다.⁶⁰ 이렇게 시작된 안양리교회는 1931년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낙성하였다.⁶¹ 이 안양리교회가 바로 오늘날 안양제일교회와 안양중앙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2) 부림리교회

장로교 소속의 피터스 선교사에 의해 1909년에 삼성리 장로교회가 세워졌다. 그가 안양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1910년에 맨 먼저 부림리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는 현재의 동은교회로 1910년 4월에 부림리에서 문학선, 부인 음진실, 문성범 등이 믿기로 작정한 후 문학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세워졌다.⁶² 1912년에 콕안런(Charles A. Clark) 선교사와 박태선 조사에게서 문학선, 음진실, 문성범 등이 최초로 학습을 받았고 1913년에 교회는 문경삼·차군선·문성범 3인을 서리 집사로 세웠다.⁶³ 1927년 1월에 김현봉 전도사가 한국인 최초의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였고, 1930년 6월에는 차재명 목사와 양동의 전도사가 함께 부임하였다.



피터스 선교사

3) 안양감리교회

안양감리교회는 1939년 9월에 설립되었다. 이 교회 설립의 주역들은 지금의 안산지역에서 이사온 감리교인들이었다. 시흥군 꽃우물교회(현 안산 화정교회) 교인이었던 이순희 목사가 1937년에 안양으로 이사왔는데 감리교회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1939년 9월에 꽃우물교회 이종권 목사 권유로 수원군 천곡감리교회(현 안산 샘골교회)에 출석하다 안양으로 이사를 와서 잡화상과 쌀장사를 하던 안양시장의 주병덕이 그의 점포 사랑방에 새 기도처를 마련하여 이순희 속장 가정 및 감리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를 시작했으며, 이종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였다.⁶⁴ 여기서 안양감리교회가 출발하였다. 교세가 늘어감에 따라 이늘언의 집으로 기도처를 옮겼고 이후 안양역 앞 2층 건물에 확장 이전하여



1940년대 부림리교회(동은교회)



안양성결교회(1977년)

최초로 안양감리교회 간판을 걸었다. 안양감리교회는 정구석의 500원 헌금과 이눌녀의 토지 기증과 교인들의 헌신으로 1941년 10월에 교회당을 건축하였으며 50~60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었다.⁶⁵ 1941년에는 박기동, 김영일 장로가 이임하여 왔고 1942년에는 감리교 신학교 재학생인 박설봉 전도사가 부임하여 1943년까지 시무하였다.

4) 안양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안양교회는 1939년 8월 5일 한보순 목사가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1939년 10월에 6명이 이성계 성도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그 이후에 점차 성장하였다. 일제는 1943년 5월 24일 성결교단 교역자들을 그들의 신사 참배 항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결교회의 가르침이 일제의 국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두 검거하였다. 1943년 12월 29일에는 일제가 성결교회를 강제 해산하였고 그 여파로 안양성결교회도 문을 닫고 혈려 신자들은 흩어지고 말았다.⁶⁶ 1946년 8월 안양장로교회에서 이성봉 목사를 초빙하여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용준 집사가 성결교회 재건을 결심하게 되었다.⁶⁷ 1947년 10월 26일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653번지 정사영 집에서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안양성결교회가 재건되었다.⁶⁸

註

- 1 이석원, 「수리산 교우촌(공소)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의의 - 서울 인근의 '산골 교우촌'의 한 유형으로」, 『교회사학』 6, 수원교회사연구회, 2009, 49쪽.
- 2 이석원, 「모방 신부 서한에서 확인되는 조선 지명 기록」, 『교회사학』 23, 수원교회사연구회, 2023, 284쪽.
- 3 이석원, 「수리산 교우촌(공소)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의의 - 서울 인근의 '산골 교우촌'의 한 유형으로」, 50쪽.
- 4 방상근, 「수리산 공소와 최양업 신부」, 『한국사회와 천주교』, 김진소 외, 흐름, 2007, 116~117쪽.
- 5 이석원, 「수리산 교우촌(공소)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의의 - 서울 인근의 '산골 교우촌'의 한 유형으로」, 51쪽.
- 6 차기진, 「박해기 수원지역에서 활동한 성직자와 그 활동무대」, 『교회사학』 2, 수원교회사연구회, 2005, 135쪽.
- 7 이석원, 「수리산 교우촌(공소)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의의 - 서울 인근의 '산골 교우촌'의 한 유형으로」, 52쪽.
- 8 이석원, 위의 논문, 54쪽.
- 9 신경미, 「조선 후기 담배의 전래와 수용 양상 - 사회·문화적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41쪽.
- 10 신경미, 위의 논문, 216쪽.
- 11 다블뤼 신부의 1846년 10월 26일자 서한에는 산골 교우촌 신사 대부분이 담배 농사를 짓는 바람에 생산량이 너무 많아 담배 가격이 폭락해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얻을 수 있었다고 나온다.
- 12 이석원, 「수리산 교우촌(공소)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의의」, 56쪽.
- 13 최경환이 수리산에 오기 전에 거주했던 강원도 김성(金城)은 19세기 이후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담배산지로 유명했다. 최경환이 수리산을 거주지로 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성 교우촌에서 담배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었거나 담배 농사를 짓는 교우촌과 관련된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14 수리산 교우촌의 경우는 안산장, 군포장, 안양장이 있어 쉽게 담배를 내다 팔 수 있었다.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안양시, 1992, 695쪽.
- 15 차기진, 「박해기 수원지역에서 활동한 성직자와 그 활동무대」, 141쪽; 수원교회사연구회, 「최경환 성인과 수리산 성지」, 『상교우서』, 수원교회사연구회, 2009, 36쪽.
- 16 천주교 수원교구 장내동교회, 『천주교 장내동 교회사』, 크리스찬출판사, 1989, 56쪽.

- 17 최경환의 아들인 최 베드로는 자신이 정해년생(1827)으로 1886년 증언 당시 60세이며, 자기 나이 12세에 수리산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최경환이 수리산으로 이주한 해는 1838년도로 추정된다. 이석원, 「수리산 교우촌(공소)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의의 - 서울 인근의 '산골 교우촌'의 한 유형으로」, 58~59쪽.
- 18 김수태, 「최경환 성인의 천주 신앙과 순교」, 『교회사학』 6, 수원교회사연구소, 2009, 19쪽.
- 19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137~148쪽.
- 20 이석원, 「수리산 교우촌(공소)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의의 - 서울 인근의 '산골 교우촌'의 한 유형으로」, 59쪽.
- 21 이석원, 위의 논문, 61쪽.
- 22 이석원, 위의 논문, 62쪽.
- 23 이석원, 「모방 신부 서한에서 확인되는 조선 지명 기록」, 279~280쪽 298쪽.
- 24 이석원, 위의 논문, 298쪽.
- 25 이석원, 위의 논문, 302쪽.
- 26 김정숙, 「수리산 순교자 이성례와 이 에메렌시아의 생애와 신앙생활」, 『교회사학』 6, 수원교회사연구소, 2009, 134쪽.
- 27 「과천편지」, 『대한그리스도인회보』, 감리교 선교부, 1900년 4월 4일, 1면.
- 28 「회중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감리교 선교부, 1897년 3월 24일, 4면.
- 29 위의 기사.
- 30 「회중신문, 감독의 쇄골 다녀 오신 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감리교 선교부, 1897년 5월 19일, 4면.
- 31 권사 문경호, 「수원 등지에서 전도함」, 『신학월보』, 제물포 우각현, 1901년 1월, 29면.
- 32 Wilbur C. Swearer, 「Su-won and Kong-chu Circuit」, 『조선감리회 연회록』,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01 May, 42.
- 33 Wilbur C. Swearer, 「Su-won, Ichon and Kong-chu Circuits」, 『조선감리회연회록』,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02 May, 46.
- 34 Wilbur C. Swearer, 「Su-won and Kong-chu Circuit」, 1901 May, 42.
- 35 「과천일」, 『신학월보』, 제물포 우각현, 1901년 9월, 27~28.
- 36 Wilbur C. Swearer, 「Su-won, Ichon and Kong-chu Circuits」, 1902 May, 46.
- 37 「시흥계삭회」, 『신학월보』, 제물포 우각현, 1902년 10월, 25~26쪽.
- 38 George M. Burdick, 「Report of Su-won Circuit」, 『조선감리회연회록』,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04 February, 49.
- 39 George M. Burdick, 「Su-won and Nam Yang Circuits」, 『조선감리회연회록』,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05 June, 50.
- 40 George M. Burdick, 「Su-won Circuit」, 『조선감리회연회록』,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06 June, 47.
- 41 Wilbur C. Swearer, 「Su-won, Ichon and Kong-chu Circuits」, 1902 May, 46.
- 42 George M. Burdick, 「Su-won and Nam Yang Circuits」, 1905 June, 54.
- 43 리진호, 『무지내교회 104년사』, 무지내교회 104년사 발간위원회, 2002, 55쪽.
- 44 George M. Burdick, 「Su-won Circuit」, 『조선감리회연회록』,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08 March, 49.
- 45 「시흥 범고개 회당 세운 일」, 『조선그리스도인 회보』, 감리교 선교부, 1897년 7월 28일, 4면.
- 46 「회중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감리교 선교부, 1897년 3월 24일, 4면.
- 47 「시흥삼막회당 헌봉함」, 『신학월보』, 제물포 우각현, 1901년 8월, 21면.
- 48 이진호, 『안양지방감리교회 백년사: 1895~1995』, 도서출판 고려, 1995, 116쪽.
- 49 Wilbur C. Swearer, 「Su-won and Kong-chu Circuit」, 1901 May, 42.
- 50 Wilbur C. Swearer, 「Su-won, Ichon and Kong-chu Circuits」, 1902 May, 45~46.
- 51 위의 글, 45.
- 52 George M. Burdick, 「Su-won and Nam-Yang Circuits」, 1905 June, 50.
- 53 이진호, 『안양지방감리교회 백년사』, 119쪽.
- 54 위의 책, 110쪽.
- 55 위의 책, 110쪽. 「1909년 4월 14일에 장로회 목사 피득씨 내도 하여 제2회 문답하므로 우리 삼인을 세례주다.”
- 56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상,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1928, 193쪽.
- 57 당말은 당집을 모신 동네란 의미로 지금의 군포역 근처였다.
- 58 이진호, 『안양지방감리교회 백년사』, 111쪽.
- 59 이진호, 위의 책, 112쪽.
- 60 안양제일교회 80년사 편찬위원회, 『안양제일교회 80년사』, 안양제일교회 80년사 편찬위원회 홍보출판부, 2010, 115쪽.
- 61 「안양예수교당 낙성」, 『동아일보』, 1931년 12월 17일, 7면.
- 62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1928, 194쪽. 「1910년, 始興郡 富林里敎會가 成立하다 先은에 文學善 文聖範·陰眞實이 信主한後 文學善家에 會集 禮拜함으로 敎會를 成立하니라.」
- 63 동은교회 홈페이지(<https://www.dech.or.kr>).
- 64 안양감리교회 홈페이지(<https://www.aymc.org>).
- 65 「안양교회상례식」, 『조선감리회보』, 1941년 11월 1일, 4.
- 66 안양성결교회 홈페이지(<https://www.asc.or.kr>).
- 67 이진호, 『안양지방감리교회 백년사』, 150쪽.
- 68 안양성결교회 홈페이지(<https://www.asc.or.kr>).

04 한말 및 일제강점기 안양의 사회경제적 변화

제1장 지방제도와 지방행정의 변화

제2장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본 토지 소유구조

제3장 안양지역의 민족운동

제4장 일제강점기 전시체제하 사회경제적 수탈

제5장 일제 말기 시흥군민이 경험한 강제동원



1914년 과천·시흥·안산의 행정구역을 시흥군으로 통폐합하면서 안양에서는 상서면과 하서면을 통합한 서이면西二面이 신설되었으며, 면 행정업무를 수행할 서이면사무소가 호계리에 설치되었다. 점차 안양역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면사무소는 개소한 지 3년 4개월 만인 1917년 안양리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1941년에는 서이면의 명칭이 안양면安養面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면 행정의 중심지이자, 안양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이 발달한 안양리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장

지방제도와 지방행정의 변화



차선희 화성시연구원 화성학센터장(직무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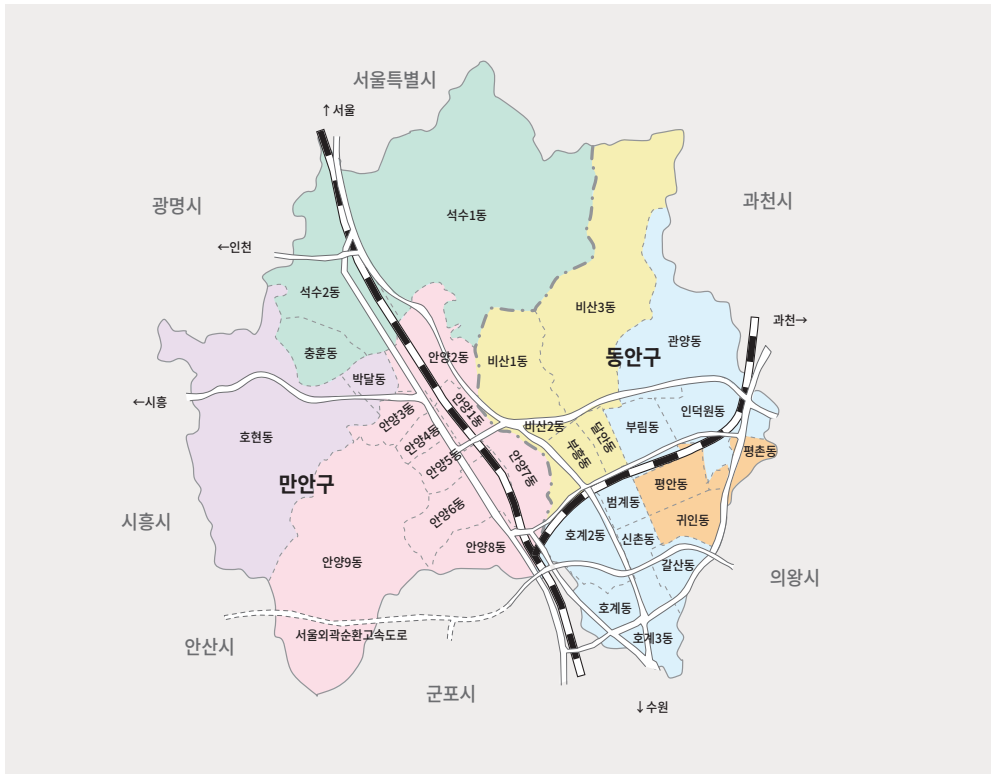


1. 한말 안양지역의 행정구역 범위와 변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주변으로 서울·광명·과천·시흥·의왕·안산·군포 등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총면적은 58.5km²로 경기도 면적의 0.55%에 해당하며 경기도 의왕시·부천시 등과 유사한 규모이다. 인구는 56만 명으로 시흥시·파주시와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서울을 제외한 인접 도시와 비교해보면, 안산보다는 적고 시흥과는 비슷하며 광명·과천·의왕·군포에 비하면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 다만 2010년 60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인구 변동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2024년 현재 안양시의 행정구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중심으로 서쪽의 만안구와 동쪽의 동안구로 나뉜다. 만안구는 36.7km²의 면적에 약 23만 명이 거주하며, 행정구역은 안양동 9개 동, 석수동 3개 동, 박달동 2개 동 등 3개 법정동, 14개 행정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반면 동안구는 면적이 21.9km²로 더 작지만 인구는 훨씬 많아서 약 33만 명에 달한다. 비산동 5개 동, 관양동 3개 동, 평촌동 3개 동, 호계동 6개 동 등 4개 법정동 17개 행정동이 있다.

안양시는 1973년 시 승격과 1992년 일반구 편제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었다. 안양시가 오늘날 경기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그 역사적 과정은 복잡다단하다. 행정구역 범위와 체계 또한 한말과 일제강점기 지방행정제도 개편 과정에서 변동을 거듭한다. 19세기 중후반은 한국 사회의 근대로의 이행기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다. 지방제도와 지방통치방식 역시 조선시대와는 달라지는데, 당시 행정구역으로 볼 때 안양시의 관할구역은 과천군과 시흥군에



안양시 행정구역

해당한다.

만안구 석수동과 박달동이 시흥권역이었다면, 만안구 안양동과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은 과천군 관할이었다. 18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안양지역의 광역적 경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759년(영조 35)에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지도서』 과천현 방리조에는 현내면縣內面·동면東面·상서면上西面·하서면下西面·남면南面·상북면上北面·하북면下北面 등 7개 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안양지역에 해당하는 면이 상서면과 하서면이다. 동안구 비산동·관양동 일대가 상서면에 해당하며, 동안구 평촌동·호계동을 비롯하여 만안구 안양동 일대가 하서면에 해당한다. 과천 관아와의 거리는 상서면이 서쪽으로 15리, 하서면 역시 서쪽으로 25리이다.

금천현은 1795년 정조의 명으로 고을명을 시흥현으로 개칭하는데, 『여지도서』 방리

조를 보면 현내면(縣內面)·동면(東面)·서면(西面)·남면(南面)·상북면(上北面)·하북면(下北面) 등 6개 면이 나온다. 현내면 안양리(安養里)가 만안구 석수동에 해당하며, 서면 박달리(博達里)는 만안구 박달동이다. 현내면 안양리는 금천 관아로부터 10리 거리, 서면 박달리는 15리 거리에 있다.

한편 과천현의 경우 『호구총수』를 통해 구체적인 리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호구총수』에 수록된 40개 동리 가운데 안양지역에 해당하는 상서면에는 삼현일리(三峴一里, 삼현이리三峴二里, 비산리(飛山里) 등 3개 리가 있고, 하서면에는 귀인일동(貴仁一洞, 귀인이동(貴仁二洞, 호계리(虎溪里, 안양리(安陽里, 후두미리(後頭尾里, 도양리(道陽里) 등 6개 동리가 있다. 이들 동리를 오늘날 안양지역 법정동과 비교하면, 상서면의 삼현일리와 삼현이리는 동안구 관양동 일대, 비산리는 동안구 비산동 일대이다. 하서면의 경우 귀인일동과 귀인이동은 동안구 평촌동, 호계리와 도양리는 동안구 호계동, 안양리와 후두미리는 만안구 안양동에 해당한다.

19세기 중후반이 되면 안양지역의 행정지명이나 동리 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과천현 상서면과 하서면의 행정구역 변화는 1871년(고종 8) 발간된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서면의 경우 비산리는 변함이 없으나 삼현일리는 일동리(一洞里)로, 삼현이리는 이동리(二洞里)로 명칭이 달라졌다. 하서면은 발사리(撥舍里, 석수촌(石手村) 등 2개 리가 신규로 등장하면서 총래 6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이는 안양리가 안양리, 발사리(현 안양1동지역), 석수촌(현 안양2동지역)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지명도 달라지는데 귀인일동과 귀인이동은 일동리(一洞里)와 이동리(二洞里)로 변경되었고, 안양리의 한자명도 ‘안양(安陽)’에서 ‘안양(安養)’으로 바뀌었다. 한편 시흥현에 속해 있던 안양지역의 행정구역 변화는 1842년(현종 8) 간행된 『경기지(京畿誌)』에 잘 나타난다. 주목되는 것은 리의 편제 변화인데, 18세기 후반까지 서면에 속해 있던 박달리가 안양리와 함께 현내면 소속으로 바뀌었다.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제도 개편이 단행되었다. 1895년 5월 26일 공포된 「지방제도개혁에 관한 건」은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유수부·부·목·대도호부·도호부·군·현 등 다양한 읍격의 지방행정 단위를 군으로 일원화하여 23부 아래 분속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과천현과 시흥현은 각각 과천군·시흥군으로 개편되어 인천부에 편제되었다. 그러나 23부제는 시행 1년 만에 폐지되고, 1896년 8월 4일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 개정의 건」을 통해 13도제로 개편되었다. 8도제에 기반한 13도제는 경기·강원·황해도를 제외한 5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시흥현 지방지도(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과천군읍지 지도(189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전국을 13개 도로 확대 재편한 것이다.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과천군과 시흥군은 다시 경기도로 편제되었다.

18세기 이래 안양지역의 행정구역 변화 추이를 2024년 안양시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중엽 11개였던 안양지역 동리 수는 19세기 중엽 2개가 증가해 13개가 되었다가 20세기 초가 되면 15개로 늘어난다. 과천군 상서면은 비산리가 비산리 골짜기를 중심으로 내비산리와 외비산리로 분화하면서 일동, 이동, 내비산리, 외비산리 등 4개 리가 되었다. 하서면은 종래 일동, 이동, 도양리, 호계리, 안양리, 발사리, 후두미리, 석수동 등 8개 동리 외에 장내동(牆內洞, 현 안양4동 지역)이 신설되어 모두 9개 동리가 되었다.

〈표 1〉 18세기~2024년 안양지역 행정구역 변천

	18세기 중엽 (과천·시흥현)	19세기 중엽 (과천·시흥현)	20세기 초 (과천·시흥군)	일제강점기 (시흥군)	2024년 (안양시)
과천	삼현일리	일동리	일동	서이면 일동리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삼현이리	이동리	이동		
상서면	비산리	비산리	내비산리	서이면 비산리	동안구 비산1·2·3동, 부흥동, 달안동
			외비산리		
과천	안양리	안양리	안양리	서이면 안양리	만안구 안양5·6·7·8동
		발사리	발사리		만안구 안양1동
		석수촌	석수동		만안구 안양2동
			장내동		만안구 안양4동
하서면	후두미동	후두미리	후두미리	서이면 호계리	만안구 안양3·9동
	호계리	범계리	호계동		동안구 호계2동, 범계동, 신촌동
	도양리	도양리	도양리		동안구 호계1·3동, 갈산동
	귀인일동	일동리	일동		서이면 이동리
귀인이동	이동리	이동			
시흥	현내면 안양리	현내면 안양리	군내면 안양리	동면 안양리	만안구 석수1·2동, 충훈동
	서면 박달리	현내면 박달리	군내면 박달리	서면 박달리	만안구 박달1·2동
합계	4면 11동리	3면 13동리	3면 15동리	3면 7리	2구 31동(행정동)

출처: 18세기 중엽 - 과천현 『호구총수』(1789), 시흥현 『여지도서』(1759), 19세기 중엽 - 과천현 『과천현읍지』(1871), 시흥현 『경기지』(1842), 20세기 초 - 과천군·시흥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일제강점기 -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과천군에 속한 안양지역은 조선 후기 이래 한말을 거치면서 동리 수의 증가는 물론 동리명도 다양해지는 등 촌락 분화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1910년대 발행된 『조선지지 자료』에 따르면 상서면 일동은 일동, 동편東便, 부림리富林里 등 3개 마을로 분화되었고, 이동 또한 이동, 중대촌中大村, 마분리馬墳里, 수촌秀村 등 4개 마을이 되었다. 하서면 역시 일동에는 일동 외에 갈산葛山, 독박리秃朴里, 귀인貴仁, 평촌坪村 등 새로운 촌락이 생겨났다. 그밖에도 이동은 이동과 신촌新村으로, 도양리는 도양리와 덕현德峴으로, 안양리는 안양리와 주접리住接里로 세분화되었다. 반면 시흥군의 경우 20세기 초에 들어와 동리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행정구역 변화가 나타나지만, 안양지역에 해당하는 안양리와 박달리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군내면에 편제되어 있었다.

2. 일제강점기 서이면의 성립과 지역사회 변화

1) 지방제도 개편과 서이면의 성립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한다는 명분 아래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관제」와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등의 법령을 공포하여 식민지통치기구의 일단을 마련하였다. 이어 같은 해 9월 30일에는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를 공포하여 지방제도의 기본 골격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 행정단위를 도·부·군·면으로 구분하고, 전국 행정구역체계를 13도 12부 317군 4408면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말단 지방행정기구로서 면의 지위를 법제화하였다.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던 행정단위를 ‘면’으로 통합하고, 도장관이 임명하는 면장을 두어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하였으며, 면사무소를 설치하여 면 단위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임명직 관리인 면장을 통해 면의 행정력을 강화함으로써 식민지배의 말단 조직을 정비하고 통치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일제는 1917년 ‘면제面制’를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앞서 일제는 사전 준비작업으로 1912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57개 부·군, 3492개 면, 4만 9587개 동리에 이르는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13년부터 행정구역 통폐합 준비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1914년 3월 1일자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시 일제가 내세운 행정구역 개편의 명분은 ‘행정구역의 지리적 불균등과 세 부담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여 시정 편의를 도모하고, 소요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군 면적 40방리 인구 10만 명, 면 면적 4방리 인구 800호’를 군·면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정했다.

통폐합 조치에 따라 총래 12부 317군에 달하던 행정구역은 1부 121군이 폐지되고 새로 1부 24군이 신설되어 총 12부 220군으로 재편되었다. 도별로 이루어진 면의 통폐합으로 기존 4336개에 달하던 조선의 면은 2522개로 축소되었다. 동리의 경우는 군·면과 달리 일괄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도별로 1914년 4월부터 시작하여 1918년에 가서야 마무리되었다. 통폐합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조선총독부 관보』, 1913년 12월 29일)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6만여 개에 달하던 동리는 2만 8000여 개로 50% 이상 축소되었다.

경기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13년 기준으로 2부 36군 492면 4856동리에 이르던 경기도 행정구역은 1914년 통폐합 조치에 따라 2부 20군 250면 4604동리로 재편되었다. 36개 군 가운데 남양, 풍덕, 죽산, 안산, 삭령, 통진, 영평, 마전, 교하, 음죽, 적성, 과천, 양지, 양성, 양천, 교동 등 16개 군이 폐지되었으며, 이들 군은 기존 인접 군에 병합되거나 2개 군이 통합되어 20개 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재편된 20개 군은 고양군, 부천군, 시흥군, 수원군, 진위군(1924년 평택군으로 개칭), 평택군, 용인군, 이천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포천군, 연천군, 광주군, 양평군, 양주군, 가평군, 여주군, 개성군, 장단군 등이다.

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은 안양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안양이 속해 있던 과천군이 안산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통폐합되었다. 이어서 과천군 7면 55개 동리, 안산군 6면 63개 동리(월곡면·북방면·성곶면 제외), 시흥군 6면 22개 동리 등 19개 면 140개 동리가 통합되어 9개 면 83개 리로 축소되었다. 새로 편제된 9개 면은 북면北面, 신동면新東面, 동면東面, 서면西面, 과천면果川面, 서이면西二面, 남면南面, 수암면秀岩面, 군자면君子面이며, 이 가운데 서이면 전역과 동면 및 서면의 각 1개 리가 오늘날 안양지역의 행정범위가 되었다. 1914년 안양지역의 행정구역 변화를 <표 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914년 안양지역 행정구역 변화

1912년		1914년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일동리
		내비산리, 외비산리	비산리
	하서면	일동, 이동	이동리
시흥군	군내면	도양리, 호계동	호계리
		발사리, 석장리, 안양리, 후두미리, 장내리	안양리
		안양리	안양리
		박달리	박달리
		서이면	서면
		시흥군	동면
			서면

출전: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표 2>에서와 같이 서이면은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을 통합하여 신설한 면이다. 면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흥군 남면과 서면을 통합한 면이 ‘서면’으로 결정되면서 상서면과 하서면을 합친 면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상서면과 하서면의 두 ‘서西’가 통합된 면이라는 의미에서 ‘서이면西二面’이라고 했다. 서이면에 편제된 리는 일동리·비산리·안양리·호계리·이동리 등이며, 상서면 4개 리와 하서면 9개 리 등 총 13개 리를 5개 리로 통합한 결과였다. 일동리는 상서면 일동과 이동을 통합한 것이고, 비산리는 상서면 내비산리와 외비산리를 합친 것이다. 또한 하서면에 속했던 안양리·발사리·석장리·장내리·후두미리는 모두 안양리로 통합하였고, 호계동과 도양리는 호계리로, 일동과 이동은 이동리로 각각 통합되었다.

서이면에 속한 이들 5개 리는 이후 지속적인 분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 안양시의 행정구역을 이루게 되었다. 일동리는 동안구 관양동으로, 행정동 기준으로는 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을 포함한다. 비산리는 동안구 비산동으로, 비산1·2·3동과 부흥동·달안동

등으로 분화되었다. 호계리는 지금의 동안구 호계동인데, 행정동으로는 호계1·2·3동 전부과 범계동·신촌동·갈산동까지 포괄한다. 동안구 평촌동에 해당하는 이동리는 평촌동·평안동·귀인동 등으로 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양리는 만안구 안양동에 해당하며, 안양1동에서 9동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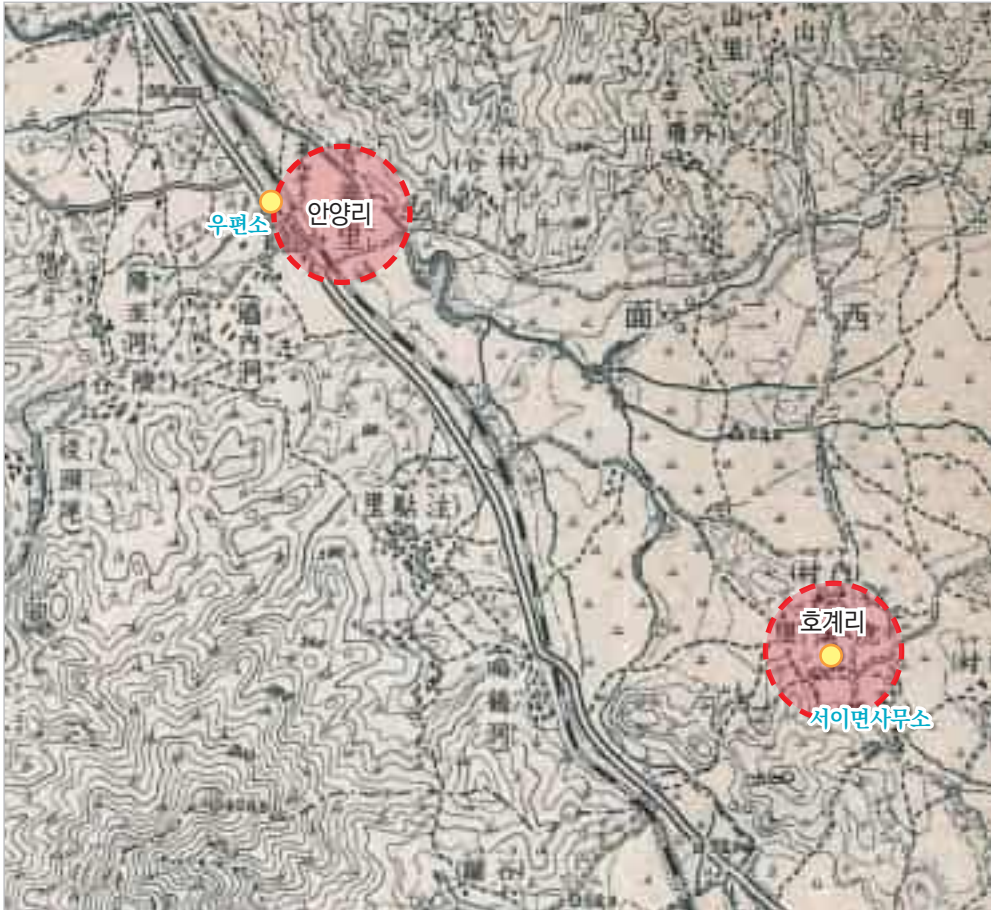
서이면 이외에 시흥군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 역시 오늘날 안양시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1963년에 안양읍으로 편입되는데, 동면 안양리의 경우 이미 안양읍에 '안양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안양리'로 개칭되었다. 동면 안양리는 지금의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해당하며 석수1·2동과 충훈동을 포함한다. 박달리는 만안구 박달동으로, 행정동으로는 박달1·2동이 있다.

한편 서이면의 명칭에도 변화가 있었다.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서이면의 명칭을 안양면(安養面)으로 개칭하였다. '안양'이란 명칭은 18세기 이래 일제강점기까지 리 단위 명칭으로 불리다가 이때에 와서 면 명칭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면 행정의 중심지이자, 안양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이 발달한 안양리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안양면의 성장은 이후로도 계속되어 1949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62호 「읍 설치에 관한 건」에 따라 안양읍으로 승격하였고, 1973년 7월 1일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서이면의 행정 운영과 지역사회 변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상서면과 하서면을 통합한 서이면이 신설되자 면 행정 업무를 수행할 서이면사무소가 호계리에 설치되었다. 서이면사무소가 호계리에 들어선 것은 원래 이 자리가 과천군 하서면사무소였기 때문이다. 면사무소 위치는 지금의 호계 2동 호계도서관 인근(호계동 923의 86번지 일대)이다. 서이면사무소는 개소한 지 3년 4개월 만인 1917년 7월 6일 안양리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한 위치는 오늘날 만안구 장내로 143번길 8(안양1동 674-271) 옛 안양옥이 있던 자리다. 이전 당시 호계리에 있던 면사무소 건물을 옮겨와 원래 있던 'ㄷ'자형 건물을 'ㄱ'자형으로 증축해서 사용하였다.

면사무소를 호계리에서 안양리로 이전했다는 것은 서이면의 중심지가 이동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양리의 지역적 위상 변화와 발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안양리의 성장은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안양역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인구와 물자의 집산지로 기능하기 시작하였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1917년 1:50,000 안양부근 지도(국사편찬위원회)

러한 변화는 1917년 육지측량부에서 측도하여 1918년에 발행한 1:50,000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는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결과가 잘 드러난다. 지도에 표시된 영역의 윗부분이 안양리이고 그 아래가 호계리이다. 안양역 주변으로 약간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안양역에 우편소 기호가 표기되어 있어 안양리 일대가 점차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면사무소 표기가 호계리에 있다는 것은 이 지도가 면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에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서이면사무소는 1941년 10월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안양면사무소로 계속 사용되었다. 그 후 1949년 8월 14일 안양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면사무소 옆에 안양읍 청사를 신축하자 면사무소 건물은 개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로써 해당 건물은 1917



구서이면사무소

년 7월 6일부터 1941년 9월 30일까지 24년간은 서이면사무소로, 1941년 10월 1일부터 1949년 8월 13일까지 8년간은 안양면사무소로 총 32년간을 면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이 건물은 ‘구서이면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어 안양시의 근대 관청 건축물이자 전시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구서이면사무소 건물을 통해 본 당시 서이면사무소 구조는 사무동과 부속동으로 이루어졌고, 사무동에는 면장실·숙직실·사무공간 등이 있다. 사무동 숙직실과 연결된 후면 공간에 증축한 부속동 2칸은 화장실과 목욕탕으로 사용되었다.

1913년 과천군 하서면장으로 재직하던 조한구趙漢九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하서면과 상서면이 서이면으로 재편되자 초대 서이면장이 되었다. 이후 1935년까지 21년간 재임하며 서이민의 행정을 이끌었다. 해방 이후에는 제2대 안양면장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하였으며, 1949년 안양면이 읍으로 승격하자 초대 안양읍장에 취임하였다. 조한구는 면장 이외에도 영등포금융조합 설립위원 겸 평의원, 안양금융조합 설립위원 겸 조합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금융기관 설립과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 1936년에는 이기선이 제2대 서이면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1941년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정될 때 초대 안양면장을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동안 서이면과 안양면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이끌어온 역대 면장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일제강점기 서이면(안양면) 역대 면장

구분	대수	성명	재직기간
하서면장	-	조한구*	1913.7.22. ~ 1914.3.31.
서이면장	제1대	조한구	1914 ~ 1935
	제2대	이기선	1936 ~ 1939
	제3대	오카다(岡田政憲)**	1940 ~ 1941
안양면장	제1대	이기선	1941 ~ 1945
	제2대	조한구	1945 ~ 1949
안양읍장	제1대	조한구	1949 ~ 1956

출처: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3 성장발전하는 안양』 제2편 제1장 행정체계, 2008, 216쪽.

비고: *안양시사,(2008)에서는 조한구의 하서면장 부임을 『관보』 기록에 의거해 1913년 7월 22일로 보았으나,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인물자료 (<https://db.history.go.kr/modern/im/detail.do>)에는 1913년 1월 8일로 되어 있다.

**이기선과 오카다는 동일 인물임.

일제강점기 서이면을 비롯하여 안양지역 면 행정을 담당한 면직원과 구장, 면협의회 의원 등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1927년 발행된 『조선전도 면직원록』을 통해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 1927년 안양지역 면직원 및 면협의회 의원 현황

면	구분	이름
서이면	면직원	[면장] 조한구(趙漢九), [서기] 신경택(愼庚宅), 윤경섭(尹敬燮), 권덕상(權德相), 조준구(趙濬九), 윤주희(尹宙熙), [기수] 권임중(權任重)
	면협의회의원	이사규(李寫珪), 신용범(愼用範), 田代良彦, 安江正三, 이택래(李宅來), 김성백(金聖伯), 이장훈(李章薰), 최영복(崔永福), 이기순(李起純), 이종만(李鍾萬)
	구장	[비산] 김영옥(金永玉), [일동] 이우종(李佑鍾), [안양] 이세진(李世鎭), [호계] 오인수(吳仁洙), [이동] 이창규(李昌圭)
동면	구장	[안양] 박교복(朴敎復)
서면	구장	[박달] 이진경(李鎭敬)

출처: 『조선전도 면직원록』, 문진당, 1927.

1927년 당시 서이면사무소 면직원은 면장 1명을 중심으로 서기 5명, 기수 1명으로 편제되었다. 면 행정과 관련된 자문·심의기구인 면협의회는 총 의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일본인이었다. 이는 시흥군 10개 면 가운데 지정면인 영등포면

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일본인 비율이다. 다른 면의 경우 북면과 신동면에 일본인이 1명씩 있을 뿐, 대부분의 면협의회 의원은 조선인이다. 이는 그만큼 안양역이 입지한 서이면의 근대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서이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면의 경우 면협의회 의원 중 다수를 구장이 겸하고 있다. 서면 박달리 구장 이진경도 그런 사례인데, 당시 면협의회 의원이 임명제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구장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서이면사무소를 호계리에서 안양리로 이전하던 1917년 당시만 해도 서이면은 농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다. 안양역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가 안양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지만 크게 성장한 단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을 거쳐 1930년대에 이르면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인구 증가와 사회 변화를 맞게 된다. 1926년 12월 19일 시흥군수가 안양시장의 확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² 이어서 1927년 새해 벽두에 『동아일보』에 게재된 서이면 확장안 기사는 안양지역 발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은 경부선이 관통한 안양 부근을 중심으로 위치가 시흥군의 중앙일 뿐 아니라 잠건(蠶繭) 울과물(栗果物) 등의 특산물이 풍부함으로 장차 발전될 여지가 확실한 고로 작년부터 안양에 시장을 설치하고 안양시 확장책을 계획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중략) 서이면은 순 조선인 즉 농촌 본위로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하여 특히 우량면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방금 실시 중이러는데 면장은 조한구(趙漢九)씨인 바 14년 전부터 면장이 된 이래 면 사무에 많은 공헌이 있다(시흥) 1. 안양시(安養市) 확장책 1. 모범 사숙(私塾) 설치 1. 보통 농사 보급 장려 1. 양잠 보급 장려 1. 축산 보급 장려 1. 임업 시설 장려(『동아일보』, 1927년 1월 5일)

인용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후반 서이면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제시된 방안은 시장 확장, 사숙 설치, 농·축산업 및 양잠 장려 등 대체로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와 상황은 급변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공업화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안양리 일대에는 조선직물, 조선견직 등 대규모 섬유공장이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안양역 주변은 철도교통과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한다.

이러한 변화는 서이면의 인구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1925년 무렵 약 6000명 수준이던 서이면 인구는 1930년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193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인구는 1944년 단계에 이르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1930년대 중반부터 서이면 인구가 급증한 요인은 1930년대부터 안양역 인근 섬유공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5〉 1920~1940년대 서이면의 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면명	1925년	1930년	1935년	1944년
서이면(안양면)	6,165	6,776	8,957	15,708

출처: 조선총독부, 『국세조사보고』, 1925·1930·1935·1944.

한편 일제강점기 안양지역에서 벌어진 중요한 지역운동으로 시흥군청사의 안양 이전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한 것이 서이면이었다. 당시 서이면은 철도교통과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시흥군의 금융·행정·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었다. 이 운동의 요지는 1936년 영등포읍과 북면 일원이 경성으로 편입되자, 영등포읍에 소재한 시흥군청사를 서이면 안양리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시흥군청사는 일제 강점 전까지 군내면 시흥리에 있었다. 그러나 1899년 경인선 개통과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시흥군 하북면 영등포리에 영등포역이 생기면서 영등포 일대가 시흥군의 중심지로 부상하자 1910년 12월 7일 청사를 영등포로 이전하였다. 이후 1934년부터 추진된 경성부 확장 계획에 따라 1936년 4월 시흥군 영등포읍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 북면 노량진리·본동리·흑석리·동작리·신길리와 번대방리 및 도림리 일부, 동면 상도리가 경성부에 편입되었다.³

시흥군청이 위치한 영등포읍 영등포리 일대가 경성부에 편입되자 시흥군의 각계 인사들은 군청사 이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군청사 이전 논의는 영등포가 경성으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시흥군청사 위치가 시흥군 전체로 볼 때 너무 치우친 지역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교통이 편리한 서이면 안양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그러던 중 영등포의 경성 편입이 현실화되자, 시흥군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 군청을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군청 이전 운동은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기회에 군청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각계 인사들의 각오는 청사 이전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군청이전기성회’ 조직과 대대적인 군민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1936년 2월 21일 군내의 공직자와 유력자 100여 명이 서이면사무소에 모여 군청이전기성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성회장에는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

장장으로 있던 일본인 기리타 겐지(桐田元次)가 선임되었다.⁴ 1936년 3월 5일에는 시흥군 각 면의 공직자·유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 조선직물주식회사 구내에서 시흥군청사 이전을 위한 군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조한구 서이면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결의대회에서는 진정위원 4명을 선임하고 적극적인 군청 유치운동을 결의하였다.⁵

청사 이전 운동은 군민대회뿐 아니라 군민들의 서명운동과 당국에 진정서 제출로 이어졌다. 1936년 3월 19일 군청이전기성회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7명이 총독부와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군청의 안양 이전을 진정하고, 시흥군민 3225명이 연서 날인한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였다.⁶ 이처럼 시흥군민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8·15광복 직전인 1945년 7월 영등포에서 안양면으로 군청을 이전하게 되었고,⁷ 임시로 흥안국민학교 교사를 사용하였다. 1946년 8월 군청사 기공식을 갖고⁸ 이듬해인 1947년 11월 낙성하였는데,⁹ 그 위치는 오늘날 안양1번가에 소재한 삼원프라자관광호텔 자리이다. 1977년에는 지금의 안양6동 만안평생학습센터 부지로 한 차례 청사를 이전하였다.

시흥군 안양읍이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한 후 시흥군지역에서 군청사 이전 요청이 있었고 결국 1980년 시흥군청사는 소래읍(대야동)으로 이전하였다. 안양6동에 있던 구시흥군청사는 한동안 안양시청 임시 청사로 사용되다가 만안평생학습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오늘날 시민 교육 및 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청을 돌려주소(『동아일보』, 1936년 3월 7일)

註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https://db.history.go.kr>)
 2 『동아일보』, 1926년 12월 23일.
 3 1936년 2월 14일 부령 제8호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개정」
 4 『동아일보』, 1936년 3월 4일.
 5 『동아일보』, 1936년 3월 7일.

6 『동아일보』, 1936년 3월 20일.
 7 「시흥군청사 신축」, 『자유신문』, 1946년 8월 14일.
 8 「시흥군청사 신축」, 『서울신문』, 1946년 8월 18일.
 9 「시흥군청사 낙성」, 『자유신문』, 1947년 12월 3일.

2장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본 토지 소유구조



조석곤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1. 한말 일제초의 토지소유구조

대한민국의 토지제도는 사적 소유제도를 근본으로 한다. 소유권은 등기(登記) 제도로 뒷받침되며, 개별 토지들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관리한다. 이 제도는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니어서, 1910년대 조선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착하였다.¹ '사업'은 식민 통치의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선 내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토지의 사적 소유가 '사업'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미 조선 후기에 경지의 사적 소유는 광범위하게 정착되었다. 유형원이나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도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을 비판하면서 경지는 경작자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토지제도는 현재의 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현재의 토지제도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의해 확정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지의 이용·수익·처분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만,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왕토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으로, 조선왕조의 토지대장에 해당하는 양안(量案)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²

이 장에서는 안양지역에서 작성된 대한제국기 광무양전사업의 『광무양안』과 '사업'의 『토지조사부』를 통해 두 시기의 토지소유구조를 살펴본다. 안양지역 광무양전은 1900년에 작성되었고, 『토지조사부』는 1914년에 작성되었다. 사적 토지소유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볼 때 토지소유자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과연 그러한지를 살펴보는 일은 두 시기 토지소유구조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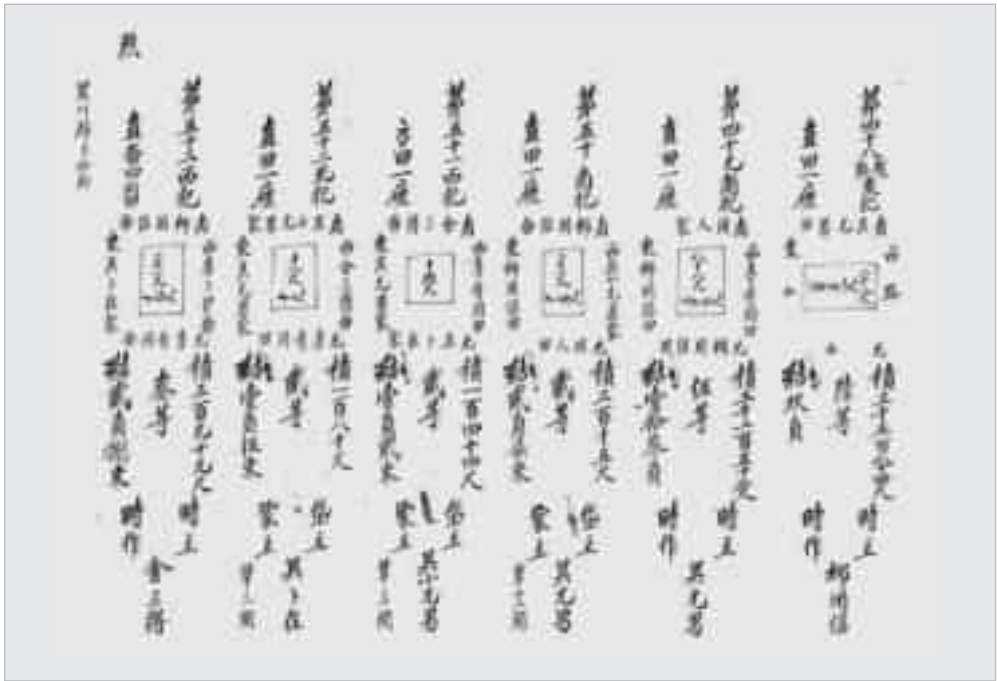
현재 안양은 ‘사업’이 시작된 1910년 시점에서는 과천군의 상서면·하서면 전체와 시흥군 일부 지역 해당하였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과천지역은 시흥군 서이면으로 편입되었고, 시흥지역은 각각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에 속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자를 ‘구과천’, 후자를 ‘구시흥’ 지역으로 표시하되 주된 분석지역은 ‘구과천’에 한정한다.³ 그 이유는 ‘구과천’의 상서면과 하서면 지역은 모두 시흥군 서이면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광무양안』의 행정구역과 『토지조사부』의 행정구역이 일치한 반면, ‘구시흥’지역의 경우는 양안과 『토지조사부』의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안양지역 광무양전의 실시 과정과 결과를 현존하는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 양안을 통해 살펴본 후 안양지역 ‘사업’의 실시 과정과 결과를 시흥군 서이면 『토지조사부』를 통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토지소유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2. 안양지역 광무양전의 실시 과정과 결과

광무양전은 1899년 대한제국에서 전국의 경지를 대상으로 경작지별 소유자와 경작자를 파악하고, 필지별 면적 및 과세액을 조사한 사업이다. 원래 조선시대 양전은 20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광무양전 이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양전은 경자양전(1720년)이 마지막일 정도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양전의 목적은 경지별 과세액을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납세자인 농민도 큰 관심을 가졌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균세와 증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경자양전 이후 180여 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토지에 대한 수취 방식이 비총법(比總法)으로 운영되었는데, 비총법은 군현 단위의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실제 세액은 매년 풍흉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징수하는 방식이다.⁴ 군현별 총액은 기본적으로 경자양전의 전결수에 따랐다. 비총법 하에서 새로 양전을 실시하는 것은 군현에 부과된 세금 총액을 변경하는 일이므로 큰 분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장기간 양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자양전 이후 대한제국이 수립될 때까지 전국적인 양전은 없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현 단위의 추생양전(抽生量田)이 시행되었다.⁵



〈그림 1〉 '구과천' 과천군 상서면 양안의 예

19세기 말에 이르러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비등하였으며, 갑오농민전쟁에서는 토지 평등 경작과 같은 급진적인 요구가 있었다. 갑오개혁 정부의 조세금납화 조치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는데, 균세 시행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양전이 필요했다. 대한제국에 들어와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양전 시행에 적극적이었던 고종의 뜻에 따라 1899년 4월부터 측량과 함께 전국적으로 양전이 실시되었다. 양전 담당기관으로 양지아문이 설치되었고, 1901년 10월에는 지계를 발급하는 지계아문이 설치되면서 양전업무도 겸하였다. 하지만 지계아문의 양전사업은 러일전쟁 이후 중단되어 광무양전은 결국 완결되지 못한 상태로 중단되었다.

이제 '구과천' 지역에서 광무양전이 진행된 과정을 『광무양안』을 통해 살펴본다. 현재 남아 있는 안양지역의 『광무양안』은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의 양안이다. '구과천' 『광무양안』은 양지아문에서 작성한 것으로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의 첫째 단에는 자호별 지번과 지목 등을 기록했고, 둘째 단에는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셋째 단에는 토지의 면적·등급·결수를, 마지막 단에는 소유주(시주)와 경작자(시작)의 이름을 기록했다. 둘째 단을 제외하면 경자양전의 양식과 동일한데, 둘째 단에는 토지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토지의 형상 유형이 다양해졌다는 점이 종전 양안과 달랐다.⁶ 마지막 단에 기록된 토지의 소유자와 경작자에 관해서는 4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양안의 작성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광무양전은 현지조사로부터 시작하는데, 현지조사에서는 양무위원과 학원^{學員}이 현지 사정에 정통한 지심인^{指審人}을 대동하고 양안에 기재할 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야초^{野草}로 정리하였다. 현존하는 야초는 의성군의 것이 유일한데, 왕현종은 야초는 양전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작성했으며, 이 순서는 양안의 정서 과정에서도 준수되었다고 보았다.⁷

〈표 1〉 안양지역 양전의 위원·학원·지심인 현황

(단위: 명·필)

양안	위원	학원	지심인	필지수	지심인당 필지수
상서상	신현필 김정두	김정연, 조기준, 성주경, 윤응수, 권영우, 연병환	심영래, 심희배, 유복성, 김춘화, 김업래, 유종면, 최학성, 인사근 최춘화, 차영도, 차한명	974	88.5
상서하	유영수 김정두	유영목, 이재철, 홍형표, 신태목, 여봉우, 정동하, 정규하	조존필, 문옥래, 손순득, 오이월, 김경실, 심성서	871	145.1
하서상	박희구 하병순	권명채, 윤태범, 안종렬, 김택기, 이하고, 유병룡, 박정수, 이철우, 이교창	박춘서, 이석현, 이사덕, 조봉순 김상호, 박태산, 조학교, 조동순 이영신, 이경여, 최병덕, 원영철	1169	97.4
하서하	장규환 하병순	이종면, 강명흠, 박영배, 안교창, 이철우, 박창수, 허 숙, 한성교, 유철준, 김상근, 조동숙, 전영기 이병래, 조재승	이종교, 원원실, 홍경보, 원갑돌 이성범, 임순일, 유태형, 이창선 강필형, 최성원, 김치심, 오국빈 이복대, 조문도, 최응엽, 최천길 최만준, 최광신	1685	93.6
계	8	36	47	4699	100.0

자료: 『과천군 양안』

〈표 1〉은 안양지역 광무양전 현지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이다. 위원은 양전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학원은 현지조사와 함께 필지별 척수와 결수를 포함한 야초를 작성하였다. ‘구과천’의 현지조사는 상서면에서는 두 조사팀이 1910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으며, 하서면에서는 세 조사팀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 하서면 필지수가 상서면의 1.5배인 사정을 반영하더라도 상서면의 속도가 빨랐는데, ‘상서면하’ 지역(대략 현재의 관양동)의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이다.

작성된 야초는 양안 작성의 기초자료였는데, 중초양안의 작성은 과천군의 현지조사

가 완료되어야 개시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양전은 5결 단위로 묶어서 자호字號를 부여 했는데, 자호 부여방식은 과천군 관아로부터 천자문의 첫 자인 ‘천天’자를 부여하면서 양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되 점차 외곽지역으로 넓혀가면서 진행했으므로, 전 지역의 실지조사가 완료되어야 양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중초中草라 불렀고, 현재 남아 있는 양안은 바로 이 중초양안이다.

이 때문에 중초 작업은 과천군 관아에서 진행되었다. 중초 작업은 초사初查→재사再查→초서初書→재서再書→초준初准→재준再准의 순으로 진행했다. ‘사査’는 야초 내용을 검사하는 것이고, ‘서書’는 검사한 야초에 자번호를 부여하면서 양안을 만드는 작업이다. ‘준准’은 양전의 기재 사항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모든 작업은 두 번 시행되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상서면 양안은 상·하 모두 재서 과정을 생략했다. 한편 하서면 양안은 상·하 모두 삼준三准 절차를 거쳤다. 조사 과정은 10월 30일에 시작하여 11월 16일에 종료되었고, 양안 작성은 11월 24일에 시작하여 12월 17일에 끝났다. 검토 작업은 1901년 1월 11일에 시작하여 1월 19일에 끝났지만, 하서면의 경우는 3차 검토 작업이 4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했다.⁸

상서면 양안은 화化부터 과過까지 34개의 자호를, 하서면 양안은 필必에서 정正까지 46개의 자호를 부여했다. 상서면 양안의 총결수는 173.915결이고, 하서면은 231.835결이었다.⁹ 종래 양안에서는 5결을 맞추기 위해 5결이 넘는 자호의 경우 다음 자호에서는 그만큼 빼서 자호를 부여하는데, 과천군 중초양안에서는 이러한 ‘결넘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호당 평균 결수는 상서면 5.12결, 하서면 5.04결로 하서면은 어느 정도 지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서면의 경우도 5결이 넘거나 모자라는 자호가 연속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호당 ‘결넘김’을 준수했다고 보긴 어렵다.

〈표 2〉 ‘구과천’ 광무양전의 지목별 등급별 필지수, 면적 및 결수

등급	전			답			합계		
	개수	면적(척)	결수(결)	개수	면적(척)	결수(결)	개수	면적(척)	결수(결)
2	154	20,446	1.737				154	20,446	1.737
3	692	179,895	12.594	233	758,420	53.087	925	938,315	65.681
4	241	405,590	22.311	743	2,143,279	117.894	984	2,548,869	140.205
5	1,138	2,326,665	93.069	823	1,968,937	78.663	1,961	4,295,602	171.732
6	657	1,018,742	25.516	18	35,205	0.879	675	1,053,947	26.395
합계	2,882	3,951,338	155.227	1,817	4,905,841	250.523	4,699	8,857,179	405.75

이제 광무양전을 통해 파악한 경지의 면적과 결수에 대해 살펴본다. 『광무양안』의 셋째 단에는 토지의 면적, 등급, 그리고 결수가 기록되었는데, 양전이 균세(均稅)를 바탕으로 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둔 것임을 생각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면적은 둘째 단의 토지 형상으로부터 계산하였는데, 토지 등급이 결정되면 환산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결수가 책정되었다.¹⁰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학원의 임무였다. 수차례에 걸친 조사와 검토가 진행되었기 때문인지 ‘구과천’ 양안의 면적 및 결수 계산은 매우 정확했다고 볼 수 있다.¹¹

〈표 2〉에는 ‘구과천’ 안양지역의 지목별 면적과 결수를 등급별로 정리했다. 2등급 토지는 모두 대지였으며 3등급의 전도 20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지였다. 대지를 제외하고 보면 전은 5, 6등급이, 답은 4, 5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대지의 등급을 높게 책정하여 지목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절대 면적으로 보면 전은 395ha, 답은 491ha이다.¹² 한편 납세액에 해당하는 결수는 전 115결, 답 250결로 전 대비 답 결수 비율은 1.62로, 전 대비 답 면적 비율인 1.24보다 현저히 높다.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답에 해당하는 필지의 납세자는 전의 납세자보다 30% 정도 더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다. 논의 주작물인 쌀은 밭작물인 콩·보리에 비해 2배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논을 가진 납세자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밭의 경우 1년 이모작, 또는 2년 3모작과 같은 윤작이 가능하므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광무양전에서는 지목별 조세 부담의 차별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안양지역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과정과 결과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쳐 2040만 원의 경비를 들여 토지소유권 토지가격 지형지모(地形地貌)를 조사하여 식민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¹³이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지적도와 토지대장, 그리고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등기부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토지제도의 바탕이 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고백’대로 식민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는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에 인적·물적 자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일제는 인적 자원의 파악을 위해 민적사업을 통해 민적부를 만들었으며,¹⁴ 물적 자원인 토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만들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1909년부터 차관을 통한 재원 마련, 토지관습 조사, 부평군에서 진행된 시험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고, 8월에는 「토지조사법」을 공포했다.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설치되면서 토지조사국은 폐지되었다. 토지 측량 및 조사는 1910년부터 진행되었지만,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의 시행과 함께 본격화했다. 토지 위치를 파악하는 측량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와는 달리,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판별 기준과 조사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1913년의 「토지조사심득」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민유지는 토지신고서와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¹⁵를 대조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며, 국유지는 관할청에서 국유지통지서를 작성했다. 임시토지조사국은 이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사정’을 실시했고, 이를 소유권의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였다.¹⁶ 한 토지에 복수의 토지신고서(국유지통지서 포함)가 있는 경우 분쟁지조사를 통해 소유권자를 확정했다. 사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재결裁決에 대해서는 불법적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원시취득’ 원칙이 적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시의 토지소유관계가 이미 근대적 등기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있었던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증한다. 다만 중요한 난점은 국유지 중에 그 소유권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궁방전·아문둔전(이를 통칭해서 역둔토라 불렀다)을 마련하기 위해 절수지折收地¹⁷가 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광무 연간에 역둔토의 수세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였으며,¹⁸ 이때 해결되지 못한 토지들이 ‘사업’의 분쟁지가 된 경우가 많았다.

1912년 일제가 산림과 미간지에 대한 국유·사유 구분 표준을 작성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토지는 사유지임이 문서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토지이거나 혹은 납세의 실적이 있는 토지였다. 실제로 토지의 사유를 판정할 때는 지세 납부 여부뿐만 아니라 납세액도 중요했는데, 이 기준은 분쟁지 심사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¹⁹

‘사업’과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토지조사부』를 주요 자료로 사용한다. 실제 ‘사업’은 소유권조사, 지가조사, 지형지모조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소유권조사의 결과물이 『토지조사부』였고, 이 장부와 지가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²⁰ 『토지조사부』는 소유권조사의 결과물이므로 이 글에서는 소유권조사만 다룬다. 소

〈그림 2〉 안양지역 『토지조사부』의 사례

유권조사는 토지신고서를 거두는 준비조사, 측량반이 작성한 지도의 필지와 토지신고서를 대조하면서 지주·지번·지목 등을 확인하는 일필지조사, 한 필지에 대해 여러 명의 토지신고서가 존재하거나 신고서의 진위가 불확실한 경우 이를 조사하는 분쟁지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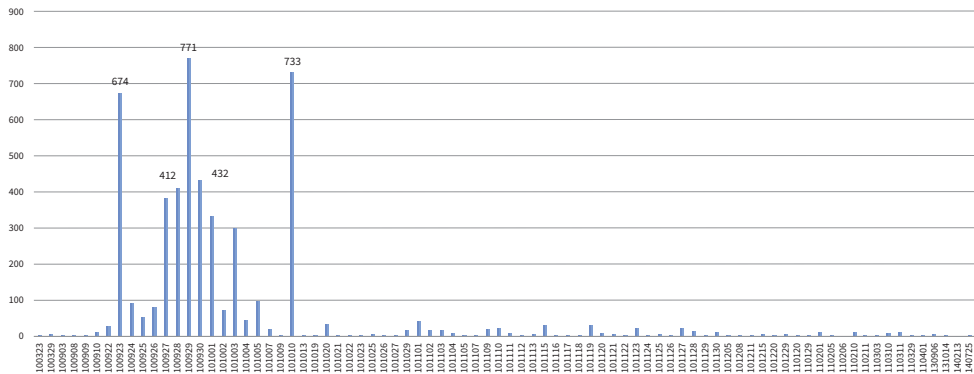
소유권조사의 최종 결과물이 『토지조사부』이므로 『토지조사부』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권조사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는 ‘구과천’ 『토지조사부』의 한 예이다. 『토지조사부』에는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했고, 하단에 적요(摘要)란을 두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토지신고서와 연결되어야 하며, 토지 측량과 함께 진행된 현지 조사의 결과를 기록한 『실지조사부(實地調査簿)』와도 연결되어야 했다. 하지만 ‘구과천’ 『토지조사부』에는 이를 기재할 칸이 없었기 때문에 적요란에 토지신고일을 적었고, 그 하단에 『실지조사부』의 가지번(假地番)을 기록하여 『토지조사부』의 필지별 정보를 토지신고서와 일필지조사의 결과와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²¹ 외업반원들은 토지신고서가 수합되면 당시 징세장부였던 『결수연명부』와 대조했다. 두 장부의 대조가 종료된 후에는 토지신

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토지의 지주·경계·지목·지번 등을 조사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실지조사부』를 만들었다.²²

이제 안양지역에서 진행된 준비조사, 일필지조사, 분쟁지조사에 관해 순서대로 살펴본다. 준비조사단계는 읍면동을 답사하여 경계의 약도를 그리고, 토지신고서를 취합하며, 지방의 관습이나 경제 사정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1911년 4월 기준으로 과천군과 시흥군은 준비조사사업이 완료된 2부(인천부·대구부) 9군에 속했다. 일필지조사는 소유권조사, 분쟁지에 관한 조사, 개황도 작성, 실지조사부 작성, 수확량 조사, 지위등급조사 등을 조사 내용으로 정하였다. 작업 공정을 보면 시흥군은 4월 이전에 완료했으며, 과천군은 12월에는 완료하였다. 4월까지 신고서접수가 완료된 동수는 712곳이며 이후 12월까지는 1128곳이 추가되어, 총 1840곳이었다.²³ ‘구과천’ 지역의 5개 리는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사업’이 시작된 지역이었다.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시흥군·안산군·과천군에 대해 1910년 12월 15일까지 「토지조사법」 제5조에 의한 토지신고를 하도록 고시한 일자는 9월 15일이었다.²⁴ 그런데 실제로 ‘구과천’ 지역의 토지신고서가 처음 접수된 날은 1910년 3월 23일이고, 마지막으로 접수된 날은 1914년 7월 25일이었다. 이 동안 5000필지의 토지신고가 이루어졌다. 토지신고는 9월 말과 10월 초에 집중되었는데, 9월 22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전체 필지의 90%를 넘는 4523필지의 토지신고서가 접수되었다. 9월 22일 이전에 접수된 토지신고서는 24필지이며, 접수 마감일 12월 15일 이후에도 73필지의 토지신고서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9월 22일 이전에 접수된 24필지는 고시일 이전에 토지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그림 3〉 ‘구과천’지역 토지신고일별 필지수

며, 심지어 1910년 3월에 접수된 10필지는 「토지조사법」의 공포일보다도 빠르다. 이 24필지는 앞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명의 소유주가 각기 다른 날에 신고한 것이다. 이 중 4명은 다른 날짜에 신고한 필지도 있어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²⁵ ‘사업’ 시작 전에 신고서가 접수된 점은 이상하지만, 일단 토지신고서에 그 작성일을 적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석 달의 신고 기간 중 9월 말 10월 초에 신고가 집중된 것은 토지신고서 작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토지신고서는 결수연명부와 대조하도록 했는데, 그러한 대조를 위해서 토지신고서의 양식을 결수연명부와 유사하게 만들었다. 결수연명부는 행정 관아에 있었으므로, 토지신고서와 대조하는 작업은 관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토지신고서를 수합할 책임을 진 사람은 지주총대였고, 지주총대는 자신이 담당한 지역의 일필지조사에도 참여했으며, 이들이 토지신고서를 결수연명부를 토대로 작성했을 개연성도 있다.²⁶

마지막으로 1910년 12월 15일 이후 접수된 토지신고서에 대해 살펴본다. 이 73필지 중 국유지가 32개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이○○(서울) 11필, 안○○(서울) 8필지, 이○○(파주) 6필지, 유○○(서울) 5필지 등과 같은 부채지주의 소유 토지이다. 안○○의 토지 중 2필지는 앞서 『토지조사부』의 예시 그림에 있는 550-1번지와 550-2번지의 토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분쟁지였다가 자신의 소유지로 인정받아 다시 토지신고를 한 경우이다. 국유지가 아니면서도 신고기일을 넘긴 필지들은 전국에 토지가 산재한 부채지주가 기일을 넘겨 신고한 필지거나, 분쟁 등 여러 사유로 기일을 넘긴 경우라 할 수 있다.

〈표 3〉 분쟁지제출196호 결과에 따른 『토지조사부』 기재 변화

수정 전				수정 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주
550	5	7,497	갑	550.1	5	7,137	갑
				550.2	5	195	을
				550.3	5	165	을
551	1	1,248	을	551	1	1,248	갑
552	5	582	을	552	5	582	을

이제 ‘구과천’ 분쟁지조사에 대해 살펴본다. 분쟁지조사 대상 필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확인된 바 없으며, ‘구과천’ 지역도 마찬가지다. 다만 분쟁지조사가 이루어진 필지는 『토지조사부』의 적요란에 표시했는데, ‘구과천’ 지역에서는 앞의 『토지조사

부』 그림 예시에 있는 550.1~550.3번지 적요와 같이 ‘분쟁지제을(乙)196호’라고 기록된 필지로 모두 임야 9필 8만 7991평이 있었다.²⁷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3명인데 ‘갑-을’의 분쟁과 ‘갑-병’의 분쟁이다. 세 명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로 ‘구과천’ 지역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²⁸ 앞의 『토지조사부』 사례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뒷면에 흐릿한 글씨가 보이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은 종이를 덧붙인 것이다. 위 표에는 흐릿한 부분을 분쟁지 심사 이전, 즉 수정 전, 덧붙인 부분을 수정 후로 정리하였다. 이 사실은 ‘임시토지조사국정정인’이 번지와 주소 등 두 곳에 찍혀 있어 종이를 덧붙인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 표는 ‘갑-을’의 분쟁인데, 그 내용을 보면 550번지의 임야는 일필지조사에서는 ‘갑’의 임야로 조사했지만, 분쟁지 심사 과정에서 550.2번지와 550.3번지 합 360평이 ‘을’의 토지로 사정되었다.²⁹

‘갑’과 ‘병’의 분쟁 2필지는 7만 1348평에 달하는 큰 임야인데, 갑은 1910년 10월 3일, ‘병’은 1910년 9월 29일에 신고했다. 두 필지 모두 ‘임시토지조사국정정인’이라는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병’의 토지로 사정된 것으로 보인다. ‘갑-병’의 분쟁처럼 소유자가 바뀐 경우를 통상 소유권분쟁이라고 불렀으며, ‘갑-을’의 분쟁처럼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일부소유권분쟁이라고 불렀다.

이제 ‘구과천’ 지역의 사정 과정을 살펴본다. 안양지역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정일은 김포군과 함께 1914년 10월 23일로, 인천부 거류지를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빨랐다. 사정 결과는 19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간 공시했고,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11월 26일부터 다음 해 1월 24일까지 60일간 받았다.³⁰ 일필지조사가 이루어진 뒤 3년여가 지나 사정이 이루어진 것은 토지등급의 환산방법 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사정 결과에 대한 안양지역의 불복신청은 1915년 17호로 철도국장관이 서이면 안양리 278·280·281번지에 대해 제기한 건이 유일하다.³¹ 이처럼 안양 지역 ‘사업’에서는 소유권분쟁은 거의 없었고, 있는 경우도 임야이거나 철도용지 관련 토지였다. 경작지의 경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없었던 셈이다.

4.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이제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토지소유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조선 후기의 토지소유제도는 왕토사상에 근거를 두면서도 왕실 소유의 궁방전과 국가기관 소유의 아문둔전이 있으며, 그 이외의 토지는 민유지로 개인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일제는 ‘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인 일물일권적 소유권을 제도화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토지소유자를 명확히 밝혀 과세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광무양안』에는 토지소유자인 시주^{時主}와 토지경작자인 시작^{時作}이 공존하지만, 『토지조사부』에는 소유자만 기록했던 것도 이러한 소유제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토지 관련 장부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또 『토지조사부』나 『광무양안』에 나타난 토지소유구조에는 뚜렷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을까? 먼저 『광무양안』의 경우를 살펴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시주는 토지의 소유자, 시작은 토지의 경작자로 간주한다.³²

〈표 4〉 ‘구과천’ 『광무양안』의 경영형태별 필지수 및 면적

	필지수	결수(결)	면적(정보)	비율(%)		
				필지수	결수	면적
자작지	2,585	199.301	458.46	55.0	49.1	51.8
소작지	2,114	206.449	427.26	45.0	50.9	48.2
계	4,699	405.750	885.72	100	100	100

‘구과천’ 『광무양안』에는 총 4699필지³³의 경지 및 대지가 있었다. 이 중 대지는 834채 3970칸 규모였다. 시주와 시작의 이름이 같은 필지³⁴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 필지이므로 자작지이며, 그렇지 않은 토지는 소작지라 할 수 있다. 자작지는 2585필지로 필지수로는 55%로 소작지보다 많았으며 면적도 30여 정보 많았다. 반면 결수로는 소작지가 자작지보다 7결 정도 많았는데, 이는 시주와 시작이 다른 소작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결수, 즉 과세액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자작지의 시주는 총 935명이었다.

〈표 5〉 ‘구과천’ 『광무양안』의 시주·시작의 영농 형태

(단위: 명)

구분	시작			
	있음	없음	계	
시주	있음	949(자소작농)	162(지주)	1,111
	없음	717(순소작농)	0	717
	계	1,666	162	1,828

이제 4699필지의 경지를 소유자 및 경작자별로 분류하여 필지를 나누면 시주 또는 시작의 농업경영상의 지위를 알 수 있다. ‘구과천’ 『광무양안』에 기재된 시주 이름은 1111명이고, 시작 이름은 1666명이다. 시주 중에서 경작지가 없는 사람(즉 시작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지주라 할 수 있다. 한편, 시작 중에서 시주가 아닌 사람은 자기 소유지가 없는 사람이므로 순소작농이라 할 수 있다. 〈표 5〉는 이 기준에 따라 ‘구과천’ 『광무양안』의 시주·시작의 영농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양안에는 총 1828명이 등장하는데, 이 중 지주는 162명(8.9%)인 반면, 순소작농은 717명(39.2%)이었다. 시주와 시작에 동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949명(51.9%)인데, 이 중에는 자작농뿐만 아니라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포함할 것이므로 자소작농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농가유형별 보유필지수

보유필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합계
자작필지	481	142	104	53	40	26	22	19	14	11	27	939
지주	97	30	11	6	2	3		2	4	2	5	162
자소작농	330	142	114	100	54	43	34	26	22	26	58	949
순소작농	492	126	54	22	14	8		1				717

자작지와 소작지는 필지별 영농형태이며, 지주·자소작·순소작은 사람별 영농형태로 그 내용이 다르다. 특히 여기서 사용하는 ‘지주’라는 용어는 ‘구과천’ 지역에 국한해서 볼 때, 양안상 시주에는 이름이 있지만 시작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뿐이며, 지주-소작관계라고 표현할 때의 ‘지주’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필지별 영농형태인 자작필지부터 살펴본다. 시주와 시작이 동

일한 자작필지의 경우 1필지만 소유한 사람이 481명(51.2%)으로 절반이 넘으며, 3필지 이하 소유자도 77.4%에 이른다. 자작필지의 경작자들은 대체로 영세소농의 자영농임을 짐작할 수 있다.³⁵ 경영규모로 따진 자소작농(이들은 시주와 시작에 모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의 경우 1필지만 경작하는 사람이 330명(34.8%)으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3필지 이상 경작하는 사람의 비중은 모두 증가했다. 즉 자작지의 시주들보다 자소작농의 경영규모가 더 컸다는 의미인데, 바꿔 말하면 소유규모가 영세한 농민들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빌려서라도 경작규모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소유자 및 경작자를 기준으로 살펴본 영농형태별 경작지 현황

		인원수	필지수	결수 (결)	면적 (정보)	1인당 규모		
						필지수	결수(부)	면적(평)
시주 기준	지주	162	601	64.455	132.17	3.7	39.8	2,447.6
	자소작농	949	4,098	341.295	753.54	4.3	36.0	2,382.1
	계	1,111	4,699	405.750	885.72	4.2	36.5	2,391.7
시작 기준	자소작농	949	3,579	306.873	672.74	3.8	32.3	2,126.7
	순소작농	717	1,120	98.877	212.98	1.6	13.8	891.1
	계	1,666	4,699	405.750	885.72	2.8	24.4	1,594.9

비고: 1결=100부, 1정보=3000평=10000적으로 환산함.

이제 사람별(농가별) 영농형태에 대해 살펴보자. 자소작농의 영농규모는 시주 기준으로 파악할 때와 시작 기준으로 파악할 때는 차이가 있다. 시주 기준에서는 토지소유자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지주)을 제외한 반면, 시작 기준에서는 경작자 중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순소작농)을 제외했기 때문에 결수와 면적이 달라졌다. 〈표 7〉은 해당 기준에 따른 영농형태별 농가의 인원, 필지수, 결수 및 면적을 정리한 것이다.³⁶

구체적으로 보면 시주 기준으로 파악할 때 자소작농의 규모가 더 크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지주 또는 순소작농으로 분류된 농민들의 보유필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순지주는 162명인데 보유한 필지수는 601필지로 자소작농이 평균 보유필지수보다 작다. 1인당 면적은 자소작농보다 많지만 601필지 중 253필지가 균영둔토로, 이를 제외하면 자소작농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다.³⁷ 또한 162명 중 1필지만 소유한 사람이 97명(59.9%)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지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이는 시주로 기록된 인원이 사실상의 토지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음

을 뜻한다.

한편 순소작농은 1필지를 소유한 농가가 492명(68.6%)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3필지 이하의 경우는 672명(93.7%)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순소작농가의 영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8필지를 보유한 송○○은 2.4정보 0.952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필지가 하서면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경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소작농의 범주를 설정할 때 시주 기준보다는 시작 기준, 즉 경작지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표 8〉 농가유형별 경작규모별 현황

	소유 경작 규모	인원	필지수	결수 (결)	면적 (정보)	비중			
						인원	필지	결수	면적
자작 필지	0.3정보 미만	529	720	27.951	68.74	56.3	27.9	14	15
	1정보 미만	289	880	64.417	151.6	30.8	34	32.3	33.1
	3정보 미만	105	748	77.714	175.28	11.2	28.9	39	38.2
	3정보 이상	16	237	29.219	62.84	1.7	9.2	14.7	13.7
	합계	939	2585	199.301	458.46	100	100	100	100
시주	0.3정보 미만	75	85	5.954	12.85	46.3	14.1	9.2	9.7
	1정보 미만	67	136	16.479	35.68	41.4	22.6	25.6	27
	3정보 미만	15	115	12.94	27.01	9.3	19.1	20.1	20.4
	3정보 이상	5	265	29.082	56.64	3.1	44.1	45.1	42.9
	합계	162	601	64.455	132.17	100	100	100	100
자소 작농	0.3정보 미만	393	580	21.77	51.31	41.4	16.2	7.1	7.6
	1정보 미만	337	1135	84.597	191.58	35.5	31.7	27.6	28.5
	3정보 미만	193	1489	150.753	325.88	20.3	41.6	49.1	48.4
	3정보 이상	26	375	49.753	103.96	2.7	10.5	16.2	15.5
	합계	949	3579	306.873	672.74	100	100	100	100
순소 작농	0.3정보 미만	471	561	22.688	47.78	65.7	50.1	22.9	22.4
	1정보 미만	204	406	48.473	105.07	28.5	36.3	49	49.3
	3정보 미만	41	149	25.696	56.28	5.7	13.3	26	26.4
	3정보 이상	1	4	2.02	3.85	0.1	0.4	2	1.8
	합계	717	1120	98.877	212.98	100	100	100	100

이제 영농형태별 농가의 경작지 규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표 8>에서 자소작농의 경우 시작 기준의 통계를 이용하였으므로 경작규모이다. 순소작농의 경우는 당연히 경작규모이고, 자작필지의 경우는 소유규모와 경작규모가 일치하므로 경작규모인 셈이다. 다만 지주의 경우는 경작지가 없으므로 소유규모인데, 3정보 이상 지주 5명 중 3명은 둔토이다. 말하자면 ‘지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구과천’ 광무양안의 ‘지주’는 사실상 지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⁸

경작규모는 통상 0.3정보 미만은 영세농, 1정보 미만은 소농, 3정보 미만은 중농, 그 이상은 대농으로 분류하므로, 이 기준에 따라 자작농지, 소자작농가, 순소작농가의 영농 규모를 비교해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작농지의 경우는 영세농가의 경우 실제 자작지일 가능성이 많지만, 10필지 이상 자작필지의 시주가 실제 경작자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소작농의 경우 0.3정보 미만을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 자작농지에 비해 자소작농의 경작지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작 능력에 비해 소유지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소작농의 경우 경지면적의 비중은 중농, 소농 순인 반면, 순소작농의 경우는 소농, 중농 순이었다. 영세 경작농가의 경작면적의 비중은 순소작농의 경우 22.4%였지만, 자소작농의 경우는 7.5%로 큰 차이가 있다. 순소작 농가 1인당 경작면적은 0.3정보로 영세농 수준이었던 반면, 자소작농의 1호당 경작면적은 0.7정보로 소농 수준이었다. 무토 지소유농이었던 순소작농의 경우 소작지를 얻는 데에도 불리한 처지에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다.

<표 9> 리별 지목별 필수 및 면적

(단위: 필지·정보)

지목	비산리		안양리		평촌리		관양리		호계리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전	382	93.6	659	285.9	322	99.3	561	143.7	379	101.5	2,303	724
답	339	112.2	248	79.6	372	142.7	600	199.2	346	126.6	1,905	660.4
대	68	11.3	141	15.5	84	12.2	104	13.8	59	8.8	456	61.7
임야	14	10.7	96	70.2	85	57.3	32	11	77	56.8	304	205.9
잡종지			4	2.2							4	2.2
분묘지	5	0.7	7	1.8	4	0.2	6	0.5	5	0.3	27	3.6
철도용지			1	4.7							1	4.7
총합계	808	228.5	1,156	459.9	867	311.8	1,303	368.3	866	294	5,000	1,662.4

이제 ‘사업’의 결과 확정된 소유자에 대해 살펴본다.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토지소유자의 이름은 민적부³⁹에 기재된 이름이어야 했으며,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필지의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록되었다. <표 9>에는 ‘구과천’ 지역 5개 리의 『토지조사부』의 지목별 필수 및 면적을 정리하였다. 경지로는 전이 답보다 많았는데, 안양리·비산리는 전의 비중이, 다른 리는 답의 비중이 높았다.

<표 10>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의 필지수·결수·면적 비교

지목	광무양안			토지조사부	
	필지	결수(결)	면적(정보)	필지	면적(정보)
전	2,044	141.608	375.2	2,303	724.0
답	1,821	250.831	491.6	1,905	660.4
대	834	13.311	18.9	456	61.7
총합계	4,699	405.750	885.7	4,664	1,446.1

‘구과천’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를 비교하면 행정구역상으로는 겹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광무양안』은 경지(대지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양자를 비교할 때는 경지와 대지만 추려 분석한다. 먼저 두 장부의 필지수는 거의 비슷했다.⁴⁰ 광무양전의 필지와 지적도 사이에는 매우 강한 대응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⁴¹ 필지수가 유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답 필지수는 유사하지만, 전과 대지 필지수는 차이가 있다.⁴² 양전 당시에는 대지에 부속된 텃밭을 대지에 포함시켰는데, ‘사업’에서는 경지와 대지의 과세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지는 대지와 분리했을 가능성이 높다.⁴³

그런데 면적의 경우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사업’의 결과 전국의 경지는 애초 결수로부터 추산한 면적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했는데,⁴⁴ ‘구과천’ 『토지조사부』의 면적은 『광무양안』의 척수로부터 추산한 면적의 1.6배였다. 이로부터 ‘구과천’ 양안에서도 결수의 과소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에 관해 살펴본다. 『광무양안』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 분석을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구과천’ 지역에는 총 15필지의 공유지가 있으며, 이 토지를 공유자 지분별로 쪼갬 뒤 소유자별 소유면적을 구하였다. 그 결과 23필지가 증가했다.

〈표 11〉 리별 소유주 주소별 필지수

	비산	안양	평촌	관양	호계	계
동리	434	363	380	704	297	2,178
동면	9	10	19	7	10	55
동군	25	68	44	123	49	309
타군	345	715	428	469	524	2,481
계	813	1,156	871	1,303	880	5,023

『토지조사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식별하는 지표로 지주의 거주지를 사용한다. 〈표 11〉에는 리별로 소유자 거주지별 필지수를 정리했다. ‘동리’는 같은 동리에 사는 사람으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지가 공란인 사람이다. ‘동면’으로 분류된 지주는 주소지에 리·동명이 기재된 사람이며, ‘동군’은 면단위까지 기재된 사람이다. ‘타군’은 거주지가 과천군이 아닌 사람으로 사실상 부재지주로 보아도 무방하다. 총필지의 절반이 타군으로 분류된 부재지주의 소유지라는 점에서 앞선 『광무양안』 분석에 나타난 지주제의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동면이나 동리로 분류된 필지의 소유자 중에서도 지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과천’ 지역의 지주-소작관계는 훨씬 광범했을 것이다.

〈표 12〉 『토지조사부』 소유자의 경지 및 대지 소유규모별 소유자수 및 소유면적

면적규모	소유자수(명)					소유면적(정보)				
	동리	동면	동군	타군	계	동리	동면	동군	타군	계
0.3정보 미만	127	3	38	33	201	17.2	0.5	5.1	5.1	27.8
1정보 미만	138	10	21	76	245	76.9	6.5	10.9	42.5	136.8
3정보 미만	101	1	12	36	150	177.7	2.4	20.7	60.1	260.9
3정보 이상	39		5	50	94	195.5	0	25.8	799.1	1020.5
합계	405	14	76	195	690	467.4	9.4	62.5	906.8	1446.1

이제 『광무양안』의 시주와 비교 분석을 위해 『토지조사부』 필지 중 경지와 대지에 해당하는 필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수와 소유면적을 조사한다. 〈표 12〉는 그 결과이다. 『토지조사부』상의 경지 및 대지 소유자는 690명인데, 영세농은 201명(29.1%)이고, 소농은 245명(35.5%)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소유면적은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서 영세농은 전체 경지의 1.9%의 토지만 보유한 반면, 3정보 이상의 대농이 전체 토지

의 70.6%를 소유하고 있었다. 면적 규모로 살펴본다면 ‘구과천’ 지역에는 이미 지주-소작관계가 대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광무양안』 시주와 『토지조사부』 토지소유자의 토지 소유 규모별 분포

면적규모	광무양안		토지조사부	
	시주수	면적	소유자수	면적
0.3정보 미만	577	77.6	201	27.8
1정보 미만	350	186.9	245	136.8
3정보 미만	131	228.2	150	260.9
3정보 이상	53	393	94	1020.5
합계	1111	885.7	690	1446.1

〈표 13〉은 『광무양안』 시주와 『토지조사부』 토지소유자의 토지 소유 규모별 분포를 요약한 것이다. 두 조사 시점 사이에 10여 년밖에 격차가 나지 않았음에도 시주 수에 비해 소유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 이는 『광무양안』에 기록된 시주가 그 토지의 실제 소유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광무양안』에서는 소유주의 실명 대신 호명을 사용함으로써 면적규모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⁴⁵ 『토지조사부』에서는 민적에 등록된 이름으로 실제 소유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토지소유규모의 불평등이 현저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양안상의 시주 1111명과 『토지조사부』 소유주 690명을 비교한 결과 두 장부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름은 71명(일치율 6.4%)이고, 시작인까지 포함한 1828명과 일치하는 이름은 95명(일치율 5.2%)이었다. ‘구과천’ 『광무양안』에 기록된 지심인은 47명인데, 그중 『토지조사부』의 소유자인 사람은 6명(일치율 12.8%)이었다.⁴⁶ 시주의 명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적부상의 실제 이름과 다르게 표기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석 결과이다.

이 절의 논의는 시주=토지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주에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소유규모를 따져볼 때 사실상 지주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역둔토를 제외하면 2명 남짓에 불과하였다. 반면 『토지조사부』의 토지소유자를 살펴보면 3정보 이상 소유한 농가가 전체 토지의 70.6%로 이미 지주-소작관계가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와 시주명이 겹치는 사람도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양안상에 기재된 명칭은 실명이 아닌 호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기존 연구에

서 지적인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작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소작농의 경우 자작지 외에 별도의 소작지를 확보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전 계층에서 확인되었고, 소작지 확보 측면에서는 순소작농보다 자소작농이 유리했음도 관찰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조사부』의 국유지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말했듯 ‘사업’의 국유지는 을미사판^{乙未查辦}·광무사검^{光武查檢}·역둔토실지조사^{驛屯土地調查}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둔토조사과정의 산물이다. ‘구과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애초 역토의 관리권자인 농상공부가 시작한 을미사판은 1896년 둔토로 확대되었다가 1897년 군부로 이관되었다. 수원지방대가 조사한 둔토 목록에는 과천의 장위영, 충훈부, 내수사, 수어영, 노량진 등의 둔토가 있고, 징수권자의 경우 내수사둔은 감관^{監官}이, 나머지는 궁내부 소관으로 기록했다.⁴⁷

1899년 궁내부는 모든 둔토를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새로운 도조를 책정하는 광무사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경기정간책』에 기록하였는데, 장둔^{壯屯}, 안양둔^{安養屯}, 친둔, 훈둔 등의 도조액수를 기록했다. 이 토지의 도조는 1900년 9월 24일에 모두 의친왕부로 귀속되었다.⁴⁸

역둔토실지조사는 역둔토에 대해 실제 작인과 도조액을 조사하는 작업으로 1909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그 결과 작성된 「국유지대장」은 ‘구과천’지역의 것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직후에 ‘사업’의 일필지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토지조사부』의 국유지는 역둔토실지조사의 결과를 반영했을 것이다. <표 14>는 『국유지조사서초』를 바탕으로 ‘구과천’양안에 등장한 역둔토의 기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4> 규장각 자료 및 『국유지조사서초』에서 확인된 ‘구과천’지역 역둔토 현황

시주명	필지수	면적(정보)	결수(결)	기원
관둔	1	0.1	0.031	관둔
노량둔	27	3.8	1.962	노량진둔, 현재 없음
양향둔	2	0.6	0.365	친둔
장둔	23	9.0	4.596	장용영 폐지 후 노량진 이속
소계	53	13.5	6.954	
수어둔	202	35.6	17.799	
효릉위	9	3.3	1.874	기록 없음
합계	264	52.4	26.627	

수어둔토와 효릉위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과천 소재 둔토와 위토가 없다. 수어청은 정조 사후 폐지되었는데, 광무사검에서 옛 기록에 의거 일시 속공(屬公)되었다가 ‘사업’에서는 다시 민유지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없는 것으로 기록된 노량둔을 제외하면 양향둔과 장용영 둔토는 의친왕부 소속이었는데, 왕실 기관 소속 토지들은 모두 국유로 한다는 조치⁴⁹에 의해 국유지로 사정되었다. 『토지조사부』의 국유지는 42필지 18.7정보지만 임야와 철도용지를 제외하면 30필지 10.9정보이다. 관둔을 포함하면 『광무양안』상 27필지 9.7정보에 해당하는 필지가 ‘사업’에서 국유지로 사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 조석근,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 2 이 글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무양전을 둘러싼 학계의 오랜 논쟁을 소개한다.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전사업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이영훈은 토지 소유자를 임시 소유자라는 의미의 시주時主라 표현한 것은 왕토사상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의 양전사업과 그 본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영훈, 『광무양전에 있어서 〈시주〉 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한편 왕현중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작자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경자양전까지의 조선시대 양전과 다른 특징을 보이며, 토지의 소유자만을 기록한 ‘사업’은 오히려 그러한 발전 과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왕현중,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 지주와 농민의 등재 기록과 변화』, 해안, 2016). 하지만 김건태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면서, 광무양안을 조선시대의 양안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다(김건태, 『대한제국의 양전』, 경인문화사, 2018).
- 3 ‘구과천’ 안양지역은 서이면 일동리(현 동안구 관왕동 부림동), 비산리(동안구 비산동 부흥동 달안동), 안양리(만안구 안양동), 호계리(동안구 호계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이동리(동안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등 5개 리였다.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64쪽; 차선혜, 『한말 안양지역의 사회변화』, 『안양시사』 1, 안양시, 2008, 215쪽.
- 4 전결세 수취방법은 1690년대에 들어와 답험순실에서 비총제로 변하기 시작하여 1700년부터 계속 실시하였고, 1760년에 법제화되었다. 송찬섭, 『숙종대 재정 추이와 경자양전』,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 후기 경자양전 연구』, 해안, 2008, 268쪽.
- 5 宮嶋博史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용례로서 전국단위의 양전을 대거양전, 음양전과 사진양전査陳量田을 추산양전이라고 불렀다.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の研究』,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91, 42쪽.
- 6 경자양전에서 토지 형상은 5개(정사각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사다리꼴)로 표현했지만, 『광무양안』에는 원, 활꼴, 타원, 소불 등과 같은 훨씬 다양한 모양이 포함되었다. ‘구과천’ 『광무양안』에는 복합 형상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형상이 표시되었다.
- 7 왕현중, 앞의 책, 217쪽.
- 8 아초 작성에 사용된 날짜는 윤달이 표시되었기 때문에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했다. 중초양안의 날짜는 10월 31일도 표시되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간주하여 변환하지 않았다.
- 9 1결은 100부이며, 1부는 10속이다. 따라서 173.915결은 조선시대 표현식은 173결 91부 5속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소수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 10 척수와 등급별 결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등급 토지의 경우는 1만 척이 1결이며, 이하 등급이 내려갈수록 결수를 0.15결씩 낮춘다. 2등급 토지는 1만 척은 0.85결이며, 3등급은 0.7결, 4등급은 0.55결, 5등급은 0.4결, 6등급 토지는 0.25결이다. 즉 등급의 숫자가 클수록 척박한 토지이다. 1등급 토지 1결은 약 3000평(1정보)에 해당하는데, 만일 6등급 토지라면 네 배인 1만 2000평이 되어야 1결의 토지가 된다.
- 11 과천군 상서면 및 하서면 양안에서 발견된 계산상 착오는 두 건이었다. 첫째, 기불자 22번은 두 직사각형의 면적을 합하면 5379척이다. 여기에 5등급 환산비율인 0.4결을 곱해주면 결수는 0.215결이어야 하는데 0.115결로 기록했다. 양안의 최종 합계에도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교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둘째, 하서상 담談자의 결수 합은 2.274결인데 2.273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서상 면적 합계에서는 올바른 합계인 2.274결로 계산하였다. 결수 합을 수정할 때는 부전지附添紙를 사용하는데, 아마 그 부전지가 망실되었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이를 제외하면 착오가 없을 정도로 양안은 정확하게 작성된 장부였다.
- 12 1만 척은 1정보에 해당하며, 1정보는 0.9917ha로 대략 1ha에 근사하다.
- 13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 1쪽.
- 14 민적은 1909년 「민적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1922년 「조선후척령」에 의해 호적으로 대체되었다. 민적조사사업은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토지조사부』 작성의 기초가 된 토지신고서의 신고인은 민적에 기록된 성명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15 결수연명부는 1909년부터 작성되어 1918년 「지세령」이 시행될 때까지 지세 부과를 위한 장부로 사용되었다.
- 16 이는 토지조사 이전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관계는 ‘사정’에 의해 일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며,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
- 17 절수折收란 어떤 토지의 세금을 특정 관청 또는 궁방에 떼어 주는 행위이다. 해당 기관에 준 액수만큼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행위이다.
- 18 ‘사업’ 이전에 을미사판乙未査辦-광무사검光武査檢-역둔토실지조사驛屯土實地調査와 같은 다양한 국유지 조사가 있었다. 조석근,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107~130쪽.
- 19 조석근, 위의 책, 132쪽.
- 20 ‘사업’의 주요 사업 중 지가조사는 토지등급을 조사하여 그것으로부터 필지별 지가를 정하는 조사였다. 1918년에 제정된 「지세령」에서는 지가의 1.3%를 지세로 내도록 했다. 지가조사의 결과는 『토지대장』의 토지등급과 지가란에 기재하였다. 『토지대장』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별도의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 글에서는 소유권조사 과정에 국한한다.
- 21 좀 더 이후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부』 양식을 보면 가지번과 토지 신고일을 적을 수 있도록 별도의 칸을 만들었다. 필지별 칸은 지적, 지목, 가지번, 면적, 신고 또는 통지일,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적요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적요란에는 분쟁 관련 기록이나 중재재판 관련 정보 등과 같은 필지별 특수사항을 적도록 하였다.
- 22 일필지조사에 대해서는 조석근, 앞의 책, 57~79쪽에 자세히 다룬다.
- 23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朝鮮土地調査事業現況報告書』, 1911.6-12.
- 24 『조선총독부관보』, 토지조사국고시 제5호, 1910.9.15.
- 25 문○○은 경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전 3필지 2002평을 1910년 3월 23일에 신고했으며, 일동리-洞里 명의로 6필지 1762평이 1910년 3월 29일에 신고되었는데, 그 지목은 전 3필

- 지(1279평), 대지 1필지(80평), 분묘지 2필지(403평)로 그 구성이 위도와 유사했다. 그리고는 9월에 들어서 3일 조○○ 2필지, 8일 최○○ 3필지, 9일 橋忠雄 1필지, 10일 오○○ 9필지 등의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橋忠雄은 '구과천' 지역 유일한 일본인이다.
- 26 이렇게 가정할 경우 10월 3일 이후 토지신고서 접수가 뜸했다가 10월 10일 다시 폭증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토지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즉 결수연명부와 실제 토지소유자에 차이가 있는 필지들에 대해 이 일주일 동안 조사 및 조정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를 10월 10일에 한꺼번에 토지신고서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 27 9필지 모두 분쟁지 관련 표시가 두 줄로 그려진 것은 다른 지역의 『토지조사부』와 다르다.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분쟁지 심사가 종결되어 『토지조사부』의 수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웠거나,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화해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인지는 확연히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28 '구과천' 지역에 '갑'이 소유한 토지는 265필지 46만 6404평, '을'은 215필지 35만 2725평, '병'은 15필지 8만 1089평이었다.
- 29 그 덧붙인 종이 때문에 복사된 『토지조사부』에서는 551번지와 552번지가 없다. 그 결과 『토지조사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면 전 1248평, 임야 582평이 부족하는데, 이 면적은 551번지 및 552번지의 면적과 동일하다.
- 30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 417쪽.
- 31 지적원도를 보면 철도와 세 필지 모두 철도와 인접한 필지로 소유권분쟁이라기보다는 일부소유권분쟁일 가능성이 높다. 철도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철도국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32 『광무양안』에 나타난 시주 또는 시작의 성격을 둘러싸고 앞에 있는 '시륙'의 의미에 관해 '임시'라는 주장과 '현재'라는 주장의 공존한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왕도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후자는 현재의 소유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 33 이 수치는 실제 양안상의 필지수보다 많다. 구과천지역 양안에는 한 필지에 다수의 시작 성명이 있었는데, 시주 및 시작의 규모를 사람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필지를 분할해서 집계해야 했기 때문이다. 단 분할과정에서 면적과 결수의 합은 같게 조정하였다.
- 34 이 경우 앞의 『광무양안』 사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였다.
- 35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한 조○봉은 28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가 시주로 등록한 필지는 56필지였다. 나머지 28필지는 시작 이름이 다른데 그가 받은 직영하고 나머지는 소작을 준 자소작농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 36 물론 어느 기준으로든 지주와 순소작농은 동일하다.
- 37 11필 이상 보유한 5명은 각각 15, 19, 24, 27, 202 필지를 보유했는데, 이중 20필지 이상의 소유자가 장용영돈, 노량진돈, 수어돈 등 돈토로서 253필지이다.
- 38 나머지 2명 중 한 사람인 반○○의 경우 6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4필지의 소작인이 김○○인데, 그는 순소작인 중 유일하게 경작지 규모가 3정보를 넘은 시작인이다.
- 39 민적은 지금의 호적과 유사한 장부이다.
- 40 『토지조사부』의 총필지는 5000필지지만, 양안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잡종지·분묘지·철도용지는 배제하고 분석한다.
- 41 김건태, 앞의 책에는 이에 관한 다양한 지역의 실증 사례들이 있다.
- 42 경지는 수확량 등급이, 시가지 이외의 대지는 임대가격이 과세 기준이었다. 조석곤, 앞의 책, 311쪽.
- 43 대지의 수가 감소한 것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양안 분석의 편의상 한 시주의 대지에 여러 시작이 거주할 경우 별도의 대지로 나눈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필된 필지가 70필지였다.
- 44 조석곤,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주제」, 『한국사』 13, 한길사, 1994, 230쪽.
- 45 이영훈, 앞의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양안에 호명戶名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앞의 상서면 『광무양안』 사례 그림에 보이는 오윤남과 오소윤남이라는 이름은 실명이 아닌 호명의 전형적인 예이다.
- 46 표본이 작아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심인에서 일치율이 높은 것은 굳이 실명을 대륙代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토지소유자인 지심인 6명의 소유규모는 3명은 4정보 이상 소유자지만, 다른 3명은 1정보 미만이고, 차○○는 1단보에 불과했다. 지심인 중에는 실제 토지 없는 농민도 있었을 것이다.
- 47 규19550, 『京畿道各郡所在各屯土調査成冊』, 1897.10.
- 48 규18185, 『京畿井閘冊』, 1899. 이 자료는 1899~1903년간 도조역 징수상황을 바둑판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규19112, 『各道各郡井閘』은 1904년 이후의 사정을 보여주는데, 과천군의 경우 위둔도들은 사라졌고, 양재역과 제언답이 기록되었는데 이 토지들은 '구과천' 지역에 속하지 않았다.
- 49 1908년 6월 「국내부 소관 및 경선공 소속 재산의 이속과 제실 채무의 정리에 관한 건」에 의거 해당 재산들은 모두 국유지가 되었다. 조석곤, 앞의 책, 123쪽.

3장

안양지역의 민족운동



김기영 위례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1.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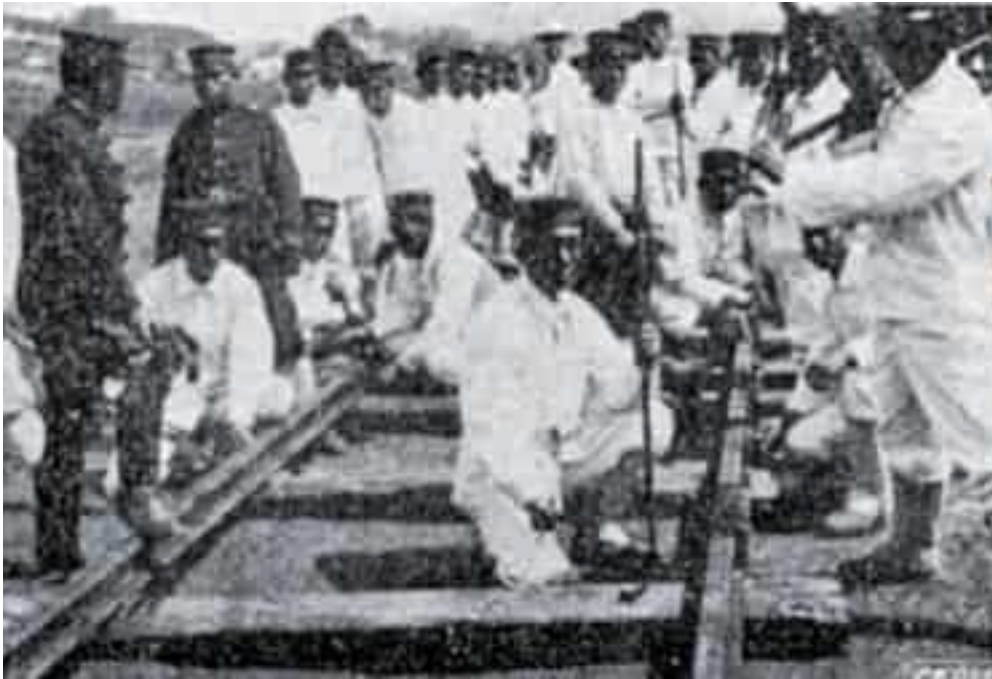
1) 일제의 횡포와 농민봉기

1898년 8월 23일에 발생한 안양지역의 제1차 농민봉기는 봉건체제 아래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농민들이 기존체제에 대한 항거와 저항의 형태로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므로 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1904년 9월 14일에 대규모로 발생한 제2차 농민봉기는 그 계기가 경부선 철도부설권을 이미 차지한 일본이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병참기지의 철도부설을 위해 역부(役夫)의 강제모집을 조선 정부에 요구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철도는 근대 산업사회를 형성·발전시키는 데 불가결한 요소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체 산업발달을 위한 내적 요구에서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화를 위한 침략 과정에서 부설·운영됨으로써 지배와 수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¹

이에 앞서 경기도 시흥군(지금의 광명시)에서는 1901년 9월 1일 경부선의 일부 구간인 영등포~수원 사이의 공사가 착수되면서, 그 과정에서 역부의 저렴한 임금과 철도 부지의 무상 수용에 저항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대규모 봉기의 불씨가 이미 전부터 싹트고 있었음을 뜻한다. 1904년 일본은 조선 정부를 압박해 러일전쟁 수행에 필요한 한국인 역부를 강제로 동원하고자 하였다. 당시 시흥군에는 80명의 역부가 배정되었는데, 이에 군수는 각 면의 집강(執綱)들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역부 모집의 부당성을 주장, 즉각 중지를 요구하였다. 결국, 군수는 이러한 상황을 경기도 관찰부에 보고하였고, 관찰부는 군의 사정을 참작하여 30여 명의



일제의 철도부설

역부만 충원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압력을 받은 내부에서 또다시 21명의 역부를 다시 충원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농민들의 반항을 예상한 집강들이 피신하면서 관에서 직접 역부의 강제 모집을 계획하게 된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향회를 열어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만일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으로 옮길 것을 결의하게 된다.

관에서의 역부의 강제 모집 계획이 알려지자 집강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은 이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8월 중순부터 퇴직한 관리인 김원록金元祿에게 역부 모집에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황성신문』에 투고하도록 하였다. 김원록은 전前 주사主事 남중희南重熙의 대필로 작성된 원고를 마침 채무 관계로 읍내에 와 있던 이기춘李奇春에게 신문사에 전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이기춘은 이를 다시 읍내의 이명수李明秀를 만나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명수는 원고의 내용이 역부 모집의 부당성과 시행을 둘러싼 관아의 비리에 관한 투서임을 알고 관아에 밀고하였다. 결국, 9월 10일 김원록은 순교청, 남중희는 경무청에 각기 수감된다. 9월 13일 신문 투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집강들은 읍내의 한천교寒川橋에서 집회를 갖는 통문을 발송한다.

9월 14일 11시경 읍내의 한천교에는 각 면리(面里)에서 온 수천 명의 농민들이 운집하였고, 집강 성우경(成禹慶)의 사회로 집회가 시작되었다. 오후 3시경 각 집강들이 농민들을 이끌고 관아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관아의 아전과 하인들은 미리 도망했고, 이미 대기하였던 30여 명의 일본인이 관문을 폐쇄하고 칼을 휘둘러 농민들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일제히 돌을 던지고, 관문을 파괴하고 관아로 돌진해 들어갔다. 난입한 농민들은 군옥(郡獄)을 파괴하여 김원록 등의 죄수를 풀어주는 한편 관아와 집기와 비품들을 모두 파괴하였다. 또한, 역부 모집에 앞장선 수서기 이종렬, 사령 김영학의 집과 집기를 파괴하였다.

농민들이 관아로 난입하는 과정에서 군수 박우양과 그의 아들이 돌에 맞아 사망했고, 관아를 보호하던 일본인 중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또한, 농민 측에도 피해가 커서 남면 광명리 민금석 외 다수가 일본인에 의해 다쳤다. 사태가 다급해지자 경기도 관찰부에서 다수의 순검을 파견하여 농민들이 해산하게 되었다.

9월 15일 경기관찰사는 2차 시흥 농민봉기의 개요를 외부대신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의정부 참정 신기선은 관찰사의 보고를 상주하였다. 한편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공사 하야시는 당시 동대문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후비대(後備隊) 200명을 급파했고, 진상 조사를 위해 경부(警部)와 순사 3명, 그리고 헌병 장교의 인솔 아래 헌병 5명을 파견하였다. 일본군 후비대는 7, 8명 또는 10명을 한 조로 편성하여 군내의 마을을 순행하였는데, 특히 현지 거주 일본인을 앞세워 집강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하여 군사령부로 압송하였다. 읍내의 감시가 엄중해지자 집강들은 남면 광명리에 모여 집회의 정당성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여 역부 모집 중지 요청을 관찰부에 탄원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청원서를 관찰부에 제출하기로 한 최영선(崔永先)이 도중에 체포되면서 실패하였다. 9월 16일 정부는 안핵사 안중덕을 현지에 파견,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였다. 안중덕은 민란의 주창자는 퇴직한 관리 김원록이고, 군수 살해 책임자는 집강 성우경과 초군(樵軍) 하주명(河周明)으로 결론지었다. 10월 26일 평리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김원록은 변란죄로 사형, 성우경과 하주명은 협박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이 선고되었다. 김원록은 바로 교수형에 처했고, 성우경과 하주명은 각각 15년형과 1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한편 일본공사는 일본인 사망자 2명, 부상자 4명에 대한 진흙금(賑恤金)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3,232원을 일본 공사관을 통해 지급하였다.

제2차 시흥 농민봉기는 일본인의 역부 강제 모집과 지방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발생한 저항 운동으로, 일제의 침략과 관련한 시흥 군민의 항일 의식이 강하게 표

출된 사건이다. 특히 향회를 개최하여 향촌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농민 의식의 성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향회의 집회 과정에서 공동체의 강제력을 발휘하여 동원 체제의 실효성을 달성하였고, 각 면의 집강들을 통해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역부 모집의 부당성을 『황성신문』을 통해 대외에 알리고자 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 근대 농민 운동사에서 최초로 시도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시흥 농민봉기 당시 집회 시에 농민들에게 연설하기도 하였고, 농민항쟁의 대표적인 주모자로 지목되어 형을 선고받았던 하주명은 당시 안양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활동은 높이 평가할 만하였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영홍(河泳弘)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 263 삼막골(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하진찬(河鎭瓚)의 아들로 태어났다. 시흥 농민봉기 후에 감옥에서 병을 얻은 그는 출소한 후 삼막사에서 요양하다가 1915년 별세하였다.²

2) 을사늑약과 원태우 의거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각각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태프트-가쓰라 각서, 8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 9월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교환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권을 승인받자 청국을 공략했다.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략의 목적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조선에 파견하여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위협하고 각 부의 대신 등을 협박하거나 매수하여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고, 드디어 이른바 ‘을사오적’의 찬성을 얻어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에 강제적으로 조약을 통과시켰다.³

이 조약의 공식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다. 과거에는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強壓性)⁴이 인정되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투쟁도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졌는데 안양에서는 1905년 11월 22일 을사늑약을 강제한 칙령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려는 의거가 있었다. 안양



을사늑약 체결 기념사진(1905년)

리(당시 과천군 하서면, 현재 만안구 안양1동)에 거주하던 원태우(元泰祐, 1882~1951)⁵는 서리재 고개 부근에서 이토가 수원 지방에서 열차를 타고 안양을 거쳐 귀경하던 이토를 향하여 돌맹이를 던졌다. 창문이 부서지면서 돌맹이가 이토의 얼굴을 조금 스쳤고 유리 파편이 얼굴 부위에 상처를 내었으나 이토를 죽이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원태우는 철도방해죄로 두 달간 감금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뒤에 풀려나왔다. 원태우는 1882년 3월 4일 경기도 과천시 하서면 안양리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농민 신분이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애국심과 의기는 무척 투철했다고 한다. 을사늑약에 분노한 그는 최초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결심했으며 이토 히로부미에게 찜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히는 항거를 했다. 그때가 그의 나이 23살의 일이었다.

이 의거는 국내 신문은 물론 일본 신문에도 신속히 보도되는 등⁶ 열도를 흔들여 놓았고, 원태우 지사는 일본 군경에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했으며, 당시 한국주차군 군율 규정 위반으로 금고 2개월에 곤장 100대에 처했다. 그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여름에도 긴팔과 긴바지를 입어야 할 정도로 흉터가 남았다고 한다. 고문 후유증과 일제의 집중감시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1945년 광복을 살



원태우의 투석 장면 삽화

아서 맞이하였으나 몇 년 후에 사망하였다. 학자이자 애국지사였던 송상도(宋相燾, 1871~1946)는 그의 저서에서, 이 의거에 대해 원태우를 안중근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안중근은 이토를 죽였고, 태근은 이토를 죽이지 못했다. 중근과 태근 중 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 성공한 것으로 보면 안중근이 김태근보다 현명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의 탄환에 의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꼬투리는 이미 김태근의 돌멩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겠다.⁷

원태우 지사의 의거는 비록 안중근 의사의 의거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국인의 강인한 독립 의지와 저항 정신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⁸에 의하면 원태우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 김명섭은 첫째는 현재의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기재된 '원태근'은 사실과 다르며 이명도 잘못된 것이며, 원태우를 농촌 출신의 농민이나 학식 없는 낱팜팔이 노동자로 비하하는 일본의 기록은 객관적 근거가 아니고 유생이라는 후손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으며, 더욱이 사망

일도 1950년 6월 25일이 아닌 1951년 7월 22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토 히로부미 응징 의거 이후 원태우를 처음 조사한 일본 헌병대는 그를 ‘원태근, 20세’로 잘못 기술해 역사 왜곡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토 대사는 원태우의 의거를 ‘술 취한 자의 장난’으로 고의가 아니라며 변호하여 감금 2개월과 태형 100대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한국민의 또 다른 저항을 두려워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을사늑약에 대한 또 다른 분노와 저항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이토 대사는 정식 조사나 재판과정 없이 헌병대 조사만으로 축소·은폐하면서 일체의 언론 보도를 통제하였고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도록 했지만, 일본은 2개월 동안 온몸에 고문을 가해 흉터를 남겼으며, 특히 성기 고문을 가해 성불구자가 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송상도의 『기려수필』 표지

넷째, 고문 흉터와 성불구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원태우는 혼인을 약속한 처자와 결혼하였고, 생업을 구할 수 없었던 원태우는 석수장이의 일을 도우며 살면서 만형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아 후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자료와 후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는 김명섭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훈록 등 잘못된 기록들이 정정되어야 하며 또한 조각상을 비롯한 원태우의 기념물들도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양지역의 의병 활동

우리 역사에서 의병義兵은 주로 정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을 뜻하는 말로써 창의군倡義軍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우리의 역사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외적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무장 조직을 의병이라 하였으며, 한말 대한제국 시기의 의병 역시 이러한 흐름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들은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에 대항하여 일어난 의병은 1895년의 을미의병과 1905년 이



대한제국 기병대 모습

후의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대표적이다. 1895년 의병은 흔히 을미乙未의병이라 하며 지방의 명망 있는 유생을 중심으로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에 반발하여 일어난 것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권 회복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고 전국 각지에서 다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를 을사乙巳의병이라 한다. 그리고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한 후에 상당수의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였는데 이를 정미丁未의병이라 한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의병투쟁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일제와 매국노들에 대한 죄상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되었고, 나아가 시위는 폭동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1일에 서울의 군인들은 군대해산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격렬한 시가전을 감행하였다. 이 영향은 지방에도 파급되어 지방군인들이 잇달아 봉기하여 의병에 합류하거나 의병을 조직하였다.⁹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이후 의병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안양 일대에서도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07년 9월 초에는 경부선 안양역 부근에 의병 약 100여 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군포장軍浦場과 안양역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이 영등포로 피난한 바 있었고, 10월 11일 오전 7시에는 의병 20여 명이 안양 등

지에 나타난 일을 수소문하기 위해 순경 2명이 파송되었다. 10월 13일에는 안양장^{安養場} 정거장에서 10리 되는 안산 정시촌 등에서 의병과 일본 병사가 교전하여 한국인 8명이 피해를 보았고, 12월 초에는 하서면 주암동에 의병 10여 명이 총기를 지니고 들어와 일진회원 1명을 총살한 일도 있었다.

1908년 2월에는 과천군과 광주군의 경계에 의병을 칭하는 자 7~8명 혹은 10여 명이 총으로 무장한 채 매일 밤에 출몰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한 일이 있었으며, 3월 31일에는 관악산에서 의병과 토벌대가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9월 초에는 다수 의병이 과천 군내를 돌아다니며 과천군 읍저^{邑底}를 격파하겠다고 하여 그곳에 주재하던 일본 병사와 순사가 모두 수원군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1909년 4월 24일에는 과천군 동쪽 방면 60리 부근에서 의병 8명이 이곳 분견소의 일본 헌병 1명 보조원 4명과 교전하였고, 10월 11일에는 경기도 여주군·광주군·과천군 등지에 빈번히 출몰하던 의병 대장 윤치장^{尹致章, 1876~1972}이 필동^{筆洞} 헌병분견소에 체포되었다. 11월 초에는 의병장 이춘삼^{李春三, 1855~1945}이 신식총을 휴대하고 헌병보조원 복장을 한 부하 8명을 데리고 광주군과 과천군을 왕래하였다는 정보도 있었다.

이처럼 안양 일대에서는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의 의병 활동이 전개되었으나 퇴역병 출신인 윤치장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윤치장은 1907년 11월부터 부하 70여 명과 함께 안양을 비롯한 과천과 광주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1909년 10월경 양주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또 다른 의병장 이춘삼은 1907년 부하 30~40명과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다가 1909년 6월경 용인에서 체포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안양 및 과천 지역 내에서 활동하였던 이익삼^{李益三}인 듯하다.

이처럼 안양 일대의 의병은 거류지 일본인들이 피신할 정도인 100여 명에 이르는 규모도 있었지만, 대개는 10~20명의 소규모 부대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1월 14일에는 의병 약 20여 명이 진위^{振威}의 죽동^{竹洞}에서 일본군과 교전 후 안양장으로 퇴각하였다는 기사¹⁰가 있다.

한편 일제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병력을 편성해서 경기도 각지에 보내기도 하였다. 즉, 1908년 10월 17일에 기병^{騎兵} 제3중대장이 제13사단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폭도토벌을 위하여 가평 방면(10월 20일), 양근 방면(10월 21일), 판교·광주 방면(10월 27일), 고양 방면(10월 25일), 과천·안양 방면(10월 29일)으로 병력은 장교 또는 하사^{下士}가 인솔하는 1분대^{分隊} 내지 반십대^{半十隊}의 기병대가 행동할 예정이라고 하였다.¹¹

2.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1) 독립만세 운동

일제는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무단정치(武斷政治)를 무자비하게 시행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한국민들의 민족적인 저항을 철저히 봉쇄하려 하였다. 따라서 한일병합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의병들의 항일투쟁은 헌병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민들의 항일운동도 감시와 탄압을 받아야 하였다.

이러할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한 강화의 기초조건으로서 윌슨(W. Wilson, 1856~1924)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었다. 이 원칙은 소속 민족의 이해를 존중하고 국가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과 영토보존을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패전국의 식민지 특히 유럽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우리 민족의 자결을 천명할 선전 활동의 기회로 파악하고 1919년에 열린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동시에 대중적인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국내의 각계 민족대표들은 대중화, 통일화, 비폭력의 원칙에 따라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과 함께 거족적 시위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수많은 시민과 학생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낭독하고 만세시위행진을 하였다. 시위군중은 고종 장례식 참석차 올라온 지방 농민을 포함하여 수십만에 달하였다. 이 운동은 3월 상순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주도 아래 경기도와 황해도 그리고 북부 지방에서 발발하였으며, 3월 중순 이후에는 남부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1919년의 3·1운동이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가 최초이다. 이 책에서는 각 도별, 각 부·군별 집회횟수·집회인수·사망자수·부상자수·투옥자수 등이 소개되어 있다. 박은식은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을 비롯하여 조선과 일본,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신문들을 참고하여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는 안양지역과 관련이 있는 시흥군에서의 3·1운동 상황은 집회 6회, 집회인수 950명, 투옥자 37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¹²

한편 이지원은 경기도 3·1운동을 다룬 그의 논문¹³에서 경기도 내 각군별 날짜별 시위횟수와 참여인원수를 표로 작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시흥에서는 모두 23회의 시위가



파리강화회의 기념사진

발생했다고 하였다.¹⁴ 구체적으로 3월 7일, 23일(6회), 25일, 26일, 28일(2회), 29일(7회), 30일(2회), 31일(2회), 그리고 4월 3일이다. 그런데 일본 측의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시위가 있었던 3월 29일 경기도 시흥군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규모를 보면 집회횟수는 8회이고 집회인수는 모두 1280명이었다.¹⁵

안양지역에서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난 것은 3월 27일이었다. 그 발단은 당시 서이면 西二面 비산리飛山里에 거주하며 포목 행상을 하던 이영래李永來에 의해서였다. 그는 당일 행상을 하러 서이면 일동리에 사는 백기화白基和의 집에 들렀다가 이종교李鍾教 등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른 마을에서는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불러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짚신만 삼고 있어서 되겠는가?”라고 선동하여, 그날 밤 8시에 동리 주민들과 함께 일동리 서쪽 언덕 위에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보안법」과 「조선형사령」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이영래는 1919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았으나 같은 해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9월 1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영래는 1873년 4월 12일 경기도 과천시 상서면 비산리(현 비산동)에서 태어났다. 3·1운동의 주동자로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 은거하다가 8·15광복을 맞았으며, 1949년 2월 17일 별세하였다. 2007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만세운동 당시 한흥리의 모습

3월 27일의 서이면 일동리의 만세 시위에 이어 이틀 후인 3월 29일에는 서면 박달리에서 주민들의 만세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안양 출신으로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한흥리(韓興履)를 들 수 있다. 그는 1897년 7월 18일 인천 부 문학면(文鶴面) 동춘리(東春里)에서 태어나 과천시 상서면 호계리로 옮겨 거주하였다. 3·1운동 당시 경성고등보

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3월 1일에 전교생과 함께 방과 후에 파고다 공원으로 가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기차 통학생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임무를 띠고 시흥과 안양 및 군포장(軍浦場)과 역 등지에 배포할 독립선언서를 배분받아 현지의 광장에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설명하였다.

그는 3월 2일부터는 서울 약현(현 만리동) 김달환(金達煥)의 집에 머물면서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5일에는 동료 31명과 함께 제2의 시위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11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한흥리의 또 다른 이름은 한항길(韓恒吉)이다. 본관은 청주(淸州), 호는 몽당(夢堂)이다. 한흥리는 출옥한 뒤 교원양성소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서울 보인학교(輔仁學校)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1923년 야학 과정인 법정학교(法政學校)에 입학하였다. 1948년 항길(恒吉)로 개명하였고, 1958년 3월 부천대학교의 전신인 소사공업기술학교를 설립하였고, 1978년 학교법인 항길학원을 세워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90년 3·1운동에 참여한 공훈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¹⁶

2) 청년운동과 소년운동

한국의 청년운동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는데, 독자적인 이념과 조직을 갖춘 청년들이 민족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1920년 6월 최초의 전국적 청년단체인 조선청년회연합회가 결성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한국에서 ‘청년’은 근대적 사



조선청년회연합회 기관지 『아성我聲』과 발행인 안확

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학생이나 지식인층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이들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이어져 온 민족 계몽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면서 반봉건적인 성격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배 아래 반일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청년층들이 3·1운동의 실패 이후 민족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청년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192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해외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한 청년들이 국내로 돌아와 사회주의 청년단체를 결성하여 새로운 사상을 선전하였고, 근대적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 이제 청년운동도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운동으로 분화되었고, 점차 사회주의 계열에서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4년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가 중심이 되어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면서 조직적인 청년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민족 협동전선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청년운동은 여전히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대중을 조직화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청년들은 1926년의 6·10만세운동과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되어 1930년 3월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¹⁷

1920년대에 성황을 이룬 청년운동은 경기도 지방에서 일찍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1919년 이전에 여러 지역에서 구락부(俱樂部, 當黨, 또는 회會) 등의 명칭을 가진 청년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 후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청년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경

기도 전역에서 우후죽순같이 생겨났는데 이와 같은 청년운동단체들은 대체로 민족 개량적, 계몽적 또는 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¹⁸

경기도 시흥군에 있었던 청년운동단체로는 영등포구락부·영등포기독교청년면려회·영취구락부·노량진청년회·양평청년회·당산구락부·당산청년대·시흥청년회·용흥청년회·안양청년회·군포구락부·과천유신회 등이 있었다.¹⁹ 안양청년회는 1928년 7월 21일 서이면(西二面)의 안양리에서 창립되었다.²⁰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 와서는 청년운동의 양상이 종래의 계몽적·문화적 또는 사회경제적 운동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운동을 공공연히 표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더욱 조직적이고 투쟁적이며 구체적인 청년회의 활동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²¹ 1927년에는 좌익과 우익이 대동단결하여 민족의 정치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한다는 기치 아래 신간회(新幹會)와 근우회(近友會) 등을 조직하였다.²² 그러나 이러한 청년운동은 일제의 강압과 내부 문제에 직면해 1931년 중앙으로부터 조선청년총동맹이 해체됨으로써 급격히 약화되고 만다.

소년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열악한 어린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방정환(方定煥) 등이 진행한 사회운동이다. 3·1운동의 좌절 이후 국민 계몽과 사회 개조, 신문화 건설의 목표 아래 추진된 실력양성 운동이 민족운동의 한 축으로 대두하였다. 전(全)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동안 소외된 사회 계층이었던 농민, 노동자, 청년, 여성, 소년에 대하여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년운동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실력양성 운동의 하나로 일어난 민족운동이었다.

본격적인 소년운동은 1921년 4월 ‘천도교청년회’ 내에 소년부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소년부는 도쿄 유학생 방정환과 김기전(金起田)을 지도자로 맞이하였으며, 이듬해 4월 5일에는 ‘천도교소년회’로 개편되었다. 천도교소년회는 5월 1일을 ‘어린이의 날’로 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기념행사를 치렀으며, 1923년 3월 20일부터는 기관지 『어린이』를 발간하여 소년운동의 필요성과 소년 애호 사상을 전파하였다. 『어린이』는 1934년 123호를 끝으로 종간될 때까지 소년운동의 전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²³

특히 경기도 지방은 서울과 인천을 에워싸고 있었기에 그 여파 또한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경성부와 인천부를 제외하고도 경기도에서는 121개의 소년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²⁴

당시 소년단 조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소년척후대와 조선소년군이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보이스카우트 운동이 세계 곳곳에 퍼져 가까운 인도·중국·일본까지 조직되

는 흐름 속에서 1917년 10월 5일 중앙청년회 소년부가 조직되었다. 1918년에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한인 보이스카우트를 조직 운영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천도교 소년회나 조선소년단의 자극을 받아 1922년 3월 말 무렵에는 소년단(Boy Scout) 조직 준비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중앙기독교청년회 소년부 간부를 맡고 있던 정성채(鄭聖采, 1899~1950 납북)에 의해 동 소년부원들을 중심으로 1922년 조선소년군 창설 무렵에 조직하였고,²⁵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전국적인 기독교청년회의 조직망을 통하여 많은 소년척후대가 생겨났다.²⁶



조선소년군을 창설한 조철호

보이스카우트 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조선소년군은 1922년 10월 5일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김성수·송진우·정성채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과 함께 경성 제1호대의 발대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대원들은 모두 8명이었다.²⁷ 조선소년군을 창설한 조철호(趙喆鎬, 1890~1941)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26기 출신으로 3·1운동 때 현역에서 이탈하여 중앙고보의 체육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후 조철호는 조선소년군 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대원들은 점차 늘어났고 1924년에는 전국을 통하여 166개 호대로 신장되기에 이르렀다.²⁸ 1926년 6·10만세 운동에 관련되어 북간도로 망명하였다가 1932년 재차 검거되고, 조선소년군의 총사령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보이스카우트 재건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8년 소년척후단이 강제해산되면서 재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와 1940년 보성전문(普成專門) 체육강사를 지냈다. 1977년 건국포장, 1990년에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안양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흥군의 경우 소년운동가 조철호는 수원보다도 먼저인 1923년 7월 1일에 시흥소년군을 발단시켰다. 그 밖에도 10개의 소년운동단체가 더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양소년군(안양소년척후대)은 1926년 3월 서이면 안양에서 김명우의 발기로 창립하여 조철호의 지침에 의하여 스카우트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⁹ 동화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운동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 체육활동을 비교적 많이 하였다.³⁰ 축구대회를 주최³¹하였고 소인극(素人劇)도 하였다.³² 강건한 심단련이 소년을 개조하여 조국을 되찾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안양수양단은 1927년 6월 이전에 안양에서 창립되었다. 안양소년군처럼 체육활동을 주로 하였다. 능곡소년회는 1927년 6월 이전에 조직되어 소년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죽

율리(竹栗里)소년회는 1927년 12월 3일 군자면 죽율리에서 유지 김규영 등의 주선으로 조직되어 소년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과천소년군 제22호대는 1933년 이전에 조직되어 총본부에 등록하였다. 1933년부터 1936년까지 대장은 이윤영이었다. 안양소년회의 조직연대는 미상이나 동화회를 개최한 일이 있다. 흥동(興洞)소년군, 잠실소년군, 노량진소년군, 하안리소년군 제17호대는 고양군의 경우처럼 그 소재지가 광복 전후에 서울로 편입되었으므로 소년운동단체의 명칭만 밝혀두고 실제파악은 생략하였다.³³

3)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이란 산업사회에 있어서 농민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민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농민운동을 자작농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운동과 소작농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제하에서는 소작농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농민운동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이 소작농운동이었다.

일제하 농민운동의 역사는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즉, 1920년 전반기에 있어서 소작인조합이 결성되어 소작쟁의(小作爭議)가 일어난 시기이다. 1920년대 후반기는 농민단체가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에서 분리되어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으로 발전하는 가운데서 소작쟁의가 확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대륙침략이 감행되면서부터 파쇼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민운동이 지하의 비합법적인 운동으로 되어가면서 특히 적색농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시기이다.

제국주의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다. 일본 제국주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겨냥한 경제적 이득 가운데 주된 것이 농업 수탈을 통한 이익이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소위 토지조사사업의 선행작업으로서 제실소유토지(帝室所有土地)와 관유토지(官有土地)를 조사하였고, 1910년 국권을 탈취하자 곧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하여 농업 수탈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77.2%의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지주적 수탈로서 제국주의 이득을 취하여갔다.

이와 같은 식민성 지주와 소작농으로 양극화된 사회구조는 1920년부터 10여 년간 실시한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것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비례 세제가 강행되어 자작농은 더욱 몰락하였으며, 농민운동은 소작 농민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소작쟁의가 한국농민운동의 주요 맥락을 이루었다.³⁴

1930년대 농민운동은 지주에 대한 농민항쟁과 적색(赤色) 농민조합의 지도로 일제 식민

지정책에 대한 농민항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주에 대한 농민항쟁도 차츰 반 제정치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적색 노동·농민조합은 공산당 재건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심한 탄압을 받았고, 자연히 비합법조직으로 개편하여 투쟁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노동운동이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안정·향상하려는 운동이다. 1920년대 말부터 발전하여 오던 노동운동은 1930년대에 급격하게 고양되어갔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30년대 들어 일본이 병참 기지화 정책을 쓰게 되면서 조선에 대규모의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독점자본의 진출에 따른 공업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양적인 팽창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일제의 파쇼적 탄압으로 민족적·계급적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주의자의 대중투쟁 강화와 함께 사회주의 사상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깊이 침투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였던 데 있다. 그리하여 1930년대 노동운동은 경제투쟁이 중심이 되는 일반적 노동쟁의에서 이를 지도하며 반제의 정치투쟁을 지향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소작쟁의에 참가한 농민들(동아일보)

안양은 경성으로 길목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근대화된 회사나 조합이 설립되었다.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 따르면 안양지역에 설립된 회사나 조합은 다음과 같다.³⁵

〈표 1〉 안양지역에 설립된 회사와 조합(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연번	회사명	본점 주소	업종	설립연도
1	安養運輸(合資)	서이면 안양리 88	운수창고	1927-06-25
2	安養釀造場	서이면 안양리 64-5	양조업	1932-06-13
3	安養共勵水利組合	경기도	수리조합	1937-07-12 ³⁶



서이면 산미개량조합 창립 신문기사
(『동아일보』, 1927년 12월 27일)



안양인견공장 노동자 사망 관련기사
(『동아일보』, 1935년 4월 13일)

장 안양리에 건립, 1942년 5월 가축위생연구소 안양지소 설립, 1945년 7월 삼길양산 제조소 안양리에 설립 등이 있었다.⁴¹

그리고 1935년 4월 13일 시흥군 안양에 있는 안양인견공장(人絹工場)에서는 4월 7일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신문을 검색해보면 1927년 산미개량조합(産米改良組合)이 서이면에서 조직되었고,³⁷ 다음 해에는 양계조합(養鷄組合) 역시 서이면에서 조직되었다.³⁸

이 밖에도 경제와 산업과 관련되는 조직이나 단체의 설립이나 개정 등의 주요 현황을 보면 1922년 6월 9일 시흥군축산동업조합 신설, 1924년 4월 5일 안양금융조합 설립,³⁹ 1928년 12월 1일 안양산업사 설립, 1931년 12월 25일 안양금융조합 거모지소 설립, 1932년 8월 2일 조선직물주식회사 신축, 1934년 5월 8일 안양흥진조합출장소 설치, 1937년 11월 12일 조선제도공업합작회사 설립, 1937년 12월 1일 서이면 안양리에 식림묘포장 설치, 1939년 2월 18일 안양리 임업시험장 개장,⁴⁰ 1940년 2월 10일 안양에서 식량 배급 통제조합 창립, 1941년 2월 28일 유한산업 안양공

직공이 조업 중에 벨트에 휘감기어 즉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공장 직공 20명은 회사 측에 대하여 위험수당의 지급과 지하실의 설치 및 유족 부조료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파업을 하려는 형세를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다.⁴²

1936년 7월 9일 아침에 안양에 있는 조선직물주식회사 염색가공부 노동자 70명을 주축으로 노동자 800여 명이 일제히 동맹파업하였다. 원인은 매년 6월 지급해오던 상여금을 회사 측에서 체불하였기 때문이다. 파업노동자들은 상여금 지급, 임금 인상, 별금제도 폐지, 기숙사와 식사의 개선, 기타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회사 측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기타 요구조건은 고려하겠다고 노동자를 설득하여 파업은 해결되었다.⁴³

이처럼 안양에는 거대한 조선직물회사가 있어서 혁명적 노동조합의 주요 인물들이 그들의 사상과 주의를 실천하는 대상으로 이를 활용하여 조선직물주식회사의 직공으로서 항일노동운동에 관련되는 독립운동가가 활동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의 안양지역과 관련이 있는 노동운동 자료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서 검색이 되는데 이 중에서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관련된 사건이 있다.

1932년의 「치안유지법위반 피의자 체포에 관한 건」과 1934년의 「적색노동조합 기관지 격문사건 기소증지자 검거에 관한 건」이라는 일제의 문서에 의하면 안양의 조선직물주식회사의 노동운동 관련자가 3명이 있다. 즉, 김만석(金萬石)·최경창(崔慶昌)·홍화순(洪花順)이 그들이다. 최경창과 홍화순은 나이가 1년 차이의 같은 지역 출신으로⁴⁴ 같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적이 거의 일치한다. 일제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안양 조선직물주식회사의 노동운동 관련자

김만석(金萬石) ⁴⁵	본적	인천부 송현리 86번지
	주소	부정(不定)
	기타*	상민(常民), 노동(勞動), 당 23년, 남성
최경창(崔慶昌)	본적	수원시 성호면 오산리 번지불상(番地不詳) ⁴⁶
	주소	시흥군 안양리 조선직물주식회사 내
	기타	상민, 직물여공(織物女工), 당 17년, 여성
홍화순(洪花順)	본적	수원군 성호면 세교리 번지불상
	주소	시흥군 안양리 조선직물주식회사 내
	기타	상민, 직물여공, 당 16년, 여성

*기타 : 신분, 직업, 나이, 성별

일제의 문서에 의하면, 피의자 김만석은 1930년 1월 권평근(權平根)의 소개로 인천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 김형선의 지령을 받고 적색노동조합 재건 준비를 위해 정갑용과 회합하였으며, 1933년 5월 1일 정갑용 등과 협의해 인천 공장지대에 메이데이 격문을 살포하였다. 이후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조직원을 획득하였으며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에서 동맹파업을 선동하였다.⁴⁷ 결국, 김만석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최경창과 홍화순은 의식 정도가 낮고 범행도 가볍기⁴⁸ 때문에 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불기소 의견으로 7월 9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⁴⁹

4) 학생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안양지역에서 있었던 학생운동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독립운동은 수원고등농림학교 비밀결사 ‘언문연구회(諺文硏究會)’사건이다. 192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던 비합법 독서회 등의 전통을 계승한 비밀결사조직은 전반적인 운동의 침체기인 193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꾸준히 전개되었다. 이들 조직에는 대체로 20대 정도의 청년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9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도 언문연구회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12월 1일 수원경찰서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영(鄭周泳)·민병준(閔丙駿)·박도병(朴道秉)·김상태(金象泰) 등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1939년 10월 11일 오후 7시경 조선인 학생 기숙사인 제4로 6호실에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언문연구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⁵⁰

언문연구회는 1920, 3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조직된 ‘건아단’, ‘조선 개척사’ 등의 전통을 계승한 조직으로서, 1938년 3차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의 하나로 조선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조직되었다. 특히 언문연구회의 중심인물인 정주영(창씨명 松島健, 산업기수), 박도병(과수재배업), 임봉호(林鳳鎬, 산업기수), 김상태(靑山秀章, 농업), 민병준(宇川甫, 식산은행 부산지점 행원) 등은 재학 중에는 물론, 1940년(또는 1941년)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조선어 교육과 민족의식 고취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다 결국 1942년 일제에 의해 검거되었다.⁵¹

언문연구회의 중심인물 중에서 김상태가 바로 안양의 인물이다. 김상태의 인적 사항은 당시 24세로서 청산수장(靑山秀章)으로 개명했으며 본적은 경성부 동승정(東崇町) 2번지



언문연구회 사건으로 수감된 김상태

조선직물 공장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이경선

의 22이고 주거지는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70-2이다.

1919년 1월 5일 넉넉한 집안에서 출생한 김상태는 1926년 4월 경성사범학교 부속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3월 졸업하였다. 다음 해인 1938년 4월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의축산과에 입학하였고 1941년 3월 졸업해 자택에서 과수재배업에 종사하였다. 김상태는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 중에 조선인 선배들로부터 「일본인 학생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일치단결하라」, 「축구부에 가입하여 조선인 학생의 단결을 굳게 하고 일본인 학생에 대항하라」, 「조선인 학생 간의 인사는 조선어로 하라」 등 민족적 의식을 주입받았다. 아울러 1939년 4월 요회寮會 석상에서 「장래를 위하여」라는 정주영의 강연을 듣고 통렬히 그에 공명하여 조선을 일본 제국주의 기반에서 이탈시켜 독립시키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김상태의 형인 김광태도 수원고농 2차 사건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즉, 김광태(金光泰, 개명 靑山芳雄, 당시 30세)는 1934년 3월에 수원고농 농학과를 졸업했는데, 다음 해인 1935년 7월경 수원고농 재학 중에 '독서회'라는 비밀결사에 관계하고 있던 것

이 경북 김천金泉경찰서에서 발각되어 결국 검거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1운동을 전후하여 국내외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러시아·중국·일본을 거쳐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되었다.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는 1918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탄생했으며, 1919년 3·1운동 직후 국외 한인들의 사회주의 운동은 중국 상하이와 러시아의 연해주지역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비밀결사들이 조직되었다.

1920년대 후반 안양지역은 프롤레타리아들의 고향과도 같았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회사나 조합, 그리고 공장 등이 많이 생기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외부에서 훈련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유입되면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문서 「경성제대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를 중심으로 한 조선 내 적화 공작 사건 검거에 관한 건」을 보면 이 사건에 관련된 안양지역의 인물로 이경선李景仙⁵²이 있다. 이 사건에서 이경선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기소 처분을 받는다.⁵³

같은 자료에 의하면 이경선은 본적지에서 출생해 대정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933년 3월에 졸업하고 사립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입학하고 1년 반 정도 뒤에 퇴학당한 인물이다.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때부터 좌익서적을 섭렵 탐독하여 연구에 몰두하면서 4학년 때는 좌익교사로 정평이 나 있는 이관구가 담임교사가 되어 그의 지도 감화를 받아 사상이 더욱 첨예화되기에 이르렀고, 이관구의 지도에 의해 적색독서회를 조직해 공산주의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의식의 양양을 도모하였다.

그러다가 1933년 1월 경성 종로경찰서에 검거돼 조사를 받았으나, 미죄微罪였기 때문에 훈계 석방되었으나, 여공 층에 파고들어 테러를 주의적으로 지도 교양해 그의 의식 양양을 기다려 동지로 획득함으로써 스스로 경기도 시흥군 안양에 있는 조선직물주식회사 인견공장의 직공이 되어 조선 공산화의 실현을 몽상해 실천 운동을 계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경선은 일제의 감시대상자 명단에 올라서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었다.

1935년 4월 4일, 경기도 경찰부장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등에게 「인천 적색赤色그룹 사건 검거에 관한 건」이란 비밀 보고 문서를 보낸다. 이 문서를 보면, 1930년대 신화적인 사회주의자 이재유李載裕 그룹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계자인 이인행이 인천의 공장 활동을 위해 인천 활동가를 접촉했다는 진술을 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를 수

사해 ‘별개의 비밀결사가 존재하며 상당히 과감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단서’를 찾게 됐다고 한다.

일제 경찰은 이 비밀결사가 ‘인천 적색그룹’이라며 계통도를 그렸는데, 안양지역의 관련자로는 박영선(朴永善, 남 29세)⁵⁴이 있다. 일제가 작성한 「경성사건재건운동계통망」에 보면 박영선의 이름은 세 군데나 등장하고 있으며 「경성사건재건운동 검거에 관한 건2」에서는 박영선은 개성 사립 제일송도보통학교 4년 수료 후, 개성운송공동조합배달, 그 외에 자유 노동에 종사하던 중, 가정의 빈곤과 기타 주위 상황으로 볼 때 현 자본주의 동아시아 일반의 사회제도에 불만이 있어 좋아하는 좌익서적을 읽는 한편 좌경주의자와 교류하면서 1932년 1월 4일 대구 적색노동자조합사건에 연루돼 동년 7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인데 뉘우치는 빛이 없이 계속해서 경성 운동에 관련된 사건에 가담했다고 하였다. 일제의 자료에 보면 박영선 역시 다른 주도자들과 같이 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일제의 감시대상에 오르게 된다.

3.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엄항섭

엄항섭(嚴恒燮, 1898~1962)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선전부장,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다. 1898년 9월 1일 경기도 여주군(현재의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90번지에서 출생했다.

1919년 보성법률상업학교를 마칠 무렵, 3·1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국무원 법무부 참사에 임명되었고, 임시의정원의 지역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경기도 여주군 담당 국내 조사원이 되었다. 1922년 항저우(杭州) 지강대학(芝江大學)에서 수학하고, 김구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였다. 1924년에는 상해한인청년동맹회 발기인, 집행위원, 재정부장이 되었고, 1926년 12월에는 헌법기초위원회에 선임되었다.

1929년부터는 청년운동에 참여하여 재중국한인청년동맹 중앙위원이 되었으며, 1930년 1월 창당된 한국독립당의 조직책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했다. 1931년에는 상해 한국교민단의 의경대장(義警隊長)이 되었고, 자활자위(自活自衛)를 목적으로 하는 공평사운동(公平社運動)에도 참여하였다. 1932년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고, 한국독립당 선전



임시정부 시절의 엄항섭(윗줄 왼쪽)

부장을 맡았다.

1941년 다시 의정원 의원이 되어 외무위원장직을 맡았으며, 1944년 5월에는 임시 정부 국무원 선전부장과 김구 주석의 판공비서에 임명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1962년 7월 30일 평양에서 지병으로 사망했으며, 북한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다.

이렇게 보면 엄항섭은 안양지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엄항섭의 본적과 원적은 안양으로 나오고 있는 사료가 있다. 즉, 『국외에서의 용의 조선인 명부』나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권에서는 엄항섭의 본적本籍을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999번지로 적고 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엄항섭의 원적原籍을 경기도 시흥군 서면(서이면?) 안양리 999번지로 표기하고 있다.⁵⁵ 엄항섭의 출생지는 현재 공식적으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90번지로 나오고 있지만, 그의 선조들은 안양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행적이 뚜렷하더라도 해방 이후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했거나 이북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 진전 분위기 속

에서 재북(월·남북) 문학인 작품의 해금 등과 함께 재북 인사에 대한 독립 유공 표창이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엄항섭에게도 1989년 3월 1일,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⁵⁶

2) 한인소년동맹과 이재천



임시정부의 밀명으로 입국 도중 체포되어 수감된 이재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안양의 인물이 이재천(李在天, 1913~?)이다. 이재천은 독립운동가 이용환(李容煥)의 장남으로 평안남도 평원군 덕산면 삼정리에서 태어났으며, 동생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활동한 이재현(李在賢)이다. 상해에 있는 동명학교를 졸업했으며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계승할 것을 결심하고 1929년 2월에 화랑사(花郎社) 활동에 참여했다.

1929년 2월 2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인 조소양의 지도로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인 소년 민영완(閔泳琬), 조시제(趙時濟), 조이제(趙利濟) 등 23명이 김덕근(金德根)을 책임자로 하여 국권 회복과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화랑사는 화랑제도(花郎制度)에 따라 민족의식을 환기, 교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강령, 규약을 제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화랑보』라는 기관지를 30부씩 발간하여 상하이 한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3·1운동 기념일, 국치(國恥) 기념일 등에는 상하이의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평소에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전령으로 활동하며, 통신 연락과 송영(送迎), 응접(應接) 등에 종사하였다. 1930년 8월에는 상하이의 한인 단체인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흥사단(興士團), 노병회(勞兵會), 한인친목회(韓人親睦會), 인성학교유지회(仁成學校維持會), 소년척후대 등과 함께 13개 대표 20명이 회합하여 수해구제회(水害救濟會)를 결성하였다. 또한, 애국부인회, 인성학교동창회(仁成學校同窓會), 소년척후대 등과 함께 모연대(募捐隊)를 조직하여 의연금을 모집하였다.

이재천은 화랑사가 유명무실해진 이후 다시 한국소년동맹을 조직하여, 그 집행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무력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소년동맹은 단원이 약 2백여 명으로 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의 지시를 받았다. 1935년, 중국중양군관학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았다.

이재천은 1935년 중앙군관학교 졸업 후 그해 10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의 밀명을 받고 인천으로 입국 도중 일본 경찰에 체포, 1936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 복역 뒤 1940년 8월에 석방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일본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고문으로 사망 후에 일제가 시신을 유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00년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무후선열제단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정부에서는 1963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3)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이재현



이재현 지사

한국청년전지공작대 韓國青年戰地工作隊는 1939년 중국 충칭[重慶]에서 아나키즘 계열 청년들이 결성한 항일무장 조직이다.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함께 충칭 치장[綦江]에 도착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韓國光復陣線青年工作隊 대원 중 이하유李何有, 김동수金東洙, 김인금仁, 이재현李在賢 등이 충칭으로 가서 아나키스트 나월환羅月煥, 박기성朴基成 등과 접촉하여 그해 11월 11일 결성하였다.

창설 당시 대원은 30여 명이였다. 이들은 아나키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목표로 하였다. 결성 과정에서 김구金九의 승인을 받았지만, 임시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창설 당시 부대의 대장은 나월환, 부대장은 김동수[일명 김강(金剛)]였으며, 정치조장은 이하유, 군사조장은 박기성[일명 구양군(歐陽軍)], 선전조장은 이재현[일명 이해평(李海平)]이었다. 대원은 조시제趙時濟, 김원영金元英, 현이평玄以平, 송길집宋吉濼, 엄익근嚴益根, 김인金仁 등이 있었다. 이외에 맹조화孟兆和, 평지성平智盛, 금작생金作生, 하상기何尙祺 등 중국인도 4명 있었다.

결성 직후인 1939년 11월 18일 충칭을 떠나 시안[西安]으로 이동하여 중국군 제34 집단군 호종남胡宗南 부대와 연합하여 한국청년훈련반을 설치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중국군의 항일전투에 참여하고, 제34 집단군 태항산太行山 유격대 정훈부에 배속되어 공작 활동을 펼쳤다.

1940년 9월 충칭에서 광복군光復軍이 창설된 후, 광복군 총사령부가 시안으로 이전하

자 전지공작대는 1941년 1월 1일 광복군 제5지대로 개편되어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나 월환이 지대장을 맡았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관련이 있는 안양의 인물이 이재현(李在賢, 1917~1997)이다. 이재현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에스페란티스토이다. 호는 해평(海平, 에스페란토: Hajpin 하이핀)이다. 이재현은 1939년 만들어진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활동하였고 1940년에는 광복군에 소속되었다. 1944년 4월에는 미국 전략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과 협력하여 광복군 본토낙하대本土落下隊를 조직하였고, 제2조장으로 임명되었다.

일본 제국의 항복 후 1945년 10월 한국광복군 국내정진군 제2지대 제3조장으로 임명되어 베이징[北京]으로 가서 주북경판사처駐北京辦事處 주임으로서 교포 보호 및 한적사兵韓籍士兵 접수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46년 귀국하였고, 6·25전쟁 당시 주한 미 군사고문단 서해지구 정보대장으로 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기념사진(1939년 4월 4일)

동하며 평안북도 철산군 대화도를 거점으로 대북 유격전 및 첩보전을 수행했으며 전쟁이 끝나고 이재현은 제대하였다.

이후 에스페란토 보급운동에 전력하여 교재 및 사전을 출판하였고, 1983년까지 한국 에스페란토협회 부회장을 맡았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에스페란토 강좌를 개설하였다.

1997년 2월 24일 안양시에서 사망하였으며,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됐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4) 한국광복군과 김국주

광복군光復軍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직된 항일군대이다. 1932년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규모는 축소되었고 재정상 운영 내용도 부실했다. 더욱이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각지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단체들은 충칭에 이전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된 군사활동과 외교활동이 필요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광복군이 조직되었다. 광복군 편성문제는 치장[綦江]에 있을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일이었다. 군사특파단軍事特派團이 시안[西安]에 파견되었고, 광복군은 많은 경비가 필요해 중국 정부의 양해를 얻는 교섭을 벌였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광복군의 조직을 찬성했지만, 한편으로 임시정부와 분열 상태에 있는 김원봉金元鳳계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와 이미 합동하여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충칭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韓國光復軍總司令部의 성립 전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광복군을 발족시켰다. 발족일을 전후하여 광복군 조직의 포고문, 선전 전단 등이 배포되었고,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에서는 관계법규를 정비하였다. 총사령에 지청천池青天, 참모장에 이범익李範奭이 취임했다.

광복군은 3개의 지대支隊로 편성되었다. 제1지대장에 이준식李俊植, 제2지대장 공진원公震遠, 제3지대장 김학규金學奎가 취임했다. 또 1941년 1월에는 제5지대가 편성되어 나월환羅月煥이 통솔했다. 제5지대는 원래 전지戰地 공작원들이 많아 편성 후에도 주로 전후방 공작업무를 수행했다. 소대·중대·대대·연대·여단·사단 등의 6단으로 기본 편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광복光復』이라는 간행물을 발행했고, 방송과 선전지를 전후방에 살포해 애국 청년은 물론 일본군에 징병되어 온 한국 청년을 유치하는 데 힘썼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광복군은 1941년 12월 9일 대일선전對日宣戰을 정식으로 포고했다. 이를 계기로 분열 상태에 있던 공산 진영과 협업하는 작업이 추진되어 1942년 7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었고,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에 취임했다.

김국주(金國柱, 1924~2021)는 1924년 8월 9일 함경남도 원산부 교하동(현 강원도 원산시 용하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3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하던 장조민(張朝民)을 만났다. 이후 장조민의 소개로 그해 8월 안후이성 푸양(阜陽)에서 한국광복군 제3지대의 전신인 광복군 초모위원회 제6분처에 참여한 그는 전이호 등과 함께 기간요원으로 활동하며 광복군 모집 및 후방 공작 활동을 수행했다. 1944년 장쑤성 쉬저우(徐州) 지역에 파견되어 초모(招募) 공작을 전개했으며, 쉬저우에서 철수한 후에는 국민혁명군 제10 전구 산하 간부훈련학교 특설 한국광복군반에서 훈련을 받았다.



광복회장 당시의 김국주

광복 이후 1948년 육군사관학교 7기 특별반으로 입학하여 그해 10월 12일 특별 제7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50년 대위로 진급하여 제5보병사단 제15연대 제2대대 제6중대장을 역임했다. 이 시기 6·25전쟁이 발발하자 의정부 방면에 투입되어 다부동, 낙동강, 평양, 운산 전투 등에 참여했다. 1953년 휴전 조약이 수립될 무렵 제12보병사단 제52연대 제1대대장을 맡았다.

이후 1979년 육군 소장으로서 예편한 후 1981년 광복회 부회장, 1986년 독립기념관 이사, 2001년 독립유공자협회 회장, 2005년 6월 광복회 회장을 역임했다.

광복회 회장에서 물러난 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에 거주하다가 이후 경기도 안양시로 이주하여 동안구의 호계동과 갈산동 등지에 거주했다. 2021년 5월 26일 오후 2시, 동안구 갈산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6묘역에 안장되었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 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228~229쪽.
- 2 이상의 내용은 한국감리교인물사전DB(<https://kmc.or.kr/dic-search/>)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 3 1905년 11월 17일로 발표.
- 4 이 조약을 체결한 박제순은 광무황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바도 없고, 비준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조약은 당연히 무효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두어 행정을 마비시켰으며, 전국의 지방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여 감독하였다. 광무황제는 미국인 황실 고문 헐버트를 통해 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였고, 국민도 일제히 결기하여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 5 원태우 지사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다. 우선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에는 성명은 ‘원태근’, 이명은 ‘金泰根’, ‘金泰祐’로 되어 있고, 호적자료에는 ‘元泰祐’로 되어 있다. 『기려수필』에는 ‘金台根’으로, 『속음칭사』에는 ‘金泰根’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제 측의 자료인 「伊藤 大使 탐승 열차 危害犯 元泰根 조치 件」과 그 별지 別紙인 「宣告書」에는 ‘元泰根’으로, 『신호신문神戶新聞』에는 ‘玄泰根’으로 되어 있다. 모두 원태우의 오류이다.
- 6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24일자, 「雜報」 “石子何來 再昨日上午九時에이藤大使가水源等地觀覽하기爲하야電車를搭坐하고下去하는路次에安養역(?)近處에暫時停車하였더니忽然數塊石子가自外投入하야車窓이破碎되고이藤大使身畔으로過하야免於觸傷하고同日下午七時에回京하였더라.” 『神戶新聞』, 1905년 11월 27일 「홍한 처형」(경성 25일 밤) “이토 대사에게 돌을 던진 홍한 兇徒근玄泰根은 일본 군율에 따라 오늘 감금 2개월 태형죄 백대의 형을 선고받았다.”
- 7 『기려수필騎驢隨筆』 2집, 「김태근 이토에게 투석投石함」.
- 8 김명섭, 「1905년 元泰祐의 이토 히로부미 응징의거 연구」, 『東洋學』 9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24.
- 9 박영규, 『을사늑약과 돌볼처럼 번져간 의병 전쟁』, 『독립기념관』 2018년 2월호, 독립기념관.
- 10 「지방소식일동」, 『황성신문』, 1908년 1월 19일.
- 11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권(의병편Ⅴ), 6. 용회2년(2) 10월 경기도, 40. 기驛17의3 발서發庶 제5-5호.
- 12 박환·최재성,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경기문화재단, 2019, 46쪽.
- 13 이지원, 「경기도 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 14 박환·최재성,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경기문화재단, 2019, 47쪽.
- 15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集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2권 三一運動 I,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 附錄(取寄文件)(日文)」.
- 16 두산백과 두피디아, 한항길韓恒吉.
- 17 두산백과 두피디아, 청년운동青年運動.
- 18 『동아일보』, 1920년 6월 12일.
- 1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 1995, 792~793쪽.
- 20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8, 「1928년 7월 21일 京畿道 始興郡에 安養青年會가 創立」; 「京畿道 始興郡에 安養青年會가 創立되다」, 『동아일보』, 1928년 7월 26일.
- 2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 1995, 73쪽.
- 22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창립되었고 당시 회장은 이상재李商畵이다. 근우회는 1927년 5월 27일 창립되었으며 당시 회장은 김활란金活蘭이다(『동아일보』, 1927.02.17. 05.29).
- 23 두산백과 두피디아, 소년운동少年運動.
- 2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825쪽.
- 25 소년척후대의 창설일은 1922년 9월 31일로 알려져 있다(조선총독 부경무국, 『조선고등경찰관계연표』, 107쪽).
- 2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833쪽.
- 2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835쪽.

- 2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838쪽.
- 29 『동아일보』, 1926년 10월 5일.
- 30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221쪽.
- 31 『동아일보』, 1927년 6월 5일, 1928년 5월 25일.
- 32 『동아일보』, 1927년 6월 7일. 소인극素人劇이란 비전문인이 하는 연극 또는 비직업적으로 하는 연극을 말한다.
- 3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846쪽.
- 34 두산백과 두피디아, 농민운동農民運動.
- 35 中村資郎,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동아경제시보사, 1929·1937·1939.
- 36 「始興郡西二面に共勵水利組合創立」, 『조선신문』, 1937년 7월 12일.
- 37 『동아일보』, 1927년 12월 27일.
- 38 『동아일보』, 1928년 12월 31일.
- 39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4월 21일.
- 40 『동아일보』, 1939년 11월 17일.
- 41 이상의 내용은 『안양시사』6(2008), '제7편 연표로 보는 안양'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42 「안양인건공장 직공들이 동요」, 『동아일보』, 1935년 4월 13일.
- 43 「안양역 염색공 70명 동맹파업」, 『동아일보』, 1936년 7월 10일.
- 44 나무위키, 최경창-홍화순 참조. 여기에서는 최경창과 홍화순의 사진과 생애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무위키에서는 홍화순의 본명을 홍종례洪鍾禮로 이명異名을 홍화순洪花順과 홍순옥洪順玉으로 적고 있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서는 홍종례洪鍾禮로 검색이 된다.
- 45 김만석의 이명異名으로는 김상근金相根이 있다.
- 46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에는 최경창과 홍화순의 본적이 똑같이 수원시 성호면 세교리 397로 적혀 있는데 오류로 보인다. 세교리와 오산리는 같은 오산지역이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동네이다.
- 47 『일제강점기 사회·사상운동자료 해제』Ⅱ, 鄭甲溶 외 2명(치안유지법 위반)
- 48 같은 서류 「赤色勞動組合 機關紙 撤文事件 起訴中止者 檢舉에 관한 件」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김만석의 지도 교양에 의해 홍화순은 올해 4월 28일 이 공장 직공인 홍봉순이 직공 감독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 예고했던 계획대로 동맹파업을 유발하려고, 자기의 잡기장 한 장을 찢어내 한글로 동맹파업을 유도하는 글귀를 써서 여공의 출입이 많은 식당 입구에 던져두어 여공의 투쟁심을 환기 함으로써 동맹파업을 유도했지만, 하등의 반향도 없었다.”
- 49 『警察情報綴(昭和 9年)』, 「赤色勞動組合 機關紙 撤文事件 起訴中止者 檢舉에 관한 건」, 1934-07-05 仁川警察署長.
- 5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9권, 戰時期 反日言動事件Ⅳ 報告書.
- 51 박환, 「수원고등농림학교 비밀결사 연문연구회의 조직과 활동」, 『수원역사문화연구』 제4호, 수원박물관, 2014, 229쪽.
- 52 이경선의 본적은 전라남도 제주도 대정면 가피리 번지불상,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번지불상, 상민常民으로 조선직물공장 여공이며 21세이다.
- 53 『警察情報綴 拱(昭和 9年)』, 「城大教授 三宅鹿之助를 중심으로 한 鮮內 赤化工作事件 檢舉에 관한 件」, 1934년 08월 31일, 京畿道知事.
- 54 박영선의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조선직물공장 기숙사이고, 신분은 상민常民, 직업은 직공으로 나와 있다. 『警察狀報(昭和 10年)』, 「仁川 赤色그릅事件 檢舉에 관한 건」, 1935-04-04, 京城 永登浦警察署長.
- 55 최병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일파 엄항섭 지사」, 『충북사학』 10, 충북사학회, 1998.
- 5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엄항섭嚴恒燾.

4장

일제강점기 전시체제하 사회경제적 수탈



박철하 지역사 아카이브 연구소장



1. 전시 지방행정 업무 확대와 읍면직원 증원

1937년 일제의 중국 대륙침략 이후,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과 시국 관계 사무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전시 지방행정 업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일반 주민을 상대로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읍면직원의 경우 과거보다 각종 사무의 양이 늘었을 뿐 아니라 업무 역량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읍면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징수 및 일반 행정업무는 물론 정신총동원 또는 총력운동 등을 비롯해 창씨개명과 징병제 실시를 위한 호적 정비사업, 각종 청년훈련소의 설치와 운영 및 군사원호, 공출, 치안과 통제경제 등 전시행정에 필요한 기능의 확대와 인력보충이 필요했다.

1943년 3월 30일 「부읍면 사무 간소화에 관한 건」이란 제목으로 각 도지사에 전달된 통첩의 내용을 통해 당시 읍면에서 추진할 업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읍면의 각종 행사 예정표(1943.4~1944.4)

월 별	주 요 행 사
	1943년
4월	補助貨 회수운동, 地稅명기장 정리, 농업실태조사, 애림운동주간, 선거인명부 작성, 種糶鹽水選의 실시 지도, 조선청년연성진흥운동, 粟종자 소독 파종 지도 독려, 植桑 지도 독려, 면·대마 파종 지도 독려, 보리 肥培 관리지도, 차량세 부가세 1기분 납세 독려
5월	농업실태 조사, 米의 현재고 조사보고, 보리 작황보고, 금속류 특별회수 강조운동주간, 고구마 파종 지도, 잡종의 掃立飼育 지도, 부읍회의원·면협의회원 총선거 집행, 보리베기 독려 지도, 퇴비반출 독려 지도, 深耕의 독려, 영업세·同부가세 및 가옥세·同부가세 1기분 납세 독려
6월	농업실태 조사, 보리 예상수확고 조사보고, 노동기술 통계조사, 보리베기 독려, 적기 모내기 독려, 春蠶繭 출하 독려 및 공판사무, 저축장려 강조주간, 警防기념일 실시, 퇴비증산 독려, 뽕나무 肥培 관리지도, 여름작물 肥培 관리지도, 호별세·同부가세 납세 독려
7월	농업실태 조사, 퇴비증산 독려, 건초증산 독려, 보리공출 독려, 학교평의회원 총선거 집행, 米의 현재고 조사보고, 잡곡 현재고 조사보고, 병충해 방제, 잡곡작황 보고

월 별	주 요 행 사
8월	농업실태 조사, 퇴비증산 독려, 보리공출 독려, 건조증산 독려, 薪·목탄증산 독려, 미현재고 조사보고, 대마·아마 수확 지도, 미작황 조사보고, 맥·잡곡류 實收高 조사보고, 징병제도 실시의 취지 주지철저, 제3종소득세 납세 독려
9월	퇴비증산 독려, 농업실태조사의 집계정리, 미현재고 조사보고, 금속류 특별회수 강조주간운동, 가계조사, 미생산고 조사보고, 저축조합 정비주간, 신·목탄증산 독려, 품종별 수확 지도, 청장년 국민등록, 고구마·감자공출 독려, 徵兵適齡屆書 제출 지도, 秋蠶繭 출하독려 및 공판사무, 대마·아마 출하독려 및 공판사무
10월	벼베기 독려, 보리파종 지도, 미생산고 조사보고, 징병적령계 제출 지도 독려, 호별세·同부가세, 가옥세·同부가세, 차량세·同부가세 2기분 납세 독려
11월	미현재고·잡곡현재고 조사보고, 고구마·감자공출 독려, 豆類공출 독려, 추경 독려, 징병적령계 수리, 면화공동판매, 총독부 統制米공출 독려, 소요노동력 조사, 제3종 소득세·영업세·同부가세 2기분 납세 독려
12월	두류공출 독려, 총독부 통제미공출 독려, 壯丁인원 조사 및 명부작성, 미생산고·실수고 조사보고, 방화주간, 저축장려 강조주간, 연말 호구조사, 회사통계표 작성, 지세·同부가세·임야세 1기분 납세 독려
1943년	
1월	가마니 증산 및 공출 독려, 총독부 통제미공출 독려, 두류공출 독려, 警防初式 실시, 청년특별연성 적령자명부 작성
2월	가마니 증산 및 공출 독려, 금속류 특별회수 강조주간운동, 지세·同부가세·임야세 2기분 및 제3종 소득세 3기분 납세 독려
3월	가마니 증산 및 공출 독려, 미현재고 조사보고, 잡곡현재고 조사보고, 징경검사통지서 작성 및 공포, 노동력자원 조사
부정기	국민징용관계 사무, 고무화·타올·면포 등 통제물자 배급, 비료 공동구입 압선 및 대금 정리, 미배급 사무

출전: 『朝鮮行政』, 1943년 5월호, 63~65쪽(한글회, 「일제하 전시체제기 지방행정 강화 정책-읍면행정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8집, 2000, 218~219쪽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보듯이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도와 군, 총동원 및 총력연맹 등 상층기관의 시국 관련한 거의 모든 시책과 동원 행정이 제일선의 읍면에 집중·실행되었다. 물론 이는 드러난 업무일 뿐 실제 수행한 업무의 종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읍면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고, 이에 따른 업무의 확대와 읍면직원의 처우개선 및 증원, 그리고 교육 강화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표 2〉 경기도 읍면직원 증가 현황(1937~1942)

연도	읍면수	읍면장	부읍장	직원[吏員]			구장
				계	읍면서기	읍면기수	
1937	236	236	2	1,718	1,556	162	2,679
1938	236	236	4	1,903	1,735	168	2,895
1939	232	232	4	1,960	1,794	166	3,869
1940	232	232	4	2,138	1,794	404	5,627
1941	232	232	7	2,259	1,857	402	5,794
1942	231	231	8	2,511	2,037	474	5,891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9~1944년도(각년 4월 1일 현재)

1937~1942년 경기도의 읍면직원의 변동상황을 보면, 일본의 중국 대륙침략 이후 읍면직원과 구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고 전쟁 지원을 위한 총력운동이 강화되면서 서기와 기수는 물론 구장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서이면의 경우, 1940년 6월 서이면사무소 직원의 창씨개명 관련 기사를 보면, 면장에 외에 회계원 1명과 서기 3명의 직원이 확인된다.¹ 1941년 1월 현재 기수 1명과 서기 9명이었고² 1944년에는 기수와 서기를 포함하여 면사무소 관계 직원이 30여 명에 달했다.³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징병제가 실시됨에 따라 1943년 8월 1일부터 안양면을 비롯해 시흥군 내의 각 면에는 징병 업무와 관련하여 병사사무를 전담할 전임 서기를 채용하였다.⁴ 1944년에는 ‘일반국민징용’을 비롯해 인적 동원이 가속화되었고, 전황의 악화에 따른 군수물자 동원이 극대화되면서 일선의 행정력도 그만큼 강화됨으로써 더 많은 직원이 필요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력 증강과 곡류의 공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전국적으로 ‘식량사무촉탁’이 1941년 2월부터 각 읍면당 2명씩 배치되었고, 이외에도 미곡·잡곡 생산고와 현재고를 월별로 조사하는 조사원을 고용하는 등 서기 외의 더 많은 면 사무직원이 충원될 수밖에 없었다.

전시체제기에 식량의 증산·공출·배급을 비롯해 생활필수물자의 배급통제, 총력운동의 강력한 지도, 해군지원병제와 징병제 실시에 따른 병적 사무 등 면행정의 주요 사무가 폭주함에 따라 면장도 격무에 시달렸다. 이에 각도에서는 편의적인 조치로 사무량이 많은 면에 주임제를 채용하기도 했고, 1943년 4월에는 칙임관급의 ‘거물면장巨物面長’ 5명이 임명된 바 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부령 제170호로 「읍면제 실시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1943년 6월 17일 날짜로 법령에 기초한 부면장제를 신설하였다.⁵ 면장을 보좌하고 직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면장은 각 면에서 필요에 따라 현 면직원 가운데 가장 노련하고도 우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그 외의 인물 중에서 ‘인격이 고결하고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선택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흥군에서는 군내 주요 면인 안양면과 동면 2개 면에 부면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안양면에는 1943년 8월 10일부로 부천군 용유면장을 지낸 조산주용朝山注鏞(趙鍾岳)이 부면장에 임명되었다.⁶ 조선총독부에서는 1943년 12월 1일부로 부면장의 임명에 대하여 관리 또는 서기 중에서 군수의 인가를 받아 면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는데,⁷ 1944년 2월에 시흥군 군속郡屬 평원정달平原正達이 안양면 부면장에 임명되어 1945년

2월까지 재직하였다.⁸

한편, 안양이 급격히 팽창하고 이에 따른 치안확보의 시급한 요청과 전시지원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면행정의 수장 변경과 치안체계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안양면장은 수암면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1945년 6월 17일 날짜로 만주국 봉천시 주사를 지낸 산본화일(山本和一)이 새로운 안양면장으로 부임했다.⁹ 이어 1945년 6월 20일에는 안양경찰서가 신설되었다.¹⁰

2. 전시체제하 총동원 기구의 조직과 확대

1) 전시 총동원 기구 조직

일본과 조선총독부는 침략전쟁 지원을 위한 전시동원 체제를 구축했다.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가장 대표적인 동원기구는 1938년에 결성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과 1940년에 이를 확대·강화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이다. 두 연맹은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하여 조선총독부-도-부군-읍면의 행정 계통을 통해, 중앙에서 지방 마을 단위까지 행정기구의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관제기구이자 관민 통합기구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와 전국 지방행정 각급 단위를 수직적으로 묶어 식민지 조선 민중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동원하였다. 읍면 아래 각 리(里)의 마을에는 '부락연맹'을 조직하고, 그 아래로 10호를 묶어 애국반을 만들었다. 즉, 위로 조선총독부에서 아래로는 자연마을에 이르기까지 전시체제하 식민지 조선 내 전국적 총동원 조직을 구축한 것이다.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안양지역은 시흥군의 중심부로 성장하고 있었다. 시흥군청의 주요 행사 또한 안양지역에서 진행되었다. 1938년 7월 13일, 국민정신총동원시흥군연맹 결성식이 안양신사에서 거행되었다.¹¹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能川清之助

이 사: 奥田近吾 小野雅文 横田彦胤 金敏柱 尹敬燮 松本松藏 篠原孫文 平井良弘 冲井松吉
고 문: 新海公 趙重完 高瀬仙彌 山田童治丸

평의원: 李潤秀 외 16명(각 면장, 공사립 교장)

참여원: 각 면 3~13명

시흥군연맹은 곧바로 각 면연맹 및 부락연맹 결성을 추진했다. 8월 5일에서 12일까지 군내 8개 면에 각 면연맹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계속하여 부락별 연맹을 조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38년 8월 10일에 국민정신총동원 서이면연맹 발회식이 거행되었고,¹² 이후 서이면 관내 각 부락별 연맹도 조직되었다.

1938년 8월 15일 시흥군 회의실에서 군연맹 이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연맹원의 실행사항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도록 그들에게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그 결과 10가지의 실행요목을 결정하고 선전포스터 1200장을 각 방면으로 배포하기로 하였다.¹³ 실행요목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황거요배^{皇居遙拜}
2. 가미다나^[神棚] 설치 및 대마^{大麻} 봉재^{奉齋}
*대마^{大麻} : 신궁^{神宮}에서 배포하는 일종의 종이 부적
3. 집합 때에는 황거요배와 황군무운장구^{皇軍武運長久} 기원
4. 의례준칙 여행^{勵行}
5. 근로 1시간 연장 실천
6. 소비절약과 폐품이용 갱생^{更生}
7. 작업복 개선(현옷 이용 조제)
8. 고무신 폐지 여행(여행 시는 무관)
9. 저축 장려
10. 신문구독(회람)

1939년 8월 13일에는 시흥군연맹에서는 안양공립심상소학교 내에서 시흥군 전 지역의 국민정신총동원 부락연맹 이사장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중일전쟁 2주년을 맞이해 민중을 더 긴장케 하고, 침략전쟁임에도 오히려 그 전쟁의 정당성과 시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각 부락의 이사장은 물론 각 면장과 경기도 사회과장, 군수, 경찰서장, 김민식 경기도회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민식 도회 의원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한 시국강연을 했다. 이후 대회에 참석한 각 부락의 이사장들은 학교 근처에서 근로봉사 작업을 했다.¹⁴



시흥군 전 지역의 국민정신총동원 부락연맹 이사장대회를 마친 후 안양공립심상소학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광경(『조선일보』, 1939년 8월 16일)

서이면을 비롯한 시흥군 관내 민중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전시동원체제에 더욱 내면화되어갔다. 시흥군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직된 정동추진대(精動推進隊) 교양훈련을 실시했다. 1940년 1월 23~24일 이틀 동안 군내 각 면에서 48명의 대원을 안양공립심상소학교에 소집하여 재훈육을 시행하였다.¹⁵ 이 자리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주사 현영섭(玄永燮)도 참석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1월 23일

오전 10시: 안양공립심상소학교 운동장 집합

궁성요배-묵도-국가합창-국기계양-황국신민서사 및 근로보국단 신조 제창-군수 훈화-점심

오후 1시: 학교 강당

강화1(현영섭, 「내선일체론」)-강화2(경기도 사회과장, 「국민정신 양양」-훈련

오후 7시: 조선직물공장

저녁-시국영화 상영-근로봉사생활 감상담-좌담회-취침

1월 24일

오전 6시: 기상

조선직물공장-신사참배-시내 일순-조선직물공장-공장 내 근로봉사 작업-아침-전물용사 및 출정 용사 위로(가정 방문)-군사(軍事) 강화 및 사회개량 강연(현영섭·경기도 사회과장)-단체훈련-점심-해산

국민총력운동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보다 강도 높고 실제적인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는 1940년 10월 14일 「조선 국민조직 신체제 요강」을 발표하고 명칭을 ‘국민총력연맹’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10월 1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해체하고 국민총력조선연맹을 조직했다. 관제 민간운동 기구였던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는 달리 조선총독을 총재로 하고, 행정조직과 국민운동 조직을 일체화하여 더욱 강력한 총력운동을 펴나갔다. 총독부 및 각 도에 국민총력과를 신설하고, 과거의 국민정신총동원 및 농촌진흥의 사무를 통합하여 행정을 국민총력 발휘에 집중시켰으며,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나 정치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전 민중을 조직화하여 전시통제체제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했다.

조선총독부의 국민총력운동 방침에 따라 지방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 기구들도 일제히 전환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1940년 10월 24일 국민총력경기도연맹 발회식 이후 10월 25일 이천연맹을 시작으로 10월 29일 시흥군연맹이 결성됨으로써 경기도의 군단위 총력연맹 편성은 종료되었다.

안양지역의 경우 1940년 10월 31일 서이면 공회당에서 국민총력서이면연맹 발회식이 거행되었다.¹⁶ 11월 1일에는 각 부락연맹이 결성되어 행정기구와 더욱 강력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었다. 특히 부락연맹의 말단 조직단위인 애국반(愛國班)은 10호마다 반장을 둬으로써 전시통제 및 동원을 위한 국민총력운동 기구의 조직을 완성하였다.¹⁷ 국민총력서이면연맹의 임원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강전정헌(岡田政憲(서이면장))

이 사: 이달무남(伊達武男 등 18명)

평의원: 삼정광영(三井光永 등 35명)

시흥총력연맹에서는 하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인보상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면내 주민을 결합하고 국민총력연맹의 기저를 강력한 실천 조직으로 완성할 목적으로” 관내의 부락연맹 이사장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1941년 2월 23일 오전 11시 안양공립국민학교에서 서이면을 비롯해 인근의 남면·과천면·수암면의 부락연맹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가 열렸다. 강사로는 시흥군수, 경찰서장, 경기도의 내무과장과 권업과장, 도회의원, 시흥군총력연맹 이사, 군내 각 면장 및 공립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했다.¹⁸ 시흥군총력연맹은 시흥군청 및 일본부인회 시흥군지부와 공동으로 1943년 10월 11일부터 2일 동안 조선직물 안양공장에서 ‘중견부인강습회’를 개최하였다.¹⁹



새해 새봄을 축하하며 생산 증강을 기원하는 광고(『조선신문』, 1942년 1월 5일)

1942년 12월 5일에는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일’에 맞춰 안양공립국민학교 강당에서 안양면 내의 국민총력 각종 부락연맹 이사장 및 애국반장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총력시흥군연맹 이사장, 안양면연맹 이사장 및 각 구장과 애국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민의례 후 안양면연맹 이사장이 ‘선전대조’를 읽고 훈화를 하였고, 이어 시흥군연맹 이사장의 시국강연이 있었다.²⁰

1943년 8월 1일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날에 집집마다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안양신사에서 국민총력안양면연맹 주최로 ‘징병제 실시 감사 봉고奉告 및 필승 기원제’를 열었다.²¹ 1943년 8월 26일 오후 1시부터 면회의실에서 연맹 이사회를 열고 1만 8천여의 면연맹원이 9월에 실천할 ‘철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²²

안양면연맹은 1943년 11월 26일 정기 모임인 상회常會를 열고 애국반원, 즉 주민들에게 각종 공사의 근로동원에 기쁜 얼굴로 참여, 고공품藁工品 증산 노력, 쌀과 잡곡 공출 완수, 면화 공출 완수 등을 요구했다.²³

2) 각종 기관과 단체의 전시 동원기구로의 전환

조선중앙방공위원회에서 결정된 방공단 조직은 총독부령 〈경방단警防團규칙〉에 따라 1939년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경방단에서 방공防空은 물론 기존의 소방과 수방을 모두 담당함에 따라 소방조규칙과 수방단규칙은 폐지되었다. 경방단은 도지사 의 명을 받아 경찰서장이 지휘 감독하였고, 비용은 해방 부읍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안양지역의 소방조와 방호단은 이미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경방단규칙>에 따라 경방단으로 개편하기 위해 1939년 9월 29일 안양공회당에서 안양소방조와 방호단의 해산식을 하고, 이어 10월 3일 11시 안양신사에서 경방단 결성식을 거행하였다.²⁴ 서이면경방단의 조직 구성과 간부는 다음과 같다.

단장: 小林渡

부단장: 崔禹昌 長谷野嘉平

고문: 石崎幸次郎 伊達武男 古瀬倉吉 桐田元次 栗原二郎 李基善

경호부장: 金錫根

소방부장: 任昌宰

반장: 朴慶載(경호관제반장) 權東日(제1방화반장)

金東勳(제2방화반장)



안양소방조 경종대警鐘臺 및 소방기구보관소
(『조선신문』, 1935년 5월 22일)

이때 조선직물회사 안양공장 내의 사설 소방조(자위소방단, 1935.11.25. 조직)도 조선직물회사 안양공장 특설경방단으로 개편되었다.

경방단 간부 회의는 안양경찰관주재소에서 열렸다. 경방단은 방공·수방·소방 및 기타 경방이 주된 임무였으나 1940년대 이후 각종 주민 동원의 도구로서 기능하였다. 대원들은 자체 검열·기념식 및 훈련은 물론 입영기원제, 지원병 및 징병제도 강연회, 미영격멸 필승기원제, 안양신사의 각종 제례 등에 동원되었다. 나아가 경방단은 사법적 주민통제 기구인 경찰 이외에 지역의 치안유지와 통제 등 경찰업무의 보조역할은 물론 일제강점 말기에는 징용과 징병을 보조하는 기능까지 수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정책에서 노동력과 병력의 제공자인 청년층의 조직화에 집중하였다.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출현하여 활동하던 청년단을 총독부에서 통일적인 기준과 명칭으로 재편했다. 명칭은 ‘○○청년단’이라 하고, 15세 이상 25세 이하의 남자로 공립초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지조견실한’ 자로 제한하였다. 1941년에 들어와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년들로까지 확장하고 총독부의 총력전 정책에 발맞춰

청년대로 전환하였다. 청년단장은 해당 지역의 공립보통학교 교장이 맡았고 관 주도로 조직이 운용되었다. 청년대원들은 총력운동의 전위부대로서 단체훈련과 전시 후방활동에 적극 동원되었다.

안양지역의 경우, 1938년 12월 9일에 서이면청년단이 결성되었다. 안양심상소학교에서 거행된 결성식에는 시흥군수, 영등포경찰서장, 도의원, 조선직물회사 안양공장장 등 관민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단장은 안양소학교 교장 다테 다케오[伊達武男]였고 부단장은 안양양조장을 경영하는 지역 유지 윤경섭이었다.

청년단은 총독부의 총력전 체제하에서 ‘청소년층을 광범위하게 망라하여 엄격한 지도통제 아래 남녀의 강고한 단결, 향토에서 직역 봉공과 신도^{臣道} 실천, 생산력 확충에 정신^{挺身}하고 고도국방국가 확립을 더욱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청년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41년 5월 5일 안양국민학교에서 서이면청년대[안양청년대]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조선직물 안양공장에는 별도의 특설청년대가 조직되었다. 안양청년대원들은 1941년 12월 4일부터 10일 동안 근로작업에 동원되었다. 작업은 안양-안산 간 총연장 630m의 국방도로 수축공사였다. 매일 100명의 청년대원이 동원되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작업을 실시하였다. 근로봉사의 사례금 1천 8백 원은 청년대의 기본금으로 사용되었다.²⁵

조선총독부는 1939년 9월 1일 여자청년단 설치 보급 방침에 대해 학무국장 명의로 각 도지사에게 통첩하였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후방의 식민지 조선 내 여성들의 ‘보국정신’을 드높여 ‘향토문화 경제의 발전과 생활개선 등 시국에 대응할 여성의 중대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전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칭은 학교명, 동창회명, 또는 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소학교 졸업생으로 표준연령은 15세에서 25세까지로 하되 일본인이나 조선인, 기혼이나 미혼을 구분하지 않았다. 공장, 상점, 기타 단체에도 여자청년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²⁶

1940년 6월 19일 안양공립심상소학교에 서이여자청년단 발단식이 거행되었다.²⁷ 단원은 38명으로 안양리를 중심으로 한 소학교를 마친 여성들이었다. 임원으로는 안양소학교 교장(伊達武男)이 단장을 맡았으며, 부단장 이옥희李玉熙, 간사 이은용李銀鎔·김규창金圭昌, 보도원 산본봉자山本峯子·대장훈大場勳·이성구李聖九 등이었다. 고문은 서이면장 이기선[岡田政憲], 안양경찰관주재소 하전달방河田達芳, 조선직물 안양공장장이자 안양금융조합 감사인 송촌옹수松村雄樹 등이었다.

시흥군에서는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관련하여 군내 각 면의 청년단원 중에서 유자격

자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라 1939년 1월 15일 서이면청년단 임시총회에서 경기도 시학^{視學}이 육군특별지원병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청년단원 가운데 3명의 희망자가 나섰다.²⁸ 청년단(청년대)원들은 자체 훈련은 물론 방공방첩좌담회, 시국인식 강연회, 군사강연회, 전승기원제, 국민개로운동에 따른 생산확충 근로봉사 등에 동원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청년단 외에도 징병제도 실시 준비를 위해 청년특별연성소와 청년훈련소를 강화하였다. 청년특별연성소는 국민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청년훈련소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징병제도 실시가 발표되자 총독부는 194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청년훈련소를 증설하는 데 착수하고, 그해 10월 실시된 조선의 교육 전시 비상조치에서는 청년훈련소를 군무예비시설로 확충하도록 했다.²⁹

안양지역에도 안양청년훈련소, 조선직물(안양공장)청년훈련소, 안양청년특별연성소(1942.12)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³⁰ 이들은 각개교련 체조, 총검술, 사격 등의 학과 과목을 배우고 안양 오키이[神井]목장의 광장 등에서 각 과목에 대한 사열식을 갖는 등 전쟁 동원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1942년 5월에는 안양국민학교 교정에서 시흥군 관내 6개 청년훈련소 학생 400여 명이 모여 대회를 열기도 했다. 훈련소의 학생들은 청년대원 등과 함께 군인정신 체득과 나팔기술 연마를 위한 나팔강습회, 징병제도 강연에도 동원되었다.

3) 경제통제 강화

침략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총독부는 식량을 포함한 물자수급 통제 및 가격조정 등 경제통제정책의 강화에 나섰다. 시흥군에서는 1940년 2월 10일 식량(양곡)배급조합을 결성하고 식량 절약 및 혼식의 철저, 조합 외의 매매 금지, 공정가격 엄수 등을 결의하였다. 조합에서는 각 배급소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백미로 떡을 만드는 사람들을 단속하기도 했다. 특히 목탄의 경우 통제조합을 결성하고 시흥군 내에서 대량 소비지역인 서이면과 동면에 판매지정처를 설치했다. 점차 총독부의 통제 경제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시흥군은 각 통제조합의 대표, 공장, 회사 및 관계 경제단체들을 망라하여 1941년 8월 20일 시흥군경제통제협력회를 결성했다.³¹

일제강점기 식량배급은 농촌과 도시가 서로 달랐는데, 특히 도시에서는 전표제와 통



안양면 비산리 제3반 식량배급통장(독립기념관 제공)

장제로 이뤄졌다. 안양지역의 경우 식량배급이 통장제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 이 자료는 일제 패망 직전인 1945년 7월 23일 발행된 식량배급통장이다. 통장은 세대를 기준으로 발행되었다. 배급통장의 세대주는 안양면 비산리 제3반의 애국반원 송천계화(松川季和)이다. 가족인명부에 따르면, 송천계화(40)는 아내 및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식량을 배급함에 있어서 배급소를 지정하였다. 송천계화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정배급소는 안양면 안양리 소재의 '三井富口'였다. 배급소의 관리번호가 52번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배급소마다 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량배급통장에는 가족수의 증명을 위해 구장, 애국반장 등 6명의 확인 도장이 차례로 찍혀 있다.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배급에서 구장과 애국반이 중요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식량배급 대상은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하였는데, 1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대인이고 그 미만은 소인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3. 전시 총력동원과 수탈

조선총독부는 1937년 7월 중국 침략전쟁을 개시한 이후 태평양전쟁으로의 전쟁 확대 및 장기화에 따라 전면적인 국가통제에 의한 침략전쟁의 선전과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의 강제 동원 및 수탈 정책을 전개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국 선전 및 의식화와 생활 통제, 각종 인적·물적 동원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1) 시국선전 및 주민 통제

전시체제기에 조선총독부는 전국 곳곳에서 각 마을의 주민들을 총동원하여 시국강연회와 ‘무운장구 기원제’를 개최하고, 각종 모임 때마다 동방요배·일장기 게양·무운기원문 낭독 등을 강제했다. 일본의 중국침략 전쟁과 진주만 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날짜를 각각 기념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설치된 신사에서 주민들을 대거 동원하여 해마다 그날에 기원제 행사를 하였다.

시흥군에서는 각 방면의 명사들을 초빙하여 순회강연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경찰서는 각 주재소 직원을 총동원시켜 마을마다 시국좌담회, 전쟁 현황에 대한 영화 상영 등을 실행하였다. 중일전쟁 직후 조선총독부는 민간 유력자들로 ‘시국인식 강연반’을 조직하고 조선 내 각지에 파견하였다. 시흥군에서는 1937년 9월 6일 오후 1시부터 안양공립 보통학교에서 황해도지사를 지낸 중추원 참의 한규복(韓圭復)을 초청하여 시국인식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지나사변의 진상’ ‘민중이 각오해야 할 결의’ 등이었다. 강연회에는 군내 각 면직원, 면협의회원, 구장, 각 농촌진흥회와 청년단의 주요 간부, 기타 지방 유력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³²

1940년 3월 10일 육군기념일에는 시흥군 주최로 안양심상소학교에서 군내 소학생 및 청년단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군사강연회를 개최하였다.³³ 1945년 5월 29일에는 안양경찰관주재소에서 안양면민의 전쟁 필승 신념을 높일 목적으로 애국반장 이상 지도층 300여 명을 안양장로교예배당에 불러모으고 긴급시국좌담회를 열었다.³⁴

1943년 8월 27일 시흥군유도회 주최로 ‘징병제도실시감사결의선양 시흥군유림대회’가 안양국민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0월 20일에는 안양면과 안양경찰관주재소 공동 주최로 전시 후방 국민의 각오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안양국민학교 강당에서 시국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유지, 구장, 애국반장, 상공업자 등

500여 명이 동원되었다.³⁵ 1944년 6월에는 같은 곳에서 관공서장, 구장, 유력자 등 100여 명이 동원된 가운데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강연회에서는 ‘적개심 양양 강연회’를 개최하고 전시 중 후방의 조선인들에게 적에 대한 적개심 양양과 생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총독부는 <국민정신 작흥에 관한 조서> 공포 기념일인 11월 10일을 중심으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를 ‘국민정신작흥주간’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에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주체로 하여 애국반, 청년단, 근로보국대의 활동을 촉진하기로 하고 정무총감 명의로 각 도에 그 실시에 대한 통첩을 발송했다. 지방 행정기관은 물론 각종 단체에서는 ‘국민정신작흥주간’을 설정하고 요강을 만들어 실시했다. 시흥군에서는 1939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의 ‘국민정신작흥주간’에 실시해야 할 실행사항을 정하고 서이면을 비롯한 군 내 면마다 지도자 및 마을 주민 남녀 전부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했다. 실행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1939년도 시흥군 ‘국민정신작흥주간’ 실행사항(1939.11.7~11.13)

일자	명칭	실행내용
제1일 (11.7)	생도(生徒) 개선일	색복 착용 일제히 실행, 짚신과 나막신 착용(짚신제조전습회 품평회 개최), 의복을 새로 만들 경우 청년단복과 같은 것에 준할 것, 식사개선-훈식, 대용식 실행 철저(빈부의 구별 없이 실시주간 동안은 각호 일제히 실행하되 애국반장이 순회 검사를 행함), 각면 부락별로 절미운동 좌담회를 개최할 것, 취사 절약(냉반 실행, 아궁이 또는 온돌 개선), 주택 안팎의 청소 정돈, 남자 머리 짧게 깎기, 허례 폐지, 절주절연, 시간 존중 및 시간 지키기
제2일 (11.8)	물자애용·소비절약	일상 용기의 애석절용(愛惜節用), 농구 가구 수리, 전기 및 연료 절약에 철저를 기함
제3일 (11.9)	보은감사일	각 가정에서 감사행사, 시간 재인식(훈화, 강화를 행함)
제4일 (11.10)	(조서 환발(換發) 기념일)	(내용 불명)
제5일 (11.11)	근로보국일	각 면의 근로보국단은 출동하여 한해구제·토목공사에 출역하고 감사정려대원(感謝精勵隊員)으로 활동할 것, 근로보국단 부인부와 소년부도 집단작업을 행함
제6일 (11.12)	폐품수집일	군수 관계 물자의 폐품을 각 부락별로 모으고 공동판매 대금은 저축할 것
제7일 (11.13)	저축여행(貯蓄旅行)일	농가의 부산(副山)수입은 저금을 여행(旅行)함, 국채 및 저축 채권 소화(消化)에 노력함, 이삭줍기 등을 실행하고 그 매각 대금을 저축함

출전: 『京城日報』, 1939년 11월 2일. 기사에는 제4일의 내용이 없다. 이 표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추정한 것이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기차를 이용한 통학생·통근자들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통제했다. 1944년 5월 경기도보도연맹에서는 경성 주변의 안양, 의정부 등의 역에 ‘통학통근

자자치단'을 조직하도록 했다. 자치단은 각 역장을 보조하는 조역(助役)을 단장으로 하여 통근자와 통학생을 모두 가입시키고, 몇 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반장을 배치해 일사분란하게 단속하였다.³⁶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인들에게 징용을 '국민의무'로 인식시키고 「징용기피방알취체지도요강(徵用忌避防遏取締指導要綱)」을 마련하여 징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단속하였다.³⁷ 경기도에서는 1945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징용기피방침취지철저기간'으로 정하고 조선인들을 압박했다.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는 당시 "근로동원, 특히 징용은 국가의 요청에 의한 국민동원제도로 병역에 다음가는 제국 신민의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³⁸



서이면장이 각 리의 구장과 근로보국단 분단장에 보낸 근로보국출동 준비에 관한 공문

2) 근로동원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1주년인 1938년을 기점으로 만 12세부터 40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총동원하고자 각 면을 단위로 근로보국대를 결성했다. 근로보국단은 각 면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되 도로공사, 토지개량공사, 개간공사, 농사촉진작업 등 총후원 조사업과 공익사업의 작업에 단원들을 총동원하도록 하였다. 1938년 6월 26일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정무총감 통첩 〈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 실시요강〉에 따르면, 보국대원들은 작업개시를 전후하여 궁성요배 등 의례를 해야 하며, 보국대원의 작업은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받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국대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각 군에 면을 단위로 하여 근로보국단을 결성하도록 했다. 근로보국단은 18세~35세의 청장년을 망라하여 공공 토목공사에 봉사하도록 했다. 면의 근로보국단 하부에는 각 구(區)를 단위로 분단을 설치하고 군에는 군연합단을 두도록 했다. 경기도는 1938년 7월 7일 237개 읍면에 일제히 근로보국단을 결성했다. 이때 서이면에 도 근로보국단이 결성되었고 각 구에는 분단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이면장이 1940년 8월 22일 날짜로 면내 각 리의 구장과 근로보국단 분단장 앞으로 보낸 근로보국 출동에 관한 공문 자료에 따르면, 각 리의 구區에 근로보국 분단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보국단 출동 준비과정은 각 리의 구장과 근로보국 분단장이 담당하며, 출동 전날에는 ‘출근 준비훈련’이 실시되었다.

근로보국단원으로서 다른 지역의 공사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1941년 11월 10일 가평군 외서면 청평한강수전공사장으로 출동한 안양면근로보국단원 하정삼산河井三山은 11월 13일 오전 11시경 작업 도중에 무너져 내린 돌덩이에 후두부 중상을 입어 공사장 구호의救護醫에게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³⁹

식민지 조선 민중들은 조선총독부의 전시 지원물자 생산, 특히 식량증산에 총동원되었다. 동원은 농번기인 보리와 쌀 등의 이앙기와 추수기에 집중되었다.

안양면에서는 모심는 시기가 되면 대대적으로 남녀 주민들을 동원하였다. 1944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면내 각 총력연맹 및 공장과 단체의 구성원들이 총동원되었다. 특히 연맹마다 ‘공동작업반’이 조직되어 농촌 마을의 벼심기를 하였는데, 하루 평균 500여 명씩 연인원 1500여 명이 동원되었다.⁴⁰ 시흥군에서는 “거름땀이 쌀땀이”, 즉 거름더미가 곧 쌀더미란 의미의 표어 아래 퇴비증산을 강조하였는데, 안양면을 비롯한 각 면에서는 풀의 생육이 최성기인 8월에 주민들을 밤낮으로 동원하여 풀베기를 하였다. 1943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안양국민학교 4~6학년 남녀 학생 240명이 풀베기 작업에 동원되었다.⁴¹

송탄유松炭油 증산에 각 총력연맹원은 물론 학생까지도 총동원하였다. 1943년 8월 안양 양지학술강습소의 어린 학생 200여 명이 총동원되어 송탄유 생산 재료로 쓸 소나무 잔가지 600관(2250kg)을 채취하였다.⁴²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에 위문품으로 보낼 고사리 채취에도 동원되었다. 1944년 5월 28일, 안양면 안양리 제5구락부연맹에서는 오전 9시부터 부락연맹 이사장의 지휘 아래 500여 명의 애국반원이 총동원되어 수리산에서 고사리를 채취했다.⁴³

3) 강제 저축과 증산운동

조선총독부는 저축 장려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1942년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을 ‘국민저축조합정비주간’으로 결정하였다. 전국 부·군·읍·면을 비롯해 국민총력연

맹 및 각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 애국반을 총동원하였다. 강제 저축은 지역별로 목표액이 정해져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1942년 저축달성 목표는 9억 원이었다.

1944년도 시흥군의 저축 목표액은 250만 원이었다. 1942년도에는 98만 원이었던 목표액이 1943년도에는 146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흥군은 매년 1.5배 이상 목표액을 강제로 늘려나갔다. 1944년도에 시흥군은 각 면에 저축 목표액을 배정하였는데 안양면의 경우 39만 1200원이었다.⁴⁴

조선총독부는 초등 교과서를 이용하여 어린 학생들까지도 저축을 장려하였고, 그렇게 모아진 돈은 결국 국방헌금으로 동원되었다. 1940년에 편찬한 교과서 『초등국어독본(初等國語讀本)』에 실린 ‘一錢チヨキン(一錢貯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축 장려’ 교육을 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가 독본에서 배운 때부터 1전 저금을 실행하여 모은 돈입니다. 국방헌금으로 받아주세요.” 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안양공립국민학교 2학년의 2개 학급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1전저금’의 내용대로 각자 1전씩 저금한 9원 32전을 모아 1942년 1월 30일 학교 교무실로 가져와 “우리가 독본에서 배운 때부터 1전저금을 실행하여 모은 돈입니다. 국방헌금으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며 맡겼다.⁴⁵

조선총독부는 식량증산을 비롯한 각종 증산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전시물자 생산에 동원하였다. 1944년에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독려요강>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했다. 안양면에서는 농업생산책임제 실시에 즈음하여 1944년 4월 23일 안양국민학교 강당에 면내에 10정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 120명을 불러모아 ‘미영격멸 비상증산 지주 쫓기대회’를 개최하고 쌀·보리·콩 및 기타 주요 식량의 증산을 위한 당국의 요망사항을 설명했다.⁴⁶ 1944년 6월 8일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는 오전 6시 반부터 안양면 내 5개 리 30개 부락에서 지주와 경작자들을 동원하여 ‘미영격멸 농업생산책임제 완수 총쫓기대회’를 열고 쌀·보리·콩을 비롯한 각종 중요 식량의 증산을 맹세하도록 했다.⁴⁷

농업생산물을 늘리기 위해 공한지(空閑地)를 이용한 작물재배도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안양면에서는 1944년 4월 22일 히라하라(平原正達) 부면장의 지휘로 30여 명의 직원이 총동원되



피마자 증산 포스터(『매일신보』, 1944년 4월 20일)

어 면사무소 앞뜰과 600여 평의 옛 신사 터에 피마자를 심었다.⁴⁸ 당시 피마자기름은 비행기 윤활유는 물론 정밀기계용, 일반공업용, 약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일제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피마자 증산을 국가정책으로 하였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비행기와 전차의 생명은 피마자기름이다” “우리의 향토호(鄕土號)를 우리가 길러낸 피마자의 기름으로 날리자!” 등의 표어를 쓴 포스터를 전국의 애국반에 보내 피마자 증산을 재촉했다.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새끼줄·가마니·거적 등 고공품(藁工品)에 대한 수요가 격증했다. 조선총독부는 농가의 부업으로 고공품 증산 장려에 전력을 기울였다. 각도에서 부·군·읍·면에 이르기까지 생산목표액을 정해 경쟁적으로 목표량을 채우도록 했다. 시흥군의 경우 “거적(筵) 왕국 시흥”으로 표현될 만큼 그 생산량이 많았다. 시흥군의 1943년 생산 계획을 보면, 새끼줄 13만 관, 가마니 30만 장, 거적 150만 장으로, 이 가운데 안양면에는 거적 20만 장이 할당되었다.⁴⁹ 1944~1945년에는 재료 구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겨우내 안양면 700여 농가가 총동원되어, 1945년 3월 20일까지 책임 수량 거적 20만 장과 새끼 1만 5천 관을 완료했다.⁵⁰

4) 현금·헌납운동 및 공출



안양면민의 '애국기 시흥호' 기금 헌납 기사(『매일신보』, 1942년 12월 22일)

만주침략 이후 조선총독부는 비행기 제작을 위한 현금을 비롯한 국방현금과 전쟁 군인들을 위한 위문금품 등의 헌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현금·헌납운동을 강요했다. 전도와 부·군·읍·

면은 물론 부락, 단체, 개인 등 국방헌금과 헌납운동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안양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내는 각종 명목의 헌금과 헌납이 학교·주재소·면사무소에 지속해서 맡겨졌다. 1938년 8월, 조선 직물 안양공장 사원 일동의 100원을 비롯해 서이면의 유지 42명과 일반 주민 23명이 701원을 서이면에 국방헌금으로 기탁하였다. 이 외에도 서이면의 여자 100명이 별도로 위문대에 현품 330개와 대금 30여 원을 맡겼다.⁵¹

1942년 11월 국민총력시흥군연맹에서는 8만 연맹원을 동원하여 육군기 1대를 헌납하기로 했다. 태평양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12월 8일에 헌납을 목표로 ‘애국기 시흥호’ 1대 값 8만 원을 목표로 하여 헌납운동을 전개하였다.⁵² 그 결과 1942년 12월 18일 까지 안양면사무소에 기탁된 기금은 11만 208원에 달했다.⁵³ 안양지역 각 부락연맹의 국방헌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1942년 ‘애국기 시흥호’ 헌납을 위한 안양지역 각 부락연맹의 국방헌금 현황

안양리 1~11구부락연맹/5058원 50전
1구-154원, 2구-564원, 3구-745원, 4구-1143원 50전, 5구-500원, 6구-882원, 7구-268원, 8구-293원, 9구-337원, 10구-72원, 11구-100원
비산리 1~4구부락연맹/769원
1구-385원, 2구-100원, 3구-119원, 4구-165원
일동리 1~6구부락연맹/898원
1구-204원, 2구-227원, 3구-141원, 4구-102원, 5구-131원, 6구-93원
이동리 1~4구부락연맹/810원
1구-358원, 2구-109원, 3구-60원, 4구-283원
호계리 1~5구부락연맹/662원 50전
1구-136원, 2구-90원 50전, 3구-100원, 4구-150원, 5구-186원
개인/3010원
冲井松吉 350원, 伊藤敬燮 300원, 三井駿榮 250원, 星山重華 200원, 松村雄樹 200원, 瀧澤?雄 150원, 清河鵬益 100원, 金本仲濟 100원, 増田次郎 100원, 金本訓一 100원, 松本杉藏 100원, 安江正三 100원, 眞山庚宅 100원, 小林渡 100원, 金錫基 100원, 三井光永 100원, 成見哲 80원, 平沼龍昇 70원, 加藤幹生 70원, 仙石政保 50원, 松本東華 50원, 佐伯有敏 50원, 鄭金石 50원, 松原宇春 50원, 高山茂久 30원, 栗原包太郎 30원, 田代良彦 30원

출전: 『매일신보』, 1942년 12월 22일.

1942년 12월 29일, 시흥군수 오노[小野廣吉]는 관하 각 면의 국방헌금을 모아 조선군 애국부를 방문하여 “시흥호” 애국기 1대의 기금 8만 원을 헌납했다.⁵⁴

조선총독부는 금속품 공출도 ‘헌납’이란 명목으로 동원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

본은 1941년 8월 30일 ‘금속류회수령’을 공포하고 조선에는 10월 1일부터 실시했다. 유기 등의 금속류 공출을 보도한 『매일신보』의 한 기사에는 “어뢰를 만들자! 폭탄을 만들자!”는 구호로 금속류 공출의 목적을 나타냈다. 1942년 4월 안양면의 25개 부락 애국 반원들은 조선총독부의 ‘금속특별회수운동’에 따라 유기 67관 200돈, 철·동 51관 200돈을 면사무소를 통해 조선군 애국부에 헌납했다.⁵⁵

금속류 공출은 계속되었고 안양면의 각 부락연맹의 금속류 헌납은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다. 1943년 3월 23일 안양면사무소에 늦쇠 37관 621돈(1100점, 약 140kg), 고엽전 790개, 50전 은화 41개, 10전 백동화 892개, 1전 동화 625개 등 상당한 양의 유기와 동전이 기탁되었다.⁵⁶ 이는 안양면 안양리 제3구부락연맹에서 주민들로부터 모은 것으로,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추진한 “적敵 미국과 영국을 쳐부수는 탄환과 어뢰”를 만드는 데 쓰일 금속품 공출이었다. 같은 해 4월 28일에는 안양리 제4구부락연맹에서 모은 늦쇠로 만든 식기류 2000점, 동화 312개, 현금 120원을 가지고 부락연맹 대표가 해군 무관부를 직접 방문하여 헌납했다.⁵⁷ 1942년 4~5월경 안양장로교회와 안양성결교회는 각각 교회의 종을 떼어 ‘미영격멸의 탄환으로 써달라’며 안양경찰관주재소를 통해 헌납했다.⁵⁸

4. 서이면장의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1937.7.7~1940.4.28)’를 통해 본 동원과 수탈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중국침략 전쟁 수행과 관련한 인물들에게 포상하기 위한 작성된 공적功績 기록이다.

1937년 7월부터 1940년 4월까지 일본은 물론 조선총독부 행정기관, 특히 최말단 지방행정 기관인 ‘면’의 동원과 수탈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의 하나이다.

공적조서 가운데는, 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 중에 서이면(면장 이기선)에서 수행된 조선총독부의 전시 식민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서이면장 이기선의 공적으로 서술된 침략정책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군대 군수품 수송 및 병참 관련 근무와 숙영 급여에 관한 업무
- ② 군용물자 조달, 군수품 제조, 공출 및 수리 조달에 관한 업무

- ③ 전몰자, 전상병사자 조문 및 전상병환자에 대한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
- ④ 군인 군대 및 유족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 ⑤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 ⑥ 국채소화, 저축장려 등에 관한 업무
- ⑦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등의 모집에 관한 업무

〈표 5〉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에 기재된 서이면장 이기선의 공적사항

인물	공적기간	공적사항
서이면장 이기선李基善	1937.7.7~1940.4.28 (2년 9개월 22일)	1. 군대 및 군수품 등의 수송, 병참 근무, 숙영급여에 관한 업무 ○숙영급여: 642,400인
		2. 군용물자 조달, 군수품 제조, 공출 및 수리, 조변에 관한 업무 ○馬糧大麥 1,900ㇾ 공출 ○馬糧裸麥 7,050ㇾ 공출(ㇾ/kg) ○萆麻子實 500斤 공출 ○馬糧乾草 502,000ㇾ 공출 ○犬皮 150枚 공출 ○兔皮 50枚 공출 ○猫皮 1枚 공출 ○豚皮 229枚 공출 ○罐詰用成牛 1頭 공출
		3. 戰歿死, 戰傷病者 弔慰 및 戰傷病患者의 淸금, 幫助慰問에 관한 업무 ○전사자 조위금 319円 取纏(총괄) 송부 ○전상자 위문금 99円 45錢 모집
		4. 군인, 군대 및 그 유가족 등 後援 慰恤에 관한 업무 ○위문금 1,309円 16錢 取纏 송부 ○慰問袋 947개 取纏 송부 ○慰問文 1,320通 取纏 송부 ○군인후원사업 자금 914円 모집
		5. 여론환기, 국방사상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시국영화회 4회 2,500인 ○시국강연회 7회 2,100인
		6. 國債消化, 저축장려에 관한 업무 ○國債 1,160円 消化 ○債券 190円 消化 ○저축실적액 58,500円
		7.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 자금 등의 모집 取纏에 관한 업무 ○국방헌금 820円 모집 ○애국기 헌납 자금 400円 모집 ○防空機材費 549円 10錢 모집



『지나사면공로자공적조사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에 기록된 시흥군 서이면장 이기선李基善의 공적조사(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註

- 1 「서이면 직원들 창씨, 『매일신보』, 1940년 6월 7일. 서이면장 이기선李基善은 창씨제도가 실시된 이래 각 부락 애국반을 총동원하여 창씨의 취지 보급에 노력했다. 그는 '술선'하여 岡田政憲으로 창씨 개명을 했고, 직원들도 모두 창씨개명했다. 회계원 이규원李揆元은 宮村元으로, 서기 오병남吳炳南은 三山秀夫로, 김형욱金炯旭은 金村炯旭으로, 서기 한공이韓兢履는 清原英吉로 각각 창씨개명했다.
- 2 「광고: 東亞共榮之新年皇紀二千六百一年, 『조선신문』, 1941년 1월 8일. 당시의 서이면 직원 및 면협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다. 서이면장 岡田政憲 서기 宮村元 金山在禮 慶木肇·竹本一雄·三山秀夫 春木鳳九·金村炯旭 清原英吉 青松琬燮, 기수 仲原秀才, 면협의회원 眞山庚宅(愼庚宅) 松本起純(李起純) 高山茂久(崔禹昌) 春木章薰(李章薰) 伊藤敬燮(尹敬燮) 高山永福(崔永福) 豊田時實(趙漢九) 三井駿榮朴駿榮·小林渡.
- 3 「공한지 이용에 면직원 총출동, 『매일신보』, 1944년 4월 26일.
- 4 「병사사무 개시, 시흥군 각 면에서, 『매일신보』, 1943년 8월 20일.
- 5 「부면장제도를 실시, 금일 읍면제시행규칙 개정 공포, 『매일신보』, 1943년 6월 18일.
- 6 「안양에도 부면장제, 『매일신보』, 1943년 8월 17일. 조선주용, 조종악趙鍾岳은 당시 38세로 1941년까지 부천군 용유면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는 1942년 11월에 안양체육진흥회 결성에 참여하고 이사로 활동하였다. 안양체육진흥회 회장은 면장 강전정현岡田政憲이었다.(『안양체육진흥회 결성』, 『매일신보』, 1942년 11월 12일)
- 7 「조선총독부령 제372호, 『조선총독부판보』, 1943년 12월 1일.
- 8 「(중서)말단행정 쇄신 강화, 경기도에서 주요 읍면에 속관을 배치, 『매일신보』, 1944년 3월 4일; 「군포소채조합 창립, 『매일신보』, 1944년 4월 15일; 「근로동원과 설치와 각군 전임과장 임명, 『매일신보』, 1945년 2월 23일. 시흥군속 평원정달은 1944년 2월 29일 날짜로 안양면 부면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원읍으로 발령받았다는 『매일신보』 1944년 3월 4일 기사는 안양면의 오류로 판단됨). 4월에는 안양면 호계리에 거주하는 채소 업자 45명으로 조직된 군포소채조합의 간사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1945년 2월 21일 날짜로 시흥군 동면으로 자리를 옮겼다.
- 9 「안양면장 경질, 『매일신보』, 1945년 6월 22일.
- 10 「안양경찰서 20일 개서식, 『매일신보』, 1945년 6월 22일; 「안양서 탄생, 초야 서장이 포부 피력, 『매일신보』, 1945년 6월 28일. 안양경찰서는 서장을 비롯하여 경무·경비·병사계, 사법·보안·

- 위생계, 고등·경제계의 부서를 두고 부서마다 경부보의 주임을 1 명씩 배치했다. 안양경찰서는 안양역 앞의 옛 식산은행 예금취급소 자리를 신청사의 위치로 정하였다.
- 11 「始興總動員聯盟 盛大に結成式を舉行」, 『京城日報』, 1938년 7월 15일. 1938년 7월 14일까지 경기도 각 군에 총동원연맹이 조직되었고, 7월 15일에는 각 군연맹을 비롯해 경기도 내 각종 사회·문화·산업단체 및 군사연맹 등 43개 단체가 망라된 국민정신총동원경기도연맹이 결성되었다.
 - 12 「총동원 세포단체로 각 면에 지부 설치, 시흥군하 8면에서」, 『조선일보』, 1938년 7월 21일; 「國民精神總動員 各地聯盟を結成」, 『朝鮮新聞』, 1938년 8월 5일.
 - 13 「始興郡聯盟 理事會 開く」, 『朝鮮新聞』, 1938년 8월 17일; 「시흥군연맹에서 실행요목을 결정」, 『조선일보』, 1938년 8월 17일.
 - 14 「정동연맹 이사장회, 13일 안양소속에서」, 『조선일보』, 1939년 8월 16일.
 - 15 「精動推進隊の意氣, 二日間, 酷暑下の猛訓練終る」, 『京城日報』, 1940년 1월 28일.
 - 16 「國總西二面聯盟結成」, 『朝鮮新聞』, 1940년 11월 3일. 안양면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국민총력안양면연맹이 되었다.
 - 17 「始興郡國總, 各部落共力強く發足」, 『朝鮮新聞』, 1940년 11월 8일.
 - 18 「始興郡總力聯盟理事長講習會開催」, 『朝鮮新聞』, 1941년 2월 20일.
 - 19 「중견부인강습, 안양에서 개최」, 『매일신보』, 1943년 10월 12일.
 - 20 「대동아전쟁 1주년, 각지서 기념행사 현란(안양)」, 『매일신보』, 1942년 12월 8일.
 - 21 「신병된 영예에 감격, 각지 징병기념행사 성대 거행」, 『매일신보』, 1943년 8월 4일.
 - 22 「국민총력연맹역원회」, 『매일신보』, 1943년 8월 31일.
 - 23 「안양면연맹 상회」, 『매일신보』, 1943년 11월 30일.
 - 24 「안양소방조, 방호단 경방단으로 개편」, 『동아일보』, 1939년 10월 1일; 「警防團發團式」, 『朝鮮新聞』, 1939년 10월 5일;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1939년 10월 5일.
 - 25 「매일 백 명씩 출동, 안양청년대원의 근로봉사」, 『매일신보』, 1941년 12월 11일.
 - 26 「여자청년단 장려, 학무국서 방침 결정」, 『동아일보』, 1939년 9월 2일. 소학교 졸업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선일체로 하고, 소학교가 다수일 때는 학교별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중등학교나 전문학교에서는 동창회로서 그 범위로 하도록 했다.
 - 27 「서이여자청년단 결성」, 『동아일보』, 1940년 6월 24일.
 - 28 「시흥군 청년에게 지원병제로 해설」, 『조선일보』, 1939년 1월 19일.
 - 29 「필승의 연성과 원호, 징병 결사까지 고심 노력」, 『매일신보』, 1944년 9월 1일.
 - 30 1943년 9월 30일 안양공립국민학교 교정에서 안양청년특별연성소 제1회 수료증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수여식에서는 황국신민서사 제창과 '우유미까바' 노래를 부른 뒤 분열식이 거행되었다(안양청년특별연성소 수료식, 『매일신보』, 1943년 10월 5일).
 - 31 「經濟統制協力會, 始興郡で二十日結成」, 『朝鮮新聞』, 1941년 8월 22일.
 - 32 「安養の時局講演」, 『朝鮮新聞』, 1937년 9월 8일.
 - 33 「軍事講演會, 安養小學校で」, 『朝鮮新聞』, 1940년 3월 13일.
 - 34 「긴급시국좌담회」, 『매일신보』, 1945년 6월 2일.
 - 35 「時艱 극복좌담회, 안양국민교서 성대 거행」, 『매일신보』, 1943년 10월 26일.
 - 36 「통근통학자지단, 경기도 내 각 역에 조직」, 『매일신보』, 1944년 5월 19일.
 - 37 「장용의 기쁨을 방알, 인식하라 국민 의무, 취체지도요령을 결정」, 『매일신보』, 1945년 6월 22일.
 - 38 「국민개교로 친화를, 원호철저에 관민협력」, 『매일신보』, 1945년 6월 25일.
 - 39 「순국 보국단원 하정군 면민장, 안양서 성대 거행」, 『매일신보』, 1941년 11월 21일; 「하정군 면민장 집행」, 『조선신문』, 11월 22일. 11월 19일 유가족을 비롯해 군수와 관민유지, 경방단, 국방부인회원, 국민학교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국민학교 교정에서 면민장面民葬이 거행되었다.
 - 40 「모심기에 총동원, 안양서 각종 연맹원들이 근로작업」, 『매일신보』, 1944년 7월 4일.
 - 41 「아동들도 초여작업」, 『매일신보』, 1943년 8월 19일. 매일신보에서는 각종 근로에 동원된 어린 학생들을 「꼬마전사」라며 추켜세웠다.
 - 42 「송탄유 증산에 학동들도 한몫」, 『매일신보』, 1943년 8월 19일.
 - 43 「고사리 채취에 5백여 동민 총동원」, 『매일신보』, 1944년 6월 3일.
 - 44 「250만 원 목표, 시흥군 저축운동 전개」, 『매일신보』, 1944년 5월 23일. 1944년 시흥군 내 각 면에 배정된 저축 목표액은 안양면 39만 1200원을 비롯해 동면 48만 3100원, 서면 26만 7850원, 신동면 31만 3460원, 과천면 14만 1890원, 남면 15만 2100원, 수암면 36만 1800원, 군자면 38만 8600원이었다.
 - 45 「一錢貯金で獻金, 安養國民校生の赤誠」, 『조선신문』, 1942년 2월 1일.
 - 46 「농민지도를 맹서, 안양지주결기대회 종료」, 『매일신보』, 1944년 4월 26일.
 - 47 「농산책임제 완수, 총결기대회 안양서 성황」, 『매일신보』, 1944년 6월 13일.
 - 48 「공한지 이용에 면직원 총출동」, 『매일신보』, 1944년 4월 26일.
 - 49 「고공품 증산에 돌진, 시흥군 18년도 생산 목표 결정」, 『매일신보』, 1942년 11월 17일.
 - 50 「藥品 생산 목표 달성」, 『매일신보』, 1945년 3월 27일.
 - 51 「국방헌금 위문금(시흥군 서이면)」, 『동아일보』, 1937년 8월 25일.
 - 52 「애국가 시흥호, 8만 군민의 한남운동」, 『매일신보』, 1942년 11월 6일.
 - 53 「愛國機 “始興號” 獻納基金申請逐日逕至」, 『매일신보』, 1942년 12월 22일. 『매일신보』에는 합계가 1만 1198원으로 잘못 계산되어 있다.
 - 54 「애국가 시흥호, 군 애국부에 기금 헌납」, 『매일신보』, 1942년 12월 30일.
 - 55 「유기, 철물 110관, 안양면민 일동 회수 헌납」, 『매일신보』, 1942년 4월 21일.
 - 56 「헌금과 유기 헌납(안양)」, 『매일신보』, 1943년 3월 28일.
 - 57 「경성일보」, 1943년 4월 29일.
 - 58 「종을 헌납, 안양장로교회서」, 『매일신보』, 1942년 5월 6일; 「교회 종을 헌납, 안양성결교회서」, 『매일신보』, 1942년 5월 15일.

5장

일제 말기 시흥군민이 경험한 강제동원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1.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강제동원

일본은 침략전쟁인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을 치르면서 일본 본토와 남사할린, 식민지(조선, 대만), 점령지(중국 관내, 만주, 중서부 태평양, 동남아시아)의 인력과 물자, 자금을 동원했다. 그림에서 붉은 표시를 한 곳은 일본이 인력과 물자, 자금을 동원한 지역이다. 길버트와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도 붉은 표시의 대상이다.¹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최대 영역도(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 1, 2009)

한국의 현행법(법률 제12132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강제동원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제2조)라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이 동원한 인력의 종류는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이다. 이 가운데 노무자가 가장 많다.

노무자가 많았던 이유는 전시에 민간 노동력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총력전에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 외에 옷이나 신발도 필요했다. 군수공장의 기계를 돌릴 석탄과 비행기 원자재인 철강도 필요했고, 석탄이나 군수물자를 화물차와 선박에 싣는 일손도 필요했으며, 비행장과 도로, 철도도 건설해야 했다. 그래서 일제는 병사 한 명 당 필요한 민간 노동력을 13~18명으로 산정했다.

일본 당국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전쟁이 장기화하자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의 인력과 물자,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총동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1938년에 제정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이다. 「국가총동원법」은 중국 전선과 인접한 만주국에서 먼저 탄생했다. 1937년 중일전쟁 후 관동군(*만주에 있는 일본군)은 전선을 쉬저우(徐州, 광둥[廣東]) 등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관동군과 일본인 관료들은 1938년 2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이후 군부는 여세를 몰아 의회를 압박한 결과, 일본에서도 5월 5일에 공포했다.

「국가총동원법」은 국가총동원체제를 운영하는 근거법이자 국가가 전시에 인력과 물자 등 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전시수권법)이었다. 동원 대상은 ‘제국 신민, 제국 법인, 기타 단체’였다. 「국가총동원법」 조문에 ‘일본과 조선, 타이완[臺灣], 남양청(현재 중서부 태평양의 통치기구), 관동청(현재 중국 본토의 통치기구)’라고 명시해 한반도를 포함했다. 일본 국가권력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일본과 식민지, 점령지의 민중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국가총동원법」 제33조에는 ‘명령에 불복不服 또는 기피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있었다.

일제는 얼마나 많은 한인을 동원했을까.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5년 12월 폐지)가 산출한 인력 동원 피해 규모는 780만 4376명이다. 이 수치는 중복동원을 포함한 규모이다. 피해자 1인이 여러 차례 동원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 규모는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다.

〈표 1〉 한인 강제동원 피해 규모(중복인원 포함)

노무자 동원		계	군무원 동원		계		
한반도 내	도내동원	5,782,581	6,488,467	일본	7,213	60,668	
	관 알 선	402,062		조선	12,468		
	국민징용	303,824		만주	3,852		
				중국	735		
			남방	36,400			
			군인 동원		계		
한반도 외	국민징용	222,217	1,045,962	육군특별지원병	16,830	209,279	
	할당모집 관 알 선	823,745		학도지원병	3,893		
				육군징병	166,257		
				해군(지원병 포함)	22,299		
총계			7,804,376				

출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35쪽.

비고: 1. (총계) 1인당 중복동원 포함

2. (동원 실수) 최소 2,021,995명(한반도 노무자동원 중 도내동원 제외한 수) 이상으로 추산

3. (지역 구분)

- (국내) 6,552,883명(노무자 6,488,467, 군무원 12,468, 군인 51,948)

- (국외) 1,251,493명(노무자 1,045,962, 군무원 48,200, 군인 157,331)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외

동원된 한인들이 모두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니다. 일본 본토(남사할린 제외)에서 사망 및 행방불명된 노무자는 10만 명(작업장 내 사망 1만 명, 원폭 사망 4만 명, 공습 등 재난 사망 5만 명)으로 추정한다. 일본 후생성 통계에서 한인 군인과 군무원 사망 및 행방불명 비율 55.9%를 한인 군인·군무원 총수에 적용하면 일본, 동남아와 태평양, 만주 등 전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은 약 17만 2650명이 된다.²

동원된 한인은 가혹한 수탈체제에 굴종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탈출이나 작업 거부, 적극적으로는 파업과 폭동으로 맞서기도 했다. 작업장 내에서 또는 군대 내에서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해 비밀리에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일본 내무성 조사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에 동원한 한인 가운데 25만 7907명이 탈출을 시도했다. 연도별 탈출 비율은, 1939년에는 2.2%였으나 1943년에는 39.9%에 달했다.³

학도지원병 및 징병 피해자 가운데 전선을 탈출해 광복군으로 편입된 사례도 김준엽, 장준하 등 다수가 있다. 학도지원병 징집을 거부해 ‘응징(應懲)학도’ ‘징용학도’라는 이름으로 오노다[小野田] 시멘트 등 노무 작업장에 동원된 청년들도 수백 명에 달했다.⁴

2.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시흥군 출신자

1) 주요 명부를 통해 본 시흥군 출신자의 피해실태

명부名簿란 강제동원된 이들의 인적 사항, 피해 내용 등을 담은 자료이다. 생산자에 따라 한국 정부, 일본 정부와 기업, 연합군, 피해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1950년대 한국 정부가 신고받아 작성한 두 종류의 명부(일정시피징병징용자명부, 왜정시피징용자명부)와 일본 정부에 요구해 인수한 다양한 명부가 있다. 현재 국내 여러 기관이 소장한 강제동원 관련 명부의 규모는 약 307건이고, 수록된 이름은 약 180만 명(중복인원 포함)이다. 주요 명부를 대상으로 시흥 출신자⁵를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무자

일본 당국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할 당시 기업에 의무적으로 명부를 만들도록 했으나 공개된 명부는 일부이다. <표 1>에서 노무자는 한반도 내외를 합쳐 753만 4429명인데, 현재 발굴한 노무자 명부는 약 17만 명(중복인원 포함)이다. 주요 명부에서 추출한 노무자로 동원된 시흥인은 304명이다.

<표 2> 국내 소장 노무동원 관련 주요 명부 중 시흥 출신자 수록 현황

번호	명부 이름	명부의 개요	총 수록 인원 ⁶	시흥 출신자*	비고
1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 국빈 방일에 따라 1991년 3월 외무부를 통해 인수한 일본 후생성 보관 명부 - 1946년 일본 정부가 지역별로 한인 노동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물 - 일본 기업이 동원한 한인을 일본 지역별(縣別), 기업별로 작성	68,042명	199명	노무동원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 제외)
2	소위 조선인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 국빈 방일에 따라 1991년 3월 외무부를 통해 인수 - 기업별로 작성	26,044명	56명	노무동원 (일부 지역)
3	일제하피징용자 명부	-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 국빈 방일에 따라 1992년 12월 한국 정부가 인수한 일본 노동성 보관 명부 - 일본 민간 차원에서 수집한 명부	7,667명	49명	노무동원 (일부 지역)

* 군 이하 면(面)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시흥군으로 추출

이들 자료를 통해 다이헤이요[太平洋]탄광(주), 메이지[明治]광업(주), 미쓰비시[三菱]광업(주), 스미토모[住友]금속광업(주) 등 동원 기업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흥 출신자를 동원한 기업은 메이지광업(주) 히라야마[平山]광업소이다. 히라야마광업소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지쿠호[筑豊] 탄전에서 석탄 채굴을 시작해 사가현[佐賀縣]과 홋카이도[北海道] 등지에서도 채굴했다. 1908년 설립한 후 1969년 해산할 때까지 운영했다. 1944년 1월 말, 후쿠오카현 경찰부 특별고등과가 조사한 자료(이입노무자사업장별조사)에 따르면, 히라야마광업소는 1944년 1월 말 기준으로 2487명을 동원했다. 그러나 다수가 탈출하고, 실제로 당시 탄광에서 노역 중이던 한인은 796명이었다. 메이지광업(주)은 1944년 「군수회사법」에 의해 군수회사로 지정되었고, 13개 탄광 소속 한인도 모두 '피징용자(군수징용자)'가 되었다.

(2) 군인과 군무원

일본 정부가 군인과 군무원으로 동원한 한인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일본 정부 명부에서 확인한 군인 동원 한인은 총 20만 9279명이다. 그러나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 2013년 12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1945년 1월~8월 사이에 징병된 한인 명부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쟁 혼란 상황으로 인해 부대별 명부 등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⁷ 일본 패전 직후 군 관련 기록을 없앴거나 병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기록이 사라진 한인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본군이 된 한인을 약 40만 명으로 추산한다.

〈표 3〉 국내 소장 군인·군무원 관련 주요 명부 중 시흥 출신자 수록 현황

번호	명부 이름	명부의 개요	총 수록 인원 ⁸	시흥 출신자	비고
1	유수명부	- 일본 패전 후 후생성이 구 일본 육·해군 인사 관련 자료를 인계해 관리하던 '유수명부' 중 1945~1949년간 한인을 따로 추출해 재작성한 명부 - 1993년 한국 정부 입수	158,932명	559명*	육군 군인, 군무원
2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 일본이 패전 후 주변국과 관계 정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명부 - 1990년대 초와 2009년 등 2차에 걸쳐 한국 정부가 입수	79,317명	188명**	해군 군무원
3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	- 육군·해군, 군속 사망자의 명부 - 육군(육군 군인, 군속, 5권)과 해군(해군 군인, 군속, 5권)으로 구분해 출신 지역별로 편철 - 1971년 1월 19일자 「대일민간청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971년 10월 외무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해 재무부에 이첩한 '일제시 희생자 명단'을 국가기록원이 인수 후 명칭을 변경	21,692명	2명	육해군 군인·군무원 중 사망자

* 군 이하 면(面)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시흥군으로 추출한 506명 포함

** 군 단위의 정보만 기재

(3) 총괄 명부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를 모두 포함한 명부를 총괄 명부라는 이름으로 정리했다. 두 명부는 중복자가 포함되어 있다.

〈표 4〉 국내 소장 주요 총괄 명부 중 시흥 출신자 수록 현황

번호	명부 이름	명부의 개요	총 수록 인원 ^{*)}	시흥 출신자	비고
1	일정시피징용 징병자명부	- 현존하는 한국 정부 최고最古 명부 - 주일한국대사관에 보관 중, 2013.12.19. 존재를 공개 - 1953년 1월 내무부가 최종적으로 취합, 합본한 결과물 - 1953년 4월 2차 한일회담 준비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 하고 도별로 취합해 제출	229,782명	177명	노무자, 군인, 군속 동원
2	왜정시피징용자 명부	- 노동청이 한일회담 준비를 위해 1957~1958년 간 피동 원자와 유족 등의 신고를 받아 전국 읍·면·동에서 작성 한 후 시·도별로 취합한 자료	285,771명	1,799명*	·

* 군 단위의 정보만 기재

2) 시흥인이 경험한 인적 수탈 - 동원유형별 피해실태

(1) 노무자

① 노무자로 동원된 한인

노무자란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계획적으로 동원한 각종 산업현장의 인력을 말한다. 당시 일본이 조선에 부과한 공출품은 미곡부터 광물·목재·소금·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규모도 방대했다. 공출품은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었다. 당시 자료에서 노무자 동원을 ‘공출(供出)’로 기재했다.

노무자로 동원된 지역은 한반도·일본·중국(만주, 중국 관내, 해남도)·남사할린·동남아시아·중서부 태평양·대만이었다. 직종별로는 군수공장·군공사장·토목건축공사장·석탄광산·금속광산·항만운수시설·집단농장·삼림채벌장·기타(염전 등) 등이 있다. 석탄광산으로 간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직종에 따라 노동실태는 달랐다. 청장년 외에 노인과 여성, 아이들도 있었다. 당국은 일본 정부 책임 여부에 따라 동원경로를 모집(1938월 5월~1945년 6월), 국민징용(1939년 10월~1945년 6월), 관알선(1942년 2월~1945년 6월)의 세 종류로 구분했다. 세 가지 동원경로의 공통 사항은 모두 공권력으로 집행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부처, 조선총독부, 남양청 등 통치기관이 담당했다. ‘한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일본



노무자 수송을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가 발행한 도항증명서(『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 사진으로 보는 재일코리아 100년』, 明石書店, 2008)



1943년 3월 19일자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경찰서장의 공문. 관내 한인을 메이지광업(주) 탄광으로 보낸다는 문서(『일제하피징용자명부』, 국가기록원 소장)

기업)가 신청한 인원수를 일본 정부가 조정해 배당하고, 조선총독부와 조정해 확정'했다.

조선에서 모든 과정은 조선총독부가 주관했고, 관련 기업과 관련 단체인 직업소개소와 조선노무협회, 동아여행사 등이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했다. 지방의 면사무소는 물론 경찰이 직접 노무자 동원과 수송을 담당했다.

동아여행사는 1912년 재팬 투어리스트 뷰로라는 이름으로 창립해 1942년에 동아여행사로, 1944년에 동아여행공사로, 일본 패전 후에는 일본교통공사(JTB)로 이름을 바꾼 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기에는 상업적 목적의 관광여행사가 아니라 노무동원을 담당하던 조선총독부 후생국 노무과와 논의해 수송에 필요한 단체수송 신고서를 철도국에 보내고, '단체수송계획표'를 작성해 노무자들의 숙박과 도시락 수송을 담당했다.

이 같은 시스템 속에서 당국은 조선의 민중들을 속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동원했다. 동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한밤중에 습격하거나 길에서 납치하기도 했다.¹⁰



메이지광업이 작성한 안양 출신자의 명부(『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 국가기록원)

② 노무자로 동원된 시흥 출신자

노무자로 동원된 시흥 출신자의 규모는 알 수 없다.

〈표 2〉의 주요 명부에서 추출한 304명은 시흥군 전체의 명부이므로 시흥인이 포함된 규모로 이해해야 한다. 명부 외에 조선총독부가 1940년에 작성한 자료인 『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勞働資源調査に關する件)』이 있다.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전국 각지의 노무자를 동원하기 위해 각도별로 동원 대상을 남녀별로 파악한 통계표이다. 이 자료에서 1940년에 당시 시흥군에서 동원할 대상은 남성 120명, 여성 24명 등 총 144명이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전체의 동원 대상자 총 3만 5251명 중에서 시흥군 출신은 0.4%이다. 1940년의 한반도 전체의 동원 대상자 116만 177명을 기준으로 보면, 시흥군 출신의 동원 대상자는 0.0124%가 된다.¹¹

0.0124%를 노무동원 전체 규모 753만 4429명에 적용해보면, 934명이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934명의 시흥군 출신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흥인은 시흥군 출신자의 일부이므로 정확한 시흥인의 노무자 동원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2) 군인과 군무원

① 황군이 된 한인

한인들은 처음에는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말기에는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복을 입었다. 일제가 한인을 단계별로 동원한 이유는 식민지 청년의 군인 동원이 민감한 문제였고, 일본 정부와 군부의 의견은 달랐다.

일본 정부는 병력 부족을 예상하고, 한인을 군인으로 동원한다는 가정 아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필요한 준비는 바로 교육제도였다.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1936년 8월, 「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전쟁터에서 일본군에게 충구를 겨누지 않게 황민화 교육을 강화해 한인 스스로 일본인으로 인식하도록 세뇌하고자 했다. 두 번째 준비는 참정권 부여였다. 1931년 만주사변 후 중국 전선의 후방으로서 보급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조선에서 민중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날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민중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대급부, 즉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참정권)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군부는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 만주사변 직후 군부는 “한인이 우리 등 뒤에서 총을 겨누게 하려는가”, “피는 우리가 흘리고 과실은 한인과 나누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다가 중일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사자가 늘어나자 한인에 주목했으나 곧 바로 징병제도를 실시할 수는 없었다. 한인이 참정권을 요구하고 나올 염려가 있었고, 조선의 행정 체계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지원병 제도였다.

② 일본의 군인이 된 시흥 출신자

일본의 군인이 된 시흥 출신자의 총수는 알 수 없다. 앞의 <표 3>의 규모를 합산하면 749명이다. 그러나 군무원과 합한 수치이고, 일본 정부의 군적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한인이 다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이들은 경성이나 광주, 나남 등 한반도 내에 배치된 비중이 높으나 중국과 일본 등으로 배치된 사례도 있다. 일본에 배치된 군인 가운데 제3농경근무대 소속을 볼 수 있다. 제3농경근무대는 총 1121명인데, 이 가운데 안양인이 포함된 시흥군 출신은 8명이다.

농경근무대는 1945년 전반에 징병검사를 마친 한인 청년을 식량 증산의 목적으로 운영한 부대이다. 일본 육군은 1945년 본토 결전에 임박해 당면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인을 군병력이 아닌 노동력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식량 문제 해결과 함께, 무기를 잡은 한인이 일으킬 수 있는 반란이나 폭동 등의 저항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농경근무대의 주둔지는 모두 산악이나 고원지대였는데, 농경지 확보를 위한 산지 개간작업이 농경근무대의 주요 임무였기 때문이다. 동부(도쿄)와 중부(오사카) 군관구 관할 소속이었는데, 총 5개 근무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가운데 시흥인을 동원한 제3농경근무대는 도치키현[栃木縣]에 주둔했다.¹²

『유수명부(留守名簿)』 수록 시흥인 559명 가운데 15명의 사망자를 찾을 수 있다. 육군과 해군·군무원 사망자 명부인 『피징용사망자연명부』에서는 23명의 시흥인 사망자를 볼 수 있다. 두 자료를 교차 분석해 사망자 명부를 작성해보면 총 25명이 된다.

〈표 5〉 주요 군인·군무원 명부 중 시흥 출신 사망자 현황

성명(명씨)	생년월일	수록 명부	소속 부대/사망지	기타	구분
고고용	-	유수명부	남양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군인
금증광번	-	유수명부/피징용 사망자연명부	남양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
송촌인지조	201220	"	남양면전방면군직할부대		"
석원광웅	200902	"	남양비도제14방면군직할제19사단		"
신정청백	240204	"	남양비도제14방면군직할제19사단		"
국본태경	230718	"	남양비루마(버마)방면군직할사단		"
송본성록	-	"	일본제5방면군북방(천도)		"
금촌심웅	170424	유수명부	조선제49사단사령부		"
하분무홍	210506	유수명부/피징용 사망자연명부	남양남방군조왜부로서용소	포로감시원	군무원
화산명근	240226	"	남양도서군	축성부대	"
금성진섭	-	피징용사망자 연명부	남양 마리아나제도근해(사망지)		"
궁분규룡	221106	"	남양 비아그섬(사망지)		"
고고남	-	"	남양 인도네시아 뉴기니아(사망지)		"
김경한	261202	"	남양 페리류섬(사망지)		"
금택봉진	200619	"	남양 페리류섬(사망지)		"
대산태영	250901	"	남양 필리핀복방(사망지)		"
평림강실(부)	200310	"	남양 루손섬복부(사망지)		"
임대순	990430	"	남양 괌섬(사망지)		"
금춘차남	170929	"	남양 버마국 모루난(사망지)		"
장춘기객	210616	"	남양 다바오(사망지)		"
옥산석옥	221001	"	남양 페리류섬(사망지)		"
천본진근	180411	"	남양 남태평양(사망지)		"
해안현기	231123	"	남양 루손섬중부(사망지)		"
성천복래	191113	"	일본 아오모리현(사망지)		"
박인봉	-	"	중국 호북성 동가장(사망지)		"

두 명부를 통해 시흥인의 사망 현황을 보면, 다수가 군무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지가 중서부태평양(당시 남양군도)과 동남아시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두 지역의 사망자는 총 21명(84%)에 달한다. 두 지역은 모두 아시아태평양전쟁 최대의 격전 지였으므로 사망자 비율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징용사망자연명부』
경기도·강원도 명부 표지

③ 군이 부린 민간인, 군무원으로 동원된 시흥인

군무원은 군軍이 동원한 민간인을 의미하는데, 현대 용어이고, 법률상 용어는 군속이였다. 당시에는 군속軍屬이나 군부軍夫라 불렀다.

군무원을 동원하는 경로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각종 법령(해군징용공원규칙, 국민징용령, 육군군속선원취급요령 등)에 따른 동원 방식이다. 두 번째는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차출과 신분의 전환 방식이었다. 주로 상황이 급박한 전선에서 적용했다. 세 번째는 포로 감시원과 같은 모집 방식이었다.

군무원은 맡은 역할에 따라 군노무자(군에 소속된 노무자)와 기타 군요원軍要員으로 나눌 수 있다. 군노무자는 군무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데 군부나 공원工員, 고원雇員, 용인傭人 등으로 불렀다. 이들은 주로 군이 운영하는 공사장(비행장, 도크공사장 등)이나 무기공장(육군조병창, 해군공창)에서 일했다. 여기에는 여성도 있었고, 소녀도 있었다. 군요원은 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감시원 등으로, 고원이나 용인으로 불렀다.

시흥 출신자가 군무원 중 군노무자로 가장 많이 동원된 사례는 중국에서 군공사장에 동원되었거나 대만과 일본에서 선박부대에 동원된 146명이다. 선박부대가 하는 일은 주로 선박을 부리는 일과 물자하역이었다. 그다음으로 시흥인이 다수 동원된 곳은 인천 육군조병창(58명)과 평양육군병기보급창(52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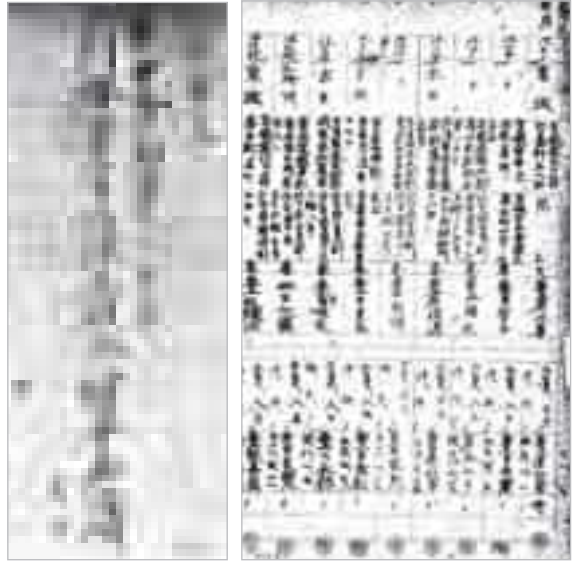


시흥 출신자가 근무원의 신분으로 일했던 인천육군조병창 모습, 1948년 미군이 촬영(출처: Norb Faye)



쇠를 녹이던 인천육군조병창 주물공장(2019년 5월 촬영)

인천육군조병창은 조선군관구 부대 육군병기행정본부 소속의 무기공장이었다. 육군조병창이란 육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기관인데,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이 식민지·점령지에 설치한 유일한 조병창이다. 조병창은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대본영大本營¹³이 있는 일본 본토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반도의 부평(본부, 제1제조소)과 평양(평양제조소)에 조병창을 설치하고 각종 무기를 생산했다.



『유수명부』 해당 부대 표지와 시흥군 인양면 출신 풍전장승의 명부(『유수명부』)

중일전쟁 발발 후 1939년 전쟁은 교착상태가 되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전선에 발이 묶이자 원활한 무기 보급을 위해 한반도에 무기공장을 세운 것이다. 1939년 9월, 공장 건설에 들어가 2년 후인 1941년 초 총검공장과 견습공 연습공장 등을 일부 완공했고, 1941년 5월 5일 인천육군조병창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족(개창)했다. 부평에 본부와 제1제조소를, 평양과 경성·부산·함경북도에 제조소와 감독반을 두었다.¹⁴

인천육군조병창은 기술자와 관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인으로 충당했다. 일본 육군이 작성한 극비문서 1945년 3월 『상황보고』에 따르면, 1945년 3월 1일 현재 동원한 한인은 1만 명이였다. 한인 1만 명은 관알선, 징용, 학도동원 등의 방법으로 동원했는데, 당국은 이 가운데 징용의 방법으로 동원한 한인을 군무원의 명부에 등재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유수명부』와 『임시군인군속계』에서 인천육군조병창에 동원된 한인 군무원 명부를 찾을 수 있다. 수록된 인원은 중복을 포함해 총 1만 2584명이다. 『유수명부』에서 당시 시흥군에 본적을 둔 58명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평양육군병기보급창은 1923년에 설치한 고쿠라[小倉]육군병기지창 평양출장소에서 출발한 보급부대였다. 1940년 4월 평양육군병기지창으로 개편해 조선에 있는 부대에 무기와 탄약 등을 보급하는 업무를 부여했다.¹⁵

군무원 중 군요원으로 동원된 시흥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연합군 포로감시원이다. 일본은 1940년 9월 북부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차이나반도 침공을 개시했고,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과 말레이 상륙을 필두로 마닐라(1942년 1월)와 싱가포르(1942년 2월), 자바(3월), 필리핀(5월)을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네덜란드·오스트리아·미국 등 연합군 병사의 포로가 발생했다. 이 시기 일본군의 포로가 된 연합군 병사는 약 30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군부는 포로 관리의 필요성에서 1941년 12월 육군성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하고 이듬해 5월 23일에 모집 발표를 거쳐 포로감시원을 모집했다.

포로감시원은 대만인과 한인을 대상으로 충당했는데, 한반도에서는 1942년 6월에 모집했다. 이때 제시한 모집 조건은 식량은 관급, 피복은 무료 대여, 관사 제공에 월급은 전투지역 노무자에게는 50원(지금의 4급 공무원 급여 수준), 비전투지역은 30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당국은 군대나 열악한 강제노역장으로 가기를 꺼려한 이들을 겨냥하고, 지역별 전형을 통해 지역 간 할당과 경쟁을 조장했다.

당국은 동원한 3223명을 임시군속교육대(부산 서면 소재, 일명 노구치[野口]부대)에 수용해 2개월간 사격과 총검술 등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1942년 8월 17일 훈련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자바, 보르네오)와 말레이시아, 태국, 조선, 대만 등 각처 포로수용소에 배치되어 말단 실무자로 사역당했다. 기간은 2년 계약이었으나 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은 불가능했고, 급료도 처음에는 지급했으나 나중에는 지급하지 않았다.¹⁶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되었던 시흥 출신 한인의 현황을 『유수명부』에서 추출하면, 총 14명이다.

〈표 6〉 『유수명부』 중 포로수용소별 포로감시원 수록 현황

번호	유수명부 편철명	부대명	총 수록 인원 ¹⁷	시흥 출신자	위치
1	남선 제17방면군 조선군관구 예비부대(2)	조선부로서용소	97명	-	조선
		마래군 억류소 마래 부로서용소	875명	2명	
		마래부로서용소 제1분소	139명	1명	
2	남방 남방군 마래 와규 부로서용소	마래부로서용소 제2분소	65명	2명	말레이시아
		제7방면군 형무소	75명	2명	
		자바부로서용소	1,075명	5명	
3	대만 제10방면군	대만부로서용소	6명	-	대만
4	면전 태 부로서용소	태국부로서용소	1,262명	2명	태국
5	비도 제14방면군 직할부대	필리핀부로서용소	2명	-	필리핀
합계			3,596명	14명	

출처: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가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211쪽; 국가기록원 소장 『유수명부』 중 해당 내용.

14명의 시흥 출신 포로감시원들은 말레이시아와 자바, 태국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지시에 따라 연합군 포로를 관리했다. 그 결과 전후에 열린 전범재판에서 포로를 학대한 혐의를 피하지 못하고, 일부는 패전 후 전범으로 처리되었다. 1955년 12월 일본 후생성 자료인 「한국 대만출신전쟁재판수형자명부」에 조선 출신 전범 148명의 명단에서 시흥군 출신은 2명이다. 등택무춘(藤澤茂春, 1922년생)은 인도네시아 자바수용소 소속이었는데, 2년 8개월의 형량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수용소 소속의 석원진웅(石原振雄, 1919년생)은 15년형을 받았다.¹⁸

3. 굴종하지 않는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저항할 힘을 갖추지 못한 조선 민중이 일본의 국가권력을 상대로 저항과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낸 한인은 있었다. 이들은 징용 기피나 탈출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또는 폭동이나 파업·태업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본 국가권력에 대항했다.

한인이 전개한 가장 대표적인 저항 방법은 징용 기피나 탈출이었다. 1944년 10월 16일부터 10일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실시한 일제조사기간 중에만 국민징용령 위반자 6726명, 징용출두명령서를 받고 출두하지 않은 자 1만 6440명 등 총 2만 3166명을 단속할 정도로 동원에 대한 조선 민중의 저항은 심했다. 한인의 징용 기피나 탈출은 당국의 큰 골치꺼리였다.

저항은 한반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1939~1942년까지 일본에 끌려간 한인 가운데 25만 7907명이 탈출을 시도했다. 부득이 탈출에 실패했던 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파업과 태업으로 저항을 이어나갔다. 일본 내무성 경보국이 작성한 『사회운동의 상황』에 따르면, 1939~1944년간 일본에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이 벌인 파업과 태업은 1784건에 참가자는 총 10만 8978명에 달했다. 투쟁 양상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¹⁹

홋카이도탄광(주) 동원 중에 발생한 한인 탈출 상황을 살펴보자. 홋카이도탄광(주)의 1942년도 2~5월 탈출상황표를 보면, 경기도 시흥 등 3개군, 강원도 2개군, 경남 10개군, 황해도 2개군에서 동원하려는 한인의 할당 인원은 1815명이었는데, 각 군청이 홋카이도탄광(주)에 인계한 한인은 1529명(84%)이었고, 열차에 승차한 인원은 1510명(83%)

인데, 부산과 여수 등 항구에서 일본으로 출발한 인원은 1436명(79%)이다. 도중에 93명(6.8%)이 탈출했음을 알 수 있다. 1942년 상반기에 6.8%였던 탈출률은 1944년 3~9월 통계에서는 24%로 증가하고, 1945년 5월에는 49.3%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에서 안양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시흥군 사람을 동원한 시기는 1942년이다. 홋카이도탄광(주)는 총 100명을 시흥군에 할당했는데, 군청이 홋카이도탄광(주)에 인계한 인원은 93명이었다. 그러나 1942년 2월 24일, 부산항에서 연락선을 타기 직전에 12명이 탈출했고, 탄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탈출자가 발생해 실제로 탄광에 입산한 인원은 78명이었다. 탈출자 15명은 군청이 동원한 인원 93명의 16.1%로써, 같은 시기 홋카이도탄광(주) 전체 탈출률 6.8%의 두 배가 넘는 결과이다.²⁰ 시흥군 출신자의 탈출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이나 여수 등 송출 항구가 멀었으므로 탈출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마무리글

1) 평화의 마중물 - 일제전쟁유적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민중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일상성을 훼손당했으며 피해를 입었을까 하는 점이다. 피해자들의 경험은 구술과 영상기록을 통해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해진다.

그러나 경험자 외에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장소이다. 전쟁이 남긴 유적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이 유적은 무슨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남았는가. 유적을 조성하는 데 동원된 사람은 누구이며 노역을 강요당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해방 후 어떤 역사적 더께를 쌓아 나갔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유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유적과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등등.

전쟁유적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이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세상을 떠나도 유적은 현장에 남아 한국 사회에 역사적 교훈을 남긴다. 전쟁유적은 시민들이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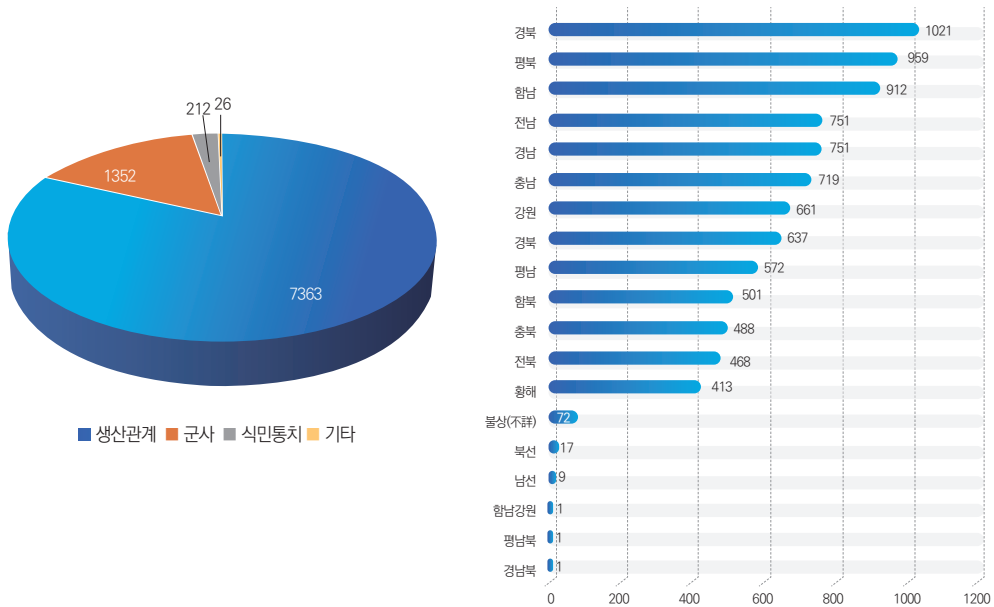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민중을 전쟁의 화마 속으로

내물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태평양에 많은 전쟁유적을 남겼다. 전쟁유적은 전쟁이 낳은 유적이다. 전투지·전쟁이 있었던 지명이나 건조물·사건 유적지이니, ‘전쟁 관련 유적(War - Related - Sites)’이 적절하다. 한반도의 일제 전쟁유적은 ‘군사·생산관계(노무동원)·식민통치·기타유적’ 등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²¹

〈표 7〉 한반도 일제 전쟁유적 분류

군사유적	군부대(군과 헌병부대, 군 소속 시설물, 군 소속 작업장, 포로수용소 등), 각종 군사시설물(비행장, 지하시설, 방공초소 등)
생산관계(노무동원)유적	공장, 탄광광산, 철도 도로, 일반 토건, 하역수송, 집단 농장, 기타(근로보국대 등)
기타유적	노무자 사택, 소개 공지 등 군사방위 관련, 추도 관련지
식민통치유적	조선총독부 관련 유적, 신사, 경찰서, 세무서, 동양척식회사, 조선은행 등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 및 경제침탈과 관련한 유적

현재 파악한 일제 전쟁유적 목록(정혜경 작성, 2024.12. 기준, 남북한 포함)은 8953개소이다. 현재 유일한 자료이지만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이 목록의 종류별 현황을 보면 군사 1352개소, 생산관계 7363개소, 기타 26개소, 식민통치 212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유적은 생산관계(82.24%)유적이다.²²



일제 전쟁유적은 지역의 역사성과 유적 발생 배경, 해방 후 쌓은 한국현대사의 더해 (공간의 계보학), 기존 근대유적과 관계, 보존 환경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적합한 활용 방안을 적용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²³

일제강점기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되었던 경험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픈 우리의 역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제 전쟁유적을 통해 마음 불편한 어두운 역사 이야기와 만날 필요가 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아픈 소중한 경험이자 역사이기 때문이다.

2) 안양의 일제 전쟁유적

〈표 8〉 안양의 일제 전쟁유적 현황(2024년 12월 기준)

연번	구분	직종1	직종2	유적 명칭	당시 주소	현재 주소	기업(최종)
1	군사유적	육상방어 시설물	군 토건	군사시설물구축공사장 (서면)	서면 박달리	안양시 만안구 시흥동	해당없음
2	군사유적	육상방어 시설물	군 토건	군사시설물구축공사장 (안양면)	안양면	안양시	해당없음
3	군사유적	군부대	군작업장	평양육군병기보급창 안양분창	-	-	해당없음
4	군사유적	항공군사 시설물	비행장	비행장건설(시흥)	안양면(서이면) 이동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조선비행기 공업(주)
5	생산관계유적	탄광/광산	광산	관악冠岳광산	동면, 신동면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안양시 만안구	미확인
6	생산관계유적	탄광/광산	광산	관흥冠興광산	동면, 신동면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안양시 만안구	일생日生 광업(주)
7	생산관계유적	탄광/광산	광산	안양장安養藏광산	서이면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미확인
8	생산관계유적	군수공장	기계기기	조선비행기공업(주) 공장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	안양시 동안구 비산 2·3동	조선비행기 공업(주)
9	생산관계유적	군수공장	섬유/방직	도요東洋방직(주) 안양공장	안양면	안양시	도요방직(주)
10	생산관계유적	군수공장	섬유/방직	조선직물(주)	안양면 안양리872-1	안양시	조선직물(주)
11	생산관계유적	군수공장	섬유/방직	경성방직 (주)시흥공장	-	-	경성방직(주)



애국 제1444호 '경기시흥호'(민족문제연구소 제공)

현재 확인한 안양의 일제 전쟁유적은 총 11개소이다. 11개소 가운데 주목할 곳은 조선비행기공업(주)이 운영한 비행기제조공장과 비행장이다. 비행장은 제조한 비행기를 시험 비행할 목적으로 세웠다. 비행기제조공장은 당시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현재 안양시 동안구 비산2·3동)에 있었는데 현재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건축가 김중업이 1945년에 잠시 몸을 담았던 곳이다.

■ 조선비행기공업(주) 비행기제조공장

- 1944년 7월 박흥식과 백낙승 등이 비행기 제조 및 판매, 비행기 부품 및 부속품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에 나서 10월 정식 설립등기를 받고, 조선총독으로부터 항공기 제조 사업 허가를 받음.
- 본사는 경성부 화신 본점에 두었고, 제조공장과 비행장을 당시 조선직물(주)와 동양방직(주) 안양공장 및 인근 지역 부지 3만 평에 건평 약 1만 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함. 본사를 화신백화점 본점에 둔 것은 설립자인 박흥식이 화신백화점 소유자였기 때문.
- 설립 당시 조선비행기공업(주)는 만주비행기공업(주)의 기술을 전수받고 일본 나카지마[中島]비행기제작소의 부품을 조립해 비행기 생산을 계획. 기체機體 제작에 주력하고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조선총독부 알선으로 수급하며 기타 부품은 만주비행기공업(주)로부터 수급하거나 일부를 직접 생산하기로 했으므로 노무자들을 주력 공장인 만주국 봉천성 봉천시 소재 만주비행기제조(주)에 집중 배치.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신상업학교를 조선비행기공업학교로 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함.
- 1944년 12월 8일 일본 육군대신으로부터 군공장으로 지정받고, 군수회사법에 따라 조선총독부 지정 군수공장으로 선정.
- 안양공장 건설 중에 비행기 제작을 시도했으나 1945년 4월 기준 비행기 제작 실적은 시작기(試作機) 1대에 그침.
- 1945년 11월 30일 조선기계공업(주)로 상호를 변경.
- 1948년 10월 부지를 금성방직(대표 김성곤)이 인수해 인건사 생산에 나섰으나 6·25 당시 폭격으로 전소. 1967년 대한농산(대농)에 매도된 뒤 1977년 한국토지금융고에 의해 일반에 매각되어 주택단지로 변모.

- 1 일본학계에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를 포함한 15년 전쟁을 '광의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이후를 '협의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 구분한다. 오시다 유타카 지음, 최해주 옮김, 『아시아-태평양전쟁』, 어문학사, 2013, 12쪽.
- 2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2013년도 학술연구용역보고서 - 일제강제동원 동원규모 등에 관한 용역』, 2013, 81쪽.
- 3 內務省 警保局 編, 『特高月報』 및 內務省 警保局 編, 『社會運動狀況』, 해당연도 참조.
- 4 『일제 학도병 거부 조선인 학생 수백 명 강제노역』, 연합뉴스, 2012년 8월 13일.
- 5 본 글의 분석대상은 일제강점기 말기 현 안양지역의 행정소속이 시흥군이기 때문에 시흥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 6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수.
- 7 『일정부, 조선인 군인군속 명부 증발 은폐 방지』, 연합뉴스, 2013년 12월 24일.
- 7 중복 포함.
- 8 중복 인원 제외한 실수.
- 9 동원 방식의 구제 사례는 정해경 외, 『반대를 논하다 -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 도서출판 선인, 2019, 46~53쪽, 73~87쪽 참조.
- 10 조선총독부, 『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勞働資源調査に關する件)』, 1940, 29쪽(국가기록원 소장).
- 11 김광열, 「1945년 전반기 일본육군 농경근무대와 피동원한인」, 『한일민족문제연구』 9, 2010, 98~100쪽.
- 12 전시 중이나 사변(事變) 중에 설치한 일본 육군과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
- 13 허광무, 『부평, 조선 병참의 별이 되다』, 동북아역사재단, 2023, 25쪽.
- 14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159~160쪽.
- 15 정해경,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도서출판 선인, 2013, 49~50쪽.
- 16 중복자와 포로감시원이 아닌 자 포함.
- 17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339~340쪽.
- 19 정해경, 「일제 말기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의 저항」, 『재일코리아인 운동과 저항적 정체성』, 도서출판 선인, 2016, 209쪽.
- 20 北海道炭鐵汽船株式會社, 『釜山往復』, 176, 276, 443, 515, 682쪽.
- 21 정해경, 『우리 지역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인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8, 20~22쪽.
- 22 정해경,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인과 사례』, 55쪽.

05 **해방 후** 현대 안양의 **지역사회**

제1장 안양사람들의 해방과 한국전쟁

제2장 농지개혁과 농촌사회의 변화

제3장 안양시의 성립과 사회변동



해방 이후 시 승격 이전까지 안양지역은 시흥군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1945년 7월 시흥군청이 영등포에서 안양면으로 이전하면서 안양 일대는 시흥군청, 경찰서 등 각종 관공서가 밀집한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이어 1949년 8월 14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안양시의 원형이 마련되었다. 1973년 3월 1일 정부는 지역개발로 인한 생활권의 변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 불편과 행정 비능률화를 없애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에 따라 경기도 안양·성남·부천 지역이 같은 해 7월 1일 시로 승격되었다.

1장

안양사람들의 해방과 한국전쟁



박동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



1. 해방과 미군정 시기 안양¹

1) 해방과 미군정 설립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국왕 히로히토[裕仁]는 라디오 방송으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유럽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이 모두 항복한 후에도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던 일본은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맞고서야 ‘최후 1인까지 싸우겠다.’는 야심찬 결의를 포기했다.²

일본의 항복 선언은 우리에게 35년간의 일제 치하를 끝내고 해방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방 당일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항복 선언에도 그 기쁨을 즉시 외부로 표출할 수 없었다. 도쿄에서 들어오는 전파 상태가 썩 좋지 않았고, 라디오 보급마저 매우 열악한데다 그것도 평일에 이루어진 항복방송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 패망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한 이도 별로 없었으며, 알았더라도 일본 군인과 경찰의 위세에 눌려 선불리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8월 15일 해방 당일의 풍경은 ‘어리둥절함’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³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만세합창, 서울 휘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수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여운형의 시국강연, 서울역과 광화문 네거리를 비롯해 삼천리 방방곡곡의 거리와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의 물결은 적어도 해방된 지 하루가 지난 후였다. 이 시기 안양지역에 관한 자료가 드물어 그 면면을 살피기가 어렵지만, 인근지역인 군포·안산·의왕의 상황을 통해 해방 공간의 안양지역 상황을 유추해볼 수가 있다. 해방 당시 시흥군 남면에 속했던 군포지역 주민들은 해방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군포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모여 만세를 외쳤으며, 일부 주민들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자 군포장역을 통과하는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⁴ 그리고 당시 시흥군 군자면에 속했던 안산지역 주민들은 해방 축하모임에 참석하여 태극기가 펄럭이는 깃대를 중심으로 모여 흥겨운 농악에 음식을 먹으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였다고 하며, 수원군 일왕면에 속했던 의왕지역 주민들은 사그내 면사무소로 몰려가 목 놓아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⁵

해방 당시의 풍경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남한을 통치했던 미군정의 공식 역사서에도 나타난다. 주한 미군정 정보참모부 군사실에서 편찬한 『주한미군사1(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에는 당시의 상황을 「일본의 항복은 전쟁의 종말을 의미했다. 한국인들에게 잔혹하게 덧씌워진 무거운 짐을 들어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라고 기록했다.⁶

그러나 모든 것이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해방이 되었다고 곧바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이 되었으나 곳곳에서 무장한 일본 군인과 경찰이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명목 아래 경찰권을 행사했다. 『주한미군사1』에는 8월 17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일본 군인과 경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기술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에서는 약 3000명의 일본인 전직 경찰과 군인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평화적 시위를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경찰력을 한국인들로부터 다시 가져갔다. 그 다음에 일본군을 도처에 주둔시켰고, 공포정치를 도입했다. 일본인들은 모든 공공 집회를 금지했고, 모든 정치 단체를 폐쇄해버렸다.…… 15일까지는 경찰대 홀로 질서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수의 군인들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채 모든 곳에 배치되어 있다. 일부 한국인 학생들과 심지어 여자들조차도 일본군의 총검에 찔렸다.⁷

1945년 8월 19일에는 일본군 제17방면군 사령부 명의의 포고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인들은 각자의 직업을 지키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민심과 평화를 뒤흔드는 자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8월 20일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코[遠藤柳作]가 일본은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조선총독은 모든 통치의 책임을 갖고 모든 행정기관을 관리할 것임을 표명했다.⁸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전까지 조선에 대한 통치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는 것이 당시 일본의 제

획이었다.⁹

이렇듯 해방이 되었음에도 한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았다. 특히, 일제 잔재와 관행을 청산하는 것과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그 중심에 섰으며, 전국적으로는 치안유지회·자치회·건국준비회 등 다양한 명칭과 성격을 지닌 자생적 조직들이 폭넓게 결성되었다.¹⁰

중앙조직인 건준은 설립 직후부터 '민족의 총역량을 일원화하여 과도기 국내질서 유지'를 표방하고 신속하게 식량 확보, 치안 유지, 항일투사 석방, 행정 수습 등 혼란한 해방 상황에 대처해나갔다. 건준은 미군이 들어오기 직전인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건준 산하의 각 지방지부들은 인민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재조직되었다. 1945년 10월 말까지 전국 13개 도 21개 시, 215개 군에서 각급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¹¹

해방 당시 안양지역이 속한 시흥군에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흥군 인민위원회는 1946년 1월 7일 군위원과 상임위원회 선거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이날 선출된 인민위원회의 주요인사는 위원장 정기탁(鄭基鐸), 부위원장 김옥호(金玉鎬), 내정부장 이병돈(李炳敦), 산업부장 김광태(金光泰), 문화부장 류석빈(柳錫彬), 보안부장 조동현(趙東鉉), 선전부장 이성호(李聖浩), 재무부장 이창구(李昌九) 등이었으며, 각 면의 면위원 25명이 선출되었다.¹² 시흥군 인민위원회가 정식 발족되기 전에 시흥군에는 인민임시자치회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조직이 발전적으로 확대된 것이 시흥군 인민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¹³ 1945년 미군정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시흥은 경기도 내에서 포천·수원·용인·평택과 더불어 인민위원회가 군청사를 인수하여 실제 군업무 수행하고 있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행정권한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와 같이 군인민위원회가 군업무를 담당했던 지역에서는 각 하부 단위지역별 인민위원회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안양 관내의 인민위원회 활동도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흥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옥호가 안양 인민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안양 인민위원회의 주요 인물로는 6·25전쟁 시기 인민위원장을 지낸 한병국과 이만진, 삼거리에 살던 김대호, 명월관을 경영하던 원순복, 석수동에 거주하던 이계인, 군포학교 출신의 이만재·정두이·송대섭·김한천 등을 들



서울에서 철수하는 일본군과 서울에 입성하는 미군(1945.9.8/9,10)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수 있다.¹⁵

실질적인 지방행정기관 역할을 담당한 인민위원회는 미군이 남한에 군정(military government)을 실시한 후에도 대체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간 미군 정으로부터 유일한 지방행정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곧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중경임시정부 등 한국인의 정권기관을 전면 부정하고 각지의 인민위원회와 치안대에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행정기구 정비작업을 진행해나갔다.¹⁶ 이것은 ‘군정’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기존의 정치체제를 불인정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시켜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추축국과 그들의 점령지를 대상으로 한 국가재건이 본격화되었고, 그 과정은 연합군의 역할에 따라 군정 또는 민정을 거치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추진되었다. 군사적 점령과 점령지에 대한 새로운 정치·사회 구조를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군정’이었으며, 점령지역에서 기존의 정치·사회 체제를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민사행정(민정)’이었다. 전자는 ‘군사적 전술점령-군정-재건’의 과정을 거치며, 후자는 ‘군사적 전술점령-민사행정-재건’의 과정을 거치는 유형이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 등 추축국이 전자에 포함되며,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노르웨이 등 추축국의 점령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후자에 포함되었다.¹⁷

유럽과는 달리 태평양지역에서는 군정과 민정이 정책적 체계화를 이루지 못한 채 즉자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필리핀과 오키나와의 사례에서 유럽지역처럼

‘민사행정을 통한 재건’과 ‘군정을 통한 재건’의 방식이 시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군사적 전술점령-민사행정-재건’의 유형을 따른 경우가 필리핀이었으며, ‘군사적 전술점령-군정-재건’의 유형을 따른 대표적 사례가 오키나와였다. 본래 추축국인 일본은 군정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 준비단계에서 민정으로 변화된 특징을 지녔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오키나와의 경험을 토대로 ‘군사적 전술점령-군정-재건’의 유형을 따랐다.¹⁸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전술점령은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미 제24군단 예하 제6사단·제7사단·제40사단이 맡았다. 이 중 안양이 포함된 경기도 남부지역의 경우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점령 임무를 수행했다. 미군은 이 전술부대들을 통해 지방점령을 수행함과 더불어 전문적인 군정 업무에 숙달한 군정요원들을 투입했다. 1945년 말까지 전국에는 7개 군정단과 40개의 군정중대가 배치되어 군정업무를 전담했는데,¹⁹ 안양지역에는 1945년 10월 28일 메이플(Alpheus F. Maple) 대위가 이끄는 총 5명으로 구성된 제60군정중대 소속 분견대가 배치되었다.

‘안양분견대’가 속한 제60군정중대는 1945년 10월 20일 인천에 도착한 후 10월 28일 수원으로 이동해 일제시기 일본군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에 사령부를 설립했다. 수원에 본부를 둔 제60군정중대는 안양·시흥·수원·여주·용인·안성·평택·이천 등을 관할하였



안양읍에 준공된 시흥군청사

는데, 그중 5명으로 구성된 ‘안양분견대’가 안양리에 주둔하면서 시흥 전체 지역을 담당했다.²⁰ 당시 경기도는 1945년 10월 2일에 마이어스(Myers) 소령이 경기도지사로 임명된 후 내무부장 등 5개 부장과 17개 군수 및 6개 서무서장이 한국인으로 충원된 상태였다. 이때 안양면이 포함된 시흥군의 군수에는 손영기孫永琦가 임명되었다.²¹

군정중대의 역할은 1946년 중반 이후 군정의 한국인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1947년에 들어서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그에 반비례하여 1946년 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출범과 1947년 초 남조선과도정부의 출현은 한국인들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입법·행정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음을 의미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경기도 대의원 선출은 1946년 10월 29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2부 21군 대표 46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양이 속한 제5구(시흥·안성·수원·평택)에서는 최명환崔鳴煥 평택군수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경기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²² 그리고 1947년 11월 29일에는 1000여 만 원의 공사비를 들인 시흥군청사가 안양읍에 준공되어 본격적인 행정업무를 시작했다.²³

2) 미군정기 안양의 정치·사회

미군정 초기에는 다양한 정치조직과 사회단체들도 생겨났다. 안양이 속한 시흥군에도 각종 정당지부와 대중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정치조직으로는 한국독립당 시흥군당부와 한국민주당 시흥군지부가 대표적이었다. 한국독립당 시흥군당부는 1946년 5월 17일 안양방적공장에서 조소양趙素昂, 안재홍安在鴻 등을 비롯해 당원 700명과 내빈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에 권중석權重錫, 부위원장에 이세진李世鎭과 박인영林仁榮을 각각 선출했다.²⁴ 약 2개월 후에는 한국민주당 시흥군지부가 1946년 7월 13일 안양조직공장 강당에서 원세훈元世勳, 백관수白寬洙, 김준연金俊淵, 홍성하洪性夏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수석총무 오상현吳相鉉을 선출했다.²⁵

대중단체로는 좌익계열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국청년단체총동맹·전국부녀총동맹·민주주의민족전선과 우익계열의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동청년단 등을 들 수 있다.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시흥군지부는 1945년 11월 30일에 안양리 조합사무소에서 각 지부 대의원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김옥호金玉鎬를 비롯해 부위원장, 총무·선전조직·공제·쟁의부장 등을 선출하였으며,²⁶ 전국청년단체총동맹 시흥군지부는 1945년 12월 6일 안양에서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이병돈李炳敦을 비롯해, 부위원

장, 총무·선전조직·문화·보안·체육부장 등을 선출했다.²⁷ 그리고 전국부녀총동맹 시흥군 지부가 1946년 3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안양면 회의실에서 군내 각 단체와 면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김희영(金嬉英), 부위원장에 송세임(宋世任)을 각각 선출했다.²⁸ 이외에도 민주주의민족전선 시흥군위원회가 1946년 2월 24일 안양면 회의실에서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이기충(李起忠), 부위원장에 안용술(安鏞述), 총무부장 이재일(李在日), 선전부장 이성호(李聖浩), 조직부장 김두영(金斗泳), 연락부장 박기호(朴基鎬) 등과 각 단체 및 면 위원 36명을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²⁹

우익계 대중단체의 설립은 좌익계열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47년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시흥군연맹이 1947년 8월 6일 안양공회당에서 결성식을 열어 변홍규(邊洪奎)를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³⁰ 그리고 대동청년단 시흥군단이 1947년 9월 25일 안양공설운동장에서 결성식을 갖고 군단장에 김동식(金東植), 부단장에 박승재(朴承載)와 함기용(咸起鎔)을 각각 선출했다.³¹

대중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좌우익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미군정·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빈번해졌다. 초기에 압도적이었던 좌익세력의 영향력은 미군정 수립 이후 위축되었으며, 반대로 우익은 점차 그 세력을 넓혀나갔다. 정치상황의 큰 변수는 1945년 말에 터져 나왔는데, 바로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안 발표였다. 모스크바3상회의에서는 한반도에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합의였으나 한국 내에서 언론에 의해 전달될 때 이 내용이 생략된 채 ‘반탁통치 실시’만이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반탁통치 문제를 놓고 좌우 양대 진영은 ‘총체적 지지’ 대 ‘반탁’이라는 구도 속에 격돌하게 되었다.³²

시흥군에서도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안이 알려진 초기에는 인민위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임시자치회 주최로 반탁강연회가 열리는 등 좌익계에서 먼저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안양에서는 1946년 1월 1일 시흥군인민임시자치회 주최로 안양국민학교 강당에서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에는 시흥군민 3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박영래(朴英來), 김규창(金圭昌), 김옥호 등이 강연자로 나서 2시간가량 강연회를 진행한 후 가두행진을 전개했다.³³ 1946년 1월 3일자 『동아일보』는 “군 인민자치위원회가 관하 8개 면을 망라하여 탁치 절대반대와 자주독립 확보를 위하여 미군사령관에게 결의문을 발송하였다.”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³⁴

그러나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안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방침전환이 전국농민조합총연맹과 전국청년단체총동맹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반탁운동은 곧 3상회의 결정안의 ‘총체적 지지’로 방향이 급변했다. 1946년 1월 7일 오후 1시 안양국민학교 강당에서 3000여



신탁통치 반대집회(1945.12.31,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탁치토의 민족통일 시흥군민대회’에서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시흥군지부의 김용운(金龍雲)이 조선공산당의 방침전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자, “민족통일은 군 인민위원회에 있다.”는 긴급동의가 이어졌고, 즉시 ‘군(郡) 인민위원회 결성’이 가결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날 군민대회에서는 시흥군 인민위원회의 군 위원과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정기탁(鄭基鐸), 부위원장에 김옥호, 내정부장에 이병돈, 산업부장에 김광태(金光泰), 문교부장에 류석빈(柳錫彬), 보안부장에 조동현(趙東鉉), 선전부장에 이성호, 재무부장에 이창구(李昌九) 등과 각 면 위원 25명이 선출되었다.³⁵

반면, 이 무렵 아직 뚜렷한 조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우익세력은 애국동지회를 중심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안양애국동지회는 1946년 1월 11일 안양의 옛 동방공장 회의실에서 결성식을 갖고,³⁶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반탁강연회를 개최하여 신탁통치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결의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의 반탁결의대회는 반탁국민총동원 안양지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³⁷

탁치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더불어 민생문제를 둘러싼 대중과 미군정과의 갈등도 커져갔다. 특히, 식량문제에서 미군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

켰다. 미군정의 식량정책은 자유시장 정책과 강제 미곡수집 정책을 널뛰기하면서 갈팡질팡했다. 1946년도 시흥군의 미곡수집 실적은 경기도 내에서 포천군 다음으로 100%의 실적을 보였는데,³⁸ 미곡수집 실적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의 민생고가 심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미곡수집’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제시기를 연상케 하는 ‘공출’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미곡수집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반응이 어느 정도인가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³⁹



중앙식량행정처의 미곡수집 독려 포스터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실제로 미곡수집에 반대하거나 위반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생했

다. 1946년 7월 31일 경기도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군을 비롯해 광주·여주·용인·수원·인천에서 많은 정미소가 「하곡수집령」을 위반해 적발되어 정미소가 폐쇄되는 동시에 곡물수집 위반자 15명이 유죄로 수감되었다고 했다.⁴⁰ 식량수집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미곡수집 불응자와 비밀 매매·매점 행위에 대해 엄벌한다는 경기도지사의 담화가 발표되기도 했다.⁴¹ 심지어 1947년 9월 17일에는 시흥군수를 비롯해 수원·파주·고양·안성·양주·가평 등 7개 군의 군수가 경기도지사에게 중앙에서 할당한 미곡수집량을 삭감해줄 것과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⁴²

식량문제에 더하여 생필품에 대한 통제도 대중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했다. 1946년 4월 23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미가고米價高를 위시한 생활필수품의 무궤도적 無軌道的 광등狂騰은 악성 ‘인플레이’의 본연한 실상을 나타내어 해방 이후 더욱 대중의 생활고生活苦를 심각케 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그 귀추가 과연 어떻게 될지 추측을 허許치 못할 한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⁴³라고 하면서 생필품 통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생필품 통제와 관련하여 1946년 4월 19일 「군정청 관리공장 생산 생활필수품 통제규칙」을 발표하여 이를 공식화한 바가 있었다. 이날 경기도 상무부

장이 발표한 생필품 통제규칙은 다음과 같이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⁴⁴

- 제1조: 군정청 경기도 내에 소재한 군정청 관리공장에서 생산하는 좌左에 해당하는 생활필수품은 적정한 가격과 공평한 분배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를 통제함.
1. 면포綿布, 2. 견絹, 인조견人造絹, 교직交織, 3. 신발, 4. 양말(면제품, 모제품, 혼제품), 5. 성냥, 6. 비누, 7. 지물紙物 및 지제품紙製品, 8. 농기구, 9. 목재
- 제2조: 군정청 관리공장에서 생산된 통제품統制品에 대하여 군정청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군정청 또는 군정청 경기도 내 지시에 의하여 이를 출하하고 자유로 처분함을 부득不得함.
- 제3조: 통제품 생산공장 관리자는 별표의 생산보고서를 매월 3일까지 군정청 경기도 상무부에 제출함을 요要함.
- 제4조: 본 규칙에 위반하여 생산품을 필리必理하고 또 부정한 보고를 한 자는 서력西曆 1945년 10월 30일 군정청 법령 제19호에 의하여 처벌함.
- 제5조: 본 규칙은 발표 즉시 시행함.

이러한 생필품 통제 규칙 아래 경기도 상무부에서는 1946년 6월 초순에 9개 품목에 대한 배급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배급은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지부와 각 군 농회農會가 담당했는데, 시흥의 경우에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경기도지부에서 관할했다.⁴⁵ 그런데 생필품 배급은 한정된 배급 수량과 비교적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암시장과 매점매석 등의 문제들을 만들어 일반 대중들에게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다.⁴⁶ 게다가 1946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콜레라의 창궐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1946년 5월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46년 6월 6일 서울중앙방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으며, 시흥군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정부에서는 콜레라 방역을 강조하였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감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⁴⁸ 의료기반이 열악한 당시의 상황에서 콜레라의 창궐은 민심을 흥흥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은 물론이다.

이렇듯 민생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자 미군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중 하나가 전재민 구제방책이었다. 1946년 11월 22일 경기도 후생국에서는 도회의실에서 각 군 후생과장회의를 개최하고 부府·군郡별로 국고금을 지출해 1호당 3000원씩의 금액으로 2호당 1동으로 하는 총 2550동의 토막식 간이주택

을 건설하여 배당하기로 했다. 시흥의 경우 40동이 배당되었다.⁴⁹ 이러한 관 주도의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시기 전주민 구호노력은 민간분야에서도 전개되었다. 일례로 광복청년회 시흥군분회는 1947년 설날에 나눠줄 전재동포 원호비 2만 원을 모금하여 보건후생부 구호국에 기탁하였으며,⁵⁰ 1947년 4월 26일에는 전재동포원호회 시흥군지부가 설립되기도 했다. 전재동포원호회 시흥군지부는 안양국민학교에서 결성식을 갖고 지부장 한창수(韓昶洙), 부지부장 조한구(趙漢九)·윤경섭(尹敬燮)·이영섭(李英燮), 총무부장 박유식(朴有植), 사업부장 김홍규(金弘圭), 재정부장 신경택(愼庚宅), 문화부장 한병국(韓柄國)을 선임했다.⁵¹

이 무렵 정치적 갈등과 민생문제 이외에도 안양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폭발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서면 박달리 일대가 유독 심했는데, 이 지역은 일제시기 때 군용지로 사용되던 곳으로 많은 폭발물이 매장되어 있어 행인과 약초꾼들의 피해가 잦았다. 안양의 일제시기 폭발물 저장소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1(HUSAFIK)』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될 만큼 규모와 위험성이 매우 컸다.

1945년 11월 9일에 미 제7사단 제184연대의 파괴반이 일본군의 대규모 탄약 집적소가 있던 안양리에서 일본군 탄약을 파괴하던 중 일련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미군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월 12일이 되어서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탄약을 폭발해서 처리하는 작업은 계속되었다.⁵²

폭발물 처리작업에는 일본인들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 제24군단 작전보고서에는 “1946년 2월 17일 제40사단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노무부대 280명이 안양리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미 제40사단은 영남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였는데, 이곳에서 노무자로 있던 일본인 280명이 안양으로 이동하여 폭발물 처리에 동원된 것이었다.⁵³ 이러한 폭발물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폭발사고는 1947년까지도 계속되어 지역사회의 근심거리로 남았다.⁵⁴

2. 정부수립 전후 안양 지역사회의 변화

한반도의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1946년 3월부터 시작된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가 두 차례(1946년 3월 20일~5월 6일, 1947년 5월 21일~10월 21일)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과도정부 구성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서 협의 대상 선정문제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미·소 협조가 완전히 붕괴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유엔총회에서는 1947년 11월 14일에 미국 제안의 ‘유엔감시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이 결의되었다.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직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이 1948년 1월 초 남한에 파견되었다. 북한은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방안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선거는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했다. 총선거를 둘러싸고 남한 내부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증폭했다.⁵⁵

안양지역에서 정치적 문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10월 말부터였다. 안양이 속한 시흥군에서는 좌익계열 주도하에 1947년 10월 27일 오전 9시 전국적으로 개최된 ‘인민대회’에 맞추어 ‘시흥군 인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경찰은 대회준비위원장 김주호를 구속하였지만, 안양교 하적장에 모여든 군중 1만여 명은 김윤영의 사회로 ‘민주조선임정수립’의 기치를 내걸고 인민대회를 강행한 후 오후 3시에 산회했다.⁵⁶ 1948년에는 전국적으로 전개된 이른바 ‘2·7총파업’에 안양지역에서도 수백 명이 참가하여 ‘총파업을 지지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양군 철폐로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싸울 결의」를 하였다고 한다.⁵⁷ 총선거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는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었다. 남로당의 지도하에 파업, 동맹휴학, 시위, 경찰서·관공서·투표소 습격 등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전국적인 단선·단정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총선거 실시계획은 구체화되었다.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장관은 「법령 제175호의 부록 제1호」로 선거구와 선거인수를 발표하였는데, 이때 시흥군의 총유권자수는 8만 6241명이었다.⁵⁸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투표는 오전 7시에 개시하여 오후 7시에 폐쇄되었다. 남한 전역에서는 선거장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교통·통신이 두절되고 변전소가 파괴되기도 했다. 당시 시흥군 관내에서도 수암과 과천에서 투표소가 소각되었다. 전국적인 총선거 반대 투쟁에도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투표 장면(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불구하고 5·10선거에는 등록된 유권자의 95.5%, 자격 있는 유권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748만 7600명이 참여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시흥군의 경우 총유권자 8만 6241명 중 1만 3528표를 얻은 무소속의 이재형(李載滢, 당시 33세)이 당선되었다. 이재형은 남면 출신으로 안양금융조합(安養金融組合) 이사, 조선금융조합연합회(朝鮮金融組合聯合會) 사업부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⁵⁹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했다. 국회의원이 선출한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어 해방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공식 출범했다. 북한도 같은 해 9월 9일 정부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이로써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분단 정권이 수립되었다. 수립된 양 체제는 상호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어갔으며, 각각 미국과 소련에 대해 강력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연대관계를 형성했다.⁶⁰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정부수립을 이루었지만, 해방 이후 계속된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혼란은 신생 대한민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특히, 농업문제의 해결은 신생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이른바 ‘농지개혁’이 그 중심에 있었

다. 농지개혁은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어 1950년 3월 10일 관련 법안의 공포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안이 공포되기까지 여러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948년 말에 농지개혁법안이 작성된 이래, 법안은 매수와 분배방법을 놓고 논란을 벌이며, 정부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정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950년 3월에야 확정되고 5월부터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법으로 실행되기에 이르렀다.⁶¹

농지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부, 지주, 소작인 간의 입장차와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정부에서는 갈등을 줄이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농림부 직원들을 동원해 전국순회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농지개혁법」을 상정하기에 앞서 1949년 1월 4일부터 농림부 농지국 주관 하에 지방순회와 농촌 좌담회를 시작했다. 시흥군에서도 2월 2일 안양면 호계리 4구 공회당에서 농림부 농지국장, 경기도 농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좌담회가 개최되었다. 당시의 신문기사에는 참석한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각 부락에 설치될 농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였다고 쓰고 있다.⁶²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50년 5월에 이르러 농지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지주들의 반대 등으로 매수와 분배 농지가 턱없이 모자랐으며, 그나마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에 의하면, 시흥에서 20정보 이상의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는 9명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주의 소재지는 군자면(4명), 수암면(3명), 과천면(2명) 등으로 안양면에는 해당지주가 없었음이 확인된다.⁶³ 이를 통해 볼 때 안양면의 농지는 대다수가 소작농이 경영하는 농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농지개혁 문제와 더불어 정부수립 후 안양지역에서는 한센병 환자 집단이주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의 한센병 환자들을 안양의 전 일본군 군용지로 집단 이주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안양주민들은 물론 시흥군민 전체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48년 8~9월 시흥군은 한센병 환자 집단이주 문제를 군 차원에서 대응했고, 10만 군민의 명의로 '나병환자 이주반대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시흥군에서는 김건열(金健烈) 군수, 김성중(金性中) 경찰서장을 비롯해 군내 관공서·회사·단체·유지들이 연서한 진정서를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하는 등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⁶⁴

정부수립을 전후한 1948~1950년은 한국현대사에서 정치적 격동의 시기인 동시에

남북한 충돌의 격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김구 암살을 비롯해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활동의 중단, 「국가보안법」 제정 등에 의한 억압적 정치체제가 강화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노동당이 주도하는 동원 체제를 강화해나갔다. 특히,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와 한인병사를 지원받아 전쟁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나갔다. 38도선 지역에서의 무수한 군사충돌은 항상적인 위기국면을 조성하였고,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한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3. 한국전쟁과 안양

1) 북한군의 안양 점령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서해의 웅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의 양양군 기사문리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은 시작되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한반도는 국제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지적 열전의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 2일간 진행되었다. 이 전쟁의 1년간은 전선이 가장 격동한 시기였으며, 나머지 약 2년간은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교착시기였다. 흔히들 6·25전쟁을 ‘툭질 전쟁’이라 하듯이 전쟁 발발 후 1년 사이에 공산군과 유엔군은 네 차례나 38도선을 넘나들며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 후 2년간은 개성과 판문점에서 지루한 휴전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협상과 작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고지쟁탈전을 지속했다.

안양이 속한 지금의 수도권은 전쟁 기간 4번의 주인이 바뀐 곳이었다. 그것도 전쟁 기간 가장 격동기였던 1년 사이에 그러했다. 전쟁 준비 단계에서 북한은 서울 점령을 1차 목표로 삼았다.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이 협의하여 수립한 남침계획의 기본전략이 1950년 6월 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며, 8월 15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⁶⁵

속전속결을 목표로 치밀하게 준비한 북한군과는 달리 국군은 1949년 말부터 전쟁이



북한군 3단계 공격작전 계획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발발할 것이라는 풍문이 널리 퍼졌음에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전쟁이 발발한 후 3일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중앙청에는 인공기가 게양되었다.⁶⁶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된 후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곧바로 남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한강 북쪽에서 북한군이 공격을 잠시 멈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북한 측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북한군은 한강 북쪽에서 공격을 일시 멈추었고, 이것은 당시 북한 주재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중장이 지적했듯이 ‘추격실패’였다.⁶⁷

그동안 국군은 천혜의 장애물인 한강을 이용한 방어선을 편성했다. 계획된 방어 편성은 아니었지만, 유수폭 300~1200m, 수심 3m에 달하는 한강은 그 자체가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천연장애물이었다. 한강 방어 작전을 수행

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임시로 편성하고 당시 육군참모학교 교장이던 김홍일(金弘壹) 소장을 사령관에 임명했다. 독립군 출신인 김홍일 소장은 당시 국군 간부 중에서 유일하게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 지도 아래 7월 3일까지 전개된 한강방어선 전투는 동부전선의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제외한 국군의 거의 모든 부대가 사활을 걸고 싸웠던 절체절명의 방어작전이었으며, 또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작전이었다.⁶⁸



시흥-안양 전투(1950.7.4,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006)

국군의 한강방어선은 1950년 7월 3일 새벽에 북한군 제4사단이 완파

되지 않은 한강철교를 보수하여 전차를 도하시키고 병력을 후속시킴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안양 방면으로 국군 주력을 부대별로 철수시켰다. 육군본부에서는 7월 3일 오전 8시에 안양-군포장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라는 「작전명령 제18호」를 하달했다. 이 명령에 따라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혼성 수도사단을 안양의 석수동~삼막동 일대의 고지에 배치하여 제1저지선을 형성하고 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게 했다. 이때가 7월 3일 오후 3시경이었다. 그리고 혼성 제7사단을 양지동 97고지(안양역 서쪽 1.2km) 일대에 배치하여 제2저지선을 형성하게 하고, 혼성 제2사단을 426고지(안양 남쪽 1km)~군포장~모락산을 연해 배치하여 제3저지선을 형성하게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에 오류동에 위치하던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안양으로 이동했다.⁶⁹

7월 4일 오전 6시, 전날 영등포를 석권한 북한군 제4사단이 제105전차여단 소속의 T-34 전차 12대를 앞세우고, 경부국도를 따라 남진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경 북한군이 석수동-삼막동 선에 형성된 국군의 제1저지선을 돌파하자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급

히 수원 방면으로 철수했다. 북한군은 계속해서 남하해 정오 무렵에는 북한군 제4사단 선두부대가 제2선의 제7사단 진지까지 돌파하여 안양읍내로 진출했다.⁷⁰

북한군 제4사단 선두부대가 안양에 진출한 후 안양역 부근에서는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치열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주재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중장의 보고서에는 “안양역 부근에서 적 2개 대대 규모의 조직적인 사격에 직면하였다.”라고 하여 혼성 제7사단 예하부대들이 치열한 지연전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¹ 이 무렵 북한 공군은 야크기 4대를 투입해 북한군 제4사단 예하부대들을 엄호하면서 철수 중인 국군의 부대행동을 방해하였는데, 때마침 미 공군기 편대가 나타나 이들 야크기와 공중전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시키고 나머지를 격퇴했다.⁷² 약 2시간가량 혼성 제7사단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안양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개전 9일 만인 1950년 7월 4일부터 안양지역은 북한군 점령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안양주민들에게 전쟁은 생존과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전장이 안양지역으로 전이되기 전부터 안양주민들은 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희생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전쟁 발발 전인 1949년 6월에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변단체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보도연맹원의 북한군 가담이나 부역행위를 우려하여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양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련 희생자가 약 80~1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안양경찰서에 수용되었다가 박달동 군용지에서 희생된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 기억되고 있다.⁷³

2) 북한군 점령하의 안양

1950년 7월 4일부터 북한군 점령하에 들어간 안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내 북한이 점령지역에서 추진한 ‘당 및 행정기구 재건사업’의 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당 조직의 재건은 북한정권이 점령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었다. 일반적으로 시·군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읍·면 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조직책 2~3명 등으로 이루어졌다.⁷⁴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1950. 8. 선전선동부)」에서 확인되는 시흥군의 주

요 당 간부로는 군당위원장에 채석우, 선전부장에 이규백, 수암면 당위원장에 박성수 등이며, 각 면당위원회는 7월 7일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농민동맹 등의 사회단체들도 뒤이어 곧바로 조직된 것으로 확인된다.⁷⁵ 이와 더불어 북한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정권의 계획에 따라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인민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시·도를 비롯해 군·면·리 단위까지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방식은 리→면→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⁷⁶



시흥군 동면 안양리 방어위원회 명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시흥군에서는 1950년 7월 7일부터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7월 25~30일에 리·면·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안양읍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동면 안양리(현 석수동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인민위원회 선거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안양리는 시흥·봉천·독산·신림·가리봉 등과 함께 시흥군 동면을 구성하는 6개 리 중 하나였다. 선거는 투표가 아닌 거수로 진행되었으며, 리인민위원과 면인민위원을 선출했다. 동면 안양리의 경우, 744명의 유권자 중 744명의 참가로 100%의 참가율을 보였으며, 91%의 찬성률로 리인민위원과 면인민위원을 선출했다. 안양리의 인민위원 수는 확인되지 않으나 동면 각 리에서 선출된 리인민위원은 총 42명이었고, 면인민위원은 총 63명이었다.⁷⁷

인민위원회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토지개혁’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었다. 임시인민위원회 시절인 1950년 7월 20일 시흥군에서는 농민위원회·민청·여맹 등 정당·사회단체 책임자와 도입시인민위원회 책임지도원 등 7명으로 토지개혁 근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읍·면과 각 리에 공작대원을 파견해 인민위원회 선거사업과 함께 토지개혁 준비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⁷⁸ 좌담회, 리별 농촌위원회 조직, 무상몰수 토지면적과

토지분배 대상농가 호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1950년 8월 25일 『해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흥군은 토지몰수 면적이 5962정보였으며, 9818가구에 5844.7정보를 분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흥군민 중 61%인 5만 4980명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⁷⁹

북한군 점령하에서 시흥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인력 동원은 의용군 징발과 노력 동원이, 물적 동원은 농업 현물세 징수, 양곡 수매, 성금 등이 포함되었다. 시흥군에서는 각 읍·면·리의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청·여맹·농맹 등 각 단체들이 노력 동원, 의용군 모집, 전시원호물자 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의용군 모집은 인민위원회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그로 인해 안양지역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용군 모집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9월 13일 시흥군 동면에서 모집된 의용군 총수가 210명이었는데, 이 중 안양리 출신이 51명이었다.⁸⁰

북한군 점령 하에서 군·면·리의 노동당지부, 인민위원회, 민청, 농맹, 여맹 등의 활동은 9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되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강압적 또는 형식적 참여가 커 북한정권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3) 수복과 1·4후퇴, 그리고 수리산 전투

안양지역이 북한군 점령에서 수복된 것은 1950년 9월 21일이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유엔군은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했고, 안양을 수복한 부대는 미 제7사단 제32연대였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미 제7사단은 9월 20일 새벽에 인천-안양 간 도로를 중심으로 작전에 돌입했다. 당시 사단은 미 해병 제1연대의 우측을 방어하면서 북한군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 수원비행장을 조기에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안양을 공격하던 미 제32연대는 도로에 매설된 지뢰들을 제거하며 전진하였기 때문에 진출이 다소 지연되었다. 연대는 9월 21일 미 해병 제1연대의 영등포 공격에 보조를 맞추어 제1대대가 안양 북방 2km 지점의 300고지를 점령하고, 제2대대가 영등포 남쪽 고지를 점령했다.⁸¹

안양 시가지에 처음 들어선 미군부대는 미 7사단 수색중대였으며, 이 부대는 이날 오후 4시에 전차부대와 더불어 수원 방면으로 남하했다. 그리고 저녁 9시 25분에는 안양



인천상륙작전 이후 서울 외곽포위 상황도(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에 있던 미 제73전차대대가 수원비행장 확보를 위해 남진하여 22일 새벽에 목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⁸²

안양 수복 당시의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안양역으로 진입한 미군 전차가 망해암 근처의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해 포격을 가하여 망해암이 소실되었다고 하며, 퇴각하던 북한군이 청년들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군이 물러난 후 북한군에게 협력했던 이른바 부역자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일도 많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마을주민들은 학교운동장, 2001아울렛 부근, 동덕아파트 부근 수태골 등지를 부역자 처형 장소로 지목한다.⁸³

유엔군의 안양 수복은 그 기간이 오래가지 못했다. 파죽지세로 한·만 국경까지 진출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대규모의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 전선에서 전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공산군의 제3차 대규모 공세에 직면하자, 유엔군사령부는 서울 포기를 결정하고 평택~장호원~삼척을 연결하는 '37도 방어선' 구축을 명령했다. 이른바 '1·4후퇴'였다. 1·4후퇴 시기에는 전쟁 발발 초기 때와는 달리 북한지역과 서울·경기·충청지역 주민의 대규모 피란이 있었는데, 안양주민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는 피란 갈 겨를도 없었고, 그렇게 할 이유도



수리산 부근 전투 상황도(1951.1.31~2.6,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 2017)

몰랐던 안양주민들은 한 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경험하고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쪽으로 피란길에 나섰다. 이 무렵에 안양역 화물열차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항간에는 군수물자를 실은 화물열차가 남쪽으로 갈 수 없게 되자 폭발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하나 의도적인 폭발인지 사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⁸⁴

두 번째로 공산군 점령 아래 놓이게 된 안양지역에는 중국군 제50군 예하 제150사

단 병력이 주둔했다. 중국군 제 150사단은 수원~용인 간 도로 북쪽의 경계를 담당하고, 주력이 서울~수원 간 지역에 위치했다.⁸⁵ 중국군은 제3차 공세 후 조중연합사령관 평더화이 [彭德懷]의 명령에 따라 1951년 1월 8일을 기해 전 전선에서 더 이상의 진출을 시도하지 않은 채 휴식과 정비에 들어갔다. 갑자기 전선에서 사라진 적은 오히려 유엔군에게 불가사의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했던 중국군의 모습은 전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⁸⁶



1951년 2월 2일 수리산 전투 상황(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저, 이원복 역, 『한국전쟁: 유엔군의 재반격』 7, 명성출판사, 1991)

유엔군은 무작정 중국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선에서 사라진 중국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당시 제8군사령관이던 리지웨이 (Methew B. Ridgeway) 장군의 명령에 따라 제1군단 예하의 제25사단 제27연대가 1월 15~16일 ‘울프하운드 작전(Operation Wolfhound)’으로 명명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군의 방어선은 수원~이천을 연하는 선이며, 화력지원과 보급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중공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의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확인했다.⁸⁷

‘울프하운드 작전’의 결과만으로 볼 때는 한강선을 목표로 일거에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공세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제8군사령관은 ‘울프하운드 작전’보다 한 단계 높은 위력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계획은 한강까지 5개의 통제선을 설정하고,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각각 1개 사단을 앞세워 통제선을 차근차근 점령해나간다는 것이었다. 작전의 명칭은 ‘울프하운드 작전’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의미로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 즉 번개작전이라고 명명했다.⁸⁸ 당시 미 제1군단 작전지역에서는 1월 18~19일 항공수색정찰 결과로 안양~경안(경기 광주) 선에서 공산군의 이동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⁸⁹

썬더볼트 작전계획에 따라 1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미 제1군단은 미 제25사단을,

미 제9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을 선두에 세워 오산~여주 선을 공격개시선으로 삼아 공격을 시작했다. 이 작전에는 유엔군의 지상군 병력 25만 명(16개 사단, 3개 여단, 1개 공수연대)과 전차를 비롯해 각종 포가 총동원되었으며, 공군의 강력한 항공 지원이 병행되었다.

안양은 썬더볼트 작전계획에서 유엔군이 설정한 제3통제선에서 제4통제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지가 수리산이었다. 경기도의 안양·군포·안산 등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은 수원에서 영등포로 이어지는 국도와 안산을 거쳐 소사 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474m 높이의 수리산은 골짜기를 두고서 양 갈래 능선을 이루고 있는 북쪽 방면에서의 접근이 유리한 반면에, 비교적 완만한 능선을 이루고 있으나 형세가 복잡한 남쪽 방면에서의 접근이 불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쪽 방면에서 공격할 경우 공격보다는 방어하는 측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수리산의 전술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군 측에서도 제150사단의 1개 연대를 투입해 수리산 정상은 물론 주요 능선과 접근로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군은 474고지(수리산 정상), 431고지(수리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800m), 440고지(431고지와 서쪽으로 연결된 고지) 등 수리산 정상 부근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⁹⁰

1951년 1월 25일부터 썬더볼트 작전에 나선 유엔군은 1월 31일을 기해 각 군단의 주력을 전방에 투입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한강선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때 서해안에서 용인의 광교산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한 미 제25사단은 한강선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수리산과 모락산을 상정하고, 이 목표물을 점령하기 위해 미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을 수리산 공격에, 국군 제15연대를 모락산 공격에 각각 투입했다.

미 제25사단은 1월 31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5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미 제35연대는 이날 오후까지 중국군의 제1선 방어진지인 군포시 대야동의 250고지와 용호동의 210고지를 무난히 점령했다. 그러나 중국군의 제2선 방어진지인 253고지(정상에서 남쪽으로 약 2km 지점)는 적절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격 시기를 놓쳐 점령에 실패했다. 253고지는 공격 둘째 날인 2월 1일 미 제25사단과 터키여단의 연합작전으로 점령에 성공했다.⁹¹

사단에서는 미 제35연대에 터키여단과 합동으로 수리산 공격을 실시하라는 「작전지시 제64호」를 하달했다. 이 작전지시의 주요 내용은 2일 일몰 전까지 수리산에서 좌측의 터키군과 연결하고, 우측의 국군 제15연대와 평봉성에서 연결하라는 것이었다.⁹²

이 명령에 따라 미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은 2월 2일 사단이 보유한 모든 포병화력이

수리산 정상 부근의 중국군 진지에 집중되는 가운데 정상 공격에 나서 미 제35연대 제2대대가 정오경에 수리산 정상을 점령했고, 오후 3시 45분경 터키여단이 440고지와 431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미 제25사단의 수리산 탈환작전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때 중국군은 440고지의 남쪽 기슭에 위장이 잘된 진지를 구축하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터키군의 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낮 시간을 숨죽이고 진지에서 움직이지 않던 중국군은 저녁 8시경에 이르러 미 제35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474고지를 서쪽에서 공격하고, 431고지 북쪽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터키군을 배후에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터키군은 431고지에서 각종 무기와 탄약을 유기한 채 철수를 강요당했으며, 474고지의 미 제35연대 E중대도 2월 3일 오전 10시까지 중국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⁹³

미 제35연대 E중대의 처절한 혈투로 수리산은 끝까지 사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리산 서쪽의 440고지는 여전히 중국군이 강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이에 미 제25사단에서는 사단예비로 있던 제27연대 제3대대를 투입해 터키여단과 더불어 440고지를 점령하게 했다. 제27연대 제3대대와 터키여단은 총 4차례에 걸쳐 440고지를 공격한 끝에 2월 6일 마침내 고지 점령에 성공했다. 이로써 일주일간 진행된 수리산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무렵 정부국도를 따라 진격한 유엔군은 이미 안양을 점령하고 과천을 지나고 있었다.⁹⁴

결국 수리산 전투를 끝으로 서부지역의 전선은 급속히 북쪽으로 올라갔으며, 2월 9일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가 관악산 전투를 승리하면서 유엔군이 노량진~영등포로 이어지는 한강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안양지역은 완전히 수복되었으며, 이제 전후 복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만이 남겨지게 되었다.

4) 전쟁이 안양에 미친 영향

만 3년간 진행된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이러한 민족사적 비극은 안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양은 전쟁 초기부터 주요 전투지였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컸다. 안양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현존하지 않지만, 당시 안양이 속해 있던 시흥군 전체의 통계를 고려해볼 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시흥군의 인명피해는 사망 1888명(남 1133명, 여 755명), 납치 90명(남 58명, 여 32명), 행방불명

165명(남 99명, 여 66명), 부상 1022명(남 614명, 여 408명)으로 집계되었다. 안양읍의 납치자 수는 125명이었다고 한다.⁹⁵

재산 피해의 경우는 통계상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자료상에 나타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안양이 속해 있던 시흥군의 피해상황은 전투상황이 사실상 종결된 1951년 9월 1일 현재 가옥의 경우 전쟁 전 1만 5626호였던 것이 전소全燒 3299호, 반소半燒 1245호로 피해 연건평이 7만 6736평, 피해액이 87억 6527만 환圓이었다. 그리고 기업체 피해로 도정공장搗精工場의 경우 전소된 공장이 4개소, 반소된 공장이 2개소로 총 피해액이 492만 환이었으며, 일반기업체 공장 15개소가 전소되어 94억 3430만 환의 피해액이 발생했다.⁹⁶ 1951년 3월 2일 한 신문기사에서는 “경기도 내의 피해는 안양·김량장·시흥 등의 도시가 완전 폐허화됐고 수원도 대부분이 초토화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처참한 전쟁 피해상황을 전했다.⁹⁷

인적·물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지만, 주민 내부의 갈등과 분단의식의 내면화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전쟁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다. 이를 치유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1 현 안양시는 1949년 8월 14일 시흥군 안양면에서 안양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시흥군 동면의 안양리와 서면의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입되었다. 이후 1973년 7월 1일에 안양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안양읍을 위주로 서술하되 내용적 관련성이나 자료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군 단위의 동향은 시흥군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안양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안양면(읍)은 시흥군의 군청소재지로서 시흥군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
- 2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한 후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 일본을 상대로 군사·외교적 압력을 강화하다가 7월 26일 미국·영국·중국의 3개국 정상 명의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포츠담선언으로 불리는 연합국의 최후통첩에 대해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기 민사작전』, 2024, 91~92쪽).
- 3 문재안 외 39명, 『8·15의 기억: 해방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 한길사, 2005, 19쪽, 104~106쪽, 182쪽, 202쪽, 232쪽, 241쪽.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에 철도시설 보호와 대구 시내 치안을 담당하던 일본군 774부대에 입대했다는 증언도 있다(같은 책, 164쪽).
- 4 군포시사편찬위원회, 『군포시사: 군포의 등장과 역사적 변천』 2, 2010, 398~399쪽.
- 5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시흥의 근현대』 3, 2007, 321쪽;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자연과 역사』 1, 2007, 588쪽.
- 6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 국사편찬위원회, 2014, 151쪽. HUSAFIK은 주한 미군정의 정보참모부 군사실에서 편찬한 3부작(미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는 201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1부를 번역하여 『주한미군사1』로 출간했으며, 제2~3부는 서적으로 출간되지 않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자료관에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다.
- 7 위의 책, 160쪽.
- 8 위의 책, 161쪽~163쪽.
- 9 『주한미군사1』에 의하면, 8월 25일자 『경성일보』에 반도를 두 개의 점령지역으로 분할한다는 공식 발표가 실렸으며, 이 기사에 앞서 일본은 한반도의 분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위의 책, 172~173쪽).
- 1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8권, 2005, 19쪽.
- 1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역사와 전통의 안양』 1, 2008, 262쪽. 지방인민위원회는 1945년 말에 남한의 148개 군 가운데 145개 군과 1680개 면 가운데 1667개 면에 조직될 만큼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1, 실천문화사, 1991, 69쪽).
- 12 『시흥군 인민위원회 결성』, 『중앙신문』, 1946년 1월 11일.
- 13 『안양의 반탁행사』, 『자유신문』, 1946년 1월 5일.
- 14 김태우, 「경기도지역의 민족국가 수립운동」, 『경기도사』 제8권, 2005, 57~58쪽.
- 1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62쪽.
- 16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23~324쪽.
-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기 민사작전』, 273~274쪽.
- 18 위의 책, 274쪽.
- 19 정병준, 「주한미제24군단의 대한 군정계획과 군정중대·군정단」,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 문서1』, 국사편찬위원회, 2000, 7쪽.
- 20 국사편찬위원회,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 문서4』, 국사편찬위원회, 2000, 88~90쪽. 제60군정중대 안양분견대 요원은 Alpheus F. Maple 대위, Burnett K. Isenberg 중위, Allen M. Greenlee 중사, Edward H. Doss 일병, James A. Nichols 이병 등이었다(같은 책, 92쪽).
- 21 해방 후 초대 시흥군수였던 손영기는 1946년 9월에 경기도 식량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제2대 군수로 전 가평군수 한창호(韓昶浩)가 1946년 10월 1일 부임했다(『시흥군수 경질』, 『자유신문』, 1946년 10월 6일).
- 22 「대의원 6명을 선출, 경기도 대표자 선거 완료」, 『동아일보』, 1947년 10월 30일.
- 23 「시흥군청 낙성」, 『조선일보』, 1947년 12월 3일. 시흥군 청사는 1945년 7월에 영등포에서 안양으로 이전한 후 1946년 8월 10일 신청사 건축을 알리는 기공식을 열었다(『시흥군 청사 신축』, 『자유신문』, 1946년 8월 14일).
- 24 「한독 시흥군당부」, 『자유신문』, 1946년 6월 4일.
- 25 「한민당 시흥지부 결성」, 『동아일보』, 1946년 7월 17일.
- 26 「시흥농조 결성」, 『자유신문』, 1945년 12월 7일. 이날 결성식에서 위원장 겸 공제부장에 김옥호金玉鎬, 부위원장에 안용갑安鏞甲, 총무부장에 김윤영金允榮, 선전조직부장에 조동현趙東賢, 정외부장에 이백희李百禧가 각각 선출되었다.
- 27 「시흥 청년동맹 결성」, 『자유신문』, 1945년 12월 10일.
- 28 「시흥 부녀동맹 결성」, 『자유신문』, 1946년 3월 27일.
- 29 「시흥에도 민전위원회」, 『자유신문』, 1946년 3월 4일.
- 30 「노총 시흥군연맹」, 『자유신문』, 1947년 8월 21일.
- 31 「대청 시흥군단 결성」, 『경향신문』, 1947년 10월 9일.
- 3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28쪽.
- 33 「안양의 반탁행사」, 『자유신문』, 1946년 1월 5일.
- 34 「지방단선: 독립축성 분회 결성」, 『동아일보』, 1946년 1월 3일.
- 35 「시흥서 군민대회」, 『자유신문』, 1946년 1월 11일.
- 36 「안양 반탁강연회」, 『안양애국동지회』, 『자유신문』, 1946년 1월 16일. 1월 11일에 개최된 안양애국동지회 결성식에서는 위원장 권중석, 부위원장 이세진과 박인영, 총무부장 정기탁을 비롯해 재장·기획·문교·민생·선전·노농·청소년·학생·부녀 등 10개 부서의 부장을 선출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위원장 권중석과 부위원장 이세진·박인영은 이후 결성되는 한국독립당 시흥군당부의 핵심인물이며, 총무부장 정기탁은 이후 시흥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 37 「각 지방 반탁운동 전개」, 『조선일보』, 1946년 1월 19일.

- 38 「시흥 개성 쌀 수집완료」, 『조선일보』, 1946년 12월 6일. 1946년도 경기도의 식량수집은 11월 30일 포천군이 100% 완료하였으며, 12월 4일에 시흥군과 개성부가 100% 완료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 39 「시흥도 쌀 공출완료」, 『경향신문』, 1946년 12월 12일. 이 기사에서 “건국에 받치는 농민들의 자각과 한창수 군수 이하 관계직원의 노력으로” 미곡수집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
- 40 「15명을 수열收烈, 곡물수집위반자 엄단」, 『조선일보』, 1946년 8월 1일.
- 41 「식량수집에 불응자와 비밀 매매·매점도 엄벌」, 『조선일보』, 1946년 9월 14일.
- 42 「할당량 삭감을 7군수회의서 진정」, 『경향신문』, 1947년 9월 18일.
- 43 「생필품 통제」, 『조선일보』, 1946년 4월 23일.
- 44 「생필품을 통제배급, 도에서 통제규칙을 발표」, 『동아일보』, 1946년 4월 20일.
- 45 「경기도에서 생필품 제1회 배급을 실시」, 『조선일보』, 1946년 6월 1일.
- 46 「통제경제의 모순성」, 『동아일보』, 1946년 7월 16일.
- 47 「호열렬虎烈刺 창궐」, 『조선일보』, 1946년 6월 7일.
- 48 「적신희 호열자 점자로 맹위」, 『동아일보』, 1946년 6월 25일; 「전염병환자 은근은 엄벌」, 『동아일보』, 1946년 11월 24일.
- 49 「경기도 후생국, 전재동포를 위한 주택건립문제 토의」, 『서울신문』, 1946년 11월 24일.
- 50 「전재민에 의연義捐, 안양서 2만여 원」, 『경향신문』, 1947년 2월 12일.
- 51 「전재동포원호회 시흥군지부 결성」, 『조선일보』, 1947년 4월 30일. 이외에도 안양면 안양리의 안정호安正浩는 전쟁고아를 양육하는 안양평화보육원에 1만 6000평의 토지와 1만 원의 현금을 기부하기도 했다(「안정호씨의 미거美擧」, 『경향신문』, 1947년 2월 13일).
- 52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 412쪽.
- 53 위의 책, 412쪽.
- 54 「안양화약고 19일 폭발」, 『동아일보』, 1946년 4월 21일; 「전 안양군용지서 폭발을 피해 반발」, 『조선일보』, 1947년 3월 19일.
-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기 민사작전』, 113~114쪽.
- 5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66쪽.
- 57 위의 책, 270쪽.
- 58 「군정청관보 법령 제175호(국회의원 선거법)」, 1948년 3월 17일(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6권, 1973).
- 59 「5·10선거 결과 서울 및 지방의 국회의원 당선자 발표」, 『조선일보』, 1948년 5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 『이재형』, 「근현대인물자료」, 한국현대사료DB.
- 60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35쪽.
- 6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8권, 2005, 248쪽.
- 62 「지방 실정 조사, 농지개혁좌담회」, 『동아일보』, 1949년 2월 4일.
- 63 최영목, 「미군정의 농업정책과 농지개혁의 추진」, 『경기도사』 제8권,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257~258쪽.
- 64 「서울시내의 나병환자 문제와 시흥군민의 나환자 이주반대」, 『서울신문』, 1948년 9월 10일.
- 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보고서』 1, 2001, 133~139쪽.
- 66 박동찬,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52~56쪽.
- 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보고서』 1, 182~184쪽.
- 68 국방부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148~202쪽.
- 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서부전선편』, 1985, 333~34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006, 220쪽.
- 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21쪽.
-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보고서』 1, 171쪽.
-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21쪽. 7월 4일 오전 10시경부터 유엔 항공기들이 안양 앞의 북한군에 대해 폭격을 대대적으로 가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육본 정보참모가 제7사단장에게(1950.7.4.11:57)’, 『Murzin 보고서』, 71쪽).
- 73 이동현, 「안양 사람들의 한국전쟁 경험」, 『안양 근대사 산책』, 안양문화원, 2017, 64~65쪽.
- 74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446~448쪽.
- 75 국사편찬위원회,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 『북한관계사료집』 XVI, 1993, 187~189쪽.
- 7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02~303쪽.
- 77 정병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과 지방사회의 변화: 경기도 시흥군의 사례」,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도서출판 선인, 2014, 115~119쪽.
- 78 위의 글, 129쪽.
- 79 위의 글, 129~130쪽·133~134쪽.
- 80 국사편찬위원회, 『남면당부 정치정세 보고』, 『북한관계사료집』 XVI, 1993, 162쪽; 정병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역 동원정책과 ‘공화국 국민’ 만들기: 경기도 시흥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도서출판 선인, 2014, 230쪽.
- 81 박동찬, 앞의 책, 150쪽.
-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983, 252~253쪽.
- 83 이동현, 앞의 글, 70쪽.
- 84 위의 글, 71쪽.
- 8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94쪽.
- 86 박동찬, 앞의 책, 311~312쪽.
- 87 위의 책, 315~316쪽.

-
- 88 위의 책, 317~318쪽.
- 89 I U.S.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p. 106~110, RG 407, Entry No. 429, Box No. 1505, NARA.
- 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 2017, 455쪽.
- 91 위의 책, 456쪽.
- 92 Hq. 25th Inf., 'G-3 Section Journal : Operations Instructions No. 65(1951. 2. 2, 11:00)',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RG 407, Box No. 3778, NARA.
- 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 457쪽.
- 94 박동찬, 앞의 책, 321쪽. 안양은 수리산 전투가 막바지에 이른 1951년 2월 5일에 돌빈특수임무부대(Task Force Dolvin) A중대에 의해 재탈환되었다(I U.S.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p. 53, RG 407, Entry No. 429, Box No. 1511, NARA).
- 9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79쪽.
- 96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1956, 301쪽·309쪽·310쪽.
- 97 「반도호텔, 시청, 경무대, 사회부 등이 건재, 안양·용인·시흥 등은 폐허화」, 『동아일보』, 1951년 3월 2일.

2장

농지개혁과 농촌사회의 변화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해방 후 안양의 농촌 상황

농업은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산업이었으며, 그 시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이었다.¹ 따라서 토지와 농업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사회문제였다.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한반도에서는 식민지 체제의 청산과 사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였다. 농업문제에서는 지주소작제를 기반으로 하는 식민지 농업구조의 해체가 가장 중심적인 요구였다. 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지배적인 농업구조였던 지주소작제는 토지 소유의 집중과 분산적인 영세경영 및 고율의 현물소작료를 특징으로 하였다.² 일제강점기 동안 소수의 지주들이 전체 농지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농가들은 영세한 규모의 자작농이나 소작농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었다. 1940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경지의 57.8%를 소수의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작농민 또는 자작 겸 소작농민이 소유한 농경지는 42.2%에 불과하였다. 경영 규모에서는 전 농가호수의 72.1%가 1정보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규모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수확고의 50%에 이르는 고율의 소작료는 농가 경제를 더욱 빈궁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다.³

해방 직후 남한의 농촌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45년 당시 남한 전체 농지 232만 정보 중 63.3%인 147만 정보가 지주들이 소유한 소작지였다. 이에 반해 농민들의 자작지는 85만 정보로 36.6%에 불과하였다. 전체 농가호수에서 순수 소작농이 48.9%, 자작 겸 소작농이 3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농가의 62.5%가 1정보 이하의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영세농이었다.⁴ 같은 시기 안양지역이 속한 시흥군의 농민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였다. 당시 시흥군의 소작면적 및 소작농가의 비율은 남한 전체 평균

보다 더 높았다. 시흥군 전체 농지에서 자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 소작면적은 71.7%였다. 농가호수에서는 자작 겸 소작농이 25.7%, 순수 소작농이 비율이 68%를 차지해 소작농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⁵ 일제강점기 이래 전북·충남·경기 등 논농사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소작지 비율이 높았는데, 같은 시기 경기도지역의 소작농가 비율도 64.3%로 남한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⁶ 당시 안양을 비롯한 시흥지역의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방 후 주요 정치세력은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개혁을 새로운 국가건설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 지역에서는 1946년 초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남한 농민들의 농지개혁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였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전면 단행되었으나, 농지개혁의 단초는 미군정하에서 마련되었다. 해방 후 한반도 38도선 이남지역에서 행정권을 행사한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접수·관리하기 위해 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미군정은 1948년 3월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하고, 일본인 소유 농지에 대한 유상 매각을 단행하였다. 신한공사가 관리하던 일본인 소유 토지는 일반 농지 약 28만 정보를 포함하여 32만 정보에 달했다. 이 중 논과 밭 등 일반 농지가 매각 대상이었다. 미군정 당국이 약 20만 정보의 귀속농지를 매각하였고, 나머지 미매각 농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 정부로 이관되어 처리되었다.⁷ 유상매각 형식의 미군정의 귀속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진행된 이른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의 형식과 방향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양면은 1949년 8월 안양읍으로 승격하여 지금의 안양시의 원형이 갖춰졌다. 해방 이후 안양의 농촌 현실은 어떠하였을까. 해방 후 농지개혁 이전 안양지역의 농지 실태 및 변화 양상은 1950년 간행된 시흥군지인 『금천지(衿川誌)』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금천지』를 비롯한 이 시기 통계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기준 연도 등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자료에 따라 수치 차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시기의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금천지』는 이 시기 안양을 비롯한 시흥지역 농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금천지』에 따르면, 1948년 현재 안양지역의 인구는 3906호, 2만 3484명이었다. 당시 안양의 농가호수는 1245호로 전체 호수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 시흥군의 농가 비율이 57%, 농가인구가 59.9%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안양지역의 농가 비율

은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⁸ 이는 안양면 지역에 시흥군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회사, 공장이 밀집해 있어 공무원 등 관공리, 제조업 노동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48년경 안양면 지역의 농지면적은 논과 밭을 합하여 약 1298정보였다. 전체 농지에서 논과 밭의 비율은 각각 55%, 45%였고, 농가 1호당 경작면적은 논 0.58정보, 밭 0.37정보를 합하여 0.95정보였다. 이를 경작 형태별로 나누어보면, 자작면적은 310.1정보, 소작면적은 988.2정보로, 각각 전체 경지면적의 28%, 78%로 나타난다.⁹



『금천지』(1950년 간행)

안양면 자소작별 경지면적(1948년)

(단위: 반¹⁰)

구분	자작면적			소작면적			합계
	자작 겸 소작의 자작	순자작	계	자작 겸 소작의 소작	순소작	계	
답(畓)	919	88	1,007	3,929	2,212	6,141	7,148
전(田)	1,894	200	2,094	2,804	937	3,741	5,835
계	2,813	288	3,101	6,733	3,149	9,882	12,983

출처: 금천지편찬위원회, 『금천지』, 시흥군, 1950, 108쪽.

안양지역의 소작면적 비율은 78.1%에 달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시흥군 전체 경향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48년 당시 시흥군의 전체 경지면적 1만 2028.2정보 중에서 자작면적은 4672.2정보, 소작면적은 7356정보로, 자작면적과 소작면적이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9%, 61%였다. 이는 해방 직후와 비교하면 논 면적에서 약 800정보, 밭 면적에서 400정보가 늘어나 약 1200정보의 자작지가 증가한 것이었다. 해방 직후에 비해 자작면적의 비율이 28%에서 39%로, 11%가 격증한 것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금천지』에서는 농지개혁 실시를 예측한 지주층의 농지 방매와 소작료 3·1제 실시에 따른 농가경제의 향상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¹¹ 농가경제의 향상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기는 어려우나, 농지개혁을 앞두고 농지 방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은 널리 지적되는 사실이므로, 농지개혁을 앞두고 자작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농지개혁을 앞두고 안양지역에서도 지주들에 의한 방매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볼 때, 안양지역에서도 지주들의 농지 방매로 자작지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¹²

안양지역의 높은 소작 비율은 농업형태별 농가호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1948년 당시 안양면의 농가 총수는 1245호로, 자작농이 27호, 자작 겸 소작농이 868호, 소작농이 350호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1%, 69.7%, 28.1%이다. 이는 농민 절대 다수가 어떤 식으로든 소작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인구별로 살펴보면, 안양면 전체 농업 인구 7242명 중 자작은 162명, 자작겸소작은 4868명, 소작은 1979명, 농업피용자(농업노동자)는 333명으로 나타난다.¹³ 안양면 지역의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0.95정보였으나, 소작농의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1정보 미만의 영세한 영농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자소작별 경지면적과 농가호수를 비교하면, 당시 농가의 경영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데, 자작농은 1.06정보, 자작 겸 소작농은 1.06정보, 소작농은 0.83정보로 나타나고 있다.¹⁴ 같은 시기 시흥군 전체 농가의 경영규모와 비교하면 안양지역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안양면 농업형태별 농가호수표(1948년)

(단위: 호)

농가 총호수	형태별 호수		경작별 호수		
	전업	겸업	자작	자작 겸 소작	소작
1,245	997	248	27	868	350

출처: 금천지편찬위원회, 『금천지』, 시흥군, 1950, 112쪽.

요컨대, 해방 이후 안양 농촌지역의 현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양지역은 시흥군 전체 평균에 비해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양지역에 관공서, 공장, 회사 등이 상대적으로 밀집하였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양지역 역시 일제강점기 이래 지주소작제의 전통이 여전히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전체 농지의 78.1%가 소작였으며, 극소수의 자작농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순수 소작농이거나 자작 겸 소작농으로 영세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었다. 셋째, 농지개혁을 앞두고 지주들의 농지 방매가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안양지역에서도 지주들의 농지 방매 등을 통해 자작지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농지개혁의 실시와 농촌사회 변화

1) 농지개혁 실시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

1948년 「제헌헌법」 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농지개혁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농지개혁법」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49년 4월 27일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자 정부는 농지개혁의 시행을 서둘렀지만, 지주보상액과 농지상환률을 둘러싼 논란으로 「농지개혁법」의 법적 시행은 다음 해로 미뤄졌다. 「농지개혁법」 개정안이 1950년 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이어 3월 23일에 「농지개혁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농가당 3정보까지 자경을 허용하고,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작의 15할을 5년 균등상환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49년이 시작되면서 농지개혁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농지개혁 실시를 위한 행정조치에 착수하였다. 1949년 4월 27일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하자 농림부는 ‘농지개혁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는 한편, 농지개혁 실행 전담기구로 각 도에 농지과와 시·군에 농지계를 신설하고 농지개혁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지개혁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1949년 6월 25일을 기해 전국적인 농가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방식은 농가와 지주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⁶ 농가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가족수, 노동력, 경작면적, 수확고, 경작가능면적 등이었고, 이 조사는 이후 농지소표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1949년 12월 농림부가 발표한 농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농지 207만 정보의 약 29%인 60만 정보가 분배대상 농지였다.¹⁷

주목되는 점은 1949년 농가실태조사의 결과로 추측되는 통계 자료가 『금천지』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해 『금천지』에서는 “조사방법은 각 경작자로부터부터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서” “경작형태별 급及 경작광협별 耕作廣狹別 경지면적과 농가인구 급及 호수를 게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¹⁸ 조사가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 점, 3정보 초과 면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볼 때, 농지개혁을 앞두고 실시된 농가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경작형태별 경지면적

(단위: 반)

호수	소작			자작			귀속			합계			자작 3정보 이상 초과면적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1,617	3,802	2,984	6,786	3,434	2,616 ¹⁹	6,050	488	461	949	7,724	6,061	13,785	36	159	195

출처: 금천지편찬위원회, 『금천지』, 시흥군, 1950, 124쪽.

경작광협별 경지면적 및 호수

(단위: 호·반)

구분	~5반	5반~1정	1정~1.5정	1.5정~2정	2정~3정	3정~5정	5정~10정	10정~20정	총계
호수	556	501	306	155	92	5	-	2	1,617
면적	1,746	3,597	4,075	2,771	2,177	192	-	230	14,788

출처: 금천지편찬위원회, 『금천지』, 시흥군, 1950, 125쪽.

농가 인구 및 호수

(단위: 명·호)

농가인구	농업종사원수	농업고용인		농가호수			계
		인원수	가족수	소작	자작	자소작	
11,661	5,746	89	13	918	176	523	1,617

출처: 금천지편찬위원회, 『금천지』, 시흥군, 1950, 126쪽.

위 통계자료는 1948년 자료와 비교하면 전체 농가호수, 자작 및 소작의 비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천지』에서도 “절대 정확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우나 다소 참고가 될까하여”라고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확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는 농지개혁을 앞둔 안양지역의 몇 가지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농가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같은 증가 양상은 해방 이후 월남민, 귀환동포 등의 유입인구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목되는 점은 귀속농지 분배 현황이다. 귀속농지는 약 95정보가 분배된 것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다룰 귀속농지 분배 면적표에서는 분배 면적이 약 86정보로 기록되어 있다. 대략 90정보 내외의 일본인 소유 농지가 귀속농지로 분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작지의 증가 양상이다. 자작지가 거의 배 이상으로 격증하였으며, 소작지는 약 1/3이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자작농가도 크게 늘어났다. 소작농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환동포 등 인구유입에 따른 증가로 추측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자작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 1정보 미만의 농

가가 69.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도 1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지만, 농지 소유의 변화 등 농지개혁을 앞두고 농촌이 크게 요동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안양지역의 농촌지역도 농지개혁을 앞두고 크게 술렁이고 있었다. 앞서 말한 자작지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주들의 농지 방매였다. 안양지역에서도 지주들의 농지 방매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소작 농민들은 지주들의 사실상 반강제적인 농지 방매에 대해 반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양상을 한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초부터 정부는 각 시·도별로 농지개혁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지개혁에 대한 홍보와 여론 수렴을 진행하였는데, 1949년 2월 안양면 호계리의 농촌좌담회 개최 내용이 신문에 전하고 있다. 당시 좌담회에서 농림부 농지국에서는 「농지개혁법」안을 해설하며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농민들은 농지 방매 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농지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농지개혁을 앞두고 이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월 4일부터 각 지방 농촌을 순회하며 실정을 조사하고 농촌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월 2일에는 경기도 내 농촌 실정을 조사하고자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 4구區에서 농촌좌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이날 농림부 측에서는 강췌 농지국장 이하 관계 각 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농민 측에서는 호계리 4구 농민들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호계리 4구는 농가 호수 75호에 인구 360명인데 참석한 농민을 유별類別하면 소작 26명, 자소작 17명, 자작 6명, 고용인 3명 등이었다.

먼저 강췌 농지국장의 「농지개혁법」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는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향상을 도모하기로 되었다. 금반 농림부에서 입안한 골자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체감 매상하여 평균생산량 12할분 가격으로 농민에게 최고 2정보까지 분배하여 6년 간 연부年賦 매년 생산고 2할씩 현곡現穀으로 상환토록 하는 것이며, 지주에게는 연평균 생산량의 15할을 보상하되 최초 3년간은 거치據置하고 그 후 10년간 분할지급토록 되며 그 보상액이 소액일 시에는 일시불, 혹은 기간 단축 등의 편의도 보아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액 3할은 대지주 토지징수가격을 체감 계산하는 것으로서 균형을 짓는 것이다.”

다음 이 초안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 청취로 들어갔는데 대체로 동 초안에 찬성하고 있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농민들의 격의 없는 실정을 들어보건대 자기네 동리에 있어서 해방 전에는 자작농가라고는 불과 1할에 불외不外하였었는데 현재는 약 3할 이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농가경제가 향상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주에게 토지를 강매당하여 그런 것이다. 참석한 농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토지를 강



『자유신문』(1949.2.4)

매당하였으며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중의 한 사람은 말하기를 토지매매를 즉시 금지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지개혁을 시급히 실시하지 않으면 농민의 고초는 막심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매당하여 농촌의 유일한 생산도구인 농우農牛 등을 방매하고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농림부 측에서도 언명한 바와 같이 아직도 일제시 농지령이 존속되고 있는 이상, 소작인이 어떠한 과오가 없는 이상, 소작권은 3년간 지속되며 만기가 되어도 소작인이 어떠한 과오가 없는 이상,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작권을 지주가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항상 약한 입장에 서있는 농민들은 자기

의 정당한 주장도 제대로 주장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참혹한 농촌의 실정이다.

요는 진실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법」을 준경기 전에 시급히 실시하여 달라는 것이 전 농민들의 적절한 요망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7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어떠한 개인적·정치적 편견을 제거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동 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기를 농민과 더불어 일반은 바라고 있는 바이다.²⁰

이 기사는 당시 안양 일대의 농촌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기사는 농지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좌담회에는 호계리 4구 농가 75호 중에서 지주들 제외한 대다수 농가가 참여하였는데, 농지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농민들이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농림부 농지국장은 농지개혁 법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농민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이 좌담회에서도 지주들의 방매에 의한 자작지 증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방 직후에 비해 자작지가 대략 10%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다. 당시 호계리 4구 농민들은 지주들의 빈번한 농지 강매로 고통받고 있으며, 소작 농민들은 농지 구매를 위해 농우를 파는 등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좌담회에 대한 다른 기사에서는 농민들이 정부의 농지개혁에 찬성을 보내면서, 각 마을에 설치될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우

려를 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²¹

2) 농지개혁 실시와 농촌 변화

1950년에 접어들어 농지개혁 사무가 본격화되었다. 농지개혁의 일반적인 과정은 준비단계로서 1949년 농가실태조사를 거쳐, 농지의 매수 및 분배, 분배 농지에 대한 지가상환, 지주에 대한 보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시흥군의 농지개혁에 관한 사무 계획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 조사를 완료하고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어 4월 초순까지 농가일람표의 작성 및 공람, 분배예정통지서 발부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당시 시흥군 수암면의 사례에 따르면, 5월 중순까지 이 조치가 대체로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6월 초에는 완료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주들에 대한 지가증권의 발부를 5월 말까지, 상환대장과 상환증서의 작성 및 발부를 6월 말까지 계획하였다.²² 이들 계획에 따라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분배대상 농지에 대한 매수 및 분배는 대체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²³

1952년 농지개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안양읍의 분배대상 호수는 귀속농지를 포함하여 1323호로 나타난다. 이 숫자는 1948년 통계의 전체 농가호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안양면 지역의 대다수 농가가 농지분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지개혁으로 1013호 농가가 농지를 분배받았으며, 268호는 귀속농지를 분배받았다.²⁴

분배농가 호수표(일반농가)

(단위: 호명, 1952.4.30. 현재)

구분	호수	인구	경지소유별 분류					
			순분배농가	순귀속농가	자작 분배농가	자작 귀속농가	귀속 분배농가	혼작농가
안양리	515	1,495	189	117	80	23	82	27
비산리	712	823	54	13	87	10	3	5
일동리	213	1,005	50	-	158	1	1	3
이동리	217	1,013	68	1	139	1	2	6
호계리	203	995	97	1	91	2	9	3
합계	1,323	5,331	458	132	555	37	97	44

출처: 시흥군 안양읍, 「농지관계자통계부」, 1953.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안양지역의 농지는 귀속농지 85.9정보, 일반농지 564.2정보로 총 650.1정보였다. 귀속농지의 경우 밭의 비율이 분배농지의 60.3%를 차지한 반면, 일반농지의 경우 논외의 비율이 61.3%를 차지하여, 일본인 지주들에 비해 한국인 지주들이 논외의 소유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귀속농지를 포함한 650.1정보의 분배농지는 1948년의 전체 농지규모 1298.3정보를 기준으로 할 때 50%에 해당하는 수지로, 안양지역 농지의 절반이 분배대상 농지였음을 말해준다.

분배농지 면적표(귀속농지)

(단위: 반, 1952.12.30. 현재)

구분	귀속농지			특수농지		합계
	전	답	계	과수원	상전(기타)	
안양리	338	178	516	50	-	566
비산리	87	24	111	-	-	11
일동리	2	37	39	-	-	39
이동리	4	26	30	-	-	30
호계리	87	26	113	-	-	11
합계	518	291	809	50	-	859

출처: 시흥군 안양읍, 「농지관계자통계부」, 1953.

분배농지 면적표(일반농지)

(단위: 반, 1952.12.30. 현재)

구분	일반농지			특수농지		합계
	전	답	계	과수원	상전(기타)	
안양리	740	467	1,207	4	-	1,211
비산리	281	490	771	-	-	771
일동리	337	750	1,087	-	-	1,087
이동리	388	838	1,224	-	-	1,224
호계리	440	909	1,349	-	-	1,349
합계	2,184	3,454	5,638	4	-	5,642

출처: 시흥군 안양읍, 「농지관계자통계부」, 1953.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그 대가를 5년간 곡물 또는 대금으로 납입해야 했다. 당시 시흥군의 계획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상환대장 및 상환증서를 작성하고 발부하고, 7월 중순까지는 하곡분 상환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상환 업무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상환 업무는 전시에 '가상환' 형식을 거쳐, 1950년 추곡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한편 시흥군에서는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 대한 지가보상을 위해 1950년 5월 초에 지주보상 신청을 마무리하고 5월 말까지 지가증권을 발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주들의 비협조로 보상업무는 지연되었고, 이어서 발발한 전쟁으로 관련 업무는 중단되었다. 1951년 들어 정부는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요령을 제정하여 지가증권 발급 업무를 정상화하였으나, 보상법정기한(1951~1955)이 지난 1957년경에 지가증권 발급이 거의 완료되었다.

농지개혁 당시 안양읍에서 국가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는 217명이었다. 2.5정보 이하를 분배당한 지주들이 1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6~30정보에 이르는 지주는 6명, 31정보 이상의 대주주도 2명이 있었다. 지주들의 거주지는 호계리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양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농지개혁 시 안양읍의 피분배지주수표

구분	2.5정보이하	2.6~5정보	6~15정보	16~30정보	31~150정보	합계
안양리	85	11	3	1	2	102
비산리	24	3	-	-	-	24
일동리	40	1	-	-	-	41
이동리	24	1	-	-	-	25
호계리	21	2	2	-	-	25
합계	191	18	5	1	2	217

출처: 시흥군 안양읍, 「농지관계자통계부」, 1953

안양읍의 농지 매수 대상 지주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농지개혁 시행과정에서 지주들에 대한 지가증권의 발급 및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발급받은 지가증권도 전쟁의 영향으로 분실되거나 헐값으로 방매되어 지주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였다. 안양읍 지주들의 상황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952년 3월 말까지 안양읍의 보상 대상 지주들이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은 전체 217명 중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에서는 지주들의 산업자본으로의 이전을 위해 지가증권을 통해 귀속기업체 불하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실제로 기업체를 불하받아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안양읍의 대지주들의 경우에도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농민들은 매수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농지개혁 실시 이후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분배농지의 지적 측량과 등기 이전이 이루어졌다. 안양읍의 경우도 1955년부터 등기 이전 신청을 통해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져 1950년대 후반에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지개혁의 결과, 한국사회에서 지주소작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지주계급은 사라지고, 영세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자작농민 및 소작농민들은 농지를 분배받고 자영농으로 변모하였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농민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1960년대 초반 『시흥군 통계연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당시 안양읍의 농가수는 전업농 1130호, 겸업농 259호 등 1389호였다. 농가인구는 남성 3979명, 여성 4226명으로 총 8205명이었고, 농가호당 인구는 평균 6명이었다. 호당 경지면적은 평균 1정보였다.

안양읍 경지면적별 분류

(단위: 호·명·반)

농가 호수	농가 인구	호당 농가인구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계	답	전	계	답	전
1,389	8,205	6	13,269	8,677	4,592	10	6	4

출처: 시흥군, 『제2회 시흥군 통계연보』, 1962, 27쪽.

안양읍 경작규모별 농가수

(단위: 호·반, 1961년 말 현재)

합계		3반 이상 5반 미만		5반 이상 1정 미만		1정 이상 2정 미만		2정 이상 3정 미만		3정 이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1,389	13,269	453	1970	458	3,216	360	4,987	108	2,584	10	521

출처: 시흥군, 『제2회 시흥군 통계연보』, 1962, 27쪽.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정보 미만의 영세농가가 911호를 차지해 전체 농가의 65.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균 0.57정보의 영세한 영농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에서 0.5정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도 176호에 달했다. 1~2정보의 중농은 360호로 약 25.9%를 차지하고, 그 이상의 대농은 118호로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농지개혁으로 농가의 대부분이 자영농이 되었으나, 농가의 영농규모는 여전히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농업·농촌의 위상 변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안양지역은 점차 공업지대로 변모하였다. 공장이 늘어나고 인구의 집중과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안양지역에서 농업·농촌의 위상은 점차 낮아졌다. 1949년 당시 안양읍의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였으나, 1961년 현재 농가 비중은 25.1%로 줄어들었다. 1963년 동면 안양리,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으로 편입되고,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안양읍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안양읍 인구는 1965년 5만 명을 넘었고,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 안양시의 인구는 11만 명에 이르렀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가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어 1973년 시 승격 당시에는 농가수는 1173가구로, 전체 가구의 5.2%로 급감하였다. 1970년대 접어들어서는 농업인구 자체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1980년에는 농가수가 865가구로,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쳤다. 가구당 경지면적도 점차 줄어들어, 1980년에는 평균 0.76ha에 불과하였다.

농가수 및 농가인구의 추이

(단위: 명·가구)

연도	전체인구	가구수	농가수	농가인구
1961	30,311	5,529	1,389	8,205
1970	91,894	18,709	1,513	9,363
1973	111,075	22,433	1,173	7,147
1980	253,541	55,587	865	4,814

출처: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62·1971;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1974·1981.

비고: 농가수 통계는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를 합친 수치이다.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산업별 인구에서 농업 비중은 1961년 29.1%였으나, 1973년 시 승격 당시 산업별 취업인구에서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 종사 인구는 2797명으로, 산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였다.²⁵ 이에 비해 제조업 등 2차산업은 취업인구의 64%,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의 비중은 29%로 나타났다.²⁶

한편, 1970년 농촌근대화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안양지역에서도 농촌새마을운동, 공장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안양



양지동 새마을 가꾸기 공동작업(1970)

지역의 농촌새마을운동의 주요 내용은 ‘새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환경정비사업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안양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새마을가꾸기사업은 1977년 이후부터 실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소교량, 안길 확장, 공동우물 보수, 공용이용 시설, 복지환경 사업, 하수구 설치·복개·보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지붕개량 사업의 주요 지역은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박달동 등 상대적으로 농가가 밀집한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양지역의 농촌새마을운동이 지붕개량 등 환경정비 사업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안양의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위상은 더욱 낮아졌다. 1990년 현재 안양시의 농가수는 현재 314가구로 시 전체가구수에 대한 비율은 0.24%에 불과하였다. 농가인구는 1436명으로 시 전체 인구 대비 0.29%에 그쳤다. 농가 구성에서 전업농가의



삼막천 교량공사(1972)



이동리 평촌마을회관 건립공사(1973)

비중도 점차 줄어들었다. 1973년 당시에는 전업농가가 전체 농가의 81.6%를 차지했으나, 1990년 현재 전업농가는 31.8%로 줄어들고 겸업농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²⁸ 이처럼 안양시의 역사에서 농업과 농촌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주변화하였다.

그러나 안양지역의 농업과 농촌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은 것은 아니다. 안양 지역 농촌과 농민의 삶은 오늘날 도시 안양을 있게 한 문화적 자산이자 역사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농업은 과거의 삶의 양식이 아니라 생태적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양 농촌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오래된 미래로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1 조선은행, 『1948년 조선경제연보』 제1부, 5쪽. 1946년 9월 말 당시 남한 전체 인구는 1936만 9270명이었으며, 농업인구는 1248만 8855명으로, 전체 인구의 64.7%를 차지하였다.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281쪽.
- 3 조선은행, 앞의 책, 27~28쪽.
- 4 조선은행, 위의 책, 28~30쪽.
- 5 금천지편찬위원회, 『금천지』, 시흥군, 1950, 110쪽. 시흥군 전체 농지 1만 2105.4정보 중에서 자작면적은 3426.9정보, 소작면적은 8628.5정보를 차지하고 있었다.
- 6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3, 2007, 360~363쪽.
- 7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383쪽.
- 8 금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112쪽.
- 9 금천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08쪽. 원 자료인 「답전별경지면적표」에는 기준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어진 농업 관련 통계의 최종 연도가 1948년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1948년을 기준 연도로 삼았고 따라서 표에서는 안양읍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양면으로 서술하였다.
- 10 단위면적 반(反, 반보)은 1/10정보이다.
- 11 금천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07쪽.
- 12 「강진국 농림부 농지국장, 안양지역 농민들과 농지개혁에 대한 농촌좌담회」, 『자유신문』, 1949년 2월 4일.
- 13 금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113쪽.
- 14 금천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11쪽.
- 15 금천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10쪽. 시흥군 전체 농가의 경영규모는 자작농 1.46정보, 자작겸소작농 1.44정보, 소작농 0.73정보로 나타나고 있다.
- 16 「토지개혁을 앞두고 농촌실태를 일제 조사」, 『조선일보』, 1949년 7월 14일.
-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반세기 증언』, 농림부, 1999, 22~23쪽.
- 18 금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123쪽.
- 19 금천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25쪽. 표의 자작지의 전은 2612반으로 되어 있으나 합계의 전에서 소작과 귀속의 전의 면적을 빼면 자작의 전 면적이 2616반으로, 자작의 합계인 6050반과도 일치하므로 바로잡았다.
- 20 「강진국 농림부 농지국장, 안양지역 농민들과 농지개혁에 대한 농촌좌담회」, 『자유신문』, 1949년 2월 4일.
- 21 「지방실정조사 농지개혁좌담회」, 『동아일보』, 1949년 2월 4일.
- 2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10,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89~95쪽.
- 23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90쪽. 시흥군의 농지개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6월에 접어들면서 문서의 내용이 상황과 보상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지의 분배작업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 2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7쪽. 이하 농지개혁 관련 자료의 인용 및 서술은 같은 책, 287~291쪽을 참고하였다.
- 25 1961년 당시 산업인구 8866명 중 농업인구는 2577명이었으나, 1973년 당시에는 3만 8447명 중 농업인구는 2729명이었다(시흥군, 『제2회 시흥군 통계연보』, 1962; 안양시, 『제1회 안양시 통계연보』, 1974).
- 26 안양시, 『제1회 안양시 통계연보』, 1974.
- 27 안양시, 『제8회 안양시 통계연보』, 1981.
- 28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1318쪽.

3장

안양시의 성립과 사회변동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안양읍 승격과 공업화의 전개

해방 이후 시 승격 이전까지 안양지역은 시흥군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 1945년 7월 시흥군청이 영등포에서 안양면으로 이전하면서 안양 일대는 시흥군청, 경찰서 등 각종 관공서가 밀집한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이어 1949년 8월 14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안양시의 원형이 마련되었다. 1949년 5월 말 현재 안양의 인구는 3906호, 인구는 2만 3484명이었다.¹ 당시 시흥군 내의 읍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였다.

이 시기 안양지역은 1930년대 이래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하의 초기 공업화의 영향으로 1930~1944년 안양의 가구와 인구는 118.3%, 131.8% 증가하였고,² 1950년까지 섬유·화학·제지업 등을 중심으로 20개 가까운 공장이 안양읍 내에 설립되어 있었다. 일찍부터 안양지역에 다수의 공장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과의 거리, 광활한 면적, 수질의 우수성 등”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³ 이런 이유로 당시 신문에서 안양지역을 소개할 때 ‘공업도시’, ‘공도工都’라는 표현이 곧잘 사용되었다. 『금천지』에 1949년 기준 시흥군 내에 소재한 18개 공장의 현황이 실려 있다. 이 중 14개 공장이 현 안양지역에 소재하였고, 1천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 중에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던 업체는 제일방직·금성방직·조선견직·조선직물·삼덕제지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섬유업종 공장이 7개를 차지하고 있어, 해방 이후 안양의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 섬유업종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성장하던 안양의 제조업은 6·25전쟁의 발발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기업체수도 크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안양읍(1951, LIFE지)

게 감소하였다. 1955년 10월 말 현재, 안양의 기업체수는 10개에 불과하며, 공장을 기준으로 하면 8개에 불과하였다. 1950년대 후반 생산시설 복구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현재 안양 읍내의 공장은 유한산업·삼덕제지·금성방직·태평방직·고려석면·한국특수제지 등 6개에 그치고 있다.⁵

한편, 1950년 후반부터 안양지역에서 영화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주목된다. 1956년 수도영화사가 현 안양시 석수동 일대에 대규모 영화촬영소를 착공하여 이듬해 문을 열었다. 3만 5천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안양영화촬영소는 설립 당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였다. 안양촬영소는 1959년 수도영화사 부도로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1966년 신상옥 감독의 신필름이 인수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영화의 산실이 되었다.⁶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안양지역은 공업지대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1960년 현재 안양읍 인구는 5567가구에 3만 1637명으로, 1949년에 비해 1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1963년에는 동면 안양리,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으로 편입되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났다. 1965년에 안양읍 인구는 5만 명을 돌파하여 8099가구에 5만 697명을 기록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에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 1970년에는 1만

8709가구에 9만 1894명을 기록하였다. 1960년대 후반의 안양읍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10% 이상으로, 1970년 인구는 1960년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⁷

이 시기 안양읍의 인구 증가는 무엇보다도 1960년대 이후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것이었다. 1961년 5·16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부천·안양·수원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안양지역의 제조업도 크게 활성화되어, 안양읍 소재 기업체수는 1970년 75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섬유·제지 업종을 비롯하여 식품·기계금속·화학공업 등으로 업종이 다양해졌다.⁸ 아래의 신문 기사는 1960년대 후반 공업지구로 성장하고 있던 안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⁹

안양은 서울에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시내버스가 다니는 서울의 위성도시다. 이 안양은 공업건설과 더불어 생겼고, 또 공업발전과 더불어 발전하는 명실상부한 공업도시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일본이 방직공장을 세운 이래 지금은 국내 굴지의 대공장 13개를 비롯하여 30여 개의 공장이 들어섰다. 이의 대중을 이루는 것은 섬유공업과 제지공업 공장인데 이들은 모두 안양의 수질이 좋기 때문에 모여든 것이다. ……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교통도 공업지구로서 발전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이라는 대소비지가 가까운데다가 복선의 경부선 철도와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기에 편리하며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 노동력 문제도 현재 종업원은 1만 4천 8백 명이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6천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 등의 외지에서 출퇴근한다. 이 외에도 안양은 공장이 서기 좋은 평지가 많다. ……

하지만 안양은 처음부터 계획된 공업단지는 아니었다.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찾아 무계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산업도로도 갖추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공업용수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공업용수는 양질이기는 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공장은 그 양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각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폐수를 처리하는 바람에 공업용수는 더욱 부족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

또 하나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지가의 앙등이다. 현재 안양읍에서 최고로 평당 8~10만 원을 호가하며 보통은 3만여 원씩하고 전답가격도 상승일로에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

이런 반면에 공장과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간혹 일기도 한다. 공장 폐수로 식수에도 지장을 준다고 당국에 진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었고, 지금은

거의 없다고 당국자도 공장으로 인한 공해문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안양은 서울의 팽창으로 서울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부터 영등포를 시로 승격, 이에 편입한다는 안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안양은 독립된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안양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울에 편입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위 기사는 공업도시로 성장일로에 있던 1960년대 후반 안양의 모습의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안양의 공업지대로서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지적할 수 있다. 서울과의 근접성, 풍부한 노동력, 철도와 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 넓은 평지, 풍부한 공업용수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풍부한 수량은 일제강점기 이래 공업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공장의 증가로 이 시점에는 용수의 부족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수질 오염 등 ‘공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 기사에서는 공장 폐수로 인한 민원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었고’, ‘행정 당국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안양의 환경오염 문제나 공해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신문기사에서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67년 보건사회부에서는 공장 및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주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양읍 일원을 공해방지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¹⁰ 1968년에는 공해 업체를 적발하여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적발된 1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7개 업체가 안양읍 소재 공장이었다.¹¹

각종 공장들이 유입되면서 식수, 농업용수 등을 둘러싸고 공장주 주민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다. 공장이 들어서면서 농민들은 농사에 필요한 용수를 공장에 뺏기는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충돌이 격화되어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966년 호계리 농민 60여 명은 공장 측에 ‘수리 및 도로를 돌려달라’고 농성을 하였는데, 공장 종업원들과의 충돌로 투석전을 전개하였다는 기사가 전한다.¹²

안양지역에 공장이 밀집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은 ‘안양탄약분해소 폭발 사고’, ‘모락산 탄약분해소 폭발 사고’ 등으로 이름되는 한국탄약분해공업사 폭발사고였다. 1964년 3월 5일 당시 시흥군 의왕면 오전리 모락산 기슭 옛 안양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폐탄처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 다량의 폭발물이 터지면서 500m 떨어진 안양교도소의 재소자들과 간수들이 부상을 입었고, 1km 떨어진 흥안국민학교의 학생과 교사들도 심한 파편상을 입었다. 폭발음이 사방 10km까지 들렸고 4km 떨어진 안양 읍내에서도 창문이 흔들렸다. 당시 사고 현장은



새서울건설약도(1971, 서울역사박물관)

신문에서 “생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참혹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¹³ 더구나 안양 지역사회는 1년 전 1963년 수학여행을 떠났던 흥안국민학교 학생들이 여주 남한강에서 나룻배 사고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46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겪은 터라 충격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¹⁴

탄약분해소 폭발 사고의 충격과 피해를 경험한 안양 주민들은 1969년 국방부가 수리산 중턱에 폐탄처리장 설치를 추진하자, ‘폐탄처리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였다. 안양 주민들은 1969년 11월 18일 3천여 명이 모여 ‘폐탄처리장 설치 반대 쫓겨대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관계 당국에 폐탄장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¹⁵

1960년대 안양지역의 공업화는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을 추동하였고, 그에 따라 지가는 급속히 상승하였다. 지가 양등에 따라 소수이기는 하지만,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위 기사는 전하고 있다. 1968년 1월 정부는 지가

양등에 따라 서울·부산 등 13개 지역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 13개 지역 중에 시흥군 과천면·서면·안양읍이 포함되었다.¹⁶

1960년대 후반부터 회자된 안양읍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1970년 1월 김현욱 서울 시장이 서울특별시 인접지역 10개 면의 서울시 편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가시화 되었다. 여기에 시흥군 서면과 안양읍 전 지역이 포함되었다.¹⁷ 이 발표로 안양읍 일대는 부동산 투기붐이 일었고, 토지 가격은 8배 이상 폭등하기도 하였다.

이번 편입설에 가장 바람을 타고 있는 곳은 안양읍. 읍내 25개 다방은 토지브로커와 몰려온 원매자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 모두 거래는 다방에서 이루어지고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다른 사람들과 계약이 된다. 평당 1천 2백 원 하던 일동리의 땅값은 1만 원 선으로 8배 이상 뛰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안양읍은 그동안 시 승격설이 지배적이었기에 편입설에 받은 충격은 작지 않았다.¹⁸

그러나 1971년 도시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 편입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개발제한구역에 안양 일대도 포함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현재에 이르는 안양시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2. 안양시 승격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

1973년 3월 1일 정부는 지역개발로 인한 생활권의 변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 불편과 행정 비능률화를 없애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에 따라 경기도 성남·안양·소사 지역이 같은 해 7월 1일 시로 승격되었다.¹⁹ 현재의 성남시·안양시·부천시와 출발이다. 1970년대는 종합적인 국토개발이 구상되고 제도화된 시기로,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과 국토공간의 균형 발전 전략이 추진되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을 중소도시로 분산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서울의 평면적 확장이 억제되고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개발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시 승격에 대비한 『안양도시재정비계획』에서도 안양시의 미래 도시상을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공업도시이자 주택도시라고 설정하여, 공업과 인구의 분산 기능을 주요한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²⁰



안양시 승격(1973)



안양시청사 기공식(1974)

서울의 공업 및 인구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이 시행되자, 안양의 공업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공업화는 안양시 승격의 주요 동인인 동시에 도시 성장의 힘이었던 것이다. 시 승격 당시 안양의 제조업체수는 129개, 종업원수는 2만 706명으로, 불과 3년 전인 1970년 7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인구 비중에서도 제조업을 비롯한 제2차 산업인구는 전체의 64%를 기록해 제1차 산업 7%, 제3차 산업 29%를 압도하였다. 1970년대 내내 안양지역 제조업의 성장세가 이어졌다. 1980년에 이르면 안양시의 제조업 기업체수는 362개, 종업원수는 3만 7290명으로 늘어났다.²¹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는 제2차 오일쇼크, 10·26사건, 신군부의 등장 등 정치적·경제적 격변기였다. 1980년에는 미곡 흉작까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른바 '3저 호황'을 거치면서 성장세를 회복하였다.²² 제조업 공장은 1980년대 내내 꾸준히 늘어나 1990년 현재 공장수 743개, 종업원수 4만 8472명을 기록하였다.²³

안양지역의 제조업은 1980년대 후반까지 기계, 화학, 섬유, 전기·전자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그 성장세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한국 전체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더불어 안양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은 변화하였다. 그동안 지역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섬유·의류 등 경공업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전기·전자, 운수 장비, 기계·금속 등의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²⁴ 1970년대 시작된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안양지역에서도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1980년대 이후 안양지역의 산업구조는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그것은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이었다. 산업인구에서 2차 산업 비중은 1985년 43.6%로 줄어든 반면, 3차 산업은 54.9%로 빠르게 성장하였다.²⁵ 이는 안양지역의 도시기능이 경인공업지대의 공업도시에서 주거와 생활을 중심으로 한 소비도시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안양시를 비롯한 위성도시가 개발되면서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수도권 이 형성되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 집중을 부른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였다. 1971년 서울지하철 1호선 및 전철 공사가 착공되어, 1974년 8월 서울역-청량리, 서울역-수원역 간의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의 거주지와 통근권이 확대되었다. 수도권 진입 인구가 서울의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안양시의 인구 과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²⁷ 시 승격 당시 안양시의 인구는 2만 2433가구에 11만 1075명이었다. 이후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1980년에는 5만 5587가구에 25만 3541



안양도시세력권도(1973)

명으로, 2배 이상 폭증하였다. 이어 1990년에는 12만 9164가구에 48만 668명으로 늘어나, 안양시는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되었다.²⁸

1970~19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교통·주택·인구·산업 등 모든 방면에서 안양시는 급속히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등장하였다. 열악한 노동조건,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 환경오염,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공업화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는 공장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었다. 안양지역에 공장이 밀집할 수 있었던 입지 조건 중의 하나는 질 좋은 풍부한 공업용수였다. 안양지역의 “수질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순도가 요구되는 염색, 섬유, 제지 등의 공업에 자연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²⁹ 평가되던 수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안양천·학의천 등 안양 시내를 흐르는 하천들은 주변 공장이 쏟아내는 폐수로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한 신문에서는 1970년대 중반 안양대교에서 내려다본 안양천의 오염 실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³⁰

안양의 관문 안양대교 위에 올라가 다리 아래로 흐르는 안양천을 내려다본다. 물이리기보다 개펄같은 폐수 찌꺼기가 가득 괴어 느릿느릿 흐른다, 군데군데 가스가 물방울처럼 솟아나고 이따금씩 직경 50~70cm 폭의 거품이 몽클 위로 떠오르며 물을 뒤집어놓기도 한다. 둥둥 떠내려오는 검은 찌꺼기, 그것은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내보내기 때문이란단다. …… 안양천 오염의 또 한 날개는 학의천. 개천이 시작되는 백운저수지 밑에서는 꼬마들이 어항을 담가놓고 송사리 잡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나 조금 내려와 안양시 평촌동 평촌교에 이르러서는 폐수가 우유빛, 검붉은색 등 천연색으로 나뉘어 흐르고 있다. …… 안양천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진다. 안양유원지에서 시작되는 삼성천, 관악산 계곡에서부터 흐르는 삼막천도 …… 폐수를 안양천으로 흘려보낸다. …… 공해공장으로 낙인찍힌 1백 82개소 공장에서 하루 배출하는 폐수량은 10만 톤이 넘는다고 했다. 연장 20여km의 안양천은 이 엄청난 폐수를 모아 구로수출공단, 영등포공업지대를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것이다.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점차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열악한 작업 환경,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노동현장의 현실은 참혹한 재해를 통해서 그 실상이 주목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1970년대 후반 제약회사 공장 폭발,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등 사망에 이르는 산업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³¹ 이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



도심의 부적격시설 위치도(『경향신문』, 1989년 11월 6일)

여준 사건은 1988년 3월 25일 발생한 그린힐 봉제공장 참사였다. 14~26세의 여성노동자 22명이 숨진 이 사건은 이 시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무허가 공장, 규정을 무시한 기숙사 시설, 이를 눈감은 행정이 결합한 참사였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철제 셔터로 잠겨 있어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³²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노동조합 조직이 활발해지고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노동현실은 점차 개선되어갔다.

또한 인구 증가로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1977년 안양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이 시기 안양 도시개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1977년 7월 8일 경기도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다. 안양에 내린 비는 하루동안 432mm라는 기록적인 양이었다. 안양시에서만 사망 103명, 실종 1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시가지의 80%가 침수되었다. 안양 일대는 공업화로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주거와 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하였다. 대표적인 피해 현장인 안양동 야산에는 무허가 건물이 즐비하였으나 제대로 된 축대나 배수로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당시 안양시에 필요한 하수구는 110km였으나 구축된 길이는 31.6km에 불과하였다.³³ 다음 기사는 문제의 원인을 재난을 예측하지 못한 도시계획에서 찾고 있다. 수암천의 폭을 줄여 쌓은 옹벽이 원인이라는 것이다.³⁴

사망·실종자 1백여 명, 교량 도괴 10여 개소, 도로 유실 수십 개소, 가옥 침수 5천여 동 등 안양 시가지의 80%를 휩쓸고 지나간 수마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었다. 재난을 예측하지 못한 도시계획이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물에 떠내려 보낸 것이다. 73년 안양시가 안양 중심지를 동서로 지나는 폭 40m의 수암천을 20m로 좁혀 옹벽을 쌓은 것이 화근이었다. 8일 오후 8시부터 5시간 동안에 내린 432.1mm의 집중호우로 수암천이 범람하면서 안양천 제방 50m를 무너뜨려 두 하천의 교류지점인 안양2동, 박달동, 석수동 등지를 불과 20분 만에 수심 2~3m의 물바다로 만든 것이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을 수암천이 처리하지 못한 데다가 이 개천 위에 설치된 4개의 교량의 교각에 물에 떠내려온 나무판자 등이 걸려 범람한 것이다. 특히 수암천 하류 지점 전철 밑에 이르러서는 이 개천의 높이가 1.5m밖에 안돼,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 안양천 제방이 무너진 것이다.

대홍수는 안양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안겨주었으나, 안양의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안양천 정비, 비산고가교 등 교량 설치 등이 이어졌고,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정비되었다.³⁵ 이 홍수로 안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던 안양유원지도 크

수해 피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월일 77. 7. 8. • 강우량 432.1 mm • 집중폭우 (19:00 ~ 22:00. 268.5 mm) 		총 피해액 18,162,771,020원	
구분	피해내용	피해액	비고
인명	사파 104 실종 13 부상 313 계 430명		
이재민	9439명 (2520세대)		
가뭇건물	쿠일 91 쿠일 145 파괴 228 소방소 130 부속 건물 17 계 4186棟	1,492,000	
농경지	유실밭마름 14.7ha 외 66.2ha 침수 461 - ha 농작물 844.4톤	131,772	
관림	27.7 ha (수거소)	84,280	
공공시설	도로 647칸 (27개소) 교관 404칸 (17-) 화차대비 1216칸 (8-) 승하승선 205칸 (7-) 유기발포사 16610칸 (121호)	1,812,240	
기타	공장외래: 106 칸 항구침수: 1,727 칸 선상외래: 15등 (10여업체) 군부외래: 7개소	1,477,440	

수해 피해 현황 보고서(1977)

수해 복구 복구 사업

단위: 원

구 사 명	공사량	소모액	완공일	비 고
계		1,672,845		
1. 관양호 조장공사	4,800명	380,000	12/20	
2. 안양대교 복구	120	260,000		강.관호
3. 비산고카교 가설	200	300,000	12/00	
4. 관포교 복구	40	36,000	11/00	
5. 전차교 복구	72	36,000	11/00	
6. 암곡교 복구	90	42,000	-	
7.秀환교 복구	100	20,000	-	
8. 삼막교 복구	50	20,000	-	
9. 의현교 복구	5	8,900	11/00	
10. 삼정천 (새원지)	3,000	191,900	11/00	
11. 삼막천 제방	1,200	25,000	-	
12. 학의천 제방	2,000	112,000	11/00	
13. 수암천 제방	4,000	118,800		25년으로이월
14. 안양천 제방	1,660	200,000	11/00	
15. 유제유일 지하도	35	25,000	-	
16. 간선도로변 정비	1,300	25,000	11/00	
17. 병목안 진입로보수	200	10,200	11/00	
18. 간선도로 확대복구	3,800	104,819	11/00	
19. 시가지 도로복구	1,545	30,000	11/00	
20. 소하천 정비	3,000	36,890	11/00	

수해복구 사업 목록



수해복구 현장(1977)



수재민 임시 거주지(공설운동장)



비산고가교 준공식(1978)

게 훼손되었다. 1932년 안양풀에서 시작한 안양유원지는 해방 이후에도 큰 인기를 끌며 여름철에는 서울과 수원 등지의 승객을 위해 임시 열차를 운행하기도 하였다.³⁶ 안양유원지는 1969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 인근의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로 명성을 누렸다.³⁷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폐허가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안양유원지의 흥수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이후 안양유원지는 점차 쇠퇴하여 1984년에는 국민관광단지가 취소되었다.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예술공원으로 재단장하였고, 2005년 안양예술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 지역개발, 사회개발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의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 초반 농촌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고무된 국가는 새마을운동을 도시·공장·학교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안양지역에서는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가꾸기사업, 거리질서확립 등 의식계몽운동을 중심으로 도시새마을운동, 공장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0년 안양시는 도시새마을운동의 성과로 내무부로부터 ‘도시새마을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 이후에도 관의 지원으로 지속되었지만,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그 위상은 점차 약화되었다.

1970~1980년대 안양지역의 성장은 공업화와 도시화로 요약할 수 있으나, 그 양상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안양시는 공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 및 도시기능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중화학공업 증가 등의 고도화가 진행되었으나, 1979년 「공업배치법」 시행, 1984년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공장 신·증설이 제약되면서 안양지역 제조업은 성장이 둔화되고 비중도 점차 줄어들었다. 제조업을 대신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기능에서 공업 기능의 상대적 축소와 생활 및 주거 기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단지가 확대되었다.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26.4%에서 1990년 43.4%로 크게 늘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같은 기간 주택보급율은 51.1%에서 61.5%로 늘어났다.³⁸

1980년대는 공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과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조합 설립,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의 진출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1987년 6월 항쟁 기간에는 노동운동 진영이 시민들과 함께 안양지역의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였다. 1987

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안양지역의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은 크게 성장하였고, 시민·사회 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민주화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시민사회를 형성하였다.

3. 신도시 개발과 새로운 발전의 모색

1990년대 이후 안양시는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맞이하였다.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평촌신도시 개발과 공간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평촌신도시는 1990년대 안양의 경관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신도시로 개발되기 이전 평촌지역은 논밭이 펼쳐진 드넓은 평야지대였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수도권에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에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20~3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평촌을 비롯한 분당·일산·산본·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평촌신도시는 그 이전부터 안양시에 의해 도시개발이 추진된 곳으로, 1986년 수립된 ‘안양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개발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상태였다. 안양시는 인구증가율이 10%인데도 주택보급률은 56%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들며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³⁹ 그러나 안양시의 구상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정부의 신도시 계획 발표로 평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⁴⁰

평촌신도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약 17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시청·교육청·경찰서·농협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행정업무기능을 유치하고, 각급 학교, 공원, 사회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행정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 하였다. 평촌신도시 개발은 기존 안양시와 인근 군포시·의왕시를 포괄하는 100만 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염두해두고 계획된 것이다.⁴¹ 신도시로 개발로 평촌 일대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행정 타운이 조성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안양의 새로운 행정·소비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수도권 전철의 신규 노선 건설과 서울지하철의 연장 사업이 이어졌다. 서울 남쪽에 조성된 과천·평촌·산본·안산 신도시 등지로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4

호선 신규공사가 시작되어, 1994년 서울지하철이 금정까지 연결되었다. 전철망과 함께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확충되었다. 1995년 제2경인고속도로가 안양 석수동까지 연장되었고, 1999년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안양-일산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2007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1989년부터 시작된 평촌 개발이 1995년 마무리되면서 안양시는 수도권 최대의 인구밀집 지역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신도시 건설과 교통망의 확충으로 안양의 인구는 더욱 늘어나, 1995년 59만 4427명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7년 63만 688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안양시 인구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도 안양의 제조업은 계속 성장하였지만, 전체 산업구조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산업인구 중 2차 산업 비중은 1995년 38.4%, 2005년 19.7%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3차 산업은 60.9%에서 80.3%로 늘어났다.⁴²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축소는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와 지가 상승으로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며, IMF 경제위기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위축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또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안양시의 전반적인 경제기반이 공업 중심에서 상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생산도시적 기능에서 소비도시적 기능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⁴³ 전통적 제조업이 축소되면서 안양시는 첨단산업, 벤처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했다. 그 노력의 결과, 2000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⁴⁴



1990대 이후 안양시의 정치적·행정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였다.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52년 4월 25일 첫 지방선거인 제1대 시·읍·면의회 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선거를 통해 15명의 읍의원이 선출되어 안양읍의회를 구성하였다. 1956년에는 제2대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 선거에서는 읍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하였다. 1960년 제3대 선거까지 시행되었으나, 1961년 5·16쿠데타 세력에 의해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기초·광역의회의원 선거가 먼저 도입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3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초대 안양시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안양에서도 첫 민선시장 시대가 열렸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20명의 시의원과 시장을 선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안양시의 행정은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안양시의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환경·생태,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출되었고, 자족적·생태적·문화적 도시 환경을 요구하였다. 이런 시민들의 노력이 자치행정과 결합하여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안양천 살리기’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안양천은 ‘전국 최고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하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⁴⁵ 1990년대 안양의 시민사회는 안양천의 생태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사·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1999년에는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안양시는 1999년부터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1년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안양천은 맑은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2003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안양시의 안양천살리기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의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⁴⁶

안양시는 한국 산업화의 중심도시를 거쳐, 2000년대 이후 첨단산업도시, 문화녹색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23년 안양시는 ‘안양!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 승격 50주년을 성대하게 자축하였다. 안양시의 역사는 시 승격 이후 50년이 되지만, 공업도시 안양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길다. 1930년대 공업화부터 따진다면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다. 공업도시 안양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안양시의 새로운 비상을 기대해 본다.

- 1 금천지편찬위원회, 『금천지』, 시흥군, 1950, 32쪽. 안양읍 전체 인구 통계는 외국인인 포함한 수치이다. 한국인은 2만 3451명이고, 외국인인 33명이다.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54쪽.
- 3 금천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7~8쪽.
- 4 금천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46~148쪽. 자료에 따라 공장 숫자는 차이를 보인다. 『금천지』에서도 시흥군 내 공장이 20개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으나, 공장 일람표에는 18개만 수록되어 있다. 또 『금천지』에는 당시 안양읍 소재 공장이 12개, 현 안양시 지역으로는 14개의 공장이 수록되어 있으나 1949년 신문기사에는 16개의 공장이 조업 중인 것으로 나온다(『공도 안양의 기쁨, 16공장 모두 조업』, 『경향신문』, 1949년 4월 21일).
-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501~502쪽.
- 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5, 2008, 370~384쪽.
- 7 시흥군, 『제11회 통계연보』, 1971.
- 8 시흥군, 『제2회 통계연보』, 1962; 시흥군, 『제11회 통계연보』, 1971. 제조업 기업체수는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흥군 통계연보』, 『안양시 통계연보』의 각 연도 제조업 기업체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 9 「지역사회에 비친 신흥공업지구의 명과 암(3) 안양지구」, 『매일경제』, 1967년 10월 2일.
- 10 「안양읍 일원 공해방지지역으로」, 『동아일보』, 1967년 3월 22일.
- 11 「13개 공해업소 시설개선 명령」, 『조선일보』, 1968년 6월 30일.
- 12 「"수로를 내내라" 투석전」, 『조선일보』, 1966년 4월 26일.
- 13 「3명 사망, 150여 명 부상, 안양탄약분해공장 폭발」, 『경향신문』, 1964년 3월 6일; 「뽕꺼진 대폭음, 생지옥 4시간」,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 14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 『경기도 현대사의 어두운 그늘』, 경기문화재단, 2018, 291~303쪽. 불행한 사건이 연속으로 이어지자 흥안국민학교는 학교명을 '안양남국민학교'로 개명하였다.
- 15 「폐탄처리장 설치 말라」, 『조선일보』, 1969년 11월 19일.
- 16 「부동산 투기 억제제 부과지 결정」, 『경향신문』, 1968년 1월 6일.
- 17 「신도 등 경기도내 10개면 서울시 편입 건의」, 『조선일보』, 1970년 1월 21일.
- 18 「먼저 불빈 불 ... 뒤는 땅값」, 『조선일보』, 1970년 2월 1일.
- 19 「성남, 안양, 부천 3시 신설」, 『동아일보』, 1973년 3월 1일.
- 20 안양시, 『안양도시재정비계획』, 안양시, 1973, 19쪽.
- 21 안양시, 『제1회 통계연보』, 1974; 안양시, 『제8회 통계연보』, 1981.
- 22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1263쪽.
- 23 안양시, 『제18회 통계연보』, 1991.
- 2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506~507쪽.
- 2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 2008, 145쪽.
- 2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303쪽.
- 2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정 50년사』, 경기도, 2002, 222~223쪽.
- 28 안양시, 『제1회 통계연보』, 1974; 안양시, 『제8회 통계연보』, 1981; 안양시, 『제18회 통계연보』, 1991.
- 29 「지역사회에 비친 신흥공업지구의 명과 암(3) 안양지구」, 『매일경제』, 1967년 10월 2일.
- 30 「맑은 내일을 위하여, 제1부 오염의 실태 ㉠ 안양」, 『동아일보』, 1975년 9월 18일.
- 31 「제약회사 공장 탱크 폭발, 2명 죽고 6명 화상」, 『경향신문』, 1977년 1월 8일; 「공장 화학기계 폭발, 실습생 등 11명 사상」, 『동아일보』, 1979년 11월 7일.
- 32 황병주, 「안양의 공업화와 노동자의 삶」, 『안양 근대사 산책』, 안양문화원, 2017, 157쪽.
- 33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 상권, 안양문화원, 2016, 39쪽.
- 34 「40m 하폭(河幅)을 20m로」, 『조선일보』, 1977년 7월 10일.
- 35 「의지로 극복하는 수해 상처」, 『동아일보』, 1978년 7월 10일.
- 36 금천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385쪽.
- 3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7, 2008, 186~187쪽.
- 38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1쪽.
- 39 「안양 평촌 지구에 대규모 택지」, 『동아일보』, 1986년 4월 2일.
- 4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 2008, 9~10쪽.
- 41 「평촌에도 신도시 건설」, 『경향신문』, 1989년 8월 23일.
- 4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 2008, 145쪽.
- 4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410쪽.
- 4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305쪽.
- 45 「전국 최고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안양천의 모습」, 『한겨레신문』, 1992년 2월 22일.
- 4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 2008, 448~493쪽.

06 안양의 인물과 민속

제1장 역사시대 인물

제2장 근현대 인물

제3장 세시풍속과 마을신앙

제4장 두레와 구비전승



‘안양’은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타원형 분지로,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불교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지니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를 일컫는 말이다. 대대로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산업과 주거 기능이 극대화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고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고 계승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안양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인물과 함께 이야기와 노래, 풍습, 신앙 등 다양한 무형의 유산을 축적하였다.

1장 역사시대 인물



이우석 전 건국대학교 강사



김순金恂 1258(고종 45)~1321(충숙왕 8)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귀후歸厚. 신라 경순왕인 김부金傅의 10세손으로 좌복야左僕射에 추증된 김민성金敏成의 증손이고, 병부 상서 김효인金孝印의 손자이며, 삼별초 난을 평정한 김방경金方慶의 셋째아들이다.



김순 묘비

문음門蔭으로 장생서 승掌性署丞이 되었지만 1279년(충렬왕 5) 과거에 급제하여 십낭

장攝郎將에 임명되었다가 국학 직강國學直講을 역임하였다. 아버지 김방경이 일본을 정벌할 때 따라가고자 했으나, 허락하지 않으므로 몰래 전함戰艦에 올라 종군하고 돌아와서 1282년 전중시사殿中侍史가 되었다. 이듬해 상주 판관尙州判官으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고 전법 좌랑典法佐郎으로 승진되었다가 1288년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를 거쳐 1292년 전법 총랑典法總郎과 삼사 우윤三司右尹을 역임하였다. 1297년 좌부승지를 거쳐 이듬해 좌승지에 오르고 성균관 재주成均館祭酒·보문각 학사寶文閣學士에 제수되었다. 그 후 삼사 좌사三司左使를 거쳐 밀직 부사密直副使에 임명되었지만 사직하였다. 1312년(충선왕 4)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졌고, 1321년(충숙왕 8)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랐다가 그해 8월 보문각 대제학

大提學에 제수되었다. 시호는 문영文英이다. 성격이 너그로우면서도 강직했고 예서隸書를 잘 썼다. 묘는 경기도 개풍군에 있었던 것을 1943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으로 이장하였다. 비문은 첨의정승 민지閔漬가 지었다.

【참고문헌】『고려사』, 『고려사절요』, 『김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김순 묘지명』(김용선 편,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출판부, 2001).

능정能正 생물년 미상

신라 말·고려 초의 승려. 안양시 시 명칭의 유래가 되는 안양사安養寺를 창건했다. 900년(신라 효공왕 3) 왕건王建이 경기도의 금주衿州·과주果州를 정벌하기 위하여 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삼성산 아래를 지나갈 때 능정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삼성산 정상에는 오색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이를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한 왕건과 능정의 마음이 맞아 안양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977년(고려 경종 2) 도승통都僧統에 추시追諡되었다.

【참고문헌】『금주안양사탑중신기』(이송인, 『도은집』), 『대각국사문집』, 『안양시사』2(안양시, 2008).

류계장柳季漳 1435(세종 17)~1515(중종 10)

조선 초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사헌부 집의 류말손柳末孫의 아들이고, 대사간 류현柳軒의 부친이다. 1460년(세조 6)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에 근무하였고, 남해 현감, 도총부 경력, 훈련원 부정, 첨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508년(중종 3) 위장衛將인 류계장과 박이온朴而溫에게 가짜 표신標信을 만들어주고 한밤중에 통솔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경회문慶會門 밖에서 모이도록 시험한 적이 있었다. 이때 표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 않은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다.

【참고문헌】『중종실록』, 『전주류씨대동보』, 『안양시사』2(안양시, 2008)

류계종柳繼宗 생물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경子卿. 전라 수군절도사 류승손柳承孫의 아들이다. 무과 별시에 급제하였다. 1498년(연산군 4) 선전관으로 재임 중에는 무오사

화에 관련된 김일손^{金駟孫}의 옥사를 잘 처리한 공으로 별조궁^{別造弓}을 하사받았다. 1501년 북방의 침입에 대비하여 유능한 장수를 선발할 때 류순정^{柳順汀} 등 3인의 문신과 이영산^{李永山} 등 11인의 무신을 선발하였는데 이에 포함되었다. 1503년에 사재감^{司在監} 첨정이 되어 경연의 윤대^{輪對}에서 평안도의 연대군^{煙臺軍}이 매우 미약하고 허술한 것을 밝히고 그 강화책을 건



청양사

의하여 실현시켰다. 그러나 이듬해에 무과 전시에서 임금을 등지고 앉는 무례를 범하여 질책을 받고 외방에 유배되었다. 1506년 증중반정에 참여하여 무인으로서 심순경^{沈順徑} 등과 함께 폐위된 연산군을 교동에 위리안치시켜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508년(증중 3) 9월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가 그해 11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되어서는 부산 첨사 이우증^{李友曾}과 함께 왜구 토벌에 힘썼다. 특히 가덕도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던 왜선 30여 척을 격파하는 큰 공을 세워 1510년 청양군^{淸陽君}에 봉해졌다. 1512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전임하여 방어사목^{防禦事目}을 수립하고, 1515년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옮겼다. 이때 압록강 연안의 야인 동태를 주시하면서 군비 강화에 힘썼다. 1522년에는 함경남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1526년에는 함경북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528년 부호군으로 재임 중에는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시절 탐오했다는 죄목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진주류씨 묘역에 있다. 묘소 아래에는 그를 모시는 청양사^{淸陽祠}가 있다.

【참고문헌】『연산군일기』, 『증중실록』, 『연려실기술』, 『유계종』(『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진주류씨세보』

류덕옥^{柳德玉} 1653(효종 4)~1711(숙종 37)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윤보^{潤寶}. 호조 좌랑을 지낸 류위^{柳偉}의 아들이고, 길주 목사^{吉州牧使}를 지낸 류작^{柳綽}의 아버지이다. 호조 참판을 지낸 이광세^{李匡世}가



류덕옥 묘갈 탁본

사위이다.

1676년(숙종 2) 무과에 급제한 후 1682년 선전관에 천거되었지만 아버지 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그 후 상기를 마치자 다시 선전관에 제수되었고, 1688년 도총부와 의금부 도사를 거쳐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원하여 해남 현감(海南縣監)으로 나갔다. 이때 김수항(金壽恒)이 유배되면서 해남을 지나자 타고 있던 말을 그에게 빌

려주었고,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죽임을 당하자 사후의 일을 도왔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서인이 집권하자 도총부 경력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장흥 부사로 나가 기민(飢民) 구제에 힘썼다. 이어 여산 영장(礪山營將)으로 재임 중에는 기근을 겪은 후 뿔뿔이 흩어진 주민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1700년 오위장과 해미 현감에 제수되었지만 병 때문에 사직하였다가 그해 가을 김해 부사로 나가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였다.

1702년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고 그해 모친상을 당하였다. 1705년 어영청 별장에서 안악 군수에 제수되었는데, 재임 중 선정으로 임금이 표리를 하사하였다. 1711년(숙종 37) 귀성 부사로 재직 중 수도병(水土病)으로 죽었다.

관직에 재임하면서 여러 폐단을 바로잡을 방법을 기록하여 한편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명칭을 『만록(漫錄)』이라고 하였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다. 묘갈명은 심육(沈錫)이 지었으며, 조명교(曹命教)가 쓰고 전액하였다.

【참고문헌】『승정원일기』, 『류덕옥 묘갈』(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금석총람』, 1988), 『안양시사』2(안양시, 2008).

류영범(柳永範) 1536(중종 31)~1606(선조 3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칙(汝則). 나주 목사를 지낸 류세봉(柳世鵬)의 손자이고, 전주 판관을 역임한 류영(柳寧)의 아들이다. 1567년(명종 22) 진사시에 입격한 후 의금부 도사·해남 현감을 역임하였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다.

【참고문헌】『사마방목』, 『안양시사』2(안양시, 2008)

류작柳綽 1686(숙종 12)~1752(영조 2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유子裕. 호조 좌랑을 지낸 류위柳偉의 손자이며, 김해 도호부사를 역임한 류덕옥柳德玉의 아들이다.

1715년(숙종 41)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고, 1734년(영조 10) 춘당대시春塘臺試에 급제하였다. 이해 가주서가 되었고, 1736년 전적이 되고 병조 정랑으로 옮겼다. 다음 해 함경 도사로 나갔다. 1739년 다시 병조 정랑이 되었고, 사헌부 지평으로 옮겼다. 1741년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가 부사과로 옮겼다. 1742년 서산 군수로 나갔다가 1744년에는 부사정이 되었다. 1748년에는 사간원 정언이 되었고 이듬해 다시 장령이 되었다가 1750년 병조 참지에 이르렀다.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에 있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 『사마방목』,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안양시사』2 (안양시, 2008).

류정현柳廷顯 1355(공민왕 4)~1426(세종 8)

고려 말·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여명汝明, 호는 월정月亭. 도첩의 시랑찬성사를 지낸 류경柳暉의 4대손으로 도첩의 참리 류승柳陞의 증손이고, 도첩의 시랑찬성사 류돈柳墩의 손자이며, 문화군文化君 류진柳鎭[실록에는 류구柳丘]의 아들이다.

고려 말에 음서蔭敍로 관직에 올라 사헌부 규정·전라도 안렴사·사헌부 장령·지양근군사知楊根郡事·사헌부 집의·승정원 좌대언 등을 역임하였다. 좌대언 재임 중에 정몽주鄭夢周 일파로 몰려 파직당했다가 조선 건국 후 풀려나 1394년(태조 3) 상주 목사에 제수되었다. 이후 병조 전서·완산 부윤을 거쳐 1404년(태종 4) 전라도 관찰사·충청도 관찰사, 1409년 판한성부사에 임명되어 정조사正朝使로 명에 다녀온 뒤 이듬해 형조 판서로 승진하였다.

그 후 1412년 예조 판서를 거쳐 평양 부윤·사헌부 대사헌·이조 판서·참찬의정부사·병조 판서·의정부 찬성사 등의 요직을 거친 뒤 1416년에는 좌의정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의정에 올랐다.

1419년(세종 1) 대마도를 정벌할 때에는 삼군도통사에 임명되어 큰 공을 세웠고, 1424년에는 영동령부사를 지낸 뒤 1426년에 다시 좌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사퇴한 후 4일 만에 죽었다. 세종은 류정현이 죽자 백관을 거느리고 금천교 장막에 나와 곡을 하였다고 한다.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류정현 묘역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할 때 그가 먼저 현명한 이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과감하게 주장하였다. 여말선초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된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에 있으며, 1924년에 세운 묘비가 있다. 그의 묘는 처음

에 과천현의 흑석리에 있던 것을 1910년대 초에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참고문헌】『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류정현 묘비명』, 『유정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안양시사』2(안양시, 2008).

류팽식柳彭碩 ?~1505(연산군 11)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수옹壽翁. 형조 참판 류의柳顛의 증손이고, 공조 참판 류수강柳守剛의 손자이며, 사정司正을 지낸 류자柳滋의 아들이다. 1483년(성종 14) 진사시에 합격하고, 148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금산 군수와 홍문관 전한을 거쳐 세자시강원 필선에 이르렀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에 있다.

【참고문헌】『국조문과방목』, 『사마방목』, 『문화류씨세보』, 『안양시사』2(안양시, 2008).

박서朴澣 1602(선조 35)~1653(효종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상지尙之, 호는 현계玄溪. 장단 부사를 지낸 박용朴顛의 손자이고, 병조 좌랑을 역임한 박효남朴孝男의 아들이다.

1624년(인조 2) 진사시에 입격한 후 음서로 의금부 도사·선공감 주부 등을 역임하고 163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에 보임되었다. 1632년 사간원 정언, 1634년 사헌부 지평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홍문록弘文錄』에 오르고 홍문관의 부수찬

과 부교리를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체찰사 이성구李聖求의 종사관이 되어 경기와 호서 지방의 여러 장수들을 후원하고 전란이 끝난 후 1641년 홍문관 수찬에 제수되었다. 그 뒤 사헌부 집의를 거쳐 1643년 사간원 사간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 중에는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했다. 이어 병조 참의·호조 참의·우승지·강원도 관찰사·평안도 관찰사를 거쳤다. 1647년 병조 참판 재임 중에는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에 다녀왔다. 이후 대사간·대사헌을 역임하였고 대사헌으로 재임 중에는 자신의 소신을 담은 상소를 올렸다가 경주 부윤으로 좌천되었다.



박서 신도비

그 후 1650년(효종 1) 도승지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가 그해 청의 사신이 올 때 이들을 맞이할 책임자를 찾지 못하자 박서를 특별히 공조 판서로 승진시켜 원접사遠接使로 삼았다. 공조 판서로 재임 중에는 지경연춘추관사로서 『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진향부사進香副使로 다시 청에 다녀와 대사헌·지의금부사·의정부 우참찬·예조 판서·병조 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병조 판서 재임 시에는 군사력 정비에 힘썼다.

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다. 신도비는 이조 참판을 지낸 조석윤趙錫胤이 찬하고, 이조 판서를 지낸 송준길宋浚吉이 썼으며, 좌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이 전액篆額을 하였다.

【참고문헌】『인조실록』, 『효종실록』, 『국조문과방목』, 「박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안양시사』2(안양시, 200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박서신도비」, 국가유산 지식이음(<https://portal.nrich.go.kr>).

심간沈諫 1560(명종 15)~1624(인조 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백기伯幾. 선공감 첨정 심자沈緝의 손자이고, 은산 현감을 지낸 심우직沈友直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경학에 열중하여 1585년(선조 18) 생원시에 합격하고 문음으로 군자감 참봉에 보임되었다. 1590년 사복시 주부, 이듬해 김화 현령으로 재임하던 중 부친상을 당하였다. 1596년 석성 현감·남평 현령·김포



심간 묘역

현령을 역임한 후 광해군 때 문란한 정치에 회의를 느껴 관직에서 물러났다. 1623년(인조 1) 아들 심기원(沈器遠)이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청풍 군수에 올랐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다.

【참고문헌】『청송심씨대동보』, 『안양시사』 2(안양시, 2008).

심수경(沈守慶) 1516(중종 11)~1599(선조 32)



심수경 영정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聽天). 적개공신(敵愾功臣)으로 부사를 지낸 심응(沈膺)의 증손이고, 좌의정 심정(沈貞)의 손자이며, 만포진 병마첨절제사 심사손(沈思遜)의 아들이다.

1543년(중종 38)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고, 1546년(명종 1)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어 재상들의 인사 청탁 폐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그 후 홍문관 부수찬을 거쳐 1550년 이조 좌랑으로 춘추관 기사관이 되어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553년 홍문관 응교에 제수된 후 홍문관 전한·홍문관 직제학을 차례로 역임한 뒤 1556년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 이

듬해 호조 참의에 오른 후 1558년 승정원 좌승지로서 경연 참찬관이 되어 과거응시규정을 강화할 것을 청하였다.

1562년 증종의 능인 정릉(靖陵)을 이장할 때 대여(大輿)가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선창(船艙: 배다리)을 설치하지 않은 죄로 경기 관찰사에서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그 후 성균관 대사성·형조 참판을 거쳐 1565년 개성부 유수가 되었다. 개성부 유수로 재직 중에는 귀신을 섬기는 사당을 없애자는 유생들의 청을 받아들여 사당을 불 지르고 무당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이때 문정왕후는 궁중과 관련되어 복을 비는 곳을 없앴다고 크게 노하여 이를 처음 주장한 유생을 잡아 가두고자 하였다. 그러자 심수경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일로 유생은 죄가 없다고 하여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개성부 유수를 그만두고 한양으로 돌아갈 때는 주민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송덕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 뒤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병조 참판·병조 판서를 역임하고 1590년(선조 23) 우의정에 올랐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 체찰사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이듬해 영중추부사가 되어 오래도록 재임하다가 1598년 치사(致仕)하였다.

시호는 문청(文淸)으로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문장과 서예에도 능하였다. 저서로는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과 『견한잡록(遣閑雜錄)』이 전한다.

1598년 관직에서 물러난 후 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퇴로정(退老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살았다. 퇴로정에 살 당시 심수경의 집안 살림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곤궁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경기 관찰사에게 매달 삭료(朔料)를 주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명종실록』, 『선조실록』, 『국조문과방목』, 『사마방목』, 『심수경』(『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심수경묘갈』, 국가유산 지식이음(<https://portal.nrich.go.kr>).

원효(元曉) 617(진평왕 39)~686(신문왕 6)

삼국시대 신라의 고승이자 불교 사상가. 원효는 법명(法名)으로, 성은 설씨(薛氏), 아명은 서당(誓幢) 또는 신당(新幢). 경상북도 압량(押梁: 지금의 경산시) 출신. 잉피공(仍皮公)의 손자이며, 내마(奈麻) 담날(談捺)의 아들이다.

원효는 15세 무렵에 출가하여 수도에 정진하였는데, 원효가 고구려로부터 망명하여 완산주(完山州)에 와 있던 보덕(普德)을 스승으로 하였다는 기록도 있지만, 자장(慈藏)으로부터 불도를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원효는 650년(진덕여왕 4) 34세 때 의상(義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났으나 요동에서 고구려군에게 잡혀 귀환하였다. 10년 뒤인 661년(문무왕 1) 다시 의상과 함께 바닷길로 당나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여행 도중에 해골에 권물을 마신 후 깨달음을 얻어 의상과 헤어져서 돌아왔다.



원효대사 진영

이후 태종무열왕의 둘째 딸로 홀로 있는 요석 공주瑤石公主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는데, 이 실제失戒 뒤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라고 칭하고 속인 행세를 하며 계율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였다. 그는 여염집에서 유숙하기도 하고, 혹은 명산 대천을 찾아 좌선坐禪하는 등 임의로 기회를 좇아 생활하되 어떤 일정한 틀에 박힌 생활태도가 없었다. 행적도 뚜렷한 어떤 규범을 따르지 않았고, 또한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법도 일정하지 않았다. 현존하는 그의 저술은 20부 22권이 있으며,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여 부 240권이 된다. 특히, 그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는 중국 고승들이 해동소海東疏라 하여 즐겨 인용하였고,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은 인도의 마명馬鳴·용수龍樹 등과 같은 고승이 아니고는 얻기 힘든 논論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학승學僧으로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민중교화승으로서 당시 왕실 중심의 귀족화된 불교를 민중불교로 바꾸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 종파주의적인 방향으로 달리던 불교이론을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회통會通시키려 하였는데 그것을 오늘날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이라 부른다. 화쟁사상은 그의 일심사상一心思想·무애사상無碍思想과 함께 원효사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막사지三幕寺誌』에 의하면 677년(문무왕 17) 원효가 의상義湘·윤필潤弼과 함께 삼막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현재 삼막사 뒤에는 원효가 수도했다는 원효굴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삼국유사』, 『송고승전』, 『삼막사지』, 『인양사』, 2(인양시,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의상義湘 625(진평왕 47)~702(성덕왕 1)

삼국시대 신라의 고승이자 우리나라 화엄종華嚴宗의 개조. 의상은 범명法名으로, 성은 김씨金氏이고, 아버지는 김한신金韓信이다.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開祖이자 화엄십찰의 건립자이다.

19세 때 경주 황복사皇福寺로 출가하였다. 650년(진덕여왕 4) 중국으로 가기 위하여 원효

元曉와 함께 요동遼東으로 갔으나, 고구려의 순라군에게 잡혀 되돌아왔다. 10년 뒤인 661년(문무왕 1)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서 화엄학의 기초를 다진 지엄至嚴으로부터 8년 동안 화엄을 공부하였는데, 그의 나이 38세로부터 44세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때, 남산율종南山律宗의 개조開祖 도선율사道宣律師와 교류하였으며, 중국 화엄종의 제3조 현수賢首와의 교류는 귀국한 뒤까지 이어졌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의상의 귀국 동기는 당나라 고종高宗의 신라 침략 소식을 본국에 알리는 데 있었다고 하며, 『송고승전』에는 화엄대교華嚴大教를 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신라로 돌아

온 해에 낙산사洛山寺의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의 발원문인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은 그의 관음신앙을 알게 해주는 261자의 간절한 명문이다.

그 뒤 676년(문무왕 16) 부석사浮石寺를 세우기까지 화엄사상을 펼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을 편력하였다. 그가 건립한 사찰은 부석사를 비롯하여 중악 팔공산 미리사美里寺, 남악 지리산 화엄사華嚴寺, 강주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응주 가야현 보원사普願寺, 계룡산 갑사甲寺, 삭주 화산사華山寺, 금정산 범어사梵魚寺, 비슬산 옥천사玉泉寺, 전주 모악산 국신사國神寺 등 화엄십찰華嚴十刹이다. 이 밖에도 불영사佛影寺, 삼막사三幕寺, 초암사草庵寺, 흥련암紅蓮庵 등을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그에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오진悟眞·지통智通·표훈表訓·진정眞定·진장眞藏·도융道融·양원良圓·상원相源·능인能仁·의적義寂 등 10명이 아성亞聖으로 불렸으며, 범체梵體나 도신道身 등도 뛰어난 제자들이다. 그는 수행에 정진하는 한편 강의에 전력하여 황복사에서 『화엄일승법계도』를 가르쳤고, 부석사에서 40일간의 법회를 열고 일승십지一乘十地에 대하여 문답하였으며, 소백산 추동錐洞에서 『화엄경』을 90일 동안 강의하였다. 문무왕이 장전莊田과 노복奴僕을 베풀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문무왕이 성곽을 쌓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의 정교政教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글을 올려 역사役事를 중지시켰다.

저술로는 『십문간법관十門看法觀』 1권,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鈔記』 1권, 『소아미타의기小阿彌陀義記』 1권, 『화엄일승법계도』 1권, 『백화도량발원문』 1권, 『일승발원문一乘發願文』



의상대사 진영

등이 있다. 『삼막사지三幕寺誌』에 의하면 677년(문무왕 17) 의상이 원효元曉·윤필潤弼과 함께 삼막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참고문헌】『삼국유사』, 『송고승전』, 『조선금석총람』, 『삼막사지』, 『안양시사』2(안양시,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이기李岐 1547(명종 2)~1590(선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고伯高.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6대손으로 충좌위 부호군을 지낸 이익번李益蕃의 증손이고, 호조 좌랑을 역임한 이장李璋의 손자이며, 사복시 정을 지낸 이언이李彦怡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좌의정 용재容齋 이형李荇의 딸이다.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에 낙방하자 더 이상 벼슬에 뜻을 버리고 술과 바둑으로 즐기며 살았다. 부친상을 당해 묘 옆에 여막을 짓고 3년을 살았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고, 용주龍洲 조경趙綱이 지은 묘갈이 있다.

【참고문헌】『사마방목』, 『전주이씨익안대군파대동보』, 『진사이공묘갈명』(『용주유고』).

이석근李石根 ?~1422(세종 4)



이석근 묘역

조선 초기의 종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국仲國. 태조의 셋째아들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아들이다. 1406년(태종 6) 익평군益平君에 봉해졌으며, 1420년(세종 2) 이전에 익평부원군益平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421년(세종 3) 최고의 자급인 대광보국승록대부에 올랐다. 시호는 안

량(安良)이다.

『세종실록』의 졸기(卒記)에 의하면 체모가 작고 성품은 정직하지만 특별한 재능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술을 좋아하여 사람들이 복인(福人)이라 불렀다고 한다.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궁궐에서 양녕대군·효령대군 등과 함께 지내기도 했다. 세종의 명으로 1420년 흥천사(興天寺)에 가서 재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1422년 그가 죽자 세종은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제물을 하사하였다. 아들 일곱을 두었는데, 이인(李仁)·이의(李義)·이례(李禮)·이지(李智)·이신(李信)·이강(李綱)·이상(李常)이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다.

【참고문헌】『태종실록』, 『세종실록』,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이성례(李聖禮) 1800(정조 24)~1839(헌종 5)

조선 후기 천주교 순교자. 본관은 경주(慶州), 세례명은 마리아. 성인 프란체스코 최경환(崔京煥)의 아내이고,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崔良業)의 어머니이며, 천주교 순교자로 내포(內浦)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李存昌, 1759~1801)의 후손이다.

18세 때 최경환과 결혼하여 고향 홍주를 떠나 서울 병거지골(筵洞)로 이사하여 살다가 강원도 김성(金城)과 경기도 부평을 거쳐 현 안양시 동안구 안양9동 뒤뜸이 마을에 정착하여 교우촌을 이루고 담배를 경작하며 생활하였다.

1839년(헌종 5)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남편과 함께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되었고 고문 속에 남편이 9월 12일에 순교하고 말았다. 수많은 고문과 회유 속에서 옥에서 굶어 죽어가는 찢먹이 막내아들과 옥 밖의 어린 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배교하고 출옥하였다. 하지만 막아들 최양업이 신학생으로 유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체포되었을 때는 배교를 취소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그해(1839년) 12월 27일 용산 당고개(현 용산구 신계동)에서 6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2014년 복자(福者)로 시복되었다.

【참고문헌】『최양업 신부와 교우촌』(김옥희, 학문사, 1983), 『안양시사』2(안양시, 2008); 당고개(용산) 순교성지(<http://www.danggogae.org>).

이세전(李世銓) 1456(세조 2)~1504(연산군 10)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공형(公衡). 참의를 지낸 이지직(李之直)의 증손이고, 우의정 이인손(李仁孫)의 손자이며, 무오사화를 주도했던 이극돈(李克墩)의 장남이다.



이세전 묘역

1480년(성종 11)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483년 춘당대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듬해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고, 1489년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어서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반대하는 등 여러 시폐를 바로잡는 상소를 올렸다. 1492년 사헌부 장령으로 승진해서 강경講經할 때 몰래 책을 보는 유생을 감찰하도록 하였다. 1496년(연산군 2) 경연의 시강관으로서 낙산사와 유점사에 소금을 공급하는 것의 부당성을 논하였다. 그해 홍문관 응교에 제수되었고 밀양 도호부사에 이르렀다. 1504년 갑자사화 때 유배되어 그해 유배지에서 죽었다. 중종반정 후 예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다.

【참고문헌】『성종실록』, 『연산군일기』, 『국조문과방목』, 『사마방목』, 『광주이씨대동보』(1987).

이예李禮 ?~1469(예종 1)



이예 묘역

조선 초기의 종친. 본관은 전주. 태조 이성계의 증손이고, 익안대군 방의의 손자이며, 익평부원군 석근石根의 아들이다.

1425년(세종 7) 통정대부에 올라 원윤元尹에 제수되었다. 공신의 자손들이 소속된 충의위忠義衛에 소속되었다가, 1427년 종실

을 대우하려는 취지에 따라 숙위 임무를 면제받았다. 명선대부明善大夫 반남도정潘南都正에 올랐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는데, 1963년 이장될 당시에 세운 묘표가 있다.

【참고문헌】『세종실록』, 『전주이씨익안대군파대동보』.

이의준李義駿 1738(영조 14)~1798(정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명仲命, 초명은 상준商駿이다. 사간원 헌납을 지낸 이현량李顯良의 손자이고, 사헌부 대사헌 이휘중李徽中의 아들이다.



이의준과 처 풍양 조씨 묘역

1763년(영조 39) 생원시에 합격하고, 문음으로 정릉 참봉에 보임된 후 177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였

다. 정조가 세손이던 시절 세자시강원 설서說書였는데, 서연에서 정조에게 “노성중盧聖中은 문장과 학식에서 현재의 제일가는 인물이지만 임오년(1762) 이후 13년간 대조大朝가 제수하는 벼슬에 일절 나아가지 않다가 요즘에 와서 비로소 환로宦路에 나와 포부를 펴 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1777년(정조 1) 탄핵을 받아 향리로 추방되었다가 1784년에야 탕척蕩瀦되었다.

1790년 예조 좌랑에 올랐고 그해 서산 군수로 나가 치적을 쌓았다. 1792년 도당록都堂錄에 녹선되었고, 1793년(정조 17)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자 종성 부사로 좌천되었다. 1795년 승지가 되었다가 1796년 참지가 되었다. 부총관, 행호군을 거쳐 1797년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황해도 감영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병사하였다. 재임 당시 재난을 당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라에 재결災結을 요청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고, 그가 죽자 정조의 애도를 받았다.

저서로는 1796년에 교정한 『장릉지莊陵誌』와 정조의 명을 받아 편수한 『존주휘편尊周

彙編』이 있다. 그 밖에도 이가환李家煥과 함께 편집한 『기전고箕田攷』와 성대중成大中과 같이 펴낸 『진양충의세편晉陽忠義世編』이 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다.

【참고문헌】『정조실록』, 『일성록』, 『국조문과방목』, 『사마방목』, 『이의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이의준李義駿의 처 풍양 조씨豊壤趙氏 1737(영조 13)~1798(정조 22)

조선 후기의 열녀. 상주 목사尙州牧使를 지낸 조시만趙時萬의 딸이고,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한 이의준李義駿의 처이다. 남편 이의준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 중 해주의 감영에서 불이 나 화상으로 순직하자 엄숙히 장례를 치르고 7일을 단식한 후 죽었다.

풍양 조씨는 남편이 죽자 자기 아들에게 “내가 나이 60을 넘었고 자녀들도 컸으니 지금 당장 죽어 한 구덩이로 들어간다면 웃음을 머금고 편안히 죽을 것이다. 내가 의리에 대처하는 것은 지조나 고집스런 부녀자와 다르다.”라고 말한 후 손수 자를 가지고 상복을 재단하고 장례 준비를 하였다. 죽기 하루 전까지 모든 장례 일을 지시한 후 몸과 수족을 깨끗이 씻은 다음 7일째 되어 아무 병 없이 죽었다. 당시 방안에는 맑은 향기가 가득 하여 늦은 밤까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이의준의 처가 죽자 정조는 즉시 그 마을에 정려하고, 남편 이의준의 제문에도 정렬旌烈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문을 짓도록 특별히 하교하였다. 현재 열녀문은 없어지고 현판만 남아 있다. 현판에는 “열녀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해주 목사 이의준 처 정부인 풍양조씨지문”이라고 음각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다.

【참고문헌】『일성록』, 『정조실록』, 『열녀 풍양조씨 정려판』, 『이의준 묘갈』, 『안양시사』2(안양시, 2008).



풍양조씨 정려문 현판

이인경李寅慶 1798(정조 22)~1871(고종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선公善. 순릉 참봉을 지낸 이비연李泌淵의 아들로 이철연李哲淵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835년(현종 1) 진사시에 합격하고 음직으로 1836년 현릉 참봉으로 나갔다. 1838년 사재 봉사司宰奉事, 1840년 전생 직장典牲直長, 이듬해 상의 별제尙衣別提를 거쳐 공조 좌랑工曹佐郎이 되었다. 1842년 김화 현감金化縣監으로 나갔다가 1845년 시흥 현령始興縣令으로 옮겼다. 1855년 원소도감 낭청園所都監郎廳이 되었고, 1856년 예빈 주부禮賓主簿가 되었다. 1857년 장악 주부掌樂主簿로 옮겼고 같은 해 장악 첨정掌樂僉正으로 승진하였다. 1858년 전라도 임피 현령臨陂縣令으로 나갔다가 이듬해 함경도 문천 군수文川郡守로 승진하였으나 1862년 임피 현령 시의 일로 파직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다.

【참고문헌】『사마방목』, 『전주이씨광평대군파세보』, 『승정원일기』.

이정룡李廷龍 1579(선조 1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 자는 몽천夢天.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7세손으로 호조 좌랑을 지낸 이장李璋의 증손이고, 사복시 정을 역임한 이언이李彦怡의 손자이며, 진사 이기李岐의 아들이다.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였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다.

【참고문헌】『전주이씨익안대군파대동보』, 『안양사』, 2(안양시, 2008).

이종룡李從龍 1585(선조 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 자는 몽택夢澤, 호는 운곡雲谷.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7세손으로 호조 좌랑을 지낸 이장李璋의 증손이고, 사복시 정을 역임한 이언이李彦怡의 손자이며, 진사 이기李岐의 아들이다. 1612년(광해군 4) 진사시에 합격한 후 양천 현령을 역임하였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다.

【참고문헌】『사마방목』, 『전주이씨익안대군파대동보』, 『안양사』, 2(안양시, 2008).

자초自超 1327(충숙왕 14)~1405(태종 5)



회암사지 무학대사 부도

조선 태조대 왕사王師로 임명된 선종 승려. 자초는 법명法名. 법호法號는 무학無學, 당호幢號는 계월현溪月軒, 시호는 묘엄존자妙嚴尊者이다. 속성은 박朴씨. 아버지는 승정대부崇政大夫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추증된 박인일朴仁一이고, 어머니는 고성채씨固城蔡氏이다. 경상도 삼기군(三岐郡: 경남 거창군)에서 태어났다.

1344년(충혜왕 5) 18세에 출가하여 소지小止의 제자가 되었으며, 혜명국사慧明國

師로부터 불법을 배웠다. 1353년(공민왕 2) 원나라 연도燕都로 가서 인도 승려 지공指空을 만나 도를 인정받았고, 이듬해 법천사法泉寺에서 나옹 혜근懶翁惠勤을 만나 깨달음을 인정받았다. 1356년 고려로 귀국하였고, 1359년 원효암에 있던 혜근을 찾아가 불자拂子를 받았다. 1371년 왕사王師로 책봉된 혜근에게서 의발衣鉢을 전수받았다. 혜근의 입적 후 공양왕이 왕사로 삼고자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1392년(태조 1) 조선을 건국한 후 태조가 그를 왕사로 책봉하였고, 1393년(태조 2) 자초는 왕도王都를 옮기려는 태조를 따라 계룡산과 한양 등을 돌아다니며 풍수지리風水地理를 보고, 마침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 데 참여하였다고 한다. 자초는 태조부터 태종초의 주요 불사들을 담당하였는데, 1393년 4월 연복사탑을 낙성하면서 개최한 문수법회에 태조가 친히 거동하였는데, 이때 선법禪法을 강설하였다. 1397년 태조의 명으로 회암사 북쪽에 수탑壽塔을 세웠으며, 1398년 용문사龍門寺에 머물렀다. 1402년(태종 2) 왕명을 받아 회암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듬해 사퇴하고 금강산 진불암眞佛庵으로 들어갔다. 1405년(태종 5) 자초는 금강산에서 나이 78세, 법랍法臘 62세로 입적하였다.

자초는 지공의 불교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혜근의 선을 이어받아 여말선초 임제선풍臨濟禪風을 익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서로는 『무학국사어록』, 『인공음印空吟』,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 『무학비결無學秘訣』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초와 안양과의 인연은 삼성산의 유래에서 비롯된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나 지리지 보면 자초가 스승인 지공·혜근과 함께 거주한 산이라 하여 그 산을 삼성산三聖山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참고문헌】『동문선』, 『태조실록』, 『조선금석총람』, 『자초』(『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장순張洵 1523(중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명윤明允. 정국1등공신 하원군河源君 장정張瑨의 손자이고,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장언방張彦邦의 아들이다. 1549년(명종 4) 진사시에 합격한 후 통천 군수를 역임하였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다.

【참고문헌】『사마방목』, 『중종실록』, 『명종실록』, 『덕수장씨족보』,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장언방張彦邦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국경國卿. 병조 판서를 지낸 장정張瑨의 아들이고, 강계 부사를 지낸 장언량張彦良의 동생이다. 1528년(중종 23) 무과에 급제하였다. 1534년(중종 29)에는 활쏘기 시험 때 차석을 차지하여 아마兒馬 1필을 받았고, 이듬해에도 활을 잘 쏘아 한 품계가 승급되었다. 이해에 호조 정랑에 임명되었는데, 사헌부에서 무관을 문관직에 임명하였다고 계속 탄핵하여 1536년 결국 체직되었다. 이후 순장巡將에 서용되었고, 1550년(명종 5)에는 밀양의 수군水軍 100여 명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생겨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에서 해임되었다. 1557년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되었고, 1559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다.

【참고문헌】『중종실록』, 『명종실록』, 『덕수장씨족보』,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장원張沅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숙이淑而. 정국1등공신 하원군河源君 장정張瑨의 손자이고,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장언방張彦邦의 아들이며, 통천 군수를 지낸 장순張洵의 동생이다. 통진 현감을 역임하였고,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다.

【참고문헌】『중종실록』, 『명종실록』, 『덕수장씨족보』,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조난서曹鸞瑞 1568(선조 1)~1634(인조 12)



조난서 묘표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화길和吉. 군자감 판관을 지낸 조세준曹世俊의 아들이다. 1606년(선조 39) 진사시에 형인 조학서曹鶴瑞와 동시에 입격하였다. 광해군대에 함종 현령咸從縣令을 지내고 1623년(인조 1) 합천 군수에 제수되었다. 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에 있다.

【참고문헌】『사마방목』, 『광해군일기』, 『승정원일기』, 『안양시사』 2(안양시, 2008).

조속趙淶 1595(선조 28)~1668(현종 9)



조속의 「월야수금도」(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희온希溫, 호는 창강滄江. 평택 현감 조수륜趙守倫의 아들이고, 문인화가 조지운趙之耘의 아버지이며, 이조 판서를 지낸 박태상朴泰尙의 장인이다.

1611년(광해군 3)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아버지가 무고로 옥사하자 형인 조척趙滌과 함께 시묘살이를 하다가 형이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죽자 과거를 단념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한 공으로 3등 공신에 녹훈되었으나 끝내 사퇴하여 주위의 칭송을 들었다. 1627년(인조 5) 경상도 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그해 10월 덕산 현감에 임명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634년 사복시 판관에 임명되었고 공조 좌랑·평시서령·서산 군수·형조 좌랑을 거쳐 1645년 김제

군수로 나갔다. 김제 군수로 재임 중에는 백성들이 모두 평안히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다는 암행어사 심택沈澤의 포폄으로 1648년 인조로부터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그 후 1650년(효종 1) 대구 부사와 1652년 사헌부 장령을 거쳐 상의원 정尙衣院正에 이르렀다.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조속은 부귀와 권세를 싫어하고 청빈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많이 받았다. 숙종대에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건립된 호계서원虎溪書院에 증조부 조종경과 함께 배향되었으며, 광주廣州의 수곡서원秀谷書院, 서천의 건암서원建巖書院, 김제의 백석사白石祠에도 배향되었다.

글씨와 그림을 잘하였다. 그림은 매梅·죽竹·산수山水 및 화조花鳥를 잘 그렸으며 특히 까치나 물새 등을 소재로 한 그림에서 한국적 화풍을 이룩한 대표적 화가이다. 아들인 조지운趙之耘을 비롯하여 전충효全忠孝·이함李涵·이하영李夏英에게로 화풍이 이어졌다.

대표작으로 <노수서작도老樹棲鶴圖>, <매작도梅鶴圖>, <묵매도墨梅圖>, <금계도金櫃圖>, <호촌연의도湖村煙疑圖> 등이 있다. 특히 미법米法을 기조로 하여 다루어진 <호촌연의도>는 조선시대 남종화의 초기 단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다. 글씨로는 <좌찬성 이계맹비左贊成李繼孟碑> 등이 있고, 저서로 『창강일기滄江日記』가 있다.

【참고문헌】『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국조인물고』, 『조속』(『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안양사』2(안양시, 2008).

조용하趙用夏 1826(순조 26)~1909(융희 3)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경국景國, 호는 금계金溪. 내부 협판에 증직된 조병철趙秉哲의 아들로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죽말 출신이다.

1854년(철종 5) 유학幼學으로서 정시문과에서 을과로 급제한 후 1864년 홍문관 응교, 사헌부 집의, 사간원 사간을 거쳐 1866년 부수찬, 부응교가 되었다. 1868년 우부승지를 지냈다. 1877년 이조 참의, 1880년 수안 군수로 나갔다. 1885년 좌부승지, 1891년 병조 참의, 1900년 분비서원 승, 1901년 궁내부 특진관, 1904년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을 거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을 역임하였다. 1909년 호계동 자택의 사랑채에 낙영학교樂英學校를 설립하여 큰아들 조동순趙東舜이 교장, 둘째 아들 조동우趙東宇가 교감, 독립운동가 한흥리韓興履의 조부 한준유韓濬裕가 학감, 그리고 한용구韓用球·조진구趙鎭九·조희창趙熙彰 등을 교사로 임명하여 안양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참고문헌】『국조문과방목』, 『승정원일기』, 『시흥군지』(시흥군, 1988).

조종경趙宗敬 1495(연산군 1)~1535(중종 30)



『독암유고』(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효백孝伯, 호는 독암獨庵. 익대공신으로 이조 참판을 지낸 조익정趙益貞의 손자이고, 진사 조팽趙彭의 아들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시에 합격하고, 152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승정원 주서·홍문관 부수찬·사간원 정언·홍문관 수찬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524년 요직인 이조 정랑에 천거되었으나 당대의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반대로 좌절되었다가, 1526년 사헌부 지평을 거쳐 비로소 이조 정랑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 후 사헌부 장령·사간원 사간·홍문관 전한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1530년 사섬시 정司贍寺正으로 재임하던 중 심정沈貞의 일당이라는 김안로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파직된 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집을 짓고 호를 독암이라고 한 후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독암유고獨庵遺稿』를 저술하였다. 죽은 지 2년 후인 1537년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신원되었고, 1681년(숙종 7) 현 안양시 호계동에 호계서원虎溪書院이 건립되어 그를 향사하였다.

【참고문헌】 『중종실록』, 『국조문과방목』, 『연려실기술』,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조하경曹夏卿 1635(인조 13)~1710(숙종 3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여필汝弼. 정주 목사를 지낸 조정립曹挺立의 손자이며, 유학幼學 조시윤曹時胤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함천 군수를 지낸 조난서曹鸞瑞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660년(현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 1673년(현종 14) 통덕랑으로서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순천 도호부사를 지냈으며, 정3품 원정院正에 이르렀다. 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에 있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 『사마방목』,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지공指空 ?~1363(공민왕 12)

고려 말의 고승高僧. 인도 출신으로 마가다국 만왕滿王의 아들이다. 인도명은 제납박타(提納薄陀: Dhyānabhadra). 8살 때 율현律賢의 문하에서 출가하였고, 19세에 남인도의 길상산吉祥山으로 가서 보명普明에게 사사했다. 그 후 티벳·운남雲南·귀주貴州·연경燕京을 지나 고려에 입국하여 금강산에서 법기도량法起道場을 열고 양주楊州·영산靈山 등지에서 불법을 전파하였다. 그 뒤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 법원사法源寺에 있으면서 혜근惠勤·자초自超에게 선종禪宗을 가르쳐 고려시대 선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고려에 있을 때 「무생계無生戒」를 강설하여 당시의 선계禪界에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1363년 원나라 법원사의 귀화방장貴化方丈에서 입적하였다. 1368년(공민왕 17) 유물의 일부가 고려에 전해지자 1372년 양주 회암사檜巖寺에 부도와 비를 건립하였다.



회암사 지공선사 부도와 비

지공은 현 안양시의 삼성산三聖山에서 불법을 닦았는데 이후 혜근·자초가 이곳에서 불법을 닦아 이 산의 명칭을 삼성산이라 칭했다 한다.

【참고문헌】『조선금석총람』,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양시사』2 (안양시, 2008).

최경환崔京煥 1805(순조 5)~1839(헌종 5)

조선 후기 천주교 순교자. 본관은 경주慶州, 일명 영환永煥이라고도 한다. 세례명은 프란체스코.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崔良業의 아버지이다. 충청남도 홍주 다래골(현 청양군 다라골)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천주교 집안이었으므로 어려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천주교 순교자로 내포內浦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李存昌의 후손인 이성례李聖禮를 아내로 맞아들인 뒤, 천주교인이 드문 고향을 떠나 서울 병거지골[笠洞]로 이사하여 살았으나 송사訟事로 가산을 탕진하고 강원도 김성金城으로 들어갔다. 그 후 경기도 부평을 거쳐 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뒤뜸이 마을에 정착하여 교우촌을 이루면서



최경환 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였다. 여기에는 40여 가구가 천주교를 믿었는데 담배를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하여 지금까지도 담배촌으로 불리고 있다. 맏아들인 양업은 모방(Maubant) 신부에게 신학생으로 맡겨져 1836년(헌종 2) 마카오로 유학을 가고, 최경환은 1839년 마을의 전교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기해년(1839)의 대박해가 일어나고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많은 의연금을 모아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해 7월 서울에서 내려온 포졸들에게 잡혀 배교를 강요당하며 포도청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

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9월 12일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아내였던 이성례도 같은 해(1839년) 12월 27일 용산 당고개에서 6명의 교우와 함께 처형되었다. 자식은 여섯을 두었는데, 맏아들인 양업은 마카오로 사제 수업을 가 있었고, 3살이었던 막내는 옥중에서 어머니의 빈 젖을 빨다 죽었으며, 나머지 4형제는 거지가 되어 살았다고 한다. 최경환이 순교한 지 10년 만인 1849년 마카오로 유학갔던 양업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사제 서품을 받고 돌아와 동생들과 만났다. 최경환이 순교한 지 86년 만인 1925년 한국순교복자 79위의 한 명에 올랐고, 1984년 한국천주교 창설 200주년 신앙대회 때 교황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최경환의 시신은 어린 자녀들이 담배촌에 묻었다가 1930년 현재의 명동성당인 경성교회로 이장하였다가 다시 절두산순교성지 성인유해실에 안치하였다. 최경환이 묻혔던 담배촌 묘역에는 그의 머리카락을 넣은 기념비를 세우고 봉분을 만들어 그의 행적을 추모하고 있다. 최경환 성지는 천주교 신자들이 참배하는 성지로 추앙받을 뿐 아니라 안양 8경으로 지정되어 시민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참고문헌】『한국 79위 복자전』, 『한국천주교회사』, 『최경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안양시사』, 2(안양시, 2008).

혜근(惠勤) 1320(충숙왕 7)~1376(우왕 2)

고려 공민왕대 왕사(王師)로 임명된 선종 승려. 속성은 아(牙)씨, 속명은 원혜(元惠), 법명은 혜근, 법호는 나옹(懶翁) 또는 강월현(江月軒), 시호는 선각(禪覺)이다. 아버지는 선관서령(膳官署令) 아서구(牙瑞具)이고, 어머니는 영산군 사람 정씨(鄭氏)이다. 경상도 영해부(寧海府) 출신.

20세 때인 1339년(충숙왕 복위 9) 문경 공덕산(功德山)에 가서 요연선사(了然禪師) 문하에서 출가하였다. 1347년(충목왕 3) 28세로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 이듬해 원나라 대도(大都)에 도착한 혜근은 법원사(法源寺)에서 지공(指空)을 만나 수학하였고, 1350년 중국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 평산처림(平山處林)과 천암원장(千巖元長)에게서 달마(達磨)로부터 내려오는 중국 선(禪)의 영향을 받았다. 1353년(공민왕 2) 3월 다시 대도로 돌아와 지공에게서 법의와 불자, 전법계 등을 받았고, 무학자초(無學自超)를 제자로 받는 등 활동을 하다 1358년 귀국하였다.

오대산에 머물며 공민왕의 지지와 후원으로 불교계에서 활동하였다. 공민왕비 노국 대장공주가 사망하자 천도를 위한 수륙재(水陸齋)도 주관하였다. 1370년 지공의 사리가 고려에 도착하자 회암사에 봉안하는 불사를 담당하였다. 1371년 왕사로 책봉되고 송광사 주지에도 임명되었다. 1376년(우왕 2) 회암사 낙성식 이후 사헌부와 도당(都堂)의 탄핵을 받아 밀양으로 내려가던 중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다. 이색(李穡)이 글을 지어 세운비와 부도가 회암사와 신륵사에 있다. 혜근은 선정일치(禪淨一致)에 입각한 유심정토(唯心淨土)를 견지하면서도 화두염불법(話頭念佛法)을 제창하였다. 제자로는 환암혼수, 무학자초 등 2000여 명이 있으며, 저서로는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尚語錄)』 1권과 『가송(歌頌)』 1권이 전한다. 혜근과 안양과의 인연은 삼성산의 유래에서 비롯된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나 지리지 보면 혜근이 스승인 지공과 제자인 자초와 함께 수도에 정진한 산이라 하여 그 산을 삼성산(三聖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참고문헌】『나옹화상어록』, 『조선금석총람』, 『삼막사지』, 『안양사사』2(안양시,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나옹화상 진영(국립중앙박물관)

2장 근현대 인물



이우석 전 건국대학교 강사



김성곤金成坤 1913~1975

기업가·언론인·정치가.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성곡省谷. 김광도金光度의 아들로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출신이다. 1928년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이듬해 대구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였고, 4학년 때 교내 항일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퇴학당하자 다시 상경하여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1937년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뒤, 대구부청大邱府廳과 대구상공은행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1939년 비누공장인 삼공유지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자본을 축적하여 안양에 소재한 조선직물주식회사朝鮮織物株式會社를 인수하여 1948년 자본금 1억 원으로 금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조선직물은 다카세 마사타로[高瀬政太郎]가 1932년 설립한 인조견을 전문으로 생산하던 회사였었다. 6·25전쟁으로 공장이 잿더미가 되었던 금성방직은 1954년 새롭게 설비를 갖추면서 안양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구직자에게는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시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의복의 주류인 면직물 공장이 활황을 맞이하여 금성방직의 시설도 배로 늘리고 1956년에는 안양1동에 있던 태평방직주식회사까지 인수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방직회사 경영자가 되었다.

1958년 제4대 총선에서 이기붕李起鵬 국회의장이 그와 정적 관계에 있는 이재형李載瀟을 낙선시키기 위해 안양에서 출마하도록 종용하였지만 거절하고 고향인 달성에서 출마하여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다. 1959년 국민학원(지금의 국민대학교)을 인수하였고, 1960년 대한유도회 회장에 피선되었으며, 1962년 국제신문편집인협회(IPI) 정회원이 되었다. 1962년 강원도에 쌍용양회 공장을 설립한 뒤 이에 전념하기 위해 1968년 금성

방직과 태평방직을 대한농산大韓農産의 박용학林龍學에게 매각하였다. 1963년에는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았으며, 1965년에는 공화당 재정위원장 및 당무위원이 되었다.

1965년 성곡언론문화재단과 1968년 성곡학술문화재단을 창립하여 언론과 학술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1967년과 1971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집권 정당인 공화당의 실력자로 부상하였지만 오치성吳致成 내무부 장관 해임안을 가결시킨 주동 인물로 지목되어 국회의원직은 물론 공화당에서 제명되어 정계를 떠났다.

1973년 대한상공회의소 제8대 회장에 취임하였고, 1974년 대한양회를 인수하고 한국신문연구소 회장에 취임하는 등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1975년 갑자기 죽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안양시사』2(안양시,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김영실金英實 1920~2006



김영실

교육자. 본관은 무장茂長. 호는 일우一隅. 김경서金敬西의 아들이다. 강화도에서 태어났으며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해 수학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43년 아오야마 학원[靑山學園] 영어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어 중국으로 파병되었다가 8·15광복과 함께 귀국하였다.

1947년부터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에서 교사직을 역임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군장교로 복무하였다. 이때부터 생활 보조적 방편으로 산양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충남대학교, 한국항공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였고, 한국신학대학 부교수를 거쳐 1958년에는 경기대학에 국내 최초로 관광학과를 설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학과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관광산업을 이끌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1963년에는 한국 최초 최대의 관광업소인 워커히

호텔 개관에 참여하고 총지배인직을 맡았다.

이후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부터 키우던 산양을 바탕으로 낙농업에 종사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교육사업에 대한 신념으로 이를 정리한 후, 1968년에는 서울남중학교(현 문일중학교), 1975년에는 문일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85년 대한신학교를 인수하여, 1993년 정규대학인 대신대학교로 개편하였고, 1995년 안양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하였다. ‘한구석 밝히기’를 교육철학이자 생활철학으로 제시하며 ‘한구석밝히기실천운동본부’ 총재를 역임하였다. 1992년 국민훈장 모란장, 2003년 정부포상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민들레 홀씨는 오늘도 날고 싶다』(김영실, 한숨, 2004), 『안양시사』2(안양시, 2008).

박두진朴斗鎭 1916~1998

시인. 본관은 밀양密陽. 호는 혜산兮山. 경기도 안성安城에서 태어났다. 1939년 정지용鄭芝溶의 추천으로 시단에 데뷔했다. 박목월朴木月·조지훈趙芝薰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불린다. 1942년 안양으로 이사한 후 금융조합과 삼덕제지에 근무하며 1950년 서울로



박두진 장로 장립식(안양중앙교회)

이사할 때까지 안양에서 직장생활과 시작詩作 활동을 병행하였다. 안양에 거주하던 지역이 어디인지 확실치 않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세를 얻어 살며, 집 근처에 관악산이 있고 ‘관악산 연주암’을 ‘연우암’으로 부르며 직장까지 도보로 30여 분”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관양동 인근 지역이 아닌가 한다.

1944년에는 박두진 본인과 가족들이 안양리교회(현 안양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1947년에는 안양리교회 제3대 장로에 취임하였다. 이 당시 박두진은 삼덕제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교우들과 노방전도를 활발하게 하는 등 신앙심이 깊었다. 당시 친구이자 시인인 이상로李相魯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시가 곧 신앙이고 기도이며, 영혼과 신의 세계에 대한 교류”라고 하여 시와 시심의 원천이 기독교 신앙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에 발간한 『오도午禱』(1954), 『사도행전使徒行傳』(1973), 『포용무한抱擁無限』(1981),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1983) 등의 시집은 독실한 기독교적 신앙과 윤리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해방 후 1946년에는 박두진·박목월·조지훈과 함께 3인의 공동 시집인 『청록집靑鹿集』을 발간하였다. 그해 좌익계열의 조선문학가동맹에 맞서 김동리金東里·서정주徐廷柱 등과 함께 민족주의계열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어 1949년에는 한국문학가협회에도 참여하여 시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55년 이후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60년 4·19 당시 학내 분규로 퇴임한 후 우석대학·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1972년 다시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다가 1981년 정년 퇴임하였다.

시집으로 『박두진 시선』(1956), 『하늘까지 닿는 소리』(1973), 『수석열전』(1973) 등과, 시선집으로 『청록집·기타』(1968), 『청록집 이후』(1968), 『에레미야의 노래』(1981) 등이 있다. 그 밖에 수필집으로 『시인의 고향』(1968), 『언덕에 이는 바람』(1973) 등과 시론집으로 『한국현대시론』(1970) 등이 있다.

1956년 아세아자유문학상, 1963년 서울시문화상, 1970년 3·1문화상, 1976년 대한민국예술원상, 1988년 인촌상, 1989년 지용문학상, 1993년 외솔문학상, 1997년 동북아 기독교문학상 등을 받았다. 2001년 프랑스 아비뇽 근처에 시비가 세워졌는데, 시비의 앞면에는 대표작인 「해」의 첫 구절이 한글로, 뒷면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있다. 묘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에 있다.

【참고문헌】 『안양시사』2(안양시,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사태현史泰鉉 1908(음희 2)~2003

사회사업가·교육자. 본관은 청주淸州. 호는 설원雪原. 사상은史尙殷의 아들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통신 강의로 법률 관련 공부를 한 후 중국 연변延邊으로 건너갔다. 1931년 중국 연변에서 영세민 아동과 부녀자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계몽소를 설립·운영하였다. 그 후 용정龍井에서 발행되던 『간도일보間島日報』와 『민성보民聲報』에 시와 수필 등 문학작품을 발표하였고, 1934년 『만몽일보滿蒙日報』 조양천朝陽川 지국장에 임명되었다. 해방 후 연변에서 조양천 문예협회장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그해 연변에서 근명여자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사태현 내외

귀국하여 1947년 3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에 안양보육원(현 안양의집)·안양양로원을 설립하였다. 1949년에는 서울에서 월간지인 『현대공론』을 편집·발행하였다. 1952년 안양에서 불우한 영세민 아동의 무료 교육기관인 근명국민학교 및 직업교육을 위한 근명원예기술학교를 설립하였고, 그 공으로 그해 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사업 공로표창을 받았다. 1962년 근명중학교 및 근명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여 사회사업과 함께 안양지역 교육에도 공헌하였다. 1965년 미국 사회복지시설과 1967년 일본 사회복지시설을 시찰하였으며, 1971년 국제 로타리 안양클럽을 창설하여 제1대와 제2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5년 사회복지사업 부문 국민훈장 동백장과 1986년 세계기독교 아동복지회 총재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 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에 있다.

【참고문헌】『안양시사』2(안양시, 2008) ; 설원복지재단, 「연혁」, 안양의집(<http://www.anyangwelfare.org>).



신경림

신경림申庚林 1935~2024

시인. 본관은 아주鵝洲. 본명은 신응식申應植이다. 신태하申泰夏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 등이 추천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1970년에서 1977년까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거주하였으며 1973년 첫 시집 『농무』를 발간하였다. 이 시기 가족의 질병과 사찰로 인한 실업으로 고통받았던 삶을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이란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한국작가회의 고문, 동국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만해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이산문학상, 단재문학상, 대산문학상, 호암상(예술부문) 등을 수상하였다.

그는 농민과 서민 등 민중의 고달픔을 달래는 시를 주로 창작하여 ‘민중 시인’이란 이름을 얻기도 하였다. 대표 시집으로는 『농무』, 『가난한 사랑 노래』(1988),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1998), 『낙타』(2008) 등이 있다.

【참고문헌】『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신경림, 우리교육, 1998); 안양문화예술재단, 「오늘 · 여기, 안양」, 터무늬진(<https://blog.naver.com/cpday>);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신상옥

신상옥申相玉 1926~2006

영화감독. 본관은 평산平山. 본명은 신태서申泰瑞이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함경북도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미술전문학교에서 3년 동안 미술을 공부하였다. 1945년 한국으로 돌아와 영화감독 최인규崔寅奎를 만나 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최인규가 감독한 영화 「자유부인」(1946)의 미술감독과 「독립전야」(1948)의 조감독을 거쳐 1952년 신상옥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악야」에서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이듬해 영화배우 최은희와 결혼한 후 「꿈」(1955), 「성춘향」(1961), 「빨간 마후라」(1964) 등을 연출하였다.

1950년대 후반 영화산업이 크게 성장하자 1960년 신필름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1966년 안양영화촬영소를 인수하였다. 신필름 안양영화촬영소가 거느렸던 전속 영화인만 200명이 넘었고, 동양 최대의 촬영 스튜디오에서는 한해 무려 40~50편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당대 영화인들은 신필름을 일컬어 '한국 영화계의 절반'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였다.

1975년 홍콩과 공동으로 만든 「장미와 들개」의 예고편에 검열을 받지 않은 장면을

넣었다는 이유로 신필름의 영화사 등록이 말소되어 영화 제작을 중단하였다. 1978년 북한의 공작원들에게 납치된 부인 최은희를 구출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갔다가 납북되었다. 그 후 북한에서 1983년 김정일의 지원을 받아 아내 최은희와 함께 신필름영화촬영소를 설립하였고 「소금」(1985), 「불가사리」(1985) 등 여러 영화를 만들었다. 198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은희와 함께 극적으로 탈출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마유미」(1990)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실종사건을 다룬 「증발」(1994) 등을 제작하였다. 1994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에 임명되었고, 영화에 대한 열정은 말년까지 이어져 2003년 안양신필름예술센터를 설립하고 동아방송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는 등 한국영화 발전에 크게 노력하였다.

신상옥은 유현목·김수용·김기영·이만희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그의 작품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주고 있다. 1950년대의 작품은 어둡거나 멜로 드라마류가 주류였지만 1960년대에 들어와서 「빨간 마후라」, 「병어리 삼룡이」, 「로맨스빠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상록수」, 「연산군」, 「강화도령」 등의 대표작을 만들었다.

대종상 영화제에서 1962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965년 「병어리 삼룡이」, 1968년 「대원군」, 1972년 「평양폭격대」 등으로 감독상을 받았고, 「전쟁과 인간」으로 아시아영화제 감독상을, 2003년에는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2006년 한국영화인복지재단 선정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같은 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난, 영화였다』(신상옥,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안양시사』, 2(안양시,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안상호(安商浩 1872(고종 9)~1927

한말·일제강점기의 의사(醫師). 본관은 순흥(順興). 호는 해강(海岡). 안건영(安建榮)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902년(광무 6) 일본 도쿄의 자혜전문학교(慈惠專門醫學校)를 졸업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1904년 귀국하여 순종의 전의(典醫)로 있었으며 지석영(池錫永)이 설립한 의학교에서 후진 교육에도 힘썼다. 서울 종로에 개인진료소를 차려 진료활동을 시작하면서 전의를 그만두었다.

1908년 의사연구회(醫事研究會)를 조직하여 부회장을 맡았고, 1910년 동서의학강습소

에서 서양의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항일 민족의식이 강하여 1915년에는 일본인 의사 단체인 경성의사회가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를 좌지우지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오금선吳兢善 등과 함께 한성의사회漢城醫師會를 결성하여 이에 맞섰다.

1919년 1월 고종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일본 유학 때부터 친분을 맺어온 의친왕義親王의 요청으로 진료했으나 마침내 죽자 일본인의 사주를 받아 독약을 올렸다는 무고誣告로 곤욕을 치렀다. 안양 구시장, 남부시장 일대의 많은 땅을 소유한 안양지역 최대 지주였다. 묘소는 군포시 금정동에 있었는데, 1990년 산본신도시 개발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로 이장하였다.

【참고문헌】『한국의학사』(김두중, 탐구당, 1966), 『안양시사』2(안양시, 2008);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안정호安正浩 1912~1965

의사醫師. 본관은 순흥順興. 안건영安建榮의 손자이고, 고종의 전의典醫를 지낸 안상호安商浩의 아들이다. 초명은 정호正豪, 족보에는 정준正濬으로 되어 있다.



안양중학교 설립 기금 및 토지 회사 관련 기사(『자유신문』, 1947년 3월 6일)

경성의대 치대를 졸업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서 안정호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의료 활동에 종사하였다. 해방 후에는 경제계에 투신하여 조선파이프 공장장을 역임하였다. 아버지 안상호 때부터 안양 구시장, 남부시장 일대의 많은 땅을 소유한 안양지역 최대 지주였다. 1947년 안양시 안양3동의 땅 10만여 평을 희사하여 안양중학교 및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어 안양에 있는 보육시설에도 1만 5천여 평을 희사하였고, 6·25전쟁이 끝나자 비산대교에서 한국제지에 이르는 안양천 제방을 자비로 축조하는 등 안양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묘는 군포시 금정동에 있다가 산본신도시 개발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평화보육원 기부금 답지』(『동아일보』, 1947년 2월 4일), 『안양중학기금 1천만원, 안정호씨 외 2씨 토지를 희사』(『자유신문』, 1947년 3월 6일),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엄기승 嚴基承 1900(광무 4)~1953

실업가. 본관은 영월寧越. 생원 엄장섭嚴長燮의 아들이다. 후에 명우明佑로 개명하였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출신이다. 1928년 자본금 10만 원으로 안양3동 부근에 양잠·양계·양돈·수리개간을 하는 안양산업사安養産業社를 설립하였다. 1928년 안양공립보통학교 설립에도 기여하였고, 후에 안양보통학교 기성회장으로 교육 진흥에 힘썼다. 1929년에는 지역 유지인 안정호安正浩 등과 함께 안양지역의 전기 송전 사업에도 앞장을 섰다. 묘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에 있다.

【참고문헌】『안양시사』2(안양시, 2008).

엄항섭 嚴恒燮 1898(광무 2)~1962

독립운동가·정치인. 본관은 영월寧越. 자는 군상君常, 호는 일파一波. 승지를 지낸 엄주완嚴柱完의 아들이다. 여주군 금사면에서 출생하였다. 일명 엄대형嚴大衡으로 불렸으며, 중국 망명 당시에는 ‘예빛·엄’이라고도 불렸다.

1911년 여주 이포초등학교, 1915년 서울 보성중학교, 1919년 보성법률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3·1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2년 항저우[杭州]에서 지강대학[芝江大學]을 졸업하였다. 상하이[上海]로 돌아와서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1924년 상하이에 거주하던 독립운동가들로 결성된 상해한인청년동맹회 집행위원이 되었다. 이어

1926년 12월에는 헌법기초위원에 선임되었다. 1930년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여 향후 김구(金九)와 함께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안창호(安昌浩)·선우혁(鮮于赫)·차이석(車利錫) 등과 함께 자활자위(自活自衛)를 목적으로 하는 공평사운(公平社運)에 참여하였다. 1932



김구, 박찬익, 이동녕, 엄항섭(좌측 순)

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에 취임하여 김구를 보좌하여 한국독립당 선전부장을 맡았고, 김구의 주도하에 계획된 윤봉길(尹奉吉) 의사의 홍커우공원(虹丘公園) 의거를 적극 지원하였다. 1937년에는 조소앙(趙素昂) 등과 함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1941년 다시 의정원 의원이 되어 외무위원장직을 맡았으며, 1944년 5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 선전부장과 김구 주석의 판공비서에 임명되었다.

해방이 되자 1945년 11월 23일 임정요인의 제1진으로 한국하여 경교장(京橋莊)을 중심으로 조완구(趙完九)와 함께 김구의 최측근으로 김구를 보좌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대부분의 성명서나 국민에게 발표하는 호소문을 기초하였다. 1947년 3월 1일 국회의원회 전국대표자대회의 임시정부 확대강화에 따른 정무위원 개편에서도 정무위원이 되어 선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948년 남북협상에는 한국독립당 대표단 5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전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이어 개최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속칭 남북요인회담 15명의 한 사람으로 4월 30일 공동성명 기초에 참여하였다.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피살될 때까지 그를 보좌하다가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북한에서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임위원 겸 집행위원을 지냈지만 이후의 행적이 분명치 않다. 1989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독립운동사』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엄항섭』(『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안양시사』, 2(안양시, 2008);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

오금선吳兢善 1878(고종 15)~1963



오금선

의학교육자·사회사업가·친일반민족행위자. 본관은 해주 海州. 자는 중극重克, 호는 해관海觀. 오인묵吳仁默의 장남으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1896년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배재학당에 입학한 후 협성회協成會·독립협회·만국공동회 간부로 활약하다가 일제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졌다. 공주·논산·군산 등지로 피신하는 동안 선교사의 개인교사를 하며 유학을 준비하였다.

1901년(광무 5)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이듬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켄터키주 센트럴대학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하였다. 1904년 켄터키주 루이빌 의과대학에 편입하여 3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한 후 1907년 졸업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인으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서재필徐載弼에 이어 두 번째였다.

1907년 루이빌 시립병원에서 6개월간 인턴과정을 거친 후 그해 말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의료선교사로 위촉되어 귀국하였다.

1908년 군산야소교병원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인 의료봉사를 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안락학교安樂學校를 세웠다. 이듬해에는 중학교 과정의 영명학교永明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으로서 영어와 산술까지 가르쳤다. 1910년에는 전라남도 광주로 가서 광주야소교병원장에 취임하였고, 이듬해에는 목포야소교병원장으로 전임하여 목포 정명학교貞明學校 교장직도 겸임하였다.

1912년에는 세브란스의학교 조교수로 취임하였는데, 이는 한국인 교수로는 첫 등용이었다. 이후 1942년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세브란스병원에 재직하였다. 그사이 1916년 4월부터 1년간 일본 동경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피부비뇨기과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피부과를 신설하여 피부과 과장으로 취임하였다.

1919년에는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아양육사업을 시작하였고, 1931년에는 노후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경성양로원을 설립하였다. 1934년 에비슨 교장 후임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42년 퇴직한 이후에는 안양기독교보육원 원장에 취임하여 보육사업에만 전념하였

다. 안양기독교보육원은 1919년 설립했던 경성보육원을 1936년 안양으로 확대, 이전하면서 바꾼 명칭이다. 보육원장 취임 후 주변 7만여 평의 임야를 매입하여 15만 평에 달하는 촌락을 만들었고, 1945년 서울특별시장의 후생시설 대행기관으로 공인받게 되었으며, 1949년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사 3개 동을 기증받는 한편 원아들을 안양읍 내 초등학교에 취학시키기도 하였다.

6·25전쟁 당시에는 원아들을 데리고 거제도 부근의 가덕도로 피난갔다가 1952년 되돌아왔지만 원사가 폭격으로 초토화되어 미8군단 45공병단의 도움을 받아 원사를 재건하였다. 안양기독교보육원은 1998년 해관보육원, 2007년에는 ‘좋은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3년 사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사후 그에 대한 평가에 명암을 드리우고 있다. 1937년 증일전쟁이 발발하자 8월 경성군사후원연맹 부회장이 되었고, 1938년 조선지원병제도축하회를 발기하였다. 1939년 2월에는 경성부지원병후원회 이사, 5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상임이사, 1940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겸 이사를 맡았다. 1941년에는 흥아보국단 경기도위원, 9월에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 되었다. 또 매일신보사 등 일제의 관련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관한 간담회에 참여하거나, 기고를 통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

【참고문헌】『해관 오공선』(연세대학교출판부, 1977),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0(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원태우 元泰祐 1882(고종 19)~1951

독립운동가. 본관은 원주原州. 원태성 元泰成의 아들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서 태어났다. 문헌자료에 따라 원태근 元泰根·김태근 金台根·金泰根·김태우 金泰祐 등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원태우 元泰祐로 되어 있다.

1905년 11월 22일 을사늑약 乙巳勒約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안양·수원 인근으로 사냥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 사는 이만려 李萬汝·남통봉 南通峰·김장성 金長成 등과 모의하여 그가 탄 열차를 전복시키기로 약속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오전 9시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수원에 도착하여 팔달산 등을 구경하고 수원에서 안양까지 사냥을 마친 뒤 오후 6시 15분 안양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탔다. 그때 원태우 일행은 현 관악전철역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400m 지점인 암흑리(暗黑里: 현 안양시 석수동



원태우 지사 초상화



원태우 지사 의거지

육교지점) 철로변에 돌을 쌓고 열차가 전복되기를 기다렸는데, 다른 동지들이 겁을 먹고 돌을 치워버렸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 일행의 특별열차가 나타나자 원태우 혼자서 이토 히로부미가 앉아 있는 차창을 향해 돌 여러 개를 던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돌에 깨진 차창의 유리 조각으로 좌안左眼과 안면顔面 등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이틀 후인 11월 24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의 보도에 의해서였다. 일본 신문에는 사건 다음 날부터 연이어 관련 기사가 게재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일본 오사카에서 발행한 『대판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 11월 23일자에는 원태근이라는 이름으로 ‘안양시장 22통 1호’라는 주소와 함께 보도했고, 『동경매일신문東京毎日新聞』 11월 29일자에는 ‘이토 히로부미 조난전말遭難顛末’이라는 기사로 보도되었다. 1905년 12월 8일 발행된 『일로전쟁화보日露戰爭畫報』 제29권에는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이란 제하의 기록화와 함께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원태우가 오른손을 들어 열차에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이만려·김장성 등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원태우는 징역 2월에

태형(答刑) 100대에 처해졌다. 영등포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에 흉터가 생기고 불구가 되어 안양시 비산동 수푸루지(林谷洞)에서 석공으로 불우하게 살다가 1951년 7월 22일 사망하였다.

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공동묘지에 있었으나 1982년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화장되었다. 그의 유품으로 돌절구 2개와 맷돌 1개가 있는데, 이중 맷돌 1개가 1990년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며, 1992년 새안양회에서 원태우지사의거비(元泰祐志士義學碑)를 안양시립만안도서관에 세웠다.

【참고문헌】『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1991), 『안양시사』2(안양시, 2008), 「1905년 원태우의 이토 히로부미 응징의거 연구」(김명섭, 『동양학』96, 2024).

윤국노 尹國老 1936~1986



윤국노

정치인. 본관은 해평(海平). 일제강점기 평의원을 지낸 윤경섭(尹敬燮)의 아들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태어났다.

1949년 안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중학교·양정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군포에 협동비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협동화학으로 발전시켰다. 1969년 서울JC에 가입한 후 1972년 서울JC 회장, 1974년 한국JC 상임부회장, 이듬해 한국JC 중앙회장을 역임하였다.

당시 시흥군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재형(李載瀼)의 안양지역 선거대책본부가 윤국노의 집이어서 자연스럽게 팸플릿을 돌리고 합동유세장을 따라다니며 정치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오래도록 이재형의 정치 참모 역할을 하다가 마침내 1978년 당시 제6선거구였던 안양·부천·시흥·용진지역에서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어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정의당 공천을 받아 연이어 당선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재임 중에는 민주정의당 원내 수석부총무로서 대야 교섭 창구 역할을 잘 수행하였고, 제12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상공위원장 후보로서 최다 득표를 하였다. 만년에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장학회 기

금을 조성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 묘는 의왕시 청계동 청계산 아래에 있다.

【참고문헌】『안양시사』2(안양시, 2008).

이서구李瑞求 1899(광무 3)~1982



이서구

극작가 겸 연출가·언론인. 본관은 한산韓山. 호는 고범孤帆. 필명은 남궁춘. 이관규李冠珪의 아들이다. 서울 중구에서 출생하였지만, 원적지가 있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20년 『동아일보』 창간과 함께 기자로 근무하였고, 이듬해에는 『조선일보』 동경특파원이 되어 일본에 건너갔다. 1922년 동경 니혼대학[日本大學] 예술과를 중퇴하고, 1923년에는 박승희朴勝喜·김기진金基鎭 등 유학생들과 함께 동경에서 극단 토월회土月會를 창립하여 연극에 뛰어들었다. 1925년에는

언론계를 떠나 레코드회사와 경성방송국 연예주임 등의 일을 하면서 극작 활동에 전념하였다.

1935년 동양극장 설립과 함께 전속 극작가로 활약하였고, 1939년 친일어용단체였던 조선연극문화협회朝鮮演劇文化協會 회장과 1945년에는 문인보국회 극문학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그 당시 작품으로 「사람값을 한 기쁨 신시대」(1941), 「감격과 축하 신시」(1942), 「불이농장에서 신시대」(1944) 등이 있다.

해방 후 1949년에는 한국무대예술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6·25전쟁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비서실장과 국방부 중군 극작가 단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64년에는 서울시 문화위원, 1966년에는 방송인협회 이사장, 1969년에는 가정의례준칙 제정의원, 1970년에는 경기도 문화재위원, 1971년에는 서울시 문화재위원, 1973년에는 고려문화연구원장, 1974년에는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1975년에는 한국레저클럽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햇빛 쏟아지는 별판」 등 수많은 라디오 드라마를 썼고, 텔레비전 방송국이 등장한 뒤에는 주로 텔레비전 연속극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은 주로 대중의 비극적 정서에 호소한 신파희곡이 많았으며, 조선왕조의 야사를 극화한 「강화도령」이나 「장희빈」 같은 역사극에도 능하였다. 인기 드라마였던 「장희빈」은 뒤에 정창화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

들어지기도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육肉의 영광」(1923), 「동백꽃」(1925), 역사극 3부작 「폐허에 우는 충혼」·「배소配所의 월색月色」·「서광 3천리」(1925), 그리고 「어머니의 힘」(1930)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어머니의 힘」은 기생을 여주인공으로 한 전형적인 신파희곡으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동양극장 시절 임선규林仙圭 등과 함께 이 땅에 신파극을 대중극으로 토착화하는 데 기여한 극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저서로 『풍류의 뒷골목』, 『세시기』 등이 있다. 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1977년 문화훈장 보관寶冠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다수의 영화평론과 연극평론을 기고하여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실시한 문화통제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하였으며, 영화 연극인의 전쟁협력과 전쟁참여를 역설하여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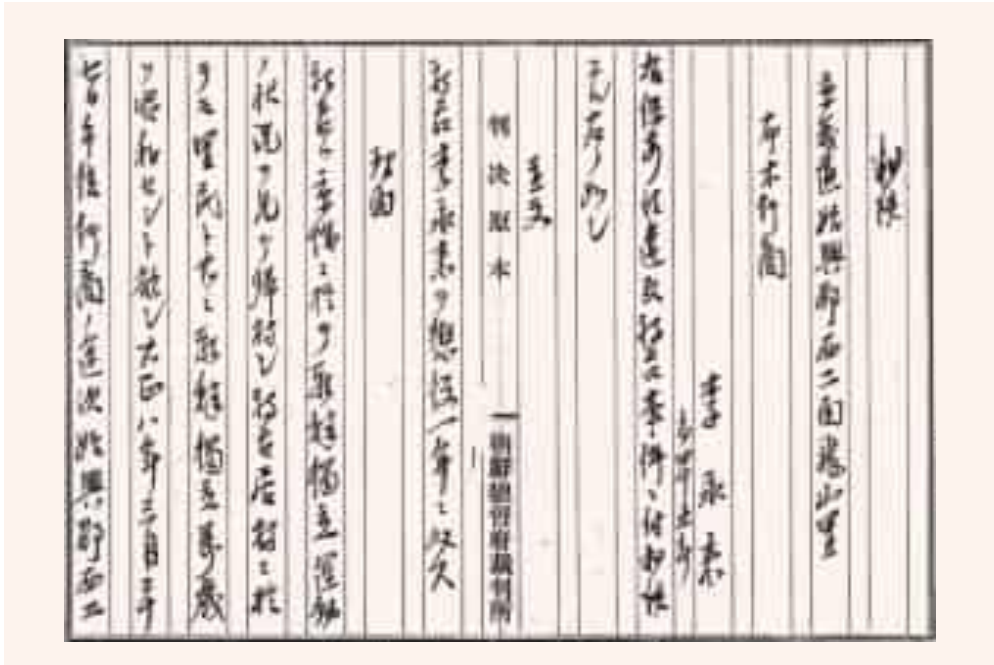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방산동에 있으며, 「홍도야 우지마라」가 새겨진 추모비가 묘역에 있다.

【참고문헌】『친일인명사전』2(민족문제연구소, 2009), 「이서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이영래李永來 1873(고종 10)~1949

독립운동가. 본관은 전주全州. 이태순李泰純의 장남으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3·1독립운동 상황을 목격하고 마을로 돌아와 1919년 3월 27일 광목행상 도중 서이면 일동리(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백기화白基和 집에 들러 그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마을에서는 조선 독립만세를 크게 불러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짚신만 삼고 있어 되겠는가?”라고 시위 참여를 독려했던 뒤 주민 5명과 함께 그 날 밤 8시경에 일동리 서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19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았으나 같은 해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다.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1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광명시로 이주해 은거하다가 8·15광복을 맞았으며, 1949년 2월 17일 별세하였다. 2007년에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쟁골에 있었는데, 군부대가 들어서자 화장되었다.

【참고문헌】『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971),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이영래(1873)」(나무위키, [https://namu.wiki/w/0이영래\(1873\)](https://namu.wiki/w/0이영래(1873))); 국가기록원, 「이영래」, 독립운동판결문(<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이영래 독립운동판결문(국가기록원)

이영섭 李英燮 1899(광무 3)~1982



이영섭

정치인. 본관은 전주全州. 안양보통학교, 중앙중학교를 졸업하고 문맹 퇴치를 위해 야학을 실시하다가 후에 흥동학교興東學校를 세웠다. 시흥군 신동면장新東面長을 지냈으며 해방 후 안양중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그 후 정계에 투신하여 1948년 시흥군 지역 제헌국회의원 선거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연이어 이재형李載滢에 쳐서 낙선하였고, 마침내 1954년 제3대 총선 때 자유당 공천을 받아 시흥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낙선되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살았다. 묘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다.

【참고문헌】『안양시사』2(안양시, 2008).

이재준 李載濬 1917~1995



이재준

사업가·교육자.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수암修巖. 이규응李奎應의 차남이자 국회의장 이재형李載瀅의 아우이다. 시흥군 남면 산본리에서 출생하였다. 가문이 별죽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1930년 군포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업을 중단하고 사업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본래 농사일을 하던 부친이 서울 서대문구에 한일정미소韓一精米所를 개업하게 되자 18세부터 아버지의 일을 거들었다.

1939년 인천시 부평역 부근에 있는 150평짜리 초가집을 매입하여 목재와 석회 등 건자재를 취급하는 부림상회富林商會를 개업하였다. 일제가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로 대규모의 조병창을 세우면서 부평에 일어난 개발 붐에 편승하여 사업이 급성장을 거듭하였고, 창업 2년 만에 매출액이 100배로 늘어 큰 이득을 보았다. 이에 본격적인 목재 생산에 눈을 돌리게 되어, 전국 곳곳에 벌목장을 만들고 원목 생산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47년 부림상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림산업주식회사大林産業株式會社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사업 종목은 건설업으로, 부평경찰서 신축을 시작으로 주로 학교와 관공서 건물을 지으며 회사 규모를 키웠다. 1954년 서울증권주식회사와 서울부동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일제강점기 때의 백화점인 조지야[丁子屋]를 관재청으로부터 임대받아 '미도파美都波'라는 이름으로 개업하였다. 그 외에 광산업에 투자하는 한편, '명보극장'을 신축하여 영화 산업에도 참여하였다. 1960년에는 건설회사인 풍림산업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이후 사업 규모를 매해 확장하고 해외 건설 사업에도 진출하여 회사를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그룹으로 성장시켰다. 1970년에는 대림학원을 설립, 이사장을 맡아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해 안양여자고등학교를 인수하였다. 1978년에는 안양에 대림공업전문학교(현 대림대학교)를 설립하였다.

1980년에는 제13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이후 1988년까지 제14·15대 회장을 연임하였다. 1990년에는 국내 및 해외 공사에서 약 1조 3000억 원의 수주액을 달성하여 '매출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 1993년에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상훈으로는 1968년 대통령 표창, 1970년 철탑산업훈장, 1972년 대통령 표창, 1973년 은탑산업훈장, 1976년 금탑산업훈장, 1981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이 있다.

【참고문헌】『대림학원 40년』(대림학원, 2007), 『덕이 있는 부가 청부(淸富)다』(제갈정웅, 열매출판사, 2003),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이재천李在天 1913~?



이재천

독립운동가. 본관은 정읍井邑 호는 우봉牛峯. 이 용환(李容煥 또는 李龍煥)의 맏아들이다. 본적인 평안남도 평원군 덕산면 삼정리 372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부친을 따라 동생 재현在賢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이주하여 동명학교東明學校를 졸업하였다. 1929년 2월에 화랑제도를 본떠 민족의식의 고취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조직된 화랑사花郎社에 입단하여 독립운동의 연락업무, 임시정부 요인의 송영送迎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소앙趙素昂의 지도 아래 『화랑花郎』이란 기관지를

발행하여 상하이 교포들에게 배포하였다. 1931년 백범 김구金九의 지도하에 상하이 한국소년동맹 조직위원장에 취임하여 무력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으며(단원 약 200명), 월간지 『새싹』을 발행하여 상하이는 물론 국내 각지로 발송하고, 3·1절 기념일에는 「3·1기념일을 경축함」이란 격문 700~800매를 인쇄하여 살포하고 조선 내로도 발송하였다. 1932년 8월 29일 기념식을 상하이 중국가中國街 침례 예배당에서 거행하였는데 등단하여 연설을 하였다.

1935년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10월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인천으로 입국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6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감옥에서 복역하였는데 1940년 8월 18일 석방된 기록이 있다. 이후 행방불명되었는데 일본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여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1963년 대통령 표창을,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시신이 없어 서울 국립현충원 무후선열제단에 위패만 봉안되어 있다. 2003년 평촌 자유공원에 동상을 건립하였다.

【참고문헌】『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동아일보』(1936. 2. 22.),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5권(국가보훈처, 1988).

이재현李在賢 1917~1997

독립운동가. 본관은 정읍井邑, 호는 해평海平. 이재두李在斗라고도 한다. 이용환李龍煥의 아들로, 시흥군 동면에서 태어났다.

1919년 부친을 따라 형 재천在天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이주하였다. 1934년 난징[南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훈련반에 입대하였고, 1939년 11월 충칭[重慶]에서 조직된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青年戰地工作隊의 공작조장으로 임명되어 20여 명의 대원과 함께 활동하였다.

1940년 중화민국 제34군단 태행산 유격대 정훈부대에 배치되어 태행산 전투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중국 산시성[山西省]으로 파견되어 중국 측 유격대와 합류해 정보 수집, 적정 탐색, 유격전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해 9월 광복군이 창설되어 시안[西安]에 본부를 둔 광복군 제5지대(이후 제2지대로 재편성)로 편입되자, 제5지대의 간부로서 장병들을 훈련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동시에 허난성[河南省], 허베이성[河北省] 등지로 나가 초모招募·선전·정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당시 이재현(뒷줄 우측 두번째)



이재현

1944~1945년 광복군 제2지대 한미합동 OSS(미국방성 전략정보처) 훈련에 통역 및 무선 조교를 담당하였다. 1945년 8월 광복군 국내 정진군 낙하산부대 제2조장을 맡아 국내 침투공작 활동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1951년에는 한미합동 미 군사고문단 JACK부대 서해지구 정보대장을 지냈다. 1985년에는 세계에스페란토협회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1년에는 제7대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후에 독립장으로 개칭)을 받았으며, 시신은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치되었다. 2003년 평촌 자유공원에 동상을 건립하였다.

【참고문헌】『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5권(국가보훈처, 1988).

장배근張培根 1909(음희 3)~1988



장배근

기업가. 자는 기준基俊, 호는 석하石霞. 참봉 장성택張聖宅의 손자이고, 장덕환張德煥의 아들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54번지에서 태어났다.

1924년 시흥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자강학원自彊學院을 수료하였다. 1932년 선만개척주식회사鮮滿開拓株式會社를 거쳐 1937년 조선직물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해방이 되자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의 공장장이 되었다. 당시 조선직물주식회사는 안양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공장이었다.

1947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낙랑직물주식회사樂浪織物株式會社를 설립하여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해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시흥군 단장과 안양 불교 용화회龍華會 회장을 지냈다. 1948년 경기도 직물공업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정계에 진출하여 한국민주당 시흥군 지부장에 선임되어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1 신병 교육대장과 이듬해 제15 신병 교육대장을 거쳐 1960년 이래로 평화보육원 이사, 시흥군 행정자문위원, 안양중학교 육성회장, 안양번영회 회장, 관악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안양의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묘는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에 있다.

【참고문헌】『안양시사』2(안양시, 2008).

조한구趙漢九 1883(고종 20)~1965

행정가.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장일章一, 호는 금운錦雲. 조선 후기 문인이자 서화가로 알려진 창강滄江 조속趙涑의 10대손으로 조동순趙東舜의 아들이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죽말에서 태어났다.

1913년 과천군 하서면下西面 면장을 지내고, 이듬해 과천군 상서면上西面과 하서면을 합하여 시흥군 서이면西二面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서이면 초대 면장을 지냈다. 1932년 안양의 대지주였던 다카세 마사타로[高瀨政太郎]가 안양에 조선직물주식회사朝鮮織物株式會社를 설립할 때 일익을 담당하였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유원지(현 안양예술공원) 수영장 개설에도 노력하였다. 1936년 시흥군 관할의 영등포지역이 서울시에 포함되자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 청사를 안양지역(현 뉴코리아관광호텔 자리)으로 유치하는 데 힘쓰기도 하였다. 오랫동안 서이면장으로 재직하며 일제의 정책에 협력한 공로로 1935년 조선총독부가 일제 강점 25주년을 맞아 300여 명을 표창할 때, 그 명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안양금융조합장을 지냈으며, 1929년 안양공립보통학교의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해방 후 1948년 국민회 시흥군지부 감찰부장과 시흥군 보승회保勝會 조사부장을 거쳐 1949년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될 때 초대 안양읍장에 임명되었다. 묘는 동안구 호계동 방죽말에 있다가 1977년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이장하였다.

【참고문헌】『조선총독부관보』, 『안양시사』2(안양시, 2008).

지운영池雲英 1852(철종 3)~1935

한말·일제강점기의 서화가 및 사진가. 본관은 충주忠州. 초명은 운영運永. 호는 설봉雪峰 또는 백련白蓮. 지익룡池翼龍의 아들이고, 종두법 시행의 선구자인 지석영池錫永의 형이다. 서울 낙원동에서 태어났다.

김정희金正喜의 제자로 여항문인閻巷文人이었던 강위姜瑋의 문하에서 시문 등을 배웠다. 1870년대 말에 청계천 광고 부근에 살던 역관譯官과 의관醫官 등 기술직 중인中人들이 강위를 맹주盟主로 하여 맺은 육교시사六橋詩社의 동인으로 활약하였다.

1882년 수신사 박영효朴泳孝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갔으며, 사진술에 처음으로 입문하였다. 1883년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주사主事로 임명되어 귀국하였고



이듬해 사진관을 설립하였다. 한국인 최초로 고종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金玉均이 정변의 실패 후에 일본으로 망명하자 1886년 그를 암살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갔다가 미수에 그치고, 일본 경찰에 잡혀 강제 귀국 당하여 영변寧邊으로 유배되었다. 영변 유배지에서 수준 높은 많은 작품을 그렸다. 이 가운데 「산거山居」라는 작품은 유배지에서의 자신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을 그린 뒤 시를 지어 그림 제목을 붙였는데 해서·행서와 같은 글씨

에도 능했다.

1889년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 황철黃鐵의 사진관에서 일하는 한편 1892년 중국의 소주와 항주 등지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1895년에는 상소문을 올려 재기를 꿈꾸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삼막사 위에 백련암白蓮庵이란 암자를 짓고



삼귀자(三龜字) 각석

그곳에 은거하며 시와 그림을 그리며 여생을 보냈다. 백련암에 은거하며 그린 작품으로 「신선도神仙圖」, 「초동樵童」, 「초부樵夫」 등이 있고, 삼막사 월암당 남쪽 암벽에 새겨진 「삼귀자三龜字」는 1920년에 암각한 것이다. 백련암은 1977년 안양대홍수 때 유실되었다.

1921년 서화협회書畫協會 정회원으로 제1회 서화협회전람회에 출품하였고, 1922년에는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산인탁족도山人濯足圖」를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독창적인 화풍은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인물과 산수를 적절히 배치하는 구성력이 뛰어났다. 대표작으로 「후적벽부도後赤壁賦圖」, 「남극노인수성도南極老人壽星圖」, 「동파선생입극도東坡先生笠屐圖」 등이 있다.

[참고문헌] 『일성록』, 『한국서화인명사서』(한양문화사, 1959), 『한국회화대관』(문교원, 1969), 『안양시사』2(안양시,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채만식蔡萬植 1902(광무 6)~1950

소설가·극작가. 본관은 평강平康. 호는 백릉白菱·채옹采翁. 채규섭蔡奎燮의 아들이다. 유년기에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군산 임피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18년 상경하여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후 1922년 졸업하였다. 그해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부속 제일와세다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23년 중퇴하였다.

그 뒤 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개벽사 등의 기자 생활을 하다가, 1936년 이후는 직장을 가지지 않고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였다. 1940년에는 인천 송도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으로 이사하여 안양과의 연관을 맺게 되었다. 그 후 1945년 임피로 낙향하였다가 다음 해 이리로 옮겨 그곳에서 폐결핵으로 죽었다. 안양에 살던 시기에 활발한 저작 활동을 하였으며, 자신이 안양으로 이사하게 된 근황에 대하여 「안양복거기安養卜居記」라는 편지 형식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1924년 단편 「새길로」를 『조선문단』에 발표하여 문단에 데뷔한 뒤 290여 편에 이르는 장편·단편소설과 희곡·평론·수필을 썼다. 특히 1930년대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장편으로는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 「탁류濁流」(1937), 「천하태평춘天下太平春」(1938), 「금금의 정열」(1939), 「아름다운 새벽」(1942), 「어머니」(1943), 「여인전기」(1944) 등이 있다. 단편으로는 「레디메이드 인생」(1934), 「치숙痴叔」(1938), 「패배자의 무덤」(1939), 「맹순사」(1946), 「미스터 방方」(1946) 등과, 희곡으로는 「제향날」(1937), 「당랑螳螂의 전

설』(1940) 등과 같은 작품들이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당시의 현실 반영과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식민지 상황 하에서의 농민의 궁핍, 지식인의 고뇌, 도시 하층민의 몰락, 광복 후의 혼란상 등을 실감 나게 그리면서 그 근거에 놓여 있는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996년 채만식소설비가 건립되었고, 2001년 채만식문학관이 개관하였고, 2002년 채만식문학상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하인 1942년 조선문인협회가 주관한 순국영령방문행사에 참석하고, 그 결과로 『춘추』 등에 발표한 산문과 1943~1944년에 『매일신보』 등에 발표한 산문과 소설을 통해 징병, 지원병을 선전, 선동했다. 1943~1944년에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주관하는 예술부문 관계자 연성회, 보도특별정신대, 생산지 증산 위문 파견 등 친일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이 밝혀져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채만식』(김윤식 편, 문학과지성사, 1984), 『안양문학사』(김대규, 20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하영홍(河泳弘) 1879(고종 16)~1915

항일투사. 본관은 진주(晉州). 세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하연(河演)의 15대손으로 하진찬(河鎭贊)의 아들이다. 관보에는 하주명(河周明)으로, 족보에는 하영홍(河泳弘)으로 나온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막골에서 태어났다.

1900년 안양시 석수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신교를 수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01년 감리교회 지도자 교육반을 수료한 후 삼막골을 기독교 마을로 만들기 위해 전도에 힘썼다. 자신의 농토를 팔아 삼막골교회를 세워 미국인 선교사 스웨어러와 70여 명의 교인이 모여 봉헌예배를 올렸다.

그 후 생활이 어려워 짚신을 팔며 생활하던 중 1904년 9월 14일 시흥 읍내에서 일어난 시흥농민봉기에 참여하였다. 시흥농민봉기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병참기지 건설과 철도 건설과정에서 과도한 역부의 모집과 시흥 군수 박우양(朴岬陽)이 역부들의 노임을 착복한 것에 항거하며 시흥의 6개 면 농민 수천 명이 항쟁한 사건이었다. 하주명 등의 농민들은 관아로 돌진하여 군옥(郡獄)을 파괴하고 봉기의 주창자인 퇴리(退吏) 김원록(金元祿) 등을 풀어주었다. 이 와중에서 군수 박우양과 아들이 돌에 맞아 사망하였다.

하주명은 광명시 출신의 집강(執綱) 성우경(成禹慶)과 함께 이 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하주명이 참여한 시흥농민봉기 기록(『시흥직산안핵사주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월 26일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김원록은 사형, 성우경과 하주명은 관리협박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김원록은 교살형에 처해졌고 성우경은 15년, 하주명은 10년으로 감형되었다. 그 후 1907년 순종이 즉위한 후 특별사면령에 의해 석방되었다. 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있었는데 1960년대 도시화로 화장되었다.

【참고문헌】『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제국기관보』, 『안양시사』2(안양시, 2008),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과정 연구」(김혜원, 『인문논총』81권 3호, 2024); 기독교감리회역사정보자료실(<http://his.kmc.or.kr>).

한항길 韓恒吉 1897(광무 1)~1979

독립운동가·교육자·기업가. 본관은 청주淸州. 호는 몽당夢堂. 한용익韓用翼의 장남으로 본명은 한흥리韓興履인데 1948년 한항길로 개명하였다. 부천군 문학면 동춘리에서 태어나 10세 때인 1906년 과천군 상서면 호계리(현 안양시 호계동)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다. 어려서 조부로부터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배우고, 1909년 호계동 낙영학교樂英學校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912년 낙영학교가 폐교하자 수원군 관내 장화익숙長華義塾에 편입하여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배웠고, 시흥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 경성고등보



한형길

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에 입학하였다.

1919년 3월 5일 등교하다 학교가 휴교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돌아오던 중 남대문 역전에서 만세 시위운동이 계획되었다는 소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남대문 역전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서대문 감옥에 구금되었다. 그는 학생 신분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 훈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에 대한 경성지방법원 신문조서를 보면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슴지 않고 “조선인이니까 조선이 독립할 시기가 오면 그때 또 할 작정이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11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국권의 회복과 구국救國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보통학교 교원양성소를 지원하여 1923년 3월 수료하였다. 그 후 경성보인학교에 부임하여 교무주임 등의 중책을 잘 수행한 모범 교원이 되었다. 그 공으로 일본학사시찰단 일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을 시찰하는 동안 일제의 학교 교육도 일인 양성정책의 일환이란 생각이 들어 귀국 후 바로 사직하였다.

일본 시찰 중 절감했던 법률 지식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1925년 경성법정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고 1928년 3월에 졸업하였다. 4월 경성매일신문사 기자로 입사하였다가 일본인들의 배척을 받아 바로 퇴사를 한 후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포천의 연초판매소 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요시찰인물이었기 때문에 함경남도 영흥, 강원도 양구 등 벽촌을 전전하면서 근무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안양으로 돌아와 산업을 부흥키 위해 안양직물공장을 설립하였다. 당시 공장 내에 공민학교를 세워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시흥군민보단장始興郡民保團長도 맡았다. 1948년 경기도에서 효자상을 받았고 이름을 항길恒吉로 개명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공장문을 닫고 호계동 본가에 있다가 그해 12월 부산으로 피란 가서 국제신문사 기자로 취직하였다. 안양직물공장은 인민군 숙소로 사용되는 바람에 유엔군이 폭탄을 투여하여 완파되었다. 안양으로 돌아와서는 완파된 공장 대신, 부천 소사공고 자리에 있던 금정공업金井工業을 인수하여 회사명을 안양직물주식회사로 등기하여 운영

하였다.

공장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1958년에는 소사공과 기술학교를 설립하였다. 1961년에는 소사고등기술학교와 소사고등기술학교 전문부가 증설되었다. 1978년 학교법인 항길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12월에 부천공업전문대학(현 부천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부천공업전문대학을 개교하고 80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묘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다.

【참고문헌】『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971), 『몽당한항길선생유고집』(몽당선생유고집편찬위원회, 1989), 『안양사』2(안양시, 2008).

3장

세시풍속과 마을신앙



이경덕 한양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연구교수



1. 안양시의 지리적 환경과 민속

안양은 경기도의 중남부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로 동쪽으로 과천시와 의왕시, 서쪽으로 광명시·시흥시·안산시와 맞닿아 있으며, 남쪽으로 화성시와 군포시, 북쪽으로 서울시와 마주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안양천 주변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짐작하게 하며 그 이후 사람들의 흔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양이라는 이름은 고려 태조 때 건립된 삼성산에 자리한 안양사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안양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과천·시흥·안산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되며, 시흥군 서이면에 속하게 된다. 이후 1941년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면서 지역 명칭이 안양으로 불리게 되었다.

안양 지역은 예부터 기본적인 생업은 농업이었으나 고구려 때 울목(栗木)이라 불리고 고려 때 부림(富林)이나 부원(富原) 등의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임야가 풍부했던 곳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숲이 많고 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여지도서』에 따르면, 안양 지역은 “농업과 양잠에 힘쓰지 않으며 인정이 많지도 야박하지도 않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조선 초에 목장을 설치했으나 울창한 숲에 서식하는 호랑이의 피해가 심해서 이전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실제로 조선 전기 문인인 조종경이 남긴 『독암유고(獨庵遺稿)』의 시문 속에 “해가 뜨면 울타리에 호랑이의 자취가 많다[日出籬邊多虎跡]”고 한 기록이나 안양 지역에 호랑이(범)와 관련된 지명이 유독 많이 남아 있는 것도 흥미롭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 호환 때문에 마을 의례가 유래했다는 기록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관양동 수춘마을 도당제는 호

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작했다고 한다.¹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속과 마을신앙은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주요 산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앞서 살펴본 안양 지역의 지리적 환경은 눈여겨 볼 이유가 있다. 이런 과거의 지리적인 특성이 반영된 때문인지 오늘날 안양 지역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대체로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산신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실제로 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단언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1992년 발간된 『안양시지』에 따르면 대부분 마을 의례를 경기도의 다른 여러 지역처럼 마을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도당제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당제라고 불리던 것이 산신제로 이름이 바뀐 것은 제의 형식, 즉 무당을 불러서 굿(도당굿)을 하는지 아니면 유교식으로 제사 의례를 치르는지에 따라 결정된 듯하다.² 이에 더해 산신이 도당제의 대상인 도당신보다 신격이 높다는 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마을 의례의 이름과 형식이 바뀐 것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안양 지역도 다른 수도권처럼 도시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생업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가치의 확산, 신도시 형성으로 외부 주민의 대대적인 유입과 의례에 참여하는 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런 여러 변화로 자연스럽게 민속과 마을신앙도 영향을 받고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안양의 지리적 환경이 안양 지역에 민속적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 있었고³ 현재 남아 있는가를 세시풍속과 현존하는 마을신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해마다 일정한 때에 일정한 행위 또는 행사를 해 온 시간에 따른 고유의 풍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기에 세시풍속은 생활의 수단이 되는 산업에 크게 의지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오랫동안 농경으로 생활을 꾸려왔기 때문에 세시풍속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안양 지역에서도 한반도의 여러 지역처럼 예부터 농업을 토대로 한 세시풍속을 따르며, 정월 설날의 세배와 떡국 먹기로 시작해서 정월대보름에 닭고놀이를 했으며, 봄이 오면 꽃놀이를 하고 5월이 되면 단오축제를 열었으며, 김을 매고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

에 마을의 안녕과 감사가 담긴 마을 의례를 치르고 겨울을 맞이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생활 기반이었던 농경을 토대로 한 기존의 세시풍속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급속도로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시대적 변화 요인으로 해서 세시의 기본이 되는 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그로 인해 오랜 세월이 땅에서 행해졌던 풍속이 지닌 힘과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⁴

특히 최근 들어서 세시풍속의 본래 의미는 생활 속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습⁵이 오늘날 별 의미 없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된 사례처럼,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든 형태로 전승되거나 전통문화의 보존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국가나 지자체·문중 등 집단의 의지를 토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기존의 세시풍속 가운데 오늘날 그 흔적이 남아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휴일과 관련이 있는 명절, 즉 설이나 추석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휴일은 새로운 세시풍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안양을 포함한 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의 휴가 일정이나 세계화로 인한 외국의 행사, 예를 들면 할로윈 같은 행사가 청년 문화에서 수용되고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세시풍속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따라서 과거의 세시풍속을 답습 또는 고집하며 접근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작업이 된다.

한편 앞서 지적한 외래의 풍습이 담긴 새로운 풍속은 현재 진행 과정에 있는 상태⁶라 그 또한 변화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세시풍속에 관한 고찰은 현상에 대한 지적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현재 안양 지역의 세시풍속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체로 휴일과 겹치거나 과거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남아 있는 설이나 대보름, 추석 등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세시풍속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앞에서 예를 든 떡국의 사례처럼 이 역시 산업의 변화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예부터 전승된 세시풍속에서 오늘날 주목을 받는 분야는 의식주보다는 주로 전통놀이나 의례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미래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전제를 토대로 현대사회에 들어와 세시풍속은 각 가정에서 지켜지는 절기 풍속 외에 대부분은 지역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통 민속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안양도 이와 같아 현재 안양문화원과 민속보존회를 중심으로 절기 행사로 펼쳐지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열두발 상모틀리기

1) 정월대보름 행사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 명절로 한자어로는 ‘상원(上元)’이라고 한다. 상원이란 중원(中元 : 음력 7월 15일, 백중날)과 하원(下元 : 음력 10월 15일)에 대칭이 되는 말로서 이것들은 다 도교적인 명칭이다. 이날은 우리 세시풍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로 설날만큼 비중이 크다. 따라서 가정마다 한 해의 풍흉(豐凶)과 개인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기도 하였다. 안양의 정월 세시풍속은 과거 경기 중남부의 시흥군에 속한 관계로 주변 지역과 유사성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1924년부터 1941년 사이에 발간된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鄉土娛樂)』에는 시흥 지역에서 정월 세시풍속으로 윷놀이와 줄다리기·달맞이와 달점·쥐불놀이·널뛰기·연날리기가 있으며, 특히 답교놀이는 “오후 6시경부터 10시까지 행하며 참가자는 줄을 맞추고 선두에는 악대가 서고 다리를 세 군데 건넌 후 돌아간다”라는 기록이 있다.⁷

현재 안양 지역의 정월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는 수도권에서 널리 알려진 정월의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⁸ 2004년에는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희망맞



안양만안답교놀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부럼깨기와 귀밝이술 나누기





풍등



'2024년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안내 포스터

이 안양천 대보름 축제'로 시작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안양문화원에서 주관하여 현재 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 초기에는 풍등과 강통 돌리기, 쥐불놀이 등이 있었으나 안전과 화재 예방 등으로 2015년부터 일부 종목이 중단되었다.⁹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87년 복원되어 2022년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안양만안답교놀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답교놀이는 줄다리거나 연날리기 등 많은 전통놀이가 행해진 정월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행해진 놀이로, 다리를 밟으며 건강을 기원하고 한 해의 활기찬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전통 세시풍속이다.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가 주관을 하며 만안교에서 답교놀이에 더해 길놀이와 다리밟기, 무동춤놀이, 선소리꾼놀이, 대동놀이 등 여러 놀이와 함께 진행한다. 만안교는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돌다리로, 조선시대 정조가 수원으로 능행 시 임시로 사용한 목교를 돌로 만든 다리이다. 안양만안답교놀이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와 함

게 진행되며 달집태우기도 함께 진행된다.

정월 대보름 달맞이와 안양만안답교놀이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만안답교놀이는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되고 정월의 달맞이와 연계된 진행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은 지난 과거의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가와 현재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세시풍속을 토대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지향성을 계승하는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하겠다.

2) 단오제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단端은 첫 번째를 의미하고 오午는 다섯을 의미하는 오五을 뜻하며, 1년 중에서 양陽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이기도 하며 수릿날·천중절이라고도 한다. 특히 더운 여름을 맞기 전, 초여름에 지내는 명절로서 벽사 및 더위를 막는 신앙적인 관습이 많았고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가 주가 되었다. 따라서 모내기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단오제端午祭를 개최하였다. 이때 민간의

줄타기 공연





제36회 안양단오제



창포물에 머리 감기

풍속으로 부녀자들이 유일하게 밖에서 그네를 뛰는 그네 타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남성들의 씨름, 수리취 잎을 찢어서 땀쌀가루를 넣고 둥글납작하게 빚어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모양을 만드는 수리취떡,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라는 의미의 단오부채 선물 등이 대표적인 단오 풍습이었다. 안양 지역에서 시민 축제 형식의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단오제는 1979년 '안양단오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¹



'제38회 안양단오제' 개최를 알리는 포스터

3. 마을신앙

마을신앙은 한 마을이 단위가 되어 행하는 신앙으로 당제, 산신제, 서낭제 등의 의례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마을의 신인 도당신을 모시는 도당굿 또는 도당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마을신앙이 지향하는 것은 산신이나 용신, 도당신 등 마을과 관련된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로움 등의 기원과 감사이다. 마을신앙의 구체적인 형태인 의례는 크게 유교식과 굿의 형태로 나뉜다.

안양 지역에서도 예부터 여러 신을 향한 신앙이 담긴 마을 의례가 많이 행해져 왔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안양 지역은 마을마다 도당제를 지냈고 산림이 울창했던 까닭에 예부터 산신제가 많이 전승되었다. 그리고 산신제와 짝이 되는 용신제¹²도 곳곳에서 행해졌다. 이 글에서는 과거의 기록이나 흔적이 남아 있으나 현재는 전승이 중단된 마을 의

례만 간략하게 다루려고 한다.¹³

먼저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기 전에 마을 의례의 전승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원인은 사회변화, 특히 주요 산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기존 농경을 토대로 했던 생활이 수도권에 속한 지역의 특성상 상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크게 변했다. 즉 기존의 산업을 토대로 했던 마을 의례의 쓰임새가 줄고 그 가치가 약해졌으며, 여기에 아파트로 상징되는 대규모 거주 시설이 들어서면서 외지인의 유입도 급증하면서 기존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정적 시선이 더해졌다. 그로 인해 마을의 전통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폐쇄성을 지닌 의례는 마을에서 주류가 아닌 주변의 일이 되고 말았고, 의례의 주관자 역시 후대의 계승이 힘들어지며 과거의 전승자 중심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여기에 전승자의 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의례가 쇠락 또는 중단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 환경의 물리적인 변화도 마을 의례의 쇠락과 중단을 불러왔다. 용신제를 사례로 들면 예나 지금이나 물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맑은 식수나 농사를 위한 용수를 용신 또는 용왕이 주관한다고 믿었으나, 오늘날에는 수자원공사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신앙의 대상에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가정마다 수도가 생기면서 우물은 효용성이 사라졌고 우물고사나 정제 등을 포함한 용신제는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마을 의례도 용신제처럼 신앙의 대상이 지닌 힘이 약해지거나 지역 내에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근대에 수용된 다른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이 과정에서 쇠락 또는 중단의 길을 걸어야 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 의례는 그 본래 의미, 즉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유지할 의지와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계속 전승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 지역에서 예부터 전승되다가 현재는 중단된 마을 의례는 대부분 산신제와 용신제(우물고사)이다. 그러나 과거 마을 의례는 무당을 불러 도당굿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는 주로 도당제 또는 당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구체적으로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악산 아래에 있는 비산동은 예부터 여러 곳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현재는 비산1동에 속한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과거에는 비산3동에 속한 안날미마을에서도 산신제를 지냈다. 안날미는 안양종합운동장 북쪽에 자리한 마을로, 비산동 골짜기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안날미마을은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개천을 따

라 동쪽을 웃말, 서남쪽을 아랫말로 불렀고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골라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산신제(당제)를 지냈다. 산신제를 지낸 곳은 안양종합운동장 북쪽에 있는 덕왕 묘 위에 있는 노송 앞이었다. 그러나 마을이 발전하고 외지인이 많이 유입되면서 1970년대 말 중단되고 말았다.

비산동과 인접한 관양동에서도 예부터 마을 의례를 거행했고 현재도 수촌마을에서는 예부터 전승된 마을 의례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촌마을(뺨말)과 함께 가운데말과 말무덤이도 함께 의례에 참여했다. 가운데말, 즉 중촌은 조선 시대에 내시부에서 일했던 내시가 죽으면 묻히던 곳이었다. 내시들이 세거해서 살던 곳은 인근의 인덕원이었고 그곳에서 살던 내시가 죽으면 가운데말에 묻힌 것이다.¹⁴ 이 가운데말 주민과 인근 말무덤이의 주민들은 뺨말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 1일 뺨말 뒷산에서 산신제를 함께 거행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면서 종교적 갈등이 발생했고 의례를 지내는 곳이 뺨말 뒷산이라는 점도 함께 작용해서 현재 뺨말에서는 의례를 지내지만 가운데말과 말무덤이에서는 참가하지 않는다.

안양시의 남쪽에 자리한 안양9동에 속한 창박골에서도 과거에 산신제를 지냈다. 이 마을이 창박골로 불린 것은 지역의 산골에 유독 바위가 많았는데 바위의 색깔이 대부분 푸른색이어서 창박골이 되었다는 주장과 안양예비군 교육장 서쪽에 구멍이 뚫린 큰 바위가 있는데 창처럼 생겨 창바위라고 불렀고 그 이후 바위의 안쪽을 창암골, 바깥쪽을 창박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창박골에서 산신제를 지낸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다. 당시에는 음력 7월 1일에 산신제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안양동의 위쪽에 자리한 박달동에는 고개 아래에 웃말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부자가 화재로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겼고 범고개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범고개마을이라고 불렸다. 범고개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안양과 안산을 잇는 도로가 개설되고 마을에 여러 공장이 들어서면서 번창했다. 범고개마을에서는 지난 세기까지 음력 10월 2일에 범고개 요골 초입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현재의 갈산동은 조선 시대에 정조가 수원으로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행차할 때 지나던 길목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주요 분기점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예부터 매우 번성했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있던 당살미, 뒷말 주민들은 음력 10월 초에 좋은 날을 택해서 모락산 중턱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마을 의례가 사라졌고, 1990년대에 평촌신도시에 편입되면서 마을 자체도 사라졌다.

산신제 외에도 관양동에 속해 있는 부림말에서 정제(우물고사)를 지냈다. 부림말은 가운데말 동쪽에 자리한 마을로, 예부터 숲이 울창하고 부자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림말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 되면 관양우체국 옆에 있던 박우물과 신장로우물, 윗우물이라고 불리는 부림우물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정제를 지냈다. 이때 마을 주민들은 우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의례를 거행했는데, 1988년부터 중단되었다고 한다.

한편 조선 시대에 농사에 쓰일 물을 확보하기 위해 독을 쌓은 것에서 유래한 방죽말¹⁵에서는 군웅제를 지냈다. 달리 전하는 말에 따르면 명칭이 군웅제가 아니라 도당제 또는 마을굿¹⁶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방죽말은 현재의 호계2동에 속해 있는데, 과거 음력 10월 초에 좋은 날을 정해서 방죽 앞에 있던 수령 300년쯤 된 향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웅제를 지냈다. 마을에서 지내는 군웅제의 군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을 막아주는 힘을 지닌 신령으로, 방죽말에서는 향나무가 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향나무가 고사하여 신앙의 대상이 사라지자 군웅제 역시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말았다.

4. 오늘날의 마을신앙

오늘날 안양시에서는 도시화 및 산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전통적인 마을신앙을 보여주는 마을 의례가 행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단골무당을 불러서 도당굿의 형태로 치르지는 않으나 대체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양시와 안양문화원 등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 의례가 지닌 본래의 의미인 마을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도모하는 의례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의 지원을 받는 7개의 마을 의례(안양 관내 마을제)와 최근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수리산 산신제, 한때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덕고개 우물제까지 모두 9개의 의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 안양시에서 진행되는 마을 의례는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 지나 신도시보다는 전통성이 남아 있는 옛 마을이나 산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마을 의례의 명칭도 산신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런 마을 의례의 특성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젊은

세대의 참여는 매우 드물며 과거부터 의례에 참여했던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안양시만의 특징은 아니다. 따라서 지자체나 문화원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존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안양시의 경우에는 안양 관내 마을제라는 형태로 7개의 마을 의례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

여러 마을 의례를 하나로 묶은 안양 관내 마을제는 마을 의례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존의 도시화와 마을 주민의 고령화, 종교문화의 가치 변화 등에 더해서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마을 의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안양시에서 행해지는 마을 의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쌍으로 산신제를 지내는 이른바 쌍산신제(쌍신제)가 두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쌍이 되는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삼막골에서는 할아버지에게 먼저 제를 올리고 다음으로 할머니에게 제를 올리며 석수동의 경우에는 서로 신호해서 같은 시간에 제사를 올린다. 이렇게 쌍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음양 사상이나 마을의 화합¹⁷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마을 의례가 주로 산신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안양시에서 행해지는 마을 의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안양시에서 행해지는 마을 의례

명칭	지역(행정동)	특징 및 내용	비고
삼막골 쌍신제	석수1동	날짜: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2회) 장소: 마을회관(느티나무), 하천 공원(향나무: 2010년 이전, 당 우물 복원 의사)	안양 관내 마을제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	인덕원동	날짜: 음력 10월 1일 장소: 송정명·이태응 영세불망비 소재지	안양 관내 마을제
수촌마을 도당제	관양동	날짜: 음력 10월 2일 장소: 옷당·서낭당·아랫당(3곳)	안양 관내 마을제
석수동 할머니산 산신제	안양2동	날짜: 음력 10월 3일 장소: 관악산 기슭 산신제단	안양 관내 마을제
석수동 할아버지산 산신제	석수1동	날짜: 음력 10월 3일 장소: 삼성산 산신제단	안양 관내 마을제
비산동 매봉산 동고제	비산1동	날짜: 음력 10월 2일 장소: 매봉산 약수터 부근 제당	안양 관내 마을제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	충훈동	날짜: 음력 10월 3일 장소: 꽃메산 중턱	안양 관내 마을제
덕고개 우물제	호계1동	날짜: 음력 7월 2일 장소: 덕현지구 근린공원(2025년 예정)	2009년 복원
수리산 산신제	안양9동	날짜: 4월 마지막 일요일 장소: 병목안시민공원	2024년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

1) 삼막골 쌍신제

삼막마을은 삼막골이라고도 불리는데, 통일신라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삼막사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원효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삼막사는 관악산 자락에 있으며, 서울 근교에 있는 4대 명찰 가운데 하나로 꼽을 정도로 명성이 높은 사찰이다. 삼막사에서 이름이 유래한 삼막마을은 조선 초기에 영의정을 지냈던 하연의 후손들이 500여 년 전에 이곳에 정착한 이후 집성촌을 형성해서 하씨마을이라고도 불렸다.

삼막마을에서는 예부터 음력 7월과 10월 초하루에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신목에 당제를 지내왔다. 신목은 석수1동 마을회관 앞에 있는 수령 500년이 넘어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와 향나무로 마을에서는 각각 서낭할아버지와 서낭할머니로 부르며 당제를 지내는데, 두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쌍신제라 부른다. 느티나무는 높이 25m, 굵기 5.3m에 이르는 큰 나무이다.



할아버지나무(느티나무)



이전 할머니나무(향나무)가
1977년 대홍수로 고사된 이
후 옆에 새로 심은 은행나무



할아버지나무 제사



할머니나무 제사



할머니나무 우물 고시례

신목이 위치한 곳은 경인교대로 가기 전 삼막천 상류를 향해서 가다 보면 도로 옆에 할아버지나무가 있고, 100여m 더 올라가면 할머니나무가 있다. 할머니나무인 향나무는 1977년 대홍수 때 뿌리째 뽑혀서 사유지에 옮겨 심어 제사를 지내다가 2010년 인근 하천 부지에 이식하고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삼막골 쌍신제는 오전에 마을의 귀한 식수원이었던 우물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후 3시쯤에 할아버지나무(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낸 다음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할머니나무(향나무)에 제사를 지낸다. 오늘날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는 소머리와 팔시루떡, 막걸리, 삼색 과일, 떡, 산자, 통복어 등을 사용한다. 제사 형태는 삼헌(초헌·아헌·종헌), 축문 낭독, 소지, 음복 순으로 이어지는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삼막골 쌍신제의 유래는 마을 형성 이후 예부터 지내왔을 것이라는 추정¹⁸과 6·25전쟁 직후에 미군이 할아버지나무인 느티나무를 땀감으로 썼다가 그날 밤 부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라는 주장이 있다. 뒤의 주장은 원인 모를 화재가 할아버지나무의 노여움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한편 할머니나무 근처에 식당이 들어서면서 제사를 지내던 우물이 주차장 건설로 매

몰릴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우물 위에 맨홀 뚜껑을 덮어서 우물을 보존했다. 삼막골 주민들은 기회가 되면 예전에 사용하던 당 우물을 하천 부지에 있는 할머니나무 옆으로 이전해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안양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여러 이유로 우물고사가 사라진 상태이다. 오랫동안 삼막골 쌍신제는 마을 주민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최근에는 안양문화원에서 도움을 주고 주변에 문화유산으로 소개되면서 주민 외에도 여러 사람이 구경하러 온다. 쌍신제가 끝나면 쌍신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화합을 다지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2)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

인덕원마을은 인덕원동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인덕원은 조선 시대에 내시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궁궐에 출입하며 높은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기에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고 그로 인해 인덕(仁德)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곳에 관리들의 숙소인 원(院)이 생기면서 인덕원이라는 이름과 건물이 생겼다.



이태응 영세불망비



송정명 영세불망비



인덕원마을 현감 당제

인덕원이 이곳에 생긴 것은 이곳이 조선 시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정조가 수원에 있는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시흥 쪽 길을 이용하기 전에 과천을 지나 인덕원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나 인덕원은 임진왜란 때 없어졌고, 현재는 터와 이름만 남아 있다.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의 대상인 비석은 모두 2개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는 이태응 비석만 있었으나 해방 이후 비석이 외로워 보인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주변에 있던 송정명 비석을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전한다.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의 제사 대상인 두 비석은 송정명·이태응 영세불망비이다. 영세불망비는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세운 비석을 일컫는다. 영세불망비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송정명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703년 과천 현감을 지냈고 여러 지역의 관찰사를 역임했다. 송정명 영세불망비는 1704년 건립되었고, 앞면에 ‘현감송정명영세불망비 縣監宋正明永世不忘碑’라고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건립 연월 등이 적혀 있다. 이태응 역시 1866년 과천 현감을 지냈고, 1869년 건립된 비석의 앞면에는 ‘현감이

태응영세불망비(縣監李泰應永世不忘碑)'라고 새겨져 있다. 특히 이태응 비석은 마을의 길흉을 좌우한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이 오늘날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당제)로 이어졌다.

비석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비석이 길흉을 좌우한다는 속설 때문에 자주 도난을 당했다는 점이다. 어느 마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비석을 산에 갖다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전한다.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에서 유래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탓에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는 해마다 쉬지 않고 거행해 왔다.

2023년 11월 13일에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는 69회를 맞이했다.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는 달리 인덕원 현감 당제 또는 현감제라고 부른다. 이 의례를 주관하는 것은 인덕원마을회이며,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의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 회의 공동기금으로 준비하고, 제물로는 돼지머리·삼색 과일·포·탕·팥시루 등을 올린다.

인덕원마을을 현감 비석제는 오후 1~2시에 시작되는데, 제의 절차는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유교식으로 진행되고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의례가 끝나면 주변 공원이나 복지회관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뒤풀이를 하고 마치는 형태로 일정이 진행된다.

3) 수촌마을 도당제

수촌마을은 안양시 동안구의 동북쪽에 있는 법정동인 관양동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관양동은 관악산 아래에 양지바른 동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관양동은 조선 시대에는 과천에 속해 있었고 1914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가 되었다. 서이면이 안양면과 안양읍을 거쳐 1973년 안양시로 승격될 때 관양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관양동에는 예부터 가운데말·골안·오촌말·셋말·뺨말·말무덤이·부림말 등 여러 자연마을이 존재했다.

관양동에 속한 여러 자연마을에서는 예부터 마을 의례를 거행했다. 예전에는 7개 마을이 참여하는 공동 의례를 거행했다. 당시에는 밤에 산신제를 지냈는데 해가 지면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 산신제는 규모가 컸기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

이후 뺨말과 가운데말·말무덤이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 되면 뺨말 뒷산에서 오랫동안 산신제를 지냈으나, 1960년대 초반 인근에 교회가 들어서고 산신제를 지내는 곳



수촌마을 도당제 당집(웃당)



당집 내부와 진설



서낭당(중당) 제사

이 뺨말 뒷산이라는 이유로 산신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해마다 음력 7월 1일 현재의 관양우체국 옆에 있던 박우물과 신장로우물·부림우물(윗우물)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제(우물고사)를 지냈는데, 우물 주변에 민가가 들어서고 샘물이 끊기면서 우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1988년부터 제사가 중단되었다.

오늘날 관양동에서 마을 의례를 올리는 곳은 수촌마을로 해마다 음력 10월 2일 도당제를 거행한다. 수촌마을은 앞의 자연마을 가운데 뺨말의 다른 이름이다. 뺨말은 빼어난 [秀] 마을[村]이라는 뜻으로, 이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수촌마을이 된다. 한편 뺨말이라는 말은 이 지역에 뺨대쑥이 많이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뺨말은 “언젠가 김해 김씨인 한 유생이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땅이 비옥하고 산세가 뛰어난 이곳을 보고 마음에 들어 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상주 김씨와 연안 차씨가 함께 살게 되면서 이 지역의 주요 성씨가 되었다. 마을은 이런 고사를 토대로 1500년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예부터 마을 의례를 올리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제사를 주관하는 당주를 정하는 것이었다. 당주는 몸가짐이 바르고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서 골랐



신목 느티나무(아랫당) 제례

다. 과거에는 당주로 정해지면 제사를 마칠 때까지 바깥출입도 삼가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대문 앞에 진흙(황토)을 발라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안당주와 바깥당주를 뽑아서 두 사람이 마을 의례를 준비했으나 현재는 당주 1명만 뽑는다.

수촌마을의 도당제는 다른 지역 마을 의례와 달리 하루에 세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것은 수촌마을에 각각 옷당, 서낭당, 아랫당으로 불리는 당이 세 곳이기 때문이다. 옷당은 관악산 중턱의 낮은 봉우리에 있으며, 서낭당은 옷당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소나무이며, 아랫당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수령 550년이 넘는 느티나무로 처음 입촌한 김해 김씨 유생이 심은 것으로 추정한다.

수촌마을 도당제는 옷당에서 시작된다. 옷당의 제사는 산신제(관악산 산신제)라고도 부르는데, 수촌마을 뒷산 꼭대기에 있는 당집에서 거행된다. 당집은 현대아파트 뒤쪽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데, 1칸 정도 크기에 벽돌을 쌓아 만든 작은 집이며 당집 안에 신을 상징하는 무신도와 같은 물건이 있지는 않다(과거에는 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전한다).¹⁹ 당집 안에는 시멘트로 만든 제단이 있어서 그곳에 음식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옷당에서 지내는 산신제는 관악산 산신에게 과거 안양 지역에 많았던 호랑이로 인한 피해를 피하게 해 달라는 기원을 담은 의례로 출발했다.

서낭당은 산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데, 옷당에서 아래쪽으로 길을 따라 10분 정도 내려오면 소나무가 있고 그 앞에 넓고 검은 너럭바위가 제단처럼 놓여 있는 곳이다. 실제로 이 너럭바위에 음식을 진설하고 간소하게 의례를 거행한다.

세 번째 의례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신목인 느티나무 앞에서 치르는 도당제이다. 과거에는 단골무당이 있어서 도당굿 형태로 도당제를 진행했다고 전한다. 특히 40여 년 전까지 과천의 ‘찬우물’이라는 동네에 거주하던 단골무당이 와서 도당굿을 크게 했다고 전한다.²⁰ 오늘날에는 옷당의 산신제부터 서낭당, 아랫당 도당제까지 모두 술을 신에게 올리는 헌작, 즉 초헌·아헌·종헌으로 이루어진 삼헌과 축문을 읽는 독축, 소지와 음복 등으로 구성된 유교식으로 거행된다.

과거에는 옷당과 서낭당, 아랫당에 진설하는 음식을 각기 따로 마련했으나 비용 등 여러 이유로 현재는 같은 음식을 올린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술에 더해 삶은 소고기 머리와 시루떡, 흰떡, 삼색 과일 등이다. 수촌마을 도당제를 주관해 온 것은 수촌마을번영회이며, 안양시와 안양문화원 등 공공기관과 여러 단체에서 마을 의례를 지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7개 자연마을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마을 의례를 올렸으나 현재 수촌마을(뺨밭) 주민들만 참여하고 있다. 과거 도당굿을 치를 때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나 오늘 날에는 과거에 비교해 참여 인원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례를 거행한다는 것과 시청과 문화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석수동 할머니산 산신제

석수동 할머니산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3일 오후에 진행된다. 할머니산 산신제를 지내는 할머니산은 과거 안양유원지였던 안양예술공원을 싸안고 있는 형국으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주는 모습이다. 관악산 기슭에 있는 이곳에서 예부터 산신제가 행해졌다. 흥미로운 것은 석수동의 할아버지산 산신제와 같은 시간에 산신제를 지내기 때문에 함께 ‘석수동 쌍산신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할머니산 산신제와 할아버지산 산신제는 사전에 조율해서 같은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관례로 삼아 왔다. 과거에는 횃불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소리로 신호를 했으나, 현재는 휴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맞춘다.

할머니산 산신제는 안양2동 별장가든 뒷산 산신제단에서 진행된다.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산으로 오르는 길에 우물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단과 함께 우물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관례이다. 제단은 위쪽에 있고 ‘산신제단’이라고 한자로 적힌 바위 아래 자리하고 있다.

할머니산 산신제를 지내기 3~5일 전에 조라술을 담가 항아리에 담아 제단 주변에 묻었다가 산신제 당일 사용한다.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새끼줄을 꼬아 제단 주변을 묶어서 부정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제단 뒤에 두 갈래로 뚫은 벼짚을 두는데 할머니의 갈래머리를 상징한다. 산신제는 삼헌과 축문낭독, 소지, 음복 등으로 이어지는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5) 석수동 할아버지산 산신제

석수동은 관악산과 삼성산에 둘러싸인 안양유원지(현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석공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원래는 석수石手였으나, 1932년 이곳에 석수수영장



석수동 할머니산 제단과 산신제



석수동 할아버지산 산신제

이 개설되면서 석수石水로 바뀌었다.

석수동 할아버지산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3일 할머니산 산신제와 시간을 맞춰 같은 시간에 지낸다. 두 산신제는 같은 시간에 함께 지내기 때문에 쌍산신제 또는 쌍신제라고도 불린다. 산신제가 열리는 할아버지산과 할머니산은 삼성산에서 발원해 흐르는 삼성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즉 삼성산을 할아버지산이라 부르고, 관악산 자락을 할머니산으로 부른다. 관악산이 바위도 많고 울퉁불퉁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남성적인데 할머니산으로 불리게 된 것은 관악산에 족두리봉이 있고 삼성산에 감투봉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할아버지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즉 석수1동 김중업박물관 뒤쪽으로 돌아서 삼성산 무량사 뒷산에 있는 산신제단이 목적지이다. 무량사 뒤쪽 계단을 조금 오르면 산신제단이 나타난다. 산신제단 주변에는 돌탑을 여럿 쌓아 놓은 게 보이고, 한자로 ‘산신제단’이라고 쓴 비석 앞에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다.

할아버지산 산신제는 비가 오면 제단 아래쪽에 있는 무량사에서 열린다. 산신제단 앞에서 산신제를 지낼 수 없을 때 가끔 무량사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때에는 무량사의 스

남도 산신제에 참여한다고 전한다. 그리고 무량사 앞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나 과거에는 산신제를 준비할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이 있다.

석수동 쌍신제는 오후 늦게 제사를 올리기 때문에 산신제가 끝나면 저녁이 되고 자연스럽게 산신제에 참여한 주민과 준비한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음복 겸 저녁 식사를 나누며 산신제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 마을 주민의 화합과 평온함을 도모한다.

6) 비산동 매봉산 동고제(산신제)



매봉산 동고제

갑자기 날아와 생긴 산[飛山]에서 유래한 비산동에서는 200여 년 전부터 산신제를 지내왔다. 비산동은 비봉산 아래 자리한 지역으로, 예전에는 깊은 골짜기에 울창한 숲이 있었던 곳이다. 일례로 비봉산 자락에 있는 망해암으로 오르는 길 초입에 수푸루지[林谷]라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산동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된 것은 오늘날의 비산사거리 앞에 1978년 대림대학이 들어선 이후의 일이다. 이후 택지가 개발되고 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풍경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비산동에는 과거 수푸루지를 비롯해 운곡(구름울)·매곡(마장골)·희성촌 등 여러 마을이 있었고,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년 10월 초에 한자리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왔다.

제사를 지내는 제당은 현재는 폐업한 평화보육원을 지나 동쪽으로 가거나 안양 종합운동장 뒤쪽으로 오르면 매봉산 약수터 인근 제당이 나타난다.

현재도 비산 1동과 3동에 속한 임곡·매곡·운곡 마을이 주축이 되어 산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일에 산신제를 지낸다. 특히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주민 80여 명이 모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비산동 매봉산 동고제는 팔시루떡·소머리·통북어·오색전·삼색 과일 등으로 구성된 제사상을 차리고, 3명의 제관이 산신에게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축문을 낭독하고 소지를 태우는 유교식 형태로 의례를 치른다. 그리고 산신제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음복으로 마무리한다.

7)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

석수동에는 야트막한 야산이 줄지어 있는데, 각각 와룡산(116m), 석수산(176m) 그리고 꽃메산(125m)이다. 이들은 서로 이어져 낮은 산등성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꽃메산 아래에 충훈부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다.

충훈부忠勳府는 원래 조선시대 국가에 공훈이 많은 공신을 취급하는 관청으로, 처음 이름은 공신도감·충훈사였으나 세조 때 충훈부로 바뀌었다. 당시 충훈부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토지를 일반 농민에게 도지를 받고 경작하게 했다. 충훈부의 땅을 경작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이름 또한 저절로 충훈부마을이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지역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안양리와 석수3동을 거쳐 2024년부터 충훈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이 바뀌었다.

꽃메산 아래 과거 충훈부마을에서 음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

력 10월 3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산신제를 지낸다.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는 7개 의 안양 관내 마을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8) 덕고개 우물제

덕고개는 지역의 명칭인 덕현(德峴)을 풀이한 말로, 호계동에 자리해 있다. 덕고개가 속한 행정지명인 호계(虎溪)는 과거 이 지역에 호랑이(범)가 많았던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며, 현재도 덕고개 당숲과 덕고개마을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 덕고개는 과거 크고 높은 고개였는데 1936년 서울-과천-남양을 잇는 도로를 개설할 때 현재의 모습처럼 높이가 낮아졌다.

덕고개 아래 자리한 덕고개마을에는 예부터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다. 풍수에 따르면 덕고개마을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형국이기 때문에 우물을 여러 개 파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마을 중앙에 돛을 상징하는 우물을 하나 파서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고 전한다. 그리고 거센 바람으로부터 배(마을)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호계시장에서 북쪽으로 100여 m쯤 떨어진 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 방풍림을 조성했다(오늘날에도 이 지역을 '수풀 아래'라고 부른다).

덕고개마을에서는 이렇게 귀중한 우물을 보호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매년 7월 2일(음력)이 되면 우물 주변을 청소하고 우물 앞에 제단을 차려서 맑고 건강한 물을 기원하는 덕고개 우물제를 지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안양 지역에 불어닥친 개발과 도시화로 덕고개마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즉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우물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우물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터가 팔려 나갔다. 물론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오면서 우물의 활용이 사라졌다. 이렇게 덕고개마을 공동 우물의 실제적인 활용이 사라지자 1988년 이후 우물제 또한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예부터 전해진 마을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오랫동안 전해진 우물에 얽힌 전승을 후대에 전하고 마을의 역사를 계승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였고, 그 결과 1999년 시의 지원을 받아서 호계1동 복지회관 옆에 비석을 하나 세웠다. 비석에는 덕고개 정제비(井祭碑)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비석이 세워지고 여러 주민의 노력으로 10여 년 이상 중단했던 우물제를 복원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회에 걸쳐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2019년 덕

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1999년에 세웠던 정제비가 철거되었고 그동안 올렸던 우물제도 지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정제비는 호계1동 신청사 부지 내에 보관 중이다.

마을 주민들은 덕현지구 근린공원²¹이 완공되면 덕고개 정제비를 예정된 공원 내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덕고개 우물제도 부활시킬 예정이다. 덕고개 우물제는 달리 덕현정제 또는 덕현우물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덕고개 정제비

5.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안양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을 마을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늘날 마을신앙의 가장 큰 과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존속과 미래 지향성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안양 지역의 마을신앙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안양 관내 마을제’라는 형태로 예부터 전승되어 온 마을 의례 7개를 정해서 지자체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를 주목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 이유로 쇠퇴하고 있는 마을 의례의 존속, 더 나아가 미래 지향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인 마을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과 동기 부여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안양 관내 마을제’라는 분류를 통한 관리는 존속과 미래 지향을 위한 훌륭한 동기 부여가 된다. 물론 비용 지원도 좋은 동기 부여가 된다. 여기에 수리산 산신제의 사례처럼 향토문화유산으로의 지정도 이 관리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도 눈에 띄는 점이다. 문화유산의 존속과 미래 지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례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의지이다. 외부적인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 아니라면 참여자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

인 동인이 된다. 그런데 안양의 마을 의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들어온다. 그 원인으로 무형유산에 관한 문화적 가치의 변화와 도시화가 안정적으로 접어들면서 각 마을의 고유성 확보, 공공기관의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16년 「무형문화재보호법」²²이 시행된 이래 많은 지자체는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의례에 주목하면서 그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 또한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의례 참여자들의 의지와 외부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면 의례를 포함한 마을신앙의 존속이 쉽지 않은 오늘날이라고 해도 유지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방향성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안양시의 마을 의례를 포함한 마을신앙은 도시화된 민속으로 굳게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안양문화원, 『안양의 역사와 문화』, 1998.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008.
안양시, 『안양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2001.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새안양회, 1996.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2002.
안양시청 www.anyang.go.kr
안양문화원 www.anyangculture.or.kr
안양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tvanyanggokr/>
지역 N 문화 <https://www.nculture.org/>
안양 덕현정제 <https://anyanglsd.tistory.com/5099239>
<사라지는 전통문화 '안양의 산신제'> 2008.11.07. 안양시민신문
<4월의 굿 수리산 산신제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 2023.08.13. 경기일보 등

- 1 『독암유고』의 옛 시문과 수촌마을 도당제에 얽힌 내용은 '조성현, 안양문화논단-『호계서원』 관련 문헌 속 흔적을 찾아서』를 참고했다.
- 2 과거에는 대부분 단골무당을 불러서 굿 형식으로 도당제를 진행했으나, 가치 변화와 비용 등의 문제로 차츰 유교식으로 바뀌었다.
- 3 1950년에 발행한 시흥군 『금천지(鎭川誌)』와 1981년 안양시에서 발행한 『내고장 전통 가꾸기』를 참고할 수 있다. 『금천지』는 시흥군 전체의 민속을 정리한 반면, 『내고장 전통 가꾸기』는 안양의 민속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내고장 전통 가꾸기』에서는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정리가 아닌 금천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천지』에는 일 년 열두 달의 풍속으로 정월의 설·쥐불놀이·대보름·부름(부림)·웃놀이(웃놀이)·널뛰기·줄다리기·장치기·편쌈을, 2월에는 한식, 3월의 삼짇날(삼짇날), 4월의 초파일 연등, 5월 단오, 6월의 유두행사, 7월 백중, 8월 추석, 9월 중앙, 10월의 개천, 11월 동지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예식 민속으로 득남례·백일·돌·회갑과 상례를 소개하며, 농민풍속은 두레와 천렵·고누를, 아동민속으로 글자 맞추기·풀쌈·진뱃기·연맹맥이(액막이연)·비석치기·사방치기·갯치기(자치기)를 소개하고, 민가에서 전래된 각종 전래가요를 소개하였다. 이 밖에 천제·하나님·한울님, 하늘의 '밝의 뉘'의 민속 신앙과 전설, 신을 맞이하고 귀신을 퇴치하는 내용들이 흥미롭게 소개되고 있다(금천군지편찬위원회, 『금천지』, 시흥군, 1950). 『내고장 전통 가꾸기』는 전설과 문화재, 옛 생활과 풍속 명승·경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옛 생활에서는 도당제와 백의의 유래 및 답교놀이를, 풍속에서는 계절별 세시풍속을 요약 정리하였다(안양시, 『내고장 전통 가꾸기』, 신일문화사, 1981, 31~62쪽).
- 4 한편 사회는 이미 농업 중심에서 공업과 상업 중심으로 바뀌었으나, 그 변화 속도가 빨랐던 탓인지 그에 어울리는 세시풍속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 5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말에서 보듯 동사를 공유하는 세시풍속이었다.
- 6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가령 문화 변화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해외에서 보내는 사람들, 여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등 다양성이 통일된 세시풍속을 만들어 내기 힘들게 한다.
- 7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 8 시민축제의 성격은 지난 정월대보름 행사의 재현은 1990년 안양문화원에서 19개 동 대항 문화행사로 개최되며 시작되었다. 1~2회는 제기차기와 널뛰기가 주요 종목이었으며 안양문화예술회관(현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3회인 1992년부터는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이때 윷놀이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1995년에는 투호가 추가되었다.
- 9 안양문화원, 『안양문화원 50년사』, 2020.
- 10 안양문화원, 『만안답교놀이』, 1987.
- 11 시민 중심의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은 1979년 안양문화원 주관 안양단오제가 시작이었다. 안양유원지(현 안양예술공원) 그네 터에서 그네타기를 중심으로 행사를 펼쳤다. 이 당시 각 동에서 추천된 여성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며 농악과 춤으로 흥을 돋워 매우 성대한 행사가 펼쳐졌다고 한다. 특히 1983년에는 TV에 방영(KBS2 사랑방중계)되어 안양단오제가 전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후 1989년에는 그네가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현 빙상장)으로 이전되어 단오제 역시 보조경기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때의 주요 행사는 씨름·줄다리기·농악·경연·향토음식·맛자랑·투호·제기차기·새끼 꼬기·물동이 나르기·쌀가마 오래 들기·응원상 등 다채롭게 펼쳐지며, 단오의 전통과 시민화합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안양 평촌중앙공원으로 장소가 옮겨지며 단그네와 쌍그네, 씨름, 쌀가마 들고 달리기, 줄다리기, 농악, 물동이 나르기와 함께 응원상과 종합우승의 등 대항 성격으로 행사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안양천 둔치 덕천교 아래 일명 쌍개울에서 행사를 펼쳤다.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의 평촌중앙공원에서 단오제를 개최하고 있다.
- 12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산신제는 용신제와 함께 거행했는데 그것은 수원지가 산인 까닭이다. 또 용신제의 범위 안에는 우물고사·정제·용왕제 등의 여러 이름이 포함되는데, 이름만 서로 다를 뿐 그 성격은 다르지 않다.
- 13 과거의 의례를 다루는 것은 현재를 위한 과거의 모습을 엿보고 훗날 복원의 가능성까지 열어 두기 위함이다.
- 14 이곳에 있던 내시들의 무덤은 현재 모두 이장했거나 화장해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 15 방죽말은 독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 16 『안양시사』(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에는 마을굿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군웅제는 장군을 기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향나무에 제사를 지낸 것은 서낭제 또는 당제라고 불러야 맞을 듯하다.
- 17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놀이인 줄다리기는 남자 마을과 여자 마을로 나눠서 노는데 마을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18 이 주장에 따르면 마을 의례의 유래는 마을이 생긴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19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2008, 160쪽.
- 20 위의 책.
- 21 2024년 7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미뤄짐.
- 22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이나 '유산'으로 바뀌고, 하위 분류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뉜다(법률 제20309호).

4장

두레와 구비전승



이현희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양^{安養}’은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타원형 분지로,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불교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지니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일컫는 말이다. 대대로 평온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광복 이전 농사를 주로 짓다가 6·25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다양한 산업과 주거 기능이 극대화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고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고 계승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노래, 풍습, 신앙 등 다양한 무형의 유산을 축적하였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안양 시민에게 공유되어 있는 무형유산이다. 이 장에서는 안양시의 민속과 민요, 구비전승 및 전설, 마을신앙 등 안양 시민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¹

1. 안양시의 민속

민속이란 ‘민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습관·풍속·전설·기술·전승 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는 필수 요소가 된다. 민속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의식주 생활 양식이나 통과의례·민간신앙·세시풍속·민속놀이·민요·전설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두레놀이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행해지는 고유의 풍속인 세시놀이 등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92년 안양시지 편찬 당시 안양 지역 전반에 걸친 두레, 즉 민속놀이와 농경풍습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다. 이미 그 시기에도 안양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며 서울 인근 주거 목적의 도시로 다양한 종류의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호현마을 정월대보름 풍물놀이(1983, 박성배 제공)

상태였다. 따라서 1990년대에도 이미 안양시의 민속에 대한 조사 연구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그 결과를 소개한다.²

1) 두레놀이

두레는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안양시에도 각 지역마다 두레가 조직되어 있었고 논밭의 잡초를 뽑아 논농사를 준비하는 김매기를 주로 두레로 행하였다. 농사 전후로 두레 회의를 통해 두레를 짜고 농사일을 의논하였는데, 주로 공청에 모여 청년들끼리 악기 장단을 맞추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을 키우고 앞으로의 농사일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두레에서는 풍물 혹은 농악이 중요한데 힘든 일을 함께하면서 흥이 많은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풍습이라 할 수 있다.³ 안양의 여러 지역에도 두레가 잘 조직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비산동 안날미두레, 관양동 뺨말두레, 관양동 부림두레, 평촌동 벌말두레, 호계동 방죽말두레 등을 들 수 있다.

(1) 비산동 안날미두레

두레를 나갈 때는 4~5발(한 발은 양팔을 벌렸을 때의 정도) 높이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먹글씨로 쓴 큰 농기(農旗)를 들고 나갔다. 농기두레가 앞장을 서면, 그 뒤로 꿩과리를 치는 상쇠와 장구·징·북 등이 따랐다. 간혹 두레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두레를 나가다가 다른 마을 두레가 앞으로 지나가면 양쪽 기를 들이대서 꿩장목을 먼저 뺏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이 두레싸움에서 이기려면 깃대쟁이가 힘이 세어야 했고 이기고 난 후 빼앗은 장목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여기서 ‘장목’은 꿩의 꽂지깃을 모아 묶어서 농기의 꼭대기에 꽂는 장식을 말한다.

비산동 안날미두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양 구 장터에서 씨름을 한다는 것이다. 시장 장사꾼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상으로 내놓아 인근의 씨름꾼과 구경꾼들을 모으는 부흥책을 썼으며 술장사나 밥장사가 많이 모여들고 난장이 마련되었다. 마치 요즘 크고 작은 축제에 먹거리와 사람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된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씨름은 원씨름으로 아낙걸기(안다리를 걸어서 밀어서 넘어트리기), 외궁뎡이(원다리로 상대편 바른



비산동 안날미(1970년대)

다리를 걸어서 밀기), 들구치기(번쩍 들어서 놓기), 무릎치기(빙빙 돌다가 무릎을 탁 쳐서 넘기기) 등이 주요 기술이었다고 한다.

(제보자: 박경현)

(2) 관양동 뺨말두레

지금의 수촌마을, 일명 ‘뺨말’은 마을에 쑥의 일종인 뺨뎨(뺨대쑥)가 많아 ‘뺨마을(뺨말)’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뺨뎨’는 현재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마을 이름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점이 특이하다. 다른 지역의 두레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수촌마을 두레는 약 50여 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주 작업지는 달안들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농기를 앞세워 두레일을 나갔는데 기폭(旗幅)의 위쪽에 나무로 용의 머리를 형상하고 단청을 입힌 용머리를 달았다. 일터로 나갈 때 농기가 앞장을 서면 그 뒤를 꿩과리·장고·징·제금·호적·소고 순서로 따라갔고, 일터에 도착해서는 선소리꾼의 선창에 맞춰 작업을 하였다.



관양동 수촌마을(1970년대)

음력 7월 20일경에 행하는 호미걸이도 두레놀이의 하나인데, 마을의 산마루턱 응달에 모여 누룩을 준비하고 쌀도 걷어 푸집하게 한 해 농사의 노고를 달랬다. 다만 쌀이 귀하었으므로 보리밥에 쌀을 섞어 먹고 콩나물 정도를 먹는 소박한 음식차림이었다고 한다.

(제보자: 김득춘, 김이겸)

(3) 관양동 부림두레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뜻의 이름처럼 마을을 끼고 있는 관악산 줄기에 아름답리 나무가 짙 들어차 있는 마을이다. 총인원수 20~30명인 두레조직은 주로 김매기 작업을 함께 하였는데, 초벌은 호미로 두벌은 손으로 하였고 김이 많을 경우 세벌 김매기도 하였다. 다른 지역의 두레와 마찬가지로 두레를 나갈 때 농기를 앞장세우고 상쇠·부쇠·제금·징·호적·북·소고의 순서로 따라갔으며, 일터에 나가서는 특별한 놀이 없이 선소리에 맞춰 방아타령 등의 민요를 부르며 작업하였다.

7월 초순경에는 호미걸이가 있었는데 마을의 개울둑인 청계천에서 놀았다고 한다.



관양동 동편마을 모내기(1992)

부림두레는 인근에서 가장 세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부촌이어서 머슴이나 일꾼 숫자가 많았고 마을에 장사가 많아서 다른 마을에서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또 정초에 약 일주일 동안 걸립을 놀았는데 집집마다 풍물을 치고 다니면 술이나 쌀을 냈다. 광복이 되면서도 두레를 놀았지만 6·25전쟁이 끝난 후 악기 없이 두레를 놀다가 195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두레노동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제보자: 문응중)

(4) 평촌동 벌말두레

벌말은 과천에서 인덕원을 지나는 다리 건너편을 말하는데, 평촌의 넓은 들을 끼고 있어 평평하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대부분 지역이 들판이어서 논농사가 많고 일부 밭농사가 있었는데 지주는 대개 서울 사람들이었고 지역민은 대부분 소작농이었다고 한다. 두레를 달리 농악이라고도 한 것을 보면 풍물이 함께하는 두레를 운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레 풍물에는 약 10~20명이 동원되었는데 뒤를 따르는 일꾼이 약 20~30명

인 것을 감안하면 두레 총인원은 3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도 볼 수 있다. ‘영좌두레’라 하여 “한데 묶어 가지고 돌러가면서 농사짓는 것”이라는 제보자의 표현대로 두레의 지휘자를 ‘영좌’라 불렀다고 한다. 영좌는 매년 연임하여 책임을 맡았고 한 해 농사의 방도를 결정하고 두레원을 통솔하였다고 한다.

주로 김매기를 하였고 일을 나갈 때는 농기가 앞장을 서면 상쇠·제금·장고·장·북·소고·호적의 순으로 행진하였다. 논에 도착하면 선소리꾼이 방아타령을 부르며 소리를 잡았는데, 작업의 속도에 따라 자진방아·물방아 등 다양한 소리로 바꾸었다. 농사가 끝나면 7월에 호미걸이라고 하여 일꾼들이 모여 놀았는데, 음식과 술·밥 외에 별식으로 팔죽을 나누어 먹었다. 뜨거운 팔죽을 이열치열의 의미로 먹은 셈인데, 일이 다 끝났으니 각자 자신의 집에 호미를 걸어둔다는 의미라고 한다. 두레농사가 없어진 것은 일제시기 말로 보이는데 광복 이후 다시 두레가 살아나서 몇 해를 놀다가 6·25전쟁 후에 그냥 없어졌다고 한다. 각자 자기 농사를 짓게 된 까닭으로 보인다.

(제보자: 최영환, 이동훈)

1970년대 평촌의 가을걷이



(5) 호계동 방죽말두레

‘호계’는 ‘범계’라고도 부르며 호랑이 고개라는 뜻이고, ‘방죽말’은 마을에 연못이 있어 비롯된 이름이다. 호랑이 고개, 즉 ‘범계’는 웃범개와 아랫범개로 나뉘며, 방죽말은 웃범개로 본마을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들은 주로 소작농이고 지주는 대개 서울 사람들이었다. 마을두레 인원은 약 30여 명이었는데 모내기 직전에 조직하여 보통 모내기 직후 조직되는 보통의 두레와 다른 점이다. 조직의 책임자, 즉 영좌는 두레를 통솔하고 작업 순서 결정, 작업량 점검, 작업장 통솔 등의 역할을 맡았다.

주로 모내기와 김매기를 두레노동으로 하였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여럿이 하니까 마구잡이로 일이 이루어져서 두레논일이 매우 거칠었으며 술이라도 취하면 호미로 벼 포기를 찍어서 쓰러뜨리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이기도 했고 한번에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두레로 김을 맬 수밖에 없었다. 일하는 중에 식사는 세 번 또는 네 번 나왔는데, 오전 새참은 10시경(막걸리와 돼지고기찌개. 가난한 집은 국수), 점심은 12시 30분경(바가지밥. 바가지에 보리밥과 고추장, 늪은오이를 양념에 무친 외상채), 오후 4시경 오후 새참(막걸리와 밀국수 혹은 수제비)이 있고, 저녁에 들어갈 참(논 입자가 술을 내는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두레를 나갈 때 농기를 앞세우고 상쇠·중쇠·징·장고·북·소고·일꾼의 순으로 행진하였고 상모는 없었다. 농기에는 부드러운 인조견으로 만든 기폭에 다른 두레와 마찬가지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먹으로 글씨를 썼고 높이는 약 12자(약 3m 60cm), 장대 높이는 약 15자(약 4m 50cm) 이상 되는 큰 기였다. 음력 칠월 칠석 무렵에 호미걸이를 하였는데, 낱을 잡아서 술과 밥·국수 등을 준비하여 풍물을 치며 놀았는데 한여름 노동의 피로를 놀이로 풀어내는 자리였다고 한다. 1990년대까지도 마을의 노인회관인 소호정(嘯虎亭)에 예전 두레 악기인 징·장고·북·팽과리·제금·소고·호적과 큰 기가 남아 있었다.

광복 이전까지도 두레노동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서울과 가까운 관계로 논을 팔고 떠나는 이가 부쩍 늘면서 두레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일제시기에는 샅고지도 있었는데 겨울부터 봄 사이 보릿고개에 쌀을 얻어먹고 나중에 일을 해주는 것인데 거의 머슴살이와 다르지 않았다. 쌀 한 말에 한 마지기 일을 해주어야 해서 식구가 많은 집에서도 가족 모두 일터에 나가 매달려야 했다. 고지를 준 집의 농사부터 해주게 되면 자신의 논농사는 끝에 할 수밖에 없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이학노)

2) 세시놀이

(1) 비산동 안날미의 세시놀이

- 정월 대보름: 연떡우기, 널뛰기, 달님절하기, 쥐불놀이 등
- 달님절하기: 정월 작은 보름날(음력 1월 14일) 저녁에 짚을 들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달이 잘 보이는 곳에서 짚을 약 1발쯤 길이로 엮어 각자 하나씩 들고 달을 행하여 불을 지른다. 이때 달을 행하여 “달님 절합니다, 달님 절합니다”를 반복하면서 달에게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것이다. 주로 청년층 5~10명이 함께 올라가 기원하는데 달이 맑게 뜨면 풍년이고 흐리게 뜨면 가뭄이라는 속설에 기원한 놀이이다.
- 단옷날: 그네뛰기

(제보자: 이경희, 김명희)

(2) 구장터의 백중씨름

- 음력 칠월 보름 백중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흥행책의 일환으로 개최하였다. 송아지 한 마리를 씨름판 옆에 묶어두고 진행하였다. 술이나 음식을 파는 장사들이 몰려와 난장이 섰고 인근 마을에서 구경꾼들이 몰려 나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안양장터의 백중씨름은 광복 이후에도 2~3년간 지속되었으나 6·25전쟁을 지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광복을 맞던 시절에는 장터의 청년회가 주관하여 송아지·광목·쌀 등을 경품으로 내놓고, 400~500명에 이르는 구경꾼이 모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제보자: 박경현)

(3) 일동리·비산리의 정월편웃

- 일동리는 지금의 관양동, 비산리는 비산동에 해당하는데, 일동리와 비산리 사이에서 매년 정월마다 편웃이 행해졌다고 한다. 정월 초승 무렵 이장이나 유지의 집 마당에 모여 마을 대항 웃놀이를 즐긴 것인데, 노인층과 청장년층이 모여 약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웃놀이를 즐겼다. 주로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놀았고, 1조에 4명씩 짜서 2명이 한편으로 놀았다. 웃놀이에서 이기면 풍년, 지면 흉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였다. 공동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놀이 중에는 국수와 떡국, 막걸리를 나누어 먹었다. 흥을 돋우기 위해 북과 장고를 몇 개 들고 여흥을 즐기기도 하였는데 일제시기 말로 접어들면서 남자들이 징용에 끌려가는 통에 사라졌다. 요즘은 정월대보름 행사의 하나로 안양시 곳곳에서 윷놀이 대회를 여는데 마을 주민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척사대회나 친목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보자: 오병식)

(4) 평촌동 벌말의 세시놀이

- 연초: 신년 차례, 세배, 더위팔기, 널뛰기, 윷놀이
- 대보름: 부럼깨물기, 달님절하기(달맞이)
- 달님절하기: 소원성취를 기원하면서 마을 앞 작은 동산에 올라 달님에게 절을 한다. 아이들은 짚을 길게 묶고 **쑥화**(쑥대를 칩덩굴로 팥떡 굽기만 하게 묶어 만든 햇불)를 들고 올라가는데 달이 떠오르면 쑥화에 불을 붙여 짚불을 놓으면서 달님에게 절한다.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하였다.
- 제웅⁴놀이: 제웅직성⁵을 가진 사람이 하는데, 그 해에 액운이 낀 사람이 액운을 물리치려는 주술적 방법이다. 짚으로 제웅을 만들고 그 속에 동전을 넣어두면 동네 아이들이 각 집을 다니면서 “제웅 있어요?” 하면 “우리집은 제웅 있다”고 하면서 제웅을 내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제웅 속의 동전을 빼낸 뒤 제웅은 불에 태우며 노는 것인데, 제웅을 만든 집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제웅을 내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 2월 1일: 나이떡이라 하여 나이대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대보름 놀이가 모두 끝나고 한 해 농사를 지내게 될 즈음 나이떡을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을 준비한다.
- 한식⁶: 인근 묘소에 가서 겨우내 무너진 묘역을 정비하고 간단한 차례를 올리는 한식 차례가 있다.
- 4월 8일(초파일): 인근 절에 가서 연등을 달거나 그네를 다는 날이다. 초파일부터 단오까지 그네를 뛰는데, 초파일에는 그네를 매고 단오에 줄을 끊어 버리며 그네뛰기를 마감한다. 동네 가운데 나무 두 개를 크게 세우고 젊은이들이 함께 짚을 꼬아서

- 줄을 만들고 그네를 매는데 그네를 가장 성대하게 노는 날은 단오날이다.
- 7월 7일(칠석날): 칠석날 대개 절에 가는데 칠석님에게 흰무리떡을 해놓고 간단한 고사를 올린다. 주로 인근의 청계사^{淸溪寺}를 많이 다녔다.
 - 8월 15일(추석): 성묘
 - 10월(상달고사): 팔시루떡을 해서 성주나 터주 등 집안을 지키는 가신에게 바치면서 집안의 안녕을 빌고 단골을 불러다 안택굿을 하는 집안도 있다. 농사가 모두 파한 절기라 집안끼리 시제사^{時祭祀}⁷가 많았다.
 - 11~12월(동지선달): 동지는 애동지(아이들이 많이 죽는다는 속설), 노동지(노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속설)가 있는데 팔죽을 해서 악귀를 쫓고 대문간에도 내다 뿌린다. 붉은 팔죽을 보고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뜻이다.
 - 12월(선달 그믐): 밤을 지새우는 풍습이 있다. 일찍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한다.

(제보자: 최영환)

(5) 호계동 방죽말의 세시놀이와 활쏘기

- 줄다리기: 방죽말의 대표적인 세시놀이이다. 정월 대보름에 집집마다 짚을 추렴하여 줄을 꼬아 옷동네와 아랫동네로 편을 갈라 줄을 놀았다. 이긴 쪽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 복대림(복달임): 초복·중복·말복 세 번에 걸쳐 남자들이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다.
- 활쏘기: 방죽말이 평촌벌이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산기슭에 위치하여 산정에서 건너편에 있는 안산^{案山} 쪽을 향하여 화살을 쏘며 놀았다. 산기슭의 평평한 정상에 잔디가 있는 사정 터가 있었고 인근에서도 활을 들고 와서 차일을 치고 놀았다. 소호정^{嘯虎亭}은 유림^{儒林}의 모임으로 시조회도 열고 활쏘기도 즐겼는데 인근 반월^{半月}이나 안산^{安山} 등의 외부 편사^{便射}들까지 와서 놀았다. 사정터는 광복 이후 3~4년간 유지되다가 6·25전쟁을 겪으며 사라졌다. 1990년대 당시 노인회관의 이름이 ‘소호정^{嘯虎亭}’으로 명명된 것에 흔적이 남아 있다.

(제보자: 이학중)

(6) 만안답교놀이

- 안양시의 세시놀이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안교가 있던 곳에서 즐기던 놀이로 답교놀이는 정월 대보름 세시풍습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지던 놀이인데, 다리(橋)를 밟으면 다리(脚)의 병이 없어진다는 속언에서 비롯되었다. 안양에서는 과천·호계·만안교를 중심으로 답교놀이가 성행하였고, 1930년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복원되었다. 무동은 소승 1인, 소무 2인, 별감 1인, 팔복 1인 등 5명으로 구성되었고 왜장녀나 꼽추, 양반 등과 같은 선소리꾼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놀이는 길놀이·마당놀이·선소리꾼놀이·대동놀이·다리밟기·줄다리기·짚놀음 등으로 구성되었다.
- ‘만안답교놀이’는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에 안양문화원 주도로 안양 시민의 축제로 치러지고 있다.

(제보자: 조재봉)



만안답교놀이(1992)

2. 안양시의 구비전승

‘구비口碑’는 말 그대로 비석에 새긴 것처럼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이르는 것인데, 주로 서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것을 말한다. 보통 구비문학이라 하여 설화나 민요·무가·판소리·민속극 따위를 포함하고, 설화에는 다시 신화·전설·민담 등이 있다. 여기서는 안양시 제보자들에 의해 채록된 전설과 민요 중심으로 소개하는데, 안양 및 인근 지역에 관한 것이나 안양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등을 주로 다룬다.

1) 전설

전설은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의 한 갈래로, 증거물을 근거로 진실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실제 사건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믿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증거물들이 실제성을 더해 주는 장치로 활용된다.⁸ 보통 전설이 대상으로 하는 증거물을 기준으로 자연물, 인공물, 보조분류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⁹

(1) 자연물: 산이나 고개

① 수태골[受胎谷] 이야기

수리산에 있는 수태골에는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 되어 이 골짜기에서 백일기도를 드렸다. 백일기도를 드리는 동안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더니 백일째 되는 날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기 시작하여 나중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한다. 그 뒤로 아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서 자녀를 기원하며 빌기 시작했고, 마을 이름도 수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이소영)

② 구룡고개 전설

호계동 방죽마을 뒷산은 옛날부터 명당으로 소문이 나서 다른 지방의 사람들까지 그 산에 묘를 쓰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의 묘지가 들어서는 것이 싫고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훼손될 것을 경계하여 이를 막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산의 정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그것을 없애기로 하고 지관을 불러 산의 혈을 찾아 끊

어 버렸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그곳에서 핏물이 솟아 올랐는데 그 핏물은 용의 허리가 끊어져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산의 정기가 없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용의 허리였던 고개라 하여 구룡고개라 불렀다.

(제보자: 박봉자)

③ 수리산(修理山) 전설

안양과 군포 사이에 있는 명산인 수리산에는 지금까지도 조개나 굴 껍질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랜 옛날 천지가 개벽할 때 세상의 온 천지가 물에 잠겨 있었는데 수리산도 거의 물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의 꼭대기는 병아리를 잘 채어 가는 수리가 남아 있을 정도로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산을 수리가 앓을 정도의 공간만 남았다고 해서 수리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제보자: 이원남)

④ 몰락산 전설

안양과 의왕 사이에는 몰락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굴이 하나 있었다.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 때 적군이 그곳에 쳐들어와서 그 동굴에 많은 사람을 넣어 죽였다고 하여, 그 후로 그 산을 몰락산이 아니라 몰락산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제보자: 이원남)

⑤ 수리산 찬우물 전설

하늘에 치성을 드려 소원을 이룬 이야기가 찬우물 전설에도 얽혀 있다. 옛날에 매우 가난한 부부가 수리산 기슭에 살고 있었는데, 몇 해에 걸친 심한 가뭄을 당해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다. 이들 부부가 마지막 남은 몇 알의 곡식을 마련하여 하늘에 빌었더니 산신령이 나타나 땅을 가리키며 파 보라고 하였다. 그곳을 파 보았더니 물이 솟아 나오고 우물이 되었다. 이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여름에는 우물 주변에 얼음이 얼 정도로 물이 차다고 하여 찬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2010년대 찬우물

⑥ 삼봉산三峯山 이야기

시흥시 목감동 울포에서 안양시로 들어서는 곳에 있는 산이 삼봉산인데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조선 중엽 어떤 사람이 충훈부를 찾아와 충훈부의 장을 몰아 내려는 의도로 정도전鄭道傳의 호가 삼봉三峯이고 이 산도 삼봉산이라며 “관아의 정문이 삼봉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에 충훈부의 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관아의 정문을 다른 방향으로 바로잡았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⑦ 학림산鶴林山 이야기

조선 초 호현마을에 있는 봉巒바위 밑에 어느 부자富者가 살았는데 그 부인이 손님이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한다. 하루는 시주하러 온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안 오겠는지를 물으니 스님이 봉바위를 깨뜨리면 손님이 끊어질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이에 부인이 머슴을 시켜 봉바위를 깨뜨렸더니 바위 속에 있던 학이 이 산으로 날아와 숲속에 앉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산을 학림산이라고 부르는데, 산이 험하고 나무가 많아 도둑이 끊이지 않으므로 도둑퇴(도둑산)라 부르기도 하였다.

⑧ 망령골 이야기

관양동 동편 입구에서 과천 갈현동 찬우물로 넘어가는 고개 주변을 망령골이라 하였다. 고려 초엽 나무를 팔고 오던 어떤 이가 하얗게 소복을 입은 여인을 만나 하룻밤을 보냈는데 1년 후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 “관악산 바위 틈에 아이가 있으니 가 보시오” 하고 사라졌다.

여인이 알려준 곳에 가 보니 바위 틈에 울고 있는 아기가 있어 데려다 정성껏 기르니 그 아이가 바로 귀주대첩의 강감찬 장군이라는 것이다. 망령亡靈이 나타난 골짜기라 하여 망령골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다.



망령골(1980년대)

⑨ 자진골 이야기

임진왜란 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스님으로 변장하고 성라자

로마을(현 의왕시 원골로 66)에서 과천으로 가는 도로에 혈을 끊으려고 미륵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후 의왕시 고천동 말무덤에서 용마(龍馬)가 났는데 그 용마가 큰 바위에서 몸부림치다 죽었다고 하여 자진골이라고 불렀다.

⑩ 서리재고개

동아제약 입구 안양육교 부근은 원래 높은 고개였는데 조선 말엽 경부철도를 부설하면서 고개를 낮췄다고 한다. 선비나 행인, 상인들이 한양을 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거쳐야 했는데, 조선 말엽까지도 숲이 많고 나무가 우거져 산적과 강도가 많았다. 또 이 일대가 농경지여서 참외나 수박 등 청과물이 많았는데 산적과 강도들이 때를 지어 서리를 해 가는 바람에 농민들의 원성이 컸고 시흥(금천) 현령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산적과 강도가 이 고개에 숨었다가 참외·수박을 서리했다고 해서 서리재고개라고 불렀다. 현재는 솔개고개라 부른다.

현재 동아제약 안양지점은 안양시 석수동 264-11(만안구 안양로 552)에 위치해 있다.

(2) 인공물: 절이나 암자, 유적지

① 삼막사(三幕寺) 은행나무 이야기

예전 삼막사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옛날 원효대사가 땅에 지팡이를 꽂아 생긴 것이라고 한다. 1970년대 삼막사에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 여섯 명의 고시생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밤 한 고시생이 새벽에 밖으로 나왔다가 은행나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은행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 고시생이 주지스님과 다른 고시생들을 깨워 데리고 나와 다시 보니 구렁이가 보이지 않았다. 구렁이가 동작이 느린 것을 감안하면 은행나무에 여전히 있어야 했는데 이미 구렁이가 사라지고 없어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후 구렁이를 본 고시생만 합격하였다고 하고, 이 합격한 고시생은 이후 고마운 마음에 삼막사에 보시를 계속하였다고 전한다.

(제보자: 이소영)

② 망해암(望海庵)

안양 시가지부터 서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절이라 해서 망해암이라고 부르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세종 때 삼남지방에서 조세를 받아 해로를 통해 한양으로 운반할 때 곡물을 실은 배들이 인천 앞바다를 지나게 된다.

하루는 여러 척의 배가 팔미도(八尾島) 근해를 지날 무렵 매우 심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을 때 뱃머리에 갑자기 한 스님이 나타나 “그대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내 말을 들으라” 하며 뱃사람들을 인도하여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 이에 뱃사람들이 어느 절에 사는지 여쭙니 관악산 망해암에 있다 이르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뱃사람들이 한강까지 무사히 닿은 뒤 망해암에 가 보았지만 그런 스님은 없었고 그 스님과 용모가 흡사한 부처님이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 신력으로 구원 받았음을 깨닫고 이를 임금께 아뢰니 이를 가상히 여긴 세종이 매년 한 섬씩 불전에 공양미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후 400여 년 간 계속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망해암의 위치는 만안구 안양동 산19번지로,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는 사찰이다.

③ 용화사(龍華寺)

현재의 안양역 주변은 예전에 미나리밭이었는데, 어느 날 미나리밭 주인 할머니가 꿈에서 근엄한 미륵부처님을 만나고 다음날 미나리밭에서 부처님 머리 위에 엮는 돌갓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할머니는 지난밤 꿈을 생각하면서 땅을 파 보니 석조 미륵불상이 나타나 그 자리에 움막집을 짓고 지성을 드렸다. 미륵당 또는 삼신당이라 불렀는데 숭한 영험을 보였다. 이후 경부철도가 부설되고 역사를 지으면서 1943년 역 앞에 있던 것을 옮겨 대동문고 자리에 용화사를 지었는데, 1978년 누전으로 불타 버리자 호계2동으로 옮겨 지었다고 한다.

④ 상불암(上佛庵)과 지선녀

망월암을 넘어가면 있는 절벽에 기댄 것처럼 자리잡은 작은 암자가 태고종 소속의 상불암이다. 높은 산봉우리에 있어 상불암이라 불렀는데, 이 암자에는 일찍이 화성군 봉담 내리 청궁 출신 홍성관이라는 분이 충북 박달산 출신 지선녀와 함께 1914년 3월 3일부터 이곳 자연동굴(상불암 법당 내 있는 동굴) 속에서 수도하다가 1918년 3월 자연동굴과 연결된 위치에 법당을 창건하고 상불암이라 명명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동인의 역사소설 『운현궁의 봄』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다. 1928년 『정감록』의 도참설을 맹신하던 전 태을교도(太乙教徒) 홍순택이 『정감록』에 “기미년 기미월 기미일 기미시(1929년 4월 16일 10시)에 성인이 나와 도술로써 왜놈들을 몰아내고 새 왕국을 건설하여 신미년에는 즐거움이 집집마다 넘치게 되는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성인이 바로 홍성관이며 홍성관은 하늘이 보낸 선관이라 하였다. 홍성관을 따르던 태을교도와 평안도 지역

의 동학도인 75명이 상불암에 모여 홍성관의 등극 준비를 위해 순금으로 옥쇄를 만들고 곤룡포와 면류관 등을 만들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주동자 홍순택이 용인군 이동면 송전에 땅굴을 파고 사전私錢을 밀조하다가 왜경 앞잡이의 밀고로 체포되어 이 사건은 무위無爲로 끝나게 되었다. 주모자 홍순택은 장성으로 피신하였고, 홍성관은 영등포경찰서에 구속되었으나 혐의 사실이 없어 곧 석방되었다고 한다.

홍성관의 처 지선녀는 유명한 기녀 출신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규태의 「인맥人脈」에 따르면¹⁰ 일제시대 명기였다고 한다. 지선녀는 애욕을 가눌 수 없어 도승(홍성관)을 찾아가 방법을 물었더니 홍승관이 불속에 불을 던지면 불은 보다 크게 타오르지만 던져진 불은 없어진다 하여 곧 지선녀는 많은 가산을 정리하고 삼성산 절벽 및 동혈에 초막을 짓고 입산하였다고 한다. 현재 상불암은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0(석수동 산10-1)에 위치해 있다.

⑤ 안양사지安養寺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이전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려고 신라 효공왕 3년(899)에 삼성산을 지나다가 삼성산 꼭대기에 구름이 다섯가지 빛으로 채색을 이루고 있어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였더니 능정能正이라는 늙은 승려가 있었다. 태조와 능정의 뜻이 같아 이 자리에 사찰을 세운 것이 안양사이다. 이후 태조가 절 남쪽에 벽돌로 된 7층 탑을 세웠고, 비바람에 거의 무너지게 된 것을 최영崔瑩 장군이 1381년 양광도 안렴사에게 통첩을 보내어 군조로 중수 비용을 충당하게 하면서 장정들을 징집하여 중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안양시의 지명도 이 안양사에서 유래하였다.

⑥ 안양행궁安養行宮 터

정조대왕이 화성 능행을 위해 안양1동 유래정 뒤편에 있는 수어장 여관 자리에 행궁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안양행궁이라 하였다. 당시 수어장 주인인 안병일安炳日 씨는 여관을 지을 때 계약하기 전날 꿈에 임금의 상궁과 하인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안씨는 이 터가 정조가 머무르던 터인 것을 확인하고 “임금님[御]이 주무시던 옛터[行宮]를 지키겠다[守]”는 뜻으로 수어장守御莊으로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⑦ 호압사虎壓寺를 창건한 이야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궁궐을 지을 때, 창경궁은 거의 완성될 때가 되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기를 몇 차례 계속되었다. 그러자 목수들이 도망가다가 붙잡히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문초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하도 이상해서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지켜 보니 받은 호랑이이고 받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나 궁궐을 부수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이성계가 직접 보려고 밤에 지키고 있는데 긴 흰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나 한강 남쪽의 봉우리를 가리키며 저 산이 호랑이 형상으로 생겨 한양을 굽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꼬리를 밟히면 꼼짝을 못하는 짐승이라 이르고 홀연히 사라졌다. 다음날 노인이 말한 곳에 절을 지으니 마치 절이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형상이 되어 대궐을 순조롭게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절은 관악산 줄기인 삼성산에 위치해 있다.¹¹

(제보자: 김영목)

⑧ 연주대 戀主臺

연주대는 신라의 고승 의상조사가 677년에 관악산 연주암 창건과 동시에 암자를 세우고 의상대라 이름한 것을 조선 초기에 연주대라고 개칭한 것이다. 조선 개국 당시 고려에 충성한 신하들이 연주대에 올라 개성을 바라보며 두문동에서 순국한 72인의 충신열사를 기렸다. 이후 제3대 태종이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첫째 양녕대군과 둘째 효령대군이 이 연주대에 올라 왕궁을 바라보며 왕좌를 그리워하였다는 곳이다.

(제보자: 김영목)

⑨ 부림 박우물

옛날 몹시 심한 가뭄이 들어 주민들의 굶주림이 심했는데, 음력 7월 7일 마을 가운데서 갑자기 물이 솟아 부림말 일대는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짓게 되었다. 아무리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임진왜란이나 6·25전쟁처럼 난이 있으면 맑은 물이 갑자기 황토 흙으로 변하며 물이 말라붙었다 한다. 수심은 3m 정도지만 물이 워낙 많이 치솟아 항상 바가지로 물을 떠 마실 수 있어 박우물이라 부르며 7월 7일 마을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그날 우물물을 마시면 모든 잡병이 없어지고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다.

(3) 인공물: 마을이나 지역 이름

① 명학동 鳴鶴洞 이야기

군포시 산본동 골안 너머 안양시 비산1동 임곡마을 뒷산에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 때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沈器遠)이 그의 아버지 심간(沈諫)의 묘를 쓰려고 땅을 팠더니 돌 밑에 학이 두 마리 있었다고 한다. 그중 한 마리는 양명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오미산(烏尾山) 뒤로 날아갔고 다른 한 마리는 안양경찰서와 명학초등학교(만안구 명학로 55) 사이에 있는 바위에 날아와 슬피 울고는 어디론가 날아갔다. 이후 학이 울었던 바위라 하여 명학바위라 불렀고, 마음 이름을 명학동이라고 불렀다.

② 매곡마을 이야기

비산동 수도군단 입구부터 더러미산 밑으로 덕돌보(한자로 德坪으로 추정된다. 德이 크다는 뜻으로 보면 ‘덕돌’ 혹은 ‘덕돌’은 큰 들판, 즉 넓은 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는데, 이 냇가를 매곡마을 사람들이 앞냇가라고 불렀다고 한다. 앞냇가 주위에 기름진 논밭이 있었고 또 더러미산 주위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학의 서식처가 되었고 덕돌보와 앞냇가가 내려다보이는 매봉재 산꼭대기에는 매가 서식하고 있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던 아낙네가 갓난아기를 치마폭에 눕혀 두고 한창 김을 매던 중에 커다란 매 한마리가 별안간 아기를 채어 간 것이다. 이후 이 동네 나무꾼이 매봉재 부근에 오르려는 순간 매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을 보고 갓난아기가 생각나 매봉재를 살금 살금 기어올랐다. 그곳에서 갓난아기가 무사히 살아 있는 것을 목격한 후 단숨에 마을로 내려와 이 소식을 전하였다. 아기를 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오르자 매들이 공격을 가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비산리 마장골 뒷산 매봉재와 학곡에 커다란 매들이 갓난아기를 채어다 키우고 있다는 것이 임금에게까지 전해져 군사를 보내 매들을 퇴치시키기로 하였다. 산에 올라가 보았더니 갓난아기와 커다란 매들은 온데간데없이 보금자리만 남았다고 전한다. 이후 매봉재와 학곡에는 매 한마리 나타나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고을 원님은 괴이하다 여겨 동네 이름을 매곡마을이라고 쳐 부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매곡지구에 해당한다.

③ 교회동의 유래

교회동은 안양초등학교 부근의 옛 이름인데, 지금의 안양초등학교 자리에 교회당이 라는 큰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 전한다.

옛날 이 마을에 가난한 부부와 아들이 살았다. 부부는 생계가 곤란하여 아들을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였지만 아들은 향학열이 매우 높아 굶더라도 서당을 기웃거리며 봉창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따라 혼자 공부하였다. 부모는 그 사실을 몰라 나무도

제대로 해 오지 않는다며 야단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서당 선생이 그 아들의 행동을 알고 감동하여 서당에 무료로 다니게 되었고 이후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게 되었다.

어전에 나아가서는 관직을 마다하고 고향에 내려가 향교^{鄕校}를 짓고 백성을 가르칠 뜻을 아뢰었고, 그에 탄복한 임금님은 큰 집을 지어주며 교화당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④ 서원촌^{書院村} 이야기

방죽마을 조광연 씨 부친의 11대조인 창강^{滄江} 조속^{趙洙}의 유덕^{遺德}을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들이 창강서원을 건립하였다. 그 부근에 민가 여섯 채 정도가 있었는데 도둑이 득실거리 온 마을이 함께 이사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서원촌에서는 나랏일을 논의하였는데,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서원촌들을 모두 철거하면서 그 후 재건하지 못한 채 서원촌의 주춧돌만 흔적으로 남아 있다.

⑤ 담배촌 이야기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였다는 최양업^{崔良業}의 아버지인 최경환^{崔京煥}을 비롯한 천주교도들이 당시 천주교 박해를 피해 1837년(헌종 3) 7월에 이주하여 담배를 경작하면서 생계를 이어 갔다고 해서 담배촌이라 부른 것이다. 최경환은 본래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논암리 사람인데, 큰아들인 최양업을 신부로 키우기 위하여 마카오로 유학 보내려고 고향을 떠났다고 한다. 협잡배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강원도 춘천을 거쳐 경기도 부평으로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수리산에 숨어들었다. 1839년(헌종 5) 기해박해로 포졸들은 수리산 골짜기를 샅샅이 뒤져 40여 가구에서 사람을 잡아가고 최경환은 부인과 아들까지 모두 일곱 식구가 옥에 갇혔다. 9월 11일 곤장 50대를 맞은 후 최경환은 숨을 거두었고 아내인 이씨는 그다음 날 참수되었다. 현재는 안양 9경의 하나로 만안구 병목안로 408(안양9동 1151-2) 일대에 수리산 성지, 최경환 성지 등이 조성되어 있다.

(4) 보조분류: 동물이나 인물, 인간의 행위

① 정씨와 그의 제자들

한양에서 몰락한 양반이 홀로 시골(현재 덕천마을)로 내려와 서당을 열었는데 언행이 모범이 되어 학동들의 존경을 받았다. 정씨는 집 앞에 배나무를 한 그루 심어 키웠는데 배가 많이 열렸다. 애지중지 키운 배나무라서 열린 배의 개수도 알 정도였다. 그러던 중 배

가 갑자기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학동들에게 물었으나 모른다 하여 직접 추적하기로 하였는데, 배나무에서 떨어진 배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하더니 내리막과 오르막을 계속 굴러 고개 넘어 어느 동네에 이르러 한 집으로 들어갔다. 이상한 생각에 그 집으로 들어가니 가련한 처자가 나타나 하룻밤을 보내면 자식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정씨는 양반의 도리를 생각해 화를 내며 돌아왔다. 얼마 후 정씨는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자식이 없어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이에 학동들이 땅을 사서 제사를 지냈으나 집이 너무 작아 인근 절을 사서 다시 잘 지은 후 매년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제보자: 유진영)

② 용 잡은 전설

관악산에서 쪽 내려오다 보면 나타나는 마을이 임곡마을인데, 옛날에는 그 마을 아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좋은 묘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지관이 그러한 곳이 있음을 알고 찾아와 유심히 살핀 결과 그곳이 장차 역적을 낳게 할 무덤인 것을 알게 되었다. 역적을 없애기 위해 무덤을 파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파게 하였더니 시체는 없는 빈 관만 있었다.



비산1동 임곡마을(1970년대)

지관이 근처를 살펴보니 무덤 아래 깊이가 꽤 깊은 연못이 있었다. 지관은 연못에 시체가 있을 줄 예감하고 물을 퍼내게 하였는데 물이 줄지 않았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곳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는 우물에 불을 놓아만 이 연못의 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지관이 우물에 불을 놓자 연못의 물이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연못의 물이 줄어들자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용 한 마리가 나타났다. 지관은 재빨리 용을 잡아 죽였고 그 후로 그 마을에서 역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한다.

(제보자: 이갑선)

③ 여우가 횡액(橫厄)을 알린 이야기

동네에 초상이 나려고 하면 그 며칠 전에 여우가 마을을 보고 ‘뽕뽕’ 울었다고 한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걸 피하려고 여우가 울면 빈 절구를 절구공이로 퐁퐁 쪼으며 “여우 주둥이 쪼는다. 여우 주둥이 쪼는다”고 했다. 그래도 초상을 피하지 못했는데, 여우가 영물이라 사람이 죽을 것까지 안다는 전설이다.

또 예전에 이 지역이 대부분 산골이었는데, 밤에 할머니들이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면 메뚜리(미뚜리)가 다 안 보였다고 한다. 찾아보면 모두 마당 한곳에 모여져 있었는데 여우가 한곳에 물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제보자: 권영남)

④ 호랑이에게 물려갈 뻔한 이야기

하루는 할아버지가 팽기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참 꼴을 베다가 꼴을 담을 망태를 찾으니 사라지고 없었다. 찾아보니 호랑이가 나무 위에 망태를 숨겨놓고 할아버지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 놀란 할아버지가 진정하고 호랑이에게 대뜸 나무라며 “신령님이 왜 사람들 눈에 띄십니까?” 하니 그 말을 들은 호랑이가 머쓱하여 슬금슬금 고개를 넘어 사라졌다고 한다. 예로부터 호랑이를 산신령님이라고 불렀다.

(제보자: 권영남)

⑤ 도깨비에 홀린 사내 이야기

옛날에는 도깨비가 많아 밤길을 가면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한다. 사내에게는 도깨비가 예쁜 처녀로 보여 밤새 따라다니게 되는데 한참 따라가다 보면 없어지고, 또 두리번 거리면 어느 틈에 나타나 결국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여기저기 헤매게 되었다. 장도를

찬 남자들은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겁이 덜컥 나서 장도로 처녀를 찌르고 놀라 도망을 쳤다가 사람을 죽인 것이 걱정되어 다음날 아침에 와 보면 그 자리에 싸리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한 노인은 인덕원 벌판에서 도깨비에 흘려 밤새 해매고 있는데 어디서 닭이 울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은 자리, 인덕원 벌판에서 밤새 해맸다고 한다.

(제보자: 권영남)

⑥ 박달동 범고개 이야기

옛날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고개를 범고개라고 불렀다. 어느 할아버지가 밤중에 고개를 오르는데 뭐가 확 지나갔는데 산짐승 같았다. 겁이 덜컥 나서 근처에 있는 나무를 꼭 붙들고 서 있으니 산짐승이 할아버지가 나무인 줄 알고 덤벼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사람은 공격하지 않은 것인데, 산짐승이 범인지 여우인지 알 수 없으나 노인은 무사히 고개를 건넜다.

⑦ 조상에 대한 효로 호피虎皮를 얻은 이야기

옛날 외딴 산골에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제삿날이 되어 두 내외가 집에 아이 둘만 남겨 두고 마을에 있는 큰덕으로 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집에 남은 두 아이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커다란 호랑이가 들어오려고 하였다. 호랑이는 몸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만 들이밀고 있었는데 큰아이는 호랑이인 줄 알고 무서워하였지만 작은아이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을 보고 “저게 웃는다. 저게 웃는다” 하였다.

호랑이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니 작은아이는 화로에 있던 젓가락으로 숯덩이를 집어 호랑이의 입에 넣어 주었다. 너무 뜨거워 호랑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무척 괴로워하자 작은아이가 “저것이 또 달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숯덩이를 입에 자꾸 넣어주다 보니 날이 새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도 부부는 폭설로 집에 금방 가지 못했다가 온 마을 사람들이 눈을 쓸어 간신히 길을 내 집에 도착해 보니 큰 호랑이가 창문에 머리를 들이밀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이들이 모두 죽었을 줄 알았는데 정작 문을 열고 보니 모두 무사하였다. 작은아이는 호랑이가 자꾸 막 뒤통을 달라고 해서 입에 자꾸 넣어 주었더니 대가리를 흔들

다가 아무 소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들 부부는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 호피를 비싼 값에 내다 팔고 밭을 사고 집 한 채를 사서 산골을 떠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을 극진히 모신 부부에게 조상이 복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보자: 강금순)

⑧ 죽은 아이의 손이 불을 쥘 이야기

하루는 어떤 남자가 술이 잔뜩 취해 고개를 넘다가 담배나 한 대 피우려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잠깐 잔대미(잔디) 위에 놓으니 겨울이라 바싹 마른 잔대미에 호롱호롱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चु기도 하여 잔대미를 모아 불을 지피고 한참 손을 쥘고 있으니 그 주위로 아이들의 손이 빙 둘러싸고 “불 좀 쥘어야지, 불 좀 쥘어야지” 하면서 불을 쥘었다. 일찍 죽은 아이들의 혼이 몸뚱이는 나타나지 않은 채 손만 나타나 불을 쥘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홍역이나 마마(천연두) 등으로 아이들이 죽는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일찍 죽은 아이가 귀신이 되어 산을 헤매다가 불을 보고 웅기종기 모여든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가 죽으면 봉분을 하지 않고 평평하게 묘를 썼는데 배고픈 여우들이 그 묘를 파헤쳐 아이의 시신을 끌고 다니거나 먹었다고 한다.

(제보자: 복진화)

2) 구비단문

일반적으로 속담이나 수수께끼 그리고 민간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속신어 등이 구비단문에 속한다. 속담은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으로 보통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된다. 사회적인 산물로 시대에 따른 사회상이나 우리 민족의 생활 철학을 반영하고 향토성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속신 혹은 속신어는 민간에서 공통적으로 가진 믿음이나 신앙을 말하는데, 속담이 비유적이라면 속신어는 직설적인 표현을 주로 쓰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술성이나 신앙심을 가지는 것도 있고 “~하면 ~한다”와 같이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도 흔하다.

안양 지역에서만 특별히 전해지는 속담이나 수수께끼, 속신어 등이 있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안양 지역에 관한

것이 포함된 구비단문을 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속담

① 금과천 나무장수인가

금과천, 즉 금천과 과천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안양의 옛 지명이다. 과거 서울에서 쓰이는 땔감 나무를 주로 공급하던 곳이 금천과 과천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옛날 금천과 과천의 나무장수들과 흡사하다고 해서 생긴 속담이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 다니는 것을 말한다.

나무장수들이 서울 남대문까지 도보나 배편으로 가려면 약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새벽장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개 새벽 2시쯤 출발해야 했다. 나뭇단을 어깨에 매고 과천을 지나 남태령을 넘으려니 때로는 호랑이나 산짐승, 산적을 만나기 십상이어서 때를 지어 왈자하게 몰려다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과천 나무장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때를 지어 텨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셈이다.

② 안양 사람은 제 부채를 들고서도 다른 사람의 부채 부치는 데 가서 고개를 내민다

③ 안양 사람은 (남에게 바람이 같카봐) 부채를 부치지 않고 대신 고개를 젓는다

다른 지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안양 사람들의 기질을 말하는 속담이다. 두 가지가 결국 같은 의미인데, 뒤의 것이 나중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②는 자신의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득을 얻으려는 약삭빠른 성격을 말한다면, ③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오히려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안양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에 관한 속담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큰데 이 속담의 경우가 해당된다. 보통 지역의 인심이 과장되거나 회화화되어 속담으로 정착되는 경우인데 다른 지역 속담에도 많이 나타난다.

(2) 속신어

안양과 관련한 속신어는 다른 구비단문에 비해 많은 편인데, 속신(俗信)은 민간에 전하는 미신적인 신앙 관습을 말한다. 정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전해지면서 쌓인 믿음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나쁘거나 위험한 것을 굳이 고집하지 않

고 피함으로써 화를 입지 않으려는 경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속신어 역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있지만 안양 지역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안양 지역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① 안양에서 큰소리치면 죽는다

안양은 타향 사람이 기를 펴기 힘들 정도로 지기가 강한 지역이라는 것인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안양에 와서 잘 정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 안양으로 관직을 얻어 온 사람이 큰소리를 치면 망해서 나간다거나 죽는다는 믿음, 타지 사람이 안양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성공하지만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오히려 망한다는 믿음 따위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속신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두루 발견되는데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에 기반한다. 토착 원주민끼리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인이 자신의 힘과 재물을 믿고 큰소리를 치며 행세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② 안양에 와서는 6년이 지나야 부자가 된다

③ 안양은 6년 터다

안양이 6년 터이기 때문에 안양에 와서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6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에서 터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왜 6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④ 음식은 안양이다

수십 년 전부터 안양에는 여러 기업(대농방직·금성방직·벽산·고려석면·유유산업·유한양행·동화약품·금성통신·대한전선·조선직물 등. 현재는 이 중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이전하여 없다)이 있었기 때문에 고급 음식점들이 생기게 되었다. 서울과 인접하여 교통이 좋고 관악산, 수리산, 안양 유원지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국에서 몰려온 손님들로 음식점이 호황이었다고 한다. 서울에도 안양만큼 고급 음식점 많은 곳은 없다는 속설까지 생겼다.

현재는 평촌 먹거리촌을 비롯하여 인덕원이나 비산종합운동장, 안양1번가 등에 음식점 거리가 활성화되어 있다.

⑤ 관악산은 소금강小金剛이다

관악산은 빼어난 명산으로, 그 산세가 금강산의 풍광에 견줄 정도로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⑥ 관악산은 남자산이고 수리산은 여자산이다

⑦ 수리산은 암탉산이다

관악산과 수리산은 안양의 중요한 두 산으로 그 성격이 반대되는 점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관악산은 주로 표면이 돌로 이루어진 돌산으로 단단한 바위에서 남성적 기개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수리산은 고운 흙으로 이루어진 흙산으로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볼 수 있다. 산을 오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아도 관악산은 바위가 많아 오르기 어렵고 모래가 많아 미끄러지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악산은 아주 매정하고 정이 안 붙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반면 수리산은 흙이 많아 오르기 훨씬 수월하다.

또 비가 오면 관악산은 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순식간에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샘물이 고이지 못하고 개울도 잘 형성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수리산은 수원이 많은 편이고 넘치지 않으면서도 항상 많은 물을 간직하고 있다. 수리산을 여자산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으로 물의 이미지가 여성으로 상징되는 것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수리산을 암탉에 비유한 것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암탉이 가지는 풍요로움을 생각하면 긍정적 의미로도 볼 수 있다.

⑧ 관악산은 벼슬산이고 수리산은 역적산이다

산봉우리의 모양과 관련된 속신으로, 관악산의 봉우리는 주로 서울을 향하고 있는 반면 수리산의 산봉우리는 주로 서울을 등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관악산은 서울을 향해 절을 하는 관리의 모습을, 수리산은 서울에 등을 돌리고 있는 역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관악산의 ‘관’ 자체가 ‘관을 쓴 산’, 즉 벼슬을 한 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조선 창건에 반대했던 고려 유신들이 주로 내려와서 살았던 곳이 안양이었다는 점, 조선 후기 영·정조대 안양과 수원 지역에 실학자들이 주로 모여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현대로 내려오면 주로 야당 인사가 안양에 많이 모이는 것도 볼 수 있다.

⑨ 관악산 사찰을 둘 때 짚신을 세 켤레 가지고 간다

관악산에는 사찰이 많고 또 산도 넓기 때문에 짚신을 세 번 갈아 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막사 일주문, 삼막사 등에서 갈아 신는다고 보면 결국 관악산을 둘 때 짚신 세 켤레가 필요한 셈이다.

⑩ 관악산에는 칩이 없다

관악산은 돌산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드는 칩이 자라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 관악산에 도사가 한 명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관악산에 사는 여우였다고 한다. 어머니, 즉 여우가 관악산을 뛰어다니다가 번번히 칩냉쿨에 걸려 넘어지자 아들인 도사가 도술을 발휘해 관악산의 칩냉쿨을 모조리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⑪ 충훈부는 조리혈이다

충훈부는 쌀을 이는 조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실제로 지기地氣도 쌀이나 재물을 끌어오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충훈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을 조리혈이라고 불렀고, 동네가 조리나 삼태기 모양이었기 때문에 충훈부에 들어오면 궁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속신이 생기게 된 것이다. 반대로 충훈부에 살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속신도 생겼다.

⑫ 갈미봉에 비 들어온다, 명석을 뚫뚫 말아 세워라

갈미봉은 모락산의 연봉인데 갈미마을을 내려다보는 형국이다. 명석은 맑을 때는 곡식을 말리거나 앉아서 생활하기 위해 펴 놓지만 비가 오면 말아서 세워 둔다. 갈미 사람들이 갈미봉 봉우리에 구름이 끼었다 걷혔다 하는 모양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을 것인데, 이 풍습이 이어지다가 속신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⑬ 안양은 금소반이요, 달안동은 오씨의 천년 도읍지이다安養金小盤 吳達安洞千年之地

달안동에 전해 내려오는 속신인데 오씨吳氏가 달안동을 도읍으로 삼아 천년 동안 지배한다는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 유행했던 수많은 도참설 중 하나인데 실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안양은 금으로 만든 소반이라는 구절이 있어 안양을 신성한 땅으로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달안동이 달풀이 있는 내천의 안쪽이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풍요의 상징인 물과 그 물이 많은 달안동은 풍요의 땅이 되는 셈이어서 이런 속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⑭ 보통 사람이 말을 타고 군자봉 앞에 가면 말굽이 붙어서 말을 내려야 했다

옛날부터 안양 사람들은 군자봉을 가장 영험한 산으로 인식했는데 이 지역에 무속인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이다. 여전히 신주를 모시던 흔적이 남아 있고 무속인들이 계속

찾아들고 있다.

원래 말을 타고 가다가 내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데, 군자봉은 영험한 산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즉 아주 영험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자봉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경외심을 볼 수 있다. 말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려야 하는 것은 고전 서사에서 흔히 등장한다.

⑮ 군자봉 사람한테는 장가 안 든다

군자봉에는 무속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군자봉을 정성껏 모셔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으며 만일 군자봉을 받들지 않으면 자식이 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등 집안에 액운이 든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무속 신앙은 보통의 종교와 달리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접촉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장가 안 든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당시 군자봉에 대해 안양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

3) 민요

민요는 민중이 삶의 필요에 따라 불려온 노래로 스스로 즐기고 만족하기 위해 부른다. 따라서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도 가창자가 될 수 있고, 지역적·계층적으로 그 고유성이 강하게 유지된다. 가창 방식에 따라 혼자 부르면 독창, 함께 부르면 공동창인데 후렴이 있는 노래를 부르는 선후창, 두 패로 나뉘 번갈아 노래하는 교환창, 한 사람의 선창자를 따라 후창자 또는 후창자들이 따라 부르는 복창, 선창하는 사람이 시작하면 바로 이어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제창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²

안양의 민요는 1992년 『안양시지』 민요편 작성을 위해 1984~1989년 전국 읍면별 방문 조사 기초자료와 1991년 안양 지역을 방문 녹음한 민요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보통 민요는 기능에 따라 노동요·의식요·유희요¹³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양 지역에서는 어업노동요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민요가 수집되었다.

(1) 모심는소리

안양의 모심는소리는 ‘갯은 열소리’ 계통으로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박달동에서는 하나부터 여덟까지 센다거나, 석수1동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센다거나, 관양1동에서는 줄모를 심을 때 저쪽 편에서 심어 오는 사람과 만나면 열까지 세기 전이라도 다시 하나로 시작하거나, 서른까지도 센다는 등이 그것이다.

(2) 논맴소리

대체로 6·25전쟁 전까지는 직접 소리하면서 논을 맴었는데 두레논매기를 할 때 선소리꾼이 북을 등등 쳐 가며 소리를 했다. 관양동 부잣집의 논을 맴 때면 열댓 명이 함께 작업하였고 소리도 했지만 가난한 집의 논은 두세 명이 맴기 때문에 따로 노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양 지역의 논맴소리에는 니나노 방아타령·방아타령·우겨라 방아, 째른 상사류, 방아소리, 몬돌소리, 우야소리, 긴소리, 양산도, 기타 등이 발견된다.

(3) 채석요, 집터다짐소리, 활쏘기 소리, 베틀노래 등

① 채석요, 대꼬질소리

채석요는 석수동 채석장에서 쇠파로 징을 때리며 하던 소리이다. 받음구는 “산이야”이고, 메김구는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로다” 다음에 “황해도 봉산 지역은 인심이 좋아서 노랑돈 서푼이면 큰아기 열둘이나 얻을 수 있다”와 같이 불렀다.

큰 돌덩이를 지렛대로 들어 올릴 때 부르는 소리를 대꼬질소리라고 하는데, 받음구는 “에- 산이다, 이여사”이고, 메김구는 “지렛대 주사들 지렛대 대여라”와 같이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② 집터다짐소리

경기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지경류·지점류·지점류 등이 불리는데, 안양 인근에서는 거의 지경류로 집터를 다졌다. 받음구는 “에-여라 지경이요”이다.

③ 활쏘기 소리

안양 지역에서는 일 년에 세 차례 활쏘기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과녁에 화살을 맞추면 기생들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고 한다. 안산 활터에서는 의관이 과녁에 정통하면 “(이)의관 영감, 일시에 관중이오-”라고 외치고는 지화자를 불러 주었다. 호계 활터에서는 일반 회원이 과녁에 정통하면 “(아무개) 씨, 일작 정통-” 하고 외치며 4개 이상 정통할 경우 지화자를 불러 주었다고 한다.

④ 베틀노래

안양의 일반 베틀노래 중 ‘월궁에 노던 선녀’ 또는 ‘천상에 노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무료하여 옥난간에다가 베틀을 차린다는 서두 부분이 생략된 채 바로 “베틀다니는 네다리요”로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베틀노래에서는 베틀의 구조와 부위를 조목조목 나열하지만, 안양에서는 잉아대·눌림대·비기미만 언급한다.

그 밖에 물품기, 소부림말, 콩밭매는노래, 디딜방아노래 등이 안양 지역에서 불렸다.

(4) 동요, 흥민요

① 동요

전래 동요로는 다리헤기(“한가래 두가래 대청가래 고두래 뽕”), 돌이 된 아기의 다리를 튼튼히 하려고 두 팔을 잡아 앞에 세우고 좌우로 흔들며 부르는 ‘불아’ 등 애기어름소리, 자장가, 연날리기, 잠자리동요, 팽이돌리기, 동대문놀이, 통타령 같은 말이음 동요, 파랑새, 내 복장 치고, 천자문 외우기 등이 있다.

이 중 잠자리를 잡으면서 부르는 잠자리 동요는 “잠자리 퐁퐁 저리 가면 죽는다, 이리 오면 산다”와 같이 불러 잠자리를 유인하는데, 파리나 모기를 넣어 바꿔 부르기도 한다.

② 흥민요

국문뒷풀이, 그네노래, 각설이, 달거리, 담바구, 범벅타령, 사촌성님, 아리랑류, 유산가, 이태백이 노던 달아, 진국명산, 첩의 집은 꽃밭, 창부타령, 노랫가락, 양산도 등이 수집된다.

1991년 민요조사에 따르면 안양시 토착민 중 70세가 넘는 농민층에 알려진 아리랑은 일반(서울)아리랑이라고 한다. 사촌성님은 시집살이노래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유

형의 것이 발견되었다. 범벅타령은 1925년경에 지어진 노래로 각 달마다 “정월에는 꿀범벅, 2월 씨라기범벅, 3월 쭈범벅, 4월 느티범벅, 5월 수루치범벅, 6월 밀범벅, 7월 호박범벅, 8월 송편범벅, 9월 귀리범벅, 10월 무시로범벅, 동짓달에는 동지범벅(새알심범벅), 설달에는 흰떡범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도령은 본낭군이요 김 도령은 훗낭군”으로 이어 가면 구범벅타령, “오다 가다 만난 님은 꿀떡이 장반에(쟁반에) 메물범벅”으로 시작하면 신범벅타령이라고 구분한다.

(5) 상부喪夫소리

대표적인 의식요로는 운상運喪소리나 회다지소리 같은 상부소리 외에도 비손, 달님절하기, 우물고사 등 농악고사소리, 무가 곡풍의 대감풀이 등이 민간에서 불렸다. 탈이 났을 때도 경우에 따라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서 탈이 나면 목살경木殺經, 집에 흙을 발라 탈이 나면 동토경動土經, 초상난 집에 다녀와 탈이 나면 새끼 일곱 매끼를 묶어 허수아비를 만든 후 삼거리에 나가 헛장사를 지내고 허수아비를 묻으며 “어허리 달고”만 3~4회 복창하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 『한국민속의 세계』 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강희맹, 『금양잡록』.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김영진, 『조선시대전기농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안양문화원, 『안양답교놀이』.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2008.
 정재호, 『한국민속의 세계』 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註

- 1 이 장은 『안양시지』(안양시지편찬위원회, 1992)와 『안양시사』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를 저본_{底本}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급격한 도시화와 서울 인근의 주거 도시로 안양 시민의 상당수가 이주민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구비전승 문화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양시지』(1992)와 『안양시사』 2(2008)를 바탕으로 하되, 최근 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다만 현재와 다르거나 어색한 표현, 어휘, 지명 등은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 2 이 조사 당시 『금양잡록_{衿陽雜錄}』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 책은 조선 초기 강희맹_{姜希孟}이 지은 농서_{農書}, 성종_{成宗} 때 금양_{衿陽}에 은퇴해 있을 당시 자신의 경험과 견문을 토대로 농경 방법을 저술한 책으로, 연산군 때 간행되었다. 목판본으로 1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양’이라는 지역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오늘날의 과천·시흥·안양 등 한강 이남 지역, 즉 안양 인근과 일치한다고 보인다. 당시 조사와 집필을 담당하였던 주강현 교수에 따르면 『금양잡록』의 내용과 당시 안양시에서 조사된 많은 풍습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 3 두레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 중에 농악이 있다. 농악 있는 두레는 작업을 하러 갈 때 농기를 앞세우고 장구·꽁다리·북을 풍물재비들이 치며 간다. 김멜 때는 장구재비 혼자만 소리를 하면서 풍물을 잡는다. 농악의 연주와 무악의 형식 중에서 농기풍은 논농사의 노동 과정을 흥내내며, 삼베길쌈하기는 여장을 한 무동들이 부녀자의 공동마작_{共同麻績}을 흥내낸다. 농악의 ‘선왕굿’은 서낭제_{城隍祭}의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제의_{祭儀}와 노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농악은 노동의 고통을 경감시켜 더욱 힘을 내게 하고, 협동심을 북돋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4 제웅: [민속] 짐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 음력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제웅직성이 든 사람의 옷을 입히고 푼돈도 넣고 이름과 생년을 적어서 길가에 버림으로써 액막이를 하거나, 무당이 앓는 사람을 위하여 산영장을 지내는 데 쓴다.
- 5 제웅직성_{直星}: [민속] 사람의 나이에 따라 운명을 맡아본다는 아홉 직성_{直星}의 하나. 흉한 직성으로, 남자는 열 살, 여자는 열한 살에 처음 들며 9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한다.
- 6 한식_{寒食}: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 민간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_{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 7 시제사_{時祭祀}: 흔히 시제라고 한다.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
- 8 강진옥, 『한국민속의 세계』 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51쪽.
- 9 강진옥, 『한국민속의 세계』 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65-69쪽.
- 10 『인물로 본 한국학 인맥』, 『조선일보』, 1969년 9월 18일.
- 11 현재 호암사는 서울구 금천구 시흥2동 234에 위치하며, 풍수적으로는 조선 개국 당시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창건한 사찰이며 1391년(태조 2) 무학대사가 창건하였다. 호암사 홈페이지(<http://www.hoapsa.org>) 참조.
- 12 정재호, 『한국민속의 세계』 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52-57쪽.
- 13 정재호, 『한국민속의 세계』 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71-81쪽.

집필(가나다순)

강병학	재)한양문화재연구원 이사장/원장
김기영	위례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창현	전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의교수
박동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
박철하	지역사 아카이브 연구소장
엄기표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 교수
이경덕	한양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연구교수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이우석	전 건국대학교 강사
이은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안양대학교 명예교수)
이현희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동민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요근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조석곤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차선헤	화성시연구원 화성학센터장(직무대행)

기획총괄

김지석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구본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편집

구본태, 박소영

교정·교열

이우석, 김지석

안양시사 02 **역사와 지역사회**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11-9

ISBN 979-11-94861-09-6 (세트)

